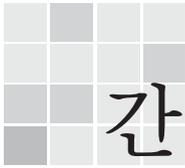


해외수집기록물 번역집 Ⅱ : 미국 포드 대통령 도서관 소장 기록물

1970년대 한미관계(하)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간행사

국가기록원은 국가기록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중요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보존하여 국민들에게 다양한 기록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입니다.

국가기록원은 기록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증가에 따라 다양한 기록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 및 민간기록물을 대상으로 콘텐츠 구축 및 편찬 등 기록물 활용사업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화 시대의 흐름으로 해외소재 한국관련 기록물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해외기록물의 수집 및 활용 관련 사업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그 간, 국가기록원은 미국·일본을 비롯해 러시아·중국·몽골 등에서 10만 건 이상에 달하는 방대한 한국관련 기록물을 수집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집 해외기록물 중 일부를 선별하여, 번역집·해제집 간행, 콘텐츠 구축 등의 활용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에 따라 2002년에는 한국전쟁 당시 한·중 관계를 조망할 수 있는 번역집 「한국전쟁과 중국」을 발간하였고, 2006년에는 미국 케네디 대통령 기념도서관 소재 기록물을 활용해 「1960년대 초반 한미관계」번역집을 발간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미국 포드 대통령기념 도서관에서 수집된 기록물을 활용해 「1970년대 한미관계」번역집을 발간하고자 합니다.

이 번역집은 1971년부터 1976년까지의 한·미와 한·일 외교는 물론, 한국의 정치·경제·사회·외교 등 다양한 시대상황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집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2006년 발간된 번역집과 함께 한국현대사 연구에 유용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국가기록원은 해외에 소재한 한국 관련 기록물을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이들 기록을 활용한 서비스 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번역집이 나오기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신 고려대학교 정일준 교수님을 비롯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2008년 12월
국가기록원장

화보



● 박정희대통령 방미기념행사에서 환호에 답례하는 모습, CET0019904(5-1) ●



● 박정희대통령 방미기념행사에서 환호에 답례하는 모습, CET0019904(5-1) ●



● 박정희대통령 포터 주한미대사 이임 접견담화, CET0020405(3-1) ●



● 박정희대통령 포터 주한미대사 접견약수, CET0020405(1-1) ●



● 박정희대통령 주한미7사단 이한고별식 참석약수, CET0023033(4-1) ●



● 박정희대통령 주한미7사단 이한고별식 참석 훈장수여, CET0023033(2-1) ●



● 김중필국무총리 한미안보회의 미국대표 접견담화, CET0035820(1-1) ●



● 김중필국무총리 한미안보회의 미국대표 접견약수, CET0035820(3-1) ●



● 키신저 미국무장관 하비브 주한미국대사 소개로 환영인사와 악수, CET0043399(4-1) ●



● 박정희대통령 키신저 미국무장관 접견담화, CET0025325(4-1) ●



● 박정희대통령 포드 미국대통령 환영약수, CET0027072(10-1) ●



● 박정희대통령 포드 미국대통령 접견담화, CET0027072(12-1) ●



● 포드미대통령 방한 시가퍼레이드, CET0039365(96-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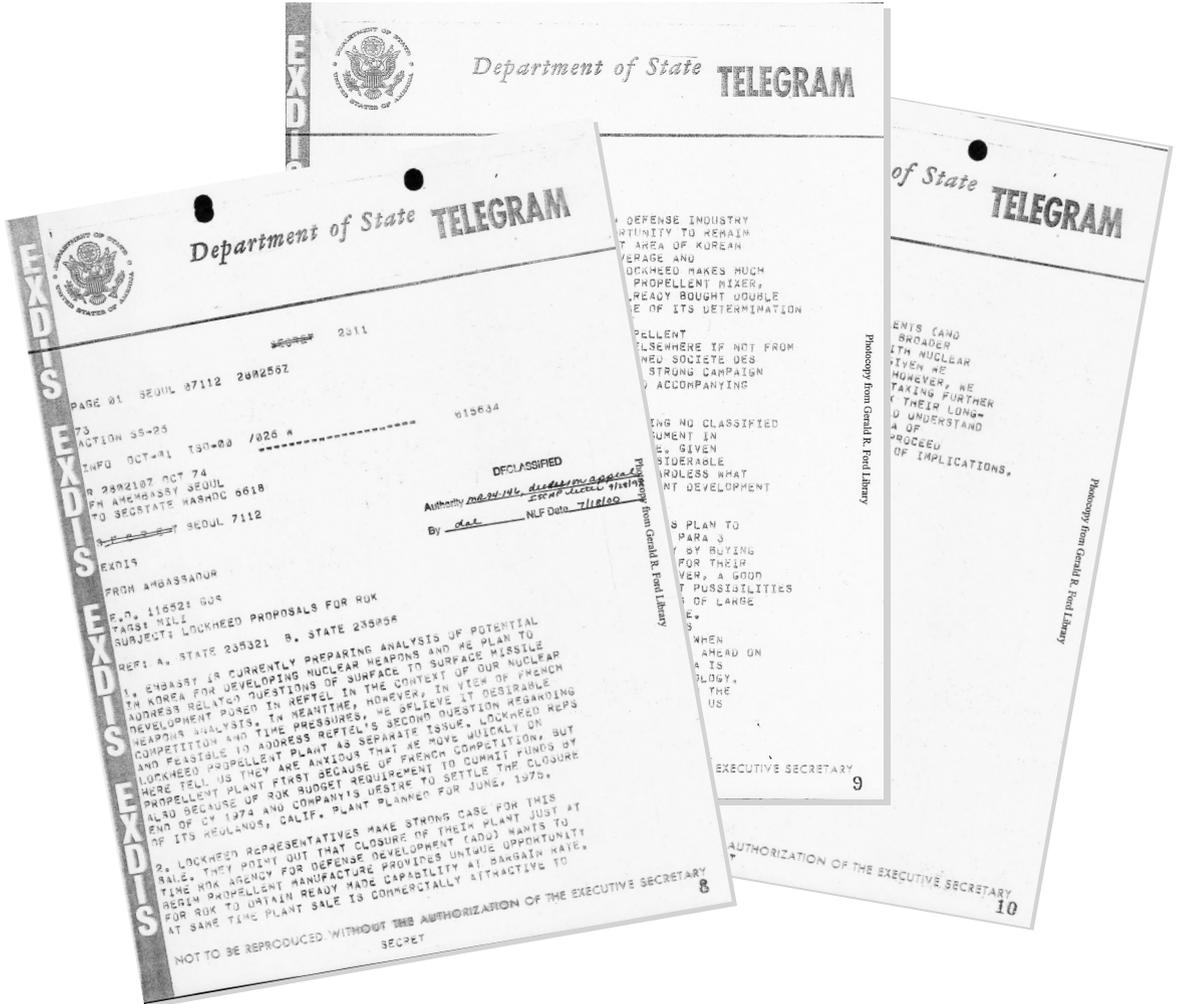
● 포드미대통령 미2사단 시찰, CET0039368(5-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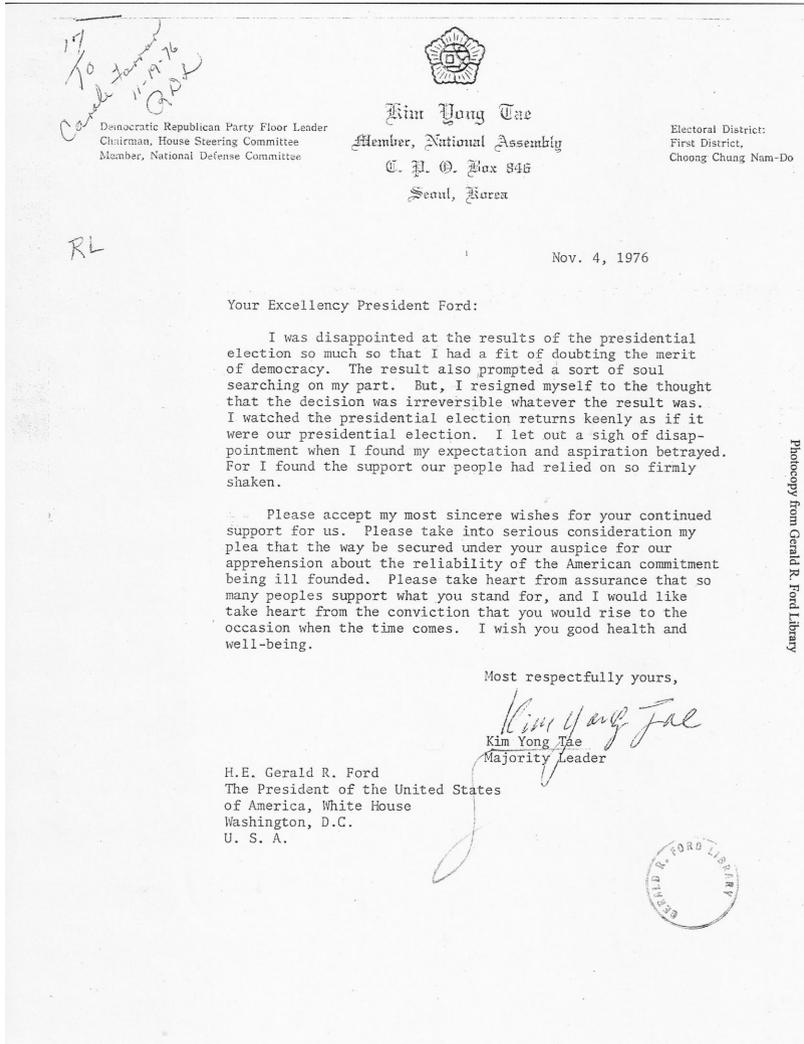
● 박정희대통령 슬레전저 미국방장관 접견약수, CET0064912(3-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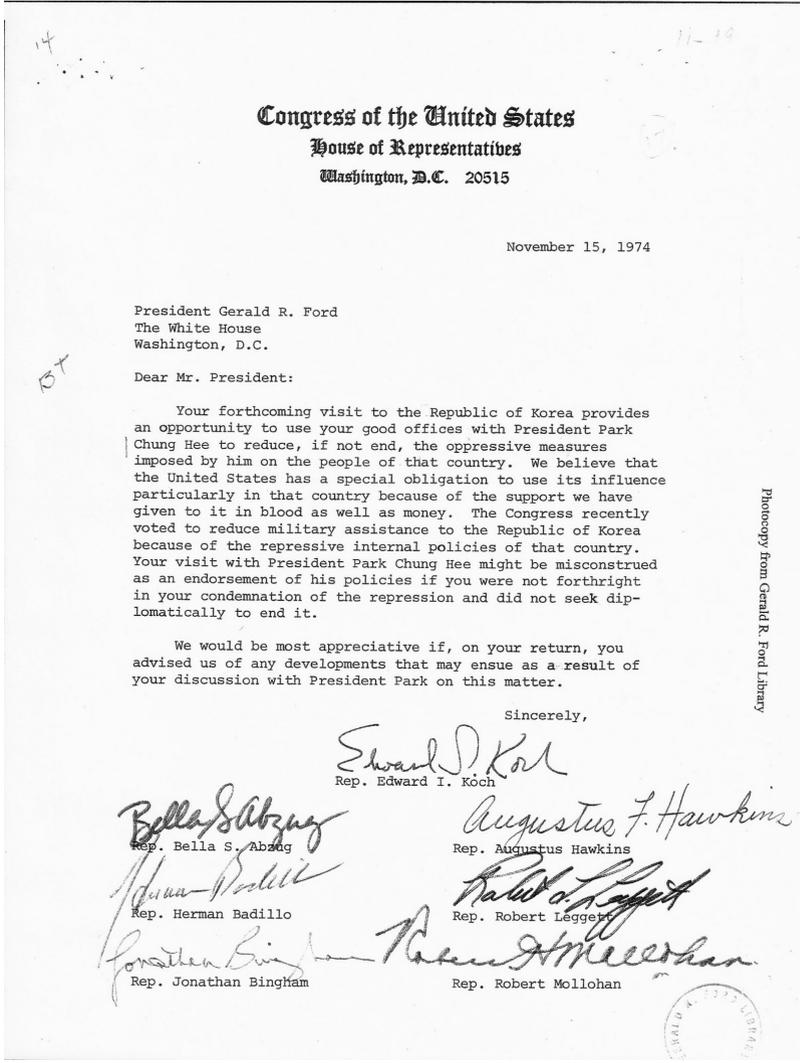
● 슬레전저 미국방장관 박정희대통령 예방시 방명록 서명, CET0064912(9-1) ●



- 서울 미대사관에서 국무부장관에게 보낸 전문(1974.10.28), CTA0000767
 - 록히드사가 추진연료 생산기술과 설비 등을 한국에 판매하려는 상황에 대한 보고 및 제안



- 김용태(한국 공화당 원내총무)가 Jerry Ford(미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신(1974.11.04.), CTA0000786
 - 대통령의 한국정부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 요청



■미 의회 하원들이 Jerry Ford(미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신(1974.11.15.), CTA0000778
 -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한 하원의 군사 지원 예산 삭감 결의

MEMORANDUM

NATIONAL SECURITY COUNCIL

~~CONFIDENTIAL ATTACHMENT~~

317

INFORMATION
January 15, 1976

MEMORANDUM FOR: BRENT SCOWCROFT

FROM: THOMAS J. BARNES

SUBJECT: Ambassador Kintner's Study of U. S.
Policy Interest in the Asian-Pacific
Area

Former Ambassador to Thailand William R. Kintner recently completed a study on "U. S. Policy Interests in the Asian-Pacific Area." The study is voluminous. He forwarded to you the Executive Summary of 10 pages and the Summary Report of 76 pages under cover of an October 31 letter. State recalled the study -- which Professor Kintner had also sent to the Vice President, Mr. Rumsfeld, and John Marsh -- because it had not yet cleared it. State has now completed the clearing process, and your copy arrived today.

The study is a notable achievement in that it is the first comprehensive review of our Asian posture. While many of its judgments are sound, it reflects much of the traditional hard-line Kintner approach about the Soviet Union, which features more prominently than actual Soviet presence and influence in Asia would dictate.

You might peruse the Executive Summary and glance at the one-page table of contents of the Summary Report. If you wish to pursue any of the topics in the table of contents, I will be glad to send them across the street. I have a complete edition of the study which occupies a third of a file drawer.

There is no need to answer Professor Kintner's cover letter. You will acknowledge receiving the study in another letter to him that deals principally with a request to reestablish the NSC research contract with the Foreign Policy Research Instit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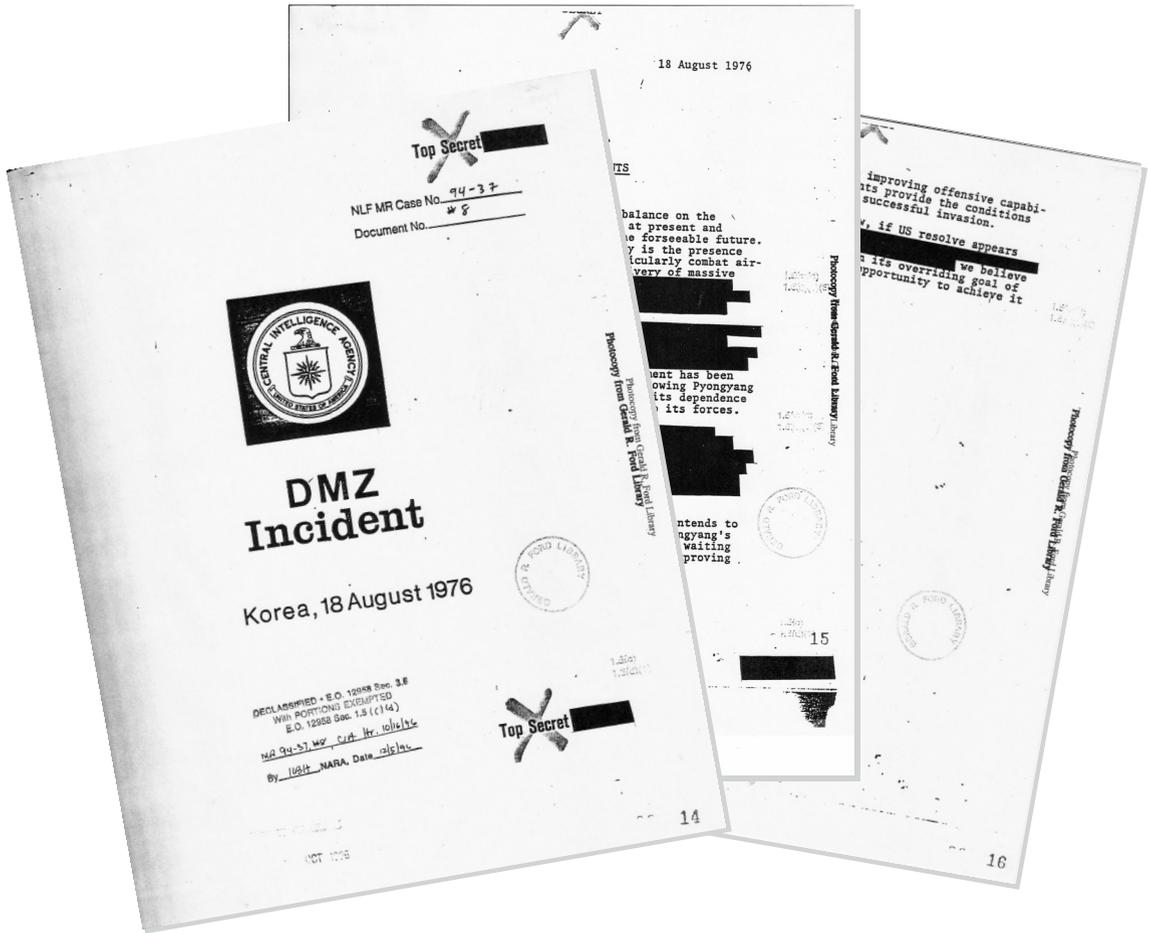
~~CONFIDENTIAL ATTACHMENT~~

1

Photocopy from Gerald R. Ford Library

■ Thomas J. Barnes가 Brent Scowcroft(백악관 군사보좌관)에게 전달한 비망록(1976.1.15.), CTA0000790

- 킨트너 대사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정책적 이해에 관한 연구



■ 상황보고를 위한 문서(1976.8.18), CTA0000791
- 한국 비무장지대(DMZ) 사고(도끼만행사건)에 대한 보고서

6712 2

MEMORANDUM

NATIONAL SECURITY COUNCIL 65

~~CONFIDENTIAL~~ - GDS INFORMATION

January 5, 1977

MEMORANDUM FOR: BRENT SCOWCROFT 10

FROM: ROBERT B. PLOWDEN, JR. MBP

SUBJECT: Foreign Military Sale to Korea

The Department of Defense is prepared to make prenotification to Congress of a proposed Foreign Military Sale to Korea of tank conversion kits valued at \$61.7 million to convert M48A1 tanks to the M48A3 configuration (Tab A). Prior to its adjournment, Congress was notified of our intention to sell 421 M48A1 tanks to Korea, and no objection to that sale was interposed during the statutory review period.

Perceiving no objection to this sale on policy grounds, I have notified the Department of State of our concurrence in the prenotification.

C
Bill Gleysteen and Cathie deSibour concu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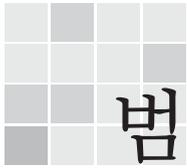
Photocopy from Gerald R. Ford Library

Subject to GDS of E.O. 11652.
Automatically Declassified on
December 31, 1983.

~~CONFIDENTIAL~~ - GDS CONFIDENTIAL

b6 6/7/01

- Robert B. Plowden, Jr.이 Brent Scowcroft(백악관 군사보좌관)에게 전달한 비망록(1977.1.5.), CTA0000737
 - 탱크 및 전환장비 등 한국에 대한 대외군사 판매 관련 내용



범례

- 1) 이 번역집은 포드 대통령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한국관련 기록물들 중에서 주요 기록물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다.
- 2) 번역은 가능한 한 원문의 형식과 내용에 충실하게 하였으며, 원문 자체에 형식의 일관성이 결여된 부분이 일부 있으나 사실성을 위해 원문과 동일하게 표기하였다.
- 3) 본문의 구성은 원문서 내용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이사회, 국방부, 국무부, 백악관, 연방준비제도이사회 파일로 구분하고 각각을 일자 순으로 정리한 후 상·하권으로 분리하여 수록하였다.
- 4) 구성의 일관성을 위해 각 문건 첫 머리에 문서형태, 일자, 발신, 수신, 출처정보, 관리번호를 필수항목으로 하여 관리정보로 표시하였다.
- 5) 관리정보 중 발신 및 수신 대상이 인물인 경우, 되도록 이름과 직위를 함께 기입하였으며 각 문건에 국가기록원 관리번호와 원문서 출처정보를 표기하여 해당 기록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 6) 출처정보의 경우 원문에 기입된 발신기관명과 고유번호를 밝혀 적되 출처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는 “-”으로 공란처리 하였다.
- 7) 원문에 제목이 있는 경우 제목을 그대로 번역하여 유지하였고 제목이 없을 경우에는 내용을 유추할 수 있도록 임의의 제목을 부여하여 “[제목]”으로 표기하였다.
- 8) 해당 기록물에 중요한 첨부문서가 있을 경우 점선으로 구분하여 가능한 한 연달이 수록하였으나, 일부 문서는 결락되었다.
- 9) 검열로 인해 내용이 삭제되었거나 원문서 자체에 삭제된 부분이 있을 경우 “(삭제)”라 표기하였다.
- 10) 지명과 인명은 「한글외래어표기법」에 준하여 표기하였고, 기관명과 단체명 그리고 일부 전문용어는 괄호 안에 원어를 병기하였다.



하권차례

■ ■ ■	간행사	i
■ ■ ■	화보	ii
■ ■ ■	범례	xvi

제3부 국무부 파일(Department of State)

▷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 아서 F. 번스의 방문(1970.4. 전문) ...	3
▷ [인권 문제와 대외정책](1974.6.27 편지)	3
▷ [대외 지원 조치의 섹션 32와 인권 개선 노력](1974.7.28 편지)	6
▷ 대통령 교서(1974.8.9 전문)	8
▷ 대통령의 애도 메시지(1974.8.15 전문)	9
▷ 박여사의 장례식(1974.8.16 전문)	10
▷ 입법관련 부처간 회의의 건(1974.8.17 비망록)	10
▷ 유엔총회에서 한국 문제(1974.8.20 전문)	34
▷ 대통령 방문(1974.9.17 전문)	35
▷ 주한 미합동군사령부의 인력감축(1974.9.19(추정) 비망록)	35
▷ 대통령에게 보내는 축하 메시지: 한국(1974.9.20 비망록)	36
▷ 김 외무장관의 국무부 장관 방문(1974.9.28 전문)	36
▷ [다니엘 지 주교 조작사건과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 대통령의 방한계획에 대한 반대](1974.9.30 편지)	38
▷ 남북 대화(1974.10.4 전문)	39
▷ 한국 관련 현안 보고서(1974.10.19 비망록)	40

▷ 주한 미합동군사업무단의 인력 감축(1974.10.28 비망록)	40
▷ [수행 요청에 대한 거절](1974.10.31 편지)	41
▷ 대통령의 한국 방문 수행 제안(1974.11.1 비망록)	41
▷ 키신저 장관의 중국 방문(1974.11.10 전문)	44
▷ 대한민국으로의 F4D 전투기 판매(1974.11.21 비망록)	45
▷ 대통령 방문: 공동 성명의 건(1974.11.21 전문)	46
▷ 첨가사항 첨가된 수정본(1974.11.21, 전문)	49
▷ 유엔병력철수감시군(UNDOF) 확대(1974.11.21 전문)	51
▷ 블라디보스토크와 베이징 방문(1974.12.6 전문)	52
▷ [대한민국 대통령 박정희가 미합중국 포드 대통령에게 보내는 메시지] (1974.12.10 전문)	54
▷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하려는 한국의 계획(1974.12.11 전문)	55
▷ 박정희 한국 대통령이 대통령에게 보낸 메시지의 건(1974.12.26 비망록)	55
▷ F4D 전폭기의 건(1974.12.27 전문)	56
▷ 워싱턴을 방문하고자 하는 김(Kim) 외무장관의 희망(1975.1.17 전문)	56
▷ 한국 외무장관을 위한 대통령 사진 요청(1975.1.20 비망록)	57
▷ 박의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1975.1.22 전문)	58
▷ 원자력위원회(AEC) 팀의 여행(1975.1.24 전문)	58
▷ 제3세계의 구매-억조제(EXOCET)(1975.1.25 전문)	59
▷ 원자력위원회/에너지연구개발국(AEC/ERDA)(1975.1.27 전문)	59
▷ 록히드(Lockheed)의 추진제 플랜트(1975.2.14 전문)	60
▷ 유엔총회에서 한국의 문제(1975.2.15 전문)	61
▷ 대통령의 미국 방문(1975.2.18 전문)	61
▷ 한국의 에너지 문제(1975.2.19 전문)	62
▷ 하푼(Harpoon) 미사일 판매(1975.2.23(추정) 전문)	63
▷ 핵확산금지조약의 건(1975.2.26 전문)	63

▷ F4D 전폭기 판매와 베트남에 대한 원조의 건(1975.2.28 전문)	64
▷ 한국 대통령의 미국 방문(1975.2.28 전문)	65
▷ 한국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계획(1975.3.4 전문)	66
▷ F4D 판매와 베트남 지원(1975.3.7 전문)	69
▷ 한국에서 걸프석유(Gulf Oil)의 정치적 기부(1975.3.9 전문)	69
▷ 캄보디아 원조(1975.3.12 전문)	71
▷ F4D 판매와 베트남 원조(1975.3.14 전문)	72
▷ 캄보디아 원조(1975.3.20 전문)	73
▷ F5A 복구 비용(1975.3.2520:52 전문)	73
▷ 패스맨(Passman)(1975.3.26 전문)	74
▷ 캄보디아/베트남에 대한 한국의 원조와 F5A 복구비용(1975.3.27 전문) ...	74
▷ 30회 유엔 총회에서 한국(1975.3.27 전문)	75
▷ 캄보디아와 남베트남의 난민의 건(1975.4.16 전문)	78
▷ 선교사 시위의 건(1975.4.16 전문)	79
▷ 부통령과의 회담(1975.4.18 전문)	81
▷ 한국 국회의장 정일권의 부통령 예방의 건(1975.4.25 비망록)	83
▷ 박대통령과의 회동의 건(1975.4.30 전문)	84
▷ 유엔군사령부(1975.4.30 전문)	85
▷ 박 대통령과의 회담 : 미사일 전략(1975.5.1 전문)	86
▷ [남한의 안정](1975.5.6 비망록)	88
▷ [한국 정치범 관련 편지에 대한 답신](1975.5.6 편지)	89
▷ M-60 탱크 철수(1975.5.8 전문)	90
▷ 한국의 새로운 긴급조치(1975.5.12 전문)	90
▷ 한국의 새로운 긴급조치(1975.5.12 전문)	92
▷ 대통령의 남한 국회의장 면담에 대한 회신(1975.5.20 비망록)	93
▷ 유엔군사령부의 구조조정(1975.5.28 전문)	94

▷ [남한의 안보](1975.6(추정) 편지)	95
▷ [한국상황에 대한 편지에 대한 답신](1975.6.12 편지)	97
▷ 김지하 재판과 한미동맹(1975.6.17 문서)	98
▷ 6명의 한국 국회의원들의 대통령 방문(1975.6.24 비망록)	98
▷ 이란과 북한의 거래를 방해하려는 한국정부의 시도(1975.6.26 전문) ...	101
▷ 한국 대사관부 육군 무관의 복귀(1975.6.28 전문)	102
▷ 로드 레인빌(Rod Rainville)에 대한 추천(1975.6.30 전문)	103
▷ 한국의 재처리에 대한 접근(1975.7.2 비망록)	103
▷ 한국정부/캐나다의 원자력 협상(1975.7.8 전문)	108
▷ 한국정부가 대통령에게 보낸 7월 4일 메시지에 대한 회신(1975.7.11 전문) .	109
▷ 한국의 재처리에 대한 접근(1975.7.24 비망록)	109
▷ 대통령 생신 메시지에 대한 회신(1975.7.25 전문)	113
▷ 국경일 메시지(1975.8.1 전문)	114
▷ 대통령과 미키 수상과의 만남 비망록(1975.8.5 비망록;대화록)	114
▷ 대통령과 미키 일본 수상과의 첫 번째 회동(1975.8.5 비망록;대화록) ...	121
▷ 대통령과 미키 수상과의 만남 비망록(1975.8.12 비망록(대화록))	134
▷ 공동경비구역 사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보고서 건(1975.8.13 전문) ...	135
▷ 박(정희-필사체)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한 회신(1975.9.19 전문)	135
▷ 포커스 렌즈(FOCUS LENS) 훈련(1975.9.23 전문)	136
▷ 포커스 렌즈(FOCUS LENS) 훈련(1975.9.23 전문)	137
▷ [한국 시인 김지하의 석방 요청](1975.10.5 편지)	139
▷ [김지하 시인의 재판](1975.10.23 편지)	139
▷ 베이징 방문에 앞서 포드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기로 한 박의 계획 (1975.11.18 전문)	140
▷ 아카사카 궁전 사진집(1975.11.26 편지)	142
▷ 하비브(Habib)의 서울 방문(1975.12.5 전문)	142

▷ [1977년 안보 원조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 요청서](1975.12.30 편지)	143
▷ 한국에 로켓 추진 기술 판매(1976.2.4 비망록)	144
▷ 미국의 대한 지원과 관련된 의회의 서신(1976.4.21 비망록)	148
▷ HIRC 상한선(ceiling)에 관한 대통령의 서한(1976.5.22 전문)	148
▷ 31번째 유엔 총회에서 한국(1976.6.29 전문)	149
▷ 국경일 메시지(1976.8.12 전문)	152
▷ 공동경비구역 사건 추가 정보(1976.8.18 전문)	152
▷ 국가정보 상황 보고서를 위한 특별조사반(1976.8.19 전문)	155
▷ 임박한 군사적 조치의 박 대통령에 대한 통보의 건(1976.8.19 전문)	159
▷ 판문점 사고와 평양의 상황(1976.8.21 전문)	160
▷ 군사정전위원회 회의(1976.8.21 전문)	160
▷ 폴 버니언 작전(1976.8.21 전문)	162
▷ 한국은 북한의 메시지에 대한 미국의 반응을 probe(1976.8.22 전문) ...	163
▷ 비공식 요약문(1976.8.25 전문)	165
▷ 미국의 행동에 대한 한국의 비판(1976.8.25 전문)	167
▷ 1976년 8월 25일 군사정전위원회 380번째 회의 요약(1976.8.25 전문) .	169
▷ 전쟁 수행권한과 한국 파병의 건(1976.8.27 비망록)	172
▷ 판문점 사건(1976.9.1 문서(연설문))	173
▷ 박대통령으로부터 온 서신(1976.9.21 비망록)	183
▷ [판문점 사건에 대한 공동 대응](1976.9.23 편지)	184

제4부 백악관 파일(The White House)

▷ 한국의 최근 상황 전개에 관한 선언(1974.5.4 전문)	187
▷ [백악관 출입기자증 발급 요청](1974.7.8 편지)	189

▷ 하비브 대사에게 전달하는 대통령의 위로 전문(1974.8.15 전문)	189
▷ 박정희 대통령에게 전하는 위로 전문(1974.8.16 전문)	190
▷ [제임스 로리 신상 자료](1974.8.20(추정) 문서)	190
▷ [백악관 출입기자증 신청](1974.8.20 편지)	191
▷ [평화조약에 대한 지원 요청](1974.9.20 편지)	192
▷ [대통령의 방한기간 중 서강대학교 평화봉사단 학생들과의 만남을 요청](1974.9.21 편지) .	193
▷ [기자초청연회에 대한 답신](1974.9.25 편지)	194
▷ [대통령의 방한 환영](1974.9.25 편지)	194
▷ [줄리 문 의 일본, 한국 순방명단에 관한 전화](1974.10(추정) 비망록(메모)) .	195
▷ [취재 요청](1974.10(추정) 편지)	196
▷ [대통령의 순방 취재 요청](1974.10(추정) 편지)	196
▷ [대통령의 방한기간 중 초대 건](1974.10(추정) 편지)	197
▷ [어머니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요청](1974.10.1 편지)	198
▷ [대통령 방한 시 통역을 제안](1974.10.1 편지)	199
▷ [대통령의 방한 기간 중 서울 소년의 집에 초청](1974.10.1 편지)	199
▷ [대통령 방한 시 프리젠테이션 요청](1974.10.2 편지)	201
▷ [대통령에게 중앙대학교 명예학위 수여](1974.10.2 편지)	202
▷ [레이몬드 놀테의 편지](1974.10.4 편지)	203
▷ [대통령의 한국 방문 시 책 선물 증정 희망](1974.10.4 편지)	203
▷ [한국의 독재정권 비판 및 대통령의 방한계획 반대](1974.10.5 편지) ...	204
▷ 윤 박사의 대통령 한국 방문 동행(1974.10.7 비망록)	205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에서 미국 의회로 보내온 편지에 대한 레이몬드 놀테(Raymond J. Nolte)씨의 논평](1974.10.8 편지)	206
▷ [대통령의 남한 방문에 대한 우려](1974.10.8 편지)	207
▷ [한국의 인권상황과 대통령의 방한계획 재고요청](1974.10.8 편지)	207
▷ [한국 정부의 인권탄압과 대통령 방한에 대한 우려](1974.10.8 편지) ...	208

▷ [편지 전달 건](1974.10.9 편지)	209
▷ [통역 제안에 대한 건](1974.10.9 편지)	210
▷ [축하 메시지에 대한 답신](1974.10.11 편지)	211
▷ [한국의 인권탄압과 정치범 8인에 대한 사형선고](1974.10.11 편지)	211
▷ [대통령의 일본순방 취재 요청](1974.10.15 편지)	214
▷ [편지 사본 동봉 절차](1974.10.15 편지)	214
▷ [대통령의 방한 기간 중 합기도 특별 공연에 참석 요청](1974.10.15 편지) ..	216
▷ [한국의 인권상황과 대통령의 방한계획 재고요청](1974.10.17 편지)	217
▷ [대통령의 방한 기간 중 집에 초대](1974.10.17 편지)	218
▷ [어머니의 동행 탑승 요청 거절](1974.10.19 편지)	219
▷ [혹시(Hoxie) 박사와의 전화 통화](1974.10.21 비망록;메모)	220
▷ [기자초청연회에 대한 답신](1974.10.21 편지)	220
▷ [주한미군 어머니의 편지](1974.10.21 편지)	221
▷ [대통령 방한의 의미](1974.10.21 편지)	222
▷ [김지하 시인의 감형을 위한 대통령의 개입 요청](1974.10.21 편지)	223
▷ [부 공보담당관과의 약속 건](1974.10.22 편지)	224
▷ [대통령의 동행 취재 가능 여부 문의](1974.10.22 편지)	224
▷ [한국의 인권상황과 박 대통령의 월권행위, 방한에 대한 우려](1974.10.24 편지) ..	225
▷ [통역 제안에 대한 건](1974.10.24 편지)	227
▷ [대통령 방문취소 촉구 편지에 대한 답신](1974.10.24 편지)	228
▷ [대통령의 방한 시 동행 요청](1974.10.24 편지)	228
▷ [대통령 방한 중 동행 가능여부](1974.10.25 편지)	229
▷ 대통령의 한국 방문 기간 통역으로 일하고 싶다는 제안(1974.10.26 비망록) ...	230
▷ 대통령의 한국 여행에 반대하는 편지에 대한 답변(1974.10.26 비망록)	230
▷ 대통령의 한국 여행과 관련해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는 이승만 박사 (1974.10.29 비망록)	231

▷ [여행 계획서 요청](1974.10.29 편지)	234
▷ [한국 방문 결정에 대한 재고 요청](1974.10.29 편지)	235
▷ [대통령 방한 관련 미 감리교연합의 성명서와 편지](1974.10.30 편지) ..	236
▷ [대통령 순방길 동행취재 요청](1974.10.30 편지)	238
▷ [취재 기자 통보](1974.10.30 편지)	238
▷ [이승만 박사에게 대통령 대신 W. R. 스마이저(W.R. Smyser)씨와의 만남을 권유](1974.10.30 편지)	239
▷ [면담 요청에 대한 답신](1974.10.30 편지)	240
▷ [대통령 방한 기간 중 동행 여부에 대한 답신](1974.10.30 편지)	240
▷ [대통령 전용기에서의 취재요청](1974.10.31 편지)	241
▷ [대통령의 한국 방문에 대한 우려](1974.10.31 편지)	242
▷ [대통령의 한국 방문 계획 재고 요청](1974.10.31 편지)	245
▷ [취재 일정 통보](1974.10.31 편지)	245
▷ [대통령 인터뷰 요청 거절](1974.11(추정) 전문)	246
▷ [대통령 인터뷰 요청 거절](1974.11(추정) 전문)	246
▷ [대통령의 방한 기간 중 동행 요청](1974.11.(추정) 편지)	247
▷ [대통령의 방한에 대한 편지](1974.11.1 편지)	248
▷ [렛슨 대위의 초대에 대한 건](1974.11.2 편지)	249
▷ [한국의 인권탄압과 대통령의 방한](1974.11.2 편지)	250
▷ 극동지역 순방(1974.11.4 비망록)	252
▷ [편지 수신 확인](1974.11.4 편지)	253
▷ [대통령의 방한 기간 중 합기도 특별 공연에 참석 요청 건](1974.11.4 편지) ...	254
▷ [대통령의 한국정부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 요청](1974.11.4 편지)	255
▷ [일본 및 기타지역 순방 동행 기자명단](1974.11.05 비망록(메모))	256
▷ [대통령의 방한 기간 중 서울 소년의 집 초청에 대한 건](1974.11.5 편지)	257
▷ [방한 동행에 대한 건](1974.11.6 편지)	257

▷ [대통령의 방한 기간 중 초대에 대한 건](1974.11.6 편지)	258
▷ 포드 대통령의 일본, 한국, 러시아 순방과 관련한 정보국 활동(1974.11.7 비망록) ...	259
▷ [대통령의 한국 방문 건](1974.11.7 편지)	261
▷ [주한미군 어머니의 편지에 대한 답신](1974.11.7 편지)	261
▷ [보안 검색](1974.11.8 비망록(메모))	262
▷ [동행 요청에 대한 거절 회신](1974.11.8 편지)	264
▷ [한국 관련 정보](1974.11.8 편지)	264
▷ 대통령 방문:실질적 토론(1974.11.11 전문)	265
▷ 대통령의 방문:공식 성명서(1974.11.11 전문)	267
▷ 대통령 방문:선물(1974.11.11 전문)	270
▷ [한국 내 정치범으로 사형 선고받은 8인에 대한 조사관 파견 요청에 대한 답신](1974.11.11 편지)	271
▷ [대통령 방한시 김지하 시인에 대한 사면 제안 건의](1974.11.11 편지)	273
▷ [대통령의 한국 방문](1974.11.12 비망록)	274
▷ [대통령의 한국순방 취재를 위한 기자증 발급](1974.11.12 전문)	274
▷ [대통령 아시아 순방 동행 요청](1974.11.12 전문)	275
▷ [대통령 한국방문 관련 자료 전달](1974.11.12 편지)	275
▷ [편지 수신 확인](1974.11.15 전문)	276
▷ [대통령 담화에 대한 편지 수신 확인](1974.11.15 편지)	280
▷ [방한에 대한 지지](1974.11.15 편지)	281
▷ [한국의 억압적 정치 상황에 대한 하원의 군사 지원 예산 삭감 결의] (1974.11.15 편지)	281
▷ [김지하 관련 편지 전달 건](1974.11.15 편지)	282
▷ 크롤 추기경이 포드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1974.11.16 비망록)	283
▷ [한국 방문 환영](1974.11.16 편지)	287
▷ 일정:1974년 11월 18일 월요일(1974.11.18 비망록)	287

▷ [브리핑 아이디어 제출 요구](1974.11.18 비망록)	294
▷ [편지 미전달의 건](1974.11.18 편지)	294
▷ [김지하 시인 관련 편지에 대한 회신](1974.11.20 편지)	295
▷ [교토에서 서울까지](1974.11.22 비망록)	296
▷ [일본 교토](1974.11.22 비망록)	297
▷ [공개 보도 일지](1974.11.22 비망록)	299
▷ [한국 서울 취재 노트](1974.11.22 비망록)	300
▷ 김포국제공항 도착행사(1974.11.22 비망록)	311
▷ 서울(대통령 전용기-호텔~공항)(1974.11.23 비망록)	320
▷ 1974년 11월 23일 토요일 한국 서울(1974.11.23 비망록)	322
▷ [서울~도쿄](1974.11.23 비망록)	323
▷ [대통령의 방한에 대한 환영](1974.11.23 편지)	325
▷ [순방 취재 관련 감사인사](1974.11.27 편지)	326
▷ [한국 다수당 당수 김용태의 대통령의 방한 환영](1974.11.27 편지)	326
▷ 국가안전보장회의 참모와 한국의 미국 선교사들의 모임(1974.11.29(추정) 비망록)	327
▷ 포드 대통령에게 보내는 신 대주교(Archbishop Sin)의 전신(1974.12 전문)	328
▷ [Paul P. Rao에게 안부 인사](1974.12.6 편지)	329
▷ [선물에 대한 감사인사](1974.12.6 편지)	330
▷ [김지하 사건과 긴급조치에 관한 미 정부의 입장](1974.12.6 편지) ..	331
▷ [편지에 대한 대통령의 감사 인사](1974.12.7 편지)	332
▷ [호의에 대한 감사](1974.12.10 편지)	333
▷ [두이(Doi) 양의 동행 취재 무산에 대한 사과](1974.12.15 편지)	333
▷ [선물과 의전에 대한 감사](1974.12.18 편지)	334
▷ [한국 국회의장의 선물에 대한 감사](1974.12.18 편지)	335
▷ [선물에 대한 감사인사](1974.12.18 편지)	335
▷ [편지에 대한 답신](1975.1.3 편지)	336

▷ [두이(Doi) 양의 동행 취재 무산 건에 대한 답신](1975.1.8 편지)	337
▷ [투옥된 두 목사에 대한 탄원에 대한 답신](1975.1.17 편지)	338
▷ [투옥된 박형규, 김창국 목사에 대한 탄원](1975.1.17 편지)	340
▷ [김 추기경과 크롤 추기경의 편지에 대한 답신](1975.1.20 편지)	342
▷ [선물에 대한 감사인사](1975.1.27 편지)	352
▷ [한국 및 일본 순방시의 노고에 감사](1975.2.9 편지)	354
▷ [세계 여행 연구 결과 보고서에 대한 감사](1975.2.21 편지)	354
▷ [한국의 정치 상황](1975.3.13 편지)	355
▷ [한국의 외무장관과 함(Hahm) 주미 대사의 초대](1975.3.20 편지) ...	357
▷ [한국 내 정치 탄압과 미국의 원조](1975.3.20 편지)	358
▷ [한국의 정치상황에 대한 편지 답신 건](1975.3.25 편지)	359
▷ 한국의 최근 상황에 관한 고든-콘웰 신학교 학장에게 답신을 보내는 일에 대하여 (1975.3.29 비망록)	360
▷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한 답신 (1975.4.2 편지)	361
▷ [한국의 억압적인 정치 상황](1975.4.10 편지)	362
▷ [한국의 정치상황에 대한 편지 답신 건](1975.4.15 편지)	362
▷ 남한 국회의장과 취임전 주태국 미대사의 부통령 방문 예정의 건 (1975.4.30 비망록) ..	363
▷ 한국의 미군 배치와 구조 (1975.5(추정) 비망록)	364
▷ [근거 자료](1975.5.1 전문)	365
▷ 남한 국회의장 정일권의 예방 (1975.5.5 문서)	365
▷ 남한 국회의장 정씨의 대통령 방문 제안의 건 (1975.5.5 비망록)	366
▷ 한국 국회의장 정일권과의 회동 (1975.5.7 문서)	367
▷ 남한 국회의장 정일권과의 회동 (1975.5.8 비망록)	373
▷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한 정부의 대응 촉구](1975.5.12 편지)	375
▷ 한국 정부에 관한 정책 진술을 얻고자 하는 코흐 의원의 관심사 (1975.5.13 비망록) ..	376
▷ [구속되어 재판을 앞둔 한국인에 대한 우려](1975.5.13 전문)	376

▷ [액자사진 선물에 대한 감사인사](1975.5.14 편지)	377
▷ [한국전쟁 25주년을 맞은 남한 국회의원 6인의 예방](1975.6.5 편지)	378
▷ [한반도 상황에 관해 포드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1975.6.12 편지)	379
▷ [한국 국회의원들과의 회담 일정](1975.6.17 비망록)	379
▷ 승인된 대통령 활동 (1975.6.19 비망록)	380
▷ [아시아와 한국에서 공산주의의 위협](1975.6.20 편지)	381
▷ 한국과 필리핀의 인권 상황 (1975.6.24 비망록)	383
▷ 한국의 국내 상황에 관한 정책 진술을 받고자 하는 코흐(Koch) 의원의 관심에 대해 (1975.7.1 비망록)	389
▷ 원용석 한국유신학회 회장이 부통령에게 보낸 편지의 건 (1975.7.8 비망록) .	390
▷ [한국 정부의 국내 정책에 대한 에드워드 의원의 의견에 대한 답변](1975.7.10 편지) .	390
▷ [대통령 방한에 대한 감사 인사](1975.7.21 편지)	392
▷ [대통령의 한국 방문에 대한 감사](1975.7.31 편지)	392
▷ [대통령과 리관유 수상과의 만남 비망록](1975.8.5 비망록;대화록) ...	394
▷ [유엔 회원 자격](1975.9.3 편지)	400
▷ 포드 대통령에게 보낸 축전에 대한 답장 (1975.9.14 전문)	401
▷ [김지하 사건 개입 요청에 대한 회신](1975.9.18 편지)	402
▷ [김지하 시인의 심리에 대한 개입 요청](1975.9.18 편지)	403
▷ 대통령에 대한 축하 메시지 : 한국 (1975.9.20 비망록)	403
▷ 대통령과 키신저 장관과의 대화 (1975.10.16 09:33~10:44 비망록;대화록) ...	404
▷ 김지하 시인의 재판과 반공법 위반 혐의 (1975.10.24 편지)	408
▷ 브리핑 서류들의 전달 (1975.11.15 비망록)	409
▷ [김지하 시인의 재판과 인권에 대한 우려](1975.11.17 편지)	413
▷ 1977년 한국 안보 원조 (1976.1.6 비망록)	414
▷ 1977년 한국 안보 원조 (1976.1.6 비망록)	415
▷ 수정된 안보 원조 추천사항 (1976.1.6 비망록)	4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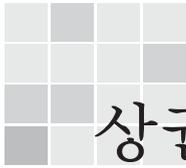
▷ [인도주의 활동에 대한 치하](1976.1.13 편지)	419
▷ [한국 신민주당 부대표 성고씨의 면담 요청](1976.1.19 편지)	420
▷ [한국 국내정책 및 군사원조에 대한 답신](1976.4.6 편지)	420
▷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1976.4.6 편지)	421
▷ 서북도 방위에 관한 한국의 “전방 방위”(Forward Defense) 전략과 평가 그리고 선택에 대한 브리핑 요청 (1976.4.13 비망록)	422
▷ [한국의 억압적인 정치 상황에 대한 대응 필요](1976.4.14 편지)	422
▷ 써몬드 의원에 대한 답신(1976.4.23 비망록)	424
▷ [한국의 인권상황과 안보상의 중요성](1976.4.23 편지)	425
▷ [한국의 인권상황 및 안보적 이해](1976.4.27 편지)	426
▷ [한국의 인권 문제에 대한 답신](1976.4.28 편지)	427
▷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1976.4. 편지)	428
▷ [모간 위원장에게 보내는 대통령의 편지와 사본](1976.5.19 비망록)	429
▷ 한국 PL-480 상한선에 관해 모간 위원장에게 보낼 서한(1976.5.19 비망록)	430
▷ 한국에 대한 지원예산 증액 요청 (1976.5.19 편지)	431
▷ [Section 413 of H.R. 13680에 대한 반대 표명](1976.5.19 편지)	432
▷ [한국에 대한 지속적인 군사적 경제적 지원](1976.6.4 편지)	434
▷ [서북도에 대한 북한의 공격에 긴급대책계획](1976.6.14 전문)	434
▷ [판문점 사건 대응책](1976.8.18 전문)	435
▷ [대통령의 조문에 대한 국방부의 초안](1976.8.18 전문)	437
▷ [국무부, 국방부 등에서 사용될 언론 지침서를 송부함](1976.8.18 전문)	437
▷ [조선에서 살해된 장교들의 가장 가까운 친척들에게 보내는 편지 초안] (1976.8.18 편지)	438
▷ 남한에 전폭기 대대 추가 배치 문제(1976.8.19 비망록)	439
▷ [스틸웰 계획에 대한 권고사항](1976.8.19 전문)	443
▷ [북한에 대한 유엔 차원의 제재 모색](1976.8.19오전10시30분 전문)	446

- ▷ 제안된 보도 지침 초안(1976.8.20 문서) 447
- ▷ [미국 병사 습격에 관한 전문 수신 통지](1976.8.20 전문) 447
- ▷ 한국(1976.8.23 비망록) 448
- ▷ [대통령과 스크랜튼 대사와의 대화(1976.8.30 오후12시35분~1시 비망록대화록) ... 448
- ▷ [선거운동 지지에 대한 감사](1976.9.9 편지) 451
- ▷ [앨범 선물에 대한 감사](1976.9.10 편지) 451
- ▷ 몽고메리 하원의원으로부터 온 한국에 관한 전문에 대한 회신(1976.9.22 비망록) ... 452
- ▷ 몽고메리 의원으로부터 온 한국에 관한 전문에 대한 회신(1976.9.27 비망록) ... 452
- ▷ [북한에 대한 유엔 차원의 제재 모색](1976.9.27 편지) 453
- ▷ 한국(1976.9.28 비망록) 454
- ▷ [빌링스씨의 편지에 대한 회신](1976.10.4 편지) 455
- ▷ 국가안전보장회의(1976.12)(1976.12.2 회의록) 457
- ▷ [새로운 메모 요청](1976.12.13 전문) 463
- ▷ 한반도(1976(추정), 문서(공보자료)) 464
- ▷ [주한 미군 공수군단장에 대한 격려](1977.1.3 편지) 465

제5부 연방준비제도이사회 파일(Federal Reserve System)

- ▷ [저명인사 강연 특별 연설 요청](1970.1.21 편지) 469
- ▷ [중앙대학교 소개](1970.2.10 전문) 469
- ▷ [한국 방문 일정 변경](1970.2.20 전문) 471
- ▷ [일정 통보 요청](1970.2.27 전문) 471
- ▷ [방문계획 변경](1970.3.3 전문) 472
- ▷ [방문 일정 변경](1970.3.4 전문) 472
- ▷ [중앙대학교는 아서 번스에게 명예학위를 수여할 예정](1970.3.7 편지) 473

▷ [방문 일정](1970.3.12 편지)	474
▷ [한국 여행](1970.4.1 전문)	475
▷ [한국 방문 일정](1970.4.2 전문)	475
▷ [일정 조정에 감사](1970.4.2 편지)	476
▷ [방문 시 구체 일정](1970.4.7 편지)	476
▷ [초청에 감사](1970.4.21 편지)	477
▷ [한국은행 방문 요청](1970.4(추정) 전문)	478
▷ [리셉션 취소 및 일정 조정](1970.5.7 편지)	478
▷ [사진 포장](1970.5.19 편지)	479
▷ 한국의 최근 경제발전(1970.6.19 편지)	480
▷ [번스 박사가 김성환 한국은행장을 방문함](1970.6.27 비망록;대화록)	490



상권차레

- ■ ■ 간 행 사 i
- ■ ■ 화 보 ii
- ■ ■ 범 레 xvi
- ■ ■ 수록내용소개 xxxvii

제1부 국가안전보장회의 파일(National Security Council)

- ▷ 대통령 방문에 대한 한국의 관심(1974.9.4 전문) 3
- ▷ 주한 미합동군사업무단의 인력감축(1974.9.19 비망록) 5
- ▷ 주한 미합동군사업무단의 인력감축(1974.10.1 비망록) 6
- ▷ 한국에 대한 록히드의 판매제안(1974.10.28 전문) 6
- ▷ 한국 외교위원회의 김택하(Kim Taik Har)위원이 대통령께 보내온 서신
(1974.11.19 비망록) 8
- ▷ 한국의 미국 선교사들과의 모임(1974.11.29 비망록) 9
- ▷ 전략무기 감축협정(1974.12.2 비망록;회의록) 9
- ▷ 1974년 12월 9일, 입법관련 부처간 회의(1974.12.9 비망록) 25
- ▷ 존스 장군 여행의 건(1975.1.2 비망록) 29
- ▷ 대통령의 한국 방문과 관련 대통령과 약속을 요청하는 이승만 박사
(1975.1.5 비망록) 30
- ▷ 극동 여행과 관련해 처리해야 할 몇가지 남은 일들(1975.1.7 비망록) 31
- ▷ 한국군 현대화 계획(1975.1.9 비망록) 32
- ▷ 남한 인권 관련 대통령 수신 서신에 대한 답신(안)(1975.1.15 비망록) 34
- ▷ 대통령의 최근 한국 방문에 관한 편지들에 대한 답장 초안
(1975.1.17 비망록) 34
- ▷ 한국 외무장관 김동조와 대통령의 사진(1975.2.20 비망록) 35

▷ 비무장지대(DMZ)의 미군 중대 (1975.2.24 비망록)	36
▷ 파일 반환 (1975.2.24 비망록;메모)	36
▷ 한국 박정희 대통령의 미국 방문 (1975.2.26 비망록)	37
▷ 한국 박정희 대통령의 미국 방문 (1975.2.28 전문)	38
▷ 한국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계획 (1975.3.(추정) 전문)	38
▷ 한국의 무기 계획 (1975.3.3 비망록)	41
▷ 우리의 주한대사의 귀하 방문 제안 (1975.3.7 비망록)	41
▷ 한국 대사와 한국의 외무장관과의 오찬에 귀하를 초대 (1975.3.21 비망록)	42
▷ 의견일치 요청 (1975.3.21 비망록)	42
▷ 1975년 3월 27일 오후 5시에 리차드 스나이더(Richard L. Sneider) 주한대사와의 귀하의 만남 (1975.3.26 비망록)	42
▷ [대한민국의 현 정치 상황에 대한 답신] (1975.4.2 편지)	45
▷ [국방부 지침에 대한 의문사항] (1975.5.1 전문)	45
▷ 정일권(Chong Il-kwon)의 대통령 방문 계획 (1975.5.7 비망록)	46
▷ 대통령과 한국의 국회의장과의 회담 확정 (1975.5.7 비망록)	46
▷ 1975년 5월 9일 오전 10시45분 대통령과 한국의 국회의장 정일권 (Chong Il-kwon)과의 회담에 권고된 담화 요점 (1975.5.7 비망록)	46
▷ 한국에서 향후 미군 배치에 있어 제안된 변화 (1975.5.8 비망록)	47
▷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대한 검토 (1975.5.27 비망록)	48
▷ 한국 국회의원들의 대통령 예방 (1975.6.20 비망록)	49
▷ 하락하고 있는 한국의 유엔군사령부의 위상 (1975.6.21 비망록)	49
▷ 유엔군 사령부에 관하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보내는 편지 초안 (1975.6(추정) 전문)	51
▷ 1975년 6월 25일 오후 12시30분 대통령과 한국 국회의원들의 만남을 위해 추천되는 담화 요점 (1975.6.24 비망록)	52
▷ [회신 지연에 대한 유감] (1975.6.24 전문)	52

▷ [2천5백만달러 상당의 대외군사판매(FMS) 제안서] (1975.6.30 비망록;메모)	53
▷ 한국의 국내 상황에 관한 정책 진술을 받고자 하는 코흐(Koch) 의원의 관심에 대해(1975.7.1 비망록)	54
▷ 2천5백만달러 상당의 대외군사판매(FMS)에 대한 국회 제출보고서; 한국 (1975.7.7 비망록)	54
▷ [한국 정보통신부 장관의 대통령 방한에 대한 감사 전문](1975.7.21 전문) .	55
▷ [한국의 재처리 공장 구입계획 저지](1975.7.24 비망록)	56
▷ 대통령이 일본에서 심은 더그우드 나무(Dogwood Tree) 사진 (1975.8.7 편지)	57
▷ 중요한 군사훈련 탬버린 송(Tambourine Song)(1975.8.29 비망록) ...	57
▷ 대통령의 한국 여행 영상(1975.9.3 비망록)	58
▷ 한국 정보통신부장관이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 대한 답장 (1975.9.3 비망록)	58
▷ 서명(1975.9.3 비망록;메모)	59
▷ 탬버린 송(Tambourine Song) 훈련에 관하여 서울 대사관에 보내는 회신 (1975.9.4 비망록)	60
▷ 한국의 2천5백만달러 상당의 FMS(대외군사판매) 건에 대한 국회 통고 (1975.9.19 비망록)	60
▷ 슐레진저(Schlesinger) 장관과의 토의(1975.9.29 비망록)	62
▷ [전시용의 대통령 사진 제공 요청](1975.10.1 편지)	68
▷ [대통령의 사진을 전시용으로 제공](1975.10.16 편지)	69
▷ 2천5백만달러 상당의 FMS 건-한국-에 대한 의회 통고(1975.10.18 비망록) .	70
▷ 킨트너 대사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정책적 이해에 관한 연구 (1976.1.15 비망록)	70
※ 윌리엄 R. 킨트너 보고서 : 73~285페이지	

▷ 행정부 관리의 해외여행 계획의 건 (1976.1.26 비망록)	286
▷ 한국 신민주당 부총재 성고(Sung Koh)의 대통령과의 면담 요청의 건 (1976.1.26 비망록)	286
▷ 의회에 대외군사판매(FMS) 건 통고(한국)(1976.3.11 비망록)	286
▷ 키신저 장관과 한국의 외무장관 박동진(Park Tong Jin)과의 오찬에 귀하의 참석 (1976.4.8 비망록)	288
▷ 한국의 “단기전”(Short War) 전략과 서북도에 관한 선택에 대한 국방부의 브리핑 요청 (1976.4.19 비망록)	288
▷ 대통령에게 남한으로부터 핵무기 철수를 요청함(1976.5.18 비망록) ..	289
▷ 한국과 서북도에 대한 긴급대책 문서 요청 (1976.6.7 비망록)	290
▷ 2천5백만 달러 상당의 대외군사판매-한국과 싱가포르(1976.8.4 비망록) ..	291
▷ 오스트레일리아, 한국, 필리핀에 대외군사판매 (1976.8.13 비망록)	292
▷ 비무장지대(DMZ) 사고, 한국(Korea), 1976년 8월 18일(1976.8.18 문서) ..	293
▷ 1976년 8월 18일 워싱턴특별대책반(WSAG) 회의 의사록: 한국 (1976.8.18 비망록)	301
▷ [한국 워싱턴특별대책반 의사록](1976.8.19 의사록)	310
▷ [판문점 사고 상황 보고서](1976.8.20 문서)	320
▷ [판문점 사고 상황 보고서](1976.8.21 문서)	322
▷ [판문점 사고 마지막 상황 보고서](1976.8.22 문서)	325
▷ [북한에 대한 유엔 차원의 제재 모색 촉구](1976.8.23 비망록)	326
▷ 한국에 대외군사판매 (1976.9.16 비망록)	326
▷ 대화 메모: 8월 18일의 판문점 사건, 한미 관계 (1976.9.17 비망록) ..	327
▷ 한국에 대외군사판매 (1976.9.21 비망록)	330
▷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지원 (1976.10.8 비망록)	331
▷ 한국의 항공방위를 위한 요구사항에 관한 결정 (1976.10.9 비망록) ..	332
▷ 연설 요지, 국가안전보장회의(74년 12월 2일)(1976.12.2 비망록;회의록) ..	332

▷ 국가안전보장회의 회의록, 12월 2일 (1976.12.12 비망록;회의록)	338
▷ 국가안보연구비망록(NSSM) 246 - 미국 국방정책과 군 태세 (1976.12.15 비망록;회의록)	338
▷ 한국에 대외군사판매 (1977.1.5 비망록)	359

제2부 국방부 파일(Department of Defense)

▷ 중요 군사훈련 (1974.9.19(추정) 비망록)	363
▷ 한국에서의 중요 군사 훈련 (U)(1974.9.21 비망록)	363
▷ 한국에 대한 록히드(Lockheed)의 판매 제안 (1975.1.23 비망록)	365
▷ 록히드의 한국 판매 (1975.3.5 비망록)	368
▷ 2월 26-27일에 발생한 황해(Yellow Sea) 사건(U)(1975.3.14 비망록) ..	370
▷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한 한국의 견해 (1975.4.18 전문)	370
▷ 슐레진저 장관과의 담화 비망록 (1975.8(추정) 비망록;대화록)	374
▷ 슐레진저 장관과의 담화 비망록 (1975.8.26 비망록;대화록)	376
▷ 슐레진저(Schlesinger) 장관과 박대통령간의 담화메모 사본을 첨부 (1975.9.4 비망록)	386
▷ 한국에 판매할 공군 무기 청약서 (1975.10.17 비망록)	386
▷ 박(Park) 대통령과의 회의 (1976.8.19 전문)	387

제 **3** 부

1970년대 한미관계(하)

국무부 파일
(Department of State)



■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 아서 F. 번스의 방문

- 형태 : 전문
- 발신 : 워싱턴 국무부
- 출처정보 : DEPARTMENT OF STATE 521
- 일자 : 1970.4.
- 수신 : 서울 미국대사관
- 관리번호 : CTA0000609

FRB 의장 아서 F. 번스는 중앙대학교에서 명예 학위를 받기 위해 6월 25일 저녁 한국에 도착할 것입니다. 그는 6월 30일 오후에 한국을 떠날 예정입니다. 중앙대학교에서 이미 준비한 수상식과 세 건의 모임 외에 다른 약속 스케줄을 대사관에서 잡아주셔야 합니다. 박 대통령을 비롯해 적절한 관리들과의 만남도 제안합니다. 한국은행 총재와의 만남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은행 측에서 원한다면 그쪽에서 행사를 주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번스 의장은 부인과 FRB의 국제 금융 분야 자문(Adviser division of International Finance, FRB) 리드 J. 어빙과 동행할 것입니다. 로저스(Rogers)

■ [인권 문제와 대외정책]

- 형태 : 편지
- 발신 : Robert S. Ingersoll(동아시아와 태평양 문제 차관보)
- 출처정보 : DEPARTMENT OF STATE
- 일자 : 1974.6.27
- 수신 : Thomas E. Morgan(하원 국제관계 위원회 위원장)
- 관리번호 : CTA0000702

위원장님께 :

지난 6월 13일 귀 위원회 앞에서 대통령의 대외 정책 메시지에 관해 증언하면서 저는 1973년 대외 지원 조치의 섹션 32에 관해 많은 질문을 받았고 이에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의견을 더 상세하게 부연설명하겠노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6월 13일의 청문회 기록에는 몇가지 내용들이 추가되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 저는 이 편지에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몇몇 더 광범위한 정책 논제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으며 위원회의 다른 멤버들도 이 편지를 읽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저는 인권 문제에 관한 우리의 총체적인 대외 정책의 기초를 이루는 몇가지 기본적인 고려사항들에 대해 처음부터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만민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존중과 준수를 촉진하기 위한 유엔 헌장 상의 우리의

의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전세계 어디에서 인권 침해가 벌어지든지간에 이것은 우리의 문제이고 우리의 우려사항이며 우리는 사실을 조사 파악하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존중을 촉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유엔 헌장은 특히 다른 이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위반 행위에 대해서 이러한 의무를 어떻게 다해야 하는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특히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문제와 같은 다른 목표들에 대한 책임과 일치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어떻게 하면 미국의 의무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을지 그 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고려해야할 정책과 전술적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에는 위반 정도의 심각성,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와 옵션의 다양성, 그리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의 결과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섹션 32에 관해서는, 저는 지원을 중단해 버리는 제재 조치가 반드시 다른 나라들에서의 인권 침해에 대한 가장 효과적이거나 가장 적절한 대응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이러한 인권 침해에 정치범 억류가 포함되건 포함되지 않건 말입니다. 지원 중단은 이러한 제약을 제거하는 한시적인 조치로 이를 실행함으로써 의도했던 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의회가 섹션 32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누가 정치범인지를 정의하는 것의 어려움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일반적인 규정들을 공식화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만약 모든 면에서 볼 때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면,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을 삭감하거나 지원의 특정 요소를 삭감하거나 혹은 이러한 옵션들이 반드시 고려되어야만 한다는 점을 지적하거나 혹은 가장 중요하게는, 특정 상황에서 인권을 실제로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그만큼, 혹은 더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다른 수많은 방법 중의 하나를 고려해 보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대통령에게 열려 있으며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다음의 중요한 논의와 연구들은 섹션 32에 관해 AID와 국무부가 준비한 것으로 지난 1974년 4월 4일 군사 지원이나 경제 지원을 받는 나라의 모든 포스트(post)들을 포함해 다양한 많은 포스트들에 지침을 전달했습니다. 이 전신의 내용은 현재 청문회 사본에 첨가되어 있습니다. 대략 60개 포스트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대부분의 답변은 때로는 부연 설명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유용하고 정보면에서 유익한 것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최초의 전신에 이어 동아시아에서 우리의 지원을 받는 수혜국들에 있는 우리 대사관들

에게 섹션 32의 내용과 우리가 이 섹션과 관련해 느끼는 심각성을 설명하는 내용을 함께 이 나라들의 정부에 보낼 것을 요구하는 두 번째 전신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제기된 문제에 관해 우리가 더 깊이 검토하는데 도움이 될 이들 정부들의 반응 보고서를 받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지역의 원조 수혜국들에게 유사한 메시지를 보내는 문제는 아직 미해결인 채로 남아있습니다.

인권 침해의 일관된 유형이 특정 국가에서 벌어진다면 어떨까요? 제가 앞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조용한 외교적 조치에서 공개적인 비난, 지원 종료, 그리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국제 제재에 이르기까지 주어진 상황에 적용 가능한 총체적인 옵션들이 있습니다. 유엔 인권위원회(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Human Rights)와 이 위원회 하에 설립된 조사 절차들, 진상 조사,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들에 대한 조언들이 아주 중요하며, 개략적으로 비교 가능한 특성들과 함께 미국과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효과를 담보하는 전미국 인권 위원회(the Inter-American Human Rights Commission)에서는 본래 조용한 외교적 방식에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민간 단체들과 그룹들과 함께 협력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진상 조사와 토론을 위한 국제 포럼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결합하는 형식을 선호합니다.

물론, 의회가 인권의 준수나 침해에 관한 진상을 계속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중요한 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목표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기밀 사항이 아닌한 지속적으로 의회에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한국의 인권 상황에 관한 진술을 6월 13일의 청문회 기록에 제공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섹션 32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나 특히 한국의 상황에 관해 상황이 어떻게 진전되고 있는지에 관해 위원회에 계속적으로 조언하고 알릴 것입니다.

저는 또한 미 국무부는 인권과 인도주의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미국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계된 여러 단체들의 제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우리의 정책들을 계속 검토하고 있음을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편지가 저의 최근의 증언 과정에서 제기된 인권과 대외 정책 관련 문제들을 일부나마 명확하게 설명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면이 있다면, 언제라도 주저하지 말고 저에게 요청해 주십시오.

Sincerely yours,

로버트 S. 잉거솔(Robert S. Ingersoll)

동아시아와 태평양 문제 차관보(Assistant Secretary for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경애하는 토마스 E. 모간 귀하

워싱턴 D.C. 미 하원 대외관계 위원회 위원장

■ [대외 지원 조치의 섹션 32와 인권 개선 노력]

- | | |
|--|--|
| • 형태 : 편지 | • 일자 : 1974.7.28 |
| • 발신 : Robert S. Ingersoll(동아시아와 태평양 문제 차관보) | • 수신 : Thomas E. Morgan(하원 국제관계 위원회 위원장) |
| • 출처정보 : DEPARTMENT OF STATE | • 관리번호 : CTA0000702 |

위원장님께 :

이 편지는 일반적으로는 대외 지원 조치의 섹션 32와 관련해,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한국의 상황과 관련해 인권 문제 관련 정보를 위원회에 계속 제공할겠다는 저의 의사를 전했던 지난 6월 27일의 편지를 보충하는 것입니다.

우선, 저는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존중과 준수를 증진시키기 위한 우리의 책임, 그 실행의 복잡성, 그리고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반드시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대응은 아니라는 저의 의견 등 그 편지에서 설명했던 일반적인 견해를 다시 확인하고 싶습니다.

지난 번 편지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동아시아의 원조 수혜국들의 우리 대사관들에 그 나라 정부들에 섹션 32의 내용을 전달하고 우리가 이 섹션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는 전신을 보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지리적으로 다른 지역에 있는 원조 수혜국들에게도 유사한 전신이 우리 대사관들에 전달되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모든 포스트들에서 보고서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동아시아 포스트들이 각각의 외무부 관리들에게 배경 설명과 함께 섹션 32의 사본이 전달되었음을 저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물론 우리 측에서 접촉한 정부 관리들의 반응은 임시적인 것이며 다양합니다. 하지만 반응 유형들에서 우리는 우리의 우려에 대해 이들이 명백하게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호스트 정부들은 우리의 통보에 감사를 표했으며 보충 정보를 요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전에 이를 법제화하면서 의회 논쟁에서 언급되었던 어려운인 ‘정치범’이라는 용어를 정의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이 여러 번 언급되었습니다.

특히 한국 문제와 관련해, 그리고 제가 지난 6월 27일 편지에서 여러분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던 점과 관련해 저희는 최근의 재판들에 관해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한 질문들을 제기하고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요구하는 전신을 한국의 우리 대사관에 보냈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이러한 재판들은 공개 세션(session)에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사관 직원들이 방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프레이저(Fraser) 씨가 한국의 인권에 관해 증언하기로 되어 있는 7월 30일 청문회 이전에 사실에 입각한 정보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1973년 대외 지원 조치의 섹션 32에서 얻은 경험으로 그 섹션 하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과 같은 특성들의 보고나 재검토가 우리의 진상 조사와 전 나라들과 관련한 정책 결정 프로세스의 지속적이고 상설적인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분명히 하는 것이 적어도 임시적으로나마 현명하리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이후 더 많은 지침들을 통해 우리는 원조 수혜국들의 구체적인 섹션 32 필요조건들과 모든 나라들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인 인권 필요조건들을 결합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취합된 사실들과 이에 대한 우리의 평가를 활용해 우리의 지원 프로그램을 비롯한 우리의 대외 정책을 공식화하는 데에 인권에 관한 고려가 참작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리학적 사무국(geographic bureaus)과 다른 사무국들에 내년 초에 정책, 새로운 스텝 혹은 새로운 절차에 관한 바람직한 수정안 조언들과 함께 국가별로, 그리고 중요한 국제 기구별로 중요한 인권 진전에 관해 관련 보고서를 나에게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때쯤이면 우리는 두 번째 연간 포스트 보고서를 받게 될 것이며 유엔과 전미 인권 위원회와 함께 한 또 한 해의 경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무국 보고들은 우리가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존중과 준수를 증진시키는 우리의 의무를 이행하려는 노력에서 국제 수준에서 어느 만큼 해오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말한 것들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는 추가적인 인력이나 인력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현재 우리는 전 지리학적 사무국들에 인권 관리를 지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들과 국제 기구 문제 사무국(the Bureau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 Affairs) 관리들, 그리고 인권 문제를 다루는 법률 자문 사무실에 덧붙여 저는 제 사무실에도 이러한 문제들의 총체적인 전개 상황에 대해 저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고 정책 결정에서 인권 요소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관리를 한 사람 둘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저는 법률 자문 대리(the Acting Legal Adviser)에게 이런 면에서 저를 도와줄 것을 요청해왔습니다.

제가 6월 27일의 편지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는 섹션 32와 인권 상황 전반에 대해 그리고 특히 한국 문제와 관련해 우리의 생각이나 진전 상황을 계속해서 귀 위원회에 알려드릴 생각입니다. 저의 지난 편지에 대한 이번 업데이트가 귀 위원회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With best regards,

Sincerely,

로버트 S. 잉거솔

장관 대리(Acting Secretary)

경애하는 토마스 E. 모간 귀하
미 하원 대외 관계 위원회 위원장

■ 대통령 교서

- | | |
|-----------------------------------|------------------------|
| • 형태 : 전문 | • 일자 : 1974.8.9. 15:50 |
| • 발신 : 워싱턴 국무부장관 | • 수신 : 서울 미국대사관 |
| • 출처정보 : DEPARTMENT OF STATE 0688 | • 관리번호 : CTA0000766 |

대사께

1. 다음의 대통령 교서를 박정희 대통령께 즉시 전달해 주시오. 만일 수령이 가능하지 않다면 가장 고위급 관료에게 전달해 주시오.
2. 교서 내용 시작 : 친애하는 대통령 각하 : 미국의 대통령 직책을 맡게 되어 나의 첫

번째 행동들 중 하나로서 나는 미국이 국제 관계에서 그리고 특히 한국과 관계된 정책과 프로그램을 추구해 온 정책들에 대한 나의 확고한 헌신을 귀하께 보증하기 위해 귀하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미국의 외교 정책은 우리의 양대 정당의 확고한 지원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외교 정책에서 지속성의 원칙은 전통과 제도, 그리고 미국의 국익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어떤 원칙도 나의 정부하에 미국의 외무를 수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다른 나라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귀하의 나라와의 관계에서 미국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국제적 이해를 전적으로 존중한다는 것을 귀하께 보증하고 싶습니다. 한국이 독립을 다시 얻은 이후, 우리 두 나라는 특히 강한 우정의 결속과 서로에 대한 충성을 향해 전진해왔습니다. 이 결속력은 평화시와 한국전쟁뿐 아니라 베트남 전쟁 모두에서 드러났으며, 이러한 공유된 경험으로부터 동일한 원칙의 하나의 신념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나의 정부의 의지가 우리 두 나라 국민이 자유와 번영, 그리고 세계 평화의 축복을 즐길 수 있도록 귀측 정부와 계속해서 긴밀하게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일에 있어 다른 지역에서처럼 나는 가장 큰 확신을 가지고 있는 키신저 장관의 확고한 지원을 얻을 것입니다. 진심을 다하여, 제럴드 포드. 교서 내용 끝.

키신저

■ 대통령의 애도 메시지

- 형태 : 전문
- 발신 : 워싱턴 백악관
- 출처정보 : DEPARTMENT OF STATE 4038
- 일자 : 1974.8.15
- 수신 : Philip C. Habib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국무차관보)
- 관리번호 : CTA0000709

하비브 대사 귀하

대통령의 다음 메시지를 박 대통령에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작 : 나와 아내는 귀 대통령 부인의 비극적인 사망 소식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귀 영부인과 같이 훌륭하고 우아한 분의 갑작스런 서거에 미국 국민들은 저와 함께 진심

으로 애도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깊은 슬픔의 시기에 우리는 귀 대통령 그리고 가족들과 마음속으로부터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럴드 R 포드. 인용 끝.

키신저

■ 박여사의 장례식

- | | |
|-----------------------------------|------------------------|
| • 형태 : 전문 | • 일자 : 1974.8.16 23:51 |
| • 발신 : 워싱턴 국무부 장관 | • 수신 : 서울 미국대사관 |
| • 출처정보 : DEPARTMENT OF STATE 7418 | • 관리번호 : CTA0000766 |

하비브 대사께

이것으로써 귀하를 박정희 대통령의 여사의 장례식에 참석하는 대통령 특사로 임명하는 바입니다.

키신저

■ 입법관련 부처간 회의의 건

- | | |
|------------------------------------|-------------------------|
| • 형태 : 비망록 | • 일자 : 1974.8.17 |
| • 발신 : William E. Timmons(대통령 보좌관) | • 수신 : Tom C. Korologos |
| • 출처정보 : DEPARTMENT OF STATE 3492 | • 관리번호 : CTA0000792 |

귀하가 알고 있듯이 우리는 월요일 3:00시에 루즈벨트룸에서 입법관련 부처간 대표자 회의를 열 것이다. 버드 맥팔레인(Bud McFarlane)씨가 회의 장소의 확보 및 초청 그리고 의제준비를 담당하고 있다.

내가 시카고 출장에서 3:00시까지 돌아오지 못하게 될 경우 귀하께서 회의를 시작하고 주관하기 바란다.

포함될 의제 : 방위비 배정

해외원조 인가 - 배정

국무부 인가
버드(Byrd) 수정안 철회

감사합니다.

사본배부 : 막스 프리더스T스도프(Max Friedersdorf)
버드 맥팔레인(Bud McFarlane)

국가 안보 회의

정보

1974년 8월 19일

수신 : 윌리엄 티몬스((WILLIAM TIMMONS)
발신 : 리처드 T. 케네디
주제 : 입법관련 부처간 회의 1974년 8월 19일

오늘 회의에서는 다음 3개 입법안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에 대항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유용할 것임.

- 대외원조법 (Tab A)
- 방위비지원법 (Tab B)
- 국무부승인법 (Tab C)

각 입법안에 관한 토의가 끝난 후 귀하는 각자에게 구체적 과제와 책임을 부여하고 모두 각자 할일과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숙지시키고, 또 모두 수시로 진행 사항을 보고하도록 조치하기 바란다. 귀하는 앞으로 1주내에 (8월 26일 월요일) 차기 입법관련 부처간 회의의 소집을 제안해야 할 것이다.

개회사

- 여러분, 저희는 오늘 여기서 3개 입법안에 대한 수정안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최선의 대응 방안을 토의 하고자 한다. 즉, 해외 원조법안, 방위비 배정법안 그리고 국무성 인가법안 개정과 관련하여 제가 이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 이 3개 법안에는 미국의 외교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태롭게 하는 측면이 있다. 특히 인도차이나와 기타 몇몇 경우에는 현 정부의 기본 권한과 책임이 입법부에서 부과하는 수용하기 어려운 통제에 의하여 도전을 받거나 훼손될 수 있다. (3개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3개의 첨부자료에 기록되어 있다. 먼저 해외원조법안의 세부사항은 첨부자료 A를 보라. 국무부 배정승인법 (첨부자료 C)에 관한 토의가 끝나면 다음과 같은 “맺음말”이 유용할 것이다.)

맺음말

- 입법부와 굳건한 유대를 가진 새로운 행정부의 출현은 행정부에 유리한 타협안의 도출을 실현가능 하게 할 것이다. 모든 조치는 포드 대통령이 언급한 “타협의 정신”에 기반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핵심 이슈를 두고 적극적으로 싸우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행정부의 교체가 가져오는 입장 변화에 따른 여파에 대하여 모두 유의를 하여야 하며 주어진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상호 간에 정보를 긴밀하게 교환해야 한다.

- 우리의 첫 번째 과제는 외교 정책을 실제 이행하는데 행정부의 손발을 묶을 수 있는 해외원조법안 수정안이다.

- 그 다음 우리는 베트남과 캄보디아에서의 인도차이나 방위를 지원하는데 충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토론을 마치기 전에 나는 참석자 개개인이 추진내용을 보고하고 상호간의 정보교환을 요청한다. 상황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의 노력들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러한 상황의 전개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어야만 한다. 또한 차기 정식 입법관련 부처간 회의를 약 1주일 후인 8월 26일, 월요일 동일한 시간에 개최하여 우리 전략의 효용성과 적절성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 오늘 참석하여 주신 것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 우리는 포드 대통령의 행정부 하에서 각별한 기회를 맞게 된 것으로 생각하며 현재 의회의 분위기를 활용하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에 충분히 협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 본인과 이 회의의 참석자중 누구에게라도 언제든 망설이지 말고 연락하길 바란다.

현황

상원외교위원회는(SFRC) 법안심의 일정을 결정하였음. 하원외교위원회(HFAC)는 아직 결정 못한 상태이다. 상원의원 토론은 다음 주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하원의 경우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의원토의가 9월 이전에 시작 못할 것이다. 일정은 상하원이 폐회를 서두르게 되어 9월 혹은 10월 회의로 일정이 잡힐 것이다. 또한 그렇게 된다면 중동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적인 문제 해결과 특단의 조치가 요구 될 것이다.

해외 원조 법안

상원 입법안에는 몇 군데 국무부와 국방부에서 거의 동등한 이해관계를 갖는 반대하여야 할 부분이 있다. 다수 의결을 위해서는 국방부와 국무부사이의 협조된 조치가 있어야 하며, 입법관련 부처간 회의에 참가하는 다른 정부 부처는 여러 분야에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백악관의 강력한 뒷받침 하에 관련 부처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 인도차이나에 지출 한도 설정(상원입법안)

- 베트남 : 12억8천만 달러(우리 요구액- 10억 달러) 북베트남의 압력이 현재 수준으로 지속된다면 가용 자금액수로는 효과적 방위를 위한 충분한 탄약과 주요 보급품을 제공할 수 없을 것이며, 북베트남의 모험심을 한층 더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와 동시에 경제원조의 제한은 경제를 더욱 악화시켜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총지출한도의 요구는 베트남의 방어태세 지원에 대한 우리의 보장을 충족시킬 수 없도록 제한을 하게 된다.

- 캄보디아 : 3억 4천 7백만 달러(우리 요구액 2억 달러 미달) 휴전과 협상 압력을 가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미국지원의 삭감은 적을 고무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PL-480미곡, 피난민 원조와 관련 수송비는 지불되겠지만 다른 모든 중요 분야는 줄어들게 될 것이다. 만약 PL-480을 삭감한다면 심각한 식량 부족이 발생하게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는 정치적 불안이 야기 될 것이다. 군사예산 지원에 있어서의 예산 삭감은 탄약 재고가 2-3개월 내에 고갈되고 손실장비의 보충이 불가능하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 군사지원프로그램(MAP)의 80% 이상이 현재 탄약에 책정되어 있다.

- 라오스 : 21억 달러 이 삭감은 별로 심각한 손상을 주지 않는다.

전략 -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이 한도에 반대한다. 초기 단계에서 노력의 성공을 거두지 못하더라도 법안을 표결에 붙이기 전에 합리적인 수정이 가능할 것이다. 국무부와 국방부는 서로 협조하여 국무부에서 선정하는 “그네뛰기(Swing)투표 의원에게 수정안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다낭지역 주변에서 진행되고 있는 작전과 캄보디아에서 평화적 해결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설명하면서 베트남에 의한 모험주의 초래를 강조하여야 한다. 라오스 한도의 수용은 바뀌치기로 이용할 수 있다.

논의 핵심

- 누가 수정안 파기를 발의할 것인가?

- 이 안건에 대하여 누가 그네뛰기 투표 의원이 될 것인가? (현재 상황에서 의견을 검토하고 적절한 사람에게 행동 책임을 부여한다.)
- 우리가 베트남에서 군사 활동 수준의 상승을 활용하여 이 점을 어떻게 군사적 필요 측면에서 설명해 낼 수 있겠는가?
- 캄보디아 협상과 휴전제안 중에서 무엇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겠는가?
- 헨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어떤 내용의 증언이 유용하고 어느 시기에 압력을 가할 것인가?

2. 캄보디아 내부 인원 상한선(상원법안)은 이미 소수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인력(총200명)을 명시되어 있지 않은 보다 적은 수의 인원으로 제한을 하게 될 것이다. 현재의 승인은 우리가 제공한 보급품과 장비 사용을 적절히 감독할 수 있는 충분한 인원을 제공하지 못하며, 이러한 인원감축은 캄보디아인들이 미국이 제공한 보급품의 부정관리를 초래하게 된다.

논의 핵심

- 우리는 과거에 탄약과 다른 품목의 부적절한 관리로 인한 비난을 받았다. 사실 이 경우에 적절한 관리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인원에 의한 적절한 감독임을 의미한다.
- 최소 3억4천7백 달러의 원조를 제공하면서도 그 원조가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다고 확신 할 수 있는 미국요원의 부족으로 우리의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 누가 수정안을 파기하기 위한 발의를 할 것인가?(상원의원이 선정되면 그로 하여금 필요한 모든 정보를 갖도록 할 것; 국무부가 접촉해야 함)
- 만약 상한선이 부과된다면 실제로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 (국무부와 국방부는 사용할 데이터를 제공할 것)

3. 베트남에서의 인원 상한선은 회계연도 말까지 직접 고용직과 계약직 인원을 3천명으로 감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4천명으로 감축을 하는 것은 이미 계획되어 있었다. 수정안은 이 과정을 가속화 하게 될 것이며, 감축을 가속화하는 과정에서의 행정부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전략 - 국방부와 국무부의 건의를 요청할 것 ; 이들 두 개 부서는 입법안의 보다 구체적인 측면과 거래를 함에 있어서, 실제 수용될 가능성이 큰 수정안을 놓고 다투기보다 정확한 영향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이 두개 부서에서는 완전한 해결방안을 갖추고 지원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행정적 융통성의 상실”을 이유로 한다거나 의회에서 기초제안을 변호하는데 유용하지도 않은 막연한 다른 진술 등을 주장해선 안 된다.

논의 핵심

- 이것은 베트남에서 미국정부의 존재를 단계적으로 철수시키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계획의 가속화작업에 불과하다; 미국의 계획의 수정안을 수용하는데서 오는 실제적인 영향력은 무엇인가?
- 법안의 중요 요소와 맞바꾸는 거래를 하기 위해 내키지 않더라도 이 수정안을 수용하는 것은 어떠한 가치가 있을 수 있는가?
- 준비된 안과 같은 가속화 계획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사용가능한 타협안이 있는가?
- 만약 타협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특히 집행될 수 있는 원조금액이 이 법안과 방위비 배정법안에 표시된 만큼 감소된다면 국무부와 국방부는 세부적 액수를 고수하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 이 수정안을 둘러싸고 지나치게 논쟁을 벌인다면 보다 중요한 다른 수정안 변경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4. 무상군사원조와 군사사절단의 철폐는 모든 무상군사원조와 모든 군사 사절단을 3년 이내에 종식 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 “군사원조프로그램 (MAP)고립주의”의 정치적 결과물은 심각할 것이다. - 외교정책의 유용하고 중대한 도구가 소멸될 것이다. 무상원조의 상술효과는 군소저개발국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들 국가에서 군사원조 프로그램은 소규모이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결과적으로 정치적 이익이 많은 젊은 지도자 훈련에 헌신하고 있다. 군사사절단의 제거는 무상군사원조에서 그들의 역할을 종식시킬 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와 군부대간의 연계를 단

절시켜 버린다. (무관과 달리 군사사절단요원은 “스파이”가 아니라 군사동료로 간주되고 있다.) 또한 무엇보다도 이들의 군사물자판매 역할의 종결은 대외수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전략 - 국무부는 국방부의 지원으로, 의회에서 이 점을 폭격하거나 회의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 이것은 인도차이나에 대한 지원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범세계적 목표 달성에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의회에 대해, 무상군사원조는 예산배정에 의해 통제되므로 의회가 최종적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

논의 핵심

- 수정안의 어느 부분을 우선적으로 공격할 것인가?
- 법안이 의원 심의에 회부된 후 이를 약화시키는 수정안을 발의할 사람은 누구로 할 것인가?
- 이슈에 관하여 가변적 입장을 가진 의원은 누구인가? (이 점에 관해서 그네뛰기 투표를 할 의원을 검토한 후 적합한 사람에게 필요한 조치를 위한 책임을 부과할 것)
- 헨리나 슐레진저에게 무게를 실어주는 것을 요청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나 최선의 방법으로 당신은 무엇을 건의 할 것인가? 우리가 당신을 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 주기 바란다.
- 무상원조의 소멸에 대한 다른 국가의 예상반응은 무엇인가? 무상원조거부를 뒷받침 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구체적인 예를 발전시키자. 첫 번째 예는 아마도 이스라엘과 중동 평화의 노력들이 될 것이다. 이 경우에 무상원조는 우리의 영향력을 작용하는데 주요한 측면이 있다.
- 중요 대사를 워싱턴에 소환하여 증언토록 하는 방안에 가치가 없겠는가?

5. 해외군사 사절단의 비용은 무상군사원조 자금에서 지불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총 5천 7백 달러에 이르는 이들 사절단의 비용을 제하고 나면 현존하는 군사원조계획의 노력은 더욱 축소될 것이다. 그 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균등하게 배분되지 않고, 군사원조 계획이

해외 군사훈련에 제한되어 있는 군소재개발국가에 가장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이다.(그 예로 콜롬비아, 에쿠아도르, 엘살바도르, 멕시코, 라이베리아, 자이르, 레바논이 있다)

전략 - 국무부는 국방부의 지원 하에 군사사절단 비용을 잔여 대외군사원조계획 무상원조에 포함시킴으로서 파생되는 문제에 대한 세부 내용을 준비해야 한다. 수용된 미국 정책 목표의 추구에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를 부각 시킬 수 있는 분야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그 후 국무부는 이 점을 의회 심의 시에 폭격할 수 있도록(수정법안이 되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 반복해서 “헐 값”(giveaway)계획의 행정적 관리를 뛰어넘는 사절단의 가치가 강조되어야 한다.

논의 핵심

- 우리가 이 수정안을 수용하거나 강요받게 된다면 미국의 정치적 영향력 상실이라는 차원에서 어떠한 충들을 가져 올 수 있는가?
- 군사사절단이 무상원조프로그램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많은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각자에게 교육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 군수품 판매라는 차원에서 사절단이 대외수지를 향상 시키는데 기여한 역할은 무엇인가? 이 점을 수정안의 해당부분을 폭격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
- 법안의 이 부분에 대해서 그네뛰기 투표를 할 의원은 누구인가?(특정의원을 검토한 후 투표에 의해 가장 성공적으로 영향을 미칠만한 사람에게 행동 책임을 부여할 것)
- 이 수정안에 대한 조치는 3년 내에 무상원조와 사절단을 폐쇄하는 수정안과 긴밀한 관계를 취해 나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다 효과적인 역할의 협조를 위하여 이들 수정안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가?
- 국방부에서, 대외군사원조계획과 해외군수품판매 그리고 무상원조의 행정적 관리를 넘어서 사절단이 수행하고 있는 기능을 열거하여주면 우리들 모두에게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1주일 내에 우리들 모두에게 무엇이든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는가?

6. 추가원조 제공을 위한 국방부 재고 인출권의 박탈은 위기상황에 대한 우리의 대응을

심각하게 약화시킬 것이다. 현재 대통령은 미국의 국가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을 때 군사원조를 위해 국방부재고에서 품목을 발주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고 있다.(차후 군사원조에서 보충한다는 전제가 있음) 이 권한은 캄보디아소요와 1973년 이스라엘 요청에 부응할 수 있었던 능력을 제공하였다. 이 권한이 없었다면 우리는 매 위기마다 특별 입법을 위해 장시간을 소요하는 과정을 겪어야만 했을 것이다.

전략 - 과거 투표기록과 이 법안의 구성으로 보았을 때, 이 법안을 이스라엘에서의 돌발 사태소요와 연계시키는 것이 수정법안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인다. 이 권한이 없었다면 미국은 1973년 전쟁에서 소련이 아랍 국가들에게 무기와 보급품을 대량으로 공급하고 있을 때 적시에 이스라엘을 지원할 수 없었을 것이다.

논의 핵심

- 당신은 대통령 권한을 삭제하는 의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지지 할 것으로 보는가?
- 이스라엘 전쟁과 같은 상황이 미치는 영향력에 대하여 그네뛰기 투표의원들은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 우리가 이 문제를 이스라엘에서 발생했던 우발 사태의 소요가능성과 연계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 1973년 캄보디아의 탄약위기에 대한 권한사용의 예를 드는 것은 역효과를 가져올 것인가?
- 국방부 대표에게 질문을 하건대, 이러한 재고 인출을 위한 미국군비 태세의 약화를 국방부재고에서 노후폐기물품과 장비를 이동하고 이후에 추가적 예산배정으로 대처된다면 각 경우의 장단점을 평가해 줄 수 있겠는가? 이것은 우리끼리 공유할 핵심이며 공개할 수 없으나 가장 흔히 제기되고 있는 반대 이유 가운데 하나로 현실적인 대처 방법을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누가 수정안 파기에 있어서 우리의 선도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 (또는 책임부처가 될 것인가?)

7. 대외군사원조계획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조달 품목 대신에 현재 잉여 방위물품들을 이용하고 있다. 미군에 의하여 더 이상 사용하고 있지 않은 이들 잉여 품은 저개발국가나 대외군사원조계획 자금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다른 나라들에게는 유용할 수 있다. 수정안은 새로운 권한을 부과하여, 모든 잉여품목을 대외군사원조계획의 무상 지원계획의 일부로 원래 가치에서 1/3이상 떨어지지 않는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규제하게 된다. 잉여품의 실제 상태는 고려하지 않는다. 거의 폐품에 가까운 가치를 지니고 있는 물자들의 가격을 부풀려서 판매한다면 대외군사원조계획소요의 충족의욕은 약화되고 폐품 처리를 강요하게 될 것이다. 하나의 좋은 예로 요르단에 제공되었던 잉여트럭들이다. 트럭은 미국의 비싼 노동력으로 수리를 하여 사용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불가능 하였으나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훨씬 싼 요르단에서 이 트럭들은 수리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이들 트럭은 신형트럭의 발송으로 얻을 수 있는 것과 동일한 정도의 정치적 영향력을 얻어낼 수 있었으므로 미국의 비용부담은 현저히 감소되었다.

전략 - 잉여품의 방출은 경제적으로 미국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며 의회에서 부과하는 원조 수준에 대한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논리적인 답변을 개발해내야 한다. 또한 이 답변은 그네뛰기 투표 의원들이 효과적으로 이용하도록 그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그 답변내용은 문서화되어야 하며 사실적이면서 의원들이 읽기에 충분히 간결하게 써야한다.

논의 핵심

- 회계연도인 74년에 그리고 회계연도 75년에 얼마큼의 물자가 제공되었으며, 어떤 나라들이 그 물자를 받았는가?
- 잉여물자 사용에 대한 대안으로 무엇이 가능한가? 자금 절감이 없었는가? 또는 그렇지 않다면 현역부대나 예비군의 절감은 없었는가?
- 국방부대표에게 하는 질문으로 수정안의 제한 없이 잉여품을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미국에게는 최선의 되었을 것이라는 간결한 정보를 오늘 참석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가? 나아가 만약 잉여품의 대부분을 폐품으로 처리한다면 무엇을 잃게 될 것인가?

- 국방부의 적극적인 조사결과에 의하여, 우리가 이 정보를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 그 네뛰기 투표의원은 누가 될 것인가? (그네뛰기 투표의원을 검토한 후 데이터가 제공 될 경우 국방부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한 책임을 부여할 것)
- 국방부에서 해결안을 제공하도록 하면 국무부가 이 수정안에 대해 협조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8. 한국의 군사원조는 무상원조와 차관판매를 74년 회계연도 수준의 3/4를 초과하지 않는 상한선에 의해 제한될 것이며 모든 원조는 3년 내에 종결 될 것이다. 총계 수준은 1억 5천 7백만 달러에서 1억 1천7백50만 달러로 감축될 것이다. 한국정부의 5개년 현대화 계획은 77년 회계연도까지 완료될 수 없는 것이며, 무상 군사원조가 판매로 대체되면 한국 정부는 앞으로 2년에 걸쳐서 3억 5천 달러의 대외군사판매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한국정부는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에 대한 인식으로 인하여 현재 경제개발로부터 자금 유용을 가져올 것이며, 최종적으로 자립경제로의 이전이 지연될 것이다. 한국 정부는 감축(원조)을 미국의 관심이 상실된 것, 한국포기의 증표로 간주하게 될 것이다. 이곳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점은 북한이 미국의 의도를 잘못 파악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전략 - 정치범 재판진행의 민감성, 영부인 시해를 가져온 박 대통령의 암살기도 그리고 한국정부의 전반적인 불안정성 등의 징후들을 감안하여 한국부분의 법안처리에 대하여서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현재의 분위기에서 압력이 가해진다면 한국에 대한 모든 지원을 중단하거나 유보시키려는 노력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나 가까운 미래에 재판이 종결되고 안정이 뒤따를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 우리는 수정안을 파기하는 것을 준비하여야한다. 이것은 한국과의 상호 방위 조약 체결과 한국에서의 미군 주둔에 의해 제공되는 지역의 안정을 요구하는 것에 그 근거를 둔다.

논의 핵심

- 정치범에 대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논쟁은 수정안을 제거하기 위한 우리들의 역량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 한국의 가까운 미래는 보다 큰 안정을 이루게 될 것인가? 군이 박대통령을 제거하고

민주주의의 확충으로 전이될 가능성은? (CIA에서는 이 문제를 검토한 후 회의 대표자들에게 분석내용을 제공할 것)

- 지금 수정안을 제거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면 당신은 언제가 적절하다고 보는가?
- 한국 문제에 대하여는 누가 그네뛰기 투표를 할 것으로 보는가? (그네뛰기 의원을 검토한 후 해당의원에게 행동책임을 부여할 것)
- 누가 수정안 파기를 발의할 것인가?

9. 상업적 통로를 통한 무기 판매는 경제 개발 국가에 무기를 판매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품목이 상업적으로 유용하면 정부 대 정부간의 판매거래는 금지된다. 이것은 대부분의 복잡한 무기판매 체계가 상업적으로 제조된 조립품과 미국 정부 시설에서 제조된 것으로 혼합되어 구성되기 때문에 어떠한 것이 “상업적으로 유용 가능한” 품목이 될 수 있는가를 구분하여 확정한다는 것은 실제적인 문제를 야기 시킨다. 다른 무기 공급 국가들은 그들의 제조업자에게 “보증”과 신용편의를 제공해주고 있다. 이 수정안은 무기 구매를 다른 국가로 이전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대외수지에는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방위산업에는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일부의 경우, 특히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에는 정부 대 정부 계약을 요구하여 상업적 거래를 하지 않을 것이다.

전략 - 이 법안의 영향으로 미국 경제의 2개 분야에서 역효과를 일으킬 것이다; 대외수지와 방위산업이다. 간접적으로 수정안을 동반하게 될 이 법안의 통과는 관련 산업에 실업을 창출할 것이다. 득표라는 측면에서 볼 때 가장 적절한 접근 방법은 방위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다.

논의 핵심

- 어떤 이해 집단이 수정안을 지지하고 있는가?
- 수정안이 통과될 경우 해외 군수물자 판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은 무기 구매처를 프랑스, 영국 및 서독으로 이전할 것인가?
- 대외수지균형에 미치는 영향은?

- 만약 우리가 정부 대 정부 거래를 더 이상 하지 못한다면 미국이 아랍 산유국에게 적절한 영향력을 계속해서 행사할 수 있겠는가?
- 해외 정부 판매의 상실은 방위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 올 것인가? 이 분야의 산업에 고용된 인력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은?
- 이 문제에 대하여 누가 그네뛰기 투표 의원이 될 것인가? (그네뛰기 투표의원을 검토하고 해당요원에게 책임부여 할 것)

10. 차관무기판매에 대한 이율은 모든 차관무기구매에 대한 유사한 기간에 설정된 재무부 대출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미국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중요하다라는 시기에 우대 이율을 부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게 된다.

전략 - 국무부의 건의에 기초하여 수정안 파기를 시도 할 것.

논의 핵심

- 교섭 도구로서 우대율을 삭제하는 것에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국가들은 어떤 나라 들인가? (국무부는 최근 연도의 우대율 표를 제공할 것)
- 정치적 이득의 상실은 어떠한 것들이 있겠는가?
- 이 문제에 관하여 누가 그네뛰기 의원이 될 것인가? (검토 후 적절한 요원에게 책동 책임을 부여할 것)
- 누가 수정안 파기를 발의할 것인가?

11. 칠레는 무상과 대외군사판매 차관을 합쳐서 총 1천1백만 달러의 한도를 갖게 될 것이다. 소련제 전차와 다른 무기가 페루로 흘러들어가는 상황에서, 페루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칠레 측의 인식으로 보면 이 액수는 칠레가 생각하는 최소한도내의 필요를 충족하는데 적절하지 않다. 부차적으로 칠레는 현재 공산주의자들의 축출을 위해 미국으로부터의 보상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칠레정부는 “민주적”인 것에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민주주의로 이전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원조에 대해서도 상당한 반대가 있다.

전략 - 수정안 거래를 위한 어떠한 효과적인 동의도 군사정권의 성격이나 공산주의 정권저지를 위한 칠레 측의 “보상” 인식에 근거를 둘 수는 없다. 가장 효과적인 접근 방법은 소련의 페루 침공 사실을 지적하고, 칠레를 대항세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칠레지원에 대한 근거를 두어야 할 것이다. 칠레의 75회계연도의 예산 제출은 실제로는 대외 군사 원조 계획의 겨우 80만 달러와 대외 군사 판매 차관 2천50만 달러를 제공하였을 뿐이다.

논의 핵심

- 칠레에 대한 페루의 위협은 무엇인가? (CIA에서 판단근거를 제공할 것)
- 소련은 페루에 군사원조를 얼마나 제공 하였으며 또한 앞으로 얼마나 더 줄 것이라고 예상하는가? (CIA에서 판단근거를 제공할 것)
- 칠레의 실제적인 군사 필요성에 대한 최선의 판단은 무엇인가? (국무부에서 판단근거를 제공할 것)
- 이것은 라틴 아메리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 이 문제에 관하여 누가 그네뛰기 의원이 될 것인가? (검토 후 적절한 요원에게 책동 책임을 부여할 것)
- 누가 수정안 파기를 발의할 것인가?

12. 해외 지원법의 제한 사항에 대한 대통령의 면제권한이 철회되면 대통령은 예상치 못한 사태가 진행되는 것에 대처함에 있어서 융통성을 잃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빈번하게 특별입법을 요청해야 하고, 적시에 위기상황에 대응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전략 - 철회는 대통령으로서 1973년 이스라엘전쟁과 같은 상황에 실질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도록 만들 것이다. 이것이 권한 확보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정당한 이유가 될 것이나 다양한 예를 타부서로부터 받아야 한다.

논의 핵심

- 지난해에 (제한) 면제권한은 얼마나 사용되었는가? (국무부는 배경을 제공 할 것)

- 면제 권한이 없었다면 어떠한 결과가 있었겠는가? (국무부는 보고서 제공할 것)
- 면제 권한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10월 전쟁에서 성취하지 못했던 일들은 무엇이 있을 수 있는가? (국무부와 국방부는 보고서 제출)
- 이 문제에 관해서 누가 그네뛰기 의원이 될 것인가? (검토 후 적절한 요원에게 책임 부여 할 것)

13. 외국 경찰, 교도소 관리 또는 국내 안보 군에 대한 경찰훈련은 금지되어 있다. 이로써 국제마약거래 및 테러 통제를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 가운데 경찰 요소에 대한 한 가지 실질적인 채널이 없어질 것이다.

전략 - 수정안 파기를 시도

논의 핵심

- 이 능력의 확보는 얼마나 중요한가? 수정안의 통과에 따라 어떠한 영향들이 파생하겠는가? (국무부는 국방부의 지원 하에 그 예를 제공할 것)
- 반대 세력은 얼마나 강력한가?
- 그네뛰기 투표의원은 누구이겠는가? (검토 후 적절하다면 책임을 부여할 것)
- 누가 수정안 파기를 발의할 것인가?

14. 해외 군사 판매를 5억 5천5백만 달러에서 4억 5천5백만 달러로 삭감을 함으로써, 부족분의 배분 방법에 따라 대외군사원조계획에 대하여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전략 - 각 이해집단에 미치는 국가별 영향력을 지적하면서 지원을 확보할 것.

논의 핵심

- 이 삭감은 어디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국무부는 국방부와 협조하여 판단근거를 제공할 것)

- 각 국가별 문제에 있어서 누가 그네뛰기 투표의원으로 적절한가? (개별 이해집단별로 세부사항을 검토한 후 각자에게 책임을 부여할 것)
- 어떠한 타협이 가능할 것인가?

1975 회계연도의 방위비 배정 방안

하원은 H.R. 16243을 통과시켜 8월 6일에 국방부에 대한 배정을 하였다. 상위 예산 배정위원회의 국방 분과 위원회 (의장 McClellan)는 8월 13일 의안 결정을 완료하였다. 전원 위원회는 8월 16일에 의안 결정을 완료하였다. 의안 투표는 다음 주에 예상되고 있다.

방위비 배정법

법안은 아직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다. 국방부는 입법관련 부처간 회의의 많은 노력이 없이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베트남 삭감의 파생효과는 현 시점에 가장 의미가 큰 요소로서, 백악관의 강력한 지원 하에 부처들 상호 간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 요구된다.

1. 남부베트남군 군사지원(MASF: Military Assistance South Vietnam Forces) 14억5천만 달러에서 7억 달러로 삭감이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자원이 실제 삭감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육군의 탄약조달 역시 13억 3천5백만 달러에서 7억 3천 2백만 달러로 삭감되었으며, 이 삭감 액수 가운데 4억 달러는 육군의 대 베트남 조달분에서 대 베트남 군사지원으로 이전이 된 것이다. 실질적인 효과면에서 베트남에 배정된 자원 삭감은 18억 5천만 달러에서 7억 달러로 즉 총액의 46%이다. 현재의 수준에서 베트남 정부는 전투가 계속된다면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다. 베트남정부는 탄약 소모를 심하게 제한하기 때문에 사상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가 이미 입수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현재와 같은 소모수준이 지속된다면 최소한의 현상을 유지해나가는 데에도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나아가서, 베트남 부대의 전투력 저하는 북베트남 측에 부가적인 인센티브를 주게 될 것이고, 그들이 공개적인 군사작전을 확대해 나감으로서 미국을 더욱 어려운 처지로 몰아가게 될 것이다.

이것은 미국지원의 결여로 인한 베트남화의 실패를 표시하게 될 것이다.

논의 핵심

- 어느 정도의 타협이 가능한가?
- 전면적 삭감 또는 타협안 절충은 베트남정부에 정치적 및 군사적 의미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 타협안을 지지하는 의원은 누구인가? (검토 후 적절한 요원에게 책임부여)

2. 해외 군사 인력 2만 5천명 감축은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유럽에서의 삭감은 동서유럽 상호균형 병력 감축(MAFR)에서의 교섭위치를 약화시킬 것이다. 아시아에서의 삭감은 한국이나 태국에서의 미군 주둔을 사실상 제거 하거나 양국에서 실질적인 감소를 가져올 것이다. 태국에서의 삭감 프로그램은 작성되어 있으나 이 정도는 아니며, 북베트남의 주도권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신축성을 가진 예정표가 준비되어 있다.

전략 - 수정안 파기를 시도

논의 핵심

- 국방부는 어디에서 그러한 삭감을 수용할 것인가? 군사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의미에서 삭감이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 있을 수 있는가?
- 이 문제에 대해서 누가 그네뛰기 투표의원이 될 것인가? (검토 후 적절한 의원에게 책임을 부여 할 것)
- 누가 수정안 파기를 발의 할 것인가?

국무부 인가 법안

상원 법안은 몇 가지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을 지니고 있다. 일부는 크게까지 고려할 만한 가치가 없으나 다른 몇 가지 부분은 부처간에 세심한 협조를 요한다. 하원법안에는 별

다른 문제가 없으며 이번 주 내에 표결에 회부될 것이다. 우리는 법안에 문제가 없는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대만 결의안의 철회가 다시 제안되었다. 입법관련 부처간 회의는 종전에 이 문제가 공공연한 논의 의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에 근거하여 반대하였다. 이 결의안은 대통령에 대한 의회의 지원 신호로서 통과되었다. 국무부는 이 결의안이 중화민국과의 상호 안보조약에 의하여 대체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전략 - 종전의 행정부 입장은 결의안이 철회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에 기인하였으나 한편으로는 상원에서 확고한 입장을 취한다면 “반대 없음”이 가장 유리할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이 입장은 아직도 적합하다.

논의 핵심

- 철회에 대한 지지는 실제로 어느 정도이겠는가?
- 행정부로서, 결의안이 철회되어서는 안 될 것이나 상원의 입장이 확고부동하다면 “반대 없음”이라는 입장을 밝힐 준비를 할 것인가?

2. 부양가족의 여행경비는 국무부에서 그들 요원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예산관리처는 재정관리 차원에서 반대를 하고 있다.

전략 - 국무부와 예산 관리처로 하여금 타협안을 도출케 한 후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를 평가하여 행정부의 입장을 정확히 할 것.

논의 핵심

- 국무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 예산관리처의 입장은 무엇인가?
- 다른 부처에서 의견이 있는가? 행정부 내에서 부서 간 타협을 이루어 낼 수 있는가?

3. 대통령의 대표자로서의 대사의 권한과 해외에서의 최고의 지위를 입법화 할 것이다. 이것은 대통령 권한 분야에서 부적절하게 입법화 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략 - 웨이너 헤이즈(Wayne Hays) 하원 의원은 수정안이 부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시사하였다. 그러나 그는 대통령이 현지에서 어떠한 요구가 없이도 대사를 통하여 일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에게 융통성을 부여할 수 있는 표현을 삽입하는 것에 동의할 것이다. “표현”이라고 해도 괜찮은가?

논의 핵심

- 국무부는 헤이즈 의원이 지적한 대통령이 대사를 경유해야 한다는 규제를 받지 않고 현지에서 일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융통성을 갖도록 표현을 변경하는 작업을 하는 것에 다른 의견이 있는가?

4. 외교업무인가입법의 재현은 미래의 외교업무에 관련한 승인 및 예산 배정에 있어서 행정부에 의한 법령체계의 제출을 설정하게 될 것이다. 이는 상원에서 국무부 고유 관리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예산 배정부문에 대한 국방부와 타 부처의 인지를 제거할 것이다.

전략 - 국무부는 헤이즈 의원이 회의에서 수정안을 부결 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고 알려주었다.

논의 핵심

- 어떠한 추가적 지원이 주어진다면 헤이즈의원으로 하여금 회의에서 수정안을 부결시킬 수 있도록 하겠는가?, 그네뛰기 투표의원은 누가 될 것인가? (검토 후 적절한 담당자에게 책임을 부여할 것)

5. 군사기지협정은 앞으로 새로운 해외군사기지설정이거나 기존 기지 협정의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하여 의회에서 승인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이 분야에서 행정적인 사

안을 협상하는데 있어서 대통령의 권한을 부정하게 된다.

전략 - 회의 시 수정안을 부결토록 시도할 것 (비본질적인 안건)

논의 핵심

- 그네뛰기 투표의원은 누가 될 것인가? (검토 후 관계요원에게 책임을 부여할 것)

6. 디에고 갈시아(Diego Garcia) 수정안은 미국과 영국 간에 체결된 디에고 갈시아 군사기지 건설 협정의 시행을 금지하게 될 것이다.

전략 - 국무부는 헤이즈 위원이 회의에서 이 수정안은 부결될 것으로 믿는다고 보고해왔다. 회의에서 우리의 대응책을 시도해야 한다.

논의 핵심

- 회의 과정에서 수정안이 부결 될 수 있겠는가?

- 그네뛰기 투표의원은 누가 될 것인가? (검토 후 적절한 담당자에게 책임을 부여할 것)

7. 쿠바정책 검토는 새로운 국가정책을 발전시킬 목적으로 행정부에 지시되어 있다.

전략 - 여기서 정책은 수정안에 대한 지원 성격이 분명해 질 때까지 낮은 수준으로 반대하여야 한다.

논의 핵심

- 수정안에 대한 지원은 어느 정도가 가능할 것인가?

- 행정부의 현행 정책 변화에 대한 가능성은 어떠한가?

- 그네뛰기 투표의원은 누가 될 것인가? (검토 후 적절한 담당자에게 책임을 부여할 것)

8. 일부 해외 미국 요원의 감축은 1975년 6월 30일까지 미국정부 민간공무원의 2%와

해외병력의 10% 감축을 지시한다.

전략 - 회의 진행시 수정안을 부결 시킬 것. 헤이즈의원은 행정부 동의를 지지할 것이다.

논의 핵심

- 민간 공무원 2% 감축의 영향은 무엇이겠는가?
- 병력 감축 10%는 어디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 그네뛰기투표의원은 누가 될 것인가? (검토 후 담당자에게 책임을 부여 할 것)

백악관

10시, 참석자, 루즈벨트룸에서 입법관련 부처간 회의 - 9월 24일 화요일

거버너 홀튼(Governor Holton) - 국무부

머리 (Mr. Maury) - 국방부

매스유 하비(Matthew Harvey) - 국제개발처(국무부)

톰 칼로고스(Tom Korologos)

맥스 프리데스도프(Max Friedersdorf)

리차드 케네디(Richard Kennedy)(국가안보회의 요원)

버드 맥팔레인(Bud McFarlane)

돈 오길비에(Don Ogilvie)(행정관리 예산국)

주제 : 해외 원조

입법관련 부처간 회의 참석자. 1974년 11월 22일 금요일, 루즈벨트 룸에서 10:00시

윌리엄 팀몬스(William Timmons) - 의장

톰 칼로고스(Tom Korologos)

버드 오 '도넬'(Bud O'Donnel)

맥스 프리데스도프(Max Friedersdorf)

윌번 아인스워스(Wilburn Ainsworth)

버넌 로엔(Vernon Loen)

리차드 케네디(Richard Kennedy)

마스 잔카(Bas Janka)

거버너 린우드 홀튼(Governor Linwood Holton) - 국무부

사무엘 골드버그(Mr. Samuel Goldberg) - 국무부

제임스 미셸(Mr. James Michel) - 국무부

칼 모(Mr. Carl Maw)- 국무부

존 M. 머리(John M. Maury) - 국방부

도날드 프로이드(Donald Floyd) - 국방부

매스유 하비(Matthew Harvey) - 국제개발처

도날드 오길비에(Donald Ogilvie) - 행정관리 예산국

헤리 쇼(Harry Shaw) - 행정관리 예산국

유건 콕(Mr. Eugene Kopp) - 미국 공보처

입법관련 부처간 회의 참석자. 1974년 12월 3일 화요일, 루즈벨트 룸에서 10:30

윌리엄 팀몬스(William Timmons) - 의장

톰 칼로고스(Tom Korologos)

맥스 프리데스도프(Max Friedersdorf)

리차드 케네디(Richard Kennedy)

코로넬 클린톤 그랜저(Colonel Clinton Granger) - 국가 안보 회의

버드 맥팔레인(Bud McFarlane)

카일러 모(Carlyle Maw)국무차관

사무엘 골드버그(Mr. Samuel Goldberg)

제임스 미셸(Mr. James Michel)

존 M. 머리(John M. Maury) - 국방부

도널드 프로이드(Donald Floyd) - 국방부

에드워드 히달고(Edward Hidalgo) - 미국 공보처

매스유 하비(Matthew Harvey) - 국제개발처

도널드 오길비에(Donald Ogilvie) - 행정 관리 예산국

입법관련 부처간 회의 참석자. 1974년 12월 9일 월요일, 루즈벨트 룸에서 09:54

윌리엄 팀몬스(William Timmons) - 의장

톰 칼로고스(Tom Korologos)

맥스 프리데스도프(Max Friedersdorf)

리차드 케네디(Richard Kennedy)

버드 맥팔레인(Bud McFarlane)

카일러 모(Carlyle Maw)국무차관

사무엘 골드버그(Mr. Samuel Goldberg)

제임스 미셸(Mr. James Michel)

존 M. 머리(John M. Maury) - 국방부

도널드 프로이드(Donald Floyd) - 국방부

에드워드 히달고(Edward Hidalgo) - 미국 공보처

매스유 하비(Matthew Harvey) - 국제개발처

도널드 오길비에(Donald Ogilvie) - 행정 관리 예산국

■ 유엔총회에서 한국 문제

- | | |
|------------------------------|------------------------|
| • 형태 : 전문 | • 일자 : 1974.8.20 00:42 |
| • 발신 : 워싱턴 국무부장관 | • 수신 : 서울 미국대사관 |
| • 출처정보 : DEPARTMENT OF STATE | • 관리번호 : CTA0000754 |

1. 참조 전문들 안에 제기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들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김 외 무부장관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A. 불가침협정

우리의 의도는 한국이 쌍방의 기초 위에서 북한에 이 제안을 계속해서 제기하고자 하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완전히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놔두고 우리의 포괄적 제안에서 불가침조약만을 떨어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것이 하비브 대사에 의해 일찍 한국에 분명히 알려졌으며 한국이 우리의 입장을 이해했다고 생각하였습니다.(SEOUL 5093, 4번째 문단)

B. 한국의 유엔 가입

가입 문제에 대해 북한이 반복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견해를 가정했을 때, 비록 우리가 우방국들에 동시가입 또는 한국의 단독가입을 지지하도록 총력전을 펼 수 있었을지라도 우리는 거의 어떠한 성공의 가능성도 보지 못했습니다. 또한 우리의 유엔군사령부 제안이

한반도의 분단을 영구화시킬 수 있다는 관점에서 중공과 북한이 그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는 점은 명백합니다. 그러한 사정으로 우리의 제안은 검토 중에 있으며 우리는 단독가입이나 동시가입에 대한 어떠한 말도 무시해야 한다고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김 외무부장관이 워싱턴을 방문할 때 그와 이 문제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키신저

■ 대통령 방문

- | | |
|------------------------------|------------------------|
| • 형태 : 전문 | • 일자 : 1974.9.17 15:28 |
| • 발신 : 워싱턴 국무부장관 | • 수신 : 서울 미국대사관 |
| • 출처정보 : DEPARTMENT OF STATE | • 관리번호 : CTA0000754 |

1. 귀하는 승인이 떨어질 때까지 박 대통령께 대통령의 방문을 통보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일본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한국에 통보하기를 바라지 않으며 공개적인 발표의 방법과 시간에 대해 합의하였습니다. 한일 문제가 해결되기에 앞서 박에게 비밀리에 통보하는 것은 한국의 입장을 더욱 어렵게 만들지 모르며 비밀이 새어나갈 수 있고 우리 쪽에 때가 적절치 않은 행동으로 일본에 의해 취해질지도 모릅니다.

2. 함 대사가 공식적인 방문 초청에 참석하기 위해 9월 17일에 올 것입니다. 저는 그에게 이 주제가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말할 것이며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귀하가 비슷하게 답해 줄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키신저

■ 주한 미합동군사업무단의 인력감축

- | | |
|----------------------------------|----------------------|
| • 형태 : 비망록 | • 일자 : 1974.9.19(추정) |
| • 발신 : Henry A. Kissinger(국무부장관) | • 수신 : 국방부 장관 |
| • 출처정보 : THE WHITE HOUSE 4236 | • 관리번호 : CTA0000657 |

1974년 9월 19일자 당신의 비망록에서 제안한 인력감축을 검토한 바 이를 승인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한국 방문이 끝나기 전에는 어떤 조치도 취해서는 안됩니다.

헨리 키신저(Henry A. Kissinger)

■ 대통령에게 보내는 축하 메시지: 한국

- 형태 : 비망록
- 일자 : 1974.9.20
- 발신 : George S. Springsteen(국무부 사무총장)
- 수신 : Brent Scowcroft(백악관 군사보좌관)
- 출처정보 : DEPARTMENT OF STATE 7418204
- 관리번호 : CTA0000709

한국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의 축하 메시지를 받고 포드 대통령께서 이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세명의 국회의원과 한국 상공회의소 회장에게서 온 축하메시지 사본도 첨부했지만 이에 대한 답변은 필요하지 않으리라 여겨집니다. 이에 대해서는 프리베 씨와 상의했으며 그도 동의했습니다.

조지 S. 스프링스틴
사무국장

첨부 :

1. 국회의원 김명회(Kim Myong Whai)에게서 온 메시지
2. 국회의원 김용태(Kim Yong Tae)에게서 온 메시지
3. 국회의원 김택하(Kim Taek Har)에게서 온 메시지
4. 상공회의소장 김성곤(Kim Sung Kon)에게서 온 메시지

■ 김 외무장관의 국무부 장관 방문

- 형태 : 전문
- 일자 : 1974.9.28. 20:11
- 발신 : 워싱턴 국무부장관
- 수신 : 서울 미국대사관
- 출처정보 : DEPARTMENT OF STATE 6956/7Q
- 관리번호 : CTA0000754

1. 한국의 김 외무장관은 9월 27일 국무부 장관을 방문했습니다. 하비브씨 또한 참석했습니다. 김은 최근 한일 논쟁에서 미국이 보여준 역할과 곧 있을 대통령의 한국 방문에

대한 감사의 말로 시작하였습니다. 국무부 장관은 김이 박대통령께 그의 애도의 뜻을 전달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난후 논의가 다음과 같은 주제들로 옮겨졌습니다.

2. 유엔에서의 유엔군사령부 협상. 장관은 10월 2일에 뉴욕에서 차오(Chiao)와 함께 하는 저녁 만찬에서 우리의 유엔군사령부 제안에 대한 중화인민공화국의 대답을 듣기를 바란다고 김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김에게 중공의 입장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고, 또한 미국이 유엔에서 한국을 강력하게 지지할 것이라고 김에게 보증을 해주었습니다.

3. 김은 남한의 유엔 가입에 호의를 부탁했습니다. 남한은 북한과 동시에 또는 단독으로 가입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4. 김은 또한 미국의 장기적인 대외군사원조계획(MAP)에 대해 물었습니다. 장관은 이 시점에서 이러한 주제를 논의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지만, 포드 대통령이 한국에 오면 그것을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5. 김은 남한이 외신 기자들에 대한 입장을 바꿨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엘리자베스 연못 출입을 다시 허용할 것이며 박 대통령이 만날 수 있도록 미국이 기자들에게 제안해 준 것에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장관은 좋은 태도라고 말했습니다.

6. 장관은 북한에서 나온 전 세계의 정보들을 모으고 있으며 미국과의 대화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북한에 바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뭔가를 하기 전에 한국과 논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이 북한이 퍼뜨린 소문을 들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에게 단지 이것을 말할 뿐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7. 장관은 또한 우리의 유엔군사령부 제안을 그로미코(Gromyko)와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로미코는 그것을 거부하지 않았지만, 중공이 새로운 제안으로 판문점에 남을 수 있다는 점을 좋지 않게 보았습니다. 장관은 유엔의 전망이 우호적으로 보인다고 관찰했으며 끝을 맺었습니다.

키신저

■ [다니엘 지 주교 조작사건과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 대통령의 방한계획에 대한 반대]

- 형태 : 편지
- 발신 : 원주 교구 신부(미상)
- 출처정보 : DEPARTMENT OF STATE
- 일자 : 1974.9.30
- 수신 : 서울 미국대사관(추정)
- 관리번호 : CTA0000776

My dear friends,

편지를 너무나 늦게 보내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돌로가트(Dologate) 교황 보좌로 일하고, 랭귀지 스쿨에 다니고 한편으로는 교구 일을 하려 애쓰고 골프나 테니스를 치기도 하느라 아주 바빴습니다. 현재 저는 원주 교구에서 일하고 있는데 우리의 주교, 다니엘 지(Daniel Tji) 주교는 조작된 사건으로 선동 혐의로 15년 형을 받고 감옥에 계십니다. 분명 미국 신문들에서 이에 대해 많이 들어 알고 계실 것이며 지 주교님이 지금의 전체주의적 정권에 반대한 이유로 감옥에서 쇠약해지고 있는 많은 한국 애국자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시고 계시지만 이는 선동이 목적이 아니라 인권 회복을 위한 것이었다고 말씀하시는 지 주교님을 그들이 엮어넣은 사건에 관해 상세한 내용을 전해줄 편지 한 장을 따로 동봉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의 정권은 1972년에 수천명을 무작위로 구속하고 감옥에 집어넣으면서 공포 분위기를 창출함으로써 새 헌법을 강제했습니다. 이 헌법은 대통령에게 무제한의 권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는 소위 계엄령을 발포하곤 했습니다. 이 계엄령은 그의 새로운 헌법에 대한 비판을 금지하고 있으며 사형까지 가능합니다. 이 새 헌법은 구 헌법에서는 보장되어 있었던 인신보호영장(habeas corpus)을 금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독단적인 구속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현재 수천명의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 있으며 수백명이 실종되었습니다. 이들은 대개 밤중에 비밀 경찰에 의해 끌려갔습니다.

현재 포드 대통령은 그가 대통령직에 오른 후 방문하는 두 번째 국가로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대통령에게 이 나라를 방문함으로써 그리고 지금 존재하는 테러리스트 정권을 은연 중에 지지함으로써 미국의 이름을 더럽히지 마시라고 편지를 써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미국은 이곳에서

여전히 경제적(우리는 매년 1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습니다)으로나 명성으로나(미국은 일본에서 한국을 해방시켰으며 다시 공산주의로부터 구해주었습니다)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 외교관들이 이미 이곳 정권과 협상을 해서 현재의 정부가 청산될 것이라는 약속을 이미 받았기를 희망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포드 대통령께서 이곳에 오시지 마시라고 촉구해 주십시오.

- 1) 진정한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결사의 자유가 실현될 때까지
- 2) 정치적인 혐의나 소위 계엄 조치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감옥에 있는 모든 이들이 풀려날 때까지.

제발 저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대통령, 당신들의 대통령에게 그리고 the VFW(5만 명 이상의 미국 병사들이 한국을 학정에서 구하기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에 즉각 편지를 써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친구들에게도 똑같이 해달라고 부탁해 주십시오. 이곳의 정부가 인권 억압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11월 22일로 예정된 포드 대통령의 방문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압력을 가해 달라고 촉구해 주십시오.

인류를 모든 면에서, 특히 영적인 면에서 구원하는 것을 포함해 우리의 선교 일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의 추석인 오늘 아침, 저는 이민국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저에게 종교적인 활동 외에 다른 어떤 활동에도 관여하지 말 것을 경고하기 위해 서울에서 80마일을 운전해 아침 9시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이 편지를 마치면서 그들과 당신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 남북 대화

- | | |
|-----------------------------------|---------------------|
| • 형태 : 전문 | • 일자 : 1974.10.4 |
| • 발신 : 서울 미국대사관 | • 수신 : 국무부 장관 |
| • 출처정보 : DEPARTMENT OF STATE 4343 | • 관리번호 : CTA0000767 |

1. 대사는 이범석 대한적십자사 부회장의 예방을 맞아 남북 대화에 대하여 논의함.
2. 이범석은 대사에게 남북대화의 현 상태와 관련하여 reftel에 보고된 바와 같은 기조 및 보고내용보다 간략한 세부사항을 알려줌.

3. 이에 대하여 대사는 이범석에게 대화 및 기존 연락 채널의 유지가 갖는 중요성을 지적함. 또한 한국정부가 남북 적십자사 대화와 남북 접촉의 진전을 촉구하는 기존의 입장을 개선할 때 인도주의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 홍보와 외부 여론상 매우 유리할 것임을 지적함. 남북 대화 기제를 지나치게 선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실제로 한국정부에 이익이 되지 못함.

4. 이범석은 대사의 의견에 개인적으로 동의한다고 하면서, 한국정부가 양측의 기존 연락 채널을 위태롭게 할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함.

스나이더 (SNEIDER)

■ 한국 관련 현안 보고서

- 형태 : 비망록
- 발신 : George S. Springsteen(국무부 사무총장)
- 출처정보 : DEPARTMENT OF STATE 7420660
- 일자 : 1974.10.19
- 수신 : Brent Scowcroft(백악관 군사보좌관)
- 관리번호 : CTA0000657

장관께서 대통령각하께 브리핑하는데 사용할 한국 관련 현안 보고서를 첨부합니다.

사무처장 조오지 스프링스틴(George S. Springsteen)

첨부 : 현안 보고서

■ 주한 미합동군사업무단의 인력 감축

- 형태 : 비망록
- 발신 : 백악관
- 출처정보 : THE WHITE HOUSE 4236
- 일자 : 1974.10.28
- 수신 : 국방부 부장관
- 관리번호 : CTA0000657

1974년 9월 19일자의 당신 비망록에서 제안한 인력감축을 재검토한바 이를 승인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한국 방문이 끝나기 전에는 어떤 조치도 취해서는 안됩니다.

헨리 키신저

■ [수행 요청에 대한 거절]

- 형태 : 편지
- 일자 : 1974.10.31
- 발신 : Donald L. Lenerd(한국 국장)
- 수신 : Norman W. Mitchell(아이작 초등학교 행정부)
- 출처정보 : DEPARTMENT OF STATE
- 관리번호 : CTA0000783

미첼 씨에게 :

저는 귀하가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수행하고 싶다는 귀하의 제안을 담은 귀하가 10월 4일에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 답변을 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대통령 일행이나 언론 외에 다른 사람을 포함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귀하에게 전하게 되어서 유감입니다.

시간과 의전상(protocol)의 제약 때문에 고위 방문객들이 호스트 국가의 사람들과 광범위한 만남을 가지지 못한다는 귀하의 의견에 대해서는 몇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우리 대사관의 상주 스태프들의 최고위 관리들 중의 한 사람이 귀하가 추천한 다양한 접촉을 통해 한국 사회에 대해 가능한 한 폭넓은 이해를 얻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정부 외부에서 대표단들을 포함시킬 수 있었다면 귀하의 배경은 대통령의 방문 성공에 기여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미래에도 귀하께서 한국과 관련한 귀하의 견해들을 우리의 대외 관계에서 이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적절한 정부 관리들과 지속적으로 나눌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Sincerely,
 도널드 L. 레너드
 한국 관계 국장

■ 대통령의 한국 방문 수행 제안

- 형태 : 비망록
- 일자 : 1974.11.1
- 발신 : George S. Springsteen(국무부 사무총장)
- 수신 : Brent Scowcroft(백악관 군사보좌관)
- 출처정보 : DEPARTMENT OF STATE S/S-7419847
- 관리번호 : CTA0000783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경험을 가지고 있는 노만 W. 미첼 씨가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수행하고 싶다고 제안한 것에 대한 편지 사본을 첨부했습니다. 그의 최우선적인 목표는 그가 생각하기에 공식 방문 기간 간과될 한국의 '민중들' 과 더 많이 만나고자 하는 것인 듯 합니다. 편지에는 그의 의견에 대해 미첼 씨에게 감사하는 내용과 하지만 그를 대통령 일행에 포함시키는 것은 어렵다는 내용이 써어 있습니다.

조지 S. 스프링스틴 집행위원장

첨부 :

1. 미첼 씨에게 보내는 편지
2. 미첼 씨가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

백악관

워싱턴 D.C.

포드 대통령 각하:

저는 지난 15년간 다양한 정부 기구(Government agencies)와 입법 위원회(Legislative Committees)에서 일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워싱턴 D.C.에서 보냈습니다. 저는 이 편지가 각하에게 개인적으로 전달되리라고 진심으로 생각하는 것은 다소 순진한 생각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저는 종종 정부 관리들에게 편지를 쓰고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각하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바쁜 사람 중의 한 사람일 것이라는 점과 각하께서 모든 서신들을 개인적으로 다 읽으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편지들은 직접 각하에게 전달되기도 한다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달 각하께서 일본과 한국 방문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 지역에 저 자신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매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오랜 한국 친구들로부터 각하의 방문에 대한 그들의 기대를 나타내는 여러 편지들을 받았 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도움이 되리라 희망하면서 저의 과거 경험들에 대해 각하께 편지를 써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저는 한국과 미국 관계에 대한 전문가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을 비롯해 여러 나라들에서 개인 대 개인으로 일해온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각하의 방문에 조

금이나마 식견을 더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1951년에서 1952년 한국 전쟁 시기에 공군으로 복무했습니다. 이 지역에서의 저의 가장 최근의 공식적인 방문은 1966년 11월과 12월, 미 국무부 A.I.D.의 평화를 위한 식량 프로그램(A.I.D. Food for Peace Program)의 무보수 자원 봉사 자문으로 전국적인 아동 급식 프로그램 설치를 도우면서 한국 교육부와 일할 때였습니다. 저는 그 여행에서의 경험에 관해 간단하게 말하고자 합니다. 다른 미국인과 함께 저는 존슨 대통령의 역사적인 1966년의 한국 방문 주간에 도쿄에서 일본 교육부 장관과 함께 일하면서 보냈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떠나신 그날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우리는 정부 관리들은 대통령의 방문에 대해 아주 열광하고 있었지만 국민들은 그렇게 기뻐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국민들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감정은 미국은 언제나 고위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빅 쇼를 열기만 할 뿐 그 일행 중에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은 전혀 없는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방문했던 모든 나라들에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대사' 급 사람들, 관리들, 그리고 정치인들은 평균적인 민중들의 수준으로 스스로를 낮추고 내려오려는 노력도 시간도 결코 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는 전세계 민중들에게 우리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손상시킵니다. 그들은 미국인들이 그들을 무시하고 있다고 느끼며 저는 그들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불행히도 우리 관리 대표단의 대다수는 민중들의 수준으로 내려가서 그들을 진정으로 알고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럴 의사가 없습니다. 그들의 '상관없어(don't care)' 하는 식의 태도는 우리에게 대한 세계의 의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서글픈 일입니다.

각하의 한국 방문은 그들의 정부와 우리의 실질적인 관계를 촉진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지만 저는 각하께서 각하의 일행에 민중들과 어울릴 수 있는 실제적인 미국인들을 포함시켜주시기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한국인들에게 우리 역시 민중들을 신경쓰고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유형의 사람들은 이를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민중들을 알고 있고 그들을 이해하며 과거의 우호적인 실질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 정부로부터 안보상의 승인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저 자신을 위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만약 제가 각하의 일행으로 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그럴 수 있다면 아주 기쁠 것입니다. 저는 모든 미국인들을 대신해 다른 나라들에 그 나라의 민중들을

진심으로 아끼는 대표단을 보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우리는 이미 다른 종류의 사람들은 너무 많이 보냈습니다. 각하에게는 각하께서 어디를 가시든 모든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다른 기독교인들이 각하를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편지를 접으면서 저는 공화당원이며 각하와 각하의 리더십을 믿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신뢰하고 자랑스러워하고 또한 저는 우리가 우리 대표단이 민중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들을 우리 국민처럼 아낀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전세계 모든 나라들에 친구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진심으로 믿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편지를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성과가 큰 여행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Respectfully yours,

노만 W. 미첼

■ 키신저 장관의 중국 방문

- | | |
|------------------------------|-------------------------|
| • 형태 : 전문 | • 일자 : 1974.11.10 20:33 |
| • 발신 : 워싱턴 국무부장관 | • 수신 : 서울 미국대사관 |
| • 출처정보 : DEPARTMENT OF STATE | • 관리번호 : CTA0000754 |

국무부장관이 스나이더 대사에게 보냄

1. 11월 11일 12시 정오에(베이징 시간으로 화요일 오전 1:00), 다음과 같은 성명서가 워싱턴과 베이징에 공동으로 발표될 것입니다. 내용 시작: 미국의 국무부장관이자 대통령 안보 담당 보좌관인 헨리 키신저 박사가 1974년 11월 25일에서 29일까지 중화인민공화국을 방문할 것임을 협의를 통해 합의하였다. 내용 끝.

2. 박 대통령과 귀하에 판단에 따라 김 외무부장관에게 이 성명서를 한국 시간으로 11월 11일 오후 2시에 통보하고, 우리는 한국이 먼저 통보받기를 원했다고 그에게 말하며, 성명서가 공식적으로 발표될 때까지 가장 엄격한 비밀 유지를 당부할 것을 귀하께 지시합니다.

귀하는 또한 “이 방문이 두 정부 사이의 정례적인 고위급 접촉을 요구하는 상하이 공동 성명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한국 정부에 강조해야 합니다.

키신저

■ 대한민국으로의 F4D 전투기 판매

- 형태 : 비망록
- 일자 : 1974.11.21
- 발신 : George S. Springsteen(국무부 사무처장)
- 수신 : Brent Scowcroft(백악관 군사보좌관 장군)
- 출처정보 : DEPARTMENT OF STATE S/S-7422494
- 관리번호 : CTA0000658

현재 한국 사람과 위탁 임대차계약을 해놓은 한국군에 4천3백만2천 달러 규모의 18대의 F4D 전투기 판매를 승인한다는 국무부와 국방부의 동의 서신을 동봉합니다. 이 전투기들은 2개 편대의 한국 F5A(36기)가 베트남에 후송되었던 “추가 증강” 패키지의 일부로서 1972년에 도입되었습니다.

첨부한 전문(電文)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국방부 역시 베트남에 대여된 F5A의 비용 회수에 우리가 지불해야할 의무를 한국군이 덜어줄 것을 원합니다. 이 비용은 대략 3백만 3천 달러 정도가 됩니다. 이 돈은 베트남의 긴급 군수물품을 구입하는데 쓰일 것입니다.

1972년 11월 1일에 시작된 우리의 추가증강 합의서에 의하면, 우리는 “사실상 그것들이 떠났을 때와 똑같은 조건으로” F5A 전투기를 되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최대한 그것들의 원래 조건으로 되돌려주어야 하는 F5A 전투기의 회수에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F5A의 회수비용과 관련하여 최초의 추가증강 합의서에 따라 우리에게 요구할 것이며 또한 전투기의 가격을 추후 협상할 것으로 우리는 기대합니다. 우리 측으로 보면, 한국군에 F4D 편대를 팔기로 한 우리의 결정은 그 자체로서 상당한 양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추가증강 합의서는 한국으로의 F5A 편대의 회수에 대하여 우리는 F4D를 미공군 재고품으로 회수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만일 한국이 회수비용 지불 거부를 고수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입장을 재고할 수 있습니다.

국무부와 국방부 모두 F4D 판매가 협상 절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대통령의 한국 방문과 무관하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F4D의 판매 협상과 더불어 우리는 또한 대통령의 방문이라는 상황 하에 F4D의 판매를 신중히 검토해야하는 중요한 정책적 고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한국 방문에 대한 의회와 여론의 비판이 상당하고 박정희 정부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때에 대통령의 방문을 전투기 제공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사실이 무엇이든 간에 언론매체에 F4D가 새로운 미군의 군사 투입으로(F4D는 이미 그 나라 안에 있습니다) 왜곡되어 비칠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의 다른 방해물로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대통령의 서울 방문이 끝날 때까지 첩부한 서신이 발송되는 것이 보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처장 조오지 스프링스틴(George S. Springsteen)

붙임 : 전문(電文)

■ 대통령 방문 : 공동 성명의 건

- | | |
|-----------------------------------|---------------------|
| • 형태 : 전문 | • 일자 : 1974.11.21 |
| • 발신 : 서울 미대사관 | • 수신 : 국무부장관 |
| • 출처정보 : DEPARTMENT OF STATE 6867 | • 관리번호 : CTA0000767 |

1. DCM은 전보참조 (A)에서 지시된 바에 따라 1월 21일 오후 외무부 차관 노신영과 외무부 미국국장 이상옥과 함께 공동성명에 대해 논의하였다.

2. 아래에 지적된 것과 같이 노신영은 대부분의 제의를 받아들이고 한국정부의 입장에서 몇 가지 제안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음. 대사관의 요청대로 우리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3. 박 대통령 초청 문제가 주요 이슈로 제기됨. 노신영은 이전 문안에 초청 관련 단락이 빠져 있는 것에 대해 그의 상급자들이 크게 실망했다고 말하였다. 그는 이전의 모든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 초청 문안이 빠진 적이 없으며 이번 성명에 그 내용을 누락 시키는 것은 현 한국 상황에 매우 중요하고 위협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 이라고 주장하였다. 노신영은 그의 상관들이 국무총리 공관에서 진행되는 이 회동의 보고를 기다리고 있는데 미국 정부가 박 대통령 초청의 뜻이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는 대통령 방문의 전체 취지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하였다. 노신영은 양국 정상이 박대통령의 방미가 상호 적절한 시기에 있을 것이라는 두 번째 문장을 새로이 포함시키면, 미국의 요구에 부합하는

수준의 애매모호함이 충분히 들어가게 되므로 이러한 초청 문단을 채택해달라고 DCM에게 호소하였다. 이전의 대화로부터 노신영이 알고 있는 바, DCM은 성명에 사용될 언어를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뿐이며 초청에 관한 권한은 갖고 있지 않고, 초청 문제는 별도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지시를 받은 바 있다.

4. 다른 쟁점은 아래에서 지적하는 것과 같이 8번째 문단의 문안과 관련이 되어 있다.

5. 다음은 괄호 안 수정사항과 관련된 의견을 담은 현 단계 성명 문안이다. 문단 번호는 참고용이며 본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본문 시작 :

박정희 대통령과 제럴드 R. 포드 대통령의 공동성명
1974년 11월 23일, 서울

1. 제럴드 R. 포드 미연방 대통령은 현재 국제정세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두 나라간의 상호이해에 관한 문제를 함께 논의하기 위하여 박정희 한국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1974년 11월 23일 한국을 방문하였다.

2. 이 방문기간 동안에 양국의 대통령은 두 차례 회동하여 논의를 가졌다. 이 회동에는 김종필 국무총리와 헨리 키신저 국무장관, 김동조 외무장관, 김정렴(KIM CHUNG UM) 대통령 비서실장, 리차드 L. 스나이더 대사, 함병준 대사 그리고 양국의 고위 관리들이 참석했다. 포드 대통령은 또한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부대를 방문했다. (참고: 정확한 표기는 김정렴(KIM CHUNG YUM임))

3. 포드 대통령은 무명용사 기념관을 방문하여 회관을 증정하였다. 그는 또한 박정희 대통령 영부인의 묘소를 방문하여 박정희 대통령에게 그녀의 비극과 뜻하지 않은 죽음에 대한 자신의 깊은 애도의 뜻을 전달하였다. (참고 : 정확한 표현이 기념관임, 묘지가 아님)

4. 양국 대통령은 두 나라 간에 존재하는 우호와 협력의 강한 유대감을 재확인하였다. 그들은 한미 양국간의 관계를 특징지어왔던 상호간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긴밀한 협력관계와 정기적인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에 합의하였다.

5. 양국 대통령은 최근 몇 년간 아시아에서 발생한 정치적, 경제적인 변화에 주목하였다. 그들은 이 지역의 동맹국들이 급속한 성장과 번영을 하고 있으며 자국의 안보뿐만 아니라 지역의 안보문제에 있어서도 점차 더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포드 대통령은 태평양 강국으로서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에 중차대한 이해를 두고 있으며 이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희 대통령은 그러한 방향의 미국 정책에 대한 이해와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다. (참고 : 증가 (increasing)라는 단어의 반복 사용을 피하여 두 번째 문장에 간단한 수정)

6. 박정희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구축하기 위하여 그리고 중국적으로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하여 대한민국이 남북대화의 지속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바를 설명하였다. 박정희 대통령은 지금까지 북한 당국으로부터 진지한 대응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북한과 대화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포드 미 대통령은 한국의 그러한 노력들에 대해 지속적인 지지를 보낼 것이라고 다짐하였으며 한국이 주도하는 건설적인 노력들이 모든 관련국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참고: 한국 측은 첫째 문장에서 이미 조성된 대화 채널을 지시하는 말로 “유지”(maintian)라는 단어를 쓰기를 희망하였으며 대화의 목적으로 한반도의 평화구축과 관련되는 첨가 조항을 삽입하는 것을 원하였다.)

7. 양국의 대통령은 현재 한국문제를 심의하고 있는 유엔총회에 관해서 논의하였다. 그들은 유엔 총회에서 미국과 다른 유엔 회원국들이 제출한 결의안 초안과 관련, 20년이 넘게 한반도에서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던 안보 체제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바탕에서 한반도 문제가 심의되고 그 기초 위에서 유엔 총회의 결정이 내려지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하였다.

■ 첨가사항 첨가된 수정본

- 형태 : 전문
- 발신 : 서울 미국대사관
- 출처정보 : DEPARTMENT OF STATE 6868
- 일자 : 1974.11.21
- 수신 : USDEL KYOTO
- 관리번호 : CTA0000767

8. 박정희 대통령은 한반도의 상황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하였으며 북한 측에 의한 적대적인 행위로 평화와 안정이 위협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였다. 최근에 북한 측이 한국 쪽 비무장지대 구역까지 지하터널을 파놓은 것을 그 증거로 제시하였다. (참고: 노신영은 극도로 실망했지만 이 단락에서 이전의 두 번째 문장에서 빼야한다는 우리의 집요한 주장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는데 동의하였다. 다음 문단의 표현에 같은 내용이 담겨있다는 우리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한국 측이 이 문장이 포함될 수 있도록 다시 노력할 것으로 우리는 예상할 수 있다.)

9. 양국 대통령은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한국군과 주한 미군이 고도의 군사력과 대응태세를 갖추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포드 대통령은 1954년 한미간에 체결된 한미 방위조약에 의거하여 만약 한국에 대한 군사적 공격이 있을 경우, 미국은 이를 격퇴하기 위하여 신속하고도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할 결의를 갖추고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포드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에게 현재 한국에 주둔중인 미군의 규모를 감축시킬 계획이 없다는 것을 보장하였다. (참조: 마지막 문장이 한국 측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우리의 미사일 부대 일부 철수 계획을 부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DCM은 분명히 하였다.)

10. 양국 대통령은 한국군 현대화 계획의 진전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이 계획의 실행이 한국의 안보와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중요하다는데 동의하였다. 포드 대통령은 한국이 국방 부담을 더 크게 질 능력과 의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향후 한국의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미국이 적절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11. 포드 대통령은, 한국 내 천연자원의 부족과 한반도 지역에서의 지속적인 긴장과 같은

각종 장애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연속적인 고속 경제발전을 이룩한 점에 감탄의 뜻을 표하였다. 박정희 대통령은 한국의 경제, 과학, 기술 분야의 발전에 미국이 많은 도움을 준 것에 대하여 감사를 표했다. (참조: 한국 측은 첫 번째 문장에서 주목할 만한(considerable)이라는 표현 대신 각종(various)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를 선호하였다. 그들은 또 이전 초안 본 문단의 마지막 문장이 사실상 무의미하므로 삭제할 것을 요청하였다.)

12. 양국 대통령은 최근 국제 경제상황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그들은 양국이 상호 이익을 위하여 긴밀한 경제적 협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또한 모든 국가간에 긴밀한 상호의존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한미 양국이 각국의 경제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동의하였다. 또한 국제 사회가 직면한 새로운 문제들에 관하여 양국이 정책을 공조할 필요성을 공유하였다. 양국 대통령은 양국 사이의 쌍무적 경제 관계가 상당한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이것이 양국에 모두 유익하다는 점에 공히 만족감을 표하였다. 또 무역 불균형, 식량공급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제도의 구축 그리고 적절한 가격의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의 실현이 국제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초점이라는 점에도 의견을 모았다. (한국 측은 세 번째 문장에 수정 문안을 담은 참조문 A의 표현을 받아들였다. 그 문장은 우리 측 초안을 다소 약화시키지만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

13. 박정희 대통령은 세계 평화를 이룩하고 세계 경제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포드 대통령의 노력에 존경심과 높은 기대감을 표시하였다. (참고: 한국 측은 이 단락의 언어가 지나치게 현란하다고 느꼈으며 심대한“profound” 단어의 삭제를 제안하였다.)

14. 포드 미 대통령은 미국 국민과 당원을 대표하여 그의 방문 기간동안 박 대통령과 한국 국민들이 보여준 깊은 환대와 따뜻함에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본문 끝.

6. 위 문안은 참조문(A)에 참조문(C)가 이미 포괄되었다는 전제아래 그 지시사항에 따라 작성된 것이다.

7. 이 전보문 작성이 완료되는 시점에 노신영이 전화를 걸어 본 문안 전체를 국무총리, 외무장관, 대통령 비서실장 및 다른 고위 관리들에게 보내 재가를 얻었다고 말하였다. 재가 내용에는 8 문단 두 번째 문장의 삭제와 9 문단 마지막 문장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포함된 것이다. 그러나 노신영은 (박정희-역자) 초청의 문단을 포함시키지 않으면 한국 정부는 공동 성명의 어떤 부분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였다.

■ 유엔병력철수감시군(UNDOF) 확대

• 형태 : 전문	• 일자 : 1974.11.21 23:05
• 발신 : 워싱턴 국무부장관	• 수신 : 서울 미국대사관
• 출처정보 : DEPARTMENT OF STATE NOD436	• 관리번호 : CTA0000754

1. 귀하의 지시에 따라 저는 유엔병력철수감시군의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매우 면밀하게 계속 붙잡고 있으며 오늘 어떤 진척이 있기 전에는 스칼리(Scali)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발트하임(Waldheim)은 제가 TOSEC 172의 4번째 문단에서 귀하께 보고한 것처럼 만일 그가 유엔병력철수감시군의 확대에 긍정적인 반응을 가지고 있다면 여행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지만, 그가 토요일에 그 지역을 향해 떠날 것이라는 그 어떤 지시도 없을 것이라고 제게 확인해 주었습니다.

2. 귀하의 지시에 따라, 유엔병력철수감시군 확대에 대한 우리의 당사자들과의 노력을 미결로 놔둔 채 중동 여행을 포함하여 어떠한 행동이라도 그가 연기하기를 바란다고 발트하임은 오늘 또다시 들었습니다. 그는 진척의 전망이 좋으며 우리의 희망은 그가 여행을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3. 스칼리는 발트하임이 그 지역의 방문과 관련하여 방문과 이스라엘과 이집트에서 매우 우호적인 응답을 받았다고 지금 말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가 어젯밤 저에게 해줬던 확인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으로 가려는 사무총장 측의 높은 열의를 간파하였습니다. 저는 그가 행동에 들어가기를 원하며, 그가 그 지역에서 돌아와 유엔병력철수감시군의 확대를 따냈다고 말할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4. 이상의 모든 것들은 만일 발트하임이 명확히 듣지 못했고 시리아가 즉시 유엔병력철수감시군을 확대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는 그 지역으로 떠날 것이라는 사실과 같다. 그러므로 저는 귀하가 머피(Murphy)에게 그들이 유엔병력철수감시군을 확대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즉시 사무총장에게 통보하라고 시리아 정부에 요청하도록 지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럼 저는 즉시 발트하임을 뒤쫓아 가서 우리가 유엔병력철수감시군을 확대하려는 의도에 대해 시리아 정부로부터 확인을 받은 것과 그 지역의 여행이 필요하다는 우리의 견해를 명확히 그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절차를 제안하는 이유는 만일 우리가 시리아 정부에 먼저 가면 아사드(Asad)는 우리가 신뢰를 저버렸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5. 마지막으로, 저는 귀하와 다른 한 가지 관찰의견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아사드는 특히 정치적 관점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압력이나 미국의 압력”보다 유엔과 시리아 정부에 응하는 것이 더 쉽다는 나의 추측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그는 발트하임이 그 지역을 가기를 원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잉거솔

■ 블라디보스토크와 베이징 방문

- 형태 : 전문
- 발신 : 워싱턴 국무부장관
- 출처정보 : DEPARTMENT OF STATE NOD412
- 일자 : 1974.12.6 01:33
- 수신 : 서울 미국대사관
- 관리번호 : CTA0000753

1. 국무부장관이 보내는 다음의 개인적인 메시지를 박 대통령께 전해주시시오.
2. 내용 시작 : 친애하는 대통령 각하, 서울에서 포드 대통령은 우리가 가질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러시아인들과의 회의와 베이징에서 중국인들과의 회의에 대한 보고서를 귀하께 드리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와 베이징 어느 곳에서도 한국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는 없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우리의 회담은 전략무기 문제에 대해 주로 초점이 맞추어졌습니다. 귀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전략무기 경쟁을 앞으로 억제하는 합의에 도달하기를

바라는 동시에, 우리는 서방의 방위를 약화시키거나 우리의 국제 전략을 방해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글로벌 전략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강한 서방의 방위를 보장해야 하는 SALT I를 위한 10개년 합의를 향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협상의 결과로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SALT 합의에 있어 주요 정치적 개념적 장애요소들을 이제 극복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비록 실행하는데 많은 어려운 기술적 문제들이 있지만, 우선적으로 확증과 관련하여 브레즈네프 총비서가 미국을 방문하는 내년 여름이 합의문에 서명을 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입니다. 이 합의가 지금 가능해 보이는 이유는 부분적으로 협상에 있어서 우리의 확고한 입장과 만일 모스크바가 합당한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방위를 계속 증강시킨다는 우리의 준비태세에 대해 분명한 신호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전략무기 협상 과정은 우리 동맹국들과 우방들의 이해 속에 있으며 좀더 안전한 세계를 위해 기여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나의 베이징 방문은 상하이 공동성명에서 제시된 당국자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협의의 일환이었습니다. 나는 어떤 주제에 대한 중요한 돌파구를 이루려는 목적으로 베이징을 가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평행적 접근을 하였습니다. 특히, 정상화 과정을 끝내기 위한 중국으로부터 어떤 압력도 없었습니다.

포드 대통령이 1975년에 중국을 방문하기로 한 합의는 논의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방문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내년 말경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어느 쪽도 방문을 위한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대통령의 방문으로 어떤 결과를 얻을 것인가에 대한 합의를 이루려는 어떤 시도도 없었습니다.

실질적인 논의는 중요한 몇 가지 국제적인 문제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것들 대부분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어떤 주요한 변화를 비치지 않았습니다. 특히, 소련에 대한 중국의 태도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회담에서 모스크바에 보낸 중국의 11월 6일 기념일 메시지는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중국의 노력의 전조라고 제시된 것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베트남에 대해 나는 우리가 북베트남의 공격을 바라보는 심각성을 강조했고, 협상 재개에 대한 최근 티에우(Thieu) 대통령의 입장에 주목하였습니다. 최근 베트남의 상황은 베트남 정부가 파리 협정을 지키지 않은 결과라는 중공의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캄보디아에 에 대해서 중국은 그들의 일반적 노선을 취했고 협상 타결을 이루

려는 노력으로 그들 자신들에게 관계되는 어떤 이해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베이징의 논의는 또한 에너지, 식량, 그리고 일반적인 “제3세계” 문제들에 대해 솔직한 의견교환을 포함하였습니다. 비록 중국은 그들의 입장에 대해 어느 정도 방어적이었지만,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미국과 지속적인 공개적 대치를 끝낸다는 어떤 의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베이징에서의 우리의 논의와 관찰이 우리에게 중공의 리더십이나 중국의 국내 상황을 평가하는데 믿을만한 기초를 주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나의 베이징 논의는 솔직했고 상호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근본적인 중미 관계가 여전히 굳건함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내용 끝.

키신저

■ [대한민국 대통령 박정희가 미합중국 포드 대통령에게 보내는 메시지]

- | | |
|---|-------------------------|
| • 형태 : 전문 | • 일자 : 1974.12.10 |
| • 발신 : 함병준(주미 한국대사) | • 수신 : Kissinger(국무부장관) |
| • 출처정보 : THE AMBASSADOR OF KOREA WASHINGTON, D.C. 7424934 | • 관리번호 : CTA0000709 |

장관 귀하 :

나는 대한민국 박정희 대통령 각하가 미합중국 포드 대통령 각하에게 보내는 다음 전문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을 대표하여 나는, 현재 진행 중인 유엔 총회에서 대통령 각하와 미합중국 정부와 국민이 한국 정부의 입장에 지지를 표해준 데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당신의 지지가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보를 보장하고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이루는데 큰 공헌을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각하에게 깊은 경의를 다시한번 표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박정희

상기 메시지를 대통령께 전달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함병준

■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하려는 한국의 계획

• 형태 : 전문	• 일자 : 1974.12.11 00:25
• 발신 : 워싱턴 국무부장관	• 수신 : 서울 미국대사관
• 출처정보 : DEPARTMENT OF STATE NOD652	• 관리번호 : CTA0000753

1. 우리는 핵 분야에서 한국의 의도에 관한 참조 전문에 담긴 훌륭한 분석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우리는 관계부처간 정보단이 최근 한국의 능력과 향후 잠재가능성을 평가할 준비를 하도록 부탁했습니다. 우리는 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참조 전문의 11번째 문단에 담겨진 자세한 대사관의 권고사항을 제시할 것입니다.

잉거솔

■ 박정희 한국 대통령이 대통령에게 보낸 메시지의 건

• 형태 : 비망록	• 일자 : 1974.12.26
• 발신 : George S. Springsteen(국무부 사무총장)	• 수신 : 백악관
• 출처정보 : DEPARTMENT OF STATE 7424934	• 관리번호 : CTA0000709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은 제 29차 유엔 총회에서 미국이 대한민국의 입장에 지지를 보내 준 것에 감사를 표하는 메시지를 12월 10일 포드 미 대통령에게 보냈다. 이에 대한 대통령의 답신으로서 한반도 문제에 관하여 미국과 한국 정부가 긴밀한 협력과 공동의 외교적 노력을 취할 것을 강조하는 초안을 첨부하였다.

조지 S. 스프링스틴
사무총장

첨부 : 답신 초안

■ F4D 전폭기의 건

- | | |
|-----------------------------------|---------------------|
| • 형태 : 전문 | • 일자 : 1974.12.27 |
| • 발신 : 서울 미국대사관 | • 수신 : 국무부장관 |
| • 출처정보 : DEPARTMENT OF STATE 6714 | • 관리번호 : CTA0000767 |

1. 어제 저녁 서(Suh) 국방부장관은 스틸웰(Stilwell) 장관과 나와 함께 한 자리에서 F4D 전폭기 사안의 결정이 연기된 데 강한 어조로 극도의 실망을 표하였다. 그는 이 사안에 대한 결정이 지난 9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 이후 몇 주 이내에 내려질 것으로 약속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지적하였다. 워싱턴이 결정을 내리는데 가지는 문제점들을 설명하고자 했으나 소용없었다. 서장관은 F4D 결정의 연기, 하푼(Harpoon) 미사일 결정의 연기, 하푼 미사일 배치 일정의 지연 그리고 워싱턴으로부터 신속한 답변을 얻고자 할 때 발생한 다른 문제점들을 언급하며 한국 측이 가장 주목하고 가장 심하게 실망감을 느끼는 문제가 여기에 있다고 밝혔다.

2. 서 장관은 또한 박대통령이 그날 국방과학연구소의 회의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제기하면서, 이러한 문제가 특히 엑조세(Exocet) 미사일 건과 같은 다른 결정사항에 대한 그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3. 의견 : 미국으로부터 신속한 답변을 듣지 못하는 문제와 핵심 물품 공급의 지연에 대한 실망감은 프레이저 수정안(별도전문으로 보고할 예정)에 대한 고위급의 분명한 불만과 결합하면서, 이것이 엑조세 구입과 같은 제3국에 대한 무작위 결정과 미국이 군사장비의 공급자로서 신뢰할 만한가에 대한 광범위한 재평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한국 국방부는 가능한 한 제3국으로부터 군사구매를 하지 않는다는 노선을 항상 견지하고자 노력해왔으나 현재는 초조해하는 청와대로부터 점점 더 큰 비판과 압력을 받게 되었다.

■ 워싱턴을 방문하고자 하는 김(Kim) 외무장관의 희망

- | | |
|-------------------------------------|------------------------|
| • 형태 : 전문 | • 일자 : 1975.1.17 23:27 |
| • 발신 : 워싱턴 국무부장관 | • 수신 : 서울 미국대사관 |
| • 출처정보 : DEPARTMENT OF STATE NOD606 | • 관리번호 : CTA0000753 |

1. 만일 김 외무장관이 3월 중순에 워싱턴을 방문하고자 희망한다면, 우리는 어떤 반대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김은 또한 방문이 그의 주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도착하는 시간 직전까지 그의 약속을 확정하는 입장에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2. 우리는 유엔 전략에 대해 한국 정부와의 대화를 계속할 것임을 김이 알고 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방문이 우리의 지속적인 협의의 일환으로 생각할 것이며 중요한 결정에 초점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키신저

■ 한국 외무장관을 위한 대통령 사진 요청

- 형태 : 비망록
- 발신 : George S. Springsteen(국무부 사무총장)
- 출처정보 : DEPARTMENT OF STATE S/S 7501227
- 일자 : 1975.1.20
- 수신 : Brent Scowcroft(백악관 군사보좌관)
- 관리번호 : CTA0000780

한국 대사관이 김동조 외무장관을 위해 대통령의 자필 서명이 들어있는 사진을 요청해 왔습니다. 김은 대통령의 1974년 11월 서울 방문 준비를 코디네이트한 ROKG 위원회를 이끌었으며 그는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입니다. 김의 스태프 멤버들 뿐만 아니라 다른 고위 ROKG 관리들은 대통령의 자필 서명이 들어있는 사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김은 이를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국무부가 대통령의 자필 서명이 들어있는 사진을 김 외무장관에게 보낼 수 있도록 제공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서명을 제안합니다.

“한미 관계 촉진을 위한 귀하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담아 김동조 장관님께”

조지 S. 스프링스틴
집행위원장(Executive Secretary)

■ 박의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 형태 : 전문
- 발신 : 워싱턴 국무부장관
- 출처정보 : DEPARTMENT OF STATE NOD154
- 일자 : 1975.1.22 00:24
- 수신 : 서울 미국대사관
- 관리번호 : CTA0000753

1. 참조 전문 6번째 문단에 관하여, 대사관은 미국 하원의원이 한국의 국민투표를 지켜 보도록 초대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조 전문에 설명되어 있는 상황들을 가정해보면, 국무부는 그와 같은 제안을 지지할 수 있고 한국의 관점에서 아마도 뜻에 어긋날 것입니다.

2. 좀더 일반적으로 한국정부의 국내 조치들은 그들의 소관이라는 우리의 입장은 여전히 합니다. 우리는 국내 조치들에 대해 한국정부와 협의를 하거나 아니면 그것들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입장에 처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키신저

■ 원자력위원회(AEC) 팀의 여행

- 형태 : 전문
- 발신 : 워싱턴 국무부장관
- 출처정보 : DEPARTMENT OF STATE NOD420
- 일자 : 1975.1.24 01:08
- 수신 : 서울 미국대사관
- 관리번호 : CTA0000753

1. 원자력위원회(AEC)/에너지연구개발국(ERDA) 팀은 한국의 원자력 현장 조사에 대한 대사관의 요청과 별개로 계획되었습니다. 방문은 우선 관심을 끌 염려가 없는 대사관들과 팀 내부의 논의를 지향합니다. 한국과 논의가 합당한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팀이 도착하면 공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팀은 연락이 될 수 있는 미국정부 관계자 외의 사람들과 워싱턴을 출발하기에 앞서(아마도 2월초에) 그와 같은 논의들에 대한 적절한 주제들에 대해 생각해준 대사관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제한된 시간의 관점에서 팀은 서울에서 단독으로 벌어지는 국가간 논의를 기대할 것입니다. 어쨌든 방문은 대사관이 권고한 좀더 폭넓은 연구를 위한 토대를 마련해 줄 것입니다.

2. 한국의 핵개발에 대한 관계부처간의 기술 조사는 지금 초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팀이 출발하기에 앞서 그들과 함께 조사와 그것의 배경을 의논할 것입니다.

잉거솔

■ 제3세계의 구매-엑조제(EXOCET)

- 형태 : 전문
- 발신 : 워싱턴 국무부장관
- 출처정보 : DEPARTMENT OF STATE NOD574
- 일자 : 1975.1.25 00:45
- 수신 : 서울 미국대사관
- 관리번호 : CTA0000753

1. 장관의 지시로 Maw는 하푼(HARPOON)의 이용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대사관이 옹계 지적한바와 같이, 우리가 1975년 8월까지 하푼 전달을 약속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데드라인을 분명히 제시한 데 대한 한국정부의 주장은 엑조제(EXOCET) 구입을 진행하기로 이미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우리 쪽을 위해서 우리는 현재의 과정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참조 전문 (B)에서 한국정부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우리는 2월 중순에 하푼 생산 일정을 검토할 것이며, 한국정부의 요구들은 모두 고려될 것입니다. 귀하는 이것을 적절한 수준에서 한국정부에 확인시켜주면 됩니다.

3. 더 일반적으로 엑조제와 하푼의 전달 시기에 있어 한국정부가 제시한 인위적인 마감 일자 때문에 한국이 미국을 수세에 놓이게 한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전에 우리가 표시한 반대를 묵인하려는 전술적 장치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잉거솔

■ 원자력위원회/에너지연구개발국(AEC/ERDA)

- 형태 : 전문
- 발신 : 워싱턴 국무부장관
- 출처정보 : DEPARTMENT OF STATE NOD010
- 일자 : 1975.1.27 23:41
- 수신 : 서울 미국대사관
- 관리번호 : CTA0000753

추가 논의의 결과로 팀이 여행의 원래 개념을 고수해야 한다는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한국과의 논의는 없을 것입니다. 귀하는 참조 전문에 있는 제안들에 대한 요청을 무시해도 됩니다.

키신저

■ 록히드(Lockheed)의 추진제 플랜트

- | | |
|-------------------------------------|---------------------|
| • 형태 : 전문 | • 일자 : 1975.2.14 |
| • 발신 : 서울 미국대사관 | • 수신 : 국무부장관 |
| • 출처정보 : DEPARTMENT OF STATE NOD749 | • 관리번호 : CTA0000748 |

1. 저는 록히드의 추진제 플랜트의 한국 판매를 반대하는 국무부의 메모 사본을 메일로 방금 받았습니다. 저는 국무부의 반대에 어떠한 차이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사실 저는 여기 저의 대사관과 국무부 모두를 고무시키고자 앞장서 노력해 왔습니다. (삭제: Section 3.4(b)(6) of E.O. 12958)

2. 불행히도 그 메모는 대사관의 견해와 권고사항에 대한 어떤 언급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대사관이 권고한 바와 같이 문안에 발을 들여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그리고 이것을 사용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가 논쟁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삭제: Section 3.4(b)(6) of E.O. 12958)는 최선의 전술일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현장에 있고 매일 매일 이 문제를 다루는 미국인의 견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최소한 메모에서 완전히 검토될만한 것입니다.

3. 저는 국가안보회의가 지금 이 문제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대사관의 입장에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는 국무부의 경우는 프랑스와 같은 제3국에 의한 한국 판매를 막을 수 있는 우리의 능력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이 내막에 대한 우리의 기록은 매우 유익한 것은 아니며 사실은 프랑스의 핵개발 설비의 판매에 직면하여 핵 균형에 관한 우리의 권고에 대해 반응이 늦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스나이더

■ 유엔총회에서 한국의 문제

- | | |
|-------------------------------------|------------------------|
| • 형태 : 전문 | • 일자 : 1975.2.15 21:01 |
| • 발신 : 워싱턴 국무부장관 | • 수신 : 서울 미국대사관 |
| • 출처정보 : DEPARTMENT OF STATE NOD870 | • 관리번호 : CTA0000753 |

귀하는 김 외무장관에게 우리는 그가 워싱턴을 방문하는 동안 한국 문제를 다루는 것에 대한 의견 교환을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말해주시면 됩니다.

잉거솔

■ 대통령의 미국 방문

- | | |
|-------------------------------------|---------------------|
| • 형태 : 전문 | • 일자 : 1975.2.18 |
| • 발신 : 서울 미국대사관 | • 수신 : 워싱턴 국무부장관 |
| • 출처정보 : DEPARTMENT OF STATE NOD747 | • 관리번호 : CTA0000748 |

1. 방문하고 있는 존 머피(John Murphy) 하원의원과 함께 2월 17일 별도의 회견에서 박 대통령과 김종필 총리는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제기하였습니다.

2. 대통령은 하원의원과의 실질적인 대화 초반부터 논의를 주도하였습니다. 한국전쟁에서 싸웠던 국회의원의 단체 설립과 그룹과 상응하는 의원의 방문 교환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후에,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포드 대통령의 초대로 미국에서 그가 받았던 공개적인 리셉션에 관해 깊이 생각하였습니다. 대통령은 1965년 워싱턴 방문 때 미국의 공개적인 리셉션은 매우 따뜻했다고 회상하면서 미국의 일부 소식통은 지금 그에게 “강권” 전술이라고 비판하고 있으며 지금 워싱턴을 방문하면 그의 집권을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견해를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시각과 그가 여기서 달성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악화”되고 있다고 비판적으로 덧붙였습니다. 하원의원은 특정한 목소리를 내는 그룹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대통령의 노력을 지지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강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며, 그를 환대해 줄 것이라는 보장을 해주었습니다.

3. 김종필은 대통령 방문과 관련하여 약간 더 예리한 언급을 하였습니다. 60년대 중반에 뉴욕에서 있었던 그들의 회의의 상황에 대해 회고하면서 하원의원은 총리가 다시 미국을 방문해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총리는 그가 직위를 그만둘 때까지 그런 여행을 하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모르지만, 미국이 대통령을 초대하여 지금 대사관과 미국 정부에 적절한 시간을 정하도록 그것을 올렸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원의원은 미국 언론의 부정적인 이미지에 대한 대통령의 분명한 실망감에 충격을 받았다고 대답했으며 박 대통령이 미국 대중에 의해 칭송받고 지지받고 있다는 것을 대통령께 보증한다고 국무총리에게 주장하였습니다.

4. 견해 : 이것은 지난해 11월에 포드 대통령이 서울을 방문한 이후 워싱턴 방문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의 첫 번째 언급입니다. 두 사람에게 의해서 제기된 사실은 일치할 수도 있지만,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의 가능성이 향후 바람직한 조치로서 검토될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스나이더

■ 한국의 에너지 문제

- 형태 : 전문
- 일자 : 1975.219 05:15
- 발신 : 워싱턴 국무부장관
- 수신 : 서울 미국대사관
- 출처정보 : DEPARTMENT OF STATE NOD414
- 관리번호 : CTA0000753

1. 한국의 국제에너지기구(IEA) 회원가입이나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기구의 비상사태 참가와 관련하여 참조 전문에서 보고된 한국 조사에 대한 응답으로, 귀하는 기구의 회원 가입과 기구의 프로그램 참가는 분명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로 제한되어 있다고 최(Choe)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향후 광범위한 제한이 이루어질 경우,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비IEA 국가들의 지출로 세계의 석유 공급에 대한 그룹의 전통인 몫을 찾는 쪽에서 늘리는 쪽으로 제한받게 됩니다.

2. 우리는 지금 비IEA 국가들과 어떠한 협정을 공유한 바가 없으며 이런 점에서 그와

같은 쌍방의 협정을 맺을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동시에 대사가 지목한 것처럼 한국정부의 우려는 지나친 것처럼 보입니다.

모(MAW)

■ 하푼(Harpoon) 미사일 판매

- 형태 : 전문
- 발신 : 워싱턴 국무부장관
- 출처정보 : DEPARTMENT OF STATE 7021
- 일자 : 1975.2.23(추정)
- 수신 : 서울 미국대사관
- 관리번호 : CTA0000766

1. 우리는 하푼 프로그램에 대해 국방부와 계속해서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푼 생산 일정과 외국 정부로의 판매에 대한 전반적인 해군의 검토는 이 주제에 대한 세출위원회의 미국 해군의 브리핑 요구에 의해 복잡하게 되었으며, 판매 행위는 위원회와의 논의가 끝날 때까지 미결로 둔다는 위원회의 요구로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2. 현재 공동경비구역에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월 중순에 열리는 하푼에 대한 해군의 심의의 초점은 곧 열릴 예정이나 아직 시간은 정확히 잡히지 않은 세출위원회의 브리핑을 위한 준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해군은 그 브리핑이 끝날 때까지 개별 국가의 요구에 대한 행동을 미룰 것입니다.

3. 우리는 하푼 일정에 대한 조속한 응답을 위해 마음속으로 대사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을 국방부와 해군보다 앞서 계속 유지할 것입니다. 미합동군사업무단(JUSMAG)에 보낸 참조 전문에 문제에 대한 배경이 들어 있습니다.

키신저

■ 핵확산금지조약의 건

- 형태 : 전문
- 발신 : 서울 미국대사관
- 출처정보 : DEPARTMENT OF STATE 6064
- 일자 : 1975.2.26
- 수신 : 국무부장관
- 관리번호 : CTA0000767

1. 대사는 전보참조에 제시된 기조에 따라, 2월 26일 노신영 외무부 장관 대리를 방문하여 한국정부가 핵확산금지조약의 비준을 서둘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노신영은 “한국정부가 그러한 방향으로 신속하게 움직여 나갈 것”임을 대사에게 보장한다고 말하였다. 그는 비준안이 각료회의에서 최종 승인되고 한국정부에서 공표될 때까지 이 사실을 비공개로 할 것을 요청하였다. 대사는 노의 의견에 만족감을 표하면서, 한국정부가 핵확산금지조약을 준수하는 것은 핵 확산 문제의 관점에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유엔과 국제무대에서 한국정부가 지지를 획득하는 데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지는 논의에서 외무부 국제기구 국장 한우석은 한국 정부가 캐나다와 프랑스를 비롯하여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추가적인 보장조항 협정에 관하여 논의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2. 이와 관련된 상황 전개로서 캐나다의 1등 서기관 LOOOOO(이름 보호)은 한국정부(PRESIDENT PAK을 보시오)가 핵확산금지조약을 비준하기로 결정했다고 2월 28일 DCM에게 통지한 바 있다. 그날 오전 한 국장이 그에게 이 사실을 기밀유지를 전제로 하여 공식적으로 통보하였다. 예상 일정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이를 미국과 영국에 약 2주 내에 통보할 것이다. 이 사안을 승인할 수 있는 각료회의는 4월에 개최된다. 그 이후, 북한과 관련하여 한국의 국제적 지위에 가장 유리한 효과가 발생하도록 계산된 공개 선언이 뒤따를 것이다. 한국 정부는 구체적 시기를 확정짓지 못하고 있으나 한 국장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다가오는 핵확산금지조약 심리회의에 맞춰 발표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 한국 정부는 비준 문제를 여유를 가지고 처리함으로써 압력에 의해서 행동하는 듯한 인상을 피하려고 할 것이다. 이는 올 가을 차기 정기 국회 회기에 비준안이 통과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 F4D 전폭기 판매와 베트남에 대한 원조의 건

- | | |
|-----------------------------------|---------------------|
| • 형태 : 전문 | • 일자 : 1975.2.28 |
| • 발신 : 서울 미국대사관 | • 수신 : 국무부장관 |
| • 출처정보 : DEPARTMENT OF STATE 4093 | • 관리번호 : CTA0000767 |

1. 2월 28일 김종필 국무총리와의 회동에서 나는 한국에 대한 4백십만 달러의 F5A 전

투기 보강예산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우리는 한국 국방부로부터 국무총리가 직접 이 사안을 처리하고 있다고 통보받았다.) 나는 베트남 원조액 중에서 최대한을 베트남정부의 요구에 부응하는 목적으로 사용해야하는 것이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2. 한국 정부는 베트남정부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현재 정부가 직면한 절박한 환율문제로 인하여 4백십만 달러의 현금 원조를 대신하는 물자 원조 형태의 원조를 기대하고 있다고 국무총리가 답하였다. 우리는 한국 국방부에 원조액 상당의 무기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으나 국방부 자체의 조건 때문에 이 제안은 거부되었다. 그 이후 국무총리는 베트남 정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부총리에 지시하였고 부총리로부터 다음 주 말까지 보고를 받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정으로 되어 있다. 국무총리는 비록 자신이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방향으로 사안을 처리할 것을 지시받았으나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은 크지 않고 F4D 전폭기 대금을 올해 지불함으로써 발생하는 외환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나이더

■ 한국 대통령의 미국 방문

- 형태 : 전문
- 일자 : 1975.2.28 22:22
- 발신 : 워싱턴 국무부장관
- 수신 : 서울 미국대사관
- 출처정보 : DEPARTMENT OF STATE
- 관리번호 : CTA0000753

1. 만일 한국정부의 수석 관료들이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과 관련하여 머피(Murphy) 하원의원에게 최근 접근한 것에 뒤를 이어 귀하에게 접근했다면, 귀하는 우리가 방문을 계속해서 확고고대하고 있지만 포드 대통령의 일정이 외국 방문객들과 중요한 국내 행사 참여로 이미 꽉 차 있어 올해 방문에 대한 전망은 좋지 않다고 대답해야 합니다.

2. 참고로 우리는 올해 방문의 현명성에 대한 대사관과 박의 의구심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명한 거절을 피하길 원하며,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는 언제라도 방문을 못하게 할 것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키신저

■ 한국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계획

- | | |
|-------------------------------------|-----------------------|
| • 형태 : 전문 | • 일자 : 1975.3.4 23:22 |
| • 발신 : 워싱턴 국무부장관 | • 수신 : 서울 미국대사관 |
| • 출처정보 : DEPARTMENT OF STATE NOD541 | • 관리번호 : CTA0000666 |

1. 워싱턴의 정부기관들은 한국정부가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의 초기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는 대사관의 평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것에 대한 정보기관의 추가 보고는 참조 A에 있는 증거에 대한 대사관의 훌륭한 요약에 추가적인 확인을 덧붙였습니다. 남한의 핵 능력에 대한 관계부처간의 조사서는 한국정부가 제한된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을 10년 이내에 개발할 수 있다고 결론을 맺으며 지적하였습니다. (조사서 사본을 대사관에 넣었습니다.)

2. 한국의 경우에, 우리의 일반적인 우려는 전략적 위치와 핵무기 능력을 가지려는 한국의 어떠한 노력도 주변국들, 특히 북한과 일본에게 미칠 영향력으로 인해 높습니다. 한국의 핵무기 보유는 일본뿐만 아니라 러시아, 중공, 그리고 우리 자신이 직접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 지역에 중대한 불안정 영향을 미치게 할 것입니다. 그것은 갈등이 있는 경우 북한에 소련이나 중국의 핵무기 지원 약속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핵무기 능력을 확보하려는 한국정부의 노력은 우리의 상호안보관계에 대해 불가피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 영향력은 한국의 핵무기 노력이 미국의 안보 태도에서 한국정부의 줄어든 신뢰를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과 미국에 대한 군사적 의존성을 줄이고자하는 박의 희망으로 인해 복잡해질 것입니다.

3. 우리는 한국정부가 핵무기를 실제로 생산할 수 있기에 앞서 상당한 난관과 긴 시간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10년이라는 예상시간은 현실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무기의 폭발장치가 실질적으로 생산되기 전에 한국정부가 지금 핵능력을 가지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불가피하게 더 멀리 알려지게 되면 한국의 주변국들에게 그 자체로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질 것입니다.

4. 핵폭탄의 추가적인 확대에 반대하며 필요한 에너지 개발사업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세이프가드 하에 원자로와 연료를 계속 제공하는 반면에 다른 나라의 핵무기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민감한 기술과 장비의 확대를 통제한다는 미국정부의 정책은 여전합니다. 우리는 이 정책을 한국과 같은 비핵무기 국가들과의 쌍방향적 취급뿐만 아니라 핵 물질의 세계적 이용가능성을 통제할 다자간 틀에서 이 정책을 이행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는 민감한 품목들을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상업적 거래 절차에서 생기는 세이프가드의 문제를 없애는 공통의 수출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핵 물질의 가장 중요한 공급국들(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일본과 소련) 사이에 비밀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프랑스를 제외하고 모든 국가들은 그와 같은 회담을 시작하려는 미국에 찬성하였고 우리는 프랑스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과 프랑스의 접촉에서 프랑스가 재처리 플랜트나 기술(사용한 연료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것)을 한국에 제공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프랑스는 소규모 실험용 재처리 플랜트에 대한 제안된 협정에 아직 서명하지 않았으며 만일 거래가 완성되기 위해서 IAEA의 세이프가드를 따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참조 끝.

5. 그러므로 우리의 근본적인 목적은 이 분야에서의 한국의 노력을 단념시키고 가능한 한 가장 철저하게 어떠한 핵폭탄 능력이나 발사 시스템에 대한 한국의 개발을 금지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목적에 효과를 주는 몇 가지 보완적인 정책 방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규정된 다자틀 내에서 혹은 다자틀에 맞춰 진행될 것입니다. 이 접근을 사용하면서 우리는 가까운 미래에 한국에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정책을 공식화하기를 바랍니다.

6. 다음의 내용은 우리가 지금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정책 방향입니다.

A. 미국의 일방적인 조치와 공급국들의 공통적인 정책 마련을 통해 민감한 기술과 장치에 대한 한국의 접근을 금지시킨다. 미국의 일방적인 조치와 관련하여, 우리는 원자로와 원료의 판매에 대한 IAEA의 세이프가드의 철저한 적용과 더불어 자립적인 핵무기 능력획득에 기여한다는 관점에서 민감하다고 판단되는 어떠한 기술이나 장비를 한국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저지시키거나 적절한 셰이프가드 하에서만 오직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또한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질로의 전용을 금지시키는 제한조치를 강화할 여지가 남아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기존의 협약들을 찾아볼 것이다. 공급국들의 공통의 정책들과 관련하여, 우리는 특히 농축 기술과 재처리 기술을 우려하고 있으며 좀더 일반적인 경수로 원자로보다 원료봉을 가지고 있는 플루토늄의 비밀 전용을 거의 막을 수 없는 한국의 캐나다형 원자로의 획득을 우려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 한국정부는 그와 같은 기술이나 장비의 핵심 요소들을 획득하기 위해 핵무기 개발보다 다른 그럴듯한 근거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해와 이 지역의 안정에 해롭다고 생각하는 기술이나 장비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다. 그와 같은 접근은 또한 우리가 한국의 의도를 알고 있다는 표시를 간접적으로 보여줄 것이며 어떤 경우라도 그것들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그와 같은 기술과 장비에 대한 제한은 또한 핵분야에서 한국의 노력의 시도를 늦추고 정당한 전력의 요구를 해치지 않으면서 비용을 상당히 증가시킬 것이다. 그것은 해외로부터 수입된 농축 우라늄을 원료로 하는 원자로를 통해 충족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정부가 다른 공급국들에게 갈 수 있는 그러한 경우더라도 이것은 경제적 정치적 관점에서 모두 더 많은 비용을 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민감한 핵관련 장비나 기술을 획득하기 위한 어떠한 한국정부의 상당한 노력도 현실화되려면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며 프랑스를 포함하여 다른 가능한 공급국들의 민감성을 높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독립적인 핵폭탄 능력과 발사 시스템간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우리의 비확산 전략에서 후자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조사하고 있다.

- B. 한국이 비확산조약(NPT)을 비준하도록 압력을 가한다. 캐나다는 이미 한국이 그렇게 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한국은 우리의 초기 접근에 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캐나다와 공동 작전으로 이것에 따르게 하는 것을 원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연구용 원자로의 판매에 대한 최종 결정을 지연시키려는 캐나다의 의도에 지지할 의지를 가진다.
- C. 한국의 원자력 시설에 대한 우리의 감독을 개선하고 이 분야에서 현재의 한국의 기술적 발전 단계에 대한 우리의 정보를 늘린다. 우리는 이러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적절한 방법에 대한 연구에 착수하려고 한다. 임시적으로 우리는 한국의 원자력

에너지 시설을 더 자주 방문하여 기술적으로 훈련된 사람들에 의해 사찰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고려하고 있다.

7. 이상에서 설명한 이러한 접근에 대한 서울 대사관의 견해를 요청합니다.

키신저

■ F4D 판매와 베트남 지원

- 형태 : 전문
- 발신 : 워싱턴 국무부장관
- 출처정보 : DEPARTMENT OF STATE 7791
- 일자 : 1975.3.7. 02:26
- 수신 : 서울 미국대사관
- 관리번호 : CTA0000766

우리는 한국이 올해 직면하고 있는 외국 교환 문제를 평가하고 있지만, 우리가 먼저 한국 정부에 F5A 복구와 관련된 비용을 한국 정부가 부담해줄 것을 요구한 베트남 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우리의 문제들이 분명하게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사관은 지원 공급은 베트남 개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기에 가장 환영받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가능한 한 조속히 베트남 정부를 위해 이용 가능한 설비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국무총리에게 계속해서 주장해야 합니다.

■ 한국에서 걸프석유(Gulf Oil)의 정치적 기부

- 형태 : 전문
- 발신 : 워싱턴 국무부장관
- 출처정보 : DEPARTMENT OF STATE 7155
- 일자 : 1975.3.9. 22:44
- 수신 : 서울 미국대사관
- 관리번호 : CTA0000766

1. 밥 도시(Bob Dorsey) 걸프석유 회장은 1967년과 1971년의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박 대통령을 도와준 걸프석유의 기부를 설명하기 위해 4월 9일에 차관과 에드먼드(Edmond) 부차관보를 방문했습니다. 도시는 미국 회사들이 해외에 이전했다가 다시 미국으로 재이전한 자금에 대한 조사를 통해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해외에서 걸프사의 정치적 기부를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다국적 회사들에 대한 상원외교위원회 분과위원회

또한 미국 회사들의 해외 정치조직에 대한 기부를 막을 수 있는 법률에 대한 공동 연구의 일환으로 기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시는 결국 분과위원회의 압력으로 기금의 종착역이 드러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2. 1966-67년 한국은 박 대통령의 재선 운동에 도움을 달라고 걸프사에 많은 압력을 가했다고 도시는 말했습니다. 걸프사는 백만 달러를 요구받았으며 바하마 개발 회사를 통해 “사업 경비”로 주었습니다. 나중에 박 대통령이 “간접적으로” 걸프사의 도움에 감사드린다고 그에게 말했다고 도시가 말했습니다.

3. 1971년 선거에서 대통령의 정치적 반대가 더욱 거세졌고 그때까지 걸프사는 말하자면 한국에 투자된 수백만 달러를 가지고 있었다고 도시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걸프사는 또한 지금 한국정부에 계류 중인 정련소 운영 허가권과 같은 사업적 요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걸프사는 말하자면 이 시기에 또다시 박 대통령의 선거 운동에 천만 달러를 기부하라는 압박을 받았습니다. 이 요구는 협상을 하여 3백만 달러까지 내려갔습니다. (도시는 “협상”이나 지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도시는 기부에 대해 “내가 이해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4. 5월 8일 도시는 부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최근 걸프사의 기부 사실의 공개의 결과로 회사는 몇 개의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로부터 그들 나라들에도 그와 같은 지불을 해왔는지를 밝히려는 심한 압력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같은 날짜에 걸프사는 베네수엘라와 에콰도르에 그들 나라의 어느 누구에게도 기부금을 주지 않았다고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상원외교위원회 분과위원회는 도시에게 5월 16일에 나와 걸프사의 해외 기부에 대해 증언하라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도시는 그가 압력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은 기부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분과위원회에 말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차관에게 말했습니다. 도시는 함 한국대사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함 대사는 한국정부에 사실을 보고했다고 말했습니다. 도시는 비록 걸프의 사장이 기부 거래와 연루되어 있지 않지만 그(그리고 그의 아내)에게 한국을 떠나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도시는 5월 16일의 상원외교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청취에 대한 일정이 잡히기 전에 기부의 구체적인 사항이 언론에 “틀림없이” 새

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5. 국무부는 이 주제에 대해 한국정부의 대사관으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6. 미국의 해외 기업들에 의한 불법적인 지불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무부는 미국이 미국의 해외 기업들에 의한 불법적인 활동들을 묵인할 수도 묵인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바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우호적인 외국 정부와의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으며, 그것은 미국정부가 해외에서 그들의 사업적 이익을 합법적으로 추구하도록 미국 기업들을 돕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 사건에 대한 이러한 입장의 적용은 이러한 기부가 한국의 법에 불법적인 것으로 여겨지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달려 있습니다.

7. 그와 관련하여 우리는 어떤 한국의 법에 위반되는가에 대해 대사관으로부터 즉시 자료를 받아야 합니다.

키신저

■ 캄보디아 원조

- | | |
|-------------------------------------|------------------------|
| • 형태 : 전문 | • 일자 : 1975.3.12 20:36 |
| • 발신 : 워싱턴 국무부장관 | • 수신 : 서울 미국대사관 |
| • 출처정보 : DEPARTMENT OF STATE NOD010 | • 관리번호 : CTA0000666 |

1. 귀하는 우리가 캄보디아를 위한 제3세계 원조 프로그램에 대한 박 대통령의 제안과 이러한 노력에 있어 한국이 리더십을 가질 것이라는 그의 제안을 환영한다고 한국정부에게 알려주십시오. 우리는 이것이 미국에 대한 언급 없이 아시아의 노력이어야 한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2. 우리는 또한 한국에 대한 접근이 뜻에 어긋날 위험이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3. 원조의 형태로서 우리는 그것이 인도적 지원과 군수품의 혼합으로 이루어질 바랍니다. 물론 GKR 역시 기금을 필요로 하며 아마도 사우디아라비아가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4. 귀하는 우리가 방콕이나 사이공에서 어떤 공급품이라도 나를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한국에 알려주십시오.

잉거솔

■ F4D 판매와 베트남 원조

- | | |
|-------------------------------------|---------------------------------------|
| • 형태 : 전문 | • 일자 : 1975.3.14 23:33 |
| • 발신 : 워싱턴 국무부장관, 국무부/국방부 공동 메시지 | • 수신 : 서울 미국대사관, 주한미군사령관, 호놀룰루 태평양사령관 |
| • 출처정보 : DEPARTMENT OF STATE NOD510 | • 관리번호 : CTA0000666 |

1. 부총리와 함께 F5A의 복구비용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는데 있어 대사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한국정부의 예산과 외환 제한을 알고 있으며, 4백1십만 달러의 F5A의 복구비용이 베트남에 원조 제공으로 상쇄되어야 한다고 계속 강력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F4D 판매를 결정하는데 있어 UBG에 특별한 어려움이 있고, 우리는 복구비용과 관련하여 한국정부가 미국의 제안을 동의하되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류와 캔제품들이 현재 상황에서 베트남 정부에게 많은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한국정부는 처음에 제안된 것처럼 탄약과 연료 공급품을 이용가능하게 만드는 가능성을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대사는 부총리에게 이 문제를 다시 제안해야 하며 한국정부의 신속한 결정을 주장해야 합니다. F4D 판매에 대한 우리의 우호적인 결정의 관점에서, 베트남 원조에 대한 국방부의 부정적인 태도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그것은 캄보디아 문제에 대한 한국정부의 건설적인 태도와 부합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대사관/주한미군사령관은 국방부가 우리의 요구를 비공식적으로 따르도록 요구하십시오.

3. 참고로: 베트남 군사원조는 대외군사원조계획(MAP)이 아니라 별개의 국방부의 책임(베트남 방위 원조)하에 제공됩니다. 무기를 제공하는 대외군사원조계획은 베트남에 사용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접근은 남베트남을 위해 한국정부로부터 적절한 직접적인 무기 원조의 약속에만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이것과 연결하여 귀하는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의 의료품 공급이 남베트남에 필요하다는 것을 밝히기 바랍니다.

잉거솔

■ 캄보디아 원조

- 형태 : 전문
- 일자 : 1975.3.20 00:16
- 발신 : 워싱턴 국무부장관
- 수신 : 서울 미국대사관
- 출처정보 : DEPARTMENT OF STATE NOD429
- 관리번호 : CTA0000666

1. 지금까지 접근한 국가들로부터 실망스러운 응답에도 불구하고 박이 캄보디아정부를 위한 아시아의 원조 프로젝트를 계속 참여한다니 우리는 기쁩니다.
2. 한국정부가 제공할 수 있는 가장 필요한 원조의 성격에 대한 우리 제안과 관련하여 우리는 무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어 유니폼, 신발, 편치, 식량, 의약품을 제안합니다.
3. 프놈펜을 위해 우리는 프놈펜 대사관이 가장 긴급한 필수품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가지고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조 전물들은 귀하께 반복되는 것들입니다.

잉거솔

■ F5A 복구 비용

- 형태 : 전문
- 일자 : 1975.3.25 20:52
- 발신 : 워싱턴 국무부장관
- 수신 : 서울 미국대사관
- 출처정보 : DEPARTMENT OF STATE 2821
- 관리번호 : CTA0000766

우리는 참조 전문에 관한 작업을 하고 있으며 하루 또는 이틀 후에 귀하께 답을 줄 수 있길 희망합니다.

키신저

■ 패스맨(Passman)

- 형태 : 전문
- 일자 : 1975.3.26 17:41
- 발신 : 워싱턴 국무부장관
- 수신 : 서울 미국대사관
- 출처정보 : DEPARTMENT OF STATE NOD630
- 관리번호 : CTA0000666

1. 하원의원 패스맨(Passman)은 그가 3월 28일 오후 8시20분에 서울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국무부에 통보해 왔습니다. 그는 항공사의 이름이나 비행기 번호를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2. 그는 공항에서 만나 그의 호텔로(호텔의 이름 또한 기억하지 못함) 가는 교통수단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3. 그는 또한 그의 방문이 공개되지 않도록 요청했습니다. 비록 우리는 그가 이미 여기 한국대사관을 통해 그러한 약속을 했었을 것이라고 의심스럽지만, 그는 한국의 여러 관료들과의 약속을 잡아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4. 적절한 도움이 무엇이든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키신저

■ 캄보디아/베트남에 대한 한국의 원조와 F5A 복구비용

- 형태 : 전문
- 일자 : 1975.3.27 02:38
- 발신 : 워싱턴 국무부장관
- 수신 : 서울 미국대사관
- 출처정보 : DEPARTMENT OF STATE NOD715
- 관리번호 : CTA0000666

1. 참조 C의 2번째 문단에 있는 귀하의 권고에 동의합니다. 우리는 성공할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우호적인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원조를 촉구하는 한국정부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가 캄보디아에 제공하는 어떤 도움이라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만일 한국정부가 캄보디아에 4백1십만 달러어치의 군수품(목록은 별도 전문으로 보냄)을 보내주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F5A의 복구에 대한 만족스러운 조치로서 여길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베트남의 부족품은 계속해서 심각해질 것이며 우리는 군수품이 베트남에 곧 제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 추가적인 PL 480 원조에 대한 참조 A와 B에서 베트남의 제안과 관련하여 우리는 추가적인 PL 480이 이번 회계연도에 한국정부에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 유감스럽습니다. 우리는 한국정부가 자체의 자원으로 필요한 원조를 제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 귀하가 별도의 전문으로 보게 될 것처럼, 한국에 캄보디아는 지금 전차상륙함의 최적의 근거지로 보이며 캄보디아 정부에 대한 접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키신저

■ 30회 유엔 총회에서 한국

• 형태 : 전문	• 일자 : 1975.3.27 22:56
• 발신 : 워싱턴 국무부장관	• 수신 : 서울 미국대사관
• 출처정보 : DEPARTMENT OF STATE NOD836	• 관리번호 : CTA0000666

1. 한국의 김동조 외무장관은 30회 유엔 총회에서 한국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IO 차관보 부팸(Buffum)과 3월 26일 만났습니다. 한국대사 함과 한국 유엔 수석대표 박, 그리고 스나이더 대사 또한 참석했습니다.

2. 김 장관은 64개국에서 최근 나오는 한국의 소리는 미국과 한국이 다음 유엔 총회에서 한국에 대한 입장을 준비하기 위해 즉각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비동맹운동에 회원가입을 모색하고 비동맹운동이 리마(Lima)에서 열리는 8월 비동맹운동 회의에서 북한의 입장을 거론하기 전에 북한은 유엔총회의 의제로 요구하고 작년의 결의안 초안을 다시 제출할 것으로 그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은 하바나(Havana)에서 열린 비동맹운동 예비회의가 북한의 회원가입과 친북적인 유엔 총회의 결의안의 필수사항들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리마 회의에서 회원가입과 결의안 초안 모두가 승인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3. 부팸대사는 미국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열심히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만일 북한의 결의안 초안을 다시 좌절시키려면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전협정 유지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들만으로 유엔군사령부의 기능을 축소

하고 그런 다음 우리가 의도한 행동과 일단 상대방이 정전협정이 여전히 유효할 것이라고 확인만 해준다면 유엔군사령부를 완전히 없앨 의지에 대해 편지로 유엔 사무총장이나 안보리 의장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유엔군사령부의 위상을 낮추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4. 함으로부터 받은 질문에 관하여, 부평대사는 우리가 공식적인 안정보장이사회에 요청한다는 생각을 신중하게 조사했는데 어려움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중공의 단호한 반대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최근 비우호적인 이사회 구성을 감안하면, 우리는 결의안을 채택하거나 아니면 그것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중 하나에 이 문제를 맡겨버리기 위한 표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안보리에서 이러한 상황을 강조하는 것은 유엔 총회의 분위기에 비우호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황을 의논하기 위해서라면 어느 때라도 이사회 회원국들과 기꺼이 만날 의지를 유엔 사무총장이나 이사회 의장에게 편지로 설명함으로써 지난해의 유엔 총회의 결의안에 영향을 주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5. 김 외무장관은 위에서 말한 접근에 일반적인 동의를 표시했지만, 북한의 결의안 초안을 어떤 경우에도 다시 좌절시킬 수 있다는 것에는 비관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은 또한 개인적인 통로로 일방적인 유엔군사령부의 철수 가능성을 반대했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방향의 위협에 있다는 우려를 지적했습니다. 부평대사는 위의 3번째 문단에서 설명된 우리의 접근이 우리의 지위에 오직 주변적인 개선만을 낳을 것 같으며 미국과 한국이 30회 유엔총회에서 우세를 보일 전방위적인 외교 노력을 다시 해야만 한다는 점에 동의하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유엔군사령부를 향상시키기위해 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과 우리의 유일한 관심은 유엔군사령부가 여전히 중요한 연결이 되고 있는 정전의 유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6. 김 외무장관은 유엔 사무총장이나 안보리 의장에게 빨리 편지를 보내고 결의안 초안을 상정하여 토의에 부치는 것을 시기적절하게 요구함으로써 유엔 총회에서 투표 우선권을 획득할 필요가 있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부평대사는 시간표가 6월에 편지를 보내고 6월이나 7월에 유엔총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그려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유엔 총회의 결의안 초안을 만드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일 정전이 유지된다면 유엔군사령부의 철회를 좀더 직접적으로 언급하여 지난해의 유엔 총회의 결의안의 두 번째 문단이 효력을 발생하도록 만드는 것이 유용할 것인가가 가장 먼저 궁금했습니다. 부평대사는 외무장관에게 효력이 있는 두 번째 문단에 대한 몇 가지 제안된 초안 접근방법을 주고, 다시 말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7. 함대사는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훨씬 더 구체적으로 되었는데를 궁금해 했으며, 유엔군사령부가 상대방의 동의 하에 조인국으로서 미국과 한국에 의해 유엔사령부를 대신하는 것으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제안할 것이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부평대사는 이 생각이 진지하게 고려를 해볼만한 것이지만, 그것이 만일을 위한 대비로 더 나은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8. 함대사는 우리의 유엔 총회 결의안 초안이 남한과 북한 모두의 유엔 동시가입을 언급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해 했습니다. 부평대사는 후자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에 대해 유엔 총회의 지지를 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주제를 유엔군사령부와 별개로 취급하는 것이 하나의 유엔의 전술적인 관점에서 더 낫다고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대사는 찬성했고, 한국이 아세안 국가들과 이 문제를 의논하고 그것을 따르도록 하라고 제안했습니다. 유엔군사령부의 문제에 대한 유엔 회원국들의 동참은 미국과 한국에 대한 비동맹국의 지지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김은 우리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9. 김은 우리가 향후 중국과 접촉을 가질 계획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부평대사는 그와 같은 접촉은 현재 생산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은 중국과의 과거 접촉들을 공표하는 것이 유용한지 궁금해 했습니다. 부평대사는 이것이 한반도 문제와 다른 문제에 대해 중국과 장기적인 접촉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10. 김은 유엔군사령부의 위상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조속히 세울 것을 다시 촉구하였습니다. 이것들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미국과 한국간의 신중한 협의를 요구한다고 우리는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유엔군사령부에 대해 취해진 조치나 계획된 조치들에 대해 유엔

사무총장이나 안보리 의장에게 보내는 편지는 유엔 총회의 결의안 초안을 토론에 부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11. 견해 : 김은 유엔의 상황을 그와 함께 구체적으로 논의할 우리의 준비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공식적인 안전보장이사회의 회기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여 그 자신이 분명히 동일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또한 유엔군사령부 문제와 유엔 회원가입의 문제를 별개로 한다는 생각에 어떠한 반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그는 북한의 비동맹국들과의 성공이라는 관점에서 유엔총회의 전망(즉, 상대방의 결의안 초안을 좌절시키는 것)에 대해 완전히 비관적이었습니다.

키신저

■ 캄보디아와 남베트남의 난민의 건

- | | |
|-----------------------------------|---------------------|
| • 형태 : 전문 | • 일자 : 1975.4.16 |
| • 발신 : 서울 미국대사관 | • 수신 : 국무부장관 |
| • 출처정보 : DEPARTMENT OF STATE 4249 | • 관리번호 : CTA0000767 |

1. 한국 내에서 캄보디아인들과 베트남인들의 상황은 긴급하게 보이지 않으며 그들 중 대다수는 공산주의자들이 본국을 장악할 경우 어찌 할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는 궁극적으로 미국에 정착하고자 하겠지만 그 수는 적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어떤 사태가 나더라도 이들에게 새롭게 정착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할 것이다.

2. 캄보디아인 : 크메르 대사가 제공한 명단에 따르면 (전보 참조), 한국에는 35명의 캄보디아인이 있으며 (가족 포함), 그 중 30명은 크메르 대사관의 공식 인원이다. 이들 대부분은 캄보디아의 상황 전개를 지켜본 이후에 장래에 대하여 결정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3. 베트남인 : 우리는 아직 한국 내 베트남인의 정확한 수를 파악하고 있지 못하지만 그 수가 캄보디아인 수를 월등히 능가하지는 않을 것이다. 7명의 대사관 가족 구성원, 한명의 학생 그리고 사업 관계로 3명이 파악되어 있다. (여기에 한국군의 베트남인 부인 28명이

있는데 물론 이들은 난민지원 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베트남 대사 팜관치우 (PHAM KUAN CHIEU)가 그의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가기를 희망한다는 것을 비공식적으로 들은 바 있으며 대사관의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4. 외무부에 따르면 한국정부는 베트남에서 한국인들과 그 존속을 철수하는 문제에 더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잠재적 난민문제에 관하여 아직 대응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 장기적으로 한국은 아마 캄보디아인들과 베트남인들이 재정착하기에는 어려운 곳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그들에게 체류 연장이나 한시적 지원 조치를 제공하는 것 정도는 용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본 대사관은 주한 캄보디아 및 베트남 측과 필요한 연락은 유지하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대사관에서 취할 수 있는 행동은 없다.

스나이더

■ 선교사 시위의 건

- | | |
|-----------------------------------|---------------------|
| • 형태 : 전문 | • 일자 : 1975.4.16 |
| • 발신 : 서울 미국대사관 | • 수신 : 국무부장관 |
| • 출처정보 : DEPARTMENT OF STATE 6252 | • 관리번호 : CTA0000767 |

1. 4월 16일 저녁 김동조 외무부 장관은 대사를 불러 당일 있었던 선교사들의 대사관 앞 시위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2. 김 장관은 자신이 법무부로부터 그 사건에 대하여 대사와 논의를 할 것을 요청받았다고 말했다. 시위 참석자들은, 그들의 행동이 원래 허용된 한국 입국의 명시적 목적, 즉 복음 전도의 목적을 위반한 것인지 심사받기 위하여 서울 출입국관리소에 출두하도록 요청받았다고 김 장관은 말했다. 김 장관은, 출입국관리소에 따르면 그 시위의 성격이 정치적이며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를 당혹하게 하는 취지로 전개된 것이기 때문에 입국 목적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전했다.

3. 김 장관은 선교사들이 약 20여명의 통신원들에게 시위를 예고하고 한국의 현 정권의

연장을 위하여 인민혁명당 수감자들이 불법적으로 처형되었다는 주장을 담은 전단을 배포하였다. 김 장관은 또 전단에서 미국의 사전 유감 표명에도 불구하고 처형이 집행되었다고 잘못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서 김 장관은 물론 미국은 사전에 처형 사실을 통보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단에서는 나아가 한국이 인권을 침해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대한 군사 원조가 지속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미국의 재고를 촉구하고 있다. (본 대사관에서는 아직 이 전단을 입수하지 못함.) 김은 말미에 법무부로부터 이 문제에 관하여 대사와 논의 하여 그의 “자문”을 구하도록 요청받았다고 하며 말을 마쳤다.

4. 대사관으로서의 시위를 승인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대사는 지적하였다. 진정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대사관 구역에 들어오거나 평화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미국 시민으로서의 권리에 속한다. 이 집단은 진정서를 제출한 후 짧은 시위를 전개하였다. 그들의 진정 내용과 구호는 한국정부를 향한 것이라기보다는 일차적으로 미국 정부와 미국 정책을 향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대사관 구역 내에서 전개된 그들의 행동은 한국의 출입국 관련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5. 대사는 더구나 시위대들이 미국 언론을 통한 보도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다고 지적했다. 설사 대사관 측에서 막을 근거가 있었다더라도, 이들의 대사관 구역 진입을 강제로 막았거나 강제로 몰아냈다면 이들이 원하던 미국 내 언론의 조명을 더 크게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이유로 한국에서 이들을 추방하는 것은 아마 미국과 한국에서 이들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증폭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6. 대사는 또한 미국의 정책을 설명하여 선교사들의 시위를 해산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을 알렸다. 이 시도는 그러나 성공하지 못했다.

7. 김 장관은 미국인이 대사관에 진입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그는 대사관이 자국 시민들을 “지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사는 대사관에서 그렇게 할 권한에는 제약이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 일로 인하여 4월 28일 비자 기한이 만료되는 시노트(Simnot)신부를 “보호”하는데 더 많은 어려움이 발생했다고

지적하였다.

의견 : 일부 시위자들에게 출입국관리 사무소로부터 소환장이 신속하게 발부되었고 대사가 외무부에 급히 호출된 점으로 볼 때 한국 정부는 이 사건으로부터 강하게 자극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 한국 정부의 우려가 부분적으로는 영내 시위를 허용했다는 이유로 대사관을 겨냥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김 장관의 언질로 볼 때 향후 조치에 대한 어떤 결정도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스나이더

■ 부통령과의 회담

- 형태 : 전문
- 발신 : Kissinger(국무부장관)
- 출처정보 : THE WHITE HOUSE
- 일자 : 1975.4.18
- 수신 : 서울 미국대사관, 타이페이 미국대사관
- 관리번호 : CTA0000645

I. 목적

Chiang Kai-shek 대통령 장례식에 각하를 대표해 갔었던 부통령의 대만 여행 결과에 대해 부통령과 함께 검토하기 위해

II. 배경, 참가자 & 언론 준비

- A. 배경 : 부통령께서 4월 16일 Chiang Kai-shek 대통령 장례식에 각하를 대표해 참가했다가 대만에서 방금 돌아오셨습니다. 장례식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며 중화민국(the Republic of China, ROC)은 부통령의 참석에 깊이 감사했습니다.
- 4월 17일 부통령께서는 고 Chiang 대통령의 아들이자 Chiang 대통령이 지난 몇 년 간 실질적인 권력을 양도했던 Chiang Ching-kuo(CCK) 수상을 만났습니다. 부통령께서는 대만에 대한 안보 책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으시면서 ROC와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미국이 귀중하게 여기고 있음을 재확인했습니다. 부통령께서는 또한 각하의 이번 PRC 방문에 대해서는 어떤 약속도 합의된 바 없음을 확인하셨습니다.

CCK는 ROC의 기본 대미 정책이나 ROC의 다른 대외 정책에 있어서도 변화를 줄 생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그는 ROC는 모스크바와 베이징을 싸움을 붙여 덕을 볼 생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각하께서 편리하신 때에 각하와 부통령이 대만을 방문해 줄 것을 초청했습니다.

역시 타이페이 대표단이었던 골드워터 상원은 타이페이로 향하는 도중과 타이페이에 머무는 동안 대중국 정책에 관한 그의 견해를 공개적으로 표명했습니다. 상원의원은 Chiang 대통령의 장례식 대표단장으로 농림부장관을 보내기로 했던 각하의 최초의 결정에 대해 기자들에게 비판했습니다. 타이페이에서의 기자회견에서 골드워터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 그는 각하께서 올해 베이징을 방문할 때 타이페이도 함께 방문해야 한다고 각하께 촉구했었으며 각하께서 좋다고 고려해보겠다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 여러 가지 사건들로 각하의 베이징 방문이 잠시 중단되었고 그래서 각하께서 방문을 연기하시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 그(골드워터)는 PRC와의 처음 접촉은 좋은 아이디어였지만 공식적으로 승인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미국-PRC 관계가 확대될 것이라는 조짐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 의회가 미국이 PRC를 외교적으로 인정하는 문제에 좀더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 전반적인 미국의 아시아 정책에 대해, 동남아시아에 대한 우리의 정책은 기본적으로 옳은 것이었지만 베트남 전쟁에서 이겼어야만 하고 이길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어떤 경우에도 남 베트남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키나와를 일본에 돌려준 것은 실수였다고 말했습니다. 아시아의 평화는 첫째 이를 지키려는 미국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부통령께서는 또한 한국 국무총리 김종필을 만났으며 미국이 한국의 안보에 관한 책임을 다할 것이며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시킬 것임을 재보증하였습니다.

부통령께서는 박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 문제들을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 미국 언론이 비판하고 있음을 언급했으며 국무총리는 이에 대한 박 대통령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B. 참가자 : 부통령, 헨리 A. 키신저.

C. 언론 준비 : 관례에 따라 회담이 열린다는 것을 발표할 것이며 회담 이후에 언론 브리핑이 있을 것입니다.

Ⅲ. 논제

1. 저는 급하게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행을 해주신 것에 귀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 ROC 지도자들이 귀하의 참석을 아주 기뻐했다고 들었습니다.
3. Chiang Ching-kuo 수상과 유익한 대화를 나누었으며 우리 두 나라 사이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지속해 나가자는 의사를 상호 재확인하였다고 들었습니다.
4. ROC 지도자들과의 대화에서 Chiang 대통령이 더 이상 계시지 않는 지금 대만의 미래나 다른 외부 세계와 대만의 관계에 대해 어떤 불안감 같은 것을 느끼셨나요?
5. ROC와 미국의 앞으로의 관계에 대해서 특히 저의 이번 베이징 방문과 관련해, 그리고 최근 인도차이나의 상황과 관련해 어떤 불안감 같은 것을 발견하셨나요?
6. 한국 국무총리 김종필과 만나서 우리가 우리의 안보 책임을 충실하게 지킬 것이며 우리 군대를 한국에 계속 주둔시킬 것이라고 그를 안심시켜준 데 감사합니다. 그와의 대화에서 어떤 인상을 받으셨나요?

■ 한국 국회의장 정일권의 부통령 예방의 건

- | | |
|--|-----------------------------------|
| • 형태 : 비망록 | • 일자 : 1975.4.25 |
| • 발신 : George S. Springsteen(국무부 사무총장) | • 수신 : Brent Scowcroft(백악관 군사보좌관) |
| • 출처정보 : DEPARTMENT OF STATE S/S 7508248 | • 관리번호 : CTA0000725 |

대한민국 정일권 국회의장은 프랑스와 서독에 대한 공식 방문에 앞서 미국을 방문할 계획이다. 정 의장은 5월 5일 오후에 워싱턴에 도착하여 5월 8일 떠날 예정이다. 한국 대사관은 부통령 예방을 요청하였다. 한국 대사관은 또 앨버트 의장을 비롯한 다수의 의회 지도자와의 회동을 요청하고 있다.

전직 국무총리 (1964-1970)이자, 전직 주미 대사 (1961-1963), 또 한국전쟁 당시 육군 참모총장을 역임한 정 의장은 20여 년간 미국 고위직 관료들에게 우호적으로 잘 알려진 사람이다. 그는 중요한 정치인이다.

우리 생각에 정 의장이 여기 머무는 동안 미국 고위 관료들을 만나 우리가 한국 안보에 부여하는 비중을 재차 다짐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장관은 한국 대사관의 요청을 승인했으며 부통령께서 정 의장을 만나도록 권하고 있다. 국무부는 방문이 확정되는 대로 브리핑 자료를 전달할 것이다.

George S. Springsteen

국무부 사무총장 조지 S. 스피링스틴

LIMITED OFFICIAL USE

■ 박대통령과의 회동의 건

- | | |
|-----------------------------------|---------------------|
| • 형태 : 전문 | • 일자 : 1975.4.30 |
| • 발신 : 서울 미국대사관 | • 수신 : 국무부장관 |
| • 출처정보 : DEPARTMENT OF STATE 2169 | • 관리번호 : CTA0000767 |

1. 박 대통령은 다른 약속들로 인하여 4월30일 저녁까지 나를 만날 수 없었다. 이날 저녁 회동에서 나는 1개 군단 해체 조치(참조문 A)가 유보되었다는 점을 통지하였다. 또 나는 1975 회계연도의 대외군사원조계획(참조문 B)을 검토하였으며 참조문 C에서 제시된 경제 조치에 관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였다. 박 대통령은 이러한 조치들을 인상 깊게 받아들이고 고마움을 표시하였다.

2. 대화의 다른 내용에 관한 전체 보고서는 별도 전보로 제출될 것이다.

스나이더

■ 유엔군사령부

- 형태 : 전문
- 발신 : 워싱턴 국무부장관
- 출처정보 : DEPARTMENT OF STATE 97867
- 일자 : 1975.4.30 01:45
- 수신 : 서울 미국대사관
- 관리번호 : CTA0000766

1. 함 한국 대사의 4월 29일 하비브 차관보 방문에서, 그는 유엔군사령부에 대해 거론했습니다. 함은 최근 서울 협의회에서 유엔 전략을 김 외무장관과 최 청와대 특별보좌관과 폭넓게 의논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유엔군사령부의 일방적 종료 가능성을 국무부와 함께 비공식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김으로부터 요청을 받았습니다.

2. 우리는 올해 적의 결정을 좌절시킬 수 있는 충분한 표가 부족하다고 말하면서, 함은 한국측의 책임을 유엔측에 모두 전가하면서 우리에게 유엔군사령부의 완전한 종료를 진지하게 심사숙고해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그와 같은 결정을 발표하는데 있어 함은 한국정부가 정전협정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군사정전위원회를 유지시킬 것을 미국정부와 한국정부가 분명히 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만일 북한이 정전협정의 무효를 선언하면, 함은 유엔군사령부의 해체를 강조하고 정전협정을 존중하도록 협정 당사국들을 방문하는 미국정부의 결의안을 우리가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3. 함은 한국정부가 유엔 총회에서의 실패를 피하길 바라며 우호적인 유엔 총회의 표를 획득하기 위하여 기꺼이 정전협정을 비난하는 북한의 위협을 무릅쓸 각오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만일 유엔군사령부가 해체된다면 북한이 정전협정을 비난하지도 유엔 총회가 미국 군대의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으로 함은 그의 제안이 다른 나라들과 의논되지 않았으며 아직 박 대통령에게 승인을 받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4. 하비브 차관보는 유엔군사령부 문제에 대한 이러한 접근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멀지 않아 우리가 함에게 먼저 우리의 응답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5. 함은 또한 노 외무차관이 지금 뉴욕에 있는데 5월 1일과 2일에 국무부 수석 관료들과 함께 대통령을 방문하기를 원한다고 하비브에게 말했습니다. 함은 노의 워싱턴 방문과 유엔 전략을 드러내놓고 연결시키지 않았지만 우리는 방문의 목적이 이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키신저

■ 박 대통령과의 회담 : 미사일 전략

- | | |
|-----------------------------------|-----------------------|
| • 형태 : 전문 | • 일자 : 1975.5.1.08:06 |
| • 발신 : 서울 미국대사관 | • 수신 : 워싱턴 국무부 장관 |
| • 출처정보 : DEPARTMENT OF STATE 5574 | • 관리번호 : CTA0000765 |

요약 : 4월 30일 대사와 회의를 하는 동안 박 대통령은 한국의 미사일 생산능력을 발전시키고자 한다는 그의 결정을 제시했습니다. 덧붙여 그는 북한의 비행장과 주요 공공시설들에 대한 미사일 공격으로 북한의 공군 우세를 맞대응하는 전략을 설명하였습니다. 두 정책들은 모두 한국에서 미군 철수의 가능성을 전제하고 있었습니다. 대사는 두 주제에 대해 미국정부와의 완전한 협의를 주장하였고 대통령도 동의하였습니다. 요약 끝.

1. 1개 군단 해체의 연기에 대한 논의(참조 전문)에 이어 박 대통령은 록히드(Lockheed)의 추진제 플랜트에 대한 미국의 동의 실패를 저에게 제기했습니다. 저는 미국정부가 한국의 미사일 생산능력의 발전과 관련된 지원에 대해 별도의 많은 요구들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요구들은 종종 미국정부가 일본과 서유럽과 같은 선진국들에게조차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는 하이테크놀로지-하드웨어보다는-의 수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가 보유하고자 하는 이 분야에서 강한 경쟁적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요구건에 있어, 우리는 상호원조를 위한 기초를 제공하는 한국의 장기적인 계획에 대한 어떠한 명확한 개념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의 계획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개별 항목들에 대한 결정을 쉽게 내려지게 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2. 박 대통령은 향후 몇 년 동안의 한국의 완전한 프로그램과 계획에 대해 제게 조언해 주는데 동의하였습니다. 그는 심(Shim) 의장에게 저와 연락하라고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후 그는 한국에 미군이 계속 주둔하고 있는 동안 향후 3년에서 5년 안에 국내의 미사일 능력을 발전시키도록 심에게 지시를 내렸다고 계속 말했습니다. 만일 미국이 원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한국은 제3세계에서 원조를 구할 것입니다. 한국에 놓여 있는 재정적 부담을 인정하면서 대통령은 한국이 “비오는 날을 위해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정부에게 미군 철수에 대한 계획을 통보할 때까지 한국이 미사일 능력

개발을 기다린다면 그때는 너무 늦을 것입니다.

3. 저는 박 대통령에게 미사일 개발 분야에 관련된 엄청난 재정적 경비와 더 좋은 방법은 미국과 함께 일하는 것이라고 지적해 주었습니다.

4. 그의 방위생산에 대한 더 광범위한 계획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

- A. 한국정부는 핵무기를 개발할 어떠한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되풀이하지 않겠다.
- B. 한국정부는 최신형의 전투기를 개발할 계획이 없지만, 만일 미국에서 생산한 비행기를 직접 사오는 것보다 재정적 경비가 훨씬 더 많이 들지 않는다면 공동 조립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다.
- C. 군사 장비에 대한 다른 분야에서 한국정부는 자신들만의 능력을 개발하길 바라며 이미 몇 가지의 성공들을 가지고 있다.

5. (삭제 : Section 3.4(b)(6) of E.O. 12958)

6. 결론적으로 박은 한국정부는 미국이 떠나는 날을 준비하기 위해 방위생산, 특히 미사일 능력에서 자립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정부는 이러한 계획들에 대한 미국의 완전한 지원 조치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의 철수에 관한 박 대통령의 우려에 다시 반박하였고 그의 미사일 전략에 대해 애초부터 노력을 하는 것보다 이 주제는 향후 안보협의회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의 대규모 군사적 참여와 그 중요성으로 이러한 성격의 전략 결정은 상호합의에 따라야만 합니다. 박은 좀더 빨리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의 조급함을 언급하면서 제가 워싱턴에 조속히 통보할 수 있도록 이 전략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저에게 브리핑을 해주라고 국방장관에게 알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7. 견해 : 지난번 대화와 이번 대화에서 박 대통령은 미국의 철수 가능성으로 인해 한국의 자립을 키우려는 그의 프로그램을 더욱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일단 그는 한국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동안에 긴급한 자립적 방위산업의 발전에 대한 계획과 더불어 철수에 대한 예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박의 이 정책이 제가 이전에 제안했던 전반적인 한국 정책 검토의 주요 측면으로 가장 철저하고 가장 빨리 검토에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할 수 있습니다. 의회 내의 현재 태도를 가정해 보면, 우리는 양자택일로 미국의 철수이나 그의 계획이나에 관한 박의 염려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철수가 수반할 한국의 효과적인 방위에 있어 한국과 북한의 미사일과 다른 하이테크놀로지의 분야로 인한 전쟁확대의 위험을 피하면서 합리적인 안보의 의미를 한국에 줄 미국의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현실화 되어야 합니다.

스나이더

■ [남한의 안정]

- | | |
|--|-------------------------|
| • 형태 : 비망록 | • 일자 : 1975.5.6 |
| • 발신 : Sandra Wisnieski(J. Warren 사무실) | • 수신 : Margie Vanderhye |
| • 출처정보 : Central files | • 관리번호 : CTA0000725 |

제리는 그가 받은 편지에 바로 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음 질문에 자문을 해 줄 수 있는가?

- 남한의 안정은 미국의 아시아 정책에서 중요한가?
- 남한으로부터 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하는 방향으로 현재 고려중인 조치가 있는가?
- 미국은 한국 상황과 관련하여 일본과 정기적으로 협의를 갖고 있는가?
- 미국은 베트남에서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현 한국 상황에 대한 견해와 향후 한국에서의 행동을 변화시킬 것인가?
- 남한에 대한 대통령의 정책을 설명하는 준비된 자료, 특히 북한의 침략 가능성과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과 관련된 준비된 자료가 있는가?

감사합니다.

■ [한국 정치범 관련 편지에 대한 답신]

- 형태 : 편지
- 발신 : Fred Henneke(한국담당관)
- 출처정보 : DEPARTMENT OF STATE
- 일자 : 1975.5.6
- 수신 : Marie Mouser Scott
- 관리번호 : CTA0000702

미스 스코트 귀하 :

백악관의 요청으로 귀하가 4월 13일 한국의 정치범과 관련하여 보내주신 편지에 이렇게 답신을 드립니다.

처형된 8명의 사람들은 1974년부터 효력을 발생한 긴급조치를 위반한 이유로 한국정부가 재판에 회부한 200명 이상의 사람들 중의 일부입니다. 그 8명은 한국 정부가 혁명을 도모하기 위한 학생운동 조직이라는 혐의를 씌운 단체를 조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들은 1974년 7월 11일에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사건은 이어서 재심에 처해졌으나 군사항소법정에서 9월 7일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4월 8일 대법원에 의해 상고는 기각되었고 그 다음날 판결이 집행되었습니다. 국무부는 한국 정부의 이러한 극단적 조치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나는 한국의 당국자들이 인권 문제 전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잘 알고 있다고 귀하에게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는 자국민에 대한 한국정부의 처우와 관련하여 미합중국 정부가 효과적으로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제약되어 있다는 점을 이해할 것입니다.

1974년 9월 국무부는 한국 인권에 관한 특별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나는 동봉한 이 보고서가 당신의 관심을 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Fred Henneke
한국담당관

첨부 : 국무부 특별 보고서

■ M-60 탱크 철수

- | | |
|-----------------------------------|---------------------|
| • 형태 : 전문 | • 일자 : 1975.5.8 |
| • 발신 : 서울 미국대사관 | • 수신 : 국무부장관 |
| • 출처정보 : DEPARTMENT OF STATE 1824 | • 관리번호 : CTA0000744 |

1. 서(Sub) 국방장관은 제2사단에서 M-60 탱크 대대를 철수시킨다는 결정에 대해 “정치적인 이유로” 재고를 요청하기 위해 대사에게 접근해왔습니다. 스틸웰(Stilwell) 장군은 이것이 광범위한 육군의 재편 계획, 독일로의 탱크 이동, 그리고 추가 토(TOW) 미사일을 포함하여 제2사단의 다른 부분의 강화에 대한 문제라고 저에게 알려왔습니다. 스틸웰 장군은 지난 2개월 동안 대화를 통해 제2사단의 변화가 갖는 이점과 이유에 대해 서(Sub)에게 충분히 충고했습니다.

2. 서(Sub)는 전문적인 군사적 고려가 필요하다 것은 알겠지만, 그러나 한국정부는 이 시기에 탱크의 이동이 한국 국민들과 북한인들 모두에게 이해될지 염려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제게 간단하게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시기에 이런 종류의 변화에 대해 한국인들 사이에 분명히 염려가 있습니다.

3. 지령을 요청합니다.

스나이더(Sneider)

■ 한국의 새로운 긴급조치

- | | |
|-----------------------------------|------------------------|
| • 형태 : 전문 | • 일자 : 1975.5.12 10:01 |
| • 발신 : 서울 미국대사관 | • 수신 : 워싱턴 국무부장관 |
| • 출처정보 : DEPARTMENT OF STATE 9290 | • 관리번호 : CTA0000765 |

다음은 한국정부가 5월 13일 발표할 새로운 긴급조치의 내용입니다. 성명은 외무부장관이 5월 12일 대사에게 준 것입니다. 외무부장관과의 회의에 대한 보고서는 별도 전문으로 발송됐습니다.

내용 시작 :

박 대통령은 헌법 제53조에 의거하여 5월 13일에 새로운 긴급조치를 선포할 것이다.

국가안보와 공공질서를 지키기 위한 긴급조치는 인도차이나와 김일성의 베이징 방문을 포함한 최근 국제적 상황이 부여하고 있는 국가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정부는 만일 우리가 남한의 상황에 대한 북한의 오판을 최소화하고 무장 도발과 침략이라는 북한의 행동을 막기 위해서는 확고한 내부의 국가적 단결을 만드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우리는 만일 점검하지 않고 놔둔다면 내부의 분열과 국내의 불안이 전체 국가안보의 노력을 돌이킬 수 없이 침식시킬 수 있다는 것을 남베트남에서 목격하였다.

긴급조치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담을 것이다.

1. 그것은 거짓 소문을 꾸며내거나 유포시키는 행위들을 금지하며 사실을 왜곡시키는 행위와 왜곡된 사실을 퍼뜨리는 행위를 금지한다.
2. 집회나 시위의 방법이나 신문, 방송, 그리고 간행물 등과 같은 대중매체를 통해 헌법의 수정이나 폐지를 주장하거나 선동하는 것을 포함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거나 반대하거나 혹은 모욕하는 행위들을 금지한다.
3. 대학의 지도과 감독아래 수업과 연구 활동과 대학 총장이 인정하는 비정치적 활동들을 제외한 학생들에 의한 집회나 시위와 다른 정치적 활동들을 금지한다.
4. 그것은 어떠한 사람도 이 긴급조치 하에 금지된 행동들을 방송하거나 보도하는 것을 금지한다.
5. 이 긴급조치는 대한민국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불법적으로 해외로 옮기는 행위들과 나라 안으로 들여온 재산을 해외에 넘기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6. 이 조치는 또한 이민 허가를 받는 행위나 위조된 문서나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 나라에서 도망치려는 어떠한 다른 행위도 금지한다.
7. 이 긴급조치는 내각 장관들에게 긴급조치를 위반하는 사람들과 퇴학 명령과 다른 훈련을 포함하여 위반자가 소속하고 있는 학교와 다른 조직들에 대해 해당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권한을 위임한다.
8. 이 긴급조치나 긴급조치에 따라 내각 장관들이 취한 다른 조치들을 위반하는 어떤 사람도 체포영장 없이 체포와 억류를 시킬 수 있으며 1년 이상의 징역의 처벌을 받게 된다.

9. 이 긴급조치가 발효한 후에 특정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에 관한 법률의 2조(뇌물)와 5조(횡령 및 착복)에서 제시되고 있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법의 각 조항들에서 명문화하고 있는 문장들에 덧붙여, 뇌물 수수의 양이나 국고에 가한 손실의 양의 10배에 상응하는 벌금이 정부 관료와 정부가 통제하는 기업에 의해 공동으로 부과될 것이다.
10. 이 긴급조치의 위반자들은 민간 법정에 의해 재판을 받거나 선고를 받을 것이다.
11. 국방장관은 만일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서울 시장이나 부산 시장 그리고 도시인들이 요구하면 군대를 동원할 수 있다.
12. 국회의 공식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하는 연설은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방송, 신문보도, 그리고 다른 수단을 통해 연설의 내용을 공개적으로 유포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제외한다. 내용 끝.

스나이더

■ 한국의 새로운 긴급조치

- | | |
|-----------------------------------|-------------------------|
| • 형태 : 전문 | • 일자 : 1975.5.12. 10:04 |
| • 발신 : 서울 미국대사관 | • 수신 : 워싱턴 국무부장관 |
| • 출처정보 : DEPARTMENT OF STATE 9296 | • 관리번호 : CTA0000765 |

1. 김동조 외무부장관은 5월 13일에 발표될 새로운 긴급조치에 대해 대사에게 알려주기 위해 5월 12일 오후 늦게 그를 불렀습니다. 대사에게 주었고 별도 전문으로도 발송된 새로운 긴급조치는 학생과 미디어를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조치는 기본적으로 헌법에 대한 비판, 왜곡된 사실을 퍼뜨리는 “거짓 소문”, 그리고 학생들에 의한 정치적 활동과 집회, 그리고 시위를 금지하고 더불어 언론보도와 라디오 방송사의 그와 같은 행동도 금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조치는 또한 공무원의 부패와 불법적인 이민, 그리고 자금의 이송을 금하고 있습니다.

2. 외무부장관은 주요 정부 지도자들이 5월 13일 오전 10시에 이 조치를 통보받을 것이며 내각은 오후 1시30분에 공포할 것이며 조치는 5월 13일 오후 3시부터 발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성명은 1973년 6월 23일 외교 정책을 재확인하고 미국의 동참에 있어

완전한 확신을 표명할 것이다. 덧붙여 군대가 고려대학교를 점령하도록 허용한 제7호 긴급조치는 제8호 긴급조치 하에 폐기될 것입니다. 새로운 조치는 제9호로 불릴 것입니다.

3. 외무부장관은 미국 정부에 먼저 통보하라는 권한을 위임받았지만, 협의에 대한 규정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무시되고 있는 미국에서 나올 잠재적인 반작용을 지적하는 노력을 보이며 조치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었음을 분명히 내비쳤습니다.

4. 저는 한국에게 재확신을 심어주기 위한 최근의 높은 수준의 노력을 가정하면 심지어 비공식적으로 협의하려 하거나 미국의 의회와 여론으로 생길 잠재적인 문제를 설명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 강한 실망감을 표시했습니다. 긴급조치가 진정 한국의 내부 결정의 문제이지만 조치의 필요성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으며, 미국과 한국 사이의 동맹 관계는 이 관계를 강화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견해의 완전한 교환을 포함하여 상호 의무와 상호 노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조치에 즉시 워싱턴 당국이 관심을 가져야 하며 이 조치의 공포 결정의 과정에 우리는 연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외무부장관에게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 대통령의 남한 국회의장 면담에 대한 회신

- | | |
|------------------------------|------------------------------------|
| • 형태 : 비망록 | • 일자 : 1975.5.20 |
| • 발신 : - | • 수신 : Fred C. Weyand(미 육군 최고 사령관) |
| • 출처정보 : DEPARTMENT OF STATE | • 관리번호 : CTA0000725 |

오토 귀하

대통령이 남한 국회의장을 만날 것을 지지한 당신의 전화와 관련된 것입니다. 저는 대통령이 오늘 여기 백악관에서 정일권 각하를 만났다고 당신에게 전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 만남을 추천해 준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제가 향후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안부를 전하며,
대통령 보좌관 맥스 L. 프리더스도프

수신 : 하원 오토 패스맨 귀하

■ 유엔군사령부의 구조조정

• 형태 : 전문	• 일자 : 1975.5.28 10:23
• 발신 : 서울 미국대사관	• 수신 : 워싱턴 국무부장관
• 출처정보 : DEPARTMENT OF STATE 8326	• 관리번호 : CTA0000765

1. 5월 28일 대사는 김동조 외무부장관과 함께 참조전문에 제시된 내용에 따라 제안된 안전보장이사회에 보내는 편지와 유엔군사령부의 구조조정을 논의하였습니다. 대사는 특히,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제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답을 요구했습니다.

- (A) 제안된 안전보장이사회에 보내는 편지에 대한 한국정부의 반응
- (B) 한국정부가 유엔군사령부의 체면을 떨어뜨리기 위해 가지고 있는 제안들
- (C) 지난해 제기한 한국정부의 입장이 여전히 계속해서 유효한지 그리고 이것이 이 문제에 대한 향후 논의를 더 쉽게 만들어 줄 수 있는가의 여부

2. 비록 외무부장관은 위에서 제기한 문제점들에 대해 어떠한 답변도 해주지 않았지만, 그는 미국의 제안에 대해 어떠한 구체적인 질문도 하지 않았으며 또한 유엔군사령부의 일방적 해체에 대한 개념을 언급하지도 않았습니다. 외무부장관은 “문제의 날” 안에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답을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3. 외무부장관은 한국 문제를 다루는 시간과 전술에 대한 한국정부의 제안 설명서를 대사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실질적인 문제를 다루지 않은 설명서는 별도 전문으로 발송될 것입니다.

스나이더

■ [남한의 안보]

- 형태 : 편지
- 발신 : STATEN ISLAND OFFICE
- 출처정보 :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 일자 : 1975.6(추정)
- 수신 : John Murphy(하원의원)
- 관리번호 : CTA0000729

위원 귀하 :

인도지나의 비극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과 세계의 우리 동맹국들 그리고 적대국들이 미국의 결의와 의지를 재평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맺은 조약뿐만 아니라 우리의 도덕적 의무까지도 의문시되고 재정의되고 있는 바, 도전까지 받을 날이 매우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남한은 “다음 도미노”가 될 것인가? 현재 남한 국민은 동북아시아대륙의 반도에서 바다를 등진 채 홀로 서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동맹국 중에서 한국이 현재 가장 거대한 긴급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공세는 공공연하게 전투적이며 그 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북한이 갖고 있는 일정한 비합리성 때문에 그들의 오판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정부와 언론에서 그리고 미국 국민들 사이에서는 미국과 대한민국 사이의 공식적 및 비공식적 관계를 매일같이 더 깊게 검토하기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 곧 미국이 한국과 오랫동안 맺은 관계가 갖는 중요성과 의미를 다시 새기는데 도움이 될 기념일이 곧 다가오는데 이는 그런 면에서 매우 좋은 일인 듯 합니다. 1975년 6월 24일은 아직 끝나지 않은 한국전쟁의 발발에 25주년 되는 날입니다. 올해 1975년에는 한반도 분쟁을 기리는 다양한 행사와 계기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러한 행사는 미국과 한국 그리고 유엔의 깃발아래 군대를 보내 싸운 여러 나라에서 개최될 것입니다.

미국 상원과 하원에는 한국전쟁 참전용사가 50명이 넘습니다. 한국 국회의원 중에는 70여명이 참전용사입니다. 6월초 한국 국회의원 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할 것입니다. 또 올해의 참전용사 기념 휴회기인 10월 23-29일 기간에 미 의회의 대표단에 한국을 답방할

예정입니다.

한반도 분쟁에 참여한 미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의 명단은 첨부자료 1로 첨부합니다. 이 명단에 있는 의원들은 앞으로 있을 한미간 행사에 관련된 활동 소식을 받아보고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국회의원들은 6월초에 도착합니다. 그중 고위급은 한국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 (존경하는) 최영희씨입니다 (방미하는 한국 국회의원의 명단은 첨부자료 2). 이들은 각기 미국 여러 곳의 출신 군사학교나 군사기구를 “구 졸업생”으로 방문하는 일정을 가진 다음 워싱턴에는 6월 12일 도착할 예정입니다. 한국 대표단은 6월 26일 행사 일정을 마칠 때까지 아마 수도 워싱턴 지역에 머무를 것입니다. 이들의 방문 일정 초안이 첨부자료 3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일정은 변경되는 대로 새로 인쇄될 것입니다.

하원의장은 저에게 앞으로 있을 한미간 행사와 활동을 조정하는 책임을 부여하였습니다. 제 특별 보좌관 보이드 배쇼어와 베쓰 로쉬가 이 사안에 대한 연락을 담당할 것입니다 (225-8694).

이번 활동에 대한 제안이나 추가사항 또는 수정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첨부자료 4는 여러분의 제안을 담기 위한 양식입니다. 이번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원들은 이 문제로 연락을 취하고 받을 수 있는 실무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제 사무실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요약하면, 향후 활동은 중요한 기념행사일 뿐만 아니라 한미관계상 점차 민감해지는 이슈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관심과 우려를 모아내는 시기적절한 일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매우 다양한 집단에서 이러한 활동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을 보면서 면밀히 계산하고 해석할 것입니다.

존 M 머피 의원

■ [한국상황에 대한 편지에 대한 답신]

- 형태 : 퍼지
- 일자 : 1975. 6. 12
- 발신 : Roland L. Elliott(연락국장)
- 수신 : Edward J. Piszek (President Mrs. Paul의 사무실)
- 출처정보 : -
- 관리번호 : CTA0000727

피제크 귀하 :

대통령의 요청으로 귀하가 한국 상황과 관련하여 5월 12일 보낸 편지에 답신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귀하가 의견을 보내 준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한미 관계를 담당하는 국무부 관리에게 당신 편지 사본을 전달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과 한국은 오랜 기간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우리는 아시아에서 있었던 두 번의 전쟁에서 동맹관계였습니다. 귀하도 편지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미국은 한국에 상당한 경제적 군사적 원조를 제공하였고 이것은 지난 10년간 한국이 획기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나는 미국이 한국 국민들과 긴밀한 결속관계를 지속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또한 기대하고 있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과의 안보관계에 근본적인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의지를 갖고 있다고 최근 여러 차례에 걸쳐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귀하가 한국에 대한 의견을 전한데 대하여 대통령의 감사의 뜻과 안부를 전하는 바입니다.

Roland L. Elliott
Director of Correspondence

■ 김지하 재판과 한미동맹

- 형태 : 문서
- 발신 : Kissinger(국무부장관)
- 출처정보 : DEPARTMENT OF STATE 8772
- 일자 : 1975. 6. 17
- 수신 : JAPAXVIET
- 관리번호 : CTA0000727

1. 오다 마코토, 정경모, 니콜라 가이거 :

2. 포드 대통령은 한국 시인 김지하에 대한 우려를 담은 당신의 전신을 잘 받았다. 대통령은 우리가 당신에게 미국 정책에 대하여 설명하라고 요청하였다.

3. 자국 시민에 대한 한국 정부의 처우와 관련하여 국무부가 효과적으로 취할 수 있는 행동은 제약되어 있지만, 한국 관리들이 인권 문제에 대한 미국 정부의 견해를 인지하고 있다는 점을 당신에게 보장할 수 있다.

4. 대한민국과 그 국민은 여전히 미국의 주요 동맹이며 양국 관계는 상당히 긴밀하다.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인 역사적 안보관계를 한국과 맺고 있다는 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한국 정부의 국내 정치행위를 비판하는 한국의 야당 지도자들 역시 이 중요성을 인정하며 양국의 긴밀한 관계의 지속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공무 보좌관보 존 라인하트,
국무부 키신저

■ 6명의 한국 국회의원들의 대통령 방문

- 형태 : 비망록
- 발신 : George S. Springsteen(국무부 사무총장)
- 출처정보 : DEPARTMENT OF STATE /S 7512703
- 일자 : 1975.6.24
- 수신 : Brent Scowcroft(백악관 군사보좌관)
- 관리번호 : CTA0000684

6명의 대한민국 국회의원들과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대통령께서 사용하실 요약되어 있는 비망록을 첨부합니다. 방문은 6월 25일 오후 12시30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무처장 조오지 스프링스틴(George S. Springsteen)

첨부 : 위에서 말한 비망록

국무부

대통령께 보내는 비망록

주제 : 한국 국회의원들의 방문

I. 목적

한국전쟁 참전용사 출신인 70명의 한국 국회의원들을 대표하여 6명의 한국 국회의원들이 미국에 한달동안 방문중에 있습니다(인명 간략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 대표단은 최영희(Choi Young-hi) 의원이 이끌고 있으며, 표면상의 목적은 한국전쟁 25주년을 맞이하여 미국의 한국지원에 대해 감사를 표시하려는 것입니다.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미국 하원의원의 대표단은 10월 말에 한국에 상호 방문을 할 것입니다. 상원에 10명의 한국전쟁 참전용사가 있고 하원에 44명의 참전용사가 있습니다.

최(Choi) 의원은 한국 국회에서 국방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최의원과 정내혁(Jung Nae-Hiuk) 의원은 前 국방부 장관들입니다. 다른 세명의 국회의원들은 한국 해군과 공군, 그리고 해병의 前 수뇌들입니다. 이 대표단은 엄영달(Ohm Young-Dal)을 제외하고 신민당(New Democratic Party)의 반대파에 속하는 매우 친정부적인 사람들입니다. 이 대표단은 함병준(Hahm Pyong-Choon) 대사와 동행할 것입니다.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미국 전역에 있는 미군 기지들을 방문하였고 지난 2주동안 한국에 대한 지지와 우리 안보 노력의 재확인을 위해 의회에 로비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6월 26일에 출발할 때까지 그들은 약 백여명의 상원의원들과 하원의원들을 개별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만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국무부와 국방부의 부장관들과 합참본부 의장을 방문하였습니다.

한국의 국회의원단은 미국이 한국의 안보관계에 부여하고 있는 중요성을 이러한 만남들을 통하여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많은 의회 인사들이 박 대통령의 국내의 억압적인 조치들에 대하여 강한 염려를 표시하였고, 여기서 한국정부의 이미지를 상당히 개선시키지

않는다면 한미정책에 대한 국민과 의회의 지지가 침식될 것이라고 대표단에게 경고하였습니다.

국회의원들과 귀하의 만남은 기본적으로 예방차원의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전쟁의 발발 25주년이 다가오고 있는 시점에서 이 만남은 한미안보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데 특별한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II. 배경

A. 한국의 안보 염려

지난 두 달동안 한국에는 북한의 대남 의도에 대한 염려가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캄보디아와 베트남에서의 공산주의의 승리와 북한의 김일성의 갑작스런 베이징 방문은 평양이 한국에 적대적인 군사 행동을 감행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낳고 있습니다.

고조되고 있는 한국의 염려는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신뢰와 국가안보를 강화시키고 정부의 내부적 통제를 높이는 수많은 국내적 조치들에 대해 의심을 하는 경향들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박대통령에 대한 국내의 정치적 비판, 북한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 그리고 한국의 군비를 증강시키려는 수많은 조치들에 관한 박대통령의 탄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 기간동안 한국에 적대적인 어떠한 직접적인 군사적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는 반면에, 한국정부의 지도자들은 부분적으로는 국내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국민의 불안을 앞세워 북한의 위협을 계속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방위 노력의 신뢰성에 대한 한국의 의심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안보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정부의 최고수준에서의 공개 성명을 반복적으로 해왔습니다. 이 성명들은 서울에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졌지만 평양은 언론매체를 통하여 우리의 재확인을 비난하면서 동시에 북한의 “평화적 통일”을 강조하였습니다.

B. 한국의 국내 상황

5월 13일에 발표된 새로운 긴급조치는 국내의 정치 활동에 대해 심한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학생의 정치적 활동과 한국의 현행 헌법(이것은 박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가능케 하였습니다.)에 대한 비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은 한국의 신문과 다른 언론매체들이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정치적 활동을 보도하지 못하도록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명령과 더불어, 수많은 주요 정부 비판자들이 현재 공공연한 정치적

목적에 의해 서울에서 재판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억압적인 조치들은 한국정부에 대한 미국 국민들과 의회의 태도에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조치들이 계속된다면, 그것들은 우리의 한국 프로그램에 필요한 국민의 지지를 감소시킬 것입니다.

III. 담화 요점

- 오늘은 한국전쟁이 발발한지 25주년이 되는 날이며, 그것은 한국 방위에 미국이 직접적으로 참여한지 25년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미국인과 한국인은 한국의 자유와 독립을 지키기 위해 피를 흘렸습니다.
- 우리는 한국의 상호안보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자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 약속을 재차 확인하는 바입니다.
- 앞으로도 우리는 한국의 안보를 지원하는 많은 노력과 프로그램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국가의 안보를 위해 의회제도의 발전과 유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첨부 : 인명 간략소개서

■ 이란과 북한의 거래를 방해하려는 한국정부의 시도

- | | |
|-----------------------------------|------------------------|
| • 형태 : 전문 | • 일자 : 1975.6.26 10:02 |
| • 발신 : 서울 미국대사관 | • 수신 : 워싱턴 국무부장관 |
| • 출처정보 : DEPARTMENT OF STATE 6705 | • 관리번호 : CTA0000765 |

1. 외무부 경제 담당 차관보 김동휘(Kim Tong-Hwi)는 이란과 북한간의 구매 합의와 관련하여 한국정부가 테헤란에 있는 대사관으로부터 받은 6월 26일자 보고서를 정치담당 고문에게 통보하였습니다.

2. 한국정부의 대사관 정보에 따르면, 이란과 북한은 테헤란이 북한 상인들로부터 7억 달러 상당의 것을 사기로 한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외무부는 이 거래가 적어도 5년 동안 유효한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으며 관련된 물건의 성격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래의 일환으로 이란은 평양에 2억 달러를 현금으로 먼저 지불할 것에 동의했습니다.

3. 김은 지금 파리에 있는 남덕우(Nam Tok-U) 부총리가 거래를 취소시키거나 아니면 그것을 좌절시키거나, 선불을 취소시키거나 적어도 선불을 지연시키기 위해 7월 4-9일에 테헤란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은 북한이 주기로 한 것을 한국이 거의 확실히 이란에 공급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하는데 전혀 선불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추측하였습니다. 그는 북한에 줄 선불이 평양을 외국 부채의 어려움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4. 김은 미국정부가 진행할 수 있는 거래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들과 한국정부와 남부총리가 그 이행을 방해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제안들을 가지길 원하며, 국무부나 테헤란 대사관이 한국정부에 넘기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정보에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 한국 대사관부 육군 무관의 복귀

- | | |
|-----------------------------------|------------------------|
| • 형태 : 전문 | • 일자 : 1975.6.28 06:42 |
| • 발신 : 서울 미국대사관 | • 수신 : 워싱턴 국무부장관 |
| • 출처정보 : DEPARTMENT OF STATE 0963 | • 관리번호 : CTA0000765 |

1. 대사관은 현재 한국의 미국 대사관부 육군 무관들로 임명되어 워싱턴 D.C.에 주둔하고 있는 김일옥(Kim Il Ok) 소령과 문한식(Moon Han Sik) 대령이 그들의 현재 투어가 끝났을 때 한국으로의 복귀를 거부하고 미국에 계속 체류하기를 원할 것이라고 한국군 수석 장교들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한국군 장교들은 우리에게 가능한 조치와 한국정부가 앞으로 발생할 유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따라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 (A) 해당 장교들을 강제로 한국에 복귀하도록 하는 시도는 미국 법을 위반할 수 있다. 게다가 한국정부에 의한 어떠한 강제적 조치들의 제시조차도 상당한 반대 여론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 (B) 가장 좋은 조치 방법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만일 장교들이 미국에 계속 체류하는 것이 그들의 희망사항이라면 그들이 원하는 행동을 취하도록 놔두는 것인 것 같다.

- (C) 미국 체류에 대한 요구는 법무부 소관의 문제가 될 것이며 우리는 이 결정을 미리 판단할 수 없다.
- (D) 앞으로 유사한 경우를 예방하는 것 역시 한국 장교들이 위의 요점들의 관점에서 주장할 내부적 문제이다.

2. 가능한 한 조속히 지침을 부탁드립니다.

스나이더

■ 로드 레인빌(Rod Rainville)에 대한 추천

- | | |
|------------------------------|-----------------------------|
| • 형태 : 전문 | • 일자 : 1975.6.30 |
| • 발신 : Scowcroft(백악관 군사보좌관) | • 수신 : Stilwell(한국 유엔군 사령관) |
| • 출처정보 : DEPARTMENT OF STATE | • 관리번호 : CTA0000684 |

1. 로드 레인빌(Rod Rainville)에 관한 귀하의 외전에 감사드립니다.
2. 저는 로드가 개인적 기반은 매우 취약하나 평판은 매우 좋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비록 저는 못하지만, 당신의 보증이 제가 이제까지 필요로 한 모든 것이 되어 줄 것입니다.
3. 저는 여기서 그를 참모로 쓰는 것에 더 관심이 있었지만,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보니 저는 적어도 향후 몇달동안의 공석을 예상하지는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안타깝게도 그를 바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4. 그러므로 저는 귀하가 로드를 요구해서는 안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의 재능을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을 때 그를 가도록 허락하는 요청을 귀하께서 호의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5. 당신의 사려깊은 지적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한국의 재처리에 대한 접근

- | | |
|--------------------------------------|------------------------|
| • 형태 : 비망록 | • 일자 : 1975.7.2 |
| • 발신 : 국무부 | • 수신 : 국가안보 담당 대통령 보좌관 |
| • 출처정보 : DEPARTMENT OF STATE 7513363 | • 관리번호 : CTA0000685 |

NSC의 허가과 귀하의 검토를 위해 관련 기관들로부터 받은 견해들을 반영하고 있는 첨부된 조치(action) 비망록(표1)을 보내드립니다. 그것은 한국의 재처리 계획과 관련하여 서울 대사관에 지령 외전(표2)을 보낼 수 있도록 승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무부, ACDA(군비통제군축국), 국방성, ERDA(에너지연구개발국), CIA가 Non-Proliferation Backstopping Committee를 거쳐 통과시켰습니다.

이 비망록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에 대한 여러 가지 접근을 모색하는 문서를 로달(Lodal)씨께서 6월 30일자로 요청하신 것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한국정부에 대한 제안된 접근은 외교적 이유와 의회의 이유 모두에 있어 매우 시간적으로 민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비망록과 지령 외전 모두가 가능한 한 빠른 시간에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무대행 장관 로버트 잉거솔(Robert S. Ingersoll)

한국의 재처리에 대한 접근

배경

한국정부는 핵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플루토늄에 직접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프랑스로부터 소규모 시험용 재처리 플랜트를 구입하려고 협상을 벌여오고 있습니다. [삭제: Section 3.4(b)(6) of E.O. 12978]

아마도 머지않은 장래에 다른 어떤 잠재적인 확산의 경우보다도 더 한국의 핵무기 획득은 극도로 위험한 것이며 미국의 중요한 이해관계에 직접적으로 손해를 끼칠 것입니다. 3월에 백악관에서 승인한 한국의 핵정책 관련 외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러한 효과들은 비록 한국이 단지 핵의 시초 단계에서 맴돌고 있다 할지라도 만일 미국이 핵우산을 제거한다면 한국은 핵 선택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박대통령의 최근 언론 성명서의 결과로서 좀 더 현실화되고 있는 전망의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만일 한국이 분리된 플루토늄에 직접 접근을 한다면, 그것은 결국 한국이 핵무기를 가지거나 짧은 시기에 그것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추정을 하게 만들 것입니다. 한국에서 플루토늄의 재처리와 저장을 완벽하게 금지시키는데 부족한 어떠한 특별 세이프가드도

가장 골치아픈 우발사건(이미 한국 정부 내부의 논의-한국은 5월에 비준한 NPT에 본래부터 있던 것들을 포함하여 세이프가드 협정의 일부 또는 전체를 폐지한다-에서 언급되었다)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를 할 수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재처리는 가까운 장래에 한국의 핵연료 경제에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언젠가 그것이 필요해지면 지역의 플랜트나 공급국 서비스를 통하여 좀더 안전하고 싸게 제공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 중요한 것은 한국정부가 최근 미국과 캐나다와 협상하고 있는 동력로입니다. 미국 원자로 제2기인 KORI-II의 구입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1억3천2백만 달러의 수출입은행의 대부와 1억1천7백만 달러의 신용 보증에 대한 요청은 지금 의회에 올려졌습니다. 우리는 이 대부와 미국 원자로의 판매가 한국 경제에 도움을 주고 또한 우리의 비확산 목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출입은행 총재 캐시(Casey)씨는 한국의 소비 연료의 재활용과 사용에 관한 비확산 합의에 우리가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Executive Branch가 통고할 때까지 대부 요청에 대한 청문회를 연기하는데 의회의 동의를 얻어내었습니다. 최근의 모습은 만일 우리가 의회에 한국이 국가적 수준의 재처리 플랜트 계획을 취소하였다는 확신을 줄 수 없다면 대부를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캐나다와 프랑스의 태도

일반적인 핵수출정책 논의의 맥락에서 우리가 캐나다 국민들에게 말했던 3월의 정책 안에서 따르면, 그들은 한국이 캐나다가 판 원자로에서 나온 소모된 연료의 재처리에 앞서 캐나다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캐나다는 그 어떤 국가내 재처리에 대해서 신중한 제한을 지적하였고 우리와 함께 앞으로 한국의 핵지원에 동등하게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최근 런던에서 개최된 핵기술공급국 회의에 앞서 프랑스와 대화를 하여 프랑스에서 재처리 플랜트를 구입하는 것을 단념시키기 위해 한국정부에 접근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협정에서 상대적으로 우세한 지위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우리의 우려를 이해하였고, 그들은 재처리 플랜트 판매가 거의 상업적으로 이익이 없으며 프랑스 기업에 계약하기 비용을 변상해준다면 그 거래에 대해 한국이 취소할 것을 우리가 요구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삭제: Section 3.4(b)(6) of E.O. 12958)

한국에 대한 접근

한국정부의 원자력 에너지 관료들과 진행하고 있는 협의와 관련하여, 우리는 최근 그들에게 우리가 한국에 제공한 미국 원자로에서 나온 소비 연료의 재처리에 대한 거부권이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우리에게 있는 협력 합의서(Agreement for Cooperation)의 규정에 대해 상기시켜주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해에 대한 그들의 확인을 요구하였으며 또한 일반적인 재처리에 대한 폭넓은 의문사항에 관하여 추가 논의를 하고자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합의서(Agreement)에 대한 우리의 해석을 확인 받은 후에 우리는 원자력규제위원회가 KORI-I 원자로에 쓰일 이미 계약된(8월에 전달하기로 예정된) 연료에 대해 필요한 수출 허가서를 발급하도록 추천을 제안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은 비확산에 있어 캐나다의 우려와 재처리 의문에 관한 우리의 예비적 접근에 대한 대응으로 상당한 융통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삭제: Section 3.4(b)(6) of E.O. 12958) 우리는 한국이 국가적 차원의 재처리 능력에 대한 현재의 계획을 포기하는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스나이더 대사에게 보낸 우리의 이전 회신(표3)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바와 같이 지역적 차원의 시설에 참여할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한국 바깥에 위치할 그와 같은 플랜트는 그들의 미래의 재처리 능력의 필요를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행동의 제안 방향

이러한 분명한 한국의 이해와 우리와 행동을 함께 할 다른 핵기술공급국들(캐나다와 프랑스)의 적극성을 토대로 우리의 컨센서스는 이 단계에서 가장 좋은 접근방법이 우리의 이전 회신(표3)에서 제안된 노선에 따라 비교적 제한적이란 것입니다. 우리는 (1) 한국의 국가적 차원의 재처리 계획에 대한 우리의 우려를 설명하고 그와 같은 개발이 미국의 핵 지원을 위협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특히 KORI-II 원자로에 대한 수출입 은행의 대부가 계류중에 있음을 지적한다. (2) 한국정부에 계획된 시험용 재처리 플랜트를 추진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3) 동아시아를 위한 다국적 지역 재처리 플랜트 건설에 한국의 참여 의지에 지지를 보낸다. 이 단계에서 그 접근은 우리가 어떤 지렛대를 행사할 준비가 되어있는가와 단지 만일 한국 바깥에 위치한다면 다국적 플랜트를 우리가 만족할 것이라는 우리의 기대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추천받은 접근법보다 더 약한 대안과 더 강한 대안 모두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더 약한 대안은 한국정부에 더 이상 접근하지 않되 오직 미국 원자로에서 나온 소비 연료의 재처리에 대한 우리의 거부권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프랑스의 재처리 플랜트의 건설을 중지시키지 못할 것이며 소비 연료의 또 다른 출처를 결국 한국이 찾지 못하도록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추가 접근을 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확산 우려를 열어 놓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수출입 은행의 대부와 웨스팅하우스(Westinghouse) 사의 판매를 위협에 빠뜨릴 것이며 그 문제에 대한 캐나다, 프랑스 혹은 한국의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더 강한 접근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앞으로 그 어떤 국가적 차원의 재처리 플랜트를 만들지 않겠다는 서약을 직접 요구하는 것, (2) 우리는 미국 연료의 재처리를 거부할 것이며 만일 그와 같은 플랜트가 세워진다면 한국에 미국 원자로의 추가 이전에 대한 허가를 반대할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 (3) 우리는 한국에 위치하는 그 어떤 다국적 플랜트 역시 반대할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 이러한 더 강한 접근법들 중 일부는 이후 단계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지만, 우리는 그것들이 지금은 필요하지 않으며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나이더 대사에게 보낼 지령 외전(표1)에 우리의 우선적인 행동 방향을 함께 넣었으며 국무부, ACDA(군비통제군축국), 국방성, ERDA(에너지연구개발국), CIA, 그리고 NSC 참모부에 의해 재차 통과되었습니다. 한국과 다른 공급국들, 그리고 의회에 최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이러한 비교적 제한적인 접근을 위하여,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그것이 실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의 결과를 지켜본 후에, 우리는 앞으로의 행동 방향을 모색하는데 더 좋은 위치에 있을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접근에 대한 우리의 기대가 어긋난다면, 우리는 한국의 핵능력 획득을 상당히 복잡하게 만들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박대통령이 이 프로그램을 더 은밀하게 계속 진행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재 재처리에 관한 의회와의 대화의 결과, 우리의 종합적인 비확산전략과 NSSM 226의 형태와 방향에 관한 중간 기관의 문서, 그리고 우리의 대한정책에 대한 중간 기관의 재검토를 바탕으로 우리는 나중에 이 근원적인 문제들을 다루는 대안적인 방법들을 귀하가 검토하는데 추천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권고 : 위에서 개괄한 접근을 승인해주시고 표1에 있는 스나이더 대사에게 보낼 지령

외전에 함께 넣어주십시오.

승인 _____ 불승인 _____

첨부물 : 서울 대사관에 보낼 지령 외전, 정책 외전(State 48673), 이전 회신(State 135500)

■ 한국정부/캐나다의 원자력 협상

- | | |
|-----------------------------------|---------------------|
| • 형태 : 전문 | • 일자 : 1975.7.8 |
| • 발신 : 서울 미국대사관 | • 수신 : 국무부 장관 |
| • 출처정보 : DEPARTMENT OF STATE 6758 | • 관리번호 : CTA0000685 |

개요 : 삭제

1. 캐나다 대사 스틸레스(Stiles)는 한국정부에 캐나다형 원자로 판매에 관한 캐나다 의회의 논의에서 핵재처리 플랜트에 대해 야당이 매우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다고 7월 7일 늦게 우리 대사에게 알려왔습니다. 야당은 한국이 구입한 핵재처리 플랜트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박대통령의 약속을 속이고 무기급 플루토늄 생산에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 삭제

3. 구체적인 것으로는 들어가지 않고, 저는 스틸레스(Stiles) 대사에게 우리는 한국정부가 농축 우라늄 연료 성분을 재처리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복해서 강조하지 않았지만 소비된 연료 성분에 대한 철저한 통제를 유지하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주제 : 삭제

권고 : 선두를 달리고 있는 캐나다와 함께 저는 우리가 프랑스와의 계약을 취소하도록 한국정부에 압력을 넣기 위해 지금 당장 어떤 입장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한국정부가 우리의 비망록(Aide Memoire)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이지 않더라도, 저는 핵재처리에 대해 미국의 해석을 수용하지 않고서는 연료 성분의 판매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고, 프랑스 플랜트에서 미국의 연료 성분을 재처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원자력의 잠재력 개발에서 추가적인 실질적인 난관을 피해가기 위해서 한국정부가 프랑스와의 계약을 취소할 것을 제안하는 추가 접근(참조 B)을

추진할 것임을 제안할 것입니다.

스나이더(Sneider)

■ 한국정부가 대통령에게 보낸 7월 4일 메시지에 대한 회신

- 형태 : 전문
- 일자 : 1975.7.11
- 발신 : 워싱턴 국무부장관
- 수신 : 서울 미국대사관
- 출처정보 : DEPARTMENT OF STATE 1045
- 관리번호 : CTA0000787

1. 박 대통령은 독립기념일에 즈음하여 대통령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대사관은 박 (정희 - 필사체) 대통령에게 다음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2. 본문 시작 :

대통령 귀하 :

미국의 199회 독립기념일을 맞이하여 귀하께서 보내주신 친절하고 사려깊은 메시지는 양국 국민 사이의 오랜 관계에서 형성된 긴밀한 우정과 상호 존중을 의미한다고 보입니다.

제럴드 R. 포드

본문 끝.

■ 한국의 재처리에 대한 접근

- 형태 : 비망록
- 일자 : 1975.7.24
- 발신 : Jan M. Lodal, Dave Elliott
- 수신 : Kissinger(국무부 장관)
- 출처정보 : NATIONAL SECURITY COUNCIL
- 관리번호 : CTA0000685

한국의 핵무기 의도, 특히 프랑스로부터 실험용 재처리 플랜트를 구입하려는 그들의 의도와 관련하여 증폭되고 있는 우려의 결과로서, 한국인에게 직접 접근하도록 서울 대사관에 권한을 줄 것이라는 지침 외전(표A)에 관한 참모(staff) 수준에서의 행정적 동의가 있습니다.

- 한국의 재처리계획은 미국의 평화적인 핵지원, 특히 미제 동력로 2기인 KORI-II를 위

해 계류중에 있는 수출입은행의 대부를 위협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할 것.

- 그들의 재처리 플랜트 계획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요구할 것
 - 동아시아의 다국적 지역 재처리 플랜트에 한국의 참여를 위한 지원을 제공할 것
- 스나이더(Sneider) 대사는 이와 같은 접근을 지지하고 있습니다.(표C)

행정적 요인

누출과 독일과 브라질 경우처럼 프랑스와 한국간의 분쟁의 불가피한 잠재성과 한국의 핵무기 계획과 우리의 안보 노력간의 긴밀한 관계를 인식하여, 우리는 국무부/군비통제군축국(ACDA)에 이 문제에 대한 정책적 수준의 결정을 내리는데 사용할 별도 문서를 준비하도록 임무를 주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상원이 마지못해 NSC의 처리에 일임시키는 (스코우크로프(Scowcroft)씨가 이글버거(Eagleburger)씨께 전화하였습니다) 대신에 장문의 변론 비망록(표B)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문서는 장기간의 핵보증에 대한 한국의 요구라는 근본적인 문제와 그것들을 제공할 수 없는 우리의 무능력, 또는 프랑스의 개입의 문제와 우리의 비확산정책과의 일관성 문제 등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지역적 요인

만일 한국이 우리가 제공하는데 동의한 핵심적인 핵원자로와 더불어 재처리 플랜트를 만들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핵무기 프로그램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가늠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은 동아시아의 모든 나라들을 잠재적으로 불안하게 만들 것입니다. 북한은 분명히 유사한 능력으로 동맹국들을 압박할 것이며, 중국과 소련 양국은 그것을 그들의 영토에 잠재적인 핵위협으로 볼 것입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하게는 한국의 핵무기 개발이 일본에 확산 균형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의도

장래 핵무기능력 개발에 대한 한국의 정책은 군비 프로그램의 (삭제)와 핵실험의 선택은 지속적인 미국의 안보 보증에 달려있다고 언급한 박의 성명서에 상당히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한국의 태도는 의회와 국제무기통제커뮤니티(international arms control community)에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만일 몇 가지 구체적인 보

호조치들이 취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미국이 한국과 정상적인 민간 핵교역을 계속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재처리 는 플루토늄의 재생 위험에 관한 최근의 논쟁의 관점에서 앞으로 몇 년동안 한국의 원자력에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민간 동력 개발에 관심을 갖고 있고 무기 생산에 찬성하고 있는 두 정부관계자 모두는 만일 필요하다면 핵심적인 원자로의 구입을 어려움에 빠뜨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재처리 노력을 연기하도록 아마도 설득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장기적인 전망에 대해서는 비관적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근본적인 동기는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며 그들은 다른 제공자에 접근하거나 혹은 궁극적으로 그들 소유의 재처리 플랜트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보증

한국은 그것의 민간용 프로그램은 평화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우리와 다른 나라들에게 재확인시켜 주기 위하여 최근 몇 가지 조치들을 취했습니다. 그들은 캐나다가 캐나다형 원자로의 구입 조건을 만들어 주자 핵확산금지조약(NPT)을 비준하였고, 미국이 제공한 원자로에서 소비 연료를 재처리하는 것에 대해 미국의 거부권을 주는 쌍방간의 핵합의에 대한 우리의 해석을 최근 수용하였으며, 그리고 캐나다에 비슷한 보증을 해주었습니다.

한국인들은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계획된 재처리 플랜트를 포기하라는 미국의 요청이 그 한계에 접근할지 모릅니다. 이것을 합한 것은 그들이 또한 아래에서 언급한대로 어느 정도의 제거 비용을 지불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프랑스와의 연계

한국인이 구입할 계획을 하고 있는 재처리 플랜트는 프랑스 원형의 것입니다. 핵기술공급국 회의에 앞서 쌍방간의 논의에서 우리는 프랑스에게 우리가 이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인들에게 접근을 고려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삭제)

비확산정책의 의의

이 문제에 관하여 귀하께서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 귀하는 또한 우리의 전반적인 비확산 정책이 가지는 의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독일연방과 프랑스의 반대의 결과로

핵기술공급국회의(Nuclear Suppliers Conference)는 독일연방-브라질 핵협정에서의 통제보다 덜 엄중하고 우리가 한국에 가할 통제보다 상당히 덜 엄중한 재처리에 관한 통제로 끝날 것입니다. 최근 쌍방의 논의에서, 독일연방은 핵기술공급국의 합의와 일치하는 수출을 우리가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란과의 우산 협정을 마무리 짓기 위해 핵기술공급국회의의 결론이 날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왔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공급국들의 합의 결론을 따라 한국은 독일연방과 같은 또다른 공급국들에게 접근할 것이며 합의된 가이드라인하에서 재처리 플랜트를 구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간섭하기가 더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공급국합의의 결론, 강화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세이프가드의 결론 그리고 증가하고 있는 NPT 비준의 결론의 목적에 대해 우리가 풀어야 할 진정한 질문은 이러한 토대 위에서 미국의 수출을 허용한다는 것과 다른 공급국들과 고객국들간의 쌍방의 약속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두 측면 모두에서 적절한 통제로서 우리가 이것들을 기꺼이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의 비확산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는 VPWG에서 진행중이며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국제규제기체에 만족하기 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쌍방의 접근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계속 해야 하는 정도를 결정하는데 있어 유용한 기초로 쓰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연구는 한국의 접근에 있어 귀하가 결정을 내리는데 기초로 쓰일 수 있도록 제때에 완성되지 못할 것입니다.

선택

국무부의 제안은 캐나다의 조치에 따르는 것이 보다 이득이며 한국이 계획을 포기하도록 최대한 압력을 가하기 위한 우리의 특별한 지렛대를 이용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시기적절한 것이 될 것이며, 만일 한국이 동의한다면 KORI-II 원자로를 위한 수출입은행의 대부에 대해 계류중인 의회의 승인과 연료 수송에 대한 원자력규제위원회(Nuclear Regulatory Commission)의 허가의 전망을 높여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승인은 공개적인 발표를 통하여 한국 국민의 반감을 사게 되고 이미 핵기술공급국회의의 공개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를 자극하는 약간의 위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만일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누가 4백만달러 상당의 개발비용을 프랑스에 변상해줄 것인가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예비조사를 토대로 우리는 프랑스에 직접적으로 지불

하거나--이것은 의회에 “돈으로 해결한다”는 식으로 해석될 것입니다--혹은 국제개발처(AID)나 군사지원국(Military Assistance)을 통해 한국 국민들에게 보상을 해주는(그들은 이미 후자 프로그램의 감액에 대해 언짢아 하고 있다) 그 어떤 방법에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삭제)

대안으로, 우리는 한국의 NPT 의무조항--시설물에 대한 세이프가드와 핵폭발전개금지를 포함한--과 캐나다의 미국 원자로에서 나온 연료를 재처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들의 보증, 그리고 우리의 우려를 만족시킬 핵기술공급국의 협의에서 나온 추가적 제한들에 의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와 같은 기도는 단순히 "문서상의 보증"으로 고려되어 질 수 있으며 의회의 일부 성원들이 이 용어들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만일 한국이 이 재처리 플랜트를 추진한다면, 주변국들은 그것이 핵무기능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귀하의 결정

_____ 한국의 재처리 플랜트 획득을 저지하기 위해 우리는 쌍방간의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그리고 다음 단계로서 서울에 지침을 타전한다).

_____ 우리는 재처리 플랜트의 획득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더 이상 하지 않고, 대신에 한국의 NPT 의무사항과 IAEA의 세이프가드, 그리고 그들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보증을 하도록 핵기술공급국회의의 통제에 의존한다.

잭 프리베(Jack Froebe)는 일치함.

■ 대통령 생신 메시지에 대한 회신

- | | |
|-----------------------------------|---------------------|
| • 형태 : 전문 | • 일자 : 1975.7.25 |
| • 발신 : 워싱턴 국무부장관 | • 수신 : 서울 미국대사관 |
| • 출처정보 : DEPARTMENT OF STATE 4589 | • 관리번호 : CTA0000727 |

1. 박 (정희 - 필사체) 대통령은 대통령에게 생신 메시지를 보냈다. 대사관은 다음의 감사표시를 박 대통령에게 전달해야 한다.

2. 본문 시작 :

대통령 귀하 :

최근 제 생일에 즈음하여 친절한 메시지를 보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정성 어린 축하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럴드 R. 포드

본문 끝.

3. 국무부는 두 메시지를 공개할 계획이 없으나, 한국 정부의 공개를 반대하지 않는다.

■ 국경일 메시지

- | | |
|-----------------------------------|---------------------|
| • 형태 : 전문 | • 일자 : 1975.8.1 |
| • 발신 : 워싱턴 국무부장관 | • 수신 : 서울 미국대사관 |
| • 출처정보 : DEPARTMENT OF STATE 2281 | • 관리번호 : CTA0000727 |

1. 다음 내용을 8월 15일 또는 그 이전에 박 (정희 -필사체) 대통령에게 전달하기 바랍니다. 인용: 대통령 귀하: 대한민국의 독립기념일 경축에 즈음하여 저는 미국 국민들과 함께 진심 어린 축하를 보내는 바입니다. 이 국경일을 맞이하여 양국 국민들 간에 존재하는 따뜻한 우정과 깊은 지속적인 유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제럴드 R. 포드

인용 끝.

2. 백악관은 이 메시지를 공개할 계획이 없으나 수신자의 공개를 반대하지 않는다.

잉계솔

■ 대통령과 미키 수상과의 만남 비망록

- | | |
|--------------------------------------|---------------------|
| • 형태 : 비망록(대화록) | • 일자 : 1975.8.5 |
| • 발신 : - | • 수신 : - |
| • 출처정보 : DEPARTMENT OF STATE 7516291 | • 관리번호 : CTA0000648 |

대화록

일시 : 1975년 8월 5일

백악관

오후 7시

제목 : 대통령과 미키 수상과의 만남

참석 : 다케오 미키수상

마사오 쿠니히로(통역)

대통령

제임스 J. 위클(통역)

미 키 : 오늘 저녁 시간을 내 나를 맞아주어 고맙다. 여행으로 피곤하시리라 믿는다.

대통령 : 기분이 좋은 상태다.

미 키 : 대통령은 과거 운동선수로 단련되어 건강이 좋은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 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다. 그렇지만 비행기에서 잠을 잘 잔다. 오면서 비행기에서 5-6시간 잠을 잤고 도착해서 4시간 더 잤다. 기분이 좋은 상태다.

미 키 : 대통령, 나로서는 당신과 같은 선출직 정치인과 얘기하는 것에 더 편하다.

대통령 : 수상, 나도 그렇다.

일본의 정치 전망

미 키 : 대통령, 당신과 나는 모두 비슷한 조건에서 현직에 선출되었다. 당신은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이고 나는 다나카 금융스캔들 사건 이후이다. 그러나 오랫동안 의회 정치인으로서 살아왔기에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 단지 다나카 금융스캔들 사건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는 현재 우리가 직면하는 더 깊은 문제가 배경에 있다고 본다. 즉 일본에서 “보수적 민주주의”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약화되고 있고 따라서 자민당은 정권을 유지하려면 “자유 민주주의”를 구현해야 한다. 자민당은 점점 더 “보수적 민주주의” 정당으로 되고 있다. 자민

당의 득표율이 처음으로 50%이하로 떨어진 1967년 선거 이후의 3번의 선거에서 계속 표를 잃어, 1972년 최근 총선에서 46.7%까지 득표율이 떨어졌다. 지난 7월의 상원(중의원? upper house) 선거에서 자민당은 39.8%밖에 얻지 못했다. 그렇지만 나는 자민당이 정부를 안정시킬 수 있는 유일한 정치세력이라고 굳게 믿는다.

그러나, 나는 동시에 4개의 야당 중에 최대 정당인 일본 사회당에게 보다 더 “예비 정부”다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해왔다. 당신도 아다시피 일본 사회당과 다른 야당들은 국방과 외교정책에서 자민당과 상당히 다른 견해를 취하고 있다. 일본 사회당은 약간 변화하고 있지만 우리는 얼마나 변화할지 지켜보아야 한다. 이러한 기간 동안 나는 대통령께서 일본의 상황을 일정한 불안감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통령, 당신과 마찬가지로 나의 집권 역시 예상치 못한 것이었고 나 역시 국민들에게 “세례”받지 못하였다. 올해 말이나 내년 초 나는 선거를 통해 현 정부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확인받아야 한다. 나는 지난 38년간 자민당 의원으로서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온 경력 때문에 현재 수상직에 올랐다고 믿는다. 그리고 나는 다음 총선을 통해 현 정부가 국민의 지지를 받는 더 안정된 정부로 자리 잡을 것을 자신한다. 나는 또한 내가 3년 임기를 모두 채울 것을 확신한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나는 당신과 아주 허심탄회한 대화를 계속 갖기를 희망한다. 덧붙여 말하자면 당신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을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반드시 한다. 내가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경우는, 우리가 오직 상호 신뢰의 기초 위에서만 지속적인 협력을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것이다.

대통령 : 그렇게 협력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미 키 :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긴밀한 연락을 취하기를 희망한다.

대통령 : 수상, 먼저 일본 상황을 솔직하게 허심탄회하게 말해준 점에 대하여 개인적인 감사를 드리고 싶다. 당신은 일본에서 정치적 지도층에 대한 대중의 강력한 지지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지도력을 갖고 있다. 나는 의회 경험을 통해 누가 그런 지도력을 갖고 있는지, 또는 없는지 알 수 있게 되었다. 오늘 우리의 논

의도 그렇거니와 나는 몇 달 전에 이미 당신을 함께 일하고 싶은 동반자로서, 그런 지도자로 인식하게 되었다. 수상, 물어보건대 일본 제도에서 당신은 선거 시기를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나?

미 키 : 갖고 있다. 수상의 최대 특권이기 때문에 나는 가장 유리한 시기를 골라 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대통령 : 미국 제도에서는 그런 선택권이 없다.

미 키 : 대통령, 내년에 당신에게도 좋은 일이 있기를 기원한다.

대통령 : 깊이 감사한다. 우리는 서로 견해가 비슷한 것 같다.

경제적 상황

대통령 : 일본은 훌륭한 동맹이며 독일도 훌륭한 동맹이며 프랑스가 훌륭한 동맹이 된 것은 좋은 변화이다. 영국도 훌륭한 동맹이다, 다른 나라들도 그렇다. 우리가 만약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발생할 몇 가지 경향에 대처해야 한다면, 우리는 함께 대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내가 지스카르 대통령, 윌슨 총리, 슈미트 총리의 얘기를 들으면서 요점으로 생각되는 것은 우리가 경제 환경을 개선하지 않으면 정치적 환경이 나빠져 세계의 선진산업 국가들에게 해로운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이다. 일본도 여기에 큰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하여 각국의 의무를 언급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논의했으나, 만일 향후 해로운 경제적 상황을 피하지 못하면 민주 정부에게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느꼈다.

우리 미국의 경제상황은 좋아지고 있으나 우리 혼자 다 할 수는 없다 - 상호 조율된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를 조율해야 한다. 당신의 재선이 일본을 위해 또 우리가 대표하는 산업 국가들을 위해 관건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과 협력하고 싶다.

연립 정치

대통령 : 일본 사회당에 대하여 내가 과문한 점 송구스럽다. 그러나 (나의 의회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나는 잘못된 사람들과 타협하는 것을 항상 경계해왔다. 일본 사회당의 지도부는 신뢰할 만 한가? 그 이념은 양호한가? 당신은 사회당을 연립 정부 내에 두는 것에 안심하고 있는가? 또 내가 안심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미 키 : 나는 연립정부를 구성할 의도가 전혀 없다. 자민당은 상당 기간동안 집권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영원한 집권은 아니다. 우리의 견해는 일본 사회당의 견해와 상당히 차이가 나지만, 나는 일본 사회당이 우리의 입장을 이해하도록 할 필요, 즉 일본 사회당이 정견의 차이를 이해하도록 할 필요를 느낀다.

야당들은 언론을 통해서도 모두 나의 미국 방문이 굴욕적인 것이라고 지나친 부담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사적으로는 일본 공산당 당수를 제외하고 야당의 당수들이 모두 전화를 걸어 순방을 기원했다. 야당은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으며 나는 대화와 협력을 추구함으로써 야당과의 대립을 피하는 정책을 지속할 것이다.

대통령 : 우리는 유럽에서 일부 동맹국 정부가 공산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여기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이 점에 대한 사과를 대신하고자 한다. 우리는 그러한 연립정치에 철저히 반대하고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는 이태리나 다른 나라의 정부에 공산당을 두는 상태에서 강력한 기구가 될 수 없다. 그런 기초에서는 강력한 북대서양조약기구를 유지할 수 없다. 나는 이탈리아인들에게 이 점을 얘기했고 이 판단은 다른 나라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미 키 : 내가 수상이 된 다음인 지난해 4월 우리는 지방선거를 치렀다. 이 선거에서 비록 자민당이 야당이 차지하고 있는 도쿄와 오사카의 주지사직을 탈환하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다른 모든 주지사직을 차지했다. 또 자민당은 지방의회에서 의석수를 100석 이상 늘렸다. 일본 공산당은 일부 의석을 잃었다. 나는 일본 공산당의 세력이 더 확장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또 이를 허용하지도 않을 것이다.

대통령 : 한 가지 묻고 싶다. 이 문제에 대하여 가장 잘 알고 계실 텐데 일본 공산당은 일본 국내적 지향성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국제적인 지향성을 갖고 있는가?

미 키 : 일본 공산당은 소련과 일정한 접촉을 갖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일본 국내적 지향성을 갖고 있다.

대통령 : 일본 공산당은 북경보다 모스크바에 더 가까운가?

미 키 : 일본 공산당은 북경과 다투는 중이다. 둘 사이가 아주 나쁘다.

대통령 : 참 흥미로운 일이다.

지스카르 제안

미 키 : 대통령, 지스카르 대통령의 5국 경제회담 제안에 대한 당신의 지적에 나는 동의하며 또 언론을 통해 그렇게 밝혔다. 즉 의제를 설정하는 예비회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러한 접근이 미국의 주도로 시작되기를 희망한다. 나는 단지 통화문제만 논의하자는 지스카르 대통령의 제안이 너무 “협소”한 제안이며 5대 산업 강국은 경제 사안에 관한 전면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 : 나는 공식적인 것보다는 비공식적인 바탕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본측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당신이 선임하는 사람과 지스카르 대통령, 월슨 총리, 슈미트 총리가 선임한 사람들이 만나는 비공식적인 방식이 기초를 다지는 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무언가 공동으로 하고자 하는데 서로 커다란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만 그 일을 공식적으로 하려는 순간 본국에서 복잡한 문제를 야기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대중의 환호가 아니라 실질적 결과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성공이며 선진 산업국가의 관점에서 볼 때 경제적 성공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대단한 중요성을 지닌다.

우리측 상황은 양호하지만 독주할 수 없다. 우리가 자유세계의 나라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모든 나라가 자신의 경제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

미 키 : 5개국 회의의 준비가 비공식적으로 되는 한에 있어서 당신이 5개국 회의 개최에 동의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좋은가?

대통령 : 대체적으로 그렇다. 그러나 그것은 5개국의 대표가 얼마나 기초를 잘 닦는가에 달려있다. 우리가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협상에 들어갔을 때 의견의 불일치를 드러내면 그 결과는 참담할 것이다.

미 키 : 동의한다.

대통령 : 충분한 준비가 된다면 회담을 개최하는데 동의할 수 있으나 의견의 불일치가 있으면 개최할 수 없다.

미일 협력

대통령 : 수상, 나는 오늘 아침과 저녁의 우리가 가진 일대일의 대화가 생산적이었다고 생각한다. 미국과 일본이 협력하는 것은 중요하다. 당신과 나는 서로 협력할 것이다. 좋은 일이 있기를 기원하며 당신이 선거에서 승리하리라 믿는다. 지금부터 14개월 후 선거에서 우리도 승리하리라 전망한다. 당신에게 실이 될 것은 없고 득이 될 일만 보인다.

미 키 : 나는 최고 지도자간의 상호신뢰가 외교관계의 성공에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믿는다. 지도자들은 서로의 사람됨을 알고 있어야 한다. 당신의 이해와 조력을 감안할 때 나는 일본과 미국이 그러한 성공적인 관계를 가질 것으로 안다. 앞서 말한 대로 당신을 위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에는 당신에게 가장 솔직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것이다.

대통령 : 그 역으로 내가 동의하지 않는 일이 있을 경우 나는 우리가 서로 과장된 수사(修辭)를 억제할 것을 희망한다. 대중을 위한 과시는 좋지 않기 때문이다.

미 키 : 물론이다.

대통령 : 우리는 견해의 불일치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미 키 : 서로 다른 점을 공공연하게 강조하는 것은 우호적인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통령 : 우리 의회에는 (그리고 나는 의회 태생이다) 오랜 격언이 있는데 “우리는 불쾌(disagreeable)하지 않게 견해가 불일치할(disagree) 수 있다”고 한다.

미 키 : 대통령, 당신과 마찬가지로 나 역시 국회 태생이다. 내 정부는 청렴한 정치와 개혁에 사명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과제에 자민당 일부의 저항이 있으나 언론에 보도된 것만큼 크지는 않다.

대통령 : 수상, 감사한다. 이번 대화는 매우 유익했다. 이제 아래층 만찬장으로 당신을 안내하고 싶다.

■ 대통령과 미키 일본 수상과의 첫 번째 회동

- 형태 : 비망록(대화록)
- 일자 : 1975.8.5
- 발신 : -
- 수신 : -
- 출처정보 : DEPARTMENT OF STATE 7516292
- 관리번호 : CTA0000648

대화록

일시 : 1975년 8월 5일

백악관

오전 10시

주제 : 대통령과 미키 일본 수상과의 첫 번째 회동

참석 : 다케오 미키 수상

키치 미야자와 외무성 장관

다케시 야스카와 대사

도시키 카이프 중의원 겸 내각 부장관

사사키 누마타, 외무부 (통역)

대통령

제임스 허드슨 주일 대사

브렌트 스크로프트 중장, 국가안보회의

제임스 J. 위클, 국무부 (통역)

대통령 : 먼저 지난 가을 도쿄에서 나와 나의 모든 동료들을 따뜻하게 환영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미 키 : 저와 저의 아내 그리고 저의 당원들에게 이 곳 워싱턴에서 환영을 베풀어 준 것을 진심으로 감사한다.

내가 워싱턴을 오기위해 일본을 떠나기 전에 천황을 만났는데 그는 당신에게 올해 가을 자신의 워싱턴 방문 기간동안 베풀어준 빈틈없는 배려와 따뜻한 환영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또한 대통령께서 고래 문제를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보여주었던 개인적인 배려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해달라고 말했다. 천황은 개인적인 존경의 뜻을 전하며 올해 당신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해달라고 하였다.

대통령 : 수상이 본국으로 돌아가면 천황에게 저의 감사의 뜻도 전해 달라. 나도 10월초 그의 방문을 고대하고 있으며 그와 관계된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기뻐하고 있다.

칼라룸푸르 테러리스트

미 키 : 칼라룸푸르에서 발생한 불행한 사고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나의 정치 인생에서 시종일관 지켜져 왔던 기본 원칙이 대화와 협력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면에서 이 사건은 특히 유감스럽다. 또한 노골적인 폭력을 사용한 테러리스트들이 일본인이기에 더욱 유감스럽다.

내가 불행한 사건을 처음 보고 받은 것은 어제 새벽 두 시였다. 나는 즉각 도쿄를 연결하여 수상대행에게 이 사건에 대처하기 위한 전담반을 조직할 것을 지시하였다. 나는 무엇보다도 인질들의 생명과 안전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지시하였다. 내가 보고 받기로, 테러리스트들이 석방을 요구하는 7명의 죄수들 중 5명의 죄수가 탄 비행기가 오늘 오전 새벽 2시에(동부 서머타임) 일본을 떠나 오전 8시 30분(동부 서머타임) 경 칼라룸푸르에 도착했다. 다른 두 명의 죄수는 떠나는 것을 거절 하였다. 이 테러리스트들과 석방된 죄수들이 어디로 가기를 바라는지 아직 아무도 모르지만 나는 이 불행한 사건의 인질들이 무사히 석방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대통령 : 나는 이 테러리스트들이 완전히 독자적으로 행동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이 일본인이라는 것이 유감스럽기는 하지만 우리는 나라의 테러리스트들도 같은 일을 저지른다는 것을 알고 있다. 당신이 직접 이 일을 처리하고 있다는 데 감사드린다.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한 미국의 입장은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테러리스트들의 어떠한 요구도 들어줄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의

이런 정책이 인질로 잡혀 있는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만약 테러리스트들의 요구에 응하는 정책을 가졌다면 미국은 세계 도처에서 활동하고 있는 테러리스트들로부터 계속해서 표적이 될 것이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테러리스트들의 요구에 응하지 말라는 것이 우리가 미 외교관들에게 내린 지시 사항이다. 내가 아는 한 이것이 세계를 혼란에 빠뜨리기를 원하는 외국 테러리스트와 정면으로 대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나는 테러리스트의 요구에 응하지 말 것을 국무장관에게 지시했고 그는 각국 대사관에 그렇게 시달하였다. 이러한 방침으로 다른 국가들이 곤란을 겪을 수 있다는 점 알고 있지만, 수상, 나는 수상이 우리의 정책이 무엇인지 알기를 바란다.

방문목적

미 키 : 대통령,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나는 오늘 오전에 당신과 단도직입적인 논의를 하고 싶다. 작년 1월에 우리가 만났을 때, 당신은 부통령이었고 나는 부수상이었다. 그 당시 나는 당신과 내가 오늘처럼 대통령과 수상의 자격으로 다시 만날 수 있으리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나에게는 1929년 미국 방문이 첫 외국 방문이었다. 그 후 나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대학에서 몇 년간 공부를 하였다, 비록 그 이후로 내 영어가 녹슬긴 했지만. 그러한 경험을 한 결과 나의 전 생애와 38년이라는 의회 활동 기간동안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이상이 나의 지침이 되었다. 대통령, 우리는 각자의 나라에서 오랫동안 의회활동을 해왔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고, 나 역시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당신과 마찬가지로 공유하고 있다.

나의 이번 방문의 목적은 일미관계 전반에 관해서 진솔하게 논의하고 양국의 굳건한 우애를 다지기 위해서이다. 내가 하고자 하는 몇몇 질문이 결례가 된다면 양해해 주기를 바라면서 먼저 몇 가지 관심 사항을 묻고자 한다.

대통령 : 좋다. 만약 우리가 서로 솔직하게 대화를 하지 못한다면 이 만남은 유익하지 않을 것이다.

유럽 - 유럽안보협력회의

미 키 : 유럽 문제로 들어가 보겠다. 대통령, 당신은 바로 어제 저녁 유럽에서 돌아왔다. 모든 사람들은 유럽안보조약이 소련이 원래 가졌던 유럽에서의 현상 유지를 고착화시키려는 그들의 노력의 결실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 나는 미국과 또 다른 국가들이 헬싱키 회의에 조건부로 참여하는 것을 승인했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대통령, 내가 묻고 싶은 것은 미국의 대소 정책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외교적 목적이냐는 것이다.

대통령 : 첫째로 유럽안보협력회의에 관해 말해보겠다. 내 생각에 유럽안보협력회의가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한 충분한 예비 정보가 없다. 먼저 국경선 문제를 보면 1947년과 1948년도에 조인된 조약에서 합의된 국경선을 재확인 하고 있을 뿐, 독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경선과 관련된 새로운 합의가 없다. 독일의 경우 1971년 서독에서 합의한 국경선을 유럽안보협력회의가 보장하였다. 즉 유럽안보협력회의에서는 1947년, 1948년 그리고 1971년에 합의된 국경선을 보장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다. 이 점이 충분히 이해되지 않고 있다. 둘째로 유럽안보협력회의의 협약은 올바른 행동에 관한 존엄성과 도덕성의 요소를 추가하는 것으로서, 이로서 소련이 과거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그리고 폴란드에서 했던 바를 반복할 수 없게 한다.

동유럽인들이 회의나 다른 기회에 말한 것을 보면, 내 해석으로는, 그들은 유럽안보협력회의를 앞에서 내가 말한 그런 상황에서 발생한 일들을 예방하는 문서로 생각하고 있다. 그들은 이 문서가 [그런 일의 재발방지를] 보장한다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전에 없었던 보호 장치를 추가로 가지게 되었다고 느끼는 듯 했다. 이런 점에서 유럽안보협력회의는 건설적이다. 우리는 향후 2년 동안 발생할 일들을 검토하는 회의를 1977년 베오그라드에서 가질 예정으로 있다. 내가 유럽안보협력회의를 지지하는 것은 소련을 포함하여 그 협약에 동의한 사람들에게 기초한 것이다. 나는 35개 조인국들이 모두 동의한 내용을 준수하기를 기대한다.

소련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그들의 체제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들 또한

우리 체제에 동의하지 않는다.) 우리는 소련과 미국의 데탕트가 세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데탕트는 긴장을 완화하고 갈등을 피하는데 유용할 수 있고 몇몇 경우에 유용한 바 있었다. 나는 데탕트가 이러한 목적을 이루어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데탕트는 쌍방향 도로이다; 이것은 소련만을 위한 일방통행의 길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한 일방통행이 될 수는 없다.) 이것은 긴장과 대결 국면이 첨예해졌을 경우에 사용하기 위한 기제(메커니즘)이다. 그 결과에 실망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유용한 경우도 있었다. 어느 한 쪽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서로에게 유익한 것이며 희망컨대 세계가 직면한 문제의 일부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도 있다.

장 관 : 대통령, 내가 덧붙여도 된다면 유럽안보협력회의에 관한 논쟁은 완전히 냉소적이다. 그 논쟁은 지난 20년 동안 현재 자기가 말하는 것에 정확하게 반대되는 것을 역설해왔던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었다. 대통령이 말했던 것처럼 유럽에는 변경(프론티어)과 정치적 실세라는 상이한 두 가지 현실이 존재한다. 알타회담이 있었으며, 1947년과 1948년에 파리평화협정이 있었고, 1971년에 독소조약이 있었다. 그 결과 유럽에는 더 이상 논란이 되는 변경지역이 없다. 변경 지역에 관해 논하는 것은 기존의 조약과 그 법률적 내용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동유럽에서 소련의 정치적인 영향력은 이 회의[유럽안보협력회의]와 무관하다. 소련은 우랄 산맥과 엘베강 사이에 4만대의 탱크를 보유하고 있는데 서유럽 어느 국가도 그토록 많은 탱크를 생산하고자 하지 않는다. 누군가 [다수의 탱크를 실제로] 생산하지 않는 한, 이러한 비판은 단지 상투적인 대중선동 행위를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아주 솔직히 말하는 것이며, 그리고 또 어제 밤잠을 조금밖에 못 잤다. 일본에 관한 신간 소설("쇼군 Shogun")을 읽고 있는데,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우리는 전략적으로 동유럽에서 소련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약화시키고자 한다. 그리고 우리는 냉전 보다는 데탕트로 좀 더 효과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냉전 기간 중에 우리는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

었지만 데탕트시대에는 외교력을 사용해야만 한다.

만약 대통령이 바르샤바, 부쿠레슈티, 크라코프 그리고 베오그라드에서처럼 수만명의 군중들로부터 환영을 받을 수 있다면 이는 소련을 약화시키는 것이 된다. 이것은 데탕트가 아니고는 일어날 수 없다.

우리는 소련에 대해 냉철하게 판단을 하고 있다. 그들은 압박을 가할 기회를 갖게 되면 그렇게 할 것이다. 우리는 (그리고 귀하도) 그러한 압박을 물리쳐야 할 경우 국내의 반대자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입장을 취해야 한다. 나는 어제 프로복싱의 예를 들었다. 우리가 링 중앙 한 자리에서 서서 맞기 좋은 위치에서 싸우는 것과 링을 돌면서 저쪽에서 치기 힘들게 하면서 싸운 것 중에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한 것인가? 그렇다면 소련이 무슨 일을 벌이고 우리가 국민들에게 우리는 평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고 말하면, 우리는 [공격을] 물리치는데 강력한 입지를 차지하게 된다.

중동 지역을 보면 데탕트는 소련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았다. 우리는 세계를 분열시키면서 패권을 잡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그것은 자살과 같은 행위가 될 것이다. 우리는 과거 냉전시대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현대적인 방법으로 소련을 봉쇄하고자 한다.

전략무기제한협정(SALT), 상호균형군축회의(MBFR)

미 키 : 유럽안보협력회의의 결과에 기초해 볼 때 당신은 전략무기제한협정과 상호균형군축회의의 전망을 어떻게 보는가?

대통령 : 나와 브레즈네프 서기장과의 두 차례 만남에서 우리는 전략무기제한협정에 관하여 약간의 진전을 보았다. 여기에는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근본적인 문제도 있다. 합의를 이룩할 가능성은 50대50이라고 생각되는데 확실하지는 않다. 우리는 협상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나는 전략무기제한협정이 미소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이익과 결부되어 있다고 믿고 있다. 우리는 그러한 입장을 갖고 이 협상에 임할 것이며 어떤 결과를 얻든지 간에 상호 유익한 결과가 되도록 전념할 것이다.

상호균형군축회의에서의 협상은 당분간 진척이 없었다고 알고 있다. 우리는 대화를 진전시켜 나갈 수 있는 입장을 유럽 동맹국들과 함께 취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소련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에 달려있다.

우리는 균등한 기준으로 군사력을 감축시키는 상호균형군축회의가 유럽의 이익에 가장 잘 부합한다고 믿지만, 협상은 교착상태에 있다. 우리는 소련이 우리만큼 유연해지기를 희망하고 있다. 또 우리는 우리 동맹국들이 분열되지 않고 더 크게 단결하는 방향으로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

헨리, 상호균형군축회의가 언제 다시 개최되는가?

장 관 : 대통령, 9월이다.

유럽안보협력회의가 아시아에 미치는 영향

미 키 : 유럽안보협력회의가 아시아에 일으킨 반향으로 화제를 돌려보면 소련은 7월 30일 일소 의원친선협회 의장인 히로히데 이시다(자민당 의원)를 아시아안보회의에 관한 논의를 하기 위한 모임에 초청하였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아직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가시화 되지는 않았으나, 아시아인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시아에서의 소련과 중국의 영향력이다. 예를 들어 중국은 소련이 제안한 아시아안보회의를 중국 포위 노력의 일환으로 본다...

장 관 : 중국 시각이 맞다.

미 키 : ... 따라서 중국은 제3국의 패권에 반대한다. 당신도 알다시피 중국과 협상 중에 있는 평화우호협약 논의는 패권 관련 문구의 삽입 문제로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중국이 아시아에서 조금이라도 소련의 영향력이 증대되는 것을 경계하고 반대하는 것은 분명하다. 소련의 영향력을 염두에 둘 때 당신은 유럽안보협력회의가 아시아의 이러한 추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

대통령 : 먼저 미국과 중화인민공화국과의 관계에 대해 말을 하겠다. 우리 관계는 닉슨 때부터 시작되었다. 나는 적극적으로 양국 관계를 지지하고 있으며 양국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올 가을 말에 중국을 방문하려고 한다. 나

는 양국 관계가 일정대로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상하이 성명은 양국 관계를 유지, 확대시켜 나가는 기초이다. 이런 방향으로 관계가 발전하는데 아무런 심각한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아시아에서 중국과 소련이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우리는 아시아가 안정을 유지하는데 중국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고 있으며 중국과 우리의 관계를 확대시켜 나가기 위해서 책임감 있는 태도로 최선의 노력을 해나갈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수상, 일본 정부와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것이 태평양에서의 안보와 안정에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나는 일본에서 진행되었던 논의와 오늘 오전의 모임에 고무되었다. 우리는 내일 미일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나는 태평양지역에서 미일 관계에서가 아니라 주변지역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이 미일 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에 관해서 솔직한 논의를 가져야 할 것이다.

결국 우리는 일본과의 관계를 지속하고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과의 관계를 확대하고자 하고 있다. 이는 태평양 지역에서의 소련의 영향력에 여파를 미칠 것이다. 헨리, 덧붙일 내용이 있는지?

장 관 : 나는 헬싱키에서 아시아집단안보회의에 관한 질문을 받았는데 그런 모임이 있게 되면 미국의 참여 없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나는 아시아가 유럽 상황과 비교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미 키 : 동의한다.

장 관 : 우리는 아시아집단안보회의나 그런 성격의 회의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소련이 중국을 포위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국은 결코 그런 구상에 참여할 수 없다. 중국 역시 야망을 지니고 있으나 10년 후에는 일본을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만 현재로는 중국을 약화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이롭지 않다. 따라서 우리는 아시아에서 진행되는 소련의 어떠한 반중 작전에도 협력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패권 조항을 담은 상하이 성명에 우리가 서명한 이유이다.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었고 이를 분명히 밝혔다.

아시아에서 중국과 소련간의 경쟁

미 키 : 아시아에서 현재 중국 소련 간에 벌어지는 갈등 상황을 당신은 어떻게 보는가?

대통령 : 내가 헬싱키의 소식통들을 통해서 들은 바를 전해야 하겠다. 소련은 현재 중국 국경에 44개 사단을 배치하고 있다. 이는 분명 중소 관계가 과거에 비해 개선 되는 것이 아니라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장관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어느 한 쪽을 지지하는 정책을 채택하지 않지만, 동시에 미일 관계가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과의 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장 관 : 만약 어떠한 위험성이 있다면 그것은 일본이 우리의 정책을 과도하게 해석하여 타국을 따라하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 우리 양국 모두의 이익에 해가 될 것이다. 우리는 아시아에서 소련과 유사한 정책을 펼쳐나가지는 않을 것이지만 일본이 우리보다 앞서기 위해 무슨 일인가를 한다면 우리도 그것에 대응을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함께 소련과 중국에 대한 정책을 조정해 나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우리는 중국을 고립시키고자 하는 소련의 노력들에 동조해서는 안 된다.

미 키 : 나는 당신의 대중국 정책을 충분히 이해했다고 생각한다. 이어서 당신이 중국과의 관계를 어떤 전망을 가지고 발전시키려고 하는지 그리고 당신이 중국을 방문해서 관계를 증진하는데 어느 선까지 가려는지 견해를 듣고 싶다. 또한, 당신이 중국에 대한 장기적인 정책을 솔직히 설명해 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대통령 : 내가 방금 언급했던 상하이 공동성명은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개선 추진하는 기본 바탕이 되는 문서이다. 우리는 미중 양국 관계는 성명의 틀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라 생각하고 또 중국 역시 마찬가지로 생각하리라고 믿고 있다. 이미 말했던 것과 같이 가을 말에 중국을 방문할 것이다. 아직 이 방문의 특별한 의제나 세부 사항은 준비된 것이 없다. 내가 중국을 방문하기 전에 아마 장

관이 미리 중국을 방문할 것이고 그 때 의제가 확정될 것이다.

우리는 북경과의 관계에서 현재 상하이 공동성명의 틀을 벗어난 어떤 계획도 갖고 있지 않다.

장 관 : 북경 측은 성공적인 방문을 위해 국교정상화를 사전에 완료할 필요가 없다고 우리에게 말한 바 있다. 우리는 인도차이나에서의 비극이 있는 올해가 중국 방문에 적당한 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게다가 우리는 대만과의 관계에서 정치적 변동을 야기하지 않고 싶은데, 그것은 우리가 대만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대만과의 방위조약을 우리가 파기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우리는 미중 양국 관계에 어떠한 법적 지위상의 변화도 가져오고 싶지 않지만 양국 관계의 발전을 추구하고자 한다는 점을 중국 측에 말했다.

미 키 : 나는 현재로는 중화인민공화국이 대만과의 관계에서 현상유지를 희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장 관 : 우리도 그런 인상을 받았다.

대통령 : 재미있는 관찰이다. 그들은 우리를 압박했지만 그 정도가 단지 우리에게 압력을 가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수준에 불과했다.

장 관 : 우리에게 가장 커다란 문제는 미국 기자가 중국에 가서 중국인들이 스스로는 얘기하지 않을 대만 문제에 무언가 말해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이다. 수상, 당신도 알고 있듯이 현재 이민과 관계된 잭슨 수정안이 있다. 나는 만약 중국이 최혜국 대우를 원한다면 자유로운 이민을 허용하여야 할 것이라고 차오완화에게 말했다. 차오는 미국이 원하면 아무 때나 30만의 중국인이 미국으로 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미 키 : 나는 당신이 중국인의 심리를 가장 잘 알고 있으므로 당신의 의견을 권위있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나 자신도 북경이 갑작스러운 변화를 원치 않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장 관 : 그 지적이 옳다고 믿는다.

동남아시아

미 키 : 오늘 이 회동을 준비하면서 나는 베트남 패망 이후 상황에 관한 판단을 얻기 위해 경제학자로 잘 알려져 있고, 일본해외경제협력기금의 대표로 있는 사부로 오키타를 나의 특사로 해서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의 소속 나라를 방문하도록 보냈다. 또 이들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 공관장들이 7월, 도쿄에서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다.

오키타의 보고서와 해외 공관장 회의의 논의를 보고 나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진정으로 원하고 있는 것은 더 높은 안정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들이 베트남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얻은 것이 하나 있다면 자국의 정치적 상황을 안정시키고 자국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모든 것을 집중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나라의 지도자들은 현재 어떤 피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공식 발표를 많이 하는데 나는 이것이 각국의 국내 정치상의 이유에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미국의 주둔이라고 믿고 있다.

대통령 : 필리핀을 지지하는 것인가?

미 키 : 그렇다. 또한 태국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미국이 자신들의 노력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계속하여 커다란 힘이 될 수 있다고 깨닫고 있으며, 베트남 전쟁에 대한 감정이 잦아들게 되면서 미국의 막강한 힘을 필요로 한다는 전후 평가를 내리고 있다. 따라서 태국인들이 미군기지에 반대하는 말을 하던, 필리핀 사람들이 미군기지의 치외법권 조치의 종식에 관해 말을 하던 이는 그들이 마음 속한 구석에 담고 있는 생각까지 바꾸어 내지는 못한다. 태국과 필리핀 양국 수상들은 최근 북경을 방문했는데 그 이후 그들의 발언에 미묘한 변화를 발견할 수 있다. 나는 북경 측도 소비에트의 위협과 관련하여, 당연한 것이지만, 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원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나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주장은 잘못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그들은 미국의 역할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생각하며 아시아에서 미국의 이익을 유지하는 것이 미국에게 중요한 일이라고 믿는다.

물론 일본도 이 지역에 결정적인 이해관계를 두고 있으며 이 지역에서 미국과 협력해야 한다. 사실 미국과 일본의 협력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평화와 안

보를 이루는 전제조건이다. 현 시기 필요로 하는 것은 아시아에 있는 작고, 힘 없는 이러한 나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고 또 어떤 역학에 따라 움직이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대통령 : 당신의 진솔한 견해에 감사한다. 나는 당신이 특사와 대사들의 보고내용을 받아들이는 방식에 존경을 표한다. 그 덕분에 이 지역의 문제들에 대한 좋은 통찰력을 얻었다. 그러나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옳고 그름을 떠나 미국 여론은 다른 나라의 지도자가 말한 바에 영향을 받는다. 미국인들이 모두 무대 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감지할 만큼 세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 시민들은 때때로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의 어느 나라이든, 다른 나라의 지도자가 말한 한 마디에도 경악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이는 의회에 영향을 미친다. 나와 장관 그리고 수상, 우리들은 말과 행동 사이의 차이를 이해한다. 그러나 나는 미국이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다른 지역에 있는 우리의 친구들을 지원하는 것이 여론에 달려있다는 것을 다른 나라의 지도자들이 이해했으면 한다. 나는 우리가 계속 그들과 협력하려고 할 때 그들이 발언의 표현을 조절하기를 희망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의회와 협력해야 하는데 의회가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미국이 유럽과 태평양에서 범세계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확신하지만 이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나는 의회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그리고 의회의 뒷받침은 외국 지도자의 말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특히 미국인들이 발언의 배경을 모르는 경우 그렇다. 우리는 당신과 함께 일할 것을 원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할 것이지만 우리는 베트남에서 깊은 상처를 받고 있는 미국 국민들의 지지가 없으면 최선을 다 할 수 없다.

특히 나에게서는 그것이 가장 큰 실망이었다. 나는 미국인들이 대서양에서 미국이 훨씬 더 강력해지기를 원한다고 믿는다 -- 나는 진정 그렇게 생각한다 -- 그러나 그 나라의 지도자들의 동의를 요구한다.

미 키 : 오랜 기간 의회활동을 해온 동료로서 나는 당신의 고민이 얼마나 큰 것인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 나는 베트남 전쟁의 종결이 아시아에서 전환점이라는 것을 당신이 이해하기를 바란다. 전쟁이 주는 복잡한 감정으로부터의

해방된 그 지역의 지도자들은 이제 자국의 미래에 관해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운명을 비공산주의적인 미래에 두고자 하지만 그러한 열망이 실현되도록 하는 데에는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기반을 그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생긴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자신들의 운명에 대해 혼란스러워 할 수 있다. 우리는 그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또 그들의 결의가 흔들리게 되면 그들은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할 수도 있다. 때문에 우리와 같은 민주국가들에게 그들이 자국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제가 부여된다. 우리는 어떠한 불확실성도 막아내야 한다. 이 말은 공산 국가의 영향력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나는 지금이 거대한 전환점이라는 것을 당신이 이해하기를 희망한다. 일본도 맡은 역할을 다 할 것이며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대통령 : 우리가 자주 연락을 취하고, 연계하며 또 협동하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임을 수상께 보장하는 바이다. 나는 이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이해하며, 이들을 돕고자 하며 또 도울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정부의 성격과 가치를 지켜 나가는데 중요하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세계의 어떤 곳으로부터의 도전에도 대처하려 한다면 긴밀한 협력 관계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미 키 : 내가 태평양의 산업민주주의국가 즉 캐나다, 호주 그리고 뉴질랜드의 지도자들을 방문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정신에서이다. 즉 이 국가들과의 쌍무적 그리고 다자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이다.

한국

미 키 : 오전에 한국에 관해 이야기를 나눌 시간도 있는가?

대통령 : 우리는 오늘 저녁이나 내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장 관 : 유엔에서의 한반도 사안과 관련해서 미국은 인도차이나에서 패배가 있는 같은 해에 북한과 남베트남의 유엔 가입을 찬성하는데 결코 표를 던질 수 없다.

미 키 : 미야자와 외무성 장관이 우리의 입장을 자세히 전달할 것이다.

장 관 : 우리는 점심 때 이 문제에 관해 논의 할 수 있다. 우리는 베트남 문제에 일본의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남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본의 지원을 받고 있다. 만약 남한이 유엔에 가입을 하게 되면 우리는 양 베트남 모두 가입하는 것에 찬성표를 던질 수 있다.

대통령 : 우리는 1975년에는 남한의 유엔 가입이 허용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 북 베트남의 유엔 동시가입이 받아들여지는 것에 반대하는 싸움을 단호히 전개할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 강한 의지를 두고 있다.

장 관 : 당신이 베트남 건에 대해 우리와 다르게 투표하더라도 이해할 수 있지만 남한에 대해서는 강력한 지지를 요청한다.

미 키 : 당신의 입장을 이해한다. 미야자와가 점심시간에 우리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한 것이다.

대통령 : 오늘 아침 당신의 솔직하고 친절한 대화에 감사드린다. 매우 유익했으며 수상을 다시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쁘다.

미 키 : 나도 당신의 허심탄회한 대화에 감사드리며 저녁에 다시 만나기를 고대하겠다.

■ 대통령과 미키 수상과의 만남 비망록

- | | |
|--------------------------------------|---------------------|
| • 형태 : 비망록(대화록) | • 일자 : 1975.8.12 |
| • 발신 : - | • 수신 : - |
| • 출처정보 : DEPARTMENT OF STATE 7516161 | • 관리번호 : CTA0000648 |

국무부에서는 8월 5일과 6일 양일간에 있었던 대통령과 일본 미키 수상과 회동에서 있었던 대화내용을 첨부해서 보낸다.

국무부에서는 귀하의 재가가 있을 때까지 국무부와 동경 미대사관 내에서의 본 문서 회람을 보류하였다.

C. 아더 보르그 총무국장 대행(Acting Executive Secretary)

첨부 : 1. 대통령과 미키 일본 수상과의 밀담

2대통령과 미키 일본 수상과의 첫 번째 회동
3대통령과 미키 일본 수상과의 두 번째 회동

기밀 해제 (기밀사항 첨부)
(기밀 Exdis 첨부)

■ **공동경비구역 사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보고서 건**

- | | |
|-----------------------|---------------------|
| • 형태 : 전문 | • 일자 : 1975.8.13 |
| • 발신 : 워싱턴 국무부장관 | • 수신 : 서울 미국대사관 |
| • 출처정보 : EXDIS SSA231 | • 관리번호 : CTA0000768 |

1. 유엔군사령부 특별 기밀해제 보고서에 의거하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할 8월 13일 사건에 대한 보고서를 귀하가 준비하실 것을 요청합니다. 보고의 목적은 유엔 회원국들에게 북한의 행동을 경고하고 이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전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북한과 북한 지지국가들이 왜곡된 사실을 유포할 가능성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 보고서는 8월 20일 금요일 회기 시작 이전에 워싱턴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이 전문에 대한 답신을 유엔 주재 미국대사에게도 보내십시오.

2. 유엔 주재 미국대사 참조: 상기 보고서를 국무부와 국방부의 재가가 있을 때까지 제출하지 마십시오.

키신저

■ **박 (정희 - 필사체)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한 회신**

- | | |
|-----------------------------------|---------------------|
| • 형태 : 전문 | • 일자 : 1975.9.19 |
| • 발신 : 워싱턴 국무부장관 | • 수신 : 서울 미국대사관 |
| • 출처정보 : DEPARTMENT OF STATE 8511 | • 관리번호 : CTA0000729 |

1. 대사관은 포드 대통령의 다음 메시지를 박 대통령에게 전달해야 한다.

본문 시작 : 대통령 귀하, 최근 사크라멘토 주의 사건에 대하여 귀하가 친절한 메시지를 보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제 안부를 걱정해주시는 귀하의 친절함을 절실히 느낍니다.

제럴드 R. 포드

본문 끝

2. 공개 계획 없음 그러나 한국 정부가 공개하고자 할 경우 반대하지 않음.
3. 참고. 다음은 박 대통령이 포드 대통령에게 보낸 메시지의 본문이다.

본문 시작: 귀하가 사크라멘토 주를 방문하는 동안 발생한 귀하에 대한 비겁한 시도로부터 귀하가 하늘의 도움으로 무사히 피할 수 있어서 매우 다행이라는 말씀을 전하는 바입니다. 미국 국민과 전세계의 평화 애호 국민들이 귀하의 지도력을 매우 필요로 하는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귀하에게 신의 가호와 은총이 계속 있기를 기원합니다. 진심으로 안부를 전하며, 대한민국 대통령 박정희

본문 끝.

키신저

■ 포커스 렌즈(FOCUS LENS) 훈련

- | | |
|-----------------------------------|---------------------|
| • 형태 : 전문 | • 일자 : 1975.9.23 |
| • 발신 : 국무부장관 | • 수신 : 서울 미국대사관 |
| • 출처정보 : DEPARTMENT OF STATE 1987 | • 관리번호 : CTA0000740 |

1. 국무부는 포커스 렌즈 훈련이 12월 초 유엔 총회가 끝날 때까지 연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미국에까지 확대된 훈련의 성격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2. 9월 2일, 국방성은 올해의 포커스 렌즈 훈련을 11월에 실시하는데 우리가 동의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국방성이 준 브리핑 문서들은 두 가지의 놀라운 점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그것들은 올해의 포커스 렌즈를 “단기전 개념의 작전 실행가능성과 병참 지원 가능성”을 시험할 계획인 것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훈련이 DMZ에 인접한 만큼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계획이라는 유엔군 사령관의 보고에 바탕을 둘 것이라는 의미로 이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둘째, 대규모 한미 참모부는 이 훈련에 대해 과거 6개월 동안 새 계획의 기초 위에서 함께 작업을 계속 해왔습니다.

3. 우리가 추가 정보를 얻은 국방성 관료에 따르면 그들이 올해의 포커스 렌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 즉 유엔군 사령관이 제안한 단기전 계획은 아직 워싱턴이 검토할 수 있도록 제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 잘 알지 못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포커스 렌즈가 이 계획에 기초를 두는 것과 워싱턴의 어느 누가 그 계획 자체를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전에 한국인들에게 브리핑 해주는 것의 타당성을 묻고자 합니다.

4. 단기전 계획에 대한 워싱턴의 승인이 없다는 관점에서, 국무부는 단기전 계획을 포함하여 포커스 렌즈 훈련의 상당한 변화에 대한 사전통고를 감사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는 대사관이 이러한 변화에 대해 통보받았는지 알지 못하지만, 국무부와 다른 워싱턴 기관들은 만일 훈련에 중요한 정책적 내용이 있다면 훈련의 계획 단계에서 만일 필요하다면 STADIS 채널을 통해 바꿔야 합니다.

■ 포커스 렌즈(FOCUS LENS) 훈련

- | | |
|-----------------------------------|---------------------|
| • 형태 : 전문 | • 일자 : 1975.9.23 |
| • 발신 : 국무부장관 | • 수신 : 서울 미국대사관 |
| • 출처정보 : DEPARTMENT OF STATE 9536 | • 관리번호 : CTA0000740 |

1. 분명히 국무부는 포커스 렌즈 훈련이 승인받지 않은 주요 정책적 변화를 포함하고 있는 새 작전계획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여깁니다. “새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포커스 렌즈는 처음으로 발표되었던 1968년의 5027작전계획의 틀 내에 존재하며 지속적인 원칙 위에서 수정되었습니다. 우리도 유엔군 사령관도 전쟁 초기 상황에서 더 많은 화력을 도입하는 개념을 시험하기 위해 새 작전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 “단기전 개념”은 본질적으로 초기 병참과 공군 증강, 그리고 이후 미국 지상 배치를 요구하는 최근 5027 작전계획의 수정입니다. 목적은 북한의 서울 진격을 계속해서 봉쇄하는 것입니다. 덧붙여 우리는 “단기전 개념”에 대한 정치적 약속이 강고하고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3. 워싱턴에서 어느 누구도 단기전 개념을 평가하지 않았다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개념”은

공개되어 한국정부와 미국 Defense Establishments의 고위급에서 승인되었습니다. 그것은 1974년 안보협의회의(SCM)에서 몇몇 국무부 관료들이 참가한 가운데 한국정부와 함께 논의되었습니다. 그것은 1975년 6월 유엔군 사령관이 합참에 보고하였고 합참의장은 그것을 승인하였습니다. 1975년 8월 지난 안보협의회의에서 국무부 관료들이 참가한 가운데 솔레 진저 장관은 또한 어떠한 서울에 대한 급습도 제압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신속한 병참과 전술적 공군 증강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1975년 안보협의회의에서 한국인들은 그것들에 대해 “시활적 중요성”(vital importance)이라고 개념을 설명하였습니다. 9월 1일의 기자회견에서 국방장관은 “홀링스워스 장군이 강조한 변화가 있다. 그것에 스틸웰 장군과 합참은 찬성하며 전쟁 초기의 화력에 대해 훨씬 더 많이 강조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4. 위의 관점에서 과거 두 번의 안보협의회의의 목적은 한국인을 좀더 긴밀하게 계획에 결합시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었고, “...워싱턴의 누군가가 그 계획 자체를 평가할 기회를 갖기 전에” 포커스 렌즈에 한국인 참가라는 내용의 참조 전문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것은 계획하는데 한국인들이 좀더 완전히 참여한다는 우리의 정책적 표현이고 주한미군(USFK)은 실제로 올해 훈련에 대해 한국의 국방부와 더욱 긴밀하게 일하여 왔습니다. 이것은 지휘 통제를 포함하여 한국의 능력의 완전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덧붙여 공동 계획수립은 가장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한 것처럼 보입니다.

5. 요약하면, 우리는 “단기전 개념”이 기존의 작전계획의 틀내에 있는 작전의 유형이고 담당 워싱턴 관료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으며 국방장관과 합참에 의해서도 승인을 받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포커스 렌즈는 그 개념의 실행가능성을 테스트하는데 중요한 수단이며 기존의 작전계획의 정의 영역을 개정하는데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훈련도 최근 미국의 정책을 뛰어 넘는다고 보지 않습니다.

6. 위와 별도로, 우리는 연기의 필요성을 묻고자 합니다. 비록 포커스 렌즈가 유엔총회의 시기에 일정이 잡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비밀 지휘소 훈련(CPX)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1974년 유엔총회 동안에 통고되지 않고 지나갔으며 그것이 올해 유엔총회의 토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는 어떠한 근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유엔총회의 근거로 인한 연기는 또한 미국의 진심에 대해 한국내에 불필요한 새로운 의심을 일으킬 것입니다.

7. 저는 연기에 대한 저의 견해가 또한 국가안보회의에 알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나이더

■ [한국 시인 김지하의 석방 요청]

- 형태 : 편지
- 발신 : Muriel Rukeyser(P.E.N. American Center)
- 출처정보 : THE WHITE HOUSE
- 일자 : 1975.10.5
- 수신 : Jerry Ford(대통령)
- 관리번호 : CTA0000772

대통령 각하,

저는 각하께서 한국 국민들과 미국 국민들에게 친밀감을 가져다주는 데 도움이 될 표현의 자유를 위한 조치의 하나로 한국 시인 김지하의 석방을 요청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저는 김지하의 재판과 형 집행이 예정되어 있던 지난 9월, 그의 생명을 간청하기 위해 서울에 갔었습니다. 서울에서, P.E.N. 미국 센터(American Center)의 대표로서, 저는 문화부장관 리와 법무부장관 황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나라가 (한국과의) 친밀한 관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이 시기에, 각하의 관심은 이 중요하고 신랄한 시인을 구하는데 진정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Yours truly,

뮤리엘 루키서(Muriel Rukeyser)

P.E.N. American Center 156 5 Ave. New York

■ [김지하 시인의 재판]

- 형태 : 편지
- 발신 : Roland L. Elliott
(대통령 통신담당 특별 보좌관)
- 출처정보 : DEPARTMENT OF STATE
- 일자 : 1975.10.23
- 수신 : Arthur Miller
(c/o International Creative Management)
- 관리번호 : CTA0000772

밀리(Miller) 씨 귀하

대통령께서 한국의 김지하 시인의 재판에 관한 귀하의 9월 18일자 편지에 감사 인사를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김 씨의 명성과 전세계가 그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도 아시다시피, 김 씨는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한국의 반공법과 이전의 긴급 조치들로 인해 여러번 고초를 겪어왔습니다. 지난해 7월, 그는 사형 판결을 받았으며 이후 한국 정부는 이를 종신형으로 감형했습니다. 정부는 종신형을 집행 정지했다가 다시 집행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 씨가 별도의 혐의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인권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한국에 표명해왔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는 김지하 사건과 같은 구체적인 사건들에 대해 미국 내의 우려를 강조해왔습니다. 한국 정부의 자국민들에 대한 처우에 대해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제한되어 있음을 귀하께서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국의 김 씨 사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상당한 관심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우리의 우려를 한국 정부에 계속해서 지적할 것입니다.

대통령의 인사를 전하며,

Sincerely,

롤랜드 L. 엘리엇

통신 담당 보좌관(Director of Correspondence)

아서 밀러(Arthur Miller) 귀하
 c/o International Creative Management
 40 West 57th Street
 New York, New York 10019

RLE: NSC: JHH: aby

■ 베이징 방문에 앞서 포드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기로 한 박의 계획

- | | |
|-----------------------------------|-------------------------|
| • 형태 : 전문 | • 일자 : 1975.11.18 08:26 |
| • 발신 : Sneider(주한 미 대사) | • 수신 : 워싱턴 국무부장관 |
| • 출처정보 : DEPARTMENT OF STATE 5850 | • 관리번호 : CTA0000765 |

1. 외무부장관 직무대행 노신영은 한국정부는 앞으로 있을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을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보고 있으며 박 대통령이 우리가 베이징에서 한국의 건을 다시 보도해달라는 이번 주의 요청에 대해 나중에 포드 대통령께 편지를 쓸 작정이라고 11월 18일 대사에게 말했습니다. 편지는 함병춘 대사에 의해 전달될 것입니다.

2. 노신영에 따르면, 편지는 현행의 정전협정이 교체될 때까지 유엔군사령부는 해체되어서는 안된다고 되풀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계속해서 다음 두 가지 점들을 지적할 것입니다. (1) 만일 직접 관계가 있는 다른 당사자들이 정전에 대한 진지한 회담들에 동의한다면 한국은 그것의 교체를 모색할 준비가 되어있으며, 만일 이 회담들이 결실이 있다면 한국정부는 한국의 상황에 대한 추후 결정을 논의하기 위해서라면 언제 어디라도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2) 회담에 한국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한국의 미래에 관한 어떤 회담도 한국이 참여하지 않고는 성사될 수 없다는 점. 노는 한국에 대한 강대국들의 논의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한국정부는 특히 평양이나 베이징, 혹은 모스크바로 돌진하지 않도록 일본에 경고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견해를 말했습니다.

3. 그리고 난 후 노는 편지가 전송된 후 포드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 바로 직전에 한국정부는 한국의 입장을 상세히 밝히고 위에서 언급한 편지에 있는 두 가지 점들을 포함하는 공개적인 발표를 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편지 그 자체의 존재를 발표한다고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한국정부는 이 공개적인 성명 발표를 몹시 원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선 그것에 대해 미국과 협의하기를 바라며 물론 우리의 동의 없이 성명서를 발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위의 내용에 따른 한국정부의 성명서에 대해 워싱턴의 승인을 구해달라고 대사에게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비밀리에 하고 있는 것들을 공개시키도 되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4. 덧붙여, 노는 베이징 방문에 대해 박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기 위해 이 시기에 서울에 오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물으면서 장관이 그렇게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박 대통령이 베이징 논의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들은 포드 대통령이 관계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들이 유엔의 논쟁을 따르고 있고 몇 가지 새로운 발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분명합니다. 노는 한국의 머리 위에 놓여 있는 문제들에 대한 일상적인 걱정을 되풀이했습니다. 후자에 대해 강한 재확인을

해준 후 대사는 대통령일행이 중국을 방문한 후에 동남아시아를 방문할 예정이며 그런 다음 마닐라에서 하와이로 바로 갈 것이기 때문에 베이징을 방문한 다음에 서울에 오는 것은 논리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충고를 해주었습니다. 요구하는 행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일 (A) 제안된 한국정부의 성명서에 대한 그리고 (B) 베이징을 방문한 다음에 대통령단의 한 멤버가 한국에 보고를 해줄 가능성에 대한 지침을 검토해 줄 것인가.

스나이더

■ 아카사카 궁전 사진집

- | | |
|---------------------------------------|---------------------------------|
| • 형태 : 편지 | • 일자 : 1975.11.26 |
| • 발신 : Hisanaga Shimadzu(아카사카 궁전 지배인) | • 수신 : James D. Hodgson(주일 미대사) |
| • 출처정보 : DEPARTMENT OF STATE | • 관리번호 : CTA0000781 |

대사 각하 :

최근 마이니치 신문은 '아카사카 궁전'이라는 제목의 칼라 사진집을 출판했습니다. 이 책은 궁전의 감독 하에 신문사에서 편집했습니다.

저는 1974년 11월에 일본을 방문하셨던 포드 대통령에게 드리는 선물로 책 한권을 여기 첨부해 보냅니다. 이 책이 대통령께서 이곳에 머무셨던 기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만약 이 책을 목적지까지 전달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를 밟아주신다면 진심으로 감사 드리겠습니다.

Yours sincerely,

히사나가 시마주(Hisanaga Shimadzu)
지배인(Superintendent)

■ 하비브(Habib)의 서울 방문

- | | |
|-----------------------------------|------------------------|
| • 형태 : 전문 | • 일자 : 1975.12.5 03:33 |
| • 발신 : 서울 미국대사관 | • 수신 : 워싱턴 국무부장관 |
| • 출처정보 : DEPARTMENT OF STATE 4832 | • 관리번호 : CTA0000765 |

1. 외무부는 귀하의 청와대 박 대통령 방문이 12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 정각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2. 덧붙여 김동조는 귀하가 도착한 다음 날인 12월 8일에 귀하를 저녁 만찬에 초대할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우리는 아무런 할 일이 없으며 오직 귀하의 도착이 늦지 않기를 주목할 뿐입니다. 만일 귀하가 박대통령을 만나기에 앞서 김동조를 볼 수 있더라도 저녁 만찬을 피하는 것을 더 원한다면 우리는 12월 9일 조찬으로 약속을 잡을 수 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3. 외무부 또한 귀하의 도착 시간과 장소를 알리는 12월 6일 토요일자 언론 보도를 내 보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귀하가 그 목적(STATE 277966 3번째 문단)으로 발표를 할 예정이라는 것을 근거로 한국의 발표를 단념시켰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4. 귀하는 도착에 대한 보도와 사진을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가 어떠한 성명서도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을 가정해 보십시오.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언론에 이것을 경계하도록 주의를 주고자 합니다.

스나이더

■ [1977년 안보 원조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 요청서]

- 형태 : 편지
- 발신 : Carlyle E. Maw
- 출처정보 : UNDER SECRETARY OF STATE
FOR SECURITY ASSISTANCE
- 일자 : 1975.12.30
- 수신 : James T. Lynn
- 관리번호 : CTA0000664

친애하는 린(Lynn)씨,

저는 국무부 산하 기관이 1977년 안보 원조 프로그램을 대통령과 논의하는 대통령과 국무부 산하 시스코(Sisco)(대표 키신저 장관)와의 12월 12일자 회의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이 편지는 그 프로그램의 조정에 대한 추가 요청서를 담고 있습니다.

키신저 장관은 1977년도 한국 대외군사원조계획(MAP) 프로그램을 4천7백3십만 달러에서 8백3십만 달러로 줄이고 미국정부의 대외군사관매(FMS) 신용대부 보증의 수준을 1억5천만 달러에서 2억7천5백만 달러로 올릴 것에 대한 요청서를 전달해달라고 저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로 이러한 변경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째, 이 수정은 한국군 현대화 계획에서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해줄 것이며 한국에서 미국의 추가 안보 목적을 추구하는데 실질적인 대외군사판매 신용대부를 제공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둘째, 이러한 보조금과 신용대부의 “혼합”은 우리가 이전에 요청했던 것보다 약 2천6백만 달러를 덜 들게 합니다. 셋째, 이 수정은 한국에 보조금 원조가 종료되었음 - 우리가 1977년도의 몫으로 제안한 8백3십만 달러는 단지 공급 운영과 유엔 경비를 위한 것입니다 - 을 의회에 통고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입니다.

우리는 1977년도 안보 원조 프로그램의 조정을 위한 이 추가 요청서를 대통령께서 검토할 수 있도록 귀하께서 대통령께 전달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Carlyle E. Maw

■ 한국에 로켓 추진 기술 판매

- | | |
|--|-----------------------------------|
| • 형태 : 비망록 | • 일자 : 1976.2.4 |
| • 발신 : George S. Springsteen(국무부 사무총장) | • 수신 : Brent Scowcroft(백악관 군사보좌관) |
| • 출처정보 : DEPARTMENT OF STATE S/S 7501697 | • 관리번호 : CTA0000692 |

국무부는 최신 미사일 기술을 위해 한국과 록히드(Lockheed)사간의 1974년 12월에 체결한 계약을 승인해 줄 것을 권고하는 주제의 국가안보 담당 대통령 보좌관에게 보낸 국방부 클레멘츠 부장관의 1월 23일자 비망록 사본 한부를 받았습니다.

클레멘츠 부장관의 비망록에 있는 주장들을 검토한 바, 국무부는 록히드 계약을 승인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해드리는 바입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한 근거는 첨부한 문서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군비통제군축국(Arms Control and Disarmament Agency)은 이 계약에 대한 국무부의 입장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사무총장 조오지 스피링스틴

붙임 :

1. 한국에 미국 로켓 기술 판매 관련 문서
2. 1975년 1월 23일자 국방부 클레멘츠 부장관에게 보낸 비망록

한국에 미국 로켓 기술 판매

록히드(Lockhee)사는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ADD)와 12월에 체결한 두 개의 계약을 승인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 계약들은 고체의 로켓 추진제 생산 능력을 한국에 제공하고 로켓 모터를 설계하는데 한국 기술자를 훈련시켜준다는 내용이다. 국무부는 모든 각도에서 이 문제를 신중히 고려한 후에 승인을 해서는 안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방부의 클레멘츠 부장관은 1월 23일 계약을 승인해줄 것을 주장하는 비망록을 국가 안보 담당 대통령보좌관에게 보내왔다.

(중간에 삭제된 부분[Section 3.4(b)(6) of E.O. 12958]로 표시)

박정희의 지시에 따라 ADD는 지대지식의 나이키-허큘리스[Nike-Hercules SAM] 시스템의 향상과 사정거리 확장을 요청하며 맥도넬-더글라스(McDonnell-Douglas)사와 접촉하였다. 맥도넬-더글라스사는 한국의 계획이 실행가능한 것이라고 동의하였고, 최근 한국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주는 프로젝트의 디자인 단계의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다. 이 회사는 1-2개월 후에 국무부의 승인을 공식 요청하는 문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맥도넬-더글라스사 대표들은 맥도넬-더글라스사가 나이키-허큘리스 사정거리를 요구되는 거리까지 높이는 향상된 추진 시스템의 생산을 계획해서는 안된다고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지적했다고 1974년 말에 말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동시에 한국에 고체 로켓 모터 생산시설의 설립에 대해 록히드사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것은 나이키-허큘리스 추진 시스템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다른 목적들로 사용될 수 있다. 이 계획에 대한 결정이 당장 우리 코앞에 와있다. 한국의 록히드사와의 접촉과 맥도넬-더글라스사와의 접촉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기초적인 기술은 기밀사항이 아니며 다른 나라들-특히, 프랑스-로부터 이용가능하다. 프랑스는 보고되는 바에 의하면 록히드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유사 시설물을 팔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록히드의 잔여 공장 판매와 관련 기술 지원은 운용생산 시설물을 세우는데 한국이 요구한 비용과 시간을 상당히 줄여줄 것이다.

1월 23일자 클레멘츠 비망록은 록히드의 공장이 미제 로켓에 모터를 재탑재시키는데 있어 한국에게 상당한 비용을 절감시켜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더 나아가 비망록은 국방과학연구소(ADD)가 대전차와 다른 로켓 화기에 대한 연구를 착수하고 프로그램을 실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국은 외국 미사일 구매 프로그램에 따라

1000개 이상의 토(TOW) 미사일을 구입중이다. 우리는 그러한 연구의 정당성을 발견할 수 없으며, 그러한 일이 전에 일어난 적이 없었다.)

국무부는-[Section 3.4(b)(6) of E.O. 12958]-국방과학연구소(ADD)를 통해 박정희 대통령이 한반도의 상황에 “전략적”인 것이 될 최신 무기 시스템을 개발하는 야심찬 프로그램을 착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최신 미사일과 더불어 ADD는 핵무기 원형을 생산하는데 감독을 직접 맡고 있다. 우리는 지대지 미사일(SSM)--비록 핵탄두가 없는 것일지라도--이 한국의 현 정부의 손에서는 불안정한 것이 될 수 있으며 기층의 해군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급속한 전쟁확대와 북한과 남한 사이의 상습적인 다른 사고의 위험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최신 미사일 능력과 핵무기 개발과의 연계는 한국의 지리적 위치가 주는 가장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가질 것이다. 국방과학연구소(ADD)가 로케트 개발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는 박정희의 주장에 응하여 개조된 과도기적 지대지 미사일로서 나이키-허큘리스 시스템을 선택하였다는 것을, 증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문제

이러한 상황에서 호크(Hawk) 미사일의 재탑재, 대전차 화기의 연구 개발, 프랑스와의 경쟁보다도 록히드 계약에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문제가 된다. 한국군이 향후 10년 안에 최신 무기능력을 갖추기로 결정했다는 증거를 제시하며, 우리는 이 지역에서 한국의 능력을 높이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록히드 프로젝트에 대한 우리의 승인을 그의 야심찬 계획을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에 미국이 기술적 지원을 보장해주는 중요한 단계로 여기고 있다. 우리가 록히드 건을 승인하고 그 이상의 “중요한” 기술의 제공은 거부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는 국방부의 입장은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록히드 공장과 관련 기술의 제공은 한국인에게 단지 시작 단계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국방과학연구소(ADD)에 더 많은 산업적 지원과 추가 최신기술을 계속 제공해주어야 하는 지속적인 압박 하에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일본을 포함하여 한국 주변국들의 인식 문제도 있다. 한국인과 우리 자신의 주장이 무엇이든 간에 한국의 방위 연구 개발 주체에 추진제 공장과 관련기술의 판매는 가장 좋지 않은 시각으로 해석될지도 모른다. 핵 분야에 대한 한국의 의지(국방부는 반박하고 있다)가 점점 더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다른 나라들에게 우리의 행동을 설명하는

데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이 프로젝트를 승인함으로써 우리가 한국의 로켓 개발을 감시할 수 있는 지렛대나 더 좋은 기회를 얻을 것이라는 주장은 우리에게 의심스럽게 보인다.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가 제공하지 않거나 반대할 것 같은 특별무기사업에 있어 근본적으로 국방과학연구소를 유일한 한국기업으로 바라보고 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한국은 우리의 조언 없이 그들만의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유로운 시설을 갖게 될 것이다.

사실 한국이 프랑스로부터 추진 장치의 구매를 추진할 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에 있어 한국과의 협력에 미국의 비적극성은 우리가 가면을 쓰고 그들의 독립적인 미사일 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돕지는 않겠다는 것을 한국인들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신호이다. 또한 이 판매에 대한 우리의 거부는 한국의 핵관련 요구에 대해 공통적으로 접근한다는 캐나다, 프랑스,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의 합의를 지키는 향후 노력에 있어 우리를 더욱 확고한 위치에 올려놓을 것이다.

덜 중요하지만 또 다른 고려사항은 최신 기술뿐 아니라 일자리 수출이라는 이유로 미국의 노조가 이 판매를 반대한다는 점이다. 노조 대표자들은 이 사건에 있어 일부 의회의 관심을 얻어내었다. 박정희 정부에 대한 의회의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가 이 판매를 옹호하기 위해 의회와 해야 할 노력을 복잡하게 할 것이다.

클레멘츠씨는 우리가 록히드의 판매로 주어지는 기회를 한국의 미사일 개발에 관하여 한국군에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무부는 한국이 우리에게 솔직하지 않다는 관점에서 우리의 메시지가 말보다는 행동으로, 즉 기술 이용에 대해 한국인에게 강의를 하는 것보다 그들에게 그 기술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가장 잘 전달될 것이라고 믿는다.

장거리 미사일 계획에 대한 한국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은 거짓의 부인을 이끌 것 같다.
(삭제된 부분은 [Section 3.4(b)(6) of E.O. 12958]로 표시)

한국의 핵무기와 잠재적인 발사 시스템에 대한 폭넓은 질문에 관한 중간 기관의 문서가 정리되어 가고 있으며, 지금 당장 만들어질 수 있기보다는 전체 질문에 대한 좀더 종합적인 접근을 위한 기초를 제공해 줄 것이다.

이상의 몇 가지 이유로 국무부는 12월의 계약을 승인하지 못한다는 것을 록히드사에 통고할 계획이다.

■ 미국의 대한 지원과 관련된 의회의 서신

- 형태 : 비망록
- 발신 : George S. Springsteen(국무부 사무총장)
- 출처정보 : DEPARTMENT OF STATE S/S 7607620
- 일자 : 1976.4.21
- 수신 : Brent Scowcroft(백악관 군사보좌관)
- 관리번호 : CTA0000731

하원의원 상원의원 120명이 서명한 미국의 대한 지원 관련 4월 2일자 서신에 대한 대통령의 회신 초안이 데이비스(Ms. Davis)씨가 4월 9일 비망록에서 요청한 대로 결재를 위해 첨부됨.

조지 S. 스프링스틴, 국무부 사무총장(George S. Springsteent)

Attachment:

As Noted.

UNCLASSIFIED

■ HIRC 상한선(ceiling)에 관한 대통령의 서한

- 형태 : 전문
- 발신 : 국무부장관
- 출처정보 : DEPARTMENT OF STATE 3589
- 일자 : 1976.5.22
- 수신 : 서울 미국대사관
- 관리번호 : CTA0000775

1. 다음은 한국에 대한 원조에 상한선을 두는 것에 반대하는 HIRC 모간 위원장에게 보내는 5월 19일의 대통령 서한의 본문입니다.

2. 인용 - 저는 한국에 대한 PL-480과 안보 지원을 제한하는 Section 413 of H.R. 13680에 대한 저의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 이 편지를 씁니다.

3. 이 규정은 1975년 7월 1일에서 1977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한국 지원 (Assistance to Korea)' 타이틀 I, PL-480에 1억7천5백만 달러의 상한을 지우게 될 것입니다. 의회가 이를 수용한다면, 이 제한은 타이틀 I 지원(Title I Assistance) FY 1977 PL-480을 72퍼센트 혹은 1억4백만 달러만큼 삭감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식량용 곡물 자급자족을 달성하는데 엄청난 진전을 이뤘음에도, 여전히 1976년에 약 6억5천만 달러 상당의 약 260만 미터톤의 곡물을 수입해야만 합니다. 미국 식량 지원의 삭감은 한국의 경

제적 성장 잠재력과 또한 자국의 군사 자급자족 노력에 자금을 조달하는 한국의 능력을 심각하게 제한하게 될 것입니다.

4. 한국은 1975년에 총 8억8천만 달러 어치를 구입한, 미국 농업 생산의 메이저 시장입니다. 여기에는 쌀, 상당량의 미국산 밀, 면화, 옥수수 구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PL-480의 과감한 삭감은 또한 안정적인 시장에 농작물을 의존하고 있는 미국 농부들을 곤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5. 413 섹션 또한 행정부가 한국에 대한 안보 지원을 위해 FY 76-77로 요구한 4억8천6백8십만 달러에서 2억 달러 혹은 40%를 삭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FY 76 이후에 한국에 대한 물질적 지원 보조금을 종결시키고 장래에 방위 보장 차관(defense-guaranteed loan)을 대치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기 위해 우리의 안보 지원 수요를 신중하게 계획했습니다. 섹션 413의 자금 공급 수준은 이러한 프로그램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하고 있으며 한국을 위한 한미 합동 근대화 프로그램의 FY 77의 완성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입니다. F-5E와 F-4E 전투기와 크루즈 미사일(harpoon missiles)의 입수를 비롯해 메이저 조달 프로그램들 역시 심각한 지장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장비는 한국이 북과 군사적 균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입니다. 결과적으로 섹션 413은 한국 정부가 장래 군사 자급자족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우리의 노력을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불안정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6. 미국은 동북 아시아의 평화 보존에 강력한 국가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균형 유지와 한국의 자급 자족 달성은 이러한 정책에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7. 저는 하원이 H.R. 13680의 섹션 413을 승인할 것과 제가 요청한 예산 수준에서 한국에 대한 지원을 승인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인용 끝.

로빈슨(Robinson)

■ 31번째 유엔 총회에서 한국

- | | |
|-----------------------------------|---------------------|
| • 형태 : 전문 | • 일자 : 1976.6.29 |
| • 발신 : 워싱턴 국무부장관 | • 수신 : 서울 미국대사관 |
| • 출처정보 : DEPARTMENT OF STATE 3346 | • 관리번호 : CTA0000766 |

1. 귀하의 박 외무장관과의 의논에 앞서 유엔의 핵심 그룹의 활동들에 대해 생각하는 데 몇 가지 배경이 유익할지 모르겠습니다. 참조 A(참조 B에 의해 수정된)는 우리가 “정치적 주도권”을 생각하는데 있어 제한된 틀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오직 구체적인 초대를 덧붙여 9월 22일의 제안에 대해 우리가 상당히 직접적으로 강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는 평화유지군에 대한 캐나다의 아이디어, 즉 “평화협정”의 요구에 대한 참조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복하지 않으며 혹은 다른 아이디어들은 참조 C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2. 대체로 핵심 그룹의 아이디어는 우리에게 전술적 작전으로 의심스러운 이용이 될 것처럼 보이며, 몇 가지들은 복잡하고 우리의 관심(예를 들어 캐나다의 아이디어, 참조 E)과 반대되기도 합니다. 국무부의 시각에서 핵심그룹의 논의는 미국과 한국 문제에 대해 우리의 동맹국들을 유지한다는 그들의 주요 목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주도권의 본질에 대한 최근의 논의가 그와 같은 주도권에 유용하기 보다는 더 많은 구체적인 것으로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약간 표류하고 있으며 참조 A의 2B항과 C항의 문장에 따라 다시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일부 혹은 모든 아이디어들이 우리가 제안할지도 모르는 9월 22일의 제안에 대한 재평가서에 통합될 것이라는 가정의 진행을 허용하는 핵심 그룹의 아이디어의 논의가 계속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미국으로부터 수정 받지 않은 아이디어의 작업이 계속된다는 사실은 우리의 마지막 결정이 핵심 그룹의 기대를 실망시킬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3. 귀하는 우리의 견해로 1975년 9월 22일의 제안에 대한 언급이 매우 단순하고 직선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박 외무부장관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귀하는 또한 우리가 지금 결정에 대한 논의 쪽으로 핵심 그룹을 움직이고, NAM에 앞서 로비를 하고,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지지를 얻어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한다고 외무부장관에게 말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에서 우리가 했던 제안들을 우리가 평가하고, 그것들을 검토하고, 결정에 대한 검토와 우리의 일반적인 자세를 위해 계속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핵심 그룹에서 노선으로 채택하는데 한국과 미국이 동의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음 핵심 그룹 회의에서의 “주도권”에 대한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재강조할 계획입니다.

4. 참조 C에 들어있는 초안 결의안에 관해서 귀하는 우리에게 결의안을 면밀히 검토할 시간이 없었지만, 우리의 애초의 반응은 결의안이 핵심적인 요소들을 담고 향후 핵심그룹의 논의를 보장하는 것이라는 점을 외무부장관에게 강조해주길 바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한 한국의 반응을 감사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5. 만일 외무장관이 국제연합총회 구성 문제(참조 F)를 제기하면, 우리는 특정한 후보를 강력하게 밀어주는 것이 후회될 것 같고 우리에게 역작용을 할 것 같아 그러한 행동이 내키지 않는다고 귀하는 원칙적인 문제로 그것을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난해 국제연합총회에서의 작은 승리로 인해 우리는 미국정부의 의제 위에 한국의 항목을 우호적으로 올려놓지 못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데 동의합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가 보류사항들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정부의 권고를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며 핵심그룹에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

6. 유엔사내 미국대표단(USUN)을 위해: 위에서 설명한 근거로 국무부는 비록 유엔사내 미국대표단(USUN)이 “주도권”에 대한 우리의 제한된 시각에 대해 지적했지만 검토를 위해 영국의 일괄 초대 초안을 언급하는데 있어 핵심그룹의 행동으로 방해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핵심그룹의 구조와 아이디어 교환에 대한 지령 때문에 본래 내재하고 있는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국 초안의 언급은 우리가(그리고 일본과 같은 다른 나라도 추측해 보건데) 그것을 동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의견일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7. 그러므로 유엔사내 미국대표단이 7월 1일까지 정치적 주도권과 한국과 함께 한다는 본질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핵심그룹에 분명히 하는 것과 회원국들이 지금 계속 작업을 하고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다른 문제들을 핵심 그룹들이 검토하도록 움직이는 것이 필요합니다(위의 첫 문단). 따라서 유엔사내 미국대표단은 핵심그룹의 아이디어에 대한 감사를 표해야 하고 우리가 참조 A의 2B항과 2C항의 내용에 따라 앞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제안해야 합니다. 유엔사내 미국대표단은 또한 위의 5번째 문단의 내용에 따라 국제연합총회 구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야 하며, 만일 필요하고 가능하다면 위원회 회원들에 로비를 하는 것을 시도해야 합니다.

로빈슨(Robinson)

■ 국경일 메시지

- 형태 : 전문
- 발신 : 워싱턴 국무부장관
- 출처정보 : DEPARTMENT OF STATE 7563
- 일자 : 1976.8.12
- 수신 : 서울 미국대사관
- 관리번호 : CTA0000787

1. 다음을 8월 15일 적절한 시기에 박정희 대통령에게 전달하기 바랍니다.

인용 :

대통령 귀하 :

대한민국 독립 기념일을 맞이하여 미 국민들의 따뜻한 축하와 저의 개인적인 축하의 뜻을 전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국경일을 기리는 귀하에게 미 국민의 깊은 우애가 지속될 것임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제럴드 R. 포드.

인용 끝.

2. 백악관은 이 전문을 공개할 계획은 없으나... 반대하지 않는다.

■ 공동경비구역 사건 추가 정보

- 형태 : 전문
- 발신 : COMUSKOREA
- 출처정보 : DEPARTMENT OF STATE
- 일자 : 1976.8.18
- 수신 : AIG 7828
- 관리번호 : CTA0000768

1. 사건의 개요

A. 사건과 관련된 여러 명의 증인과 유엔군사령부 경비병 조사 결과 및 현재 확보된 8×10 사진 감식 결과, 다음과 같은 추가 정보가 확보됨 :

(1) 본 사건 이전 수일 동안 축적된 사전 상황이 존재함. 사건 수일 전 유엔사령부 요원이 문제의 나무를 잘라낼 계획을 세움. 수명의 비무장 한국인 관리요원이 문제의 지역을 방문, 과제를 미리 검토하고 방법을 논의함. 수명의 북한인민군 경비병이 SE 요원에게 나무를 그대로 두라고 말함. 북한인민군요원들에게 8월 18일

나무를 정비하라는 명령이 공지됨.

- (2) 약 181030I에, 5명의 한국인 노무자와 3명의 유엔군사령부 장교 (미군 2명, 한국군 1명) 및 7명의 보안요원으로 구성된 유엔군사령부 작업반이 BT 956 028에서 유엔군사령부 제3 관측초소 VIC에 있는 커다란 나무를 정비하기 위하여 파견됨. 이 행동은 문제의 나무가 유엔군사령부 경비 3초소와 관측 5초소 사이의 시야에 장애가 되었기 때문에 발생된 불가피한 것이었음.
- (3) 작업반이 현장에 도착한 후 곧 2명의 북한인민군 장교와 약 9명의 북한인민군 경비병이 트럭을 타고 현장에 도착함. 북한인민군 장교 1인이 남한 장교에게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물으며 논의함. 남한 장교는 작업반이 현재 나무를 정비하고 있으며 나무 전체를 잘라낼 의도가 없다고 설명함.
북한인민군 장교는 “괜찮다”는 의사를 전함. 작업은 10-15분가량 진행되었으며 일부 북한인민군 요원은 유엔군사령부 노무자들에게 어떻게 나무를 정비하는지 가르쳐 주려고 시도하기도 함. 유엔군사령부와 북한인민군 요원들 사이의 모든 대화는 한국어로 진행됨.
- (4) 약 1050HRS에, 북한인민군 GD 지휘자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유엔군사령부 장교에게 작업을 중단하라고 말함.
- (5) 짧은 논의가 이어졌고 북한인민군 장교가 유엔군사령부 요원을 협박함.
- (6) 유엔군사령부 지휘자는 작업이 합법적이며 평화적인 사안이므로 계속할 것을 명령함.
- (7) 북한인민군 장교가 한국 측 노무자들에게 작업 중단을 명령함.
- (8) FOL 장교가 미국 지휘자와 협의한 후 북한인민군 측에게 작업이 계속될 것임을 알림.
- (9) 북한인민군 장교가 사천교 건너편으로 경비병 1인을 보냄. 지원군을 요청한 것으로 보임. 직후 (수분 경과후) 약 30명의 북한인민군 경비병이 현장에 도착함.
- (10) 북한인민군 장교는 손목시계를 풀러 손수건으로 싼 뒤 호주머니에 넣음. 다른 북한인민군 장교는 팔소매를 걷어올림. 본티파스 대위가 당시 나무 절단 작업을 지켜보고 있었으나 북한인민군 장교들의 상기 행동을 인지하지 못함.
- (11) 북한인민군 장교가 “죽여라”라고 고함친 후 본티파스를 가격해 땅바닥으로 쓰러뜨림. 5명의 북한인민군 장교가 합세하여 계속 구타함.

- (12) 곧바로 모든 북한인민군 경비병들이 기타 유엔군사령부 경비병을 공격하여 도끼자루와 몽둥이로 가격함.
 - (13) 이어서 북한인민군 경비병들이 나무 정비인들이 사용하던 도끼를 집어 들고 유엔군사령부 경비병들을 공격함. 유엔군사령부측 증인들은 본티파스 대위가 땅에 쓰러진 상태에서 북한인민군 경비병들이 그를 날 없는 도끼자루로 가격하는 것을 목격함.
 - (14) 모든 미군, 한국군 및 카추사 요원들이 반복해서 가격을 당함. 사진은 각각 7명 및 9명의 북한인민군 경비병들이 1명의 유엔군사령부 경비병을 에워싸고 도끼자루, 몽둥이, 주먹과 발로 가격하는 상황 2가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음.
 - (15) 또한 사진은 유엔군사령부 경비병들이 접촉을 피해 현장에서 철수 또는 다른 유엔군사령부 요원을 구출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음.
 - (16) 전체 상황은 5-6분 이상을 경과하지 않았음.
 - (17) 과거의 경험에 기초해 유엔군사령부 관측소에 망원렌즈가 달린 다수의 사진기가 미리 설치되어 있었고 대부분의 유엔군사령부 경비병들이 개인용 사진기를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명한 양질의 사진을 확보할 수 있었음. 대다수의 사진은 사건 현장으로부터 대략 250-300미터 떨어진 제5관측초소로부터 촬영되었음.
3. (C) 지적 사항: 현재 유엔군사령부 보안군의 무력 및 화기 사용과 관련된 유엔군사령부/주한미군/미8군의 정책지침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 A. 공동경비구역 내에서의 평화로운 공존은 필수적이다.
 - B. 유엔군사령부는 자신을 구출해야할 경우에 최소한의 무력을 사용해야 한다. 물리적 충돌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종결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 C. 밀치기와 침벨기와 같은 북한인민군과 중국 인민의용군 요원의 경미한 행동은 무시하도록 한다.
 - D. 충돌 현장의 보안 장교의 명령이 있는 경우 또는 유엔군사령부 요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유엔군사령부 공동경비구역 경비대원은 공동경비구역 내에서 화기 발포를 할 수 없다. 무기는 북한인민군/중국인민의용군 요원을 협박하거나 위협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없다.
4. (C) 전체적인 평가: 유엔군사령부 요원은 갑작스럽고 유인동기가 없는 공격에 대하여

자제력과 규율정신으로 대응했음. 공격당한 미군 2명은 모두 지휘 장교 없이 대 오를 벗어나자마자 피습되었음. 총 충돌시간은 매우 짧았음. 유엔군사령부 요원 들은 3대1의 수적 열세에 있었음. 유엔군사령부와 북한인민군 양측의 요원들은 권총으로 무장한 상태였음. 양측이 화기를 분별없이 사용했을 경우 더 심각한 결과를 야기하는 사건이 이어졌을 것으로 보임. 북한인민군측이 사건 현장에서 수 적인 우위를 확보해 유엔군사령부 지휘관들을 신속하게 고립시키고자 현장에서 즉석 결정을 내렸다는 몇몇 증거가 있음.

■ 국가정보 상황 보고서를 위한 특별조사반

- 형태 : 전문
- 일자 : 1976.8.19
- 발신 : George Bush
- 수신 : 중앙정보국 부국장, 국무부 정보국장, 국가안전국 국장
- 출처정보 : The Director of Central Intelligence
- 관리번호 : CTA0000791

저는 관계부처 합동의 특별조사반(Task Force)이 한국에서 생긴 위기에 관한 국가정보 상황의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즉시 꾸려질 것을 지시하는 바입니다. 이 임무 수행을 위한 절차들은 Intelligence Community Staff에 의해 진행되고 있으며 NFIB 위원들에 의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특별조사반을 조직하고 국가정보 상황 보고서를 작성하는 책임을 맡을 Executive Agent로서 국방성 정보국(DIA)을 지명하였습니다. 귀하들께서는 이 임무를 위해 참가하시도록 Executive Agent로부터 요청받게 될 것이며, 필요하다면 분석가들을 제공받게 될 것입니다.

조오지 부시

함께 받는 이 : 국무장관, 국방장관, 대통령 국가안보 담당 보좌관, Intelligency Community 담당 DCI 부국장, 국가정보 담당 DCI 부국장

Korean Working Group Action Spread Sheet
1976.8.19

	행동	완료된 행동	진행중인 행동	계류중인 결정사항
1	데프콘3	데프콘3 세트 (JCS 190001Z)		
2	데프콘3에 대한 보도 지침	보도 지침 송부 (국무부/국방부 합동 206129)		
3	데프콘3에 대해 다른 나라에 통고	미국 대사가 동의한 후 각국들의 국방부 장관들에게 통보되도록 지시하는 국방부 장관의 서신이 NATO 동맹국들에게 보내짐 (국방부 장관 190311Z) 국무부는 추가 지시들이 계류중에 있다는 국방부 장관의 서신과 관련하여 행동을 늦추도록 NATO 동맹국들에 있는 대사관들에 서신을 보냄		데프콘에 대해 NATO와 다른 나라들에 통고 여부
4	F-4 배치	F-4 편대가 카데나(Kadena)에서 한국으로 이동하고 있는 중임. "Execute" (JCS 190103Z) 191100Z(워싱턴 시간 0700)까지 도착할 항공기		
5	B-52 배치	명령없이 훈련 비행을 하도록 경계태세 전문을 전략공군사령부(SAC)에 송부	합참은 명령 전달을 포함하여 두 번째 대안을 진행 중임	훈련 연습을 위해 B-52 배치 여부
6	F-111 배치		배치가 가능하도록 F-111의 준비 (JCS 190404Z)	F-111기의 배치 여부
7	항공모함 특별반 배치		항공모함 특별임무반의 준비 (JCS 190218Z)	항공모함 특별임무반 배치 여부
8	한국에 추가 배치		워싱턴특별대책반에 제출될 향후 조치들을 합참이 검토 중	추가 배치의 필요 여부
9	보복적인 군사 행동		워싱턴특별대책반에 제출될 향후 조치들을 합참이 검토 중	보복적인 군사 행동을 취할지 여부
10	박(Park) 대통령께 통고	스틸웰 장군은 지령을 받기 전에 앞서 박 대통령 접견. 지령에 따라 유연군사령관이 대통령께 전하는 말은 지령의 방침에 따른 것임		

	행동	완료된 행동	진행중인 행동	계류중인 결정사항
11	일본에 통고	도쿄 대사관은 취해진 예방차원의 군사 조치들에 대해 GOJ에 통고함		
12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유엔군 사령관의 보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할 유엔군 사령부의 보고서 초안을 요청하는 서신을 서울에 송부	국무부/국방부 초안 검토 후에 보고서 제출 여부
13	8월 19일 군사정전위원회회의	군사정전위원회가 한국 시간으로 16시 정각부터 17시35분까지 열림. 북한측이 휴회를 제안함. 북한은 이 사고가 미국이 시작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만일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함		
14	나무 베기		합참은 공동경비구역에서 작업을 마치기 위한 스틸웰 장군이 제안한 계획을 검토 중 (CinCUNC 182035Z, 181745Z) (JCS 182035Z)	실행에 대한 결정은 워싱턴 특별대책반에 있음
15	전쟁권한법		국무부/국방부 법률가들이 전쟁권한법의 문제들을 검토 중	전쟁권한법에 따라 우리가 의회에 통보할 필요가 있는가의 여부
16	의회와의 총괄적 협의		하비브(Habib)와 맥클로스키(McCloskey)가 이 문제를 검토 중	전쟁권한법에 대한 결정과 무관하게 의회와의 협의 여부
17	김일성에게 보내는 유엔군 사령관의 서신 제안 (CinCUNC 181745Z)	합참은 스틸웰이 김일성에게 서신을 보내지 않도록 충고함 (JCS 190217Z)		
18	향후 외교적 조치, 소련, 중국 등	하비브 씨가 다루고 있음		취해야 할 향후 외교적 조치들은 무엇인가
19	사고의 사진	워싱턴으로 가고 있는 중임. 도착예정시간 8월 19일 17시 정각		이 사진들의 활용 방법
20	살해된 장교들에 대한 경의 표시			경의 표시와 언론 보도 수준
21	F-4 배치에 관한 보도 지침서	ISA 대표가 국방부에 지침서 준비를 요청함		그것을 이용할 시간

워싱턴특별대책반이 고려해야 할 문제들

1. 미드웨이(Midway) 항공모함 특별임무반이 일본해로 가야만 하는가?
2. F-111기가 남한에 배치되어야 하는가?
3. B-52기가 남한 상공에서 연습을 실행해야 하는가?
4. 만일 3항에 대한 답이 “예스”이면, B-52기는 공격 명령을 수행해야 하는가?

주목 : 계획된 비행경로는 북한의 지대공 유도탄(SAM)의 사정거리와 남한의 명령 범위를 모두 벗어나는 것이다. 합참은 포 투하를 수락하는 또 다른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

5. 우리는 합참에서 제시된 보복 군사행동을 한번 아니면 그 이상을 취해야 하는가?
6. 합참이 준비하고 있는 대안에서 특히, 전쟁 태세에 대한 북한의 발표와 관련하여 나올 다른 군사적 배치들이 있어야 하는가?
7. 우리는 전쟁권한법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 공식적인 협의를 해야 하는가?
8. 우리는 의회와 어떤 비공식적인 협의를 착수해야 하는가?
9. CIA는 지미 카터(Jimmy Carter)에게 브리핑을 해야 하는가?
10. 우리는 언제 나토(NATO) 동맹국에게 통고해야 하는가?
11. 우리는 앤저스(ANZUS) 동맹국들과 필리핀, 태국에게 통고해야 하는가?
12. 다른 외교적 행동-소련, 중공 등-은 무엇인가?
13. 공동경비구역의 나무 베기에 관한 방법을 선택할 것
 - 북한에게 선통고 없이 가능한 한 빨리 진행한다.
 - 미리 북한과 언론에 통고한다.
 - 행동을 연기한다.
14. 유엔군 사령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서를 보내야만 하는가?
15. 다른 어떤 유엔의 행동은? 예를 들어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16. 있을지도 모르는 북한의 군사 행동이나 도발 행위에 방어하기 위해 예방적 조치들을 취해야 하는가? 예를 들어,
 - 있을지도 모르는 북한의 공격 목표물에 대한 정보와 정찰 작전을 검토한다.
 - 공동경비구역의 절차들을 검토한다.
 - 전방 배치 부대들을 강화한다.

- 17. 공사/외교 활동에 대한 범위와 강도를 결정할 것
 - 데프콘3과 F-4 배치를 공표한다
 - 사고의 사진들을 활용한다? (목요일 17시 정각에 워싱턴에 도착 예정)
 - 전쟁태세에 대한 북한의 발표에 대응하는 성명서를 준비한다?
- 18. 살해된 장교들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데 어느 정도의 수준 것을 포함해야 하는가?

■ **임박한 군사적 조치의 박 대통령에 대한 통보의 건**

• 형태 : 전문	• 일자 : 1976.8.19
• 발신 : 국무부장관	• 수신 : 서울 미국대사관
• 출처정보 : DEPARTMENT OF STATE NOD729	• 관리번호 : CTA0000768

국무부 국방부 공동작성 메시지

1. 대리 대사와 스틸웰 장군은 즉각 박 대통령을 방문하여 우리가 8월 10일 공동경비구역 사건과 관련하여 취하려고 하는 특정한 조치와 고려중인 다른 조치들을 통보하도록 하시오.

2. 귀하는 우리가 이 사건을 북한의 고강도 도발로 간주하고 있으며 북한이 이와 같은 행동이나 유사한 행동을 앞으로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평양 측에 분명하게 또 반드시 과시하려고 한다는 점을 박정희에게 알리도록 하시오. 평양에 이러한 메시지가 강력하게 전달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남한에 즉각 데프콘 3을 발동시키고 카디나 (Kadena) 공군기지에서부터 F4 비행대대를 추가적으로 한국에 배치하는 것을 제안한다. 추가적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A) 남한에서 B-52 폭격 훈련을 실시하는 것, (B) F111 비행대대를 한국에 투입하는 것, (C) 일본해로 항공모함 기동부대를 이동시키는 것.

3. 귀하는 북한의 행동과 그 의도에 대해서 박정희가 갖고 있는 견해를 묻도록 하고 우리의 조치에 대한 그의 반응과 추가 조치에 대한 그의 제안을 보고하도록 하시오.

키신저

■ 판문점 사고와 평양의 상황

- | | |
|----------------------------------|---------------------|
| • 형태 : 전문 | • 일자 : 1976.8.21 |
| • 발신 : 베이징 미군 연락장교 | • 수신 : 워싱턴 국무부 장관 |
| • 출처정보 : DEPARTMENT OF STATE 521 | • 관리번호 : CTA0000764 |

1. 공습 훈련이 8월 20일 현지 시각으로 20시 정각에서 8월 21일 2시 정각까지 평양에서 실시되었고 인민들은 대피소에 들어갔다 나왔다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음을 (삭제). 그러나 라디오나 TV 방송에서 상황에 대한 어떠한 새로운 것은 없었으며 시내에 어떠한 이례적인 군대의 배치도 없었다는 점을 (삭제)는 주목하였습니다.

2. (전체 내용 삭제)

여기서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통신사를 통해 8월 18일과 19일에 두 개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것들은 그들이 주말동안 기자회견을 “열수도” 있다는 것을 베이징에 기지를 두고 있는 해외 통신원들에게 말했습니다.

■ 군사정전위원회 회의

- | | |
|------------------------------|---------------------|
| • 형태 : 전문 | • 일자 : 1976.8.21 |
| • 발신 : 서울 미국대사관 | • 수신 : 워싱턴 국무부 장관 |
| • 출처정보 : DEPARTMENT OF STATE | • 관리번호 : CTA0000791 |

1. 조선인민군 총사령관이 유엔군사령관에게 보낸 서신에 대한 답장을 전달하기 위해 조선인민군 수석 위원에 의해 요청된 조선인민군과 유엔군 사령부 수석 군사정전위원회 위원들 사이에 가진 비공개 회의가 8월 21일 12시 정오부터 오후 12시 15분까지 열렸습니다. 중국측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조선인민군 수석 위원들의 개회사와 회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2. 개회사 :

인용 시작: 저는 조선인민군 총사령관께서 유엔군사령부측 사령관께 메시지를 전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내부 인용 시작 : 오랫동안 판문점에서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은 다행스러운 일

이었습니다. 더불어 이번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일어난 사고는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와 같은 사고가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양측은 많은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귀측이 도발행위를 하지 않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측은 결코 먼저 도발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그러나 만일 도발행위가 일어났을 때에는 자위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내부 인용 끝.

저는 귀하가 이 메시지를 귀측의 사령관께 가능한 한 조속히 전달해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인용 끝.

3.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는 메시지 수령을 확인하고 그것을 전달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4. 조선인민군의 두 번째 성명서 :

인용 시작 : 저는 한 가지 추가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귀측은 어떠한 사전 통보 없이 수백만의 완전 무장한 인부들이 공동경비구역 안으로 들어옴으로써 도발행위를 또 다시 저질렀습니다. 귀 측의 그와 같은 행동들은 18일에 일어난 것과 같은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귀측이 그와 같은 도발행위를 다시는 저지르지 않기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인용 끝.

5. 유엔군사령부는 조선인민군의 메시지의 사본을 요청하였습니다. 조선인민군은 더 이상의 사본은 없다고 말하고 난 후 그들의 주장에 대한 답을 요구하였습니다. 유엔군사령부는 우리가 메시지를 수령했으며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선인민군은 다 음과 같은 마지막 주장으로 끝마쳤습니다.

인용 시작 : 저는 오늘 아침 귀측이 저지른 도발행위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중대한 것이라고 한번 더 분명히 강조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저는 귀측이 이것을 진지하게 숙고하여 그와 같은 도발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책임있는 조치들을 취하기를 희망합니다. 인용 끝.

6. 회의 분위기는 침착하고 조용했습니다. 회의에서 한 가지 재미있는 부수적인 것은 중립국 대표들이 이 지역에 참가하고 있는데 폴란드와 체코는 우호적이며 추축군대 오늘 아침에 사전 통고가 없는 점에 대해 불쾌해하는 스위스와 스웨덴은 냉담하고 우리 대표의 인사를 받기를 거절하였습니다.

7. 회의에 대한 보고서는 한국에 제출되었습니다.

견해 : 조선인민군의 성명서들은 비교적 온화하고 모호합니다.

■ 폴 버니언 작전

- | | |
|------------------------------|----------------------|
| • 형태 : 전문 | • 일자 : 1976.8.21 |
| • 발신 : 상황실 | • 수신 : VAIL COMM CTR |
| • 출처정보 : DEPARTMENT OF STATE | • 관리번호 : CTA0000764 |

1. 다음의 내용은 주제의 작전을 지원하는데 있어 미국의 헬리콥터로 입증된 항공기의 피해에 대해 국가군사지휘본부(NMCC)에 이전에 구두로 한 리포트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2. 일시군(DTG) 사고가 일어남: 1976년 8월 21일 10시15분

3. 사고에 대한 설명

- a. Morris J. Brady, MG, (삭제), HHCN 20 보병 사단
- b. 사고의 위치: 미국 20 보병 사단 경비초소 116 근방의 영공, BT 970 023
- c. 부상자: 없음
- d. 군사 재산의 피해: 헬리콥터 UH-1의 뒤쪽 회전 날개 추진축에 있는 한 개의 소화기 발사체에 구멍

4. 사고에 대한 개요

- a. 1976년 8월 21일 10시15분에 폴 버니언(Paul Bunyan) 작전명령을 실행하기 위해 그의 명령으로 UH-1 헬리콥터를 조정하며 하늘을 날고 있는 동안에 3B항에서 지시된 상공에 있는 위의 MG 브래디(Brady)는 그의 비행기가 미국 경비초소 116의 북쪽 위치에서 총격을 받고 있다는 것을 사단 사령부 통신망에 보고했다. MG 브래디는 어떠한 뚜렷한 피해나 부상도 당시에 단정할 수 없다고 추가로 보고했다.
- b. 동일한 시각에 한국군 제1군단에서 온 공동경비구역에 있는 한국군 연락장교는 G2인 한국군 제1사단에 미국 헬리콥터 한대가 BT 998 034 근방의 조선인민군 경비초소 NK 224로부터 그것에 직접 30차례의 사격을 받았다고 보고하였다. 시각 시각은 1976년 8월 21일 10시 12분으로 보고되었다. 부대(한국/미국)의 경비초소가 이 보고를 처음 수령한 시각은 1976년 8월 21일 10시 25분이었다.
- c. 1976년 8월 21일 10시40분에 주력 사단인 CASEY 캠프는 제3 여단 작전 본부로부터

터 다음과 같은 보고를 받았다.

- (1) 목격 시각: 10시20분-10시23분
- (2) 관측자 위치: 경비초소 116
- (3) 관측 위치: 9903-80도
- (4) 단지 7-8 차례 들리기만 함

d. 비행기는 작전확인을 하기 위해 1976년 8월 21일 10시15분에 BT 902 008에 착륙하였다. 당시 비행기에 발견되는 어떠한 뚜렷한 피해는 없었다. 나중에 1976년 8월 21일 11시35분에 추가 검사를 하기 위해 BT 005 001 H-127에 비행기가 착륙하였다. 이 곳에서는 분명한 소화기 발사체 구멍이 발견되었다.

5. 사고는 1976년 8월 21일 10시27분에 부대(한국/미국) 경비초소에 의해 처음 주력 사단에 보고되었습니다.

6. 예상되는 추가 보고는 없습니다.

■ 한국은 북한의 메시지에 대한 미국의 반응을 probe

- | | |
|------------------------------|---------------------|
| • 형태 : 전문 | • 일자 : 1976.8.22 |
| • 발신 : 서울 미국대사관 | • 수신 : 국무부장관 |
| • 출처정보 : DEPARTMENT OF STATE | • 관리번호 : CTA0000764 |

1. 서종철(Suh Chong-Chjol) 국방부장관과 박동진(Park Dong-Jin) 외무부장관은 군사 정전위원회 북한 대표와 미국 수석대표와의 8월 21일 회의에서 전달된 김일성의 메시지를 의논하기 위해 8월 22일에 유엔군사령관과 대사와의 각각 별도의 회의를 가졌습니다.

2. 국가안보회의(NSC)의 회의를 막 마친 후에 박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두 장관은 그것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으로 답장이 거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만족스러운 응답을 얻을 때까지 북한에 압력을 계속 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박 외무부장관은 대사에게 북한의 응답은 분명한 유감 표시를 하지 않았으며 한쪽만의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양측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박 외무부장관은 북한의 응답은 어떠한 자극도 주지 못하고 있으며 그들이 결코 먼저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북한의 주장을 담은 평상적인 수준의 단순히 신중한

말로 표현된 성명서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북한의 메시지가 과거보다는 훨씬 더 화해적인 톤으로 되어있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박은 군사정전위원회의 8월 17일 회의를 고의적으로 연기하지 않았습니다.

4. 서 장관은 북의 총사령관이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전에 보낸 8월 21일자 메시지는 한국의 시각에서 적절치 않다고 유엔군사령관에게 강조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과실을 부추긴 것처럼 추론하고 있으며 추후 행동에 대한 적절치 않은 보증을 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그 메시지는 키신저 장관의 요구가 단순히 또 다른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고 한 8월 22일자의 북한의 공식 성명서와의 맥락에서 읽혀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서 장관은 미국이 승무원 석방 주장을 철회하도록 강요받았던 푸에블로호 사고를 언급하였습니다. (이 의미는 지금은 비슷한 강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5. 유엔군사령관과 대사는 모두 두 장관에게 각각 정확히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심스럽게 질문하였습니다. 한국은 구체적인 언급없이 미국이 북한에 계속 압력을 가하여 북한이 공식적인 사과를 발표하고 다시는 그와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이끌어내며 또한 압력의 조치로서 나무 절단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대답하였습니다. 한국은 또한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우리가 한국에 계속 증원해주기를 원했습니다. 서 장관은 병력을 배치한 다음 “정치적인” 목적이 달성되기 전에 되돌아가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으며 병력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시급히 파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포드 대통령과 키신저 장관, 그리고 유엔군사령관의 요구의 관점에서 우리가 북한이 사과를 하고 배상을 해주고 8월 18일의 살해에 책임이 있는 장교들을 처벌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하도록 계속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합참의장은 한국의 감정이 지금 미국 장교의 야만적인 살해에 반대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서 장관은 한국 국민들은 북한의 응답과 왜 한국이 8월 21일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는가를 궁금해 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서 장관은 북측 응답의 내용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과 동시에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되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견해: 한국 대중의 감정은 적어도 부분적으로 한국의 보도 지침에 의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6. 두 장관들은 모두 한국은 우리가 군사적 행동을 취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강조하며 앞으로의 조치가 외교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7. 박 외무부장관은 “그와 같은 사고가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양측이 노력을 해야 한다는 8월 21일 회의에서의 북한의 제안을 따르는 것에 만일 우리가 그렇게 결정한다면 한국은 어떠한 반대도 갖지 않는다고 동의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규정을 뛰어 넘어 외무부장관이 한 다른 제안은 당분간 관광객들에게 우리가 평상시에 공동경비구역 뒤쪽에 있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계속해서 판문점 가까이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8. 두 장관들이 바라는 주요 요점들은 한국 정부가 김일성의 응답을 수용할 수 없으며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며 미국이 북한의 사과와 관계자 처벌, 그리고 재발방지에 대한 보증을 위해 북한을 계속 압박해야 한다는 것과 이러한 양보들을 위한 압력의 실패(그것들을 얻어낼 수 없을 것 같다는 인식)는 그들의 시각에서 한국의 대중들을 매우 실망스럽게 만들 것이라는 점입니다. 두 장관들은 유감과 향후 보증을 구하는 것을 제외하고 미국의 향후 행동들에 대해서는 명확한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장관들은 또한 북한과의 양자 협상에 미국이 참가할 가능성에 대해 한국이 과민반응을 상당히 표시하고 있다는 점을 매우 구체적으로 분명히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9. 마지막으로, 외무부장관은 박 대통령이 추후 행동 일정에 대해 간단히 의논하기 위해 대사를 부를 것이며 매우 불행한 공동경비구역 사고에 대해 진행할 만족스러운 방법을 위한 제안이나 일들에 대해 워싱턴이 대응해주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10. 우리의 견해와 권고는 뒤따라 있을 것입니다.

스나이더

■ 비공식 요약문

- | | |
|----------------------------------|---------------------|
| • 형태 : 전문 | • 일자 : 1976.8.25 |
| • 발신 : 유엔군사령관 | • 수신 : 국무부 장관 |
| • 출처정보 : DEPARTMENT OF STATE 521 | • 관리번호 : CTA0000764 |

1. 8월 25일 15시 1분에 소집된 유엔군사령관의 요구에 의해 열린 380번째(?) 군사정전 위원회 회의의 진행 상황에 대한 비공식 요약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2. Frudden 장군은 승인된 성명서로 회의를 시작하였습니다.
3. 처음 성명서에서, 한(Han) 장군은 Frudden 장군의 개회사를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조선인민군의 지위는 8월 21일자 유엔군 사령관에게 보낸 총사령의 메시지에 담겨 있다고 말하면서 그 메시지의 첫 4개의 문장을 인용하였습니다. 그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상호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역사적으로 긴장이 없는 분위기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것과 연계하여 그는 상대측의 경비초소를 지나가던 다른 상대측의 군대에서 생긴 초기의 문제와 제한된 지역에서 양측의 무장한 군대의 주둔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향후 대치를 예방하기 위해 양측의 보위대가 공동경비구역 안에 양쪽의 군사분계선(MDL)으로 제한을 둘 것을 제안했습니다. 만일 유엔군사령부가 이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것은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장관급 회담에 회부될 수 있을 것입니다.

4. Frudden 장군은 한(Han) 장군의 성명서를 수령하였으며, 그 응답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말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으로 조선인민군의 요청은 긍정적인 조치이지만 지금은 구체적인 노력을 할 때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Frudden 장군은 살인의 책임자 처벌 요구와 개회사에서 언급된 보증에 대한 주장을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군사분계선을 따라 공동경비구역을 나눈다는 한(Han) 장군의 제안은 좀더 연구해 봐야겠다고 말하면서 끝을 맺었습니다.

5. 한 장군은 공동경비구역에서의 질서 유지를 위한 제안을 했다고 말하면서 유엔군사령부 측이 똑같은 것에 대한 연구에 착수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6. Frudden 장군은 이 회의가 하나의 목적, 즉 살인의 책임이 있는 경비병의 처벌을 요구하고 유엔군사령부 병사들의 미래의 안전과 자유로운 활동에 대한 보장을 주장하기위해 소집되었다고 말했습니다.

7. 한 장군은 향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상호의 노력을 강조하면서 각자의 지역에 대한 그의 제안을 되풀이하였습니다. 만일 유엔군사령부가 질서 유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각자의 지역에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8. Frudden 장군은 그의 개회사 모두를 요약하여 말했습니다.

9. 한 장군은 이미 분명히 했던 것 즉, 8월 18일 사고의 진실과 만일 유엔군사령부가 공동경비구역에서의 병사의 안전을 보장하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그의 제안을 신중하게 연구해야 하며 긍정적인 방법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요약했습니다.

■ 미국의 행동에 대한 한국의 비판

- 형태 : 전문
- 발신 : 서울 미국대사관
- 출처정보 : DEPARTMENT OF STATE NOD567
- 일자 : 1976.8.25
- 수신 : 워싱턴 국무부장관
- 관리번호 : CTA0000764

1. 요약 : 미국의 행동에 대한 한국 언론의 비판으로 인한 미국의 불만족은 대통령 수석보좌관 김(Kim)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김은 그가 박 대통령을 즉시 접견할 것이며 박 대통령이 비판을 잠재우는 직접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긍정적으로 회답하였습니다. 요약 끝.

2. 참조 전문을 받자마자 즉시 저는 대통령 수석 보좌관 김정렴(Kim Chung Yum)과 연락하였습니다. 그는 제가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박 대통령께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과거에 성공적으로 이용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김을 잠시 만나 제가 박 대통령을 접견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는 제가 가장 높은 수준의 미국 정부의 소식을 전달하려고 하느냐고 의견을 물었습니다.

3. 저는 참조 전문을 내밀면서 비판으로 인한 우리의 불쾌감을 분명하고 확고한 용어로 표시하였습니다. 참조 전문에서 지적한 요점에 덧붙여, 저는 우리가 항의를 하는데 제한이 없다고 반복하지는 않았지만(박의 편지 SEOUL'S 6623에서 주장된 것처럼), 나무 절단 작전과 관계되는 심각한 위험요소들을 분명히 받아들였다는 점, 즉 한국 언론과 다른 언론에 의해 불충분하게 평가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실을 지적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제게 온 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한국 관료가 우리의 행동에 대해 비판적인 내용으로 언론에 브리핑했다는 불만을 덧붙였습니다. 저는 과거의 회의들, 우선 스틸웰 장군과의 회의와 다음으로 Stern 의장과 스틸웰과의 회의, 그리고 8월 22일 외무부 장관과 저의 회의를 모두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박이 이전에 했던 조언을 검토하였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가 한국의 조언을 분명히 따랐으며 언론과 그밖의 곳에서의 비판에는 어떠한 근거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저는 4쪽짜리 참조 전문을 내밀면서 우리의 지위에 대한 좀더 우호적인 반응을 보여 주는 정부의 조치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5. 저는 또한 그에게 대통령 후보인 카터(Carter)가 발표한 성명서뿐만 아니라 수많은

미국 언론의 내용을 인용해 주면서 미국 정부가 취한 태도와 행동에 대한 미국에서 나온 폭넓은 지지를 김에게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미국 정부의 행동의 결과는 한국에서 미국의 지위에 대한 훨씬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6. 김은 우리의 접촉에 대한 심각성을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그는 박 대통령이 연속 세 번의 국가안보회의에서 현직의 모든 수석 관료들에게 미국 정부와 긴밀하게 협조할 뿐만 아니라 미국이 취한 지위를 고수하고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관점에서 미국과 한국간의 단결은 김일성에게 가르쳐 줄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박은 그의 수석 관료들에게 미국의 견해와 차이점을 표시하면서 동시에 미국의 지위를 받아들여야 하며 그것을 공식적으로 지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 박은 언론의 내용과 표명이 너무 멀리 나가지 않도록 반복해서는 안된다고 지시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한국의 대중이 과잉흥분하게 되면 나중에 그것이 미국과 한국의 행동으로 불행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7. 김은 몇 가지 다른 흥미로운 견해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한국 정부는 북한이 공동경비구역 안에서 물리적 행동과 무기 발사를 포함하여 몇 가지 형태의 현지 저항으로 나무 절단에 대한 반응을 예상하였으나 미국의 결정과 군사적 준비라는 결과로서 북한에 대응하는 것을 걱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일요일에 연 국가안보회의에서 박은 그 사고가 군사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외교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8. 김은 우리의 접근이 박대통령의 즉각적인 관심을 위해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박 대통령이 흥분을 가라앉히고 미국에 대한 비판을 잠재울 수 있도록 직접 조치를 지시할 것이라는 점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한국 대중의 관점에서 8월 21일 나무 절단 작전에 대해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주는데 그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사항들은 그 작전과 관련된 중요성과 위험요소들을 한국 대중에게 이해시킬 것이며 북한에 대한 확고한 행동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점을 제안했습니다. 제가 이 제안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견해 : 저는 김에게 준 확고한 메시지가 비록 모든 비판을 완전히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더라도-심지어 한국의 보도 통제로도 달성하기 어려운 것-효과를 낼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저는 언론의 비판을 면밀히 계속 지켜보고 만일 우리의 행동에 대한 언론의 내용에 어떠한 눈에 띄만한 개선이 없다면 김과 의논하고 필요하다면 박 대통령과도 의논할 계획

입니다.

스나이더

■ 1976년 8월 25일 군사정전위원회 380번째 회의 요약

- | | |
|------------------------------|---------------------|
| • 형태 : 전문 | • 일자 : 1976.8.25 |
| • 발신 : 서울 유엔군사령관 | • 수신 : 워싱턴 합참본부 |
| • 출처정보 : DEPARTMENT OF STATE | • 관리번호 : CTA0000764 |

1. 유엔군사령부가 요청한 군사정전위원회 380번째(?) 회의가 오늘 16시(?) 정각에 열려 40(?)여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원래 이 회의는 8월 24일 16시(?) 정각에 소집되는 것으로 요청되었으나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의용군에 의해 8월 25일 16시로 반대 제안되었습니다. 유엔군사령부는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의용군이 회의의 소집을 미룰 가능성이 있어 즉시 반대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유엔군사령부는 다음에서 인용된 성명서를 전달하기 위해 회의를 요청하였습니다. 8월 21일 우리의 회의에서 귀하는 공동경비구역에서 일어난 8월 18일 사고와 관련하여 조선인민군 총사령관이 보낸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이 성명서에서 총사령관은 이러한 사고가 일어난 데에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그와 같은 사고가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성명서를 긍정적인 조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엔군사령부의 두 장교가 어떠한 도발행위도 하지 않았는데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과 책임이 있는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사실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덧붙여 우리는 공동경비구역에 있는 유엔군사령부 병사의 안전을 보장하고 쌍방을 존중하며 그러한 목적들을 위해 유엔군사령부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들과 물리적인 접촉을 피하라고 귀하의 병사들에게 명령을 내릴 것에 대한 보증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보증이 귀측으로부터 곧 나올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인용 끝.

2. 조선인민군의 응답의 완전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용. 저는 이 회의에서 발표한 귀측의 성명서를 언급하고자 합니다. 공동경비구역에서 일어난 그 사고에 대한 진실은 이미 전 세계 앞에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우리측의 입장은 조선인민군 총사령관 동지의 지시로 귀측의 총사령관에게 전달한 메시지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오

랫동안 어떤 사고도 일어나지 않았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최근에 사고가 일어난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쌍방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어떤 충돌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우리는 이것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공동경비구역의 안전을 보장하는 현재의 질서는 이것을 예방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거나 또는 쌍방의 군사 관계자들 사이의 충돌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귀측에서도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1953년 10월 (?)일에 열린 25번째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에서 승인된 협정에 따라 쌍방은 지금까지 군사분계선을 자유롭게 넘어 교대로 근무하는 초소에서 경비 업무를 수행한다는 목적으로 38(?)명 이상의 무장한 병사들을 공동경비구역에 배치시켜 왔습니다.

이러한 현재의 상태는 쌍방의 병사들이 서로 얼굴을 맞대고 서있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만듭니다. 게다가 양측 모두가 공동경비구역에 들어갈 때 한쪽이 다른 쪽의 초소 옆을 지나가야만 하며 이것 또한 충돌을 일으킬 수도 있는 조건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이 지역에서 일어났던 모든 사고들은 그러한 요인들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동경비구역에서 안전을 보장하고 쌍방의 병사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쌍방의 군사들 사이의 갈등을 예방하고 판문점 회담 지역에 있는 각각의 병사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이 오직 그들만의 지역에서 움직이며 경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들 사이에 군사분계선을 가져 이 지역에 쌍방의 경비대를 각각 따로 두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양측에게 회담 지역에 각각 따로 그들만의 경비초소를 가지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양측이 서로 마주치거나 상대측의 초소를 지나가지 못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충돌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판문점 회담 지역에 있는 양측의 병사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보증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양측의 병사들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고 안전을 보장하는 확실한 보증으로서 우리 측의 이 제안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의 안보 질서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믿습니다. 만일 귀하가 우리의 이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이것과 연계되어 제기될 수 있는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한 논의가 쌍방의 장관급 회의에 회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용 끝.

3. 유엔군사령부의 두 번째 성명서에서 Frudden 장군은 조선인민군의 응답이 만족스럽지 않으며 보증을 다시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유엔군사령부는 첫 번째 성명서에서 밝힌 조선인민군의 제안은 “긍정적인 조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유엔군사령부는 그 제안을 연구해 보겠으며 연구가 끝나면 대답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세 번째 성명서에서 유엔군사령부는 처음 성명서를 요약하여 되풀이 하면서 다시 보증을 요구했습니다. 요약문에서 유엔군사령부는 그들이 회의를 요청한 이유를 설명하고 유엔군사령부는 조선인민군이 보증을 하고 난 후 그러한 보증을 확인해 주는 조선인민군의 추후 행동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4. 간단한 두 번째 성명서와 세 번째 성명서에서 조선인민군은 현재 그들의 제안이 공동경비구역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시켜 줄 것이라고 강조하였고 유엔군사령부가 그것을 연구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들은 또한 일방의 노력만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매우 짧은 요약문에서 조선인민군은 “그 사고의 진정한 본질은 이미 명백해졌다”고 말하면서 그들은 유엔군사령부가 그들의 제안을 신중하게 연구하여 긍정적인 대답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하면서 끝을 맺었습니다.

5. 회의는 실질적이었으며 조선인민군의 독설과 일상적인 선동적 주제 -즉, 미군 철수, 현대적 무기와 핵무기의 도입, 미국이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 전쟁은 당장에라도 일어날 수 있다 등- 는 전혀 없었습니다. 더불어 유엔군사령부의 8월 21일의 행동이나 한국으로의 최근 군사 무기의 도입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6. 조선인민군은 “강조되었던” 것들을 말하는 것 외에 유엔군사령부의 보증 요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7. 유엔군사령부는 75개의 언론 외에는 어떠한 게스트도 없었고 북한 역시 12개의 언론 외에는 어떠한 게스트도 없었습니다. 유엔군사령부는 모든 군사정전위원회의 회원국들을 대표하고, 조선인민군은 한(Han) 장군(수석대표)과 두 명의 수석자문관, 동의를 중국인민 의용군 성원들을 대표합니다.

■ 전쟁 수행권한과 한국 파병의 건

- | | |
|------------------------------|---------------------|
| • 형태 : 비망록 | • 일자 : 1976.8.27 |
| • 발신 : 대통령 법률고문대행 | • 수신 : 국무부장관 |
| • 출처정보 : DEPARTMENT OF STATE | • 관리번호 : CTA0000795 |

주의 : 아래 내용은 1976년 8월 21일 법률고문대행이 장관에게 보낸 비망록 중에서, 한국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국무장관이 대통령에게 전쟁 수행권한 보고서를 제안하는 것과 한국 주둔 미국 병력을 증강하자고 제안하는 것이 왜 바람직하지 않은지를 설명하는 것으로서, 이 문제와 관련된 핵심 내용을 뽑은 것이다.

전쟁수행권한 결의안은 “대통령이 교전상황 또는 교전상황에 개입할 가능성이 상황적 근거에서 분명하게 나타나는 긴급한 상황으로 미합중국 군대를 투입하게 되는 경우, 대통령은 군대 투입 이전에 의회와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협의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 상황에 대해 내가 파악하는 바에 따르면 나는 이 의무사항이 한국에서 우리 군대를 증강하는 것에 적용된다고 해석하지 않으며, 심지어 경계 태세가 높아진 상황에서의 군대 증강이라 할지라도 그에 적용된다고 해석하지 않는다. 더 어려운 문제는 우리가 보강된 정찰부대를 비무장지대로 보낼 경우에 이 조항이 적용되는가 여부인데, 그 정찰부대가 단지 휴전협정에 규정된 행동 그리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취해온 행동만 하는 것이라면, 나는 북한의 공세 수위가 높아질 전망 때문에 대통령의 의회 협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어떤 경우라도 [교전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와 [교전 발생이] 가능한 상황에서만 분명하게 협의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결의안은 다음 세 가지 상황에서 48시간 이내의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현재의 배치 계획과 관련될 수 있는 한 가지 조항은 4절 (a)(3)항 - “이미 외국에 주둔하고 있는 무장된 미합중국 군대를 상당히 증가시키는 규모”이다. 계획된 증강 규모가 실질적인 증강인지 여부는 현재 배치된 군대에 대한 분석과 추가로 배치되는 군대에 대한 분석에 좌우된다.

이미 존재하는 약 4만1천명의 병력에 미미한 규모의 병력이 더해지는 상황을 본 결 의안에서 제기하는 보고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나는 바람직하지 않는 선례를 남기는 것으로 생각한다. 비록 전술 공군기라는 면에서는 중요한 증강이 되겠지만 내 생각에 우리는 4절 (a)(3)항이 군사 장비가 아니라 군사 요원 숫자에 우선적으로 (전적으로가 아니라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확실히 출처정보는 “숫자”를 언급하고 있으며 입법과정상의 논의에서 제기된 예를 보면 오직 요원의 숫자만 거론되고 있다. 나는 이러한 해석이 합당하며 충분히 방어하기에 만족스러운 것으로 판단하며 이와 상반되는 해석은 앞으로 발생할 많은 경우에 우리를 괴롭히는 선례를 만들 것으로 판단한다.

■ 판문점 사건

- | | |
|--|---------------------|
| • 형태 : 문서(연설문) | • 일자 : 1976. 9. 1 |
| • 발신 : Arthur W. Hummel Jr.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 차관보 겸 대사) | • 수신 : 미 하원의회 |
| • 출처정보 : - | • 관리번호 : CTA0000795 |

의장,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 :

나는 이 소위원회에 출석하여 8월 18일 판문점 사건과 그 여파에 대하여 증언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에 감사드린다.

본 소위원회 위원들이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한반도에서는 1953년 이래로 휴전 대기 상태가 유지되어 왔다. 한반도에서의 적대행위를 야기한 정치적인 문제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폭 4 킬로미터의 비무장지대 양쪽 편에서 양측의 병력이 얼굴을 맞대고 있다. 지난 23년간의 휴전협정 상황에서 미국의 일관된 목표는 우리와 일본, 소련과 중화인민공화국 등 4대 강국의 이해가 맞물린 지역에서 새로운 교전상황의 발생을 예방하고 지역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었다. 한국의 안보는 동북아의 평화에 관건이며 주요 동맹국 일본의 안보와도 밀접한 관계에 있다.

북한은 한국전쟁의 종전 이후 오랜 기간을 통하여 자기네 방식대로 한반도를 통일하려는 목적을 포기하지 않았고, 무력 사용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간주한다. 북한은 남북을 가르는 모든 정치적 사안에 관하여 비타협적이며 항상적인 군사적 위협으로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비무장지대는 휴전협정 이래로 49명의 미국인과 1천명 이상의 한국인들의 목숨을 앗아갈 만큼 군사적 충돌이 빈번한, 심각한 긴장이 감도는 지역이다.

당연하게도 미국은 한국전쟁의 주요 참전국으로서 또 한반도에 걸린 중요한 이해관계와 1954년 대한민국과 맺은 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하여 한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지속적으로 병력을 유지하여 북한으로부터 새로운 공격을 억제하여 평화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여러분들은, 베트남 패망이후 한때 북한 측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우리의 의지와 1954년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대한민국의 안보를 보장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오관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이다. 우리의 안보 의지는 대통령과 키신저 장관, 그리고 다른 미 고위 관리들에 의하여 여러 차례 강력하게 표명된 바 있다. 미군과 한국군의 대비 태세와 함께 우리의 이러한 안보 의지가 북한의 새로운 도발을 계속 억제 하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우리는 중국이나 소련 어느 쪽도 북한이 한반도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행동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믿는다.

현재 한반도에는 한편으로 한국과 미국의 군사력과 다른 한편으로 북한의 군사력 간에 대략적인 군사적 균형이 존재한다. 한국으로부터 미국군을 철수시켜 이 균형을 깨뜨리는 것을 북한은 중요한 목표로 삼아왔다. 북한은 미군 철수를 반복해서 요구해 왔으며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미국 군대의 주둔이 이 지역에서 긴장을 유발시키는 원인으로 인식시켜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어내고자 노력해왔다.

8월 18일 사건 직전, 평양은 이 장기간의 캠페인을 대폭 강화하기 시작했다. 8월 5일 그들은 강한 어조로 미국과 한국을 공격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 성명에는 미국이 곧 북한에 전쟁을 개시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비망록이 첨부되어 있었다. 그 성명은 미국

이 전쟁 준비를 마쳤으며 이제 “직접 전쟁준비 국면에서 직접 전쟁도발 국면”으로 들어섰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성명은 미국이 대한민국으로부터 모든 군사 장비를 철수할 것, 그들이 말하는 “두개의 두 개의 한국” 정책을 포기 할 것, 유엔군 사령부를 해체할 것, 그리고 유엔의 깃발아래 있는 모든 외국군대를 철수시킬 것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북한 성명에 비추어 볼 때 성명에서 말하는 “유엔의 깃발아래 모든 외국군”이라는 구절은 한미간 쌍무협정에 따라 한국에 주둔중인 모든 미국 병력까지 포함하는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또 성명은 한반도의 통일이 오직 남북한 사람들 (Koreans)에 의한 민족회의를 통해서만이 성취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명에는 한국정부를 인정하는 내용이 없다. 또 성명은 소위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전쟁 도발 기도를 다른 나라들 역시 비난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이 성명은 콜롬보에서 비동맹국 정상 회담이 열리기 직전 이를 개최하는 비동맹 국가들의 반미 행동 중에 가장 절정에 다다른 행동의 하나이다. 8월 중순에 개최되었던 비동맹회의에서 우리가 알기로 북한은 매우 거친 반미 반한 표현을 담은 문안에 지지를 얻고자 했으며 그런 연후 그 문안을 유엔 총회에서 북한 지지 국가들과 함께 결의안을 상정하는 로비활동에 활용하려고 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작년 유엔 총회에서는 한반도와 관련하여 두 가지 상반된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하나는 북한을 지지하는 나라들이 상정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와 한국을 지지하는 나라들이 상정한 것이다. 우리가 알기로 북한은 올해 유엔 총회에서 자신들의 선전성 결의안이 채택되도록 하고 우리에게 우호적인 결의안이 부결되도록 함으로서 외교적 승리를 기록하고 대한민국을 고립시키고자 한다. 유엔 총회 상황과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다.

8월 18일 사건은 강화된 선전활동의 맥락 속에서 발생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 설명하기에 앞서 공동경비구역에 관해 몇 가지 설명을 하겠다. 이 곳은 비무장지대에 위치한 직경 800야드의 대략 원형을 이룬 지역으로서 군사정전위원회 회의가 개최되는 곳이다. 이 곳은 중립지역으로서 양측이 유지하고 순찰을 하는 곳이다. 이 지역에서는 양측이 각각 항상

35명의 무장 경비병을 배치할 수 있다. 좀더 많은 수의 비무장 노무요원의 배치는 허용된다. 구체적인 유지 작업이나 나무 가지치기와 같은 정지 작업은 사전 협의 없이 각기 진행해 왔다. 북한은 유엔군 사령관에게 욕설을 가하거나 때로는 물리적인 공격을 가하여 개별적으로 괴롭히는 등 공동경비구역 내에서 끊임없이 사건을 유발시켜 왔다. 1975년 유엔군 사령부 장교 한 사람이 땅바닥에 때려 눕혀진 후 발로 목을 걷어차여 중상을 입은 바 있다.

8월18일 사건과 관련된 나무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 나무의 무성한 가지가 유엔군 사령부 소속 두 경비초소 사이의 시야를 방해한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두 경비초소 중 하나는 ‘돌아오지 않는 다리’ 근처의 북측 경계선에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 만약 이 경비초소가 두 번째 경비초소에서 명료하게 관측되지 않을 경우 북측 요원으로부터 괴롭힘이나 공격을 당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따라서 그 장애물을 제거하기로 결정하였다.

8월 5일 노무반이 이 나무를 잘라버리기 위하여 군사분계선에서 유엔군 사령부쪽에 위치하고 있는 나무로 갔다. 북한군 경비병은 그 문제에 관하여 공식적인 항의를 제기 하지는 않았지만 그 나무를 그냥 남겨두라고 노무지들에게 말했다. 그 이후 나무를 잘라버리기 보다는 가지를 쳐내는 것으로 경비초소의 시야가 개선될 수 있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1976년 8월 18일 수요일 현지시간으로 10시 30분경 유엔군 사령부 산하 한국인 노무자 5명으로 구성된 노무반이 유엔군 사령부 장교 3명(2명의 미군과 1명의 한국군)과 7명의 보안군 병력의 동행을 받으며 판문점의 공동경비구역에 도착하였다. 그들의 목적은 일상적이고 위협적이지 않은 것이었다. 말 그대로 나무 가지치기가 목적이었다.

노무반이 작업을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명의 북한군 장교와 약 9명의 사병이 트럭을 타고 도착하였다. 그들은 진행 중인 작업에 관해 물었다. 그 나무를 자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지치기를 위한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북한군 육군 장교 한 사람은 “좋다”라고 말했다. 약 10-15분가량 가지치기 작업이 계속되는 동안 어떤 북한 군인은 나무 가

지치기를 어떻게 하는지 유엔군 사령부 산하 노무자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였다. 작업이 시작된 지 20분이 경과한 10시 50분경 북한군 장교 한 사람이 유엔군 사령부 장교에게 작업을 중단하라고 말했다. 짧은 토론이 있은 후 북한군 장교가 유엔군 사령부 장교를 위협하였다. 유엔군 사령부 장교는 노무자들에게 작업을 계속 하라고 말했다. 그러자 북한군 육군 장교는 한국 노무자들에게 작업을 중단할 것을 명령하였다. 유엔군 사령부 장교가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는 점을 밝히는 순간 북한군 육군 장교는 지원 병력을 부르기 위한 목적인 듯 다리 건너로 경비병을 보냈다. 몇 분이 지난 뒤 현장의 북한군 육군 경비병 수가 약 30명으로 증가하였다.

그 순간 북한군 육군 장교 한 사람이 손목시계를 풀러 손수건을 쓴 후에 주머니에 집어 넣었다. 다른 한 명은 옷소매를 걷어 올렸다. 장교 한 사람이 “죽여”라고 외치고 보니파스 장교를 가격해서는 땅으로 때려 넘어뜨렸다. 5명의 다른 북한군 육군 장교들이 보니파스 장교에게 달려들어 계속 그를 때렸다. 다른 북한군 육군 경비병들이 다른 유엔군 사령부 경비병들에게 달려들어 도끼와 곤봉으로 가격하였다. 유엔군 사령부측 증인은 북한군 육군 경비병들이 나무 가지치기를 할 때 사용했던 도끼 여럿을 집어 들었다고 보고하였다. 보니파스 대위는 바닥에 쓰러진 상태에서 도끼날의 등으로 얻어맞았다. 모든 유엔군 사령부 소속 요원들은 격투를 중단하고 현장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했으나 반복해서 얻어맞았다.

5분도 채 안 걸린 이 사건으로 인한 사상자를 보면 미군 장교 두 명이 살해되었고 4명의 미군 사병이 부상을 당했으며, 미군에 파견된 한국군 사병 4명도 부상을 당했다.

우리는 8월 18일 사건이 미군의 주둔으로 인해 한국 내에서 긴장이 고조된다는 북한의 선전활동 주제를 강조하기 위하여 북한이 의도적으로 야기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 사건에 연루된 북한군 요원의 숫자와 공격의 포악성 그리고 정전 23년 기간동안 한 번의 사망 사건도 발생한 적이 없었던 공동경비구역 내에서 피를 볼 준비를 한 사실은 모두 이 사건이 중대한 도발로 의도된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북한은 우리를 한 반도에서 전쟁을 추구하는 세력으로 묘사하고 이를 그들의 선전 활동에 집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을 일으키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또 이 사건은 우리가 보기에 전국 선거 캠페인 기간 중에 미국이 대한민국에 대한 안보 공약을 굳건히 지킬 것인지를 시험해보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야기되었다. 이는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우리의 목표를 위협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우리의 대응이 북한을 정신 차리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대응은 적절하게 계산된 것이었다. 우리의 군사 행동 - 오키나와의 F4 전폭기의 한국 이동배치, 아이다호의 F111 전폭기의 한국 이동 배치, 미드웨이 함대 기동부대의 급파, 그리고 테프콘 3으로 방위 경계 태세를 올리고 괌으로부터 B52 폭격기를 한국으로 매일 출격시킨 것 - 은 신속하고도 조정된 것이었다. 이러한 조치들은 우리가 이 지역에서 어떠한 위협에도 기꺼이 대응하기 위해 확고하게 행동할 수 있으며 그러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평양 측에 과시 하였다.

이러한 군사적 대응과 관련해서 나무 자르기 작전은, 정전 협정에 의거한 공동경비구역 내에서의 우리의 권리가 침해당할 경우 우리가 이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과 우리가 정전 협정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 구역에서 유엔 사령부 산하 요원들을 보호할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평양 측에 확실히 보여준 것이었다.

나무 자르기와 관련하여 몇 가지 더 말하겠다. 단지 나무를 베어버리기 위해 대규모적이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군사 행동을 취했다고 하는 비판적인 의견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그러한 군사력의 증강 배치는 평양으로 하여금 그들이 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대규모의 군사적 위협에도 우리가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취해진 예방 행동이었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그 나무 제거 작업은 공동경비구역 내에서 유엔군 사령부의 권리를 지키고 아울러 향후 유엔군 사령부 요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의도를 갖고 있었다.

평양은 우리의 군사적 대응과 나무 제거 작업으로 인해 분명하게 당황하였다. 이로 인해 그들은 병력을 이룬바 “전시 체제”로 재편하였으며 일정한 방어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우리 행동에 대하여 어떠한 군사적인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는 조짐도 보이지 않았다. 북

한군 경비병들은 공동경비구역 내에서 나무 제거 작업을 어떠한 방해도 하려하지 않은 채 지켜보았다. 몇 시간이 지난 후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전례 없이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하여 유엔군 사령부 대표 스틸웰 장군에게 8월 18일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유감의 뜻을 전하면서 이 구역에서 그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촉구하였다. 김 주석의 유화적인 메시지 내용은 특히 이전에 평양에서 발표하던 일상적인 수사법과 비교해보았을 때, 이 사건의 책임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이후 열린 정전협정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은 보통 때와 다르게 유순하고 사무적인 태도를 보였고 김일성의 유감 표명을 되풀이 하였다. 그들은 또한 공동경비구역 내의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판문점에서의 새로운 안전 조치를 제안 하였다.

유엔 사령부에서는 현재 그 제안을 검토 중에 있다 - 유엔 사령부는 1970년에 같은 제안을 한 바 있고 이제 북한이 이를 받아 다시 제안한 것이다. 이 계획 중에 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북한이 현재 군사분계선의 유엔 사령부측에 두고 있는 경비초소 4군데를 제거하는 문제가 될 것이다. 유엔군 사령부는 현재 군사분계선의 북한 측에 경비초소가 없는 상태이다.

우리는 이 사건으로 북한이 교훈을 얻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교훈이 오래 남을지는 확실치 않지만 한반도의 안보를 유지하고 정전협정을 준수하겠다는 우리의 결의를 평양이 분명하게 파악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또 북한은 8월 18일 사건과 유사한 사고가 다시 발생할 경우 우리의 대응으로 인하여 그들이 값비싼 대가를 치를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8월 18일 사건과 그 여파에 대한 국제적 반응은 물론 각국의 정향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이 사건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대응 조치에 광범위한 지지가 있었다.

소련과 중국 언론이 이 문제를 매우 신중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점이다. 그들은 제한된 보도만 했고 자체 논평을 피한 채 오직 북한 언론을 인용하는 보도로 제한

했다. 이것은 북한의 도발에 찬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우리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기를 꺼려한다는 뜻이 분명하다.

8월 18일 사건이 발생한 시기에 마지막 세션을 진행 중이던 비동맹회의가 한국에 관한 문안을 정하는데 이 사건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북한 측은 원하던 바대로 강경한 문안을 밀어붙이는데 성공하였다. 이는 대체로 문안 기초위원회가 북한을 지지하는 나라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국가들은 이 문안이 갖고 있는 일방성을 인식하게 되어, 비동맹회의에서 제기된 사안으로서의 처음으로 한반도 관련 정치 선언과 결의안의 문안을 두고 유보의견을 표명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유보 입장이 계속 제기되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입장을 취하는 나라의 명단을 확보하지는 못했으나, 총 숫자가 20-25개국에 이를 듯 보인다. 공동경비구역 내에서의 잔혹한 살인이 미국의 공격성이 아니라 북한의 호전성을 뒷받침해주는 증거로 간주되는 것이다.

또 이 사건과 그 여파가 유엔 총회에 상정된 한반도 관련 두 개의 결의안에 대한 표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현재로는 확실치 않다. 비록 우리가 북한과 북한을 지지하는 국가들이 제기하는 도전에는 언제든지 응대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한반도 문제로 다시 한번 단조로운 논쟁을 갖는 것을 우리와 대한민국 그리고 다른 많은 나라들은 피하고자 한다는 것을 올해 분명히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을 지지하는 국가들은 비동맹회의에서 한반도에 관한 논쟁을 끝내기도 전에 거칠고 비타협적인 결의안을 상정하였다. 이는 북한이 한반도에 관하여 진정한 비동맹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보다 그들의 견고한 입장을 유지하는데 더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 결의안은 8월 5일 북한 정부의 성명 내용을 대부분 채택하고 있는데, 유엔의 깃발 아래 있는 모든 외국 군대의 철수를 요구하고 있다. 북한은 작년에 이 표현의 뜻이 대한민국과 쌍무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의 모든 군대의 철수를 포함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현재 한국에 유엔의 깃발아래 주둔하는 군대는 300여명 뿐이며 그 중 250여명은 미군이다.

이 결의안은 또 대한민국으로부터 “새로운” 종류의 군사 장비의 철수와 이른바 긴장을 약화시키고 전쟁의 위협을 증대시키는 행위의 종식을 “요구”하고 있다. 그 결의안은 또한 유엔 사령부의 조건 없는 해체를 촉구하고 있다. 북한은 유엔군 사령부가 해체될 경우 정전협정은 무효화된다고 말한 바 있다. 정전협정은 평화를 유지하는데 당사국들을 구속하는 유일한 법률적 문서이다. 결의안은 또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평화 협정이란 미국과의 협약을 의미하는데 이는 한반도 인구의 2/3를 대표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참여를 배제한 채 미래 한반도의 안보 체제를 미국과 단독으로 협상을 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결의안은 나아가 “범민족회의”를 통한 통일을 “희망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여기에 대한민국 정부는 거론되어 있지 않다. 그 규정은 북한이 남북대화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또 1972년 남북 양측이 합의했다가 1973년 북한에 의해 무산된 전제조건 없는 남북대화를 대한민국이 반복해서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호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 결의안을 통하여 북한은 우리 동맹국인 한국의 고립을 시도하고 있으며, 미군의 철수를 앞당기고,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마땅한 대안적인 장치도 없이 기존의 법적 장치를 해체시키려고 하고 있다. 우리는 그러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한국의 참여 없는 한반도 안보 장치에 관한 협상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도전에 맞서기 위하여 미국과 다른 18개 국가들은 8월 20일, 남북한간에 대화를 재개하고 협상을 통하여 양측간에 존재하는 문제들의 해결책에 이르는 것을 촉구하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한반도 결의안을 발의하였다. 이 결의안은 양측이 자제력을 발휘하여 평화와 대화의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또 이 결의안은 남한과 북한 그리고 직접적인 관련국가로서 미국과 중국이 정전협정에 의거하여 유엔사령부의 해산을 가능케 하는 방안 또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좀더 영구적인 협정으로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방안에 대하여 조기에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 제안은 작년 미국과 한국이 유엔 총회에서 제기한 중요한 발의와 관련된 것이다. 1975년 9월 22일 키신저 장관은 한국에서의 긴장완화와 정전협정의 유지를 위한 방안을 미국과 한국 그리고 직접적인 관련 당사자로서 중국, 북한이 논의하자고 제안하였다. 우리는

그러한 회의에서 평화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보다 기본적인 장치에 관해 협상하는 확대된 회의의 개최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제안은 북한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76년 7월 22일 연설을 통하여 키신저 장관이 같은 제안을 반복한 이후인 8월 5일 북한은 성명을 통해 이를 거부하였다.

한반도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분명하다.

- 우리는 1972년에 쌍방이 합의를 하였으나 북한 측에서 무산시킨 남북간의 진지한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
- 만약 북한 동맹국들이 남한과 관계를 개선한다면 우리도 북한에 대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
- 우리는 유엔이 한반도 통일에 대한 판단과 무관하게 남북한 양측을 정식 회원국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계속 지지한다.
- 그리고 우리는 정전체제에 새로운 기초를 마련하거나 이를 관련 당사국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보다 영구적인 체제로 대체하는 사안에 대하여 기꺼이 협상할 것이다.

북한의 비타협적인 태도의 결과로 우리는 유엔 총회에서 다시 한번 어렵고 소모적인 대결에 직면할 것이며, 그 대립은 논쟁적이고 비생산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본인이 말한 것처럼 유엔 총회에서의 대결에 8월 18일 사건이 어떤 결과를 미쳤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우리는 미국이 곧 북한에 전쟁을 시작할 것이라는 주장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국가는 거의 없다고 본다. 북한의 전형적인 선전활동, 그리고 이번 북한의 공격에서 나타난 잔혹성과 우리 측의 절제된 대응 및 이후 평양 측의 후퇴로부터 비동맹 국가들 중 일부는 북한의 완고한 입장을 지지하는 것이 생산적이지 않고 오히려 긴장을 높일 수 있다고 믿게 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또한 비동맹국들 중 다수가 남북한이 직접 대화를 재개하지 않는다면 한반도 문제에 진전이 있을 수 없으며 북한이 대한민국 정부와의 대화를 거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자멸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앞에서 언급한 비동맹회의에서 제기된 한반도 사안의 문안에 대한 유보 의견 표명은 우리의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해 준다.

8월 18일 사건에 대하여 우리가 확고하고 분별 있는 대응을 취함으로써 우리가 어떠한 공격도 물리칠 각오가 되어있다는 것을 북한 측에 과시하였다.

우리는 8월 18일 사건이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 규모와 관련하여 새로운 결정을 내릴 만큼 영향을 미쳤다고 보지 않는다. 4월 8일에 열렸던 상원 외교위원회 산하 대외지원경제 정책 소위원회 회의에서 당시 국방부 차관보였던 하비브는 “한국에서의 우리 군사력의 특별한 규모는 불변이다. 이는 북한의 위협과 대한민국의 군대가 이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지배적인 국제상황에 따른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비브씨는 덧붙여서 우리가 이 지역에서 계속 주둔함으로써 안보 공약을 준수할 것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에서 미군을 감축시킬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8월 18일 사건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우리가 안보 공약을 준수할 것이라는 점을 과시하였다.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한 대응에서 확고부동함을 보여줌으로써 결국 북한은 자기 방식대로 한반도의 통일을 추구하는 비타협적 입장에 대하여 재고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반면에 미국과 한국은 대결보다는 협상의 방법을 통하여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보다 영구적인 안보 장치를 구축하는 것을 추구할 예정이다.

■ 박대통령으로부터 온 서신

- 형태 : 비망록
- 일자 : 1976.9.21
- 발신 : C. Arthur Borg(사무처장)
- 수신 : Brent Scowcroft(백악관 군사보좌관)
- 출처정보 : DEPARTMENT OF STATE S/S 7619814
- 관리번호 : CTA0000691

첨부한 것(표1)은 박정희 대통령이 포드 대통령께 보낸 서신입니다. 이 서신은 8월 18일 판문점 사건과 관련하여 박대통령에 보낸 포드 대통령의 교서에 대한 회답 안에 있습니다. 박대통령의 서신에 대한 회답은 필요없습니다.

사무처장 아서 보그(C. Arthur Borg)

첨부물 : 표1-박대통령의 서신, 표2-State 220659

■ [판문점 사건에 대한 공동 대응]

- | | |
|---|---------------------|
| • 형태 : 편지 | • 일자 : 1976.9.23 |
| • 발신 : Roland L. Elliott(대통령 연락담당 특별 보좌관) | • 수신 : 김용태(공화당 대표) |
| • 출처정보 : DEPARTMENT OF STATE 521 | • 관리번호 : CTA0000701 |

김용태 귀하 :

대통령의 요청으로 귀하가 8월 24일 보낸 편지에 이렇게 답신을 보내면서, 판문점에서 발생했던 두 명의 미군 장교의 비극적인 사망에 대해 귀하가 애도를 표한데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우리는 8월 18일 사건에 대하여 양국이 신속하게 공동 대응을 취함으로써 한반도에서 평화를 유지하고 군사정전협정의 규정을 지키며 북한 역시 이를 지키도록 하겠다는 우리의 결의를 과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최근 판문점에서 적용되기 시작한 새로운 안전 조치가 앞으로 그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를 희망합니다.

귀하가 공화당 전당대회의 결과를 축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롤랜드 R. 엘리엇 연락 국장

수신 : 김용태 국회 다수당 대표

C.P.O. Box 846 Seoul, Korea

제4부

1970년대 한미관계(하)

백악관 파일

(The White House)



■ 한국의 최근 상황 전개에 관한 선언

- 형태 : 전문
- 일자 : 1974.5.4
- 발신 : 미국 감리교 연합 국제 선교사 위원회
- 수신 : -
- 출처정보 : Board of Global Ministries,
The United Methodist Church
- 관리번호 : CTA0000782

미국 감리교 연합 국제 선교사 위원회는 한국의 경제 발전 성공에 관한 보고를 듣고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인들이 이룬 이 긍정적인 성취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우리의 선교 임무, 재정 지원, 그리고 우리의 관심과 기도를 공유함으로써 한국에서 인간의 존엄성의 개선을 계속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벌어진 최근의 정치적 사건들에 관한 놀랄 만한 뉴스들은 우리에게 심각한 우려를 낳았습니다. 우리는 1972년 11월의 계엄령 하에서 강압적으로 채택된 새 헌법과 새 헌법에 대한 어떤 논의도, 긴급 조치에 대한 어떤 질문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군사재판을 통해 15년 형까지 구속 판결을 내리거나 모든 시민권을 박탈하는 1974년 1월 8일의 긴급 조치들에서 명백하게 드러난 현 한국 정부의 전체주의적이고 독재적인 정책들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성직자들과 지도자들을 비롯해 한국인들이 새 헌법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축소했다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하고 협박을 당하고 잔혹하게 심문을 당하며 구속되고 장기 수감되고 있는 것에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자유와 정의를 요구하는 시위에 참가한 사람은 사형 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는 1974년 4월 3일의 한국 대통령의 선언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기본적인 인권을 부인하며 한국민들에게 굴종이나 폭력이나 사이에서 양자택일하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자유 결핍과 전체주의에 당혹스러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또한 한국에서 최근 똑같은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는 경향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1973년 11월 한국의 전국교회협의회(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가 이서한 인권 선언(the Statement of Human Rights)과 한국 국민과 국가의 업무에 기독교적인 시각을 도입하려는 열망으로 신뢰할 수 있는 기독교 공동체들이 만든 유사한 다른 선언들을 격찬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한국 기독교인들이 취한 예언자다운, 그리고 영웅적인

태도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우리는 한국 교회들과 한국 교인들에게 억압에서 정의와 해방을 구하는 그들의 투쟁에 대한 우리의 지속적인 연대와 지지를 맹세합니다.

우리는 리처드 M. 닉슨(Richard M. Nixon) 미국 대통령과 헨리 키신저 국무장관에게 한국 현정부의 독재를 미국 정부가 탐탁치 않아 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우리는 박정희 한국 대통령이 이러한 잔혹한 행위들을 금지시키고 긴급 조치 하에서 수감된 사람들의 형을 감형하고 구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석방하고 모든 한국민들에게 시민의 권리와 종교적 자유를 보장해 줄 것을 호소합니다.

우리는 미국 감리교 연합에 모든 가능한 미디어가 이 선언을 공유해 줄 것을 지시하며 관련 기도와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이를 지지하고 추진해 줄 것을 교회 멤버들에게 촉구합니다.

- (1) 한국의 전국교회협의회와 이 투쟁에 나선 다른 기독교 그룹들에 대한 지지 메시지
- (2) 한국 감리교회에 보내는 배려의 메시지
- (3) 미국 의회 지도자들에게 보내는 우려의 메시지
- (4) 리처드 M. 닉슨 대통령과 헨리 키신저 국무장관에 보내는 호소의 메시지
- (5)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과 함평춘(Hahm, Pyong-choon) 대사(워싱턴 D.C.)에게 보내는 항의 메시지

우리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부당하고 잔혹한 행위들에 지지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미국의 개입, 미국의 협력, 그리고 한국의 미국 감리교 연합에 관해 재검토가 이루어질 것을 지시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 모든 한국민들을 억압에서 해방시키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우리의 결의를 새롭게 합니다.

트레이시 K. 존스 주니어(Tracey K. Jones, Jr.)
국제선교사위원회 사무총장(General Secretary, Board of Global Ministries)

폴 A. 와시번(Paul A. Washburn) 주교
국제선교사위원회 회장(President, Board of Global Ministries)

위의 선언은 1974년 5월 4일 총회에서 국제선교사위원회에 의해 채택되었습니다.

■ [백악관 출입기자증 발급 요청]

- 형태 : 편지
- 일자 : 1974.7.8
- 발신 : Jann Warner(롤링스톤 편집국장)
- 수신 : Warren S. Rustand(대통령 약속 담당 보좌관)
- 출처정보 : DEPARTMENT OF DEFENSE
- 관리번호 : CTA0000616

워런씨께

롤링스톤 잡지사가 펜실베이니아 애비뉴 1700번지에 워싱턴 보도국을 열었습니다. 백악관 취재 보도국장으로는 리처드 굿윈씨가 임명되었습니다.

굿윈씨는 정기적으로 상세하게 백악관을 취재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백악관 출입기자증이 필요합니다. 굿윈씨는 이미 양원출입기자증을 가지고 있고 워싱턴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백악관 출입기자증을 받았으면 합니다.

편집국장 Jann Warner

제럴드 워렌 부 공보담당관
백악관

■ 하비브 대사에게 전달하는 대통령의 위로 전문

- 형태 : 전문
- 일자 : 1974.8.15
- 발신 : 워싱턴 백악관
- 수신 : 주한 미대사
- 출처정보 : DEPARTMENT OF STATE 4038
- 관리번호 : CTA0000709

박정희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은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하십시오.

내용 : “나와 내 처는 당신의 사랑스런 아내가 죽었다는 비극적인 소식에 충격을 받았

습니다. 나와 미국 국민은 훌륭하고 품위 있는 부인의 이른 죽음에 가슴에서 우러나는 조의를 표합니다. 이 슬픔의 순간에 우리는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럴드 R. 포드”, 키신저

■ 박정희 대통령에게 전하는 위로 전문

- 형태 : 전문
- 발신 : 워싱턴 백악관
- 출처정보 : THE WHITE HOUSE
- 일자 : 1974.8.16
- 수신 : 박정희(한국 대통령)
- 관리번호 : CTA0000709

친애하는 박대통령에게

부인이 사망했다는 소식에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아름답고 우아한 숙녀였으며 당신이 한국을 이끌어가는데 있어 훌륭한 동반자였습니다. 당신이 고통을 느끼고 있는 이 시간에 나는 당신과 당신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 특별보좌관 존 E. 니데커(John E. Nidecker)

■ [제임스 로리 신상 자료]

- 형태 : 문서
- 발신 : 제임스 로리
- 출처정보 : 포드기록관 백악관자료
- 일자 : 1974.8.20(추정)
- 수신 : Ron Nessen(대통령 언론 담당 보좌관)
- 관리번호 : CTA0000616

극동 경제 리뷰에 참석하기 위한 백악관 출입기자증을 신청한 제임스 로리에 관한 개인 데이터

제임스 앤드류 로리
1809 20th Street N.W.
Washington D.C. 20009
Tel: (202) 667-3952

국적 : 미국인 미국 여권 번호 K 1467919 발행일자 1969, 8 29
출생일자; 1947, 6, 16 플로리다

다른 허가장 : 미국 국무부 74년 8월 2일 1137 출입허가증
미국 기자 연합회 164 출입허가증
1974년 양월 정기 국회 방청석 허가증

최근 기자경력 : 1969 12월-1973 12월 아시아지역 기자(일본, 홍콩,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인도)
1972년 12월- 1972 8월 미국 방송국 근무 ,베트남

■ [백악관 출입기자증 신청]

- 형태 : 편지
- 일자 : 1974.8.20
- 발신 : 제임스 로리(기자)
- 수신 : 제러드 테오스트(백악관 공보 담당관)
- 출처정보 : -
- 관리번호 : CTA0000616

제러드 테오스트 백악관 공보 담당관님께

이 편지는 극동 경제 리뷰에 기자로 참석하기 위한 백악관 출입기자증을 신청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의 잡지는 아시아 경제, 사업이나 정치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주간지입니다. 그래서 포드 정부의 새로운 외교 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 경제 분야에서의 포드 행정부의 활동이나 이번 해 말에 있을 극동지역 순방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임 대통령이 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백악관 출입 기자만이 제공할 수 있는 시각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낍니다.

백악관 출입기자증을 빠른 시일 내에 내주시는데 협조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임스 로리

■ [평화조약에 대한 지원 요청]

- 형태 : 편지
- 발신 : Raymond J. Nolte
- 출처정보 : 포드기록관 백악관자료
- 일자 : 1974.9.20
- 수신 : Frank M. Clark(하원의원)
- 관리번호 : CTA0000707

친애하는 프랭크(Frank)씨께

저는 한반도의 평화 조약이 갖는 몇 가지 유익한 효과를 얻는데 있어 당신의 도움을 구하고자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1974년 3월 25일 미국의 하원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으로부터 이 조약을 위해 절제된 타당성 있는 제안들을 제시한 전례에 없는 편지 한통을 받았습니니다. (의회 기록 1974년 4월 9일자 2245페이지를 보십시오)

지금까지는 그 편지에 대한 어떤 응답도 없었습니다. 뉴욕 스위트 809 5번째 애비뉴 160번지(160 Fifth Ave. Suite 809, New York 10010)에 있는 American-Korean Friendship and Information Center는 이 조약과 관련한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정보를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조약은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고, 특히 미국 국민들이 평화를 갈구하고 있는 때에 시기적절하며, 그것으로부터 많은 이득, 특히 경제적인 이득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군비감축으로 인한 절약과 무역 재개로 창출될 필요한 많은 일자리들은 매우 환영할 만한 것들입니다.

저는 당신께서 이 제안을 호의적인 시각으로 봐주시길 바라며, 이 제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당신이 평화의 이익과 평화에 대한 갈구의 부족으로 불필요한 군비 지출이 야기하는 무거운 세금 부담을 줄이는 출발이 되는 이 길을 몹시 추구하고 있는 다른 의원님들의 숫자에 놀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상원의원이신 슈바이커(Schweiker)씨와 스콧트(Scott)씨에게도 이 편지의 사본을 보내드렸으니 상원에서도 비슷한 행동을 취해주시도록 그들에게 전화를 걸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심어린 마음으로
레이먼드 놀테(Raymond J. Nolte)

함께 받는 이 - 휴 스콧트(Hugh Scott)씨와 리차드 슈바이커(Richard Schweiker)씨

■ [대통령의 방한기간 중 서강대학교 평화봉사단 학생들과의 만남을 요청]

- 형태 : 편지
- 일자 : 1974.9.21
- 발신 : Louis Spaventa(서강대학교 평화봉사단)
- 수신 : Warren S. Rustand(대통령 약속 담당 보좌관)
- 출처정보 : IPO Box 1142
- 관리번호 : CTA0000783

포드 대통령 각하:

저희는 한국 서울의 대학들에서 일하고 있는 평화봉사단 자원봉사자(Peace Corps Volunteers) 그룹입니다. 저희는 각하께서 11월 22일 한국에 오실 계획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각하를 환영하고 각하께서 바쁜 스케줄 중에서 시간을 내서 국제 화합 운동을 위해 일하고 있는 각하의 동포들을 만나주실 수 있다면 서울 구경을 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어떤 나라의 고위 관리 방문단이 이 나라나 혹은 다른 어떤 나라를 방문할 때 그 국민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실제로 체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여행의 본질은 사업적인 것이거나 형식적인 것 중의 하나입니다. 저희는 각하께서 저희가 살고 일하는 곳에서 저희를 만나주심으로써 이 여행을 조금 특별한 것으로 만들어주시기를 희망합니다. 한국에는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보건 센터에서, 일부는 중학교에서, 일부는 대학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들 모두를 대표하기를 희망할 수는 없지만 각하께서 저희를 만나주신다면 이는 평화봉사단 자원봉사자들과 평화봉사단원들의 성격과 일의 특성에 대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중관료체제의 시대에 이 시스템 내에서 효과적으로 일하는 기관들은 정말이지 얼마 없습니다. 평화봉사단은 지도자들로부터 현명한 지도를 받는다는 점을 볼 때 진정으로 이들 중 하나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드 대통령 각하, 저희는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 각하께서 힘을 불어넣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만 해도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감정들이 좋은 방향으로 변해왔습니다. 저와 저의 동료 자원봉사자들은 평화봉사단이 국제 협력을 위한 하나의 기구와 수단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아마도 저희와 잠시 동안 이야기를 나눌 시간을 넘으로써 각하께서는 이 꿈을 함께 실현시

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각하께서 무사히 도착하셔서 성과있는 여행을 하시기를 바라며.

Respectfully,[서명들]

미국 한국 평화봉사단

■ [기자초청연회에 대한 답신]

- | | |
|--|---------------------|
| • 형태 : 편지 | • 일자 : 1974.9.25 |
| • 발신 : Andrew T. Falkiewicz(백악관 부 공보담당관) | • 수신 : 김영희(중앙일보 기자) |
| • 출처정보 : - | • 관리번호 : CTA0000616 |

김영희 기자님

일본, 한국 순방 중인 대통령 각하와 기자초청연회에 참석할 의향을 밝힌 9월 20일 편지 감사합니다. 일정이 잡히는 대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백악관 부 공보담당관
Andrew T. Falkiewicz

김영희 중앙일보 기자

■ [대통령의 방한 환영]

- | | |
|-------------------------|------------------------|
| • 형태 : 편지 | • 일자 : 1974.9.25 |
| • 발신 : 김용태(한국 공화당 원내총무) | • 수신 : Jerry Ford(대통령) |
| • 출처정보 : Yong-tae Kim | • 관리번호 : CTA0000786 |

대통령 각하 :

우리 두 나라 사이의 전통적인 우호관계가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이 시기에, 그리고 우리나라가 여전히 한반도 내외의 수많은 문제들과 도전들에 직면해 있는 이 시기에, 각하께서 11월에 이 나라를 방문하시기로 하셨다는 소식을 들으니 진심으로 격려가 됩니다.

각하와 각하의 일행의 한국 방문은 미국과 한국 사이의 기존의 강력한 협력 관계를 더욱 우세하게 확고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각하, 각하의 방문은 전통적으로 먼 곳에서 오는 손님들, 특히 미국에서 온 손님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맞는 저희 전 한국인들은 진심으로 환영할 것입니다.

각하의 방문을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Most sincerely,

김용태, 국회 조정위원회 위원장

(Chairman, House Steering Committee, National Assembly)

제럴드 R. 포드 미국 대통령

워싱턴 D.C. U.S.A

■ [줄리 문의 일본, 한국 순방명단에 관한 전화]

- | | |
|--------------------------|---------------------|
| • 형태 : 비망록(메모) | • 일자 : 1974.10(추정) |
| • 발신 : - | • 수신 : - |
| • 출처정보 : THE WHITE HOUSE | • 관리번호 : CTA0000616 |

금요일 오후에 줄리 문의 전화했습니다. 그녀는 토요일에 당신과 통화할 것이라고 했지만 저는 토요일에 당신이 사무실에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통화하려고 했던 이유는 일본, 한국순방에 함께 할 명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뉴욕에 있는 슈칸 신코(SHUKAN SHINCHO)의 카와바타씨도 도쿄 순방에 동행할 것입니다. 그녀는 그가 유엔이나 다른 어떤 곳에서도 허가받지 못한 그가 동행하게 된 데 화난 상태입니다.

(이 문서는 우리 USIA 디렉토리에 있습니다; 뉴욕에 갈 4명의 인원이 있습니다.)

■ [취재 요청]

- | | |
|-------------------------|----------------------------------|
| • 형태 : 편지 | • 일자 : 1974.10(추정) |
| • 발신 : Ed Hodges(기자) | • 수신 : Ron Nessen(대통령 언론 담당 보좌관) |
| • 출처정보 : THE DURHAM SUN | • 관리번호 : CTA0000616 |

론 네슨씨께

11월 22-24일 포드대통령의 일본, 한국, 러시아 순방을 저희 신문에서 취재하고 싶습니다.

저는 닉슨대통령의 러시아순방을 덜힘 모닝 신문 기자신분으로 취재한 바 있으며 그 때 러시아에 대해 쓴 기사에 독자들의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가능한 빠른 시일에 제가 기자전용기에 남은 좌석이 있는지를 알려주시면 제가 필요한 절차를 밟겠습니다.

이런 역사적으로 중요한 순방길에 동행한다면 노스 캐롤라이나 주민들에게 대통령에 대한 좋은 기사를 쓸 수 있을 것입니다.

협조 감사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답장 기다리겠습니다.

호지스

■ [대통령의 순방 취재 요청]

- | | |
|----------------------|----------------------------------|
| • 형태 : 편지 | • 일자 : 1974.10(추정) |
| • 발신 : 마우로 루센티니 | • 수신 : Ron Nessen(대통령 언론 담당 보좌관) |
| • 출처정보 : il Giornale | • 관리번호 : CTA0000616 |

백악관 공보담당관 로널드 네슨씨께

이탈리아의 밀란 일간지의 미국 특파원으로서 1974년 12월 14-16 대통령의 마티니끄 순방과 1974년 12월 18-23일 일본 및 기타국가 순방을 취재하고 싶습니다.

교통, 비자나 백악관 출입기자증을 포함해서 백악관 기자초청연회에 참석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저희 신문의 유일한 미국 특파원입니다. 저는 유엔과 뉴욕에 있는 미정부기관에 여러해 동안 출입했던 기자입니다. 이탈리아 여권을 소지하고 있으며, 사회보장번호는 078 38 6258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우로 루센티니

출생일자, 출생지 : 로마 1924년 10월 23일

여권(이탈리아) : 9104564 P

■ [대통령의 방한기간 중 초대 건]

- | | |
|--|---|
| • 형태 : 편지 | • 일자 : 1974.10(추정) |
| • 발신 : Nicholas P. Retson
(주한미군 법무관 대위) | • 수신 : Warren S. Rustand
(대통령 약속 담당 보좌관) |
| • 출처정보 : THE WHITE HOUSE | • 관리번호 : CTA0000783 |

대통령 각하 :

각하께서 박 대통령을 만나러 이번에 11월에 한국에 도착하실 때쯤이면 저희는 이곳에 반년 이상 있는 것이 됩니다. 저희 두 사람은 많은 한국인을 만나고 여러 곳을 다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각하께서 방문하신 기간 한번 각하를 개인적으로 저녁 식사에 초대하여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저희의 견해를 각하와 논의하고 싶습니다.

이번 일본과 한국 여행에 행운을 빕니다.

니콜라스 P. 랫슨 대위

미 육군 제4사단 미사일 부대 법무관(Judge Advocate General Corp, 4th US Army
Missile Command)
APO San Francisco 96208

마틴 A. 멀홀랜드 수석 중위(Martin A. Mulholland 1st Lieutenant)

미 육군 제4사단 미사일 부대 통신부대(Signal Corp, 4th US Army Missile Command)
APO San Francisco 96208

■ [어머니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요청]

- | | |
|------------------|------------------------|
| • 형태 : 편지 | • 일자 : 1974.10.1 |
| • 발신 : Nancy Han | • 수신 : Jerry Ford(대통령) |
| • 출처정보 : - | • 관리번호 : CTA0000782 |

포드 대통령 각하,

저의 이름은 낸시 한입니다. 저는 노스 베테스다(North Bethesda) 중학교 7학년에 다닙니다. 우선 저는 저희 이웃에 위치한 해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신 포드 여사께서 곧 회복되시기를 희망합니다.

뉴스에 따르면, 각하께서는 이달 말 일본과 한국을 방문하신다고 합니다. 저의 어머니는 치료를 위해 병원에 가야만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병원에 가실 수도 있지만 여기 병원은 너무 너무 비싸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쭙보려는 질문은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의 어머니가 각하의 커다란 비행기에 저의 어머니를 위한 충분한 공간이 있다면 그 비행기에 각하와 함께 타고 한국에 가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우리는 한국인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미국 시민으로 귀화했습니다. 저는 각하의 답을 듣고 싶습니다. 제발 저의 편지에 답을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Love, Nancy Han

■ [대통령 방한 시 통역을 제안]

- | | |
|----------------------------|----------------------------------|
| • 형태 : 편지 | • 일자 : 1974.10.1 |
| • 발신 : 정경조(방위 전문어 연구소 한국부) | • 수신 : Ron Nessen(대통령 언론 담당 보좌관) |
| • 출처정보 : - | • 관리번호 : CTA0000782 |

네슨 씨에게 :

포드 대통령에게 한국 음식을 소개해주신 것에 대해 진심어린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는 한국일보에 나온 네슨 부인에 관한 뉴스 클립을 보냅니다.

포드 대통령이 올 11월 서울을 방문하실 예정이기 때문에, 저는 뉴욕타임스 논설란에 나온 저의 기사와 함께 저는 참고로 맥밀란(Macmillan)에서 출판된 제 책 <한국: 제3공화국 (Korea: The Third Republic)> 한권에 자필 서명을 해서 선물하고자 합니다.

저는 1951년부터 방위 전문어 연구소 한국 담당 부서의 교수로 한국에서 근무할 미군 들에게 한국 언어와 한국 사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포드 대통령이 한국 방문 기간 한국어 통역이 필요하지 않은지 알려 주십시오. 저는 한국어에 능통한 어학자로서 그를 위해 기꺼이 일하고 싶습니다.(저는 미국 시민이며 미 육군 민간 공무원(an Army civil service employee)입니다.)

포드 대통령과 네슨 여사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귀하의 지속적인 성공과 행복을 기원하며.

Very respectfully,

정경조, 방위 전문어 연구소 한국 담당부

■ [대통령의 방한 기간 중 서울 소년의 집에 초청]

- | | |
|---------------------|------------------------|
| • 형태 : 편지 | • 일자 : 1974.10.1 |
| • 발신 : Schwartz(신부) | • 수신 : Jerry Ford(대통령) |
| • 출처정보 : - | • 관리번호 : CTA0000783 |

대통령 각하 :

저는 1957년부터 한국에서 구제 역할을 해온 미국 신부입니다.

지난해 서울 시장의 요청으로 저는 서울의 거리에 버려진 소년들을 위한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보이스타운(Boystown of Seoul)”이라 불리게 될 이 건물은 약 100만 달러의 비용으로 11월 말이면 공사가 끝나게 됩니다. 공사가 끝나고 나면 약 800명의 거리의 소년들을 수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부산에서도 부산의 집없는, 고아 소년들 850명에게 집과 교육을 제공하는 보이스타운을 지어서 운영했던 바가 있습니다.

서울의 새로운 보이스타운은 11월 22일 각하께서 한국을 방문하실 즈음이면 개관 준비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 각하, 저는 그래서 각하께서 편하신 시간에 약 15분 가량의 짧은 행사인, 리본 컷팅 행사를 각하께서 진행해 주시기를 초청하며 이 편지를 씁니다. 보이스타운은 서울 시내 청와대에서 약 10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각하의 시간은 총 35분 미만일 것입니다.

대통령 각하, 각하께서 이 초청을 받아들으신다면 어떤 점이 좋을지 제가 생각하는 이유를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이것은 거리로 쫓겨나 지금껏 쓰레기 취급을 받아온 아이들에게 베풀어주는 아주 동정적이고 기독교인다운 행동이 될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의 방문을 받는다면 아이들의 자신감과 자기 존중심이 높아질 것입니다. 2) 고귀하고 위대한 사람들의 세계를 떠나 대통령께서 잠시 미천한 사람들과 얼마간의 시간을 보내신다면 한국 언론들이 대통령 각하를 아주 열광적으로 칭송할 것입니다. 3) 이러한 행동은 또한 한국에서 사회봉사를 하고 있는 수천명의 미국 자원봉사자들과 이 활동을 지원하는 미국의 수백만의 사람들도 아주 애정어리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대통령 각하, 각하께서 이 초청을 받아들으신다면 이 프로젝트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위해 워싱턴 외곽의 미국 사무소에 있는 직원들 중 한 명에게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윌리엄 비타(William Vita), Korean Relief, 3827 34th Street, Mt. Rainier, Maryland 20822, te. 277-2343)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행운을 빕니다.

Respectfully yours,

알로이시우스 슈바르츠 신부(Rev. Aloysius Schwartz)

Director, Korean Relief.

동봉 : 사진과 리플렛

■ [대통령 방한 시 프리젠테이션 요청]

- | | |
|--|---|
| • 형태 : 편지 | • 일자 : 1974.10.2 |
| • 발신 : R. Gordon Hoxie(중앙대학교 미국친우회 대표) | • 수신 : Warren S. Rustand(대통령 약속 담당 보좌관) |
| • 출처정보 : R. Gordon Hoxie | • 관리번호 : CTA0000782 |

워렌에게 :

지난 9월 28일 토요일에 했던 메리 롤린스(Mary Rawlins)와의 전화 통화에서 그녀는 친절하게 대통령의 한국 방문 계획이 공식화되어 감에 따라 저의 이 나라와의 오랜 특별한 관계에 귀하가 주목하기 시작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워렌, 한국에 있는 저의 친구들 중에는 박정희 대통령, 김종필 국무총리, 김동조 외무장관, 김영식 통일부장관, 정일권 국회의장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예롭게도 저는 현 국무총리와 그의 바로 전임자 모두에게 명예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메리 롤린스는 저에게 박 대통령이 뉴욕에 왔을 때 존 D. 록펠러(John D. Rockefeller)가 마련한 월도르프(the Waldorf) 만찬에서 박 대통령과 함께 연단에 앉았을 뿐만 아니라 더욱 의미심장하게는 데이비드 록펠러(David Rockefeller)가 그를 위해 니커보커 클럽(the Knickerbocker Club)에서 마련한 소규모 남성들만의 만찬에서 그의 바로 건너편에 앉았었다는 사실을 귀하에게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김 국무총리와 저의 우정은 그의 식당에 저의 사진이 걸려있다는 점에서 잘 드러날 것입니다. 여기 저는 그가 저의 집을 찾았던 방문들 중의 하나에 관한 신문 보도를 동봉했습니다.

워렌, 저는 포드 대통령이 한국 지도자들과 오랜 우정을 나눠주신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의 이번 한국 친선 방문에 제가 어떻게든 기여할 수 있다면 너무나도 영광이겠습니다. 이에 관해서 귀하께서 저에게 조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10월 22일 화요일에 하루 종일 워싱턴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귀하와 한국 여행에 관해 논의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워렌, 9월 25일자 편지에서 귀하는 친절하게 제가 동봉한 책 소개에 나와 있는 두 권의 책에 관해 대통령에게 간단하게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었습니다. 10월 22일에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을까요?

Warm regards,
Sincerely yours,
R. 고든 호시

■ [대통령에게 중앙대학교 명예학위 수여]

- | | |
|--|---|
| • 형태 : 편지 | • 일자 : 1974.10.2 |
| • 발신 : R. Gordon Hoxie(중앙대학교 미국친우회 대표) | • 수신 : Warren S. Rustand(대통령 약속 담당 보좌관) |
| • 출처정보 : R. Gordon Hoxie | • 관리번호 : CTA0000782 |

워렌에게 :

대통령 약속 담당 보좌관이라는 자리를 맡게 된 것에 대해 축하드립니다.

지난 9월 28일 토요일의 메리 롤린스와의 전화 통화를 확인하면서 저는 여기 귀하를 통해 대통령에게 대통령께서 11월의 한국 방문 기간 동안 중앙 대학교에서 수여하는 명예 법학 박사 학위(the honorary degree of Doctor of Laws)를 받고 그를 축하하기 위해 열리는 특별 회의에서 연설을 해주시기를 요청하는 초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극동 지역에서 주요 고등교육 센터 중의 하나인 중앙대학교는 한국의 초대 통상부 장관(the first minister of Commerce)이었으며 한국의 첫 번째 유엔 임무를 인솔했던 저명한 루이스 임 박사(Dr. Louise Yim)가 이끌고 있습니다. 임 박사에게서 이 학위를 받으심으로써, 포드 대통령은 이에 덧붙여 56년 전에 이 대학을 설립한 임 박사에 의해 체현된 극동 지역 여성들의 영예가 될 것입니다.

현재 저는 십여년 이상 전 수출입은행(the Export-Import Bank) 회장이었던 헨리 컨스(Henry Kearns) 씨가 회장(chairman)으로 있는 중앙대학교 미국 친우회(the American Friends)의 대표(president)의 영예를 안아왔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the Federal Reserve Board) 회장인 아서 F. 번스(Arthur F. Burns) 박사도 저희 이사회 동료 멤버입니다.

중앙대학교는 사립대학이지만 한국 정부와 중심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필 국무총리도 저희 명예 학생이며 저와 마찬가지로 중앙의 주요 회의에서 연설을 하셨습니다.

미국 친우회 대표로서, 저는 대학 총장(chancellor) 루이스 임 박사와 총장(president)

임철순 박사의 공식 초대장을 귀하나 포드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다면 기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귀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Sincerely yours,

R. 고든 후시

■ [레이몬드 놀테의 편지]

- | | |
|--|---------------------|
| • 형태 : 편지 | • 일자 : 1974.10.4 |
| • 발신 : Frank M. Clark(하원의원) | • 수신 : 워싱턴 백악관 |
| • 출처정보 :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 • 관리번호 : CTA0000707 |

친애하는 대통령각하께

저의 지지자들 중 한명인 펜실바니아 뉴캐슬 브룩클린 애비뉴 712번지(712 Brooklyn Avenue, New Castle, Pennsylvania 16101)에 사는 레이먼드 놀테(Raymond J. Nolte)씨로부터 최근에 받은 편지 사본 한통을 동봉합니다.

당신께서 놀테씨의 견해가 상당히 흥미로운 것임을 알게 될 것이라 믿으며 이 문제에 대해 깊이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진심어린 마음으로

의원 프랭크 클락(Frank M. Clark)

■ [대통령의 한국 방문 시 책 선물 증정 희망]

- | | |
|---|---------------------|
| • 형태 : 편지 | • 일자 : 1974.10.4 |
| • 발신 : Warren S. Rustand(대통령 약속 담당 보좌관) | • 수신 : Mary R. |
| • 출처정보 : THE WHITE HOUSE | • 관리번호 : CTA0000782 |

루스탄드 씨에게

후시 박사가 다시 당신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번에 그는 그가 한국과 오랜 관계를 지녀왔다는 사실에 주목해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대통령의 한국 방문 성공을 위해 무언가 기여를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으며 저에게 전화로 대통령을 수행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그는 10월 22일 워싱턴에 올 때 대통령에게 책을 선물하고 싶다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때 그는 또한 당신과 한국 여행에 관해 논의하고 싶어합니다.

메리 R.(Mary R.)

앞에서 언급한 내용의 편지 이후에 귀하나 대통령이 한국에 있는 동안 중앙대학에서 명예 학위를 받았으면 한다는 초청장과 함께 두 번째 편지가 직접 전달되었습니다.

■ [한국의 독재정권 비판 및 대통령의 방한계획 반대]

- | | |
|------------------------------------|------------------------|
| • 형태 : 편지 | • 일자 : 1974.10.5 |
| • 발신 : 세인트 루이스 지역의 민주주의를 확산하는 한국인들 | • 수신 : Jerry Ford(대통령) |
| • 출처정보 : - | • 관리번호 : CTA0000782 |

대통령 각하 :

저희, 민주주의를 확산하는 한국인들은 11월로 예정된 각하의 한국 여행과 관련한 뉴스에 대경실색했습니다. 우리는 각하께서 대통령에 취임했을 때 미국 정부에서의 각하의 훌륭한 리더십이 전세계 민중들의 민주주의적 가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고 재확인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생각했기에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과 민주주의적 정부 제도를 한국민들에게서 강압적으로 박탈해온 한국 독재자 박정희의 초청을 각하께서 받아들인 것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각하의 이번 한국 방문은 전세계로 하여금 각하의 정부가 박 대통령의 부패한 독재 정권을 승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상 이를 장려하고 있다고 확신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대다수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각하께서 올 11월의 한국 여행을 취소하시기를, 그리고 한국이 민주주의적인 정부 시스템을 회복시키고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는 더 건설적인 무언가를 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촉구합니다.

Sincerely yours,

세인트 루이스 지역의 민주주의를 확산하는 한국인들
(Democracy-believing Koreans in St. Louis area)

■ 윤 박사의 대통령 한국 방문 동행

- 형태 : 비망록
- 일자 : 1974.10.7
- 발신 : Philip W. Buchen(대통령 자문)
- 수신 : Warren S. Rustand(대통령 약속 담당 보좌관)
- 출처정보 : THE WHITE HOUSE
- 관리번호 : CTA0000782

그랜드 벨리 주립대학 총장이 대통령의 한국 방문에 윤 박사를 동행시키는 것을 고려해 달라고 제안한 편지를 동봉했습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시거나 저에게 지시해 주십시오.

그랜드 벨리 주립대학
1974년 9월 30일

필립 부첸 귀하
백악관
워싱턴 D.C. 20500

필(Phil)에게 :

제리(Jerry)가 한국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교수들 중의 한 명이 저에게 그가 대통령의 해외 여행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그를 대신해 귀하에게 물어보는 편지를 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교수는 로버트 성죽 윤(Robert Sungjook Junn)으로 귀하께서 그랜드 벨리에 계셨던 1965년에 GVSC 교수가 되었기 때문에 귀하께서는 아마도 그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윤 박사는 한국에서 태어났으며 지금은 미국 시민권자로 귀화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의원이셨을 때, 윤 박사는 제5선거구(the Fifth District constituents)의 질문지 초안 작성을 도왔으며 또한 GVSC에서 열렸던 포드-맥키(Ford-McKee) 토론의 사회를 보았었습니다.

그는 한국 출신이기 때문에 저는 윤 박사가 한국 방문을 준비하는데 여러 면에서 도움

이 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대통령께서 윤 박사의 도움을 받으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그는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귀하의 새로운 역할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Best wishes.

Sincerely,

아렌드 D. 루버스

총장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에서 미국 의회로 보내온 편지에 대한 레이먼드 놀테(Raymond J. Nolte)씨의 논평]

- | | |
|------------------------------------|-----------------------------|
| • 형태 : 편지 | • 일자 : 1974.10.8 |
| • 발신 : Max Friedersdorf(대통령 부 보좌관) | • 수신 : Frank M. Clark(하원의원) |
| • 출처정보 : - | • 관리번호 : CTA0000707 |

친애하는 프랭크(Frank)씨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에서 미국 의회로 보내온 편지에 대한 레이먼드 놀테(Raymond J. Nolte)씨의 논평을 10월 4일자로 당신께서 대통령께 보내 온 것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해드리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놀테씨의 편지가 최대한 빠른 기회에 대통령과 그의 외교정책 보좌관들(advisers)에게 전해질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진심어린 마음으로,

대통령 부보좌관 맥스 프라이더스도프(Max L. Friedersdorf)

존경하는 프랭트 클락(Frank M. Clark)

워싱턴 D.C. 20515, 하원

■ [대통령의 남한 방문에 대한 우려]

- | | |
|--|----------------------------|
| • 형태 : 편지 | • 일자 : 1974.10.8 |
| • 발신 : Herold Sunoo(아시아 연구소 교수) | • 수신 : Gerald R. Ford(대통령) |
| • 출처정보 : THE CITY COLLEGE OF THE CITY UNIVERSITY OF NEW YORK | • 관리번호 : CTA0000702 |

귀하 :

나는 올 가을로 예정된 귀하의 남한 방문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합니다. 한국 국민들은 귀하의 방문을 한국인들의 인권을 억압하고 있는 박정희 대통령을 귀하가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박 대통령이 억압적인 정책을 계속하도록 권장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나는 귀하가 서울 방문 계획을 취소하고 한국에서 민주주의와 자유가 회복되도록 지원할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아울러 나는 한국의 박정희 정권에 대한 귀하의 지지가 미국의 국내 문제를 처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헤롤드 선우(Herold Sunoo)

아시아연구소 교수(Professor, Asian Studies)

■ [한국의 인권상황과 대통령의 방한계획 재고요청]

- | | |
|--|------------------------|
| • 형태 : 편지 | • 일자 : 1974.10.8 |
| • 발신 : 미국 감리교 연합 국제 선교사 위원회 | • 수신 : Jerry Ford(대통령) |
| • 출처정보 : Board of Global Ministries, The United Methodist Church | • 관리번호 : CTA0000782 |

대통령 각하 :

미국 감리교 연합 국제 선교사 위원회와 전임 위원들은 학교, 대학, 병원, 농업 센터, 교회 기타 기독교에 동정적인 징표들을 세우면서 90년 동안 한국에서 일해왔습니다. 우리는 한국민들에게 호의만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두 나라 사이의 관계가 우호적이고 상호 이익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3만명 이상의 젊은 미국 병사들을 잃었던 것을, 한국 전쟁 기간 적어도 10배의 한국인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부패한 리 정권에 대항하는 저항 과정에서 많은 젊은 한국 학생들이 희생되었다는 것을 고통스럽게 기억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해방과 자유 민주주의 제도의 설립은 많은 희생을 치르고 얻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희생이 헛되이 되지 않기를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각하께서도 역시 한국의 현재 인권에 관해 우려를 표명해왔으며 한국에서의 최근 상황에 대해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편지는 각하께서 이번 한국 방문을 명확한 용어로 미국의 우려를 되풀이해 전하는 기회로 활용하시기를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참고로 1974년 5월 4일 저희 국장회의(the Board of Directors)에서 만든 한국 관련 선언(A statement on Korea) 사본을 첨부합니다. 저희는 박 대통령이 대통령령 법률들 몇 개를 폐지한 것에 기뻐하고 있지만 한국민들의 권리가 제한되고 있는 것에 계속해서 극도로 불안해 하고 있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각하께서 한국에 머무는 기간을 우리가 관계를 유지하는 모든 사람들의 자유, 정의, 민주주의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입장을 표현하는 기회로 활용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Very sincerely,

바바라 H. 체이스(Barbara H. Chase)

아시아 지역 팀 아시아 코디네이터

(Asia Coordinator on behalf of Asia Regional Team, World Division)

BHC/SR

cc : 국무부 한국 데스크

ENC :

■ [한국 정부의 인권탄압과 대통령 방한에 대한 우려]

- | | |
|-------------------------------|------------------------|
| • 형태 : 편지 | • 일자 : 1974.10.8 |
| • 발신 : Harold Sunoo(뉴욕시립대 교수) | • 수신 : Jerry Ford(대통령) |
| • 출처정보 : - | • 관리번호 : CTA0000702 |

각하 :

저는 올 가을 각하의 한국 방문 계획에 대해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민들은 이를 각하가 박정희 대통령의 인권 억압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는 박 대통령이 한국민들에게 억압적인 정책들을 계속하게끔 부추길 것입니다. 저는 강하의 서울 방문 계획을 취소할 것을, 그리고 한국의 민주주의와 자유 회복을 도와주실 것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저는 또한 한국 박 정권에 대한 각하의 지지는 미국의 국내 문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Thank you.

Sincerely,
해롤드 선우
아시아 연구 교수

■ [편지 전달 건]

- 형태 : 편지
- 발신 : Philip W. Buchen(대통령 자문)
- 출처정보 : 포드기록관 백악관자료
- 일자 : 1974.10.9
- 수신 : Arend D. Lubbers(그랜드 벨리 주립대학 총장)
- 관리번호 : CTA0000782

돈(Don)에게 :

윤 박사(Dr. Junn)에 관해 시간을 내어 편지를 써주신 친절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여행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는 분명 이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배경을 지닌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귀하가 허락하신다면 저는 귀하의 편지를 적임자에게 전달해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연락을 받아 기쁩습니다. 이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Best wishes.
Sincerely,
필립 W. 부첸(Philip W. Buchen)
대통령 자문(Counsel to the President)

아렌드 D. 루버스(Arend D. Lubbers) 귀하
그랜드 밸리 주립대학 총장(President, Grand Valley State Colleges)
College Landing
Allendale, Michigan 49401

■ [통역 제안에 대한 건]

- | | |
|----------------------------------|----------------------------|
| • 형태 : 편지 | • 일자 : 1974.10.9 |
| • 발신 : Ron Nessen(대통령 언론 담당 보좌관) | • 수신 : 정경조(방위 전문어 연구소 한국부) |
| • 출처정보 : - | • 관리번호 : CTA0000782 |

정 박사에게 :

포드 대통령을 대신해 저는 귀하의 최근 저서, <한국: 제3 공화국(Korea: The Third Republic)>을 한권 보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저는 귀하의 사려깊은 편지와 네슨 여사가 관심을 가질 것이 분명한 한국 일보의 뉴스 클립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한국: 제3 공화국(Korea: The Third Republic)>이 유익한 정보와 관련 정보 출처가 되기 때문에 이 책을 자세히 읽어보려고 하며 포드 대통령께서도 이를 유용하다고 생각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귀하의 관심과 풍부한 사상은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포드 대통령을 위해 통역으로 일하고 싶다는 귀하의 제안과 관련해서는, 귀하의 편지를 보통 이러한 문제를 처리하는 앤드류 포키위츠(Andrew Falkiewicz) 씨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 그에게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귀하의 친절한 제안에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With best wishes,

Sincerely,

론 네슨

대통령 언론 보좌관(Press Secretary to the President)

정경조 귀하
 방위 전문어 연구소 (Defense Language Institute)
 P.O. Box 5834
 Presidio of Monterey, California 94930

bcc w/이후 처리를 위해 앤드류 포키워츠에게 전달

■ [축하 메시지에 대한 답신]

- | | |
|------------------------|---------------------|
| • 형태 : 편지 | • 일자 : 1974.10.11 |
| • 발신 : Jerry Ford(대통령) | • 수신 : 박정희(한국 대통령) |
| • 출처정보 : - | • 관리번호 : CTA0000709 |

친애하는 대통령께 :

나의 아내가 함 대사를 통해 당신이 보내준 관심과 희망의 메시지에 대해 우리의 깊은 감사를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를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은 우리 내외에게 위로와 용기를 줍니다.

감사와 존경을 담아서, 당신의 제럴드 R. 포드

친애하는 박정희 대통령께

■ [한국의 인권탄압과 정치범 8인에 대한 사형선고]

- | | |
|----------------------|------------------------|
| • 형태 : 편지 | • 일자 : 1974.10.11 |
| • 발신 : 서명자 일동(한국인들) | • 수신 : Jerry Ford(대통령) |
| • 출처정보 : 포드기록관 백악관자료 | • 관리번호 : CTA0000782 |

대통령 각하:

이 편지에 서명한 사람들은 모두 한국에서 살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국과 한국민들의 행복과 발전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우리는 이 나라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위

힘한 상황에 대해 각하의 주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각하께서 수많은 학생들, 기독교 성직자들, 사회 지도자들, 변호사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구속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계시리라 확신합니다. 이 사람들은 조작된 정치적 혐의들로 구속되었습니다. 이들을 심문한 군사 재판은 일반 민간 재판 절차 기준을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군사 재판 기준조차도 악용해왔습니다.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년 형에서 사형 선고까지가 내려졌습니다. 그런 모의가 있었다는 것조차 정부에서 증명하지 못한 소위 음모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8명이 죽임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인권 유린 외에도 수많은 시민들이 중앙정보부의 무자비한 감시 하에 놓여 있습니다. 대학 교수들은 ‘불충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조사를 받습니다. 기업인들은 정치적 ‘기부금’을 내라는 경찰의 끊임없는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단체 협상과 단체 행동에 관한 권리를 박탈당했습니다. 시장, 찻집, 그리고 기타 다른 공공 장소들에서 일반 시민들은 도청을 당하지 않기 위해 어떤 식으로든 정부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할 때는 아주 주의깊게 말조심을 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인권과 시민권에 반하는 범죄들은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의 부산물일 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유신’ 헌법(‘호헌조치’)입니다. 1972년 10월 계엄령 하에서 한국민들에게 강압적으로 강요된 이 헌법은 한국의 민주주의적인 입법 정부를 제거해버렸으며 박정희라는 한 사람이 평생동안 사실상의 독재자가 되게 만들었으며 박 씨와 중앙정보부가 언제든지 개인이나 그룹의 시민 권리를 보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974년의 비극적 사건들은 이 유신 헌법의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대다수 한국인들은 유신 헌법 철폐와 1972년까지 존재했던 민주주의 헌법의 복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민주주의와 발전의 길로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승인되어야만 하는 정당한 요구입니다.

어떤 이들은 북한의 침략 위협에 맞서서 이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박 씨와 중앙정보부가 취하고 있는 억압과 유신 헌법이 필요하다고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결과들은 정확하게 그 반대입니다. 한국은 박의 헌법과 그 결과로 나타나는 정책들에서 비롯된 불신과 공포로 가득차 있어서 북에 맞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단합은 명백하게 약화되어 있습니다. 한국 군대의 현대화로는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박 정권은 바로 최근 다시 한번 한국을 보호하겠노라고 약속한 미국의 군사력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군사력을 손상시켜왔습니다.

전세계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지속적인 박 씨의 독재 정책들에 대한 지지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최근의 의회 청문회들은 미국 여론의 변화 뿐만 아니라 미국의 지속적인 무조건적인 박 정권 지지에서 초래되는 심각한 손실을 명확하게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지난 몇 년간 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추세에 대해 강력한 불만을 전달하는 것이 미국과 한국 모두에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가장 이익이 될 것이라는 확고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하의 방문이 이러한 불만 표시를 포함하지 않는다면 각하의 방문은 이를 지켜보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미국 정부는 실제로 현 한국 정부의 억압적인 정책들을 전면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각하, 우리는 한국인들에 대한 사랑과 책임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하께서 11월에 이곳을 방문하실 때 이러한 사실들을 충분히 이해하시기를 희망합니다. 이미 한국 신문들은 정부가 각하의 방문 전에 일부 정치범들을 석방할 것 같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한국인들과 함께 우리는 물론 그러한 움직임에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것이 무엇을 위한 행동인가를 인식해야만 합니다. 전세계를 특히 미국을 감명시키기 위한 하나의 제스처에 지나지 않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고결함을 회복시키기 위한 순수한 의도가 아니라 그러한 동기에서 이 조치가 행해졌다는 사실에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에 관련해 우리는 각하가 한국 지도자들에게 1972년 10월 이래로 체포된 모든 정치범들을 석방할 것, 남아있는 긴급 조치들을 폐지할 것, 그리고 유신 헌법을 철폐하고 1972년 10월 이전까지 존재했던 민주주의 헌법을 제자리에 복원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우리는 또한 각하께서 종교적, 사회적, 정치적 재야 지도자들을 만나실 것을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서로 다른 많은 교회, 기관, 단체들을 대표하여 여기 서명한 우리들은 이러한 문제를 직접 논의하기 위해 각하나 각하와 동행할 사람들 중 한 명을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각하의 방문이 현재의 비극적인 상황을 치료하는 역할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Sincerely yours,

서명자

[필기체로 쓰여진 서명(6페이지)이 첨부되어 있음]

■ [대통령의 일본순방 취재 요청]

- 형태 : 편지
- 발신 : Liedtke(스턴 잡지 기자)
- 출처정보 : -
- 일자 : 1974.10.15
- 수신 : Andrew T. Falkiewicz(백악관 부 공보담당관)
- 관리번호 : CTA0000616

팔키에위츠씨께

스턴(Stern)잡지사에서 11월 18일 대통령 각하의 일본순방을 취재하고 싶습니다.
비자나 다른 개인 정보가 필요한지 알려주십시오.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클라우스 리에드케 스텐사 기자

■ [편지 사본 동봉 절차]

- 형태 : 편지
- 발신 : Edward J. Derwinski(하원의원)
- 출처정보 : -
- 일자 : 1974.10.15
- 수신 : Max Friedersdorf(대통령 특별 보좌관)
- 관리번호 : CTA0000709

맥스에게

시카고 시의회 의원(Alderman), 존 홀른(John Hoellen)에게 제게 받은 편지 사본을 동봉합니다. 이런 경우에 맞게 설정되어 있는 표준 절차를 통해 이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Sincerely yours,
에드워드 J. 더윈스키(Edward J. Derwinski)
미 의원(Member of Congress)

cc: Mr. John J. Hoellen

시카고 시 의회(City Council, city of Chicago)

1974년 9월 30일

에드워드 J. 더윈스키(Edward J. Derwinski) 의원 귀하

하원 회관(House Office Building)

워싱턴 D.C.

에드에게

한국 커뮤니티는 다음달 대통령의 서울 방문에 대해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특히 론 니센(Ron Niessen)의 부인이 한국인이며 대통령을 위해 한국 음식을 요리했던 적이 있다는 소식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시카고에는 대략 15000명에서 2만명 정도의 거대한 한국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시카고 북부에 밀집해 있습니다. 그들은 근면하게 열심히 일을 하며 교양있는 사람들이고 우리의 연장자 이웃사람들에게 안정을 제공하는데 많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친구들입니다.

시카고의 4626 North Lincoln Avenue의 퍼시픽 엔터프라이즈(Pacific Enterprises)의 사장, 장영준(Yung Joon Chang)은 시카고 한국 협회 이사장(Chairman of the Board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Chicago)입니다. 그는 상원의원에 의해 SBA의 자문단(the Advisory Board)으로 위촉받았으며 오길비(Ogilvie) 주지사(Governor)의 자문단(the Advisory Board)으로 일해왔습니다. 그는 최근 선거에서 우리에게 아주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어떤 나라를 방문하실 때 종종 미국의 해당 소수민족 지도자들을 동행하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대통령의 한국 방문시 저는 시카고의 한국인 지도자이며 공화당의 강력한 지지자인 장영준보다 이런 그룹의 일원으로 더 자질이 있는 적절한 사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화당의 소수민족 섹션(the ethnic section)의 리더로서, 저는 대통령의 서울 방문단에 장영준을 포함시키는 문제를 적극 고려해주실 것을 당신에게 촉구합니다. 그는 대통령을

위해...우리 공화당을 위해... 그리고 미국을 위해 분명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With every best wish.

Sincerely,

존 J. 홀른(John J. Hoellen)

■ [대통령의 방한 기간 중 합기도 특별 공연에 참석 요청]

- | | |
|--------------------------------------|------------------------|
| • 형태 : 편지 | • 일자 : 1974.10.15 |
| • 발신 : Robert K. Spear(주한미군 안보부대 중위) | • 수신 : Jerry Ford(대통령) |
| • 출처정보 : - | • 관리번호 : CTA0000783 |

대통령 각하 :

대한합기도협회 지한재 총관장과 국제합기도협회 로버트 W. 슬래니 회장을 대신해 저는 각하께서 11월에 한국 방문 기간 동안 한국의 전통 방어술인 합기도 특별 시범에 참가해주시기를 초청합니다.

합기도는 유도, 태권도, Aikido, 가라데, 쿵푸 등과 같은 다양한 많은 무술 요소들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인 전투술 중의 하나입니다. 박 대통령께서 합기도 전문가들을 개인 경호원으로 두고 있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또 미국 비밀부대(the United States Secret Service)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각하의 여행 스케줄이 아주 빡빡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하나 각하와 동행하는 비밀부대원들이 서울 용산의 주한미군 제8사단(Eighth US Army Headquarters, US Army Garrison, Yongson, Seoul, Korea)에서 벌어지는 한시간 정도의 합기도 시범을 보시고 싶으시다면 위의 주소로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Respectfully yours,

로버트 K. 스피어

대외관계 담당(Foreign Relations Officer)

국제 합기도 가라데 협회(International Hapki-do Karate Assn.)

■ [한국의 인권상황과 대통령의 방한계획 재고요청]

- 형태 : 편지
- 발신 : Charles H. Germany(동아시아 실행 그룹 회장)
- 출처정보 : -
- 일자 : 1974.10.17
- 수신 : Jerry Ford(대통령)
- 관리번호 : CTA0000782

대통령 각하 :

한국의 미국 친구들은 11월 말 각하의 한국 방문 계획 발표를 듣고 심각하게 근심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방문은 한국의 현재의 억압적인 정책들을 우리 정부가 지지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될 것이며 미국 정부는 전세계 인권 문제에 무관심하다는 이미지를 더욱 강화시켜 줄 것입니다.

한국의 인권과 참여 정부의 회복을 위해 싸워온 이백여명의 시민들이 부당하게 그리고 무자비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영장 없이 구속한다든가 가혹한 심문을 한다든가 비밀 군사 재판으로 기소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반대 세력을 침묵시키는 권력을 계속해서 장악하고 있는 동안 우리나라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바람직하지 못한 일입니다. 학생들, 학자들, 성직자들,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이 사형 선고를 받거나 장기 수감형을 받았으며 호헌 조치(the Revitalization Constitution)와 1974년 1월과 4월의 대통령령 긴급 명령들에 기초해 억압적인 정치 시스템이 설립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한국에 폭력적인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현재의 심각하게 긴장된 경제와 결합되어 이러한 상황은 현 정부의 군사력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지지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외에서 정부의 안정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대다수 미국인들은 의회를 통해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우리의 완전함과 보다 정당하고 개방된 한국 사회에 대한 기대는 한국 정부 활동에 대한 미국의 지원(특히 군사적인 지원)을 현저히 축소함으로써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리고 한국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면 다시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념을 표명해왔습니다.

부인의 비극적인 죽음에 이어 그리고 미국 국민들과 의회의 명백한 우려에 대한 대답으로 박 대통령은 긴급 조치들 중 가장 억압적인 두 가지를 해제했습니다. 불행히도 그는 긴급 조치 시스템을 폐지하지 않았으며 이전의 조치들을 폐지하면서(얼마나 오랫동안?) 또다른 긴급 조치를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한국민들의 친구들에게 기운을 북돋아주는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첫 번째 스텝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권이 회복되기 시작하기 위해서는 긴급 조치 프로세스는 반드시 종결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무효화된 긴급 법령 I과 IV 하에서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이 석방될 때까지 그리고 박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들을 구속하거나 비밀 군사 재판을 포기하고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회복시킬 때까지는 각하께서 한국을 방문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인권과 참여 정부를 복구하는 이러한 스텝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각하께서 이러한 방문 계획을 취소하시기를 삼가 요청합니다.

만약 한국의 억압적인 상황이 현저하게 수정된다면 그리고 각하께서 한국 방문 계획을 계속 추진하신다면, 저희는 각하께서 한국에서 최근 몇 달 간 보여지는 인권 파괴와 이에 따른 시민 질서에 대한 위협에 대해 미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깊은 불만을 표현하고 한국의 국민들의 인권을 다루는 방식이 이후 이 나라에 대한 미국의 지원에 영향을 주게 될 것임을 확인해주는 기회로 충분히 활용하시기를 촉구합니다.

Very sincerely yours,

찰스 H. 저머니(Charles H. Germany)

동아시아 실행 그룹 회장(Chairman, East Asia Working Group)

■ [대통령의 방한 기간 중 집에 초대]

- | | |
|---------------|------------------------|
| • 형태 : 편지 | • 일자 : 1974.10.17 |
| • 발신 : Merwin | • 수신 : Jerry Ford(대통령) |
| • 출처정보 : - | • 관리번호 : CTA0000783 |

대통령 각하 :

한국 대전에 살고 있는 저희, 메르윈 가족은 저희가 각하와 각하의 가족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 대전에 있는 선교사들은 매일 각하와 우리나라 미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는 또한 포드 여사의 수술 전후에 그녀를 위해 기도하였으며 빠른 회복을 보이시는 것에 신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각하의 취임식 때 각하께서 가족 성경을 펴서 잠언 3장 5절과 6절에 왼손을 놓고

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우 감동을 받았으며 이 성경구절이 각하의 밤 기도라는 것을 알고 감사했습니다.

저희는 각하께서 다음달 한국 방문을 계획 중이시라는 것을 알고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저희, 메르윈 가족은 대전에 살고 있는 모든 선교사들을 대신해 각하와 포드 여사를 이번 방문시 저희 가정에 초대하고자 합니다.

각하의 스케줄이 너무나도 너무나도 꽉 차 있다는 것과 서울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 저희는 적어도 각하께 저희가 우리 대통령과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감사를 전할 수 있도록 각하를 저희 가정으로 초청이라도 해보고 싶었습니다.

각하께서 이곳에 오실 수 있든 없든, 이곳 대전에 있는 모든 미국 선교사들은 매일 각하를 위해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Yours respectfully,
데이비드 메르윈 목사
선교사, 대전, 한국

■ [어머니의 동행 탑승 요청 거절]

- | | |
|---------------------------------------|---------------------|
| • 형태 : 편지 | • 일자 : 1974.10.19 |
| • 발신 : W. L. Gulley(대통령 군사 지원 행정 보좌관) | • 수신 : Nancy Han |
| • 출처정보 : - | • 관리번호 : CTA0000782 |

낸시(Nancy)에게,

대통령을 대신해 저는 대통령께서 한국을 방문하실 때 귀하의 어머니를 비행기에 태워 달라고 요청한 귀하의 10월 1일자 편지에 답장을 쓰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저희는 귀하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귀하께서도 아시고 있으리라 여기는데, 대통령의 비행기는 대통령께서 비행 중에도 대통령 임무를 수행하기에 가장 편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소규모 실무자들만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요청을 들어주는 답장을 드릴 수 없어서 유감입니다. 조만간 다른 적절한 방법을

찾으실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Sincerely,

W.L. 굴리(W. L. Gulley)

대통령 군사 지원 행정 보좌관

(Executive Assistant to the Military Assistant to the President)

낸시 한(Nancy Han) 양 귀하

8505 Rayburn Road

Bethesda, Maryland 20034

■ [혹시(Hoxie) 박사와의 전화 통화]

- | | |
|----------------|---------------------|
| • 형태 : 비망록(메모) | • 일자 : 1974.10.21 |
| • 발신 : 백악관 | • 수신 : - |
| • 출처정보 : - | • 관리번호 : CTA0000782 |

기록용 메모

오늘 혹시(Hoxie) 박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나는 그에게 대통령이 3일 동안 출장을 갔기 때문에 이번 주에 대통령을 만날 기회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에게 그가 요청했던 것을 나중에 아마도 선거 이후에도 계속 염두에 두어달라고 부탁했다.

■ [기자초청연회에 대한 답신]

- | | |
|--|--------------------------|
| • 형태 : 편지 | • 일자 : 1974.10.21 |
| • 발신 : Andrew T. Falkiewicz(백악관 부 공보담당관) | • 수신 : Liedtke(스턴 잡지 기자) |
| • 출처정보 : - | • 관리번호 : CTA0000616 |

리에드케(Liedtke)씨께

일본과 한국을 순방 중인 대통령 각하와 함께 기자초청연회에 참석할 의향을 밝힌 10월 15일 편지 감사합니다. 일정이 잡히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백악관 부 공보담당관 Andrew T. Falkiewicz

클라우스 리에드케
Stern 잡지
60 East 56th Street
New York, New York 10022

■ [주한미군 어머니의 편지]

- 형태 : 편지
- 일자 : 1974.10.21
- 발신 : J. W. Wagoner
- 수신 : Ron Nessen(대통령 언론 담당 보좌관)
- 출처정보 : -
- 관리번호 : CTA0000776

네슨 씨에게

지난 토요일 10월 19일 대통령 만찬에 참가했으며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행운의 사람들 중의 한 사람이 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저는 당신에게 개인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지만 리셉션 장에서는 당신과 이야기할 만한 적절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희 아들 마크 G. 웨저너(Mark G. Wagoner), 402-66-3198(사회보장번호인 듯... 이어서 몇가지 코드 같은 것이 나오는데 손으로 쓴 필기체 편지라서 잘 모르겠습니다.)은 군대에 있으며 한국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것이 아마도 그가 학업을 끝마치고 법 집행 분야에서 일자리를 찾는데 최선의 방법일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1973년 12월에 군에 자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만나는 경험에 그는 만족스러워 하게 되었으며 이는 또한 그의 경험을 더욱 풍부하게 해 주었습니다. 이런 점이 그가 많이 좋아하는 것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추수감사절 연휴라든가 크리스마스 연휴에는 많이 우울하고 쓸쓸하다고 주장합니다.

제 부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의 이번 11월의 서울 방문에 동행하는 사람 중 누구

라도 잠깐 시간을 내어 이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이 거기에 있는 것은 필요하고 가치있는 일이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신다면, 저는 이것이 그들의 생활에 매력을 줄 수 있을 것이며 추수감사절 시기의 진정한 느낌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에게 행복을, 그리고 당신의 일에 즐거움을 기원합니다. 당신과 당신 가족들이 행복한 연휴를 보내시기를.

감사드리며
J.W. 웨저너

■ [대통령 방한의 의미]

- 형태 : 편지
- 발신 : 이승만(미국 장로교 연합)
- 출처정보 : The united presbyterian church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일자 : 1974.10.21
- 수신 : Ron Nessen(대통령 언론 담당 보좌관)
- 관리번호 : CTA0000776

엘리오트 씨에게

10월 30일의 편지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10월 31일에 W.R. 스마이저(W.R. Smyser) 씨와의 만남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표단은 스마이저 씨와 좋은 토론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것이 전적으로 만족스럽지는 않았음을 인정해야만 하겠습니다. 11월 22일-23일의 대통령의 한국 방문과 관련해서 저희가 드렸던 세 가지 특별 요청들(대통령께 보내는 동봉한 서한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 세 번째 사항만이 어느 정도 구체적인 답을 얻었을 뿐입니다. 스마이저 씨는 포드 대통령께서 박정희 행정부 밖에서 다른 한국 지도자들을 만나실 것임을 저희에게 보증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대통령께서 그의 방문 기간 동안 만나실 의사가 있는 사람들의 이름에 대해서는 저희와 공유하지 못하였거나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스마이저 씨는 구체적인 정보를 저희와 나누거나 대통령을 대변해 약속을 해줄 수 없었거나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당신이 편지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마이저 씨가 대통령을 대변해 저희와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다소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스마이저 씨의 곤란을 이해합니다. 이것이 저희가 대통령께

드리는 우리의 요청을 편지로 써서 스마이저 씨에게 개인적으로 이를 전달해줄 것을 부탁했던 이유입니다. 그러나 오늘까지 저희는 스마이저 씨로부터도, 백악관으로부터도 아무 이야기도 듣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포드 대통령께서 그의 한국 방문이 ‘박 정권의 억압적인 정책들을 지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미국인들과 한국인들에게 공식적으로 보장해주실 것을 부탁했던 요청을 특히 갈망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당신이 이러한 갈망이 미국의 단체들이나 몇몇 의원들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특히 일본과 한국에서도 함께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는 18일 포드 대통령께서 떠나시는 날까지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에 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대통령께 진심어린 인사를 보내며

Sincerely,

이승만 박사

미국 장로교 연합 해외 선교부

(Associate for Internationalization of Mission, United Presbyterian Church, U.S.A)

J.C. 화이트(Ms. J.C. White)

미국 그리스도교 연합 사회적 행동을 위한 국제 관계 센터(Associate for International Affairs Center for Social Action, United Church of Christ)

동봉

■ [김지하 시인의 감형을 위한 대통령의 개입 요청]

- | | |
|--------------------------------------|------------------------|
| • 형태 : 편지 | • 일자 : 1974.10.21 |
| • 발신 : Bill Henerson(코워드 컴퍼니 선임 편집장) | • 수신 : Jerry Ford(대통령) |
| • 출처정보 : - | • 관리번호 : CTA0000772 |

포드 대통령 각하

작가들과 편집장들은 누구나 처음에는 사형 판결을 받았다가 이후에 종신형으로 감형된 한국 시인 김지하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작가들과 편집장들은 분명 죽는 것보

다는 살아있는 것이 낫긴 하지만 그가 했던 말이나 행동으로 볼 때 종신형은 너무 지나친 형벌이라고 생각합니다. 각하께서 이번에 한국과 대화하실 때, 그의 이름이 거론되기를 희망합니다.

Sincerely,
켄 맥코믹(Ken McCormick)
선임 편집장(Senior Consulting Editor)

제럴드 포드 대통령
백악관
워싱턴 D.C. 20500

■ [부 공보담당관과의 약속 건]

- | | |
|---------------------------|--|
| • 형태 : 편지 | • 일자 : 1974.10.22 |
| • 발신 : Henry Brandon(기자) | • 수신 : Andrew T. Falkiewicz(백악관 부 공보담당관) |
| • 출처정보 : THE SUNDAY TIMES | • 관리번호 : CTA0000616 |

부 공보담당관님

제가 포드 대통령과 브레즈네프(Brezhnev)의장과의 회의 취재 허가를 받을 때 제가 중국에 가 있을 것 같아 직접 뵈 수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언제 시간이 괜찮으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헨리 브랜든(Henry Brandon)

■ [대통령의 동행 취재 가능 여부 문의]

- | | |
|-------------------------------|----------------------------------|
| • 형태 : 편지 | • 일자 : 1974.10.22 |
| • 발신 : 실비아 쉐퍼(주간지 편집장) | • 수신 : Ron Nessen(대통령 언론 담당 보좌관) |
| • 출처정보 : JOURNAL PUBLICATIONS | • 관리번호 : CTA0000616 |

백악관 공보담당관 네슨씨께

저는 발행부수가 21300부에 달하는 캘리포니아의 워터 일간지의 편집장이입니다. 저희 신문은 창간한지 5년이 되었습니다. 이런 규모의 신문사들이 대통령 순방길에 동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취재하고 싶습니다. 만일 저희의 발행수가 너무 작다면, 그래도 저희 신문사에서 다른 소규모의 지역 신문을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독자들이 이번 대통령의 단독 취재를 굉장히 좋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의 이름과 출생일자과 출생지, 사회보장번호와 현재 주소를 동봉합니다. 저희 신문의 규모가 작긴 하지만 저는 팻 브라운 주지사와 기자로서 동행취재를 한 적이 있고 닉슨 대통령의 재선 당시 로스앤젤레스 지역 언론담당관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 [한국의 인권상황과 박 대통령의 월권행위, 방한에 대한 우려]

- | | |
|----------------|------------------------|
| • 형태 : 편지 | • 일자 : 1974.10.24 |
| • 발신 : 미 의회 하원 | • 수신 : Jerry Ford(대통령) |
| • 출처정보 : - | • 관리번호 : CTA0000782 |

대통령 각하 :

11월에 한국을 방문하시기로 한 각하의 결정은 미국의 대외 정책에 중대한 위협을 가져옵니다. 한국의 인권과 관련한 상황은 아시아와 태평양 문제 소위원회와 국제 기구와 운동 소위원회(the subcommittees o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Movements)의 합동 청문회에서뿐만 아니라 외국 지원 법안의 최종 절충 단계와 청문회에서 대외 관계 위원회(the Foreign Affairs Committee)에 의해 광범위하게 고려되었습니다. 저희는 한국 여행에 대해, 그리고 이것이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를 이루기 위한 한국인과 미국인들의 공통의 열망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을지에 관해 각하와 만나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각하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박정희 대통령은 최근 수년간 기본적인 시민권과 자유의 행사를 심각하게 규제해왔습니다. 현재 대략 200명의 사람들이 헌법 개정을 제안하거나 학생들이 정치 활동에 참가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을 위반했다 해서 감옥에

간혀 있습니다. 이렇게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는 개신교와 가톨릭 성직자들, 대학 교수들, 정치 지도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전 대통령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으며 1971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야당 후보(그는 약 46%의 표를 얻었습니다)는 일본에서 납치되어 가택 연금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는 각하께서 각하의 한국 방문이 박 대통령이 행사하고 있는 부당한 월권 행위를 승인하거나 묵과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를 바라시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저희는 각하께서 이를 한국의 민주주의의 파멸에 관해 미국인들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박 대통령에게 알리는 기회로 이용하시기를 희망합니다. 박 대통령에게 한국 국민들의 인권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미국은 한국과의 관계를 끊기 시작할 것임을 알려야 합니다. 미 하원 대외 관계 위원회와 상원 대외 관계 위원회(foreign relations committee)는 한국의 압제 때문에 한국에 대한 군사 지원에 제한을 두었습니다.

각하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교회와 대학 관리들 뿐만 아니라 야당 멤버들도 정치적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헌법의 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박 대통령이 비록 두 건의 긴급 조치 법령을 해제하기는 했지만 그가 이러한 요구들에 긍정적으로 응할 것이라는 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각하의 방문 기간 동안, 만약 각하께서 정부 내의 지도자들만 만나신다면, 한국 국민들은 이러한 행동을 현재의 독재 정부의 지속을 각하께서 승인한다는 표시로 해석할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저희는 각하께서 한국 국회에 (이 문제를) 제기하기를, 그리고 개인적으로 교회와 대학 관리들뿐만 아니라 야당 정치 지도자들을 만나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저희는 각하께서 한국 방문을 하시기 전에 저희를 만나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Sincerely yours,

조나단 B. 빙햄(Jonathan B. Bingham)

로이드 미즈(Lloyd Meeds)

도널드 M 프레이저(Donald M. Fraser)

토마스 P. 오닐(Thomas P. O'Neill)

리 H. 해밀턴(Lee H. Hamilton)

모리스 K. 우달(Morris K. Udall)

팻시 T. 밍크(Patsy T. Mink)
찰스 W. 왈렌(Charles W. Whalen)

cc: 헨리 키신저 국무장관

필립 C. 하비브(Philip C. Habib)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도널드 L. 레너드(Donald L. Ranard), 국무부 한국 사무소장(Director Korea Office, Department of State)

■ [통역 제안에 대한 건]

- 형태 : 편지
- 일자 : 1974.10.24
- 발신 : Donald L. Lenerd
(동아시아와 태평양문제사무국의 한국담당)
- 수신 : 정경조(방위 전문어 연구소 한국부)
- 출처정보 : -
- 관리번호 : CTA0000782

정 씨에게 :

10월 1일 롤랜드 네슨(Roland Nessen) 씨에게 귀하가 보낸 편지에 포함되어 있는 대통령의 서울 방문 동안 통역으로 일하고 싶다는 귀하의 제안에 대한 답변하는 역할이 저희 사무실로 전달되었습니다.

고위 외국 관리들의 방문 시 호스트 정부가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 정부가 대통령의 한국 방문 기간 통역을 준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역으로 일하고 싶다는 귀하의 친절한 제안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현재 계획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 이를 항상 염두에 두겠습니다.

Sincerely,
도널드 L. 레너드

동아시아와 태평양 문제 사무국의 한국 담당 국장(Country Director for Korea, Bureau of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 [대통령 방문취소 촉구 편지에 대한 답신]

- | | |
|--------------------------------|-------------------------------|
| • 형태 : 편지 | • 일자 : 1974.10.24 |
| • 발신 : Donald L. Lenerd(한국 국장) | • 수신 : Harold Sunoo(뉴욕시립대 교수) |
| • 출처정보 : - | • 관리번호 : CTA0000782 |

선우 교수에게 :

백악관에서 귀하가 대통령에게 보낸 대통령의 한국 방문 취소를 촉구하는 10월 8일자 서한에 답변하라고 저희에게 요청했습니다.

저는 대통령의 여행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귀하가 한국의 인권과 관련해 제기한 우려 사항들을 충분히 참작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 사이의 오랜 우정이라든가 한국의 안보를 달성하는 우리의 이해관계와 같은 부가적인 요인들도 충분히 고려해야만 한다는 것을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미 국무부는 귀하께서 귀하의 편지에서 제안한 것처럼 이 여행이 한국의 인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명될 것이며 해가 되는 방향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 미 국무부에서 발행한 한국 인권 관련 특별 보고서 사본을 동봉합니다.

Sincerely,

도널드 L. 레너드

한국 국장(Director for Korea)

첨부 : 보고서

■ [대통령의 방한 시 동행 요청]

- | | |
|-------------------------------|----------------------------------|
| • 형태 : 편지 | • 일자 : 1974.10.24 |
| • 발신 : Jai S. Kang | • 수신 : Ron Nessen(대통령 언론 담당 보좌관) |
| • 출처정보 : TEXAS A&M UNIVERSITY | • 관리번호 : CTA0000783 |

귀하 :

이 편지는 11월 23일로 예정되어 있는 포드 대통령의 한국 방문과 관련해 귀하에게 드리는 부탁입니다.

저는 텍사스 A&M에서 회계학 박사 과정에 다니고 있는 한국 학생입니다. 저의 아내, 케이 강(Kay Kang)은 서울에 살고 있는 그녀의 부모님과 저의 부모님에게 텍사스에서 태어난 저희의 첫 딸을 보여줄 기회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몇 달 동안이나 부모님들은 갖 태어난 아기를 보고 싶다는 강력한 열망을 표명하셨습니다. 저희가 이 만남을 실현시킬 수 있다면 너무나도 기쁠 것입니다. 현재 저희의 상황에서는 그러나 항공비용을 마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만남을 주선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제가 조만간 학업을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저의 아내와 아기가 혹 대통령이 한국에 가지거나 돌아오시는 길에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것이 허락된다면, 저희 부모님들과 저희는 진심으로 대통령의 호의에 감사드릴 것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Sincerely,

재 S. 강(Jai S. Kang)

■ [대통령 방한 중 동행 가능여부]

- 형태 : 편지
- 일자 : 1974.10.25
- 발신 : Duke C. Kim(한국계 미국인)
- 수신 : Jerry Ford(대통령)
- 출처정보 : -
- 관리번호 : CTA0000783

친애하는 대통령 각하 :

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의 이름은 듀크 김으로 각하의 나라, 미국에서 비즈니스 경영을 더 공부하기 위해 한국에서 왔습니다. 저는 현재 시카고의 센트럴 사이언티픽 회사(Central Scientific Co.)의 회계사로 고용되어 있습니다.

1969년 한국을 떠난 이래로 저는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 형제들, 친구들을 그리워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올 11월에 각하께서 한국을 방문하실 것이라 씩어있는 신문을 읽었습니다.

저는 혹시 각하께서 한국을 방문하실 때 동행할 수 있는 여분의 자리가 있는지 궁금합

니다. 각하께서 아주 보잘 것 없는 자리라도 저에게 제공해 주실 수 있다면 저는 이를 평생의 영예로 알고 각하의 친절에 진심으로 감사드릴 것입니다.

각하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수 있다면, 부디 저에게 전화를 주십시오. 집 전화는 (312) 675-5537이며 사무실은 (312) 277-8300이며 연결 번호는 264번입니다.

감사합니다.

Sincerely yours,

듀크 C. 김

■ 대통령의 한국 방문 기간 통역으로 일하고 싶다는 제안

- 형태 : 비망록
- 일자 : 1974.10.26
- 발신 : George S. Springsteen(국무부 사무총장)
- 수신 : Brent Scowcroft(백악관 군사보좌관)
- 출처정보 : DEPARTMENT OF STATE 7420562
- 관리번호 : CTA0000782

방위 전문어 연구소(the Defense Language Institute)의 한국어에 능통한 어학자 정경조 씨의 대통령의 한국 방문 기간 통역으로 일하고 싶다는 제안에 대한 답변 사본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 편지에는 도움을 자원한 정 씨에 대한 감사가 표현되어 있으며 그러나 국무부에서는 그의 도움을 기대하지 않고 있다고 써 있습니다.

조지 S. 스프링스틴
집행위원장

첨부 :

1. 정 씨에게 보내는 편지
2. 정 씨가 로널드 네슨에게 보낸 편지

■ 대통령의 한국 여행에 반대하는 편지에 대한 답변

- 형태 : 비망록
- 일자 : 1974.10.26
- 발신 : George S. Springsteen(국무부 사무총장)
- 수신 : Brent Scowcroft(백악관 군사보좌관)
- 출처정보 : DEPARTMENT OF STATE 7420223
- 관리번호 : CTA0000782

뉴욕 시티 대학의 해롤드 선우 교수가 보낸 편지에 대해 국무부에서 보낸 답신 사본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선우 교수는 대통령의 여행이 한국의 정치적 억압을 부추길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답변에는 대통령의 여행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고려되었던 여러 요소들이 설명되어 있으며 한국의 인권에 관한 국무부 특별 보고서 사본이 동봉되어 있습니다.

조지 S. 스프링스틴
집행위원장

첨부 :

1. 선우 교수에 대한 편지
2. 백악관의 전달 메모와 선우 교수의 편지

■ 대통령의 한국 여행과 관련해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는 이승만 박사

- 형태 : 비망록
- 일자 : 1974.10.29
- 발신 : W. R. Smyser(국가안보위원회 아시아 담당)
- 수신 : Roland L. Elliott(대통령 특별 보좌관)
- 출처정보 : NATIONAL SECURITY COUNCIL
- 관리번호 : CTA0000782

이승만 박사는 11월의 대통령의 한국 방문 이전에 대통령이나 그의 보좌관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편지를 대통령에게 썼습니다(Tab B).

Tab A에 이 박사의 요청에 대해 귀하가 답변할 답신 초안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승만 박사

미국 장로교 연합 해외 선교부(Associate for Internationalization of Mission, United Presbyterian Church, U.S.A)

297 Park Avenue South

New York, New York 10010

리 박사에게(Dear Dr. Rhee)

대통령께서 저에게 대통령의 다가오는 한국 방문과 관련한 당신의 10월 10일자 편지에 감사 인사를 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그의 스케줄이 너무 빡빡해 당신을 만나실 수 없다는 것에 유감스러워 하십니다. 그러나 그는 국가안보위원회(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아시아 담당 상급 스태프(Senior Staff Member for Asia) W.R. 스마이저(W.R. Smyser) 씨에게 그를 대신해 당신을 만날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서로 편리한 시간을 잡을 수 있도록 스마이저 씨에게 직접 연락하시기를 제안합니다.(전화번호 202-395-3345)

Sincerely

롤랜드 L. 엘리엇(Roland L. Elliott)

대통령 특별 보좌관(Special Assistant to the President)

cc: J.C. 화이트 양(Ms. J.C. White)

W.R. 스마이저(W.R. Smyser)

1974년 10월 21일

이승만 박사

미국 장로교 연합 해외 선교부(Associate for Internationalization of Mission, United Presbyterian Church, U.S.A)

297 Park Avenue South

New York, New York 10010

이 박사에게 :

지난 10월 10일 대통령에게 보냈던 귀하의 편지 사본을 저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워싱턴에 머물 때 귀하를 만날 수 없었던 점에 대해 죄송합니다. 귀하나 화이트 양이 저에게 연락을 해주셔서 다음 번 귀하가 이곳에 오실 때 약속을 잡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귀하들 중 한 분이나 두분 모두를 만날 수 있다면 기쁘겠습니다.

Sincerely yours,

W. R. 스마이저
고위 스태프 멤버(Senior Staff Member)

cc: J. C. 화이트

1974년 10월 10일
대통령
백악관
워싱턴 D.C.

포드 대통령 각하 :

미국에 있는 한국인들과 미국 친구들, 특히 교회, 노동자 커뮤니티와 학자 커뮤니티의 친구들은 각하의 다가오는 11월 22-23일 한국 방문에 대해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여행에서 긍정적인 결과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한국에 관해서 저희의 우려를 각하와 나눌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국 대통령 박정희 씨와 각하께서 만나실 때 진지하게 고려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것이 지난 주 저희가 각하를 접견할 수 있는 가능성 혹은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각하의 한국 여행을 담당하고 있는 각하의 보좌관이라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탐색하면서 미 국무부 관리들과 연락하려고 노력했던 이유입니다. 지난 10월 9일 돈 레너드(Don Ranard) 씨와의 대화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는 저희에게 국가안보위원회의 윌리엄 R. 스마이저(William R. Smizer) 씨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불행히도 스마이저 씨는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의 보좌관, 프리베(Froebe) 씨와의 전화 통화에서는 아직 어떤 답도 듣지 못했습니다. 비록 그가 저희에게 다시 연락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말입니다.

대통령 각하, 각하께서는 종종 각하의 사무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고 말씀해오셨습니다. 저희는 각하나 혹은 각하께서 지명하신 보좌관을 만날 수 있게 해 달라는 저희의 요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커뮤니티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대응을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Sincerely yours,

이승만 박사(Dr. Syngman Rhee)

미국 장로교 연합 해외 선교부(Associate for Internationalization of Mission, United
Presbyterian Church, U.S.A)

J.C. 화이트(Ms. J.C. White)

미국 그리스도교 연합 사회 행동을 위한 국제 관계 센터(Associate for International
Affairs Center for Social Action, United Church of Christ)

한국 인권 위원회(the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Korea)를 대변하며.

cc : 돈 레너드

윌리엄 R. 스마이저

존 프리베

11월 22일에서 23일 대통령의 한국 여행 담당 관리

■ [여행 계획서 요청]

- | | |
|----------------------------|-------------------------------|
| • 형태 : 편지 | • 일자 : 1974.10.29 |
| • 발신 : Hank Philipie(편집장보) | • 수신 : Judy Gibson(백악관 공보담당실) |
| • 출처정보 : Rolling Stone | • 관리번호 : CTA0000616 |

공보담당실에서 얼마 전에 받은 편지 동봉합니다. 문서를 업데이트 시키기 위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곳원씨에 대한 서류를 완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했던 다른 정보도 보냈습니다.

굿윈씨는 이 대통령 순방 일정을 편지를 보는 대로 허가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임시라도 여행 일정 계획서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헝크 필리피
편집장보

■ [한국 방문 결정에 대한 재고 요청]

- | | |
|--|------------------------|
| • 형태 : 편지 | • 일자 : 1974.10.29 |
| • 발신 : Gilbert Gude(하원의원) | • 수신 : Jerry Ford(대통령) |
| • 출처정보 :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 • 관리번호 : CTA0000776 |

대통령 각하 :

저는 각하께서 이번 11월로 계획되어 있는 각하의 한국 방문을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삼가 촉구하기 위해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각하의 방문은 박정희 대통령과 그의 정책, 대외 정책과 국내 정책 모두에 대한 미국의 명백한 보증을 제공하는 효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박 대통령의 국내 정책들은 우리 정부가 해외의 억압적인 정부들을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데 관해 우려하고 있는 많은 미국인들에게 더욱 우려를 증가시켜 왔습니다. 저는 이 서한에 박 대통령이 한국 국민들에게 부과한 수많은 반 민주적인 조치들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 수많은 신문 기사들을 포함하고 있는 최근의 성명서 사본 하나를 첨부했습니다.

저는 억압적인 정부들을 지원하는 우리의 정책에 관해 키신저 장관에게 최근 편지를 보냈던 의회 멤버들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점점 더 우려를 더하고 있는 원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분명하고 중요한 원칙들, 그 중에서도 민주적 정부와 표현의 자유를 자랑스럽게 대변하고 지지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우리의 방식을 정확하게 따르기를 강제하려 들어서는 안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러한 원칙들을 비웃는 정부들에 계속해서 지원을 제공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국가 안보'라는 개념에

상당히 많이 양보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는 우리가 이러한 경구들을 재검토하고 우리 자신의 신념에 비추어볼 때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러왔는지를 결정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각하께서 한국에 계시는 것은 이러한 원칙들에 대한 타격으로 해석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각하께서 이 방문을 취소하시기를 희망합니다. 만약 각하께서 반대되는 결정을 내리신다면, 저는 각하께서 이 방문을 박 대통령에게 정치범들을 석방하고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회복시키도록 설득력있게 촉구하는 기회로 활용하실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Sincerely,
길버트 구드

■ [대통령 방한 관련 미 감리교연합의 성명서와 편지]

- 형태 : 편지
- 발신 : John J. Williams(사무국장)
- 출처정보 : Office of the Minority Leader
- 일자 : 1974.10.30
- 수신 : Max Friederdorf(대통령 보좌관보)
- 관리번호 : CTA0000702

맥스 귀하,
미 감리교연합 지구목회 이사회(Board of Global Ministries)에서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기 전에 관심을 두었으면 희망하는 내용의 편지와 성명을 동봉합니다.
필요한 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John J. Williams
존 윌리엄스 사무국장 (Staff Director)

Board of Global Ministries
The United Methodist Church
400 Riverside Drive, New York, N.Y. 10027. (212) 749-0700
@ble: missions new york

The Honorable John J. Rhodes
 House of Representatives
 Washington, D. C. 20515

미 감리교연합 지구선교 목회
 수신 : 존 J 로우즈

로우즈 의원 귀하,

동봉한 자료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들 (영문)”은 한국에 있는 저희와 가까운 믿을 만한 친구가 보내온 것으로서 그 사람은 이 자료가 11월 방한 이전에 포드 대통령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당신에게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이들 중 8명이 처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우 긴급한 사안입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한, 이 자료에 서술된 사람들은 한국의 박정희 정부에 대해해서 아무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부에 대항하는 입장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1974년 사건 당시 어떤 반정부 세력에도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박정희 정부에 대한 소위 “음모”의 “잊혀진 조직원” 즉 희생양들입니다.

이 자료를 읽어보시고 포드 대통령이 관심을 갖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대통령 일행 중의 누군가가 이들 “잊혀진 조직원”들의 대변인을 만나고자 한다면 주선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만남은 미국이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정권과 그 인권탄압을 지지한다는 결론을 한국인들이 내리지 않도록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사안에 관하여 의원께서 의문 사항이 있거나 보다 충분히 조사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기꺼이 돕고 싶습니다.

Edwin O. Fisher, Jr.
 Executive Secretary

사본배부 : Donald Ranard, Korea Desk, U.S. State Department
 지구선교 목회 총무

■ [대통령 순방길 동행취재 요청]

- 형태 : 편지
- 일자 : 1974.10.30
- 발신 : 스탠리 티너(Shreveport Journal 편집국장)
- 수신 : Ron Nessen(백악관 공보담당관)
- 출처정보 : Shreveport Journal
- 관리번호 : CTA0000616

론 네슨씨께

기자의 한 사람으로서 포드 대통령의 일본, 한국 러시아 순방길에 동행하고 싶습니다. 정책상 대통령 순방 동행 취재하는 기자는 자신의 경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순방길에 동행할 수 있다면, 저희 Shreveport Journal에서는 기꺼이 경비를 부담할 것입니다.

편집국장 스탠리 티너

■ [취재 기자 통보]

- 형태 : 편지
- 일자 : 1974.10.30
- 발신 : Martin Noran(보스턴 글로브 편집국장)
- 수신 : Ron Nessen(대통령 언론 담당 보좌관)
- 출처정보 : The Boston Globe
- 관리번호 : CTA0000616

로너드 네슨 백악관 공보 담당관님께

보스턴 글로브지의 도쿄 특파원인 매튜 스토린이 포드 대통령의 극동지방 순방을 취재할 것입니다.

매튜는 백악관 출입기자로 69~71년 활동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는 도쿄-오사카-서울-블라디보스토크행을 택할 것이고 마지막 아시아 도착지에 내리길 원할 것입니다.

그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틴 노란 국장

■ [이승만 박사에게 대통령 대신 W. R. 스마이저(W.R. Smyser)씨와의 만남을 권유]

- | | |
|--------------------------------------|------------------------------|
| • 형태 : 편지 | • 일자 : 1974.10.30 |
| • 발신 : Roland L. Elliott(대통령 특별 보좌관) | • 수신 : 이승만(미국 장로교 연합 해외 선교부) |
| • 출처정보 : - | • 관리번호 : CTA0000776 |

리 박사에게(Dear Dr. Rhee)

대통령께서 저에게 대통령의 다가오는 한국 방문과 관련한 당신의 10월 10일자 편지에 감사 인사를 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그의 스케줄이 너무 빡빡해 당신을 만나실 수 없다는 것에 유감스러워 하십니다. 그러나 그는 국가안보위원회(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아시아 담당 상급 스태프(Senior Staff Member for Asia) W.R. 스마이저(W.R. Smyser)씨에게 그를 대신해 당신을 만날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서로 편리한 시간을 잡을 수 있도록 스마이저 씨에게 직접 연락하시기를 제안합니다.
(전화번호 202-395-3345)

대통령의 인사를 전하며,

Sincerely

롤랜드 L. 엘리엇(Roland L. Elliott)

대통령 특별 보좌관(Special Assistant to the President)

이승만 박사

미국 장로교 연합 해외 선교부(Associate for Internationalization of Mission, United Presbyterian Church, U.S.A)

297 Park Avenue South

New York, New York 10010

■ [면담 요청에 대한 답신]

- | | |
|------------------------------------|--------------------------------|
| • 형태 : 편지 | • 일자 : 1974.10.30 |
| • 발신 : William E. Timmons(대통령 보좌관) | • 수신 : Thomas P. O'Neill(하원의원) |
| • 출처정보 : - | • 관리번호 : CTA0000709 |

팁(Tip)에게

저는 귀하와 귀하의 동료 7명이 대통령께서 한국을 향해 출발하시기 전에 대통령을 만나기를 청하는 귀하의 10월 24일자 편지를 잘 받아보았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대통령의 스케줄은 엄청나게 빡빡하며 이후 몇주간 계속 그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만간 스케줄 담당 비서 뿐만 아니라 대통령께서 귀하의 편지를 보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귀하의 면담 요청에 대해 전면적으로 고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저는 대통령의 대외 정책 자문들에게도 귀하의 우려를 전달하겠습니다.

With best wishes,

Sincerely,

윌리엄 E. 티몬스(William E. Timmons)

대통령 보좌관

토마스 P. 오닐(Thomas P. O'Neill) 귀하

미 하원

워싱턴 D.C. 20515

bcc w/이후의 조치를 위해 워렌 루스탄드에게 전달

bcc w/스코크로프트 장군에게 전달-FYI

bcc w/셜리 헤이스(Shirley Hays)에게 전달-FYI

■ [대통령 방한 기간 중 동행 여부에 대한 답신]

- | | |
|--|-----------------------------|
| • 형태 : 편지 | • 일자 : 1974.10.30 |
| • 발신 : W. L. Gullett(대통령 군사 지원 행정 보좌관) | • 수신 : Duke C. Kim(한국계 미국인) |
| • 출처정보 : - | • 관리번호 : CTA0000783 |

김 씨에게 :

대통령이 11월에 한국을 방문할 때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하기를 요청하는 귀하의 10월 25일자 편지에 대통령을 대신해 제가 답장을 합니다.

불행히도 우리는 귀하의 요청을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귀하께서도 이해하시리라 보는데 대통령 전용기는 비행 중에도 대통령의 임무를 수행하기에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소규모 실무자들만이 동행합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귀하께서 조만간 다른 적절한 방법을 찾으시기를 희망합니다.

Sincerely,

W. L. 굴리(W.L. Gulley)

대통령 군사 지원 행정 보좌관(Executive Assistant to the Military Assistant to the President)

듀크 C. 김(Duke C. Kim) 귀하

4715 West Enfield Avenue

Skokie, Illinois 60076

■ [대통령 전용기에서의 취재요청]

- | | |
|---------------------|--|
| • 형태 : 편지 | • 일자 : 1974.10.31 |
| • 발신 : 김영희(중앙일보 기자) | • 수신 : Andrew T. Falkiewicz(백악관 부 공보담당관) |
| • 출처정보 : - | • 관리번호 : CTA0000616 |

부 공보담당관님께

9월 20일 백악관 기자초청연회의 일원으로 극동지방순방에 관한 제 편지에 대한 9월 25일 답신 감사합니다.

이 여행과 관련해서 한 가지 요청이 있습니다. 제가 도쿄에서 서울까지 대통령 전용기에

답승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과 심각한 인터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미 대통령 전용기 내부를 한국인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한국에서는 전용기가 하늘 위의 백악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만일 허용이 된다면 착륙까지 간단한 대화를 대통령과 나누고 싶습니다.

미 대통령에게 이런 청을 한 한국인 기자가 또 있었다는 점은 알고 계십니까? 1961년 당시 아이젠하워워 대통령이 오키나와에서 전용기를 타고 서울까지 갔을 때, 당시 한국 기자 한 명이 동승했습니다. 그 일이 한국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소련까지 대통령의 순방 일정이 연장된 것 때문에 저의 일정에 어떤 변동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만일 소련정부에서 비자를 내주지 않는다면, 저는 어떤 부당한 요구하는 일 없이 곧바로 서울에서 워싱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김영희 중앙일보 기자
National Press Building
Washington D. C. 20004

■ [대통령의 한국 방문에 대한 우려]

- 형태 : 편지
- 발신 : 미국 장로교 연합
- 출처정보 : The united presbyterian church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일자 : 1974.10.31
- 수신 : Jerry Ford(대통령)
- 관리번호 : CTA0000731

포드 대통령 각하 :

W.R. 스마이저(W.R. Smyser) 씨와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에게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이번 대통령 각하의 한국 방문에 대해 우리의 깊은 우려를 사적으로 각하에게 표현할 수 있기를 희망해왔습니다. 이는 저희가 미국 국민의 대표로서 각하의 한국 방문에 반대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이번 각하의 방문이 한국 국민들을 위한 것도 미국 국민들을 위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미국의 다양한

많은 단체들이 우려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각하께서 박정희 대통령을 방문하는 각하의 계획을 고집하고 계신 것에 대해 깊이 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오늘 스마이저 씨(Mr. Smyser)가 저희를 만나서 각하의 방문에 관한 저희의 제안을 고려하기로 동의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 보면, 저희의 우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미국을 떠나기 전에, 저희는 각하께서 미국 대중에게 각하의 방문이 박 정권의 억압적인 정책에 대한 지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기를 삼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저희가 한국의 합법 정부(constitutional government)가 점점 더 많은 놀라움과 함께 부식되는 것을 지켜봐온 대다수 코리안 아메리칸들과 다른 미국인들을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저희는 더 나아가 각하께서 정치범들의 석방과 언론의 자유에 관해 박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언질이라도 받으셨다면 이를 공표해 주시기를 또한 요청합니다.

3. 한국에 계시는 동안, 저희는 각하께서 다음과 같은 민주주의와 자유의 대변자들을 만나시기를 제안합니다.

- 현재 수감되어 있는 다니엘 지(Daniel Chi) 주교, 박형규 목사, 김동길 교수 그리고 김지하 시인.
- 가톨릭 공동체와 신교도 공동체의 저명한 지도자들인 스티븐 김 추기경(Cardinal Stephen Kim), 김관석 목사, 함석헌 목사.
- 인정받는 정치 지도자들인 윤보선 전 대통령, 김영삼 씨, 그리고 김대중 씨.
- 두드러진 세 명의 여성 지도자들인 이우정 교수, 이태용 박사, 그리고 이화여대의 김옥길 총장.
- 탁월한 저널리스트들인 전관우 씨와 선우휘 씨.

대통령 각하, 이번에 각하께서 한국을 방문하시게 되면 전 세계가 당신을 주목할 것입니다. 저희는 각하의 방문이 각하의 행정부가 정의와 인권의 민주주의적 원칙 실현에 헌신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결과를 가져오기를 희망합니다.

저희는 각하께서 한국에서 돌아오신 직후에 각하를 뵙고 이러한 우려들에 관해 각하께서 이루신 성과를 듣게 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Sincerely,

패리스 하비 박사(Dr. Pharis Harvey)

미국 교회협의회 동아시아부(East Asia Working Group,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프레드 호프리치터 목사(Rev. Fred Hoffrichter)

미국 그리스도연합교회 사회 행동 센터(Center for Social Action, United Church of Christ)

림차닝 교수(Professor Channing Liem)

한국의 민주주의 권리 수호 위원회(Committee for Protection of Democratic Rights of Korea) (임창영 박사인 것 같은데... 정확한 단체 우리말 명칭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병서 교수(Professor Byung Suh Kim)

뉴욕 한국 인권 연합(Korean Human Rights Association of New York)

김순경 교수(Professor Shoon Kyung Kim)

필라델피아 한국 지원 재단(Korean Relief Fund, Philadelphia)

이승만 박사(Dr. Syngman Rhee)

미국 장로교 연합 프로그램 에이전시(Program Agency, United Presbyterian Church, U.S.A)

림순만 교수(Professor Soon Man Rhim)

뉴욕 한국 교인 협회(Korean Christian Fellowship of New York)

해롤드 선우 교수(Professor Harold Sunoo)

한국 기독교 학자 연합(Association of Korean Christian Scholars)

J.C. 화이트 여사(Ms. J.C. White)

미국 그리스도연합교회 사회 행동 센터(Center for Social Action, United Church of Christ)

허만 윌 박사(Dr. Herman Will)

미국 감리교 연합, 워싱턴 지부(United Methodist Church, Washington Office)

유기홍 박사(Dr. Ki Hong Yoo)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National Congress of Democracy and Unification of Korea)

메리 제인 패터슨(Mary Jane Patterson)
 미국 장로교 연합, 워싱턴 D.C.
 (United Presbyterian Church Washington D.C.)
 홍성빈 목사(Rev. Hong Sung Bin)
 미국 감리교 연합, 메릴랜드(United Methodist Church Maryland)

■ [대통령의 한국 방문 계획 재고 요청]

- 형태 : 편지
- 발신 : Michael J. Harrington(하원의원)
- 출처정보 :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 일자 : 1974.10.31
- 수신 : William E. Timmons(대통령 보좌관)
- 관리번호 : CTA0000776

빌(Bill)에게 :

한 선거구민이 저에게 전달한 편지 사본을 동봉했습니다. 박 대통령 하의 한국의 인권 상황에 관한 잘 정리된 자료와 함께 포드 대통령께서 다음 달 한국 방문 계획을 재고해 주시기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대통령께서 이 편지에 관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그리고 대통령께서 한국인들과 나머지 전세계에 미국이 박 대통령의 현재의 정책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뿐인 이러한 방문이 현명한 것일지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아시도록 도와주실 수 있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Yours sincerely,
 마이클 J. 해링턴(Michael J. Harrington)

동봉(enclosure)

■ [취재 일정 통보]

- 형태 : 편지
- 발신 : 하워드 “토비” 메시(뉴스포토 편집장)
- 출처정보 : THE ASSOCIATED PRESS
- 일자 : 1974.10.31
- 수신 : Ron Nessen(대통령 언론 담당 보좌관)
- 관리번호 : CTA0000616

백악관 공보담당관 론 네슨씨께

Ed Savage가 저에게 포드 대통령의 방일을 취재하기 위한 일정을 일찍 맞추기 위해 제 여행 일정을 귀하께 알릴 것을 권고했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한국 그리고 러시아로 가는 기자 전용기에 탑승할 것입니다. 에드씨는 제가 러시아 비자관련 서류를 작성해서 그 서류가 백악관으로 보내지면 제가 도쿄에서 비자를 받아서 기자초청연회에 참석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워싱턴에서 11월 10일에 출발할 것입니다.

뉴스포토 편집장 하워드 “토비” 메시

■ [대통령 인터뷰 요청 거절]

- | | |
|----------------------------------|--|
| • 형태 : 전문 | • 일자 : 1974.11(추정) |
| • 발신 : Ron Nessen(대통령 언론 담당 보좌관) | • 수신 : Hans Genedict(오스트리아 라디오 텔레비전 특파원) |
| • 출처정보 : - | • 관리번호 : CTA0000616 |

한스 제네딕트 오스트리아 라디오 텔레비전 특파원께

오스트리아 크레이스키 총리의 미국 방문과 관련해 포드 대통령과 인터뷰 요청을 하신데 대한 답변입니다. 요청에 감사드립니다만 요즘 많은 인터뷰로 대통령께서는 귀하의 요청에 응하실 수 없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닿아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백악관 공보담당관 론 네슨

■ [대통령 인터뷰 요청 거절]

- | | |
|----------------------------------|----------------------|
| • 형태 : 전문 | • 일자 : 1974.11(추정) |
| • 발신 : Ron Nessen(대통령 언론 담당 보좌관) | • 수신 : Hans Mark(기자) |
| • 출처정보 : - | • 관리번호 : CTA0000616 |

오스트리아
한스마크씨께

크레이스키 총리께서 미국 방문하시는 동안 포드 대통령과의 인터뷰 요청에 관한 답변입니다. 아쉽게도 지금 각하께서 많은 인터뷰 요청으로 귀하의 청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론 네슨 백악관 공보담당관

■ [대통령의 방한 기간 중 동행 요청]

- | | |
|-----------------------|----------------------------------|
| • 형태 : 편지 | • 일자 : 1974.11.(추정) |
| • 발신 : Helen D. Giblo | • 수신 : Ron Nessen(대통령 언론 담당 보좌관) |
| • 출처정보 : - | • 관리번호 : CTA0000783 |

네슨 씨께 :

다음과 같은 저의 특별한 부탁을 지원해 주시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배경 자료를 동봉했습니다.

저는 종로구 유니동(Uni-Dong, Chongro-Ku) 114번지의 가톨릭 구제 서비스(Catholic Relief Service) 고위 성직자, 조지 캐롤(Monsignor George Carroll)과 논의하기 위한 목적으로(그의 이름을 참고인으로 제시합니다) 한국 서울까지 정부의 교통편을 요청합니다. 캐롤 성직자께서 사실 확인을 해주시는 것과 제가 회고록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자료를 그분이 번역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중 어떤 것에 의해서라도 저의 요청이 받아들여진다면 감사하겠습니다.

(1) 군인 유가족으로서(미망인)- “여유 공간(Space available)” 프로그램 하에서.

(2) 18년간 논설 위원으로 활동한 퇴직 언론인으로서의 공적을 인정받아.

(3) 임시 자문위원으로서, 저는 취직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공보 관계에서의 저의 경험은 막대하며 소비에트 북한에서의 저의 특별한 경험은 포드 대통령의 한국 방문 이전의 스태프 브리핑에 유용할 것입니다. 저는 역사의 과정을 바꿔놓은 사건들의 목격자였습니다.

거의 30년 동안 한국어를 사용할 기회가 거의 없었지만, 저는 집중적으로 공부하면 그 기억을 되살릴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언어를 공부한 사람에게 라면 누구든지 굉장히 감동을 받곤 합니다. 과거 이승만 여사는 한 모임에서 저에게 제가 한국이 가졌던 최고의 친구 중의 하나라고 이야기했으며 언젠가 제가 책을 하나 쓰기를, 왜냐하면 저라면 언어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문화나 관습에 대해 이야기하지 못하는 작가들이 저지르는 전형적인 실수들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대통령께서도 저에게 한국으로 돌아오라고 초청하셨습니다. 저는 저의 수입이 적어 제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또다른 대통령, 해리 S. 트루먼(Harry S. Truman)께서도 제가 저의 남편에게 요구되었던 위험한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제가 남편과 함께 소비에트 북한에서 위험한 삶을 기꺼이 살았던 데 대해 대변인을 통해 감사 인사를 하셨습니다. 저는 좀더 상황이 나아졌을 때 한국을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었습니다.

1947년 8월 12일자 월드 리포트(World Report)에서 출판된 저에 관한 기사 사본을 첨부 하긴 했지만 별건 아닙니다. 그 인터뷰는 미국 정보 관리(intelligence officers)가 저에게 상세한 설명을 해준 후에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미국을 위해 저는 또 폴란드에서도 지냈었습니다. 당시 저의 폴란드어도 상당한 수준이었습니다.

인터뷰도 주선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Sincerely,

헬렌 D. 기블로

■ [대통령의 방한에 대한 편지]

- | | |
|---|------------------------------------|
| • 형태 : 편지 | • 일자 : 1974.11.1 |
| • 발신 : Warren S. Rustand(대통령 약속 담당 보좌관) | • 수신 : Louis Spaventa(서강대학교 평화봉사단) |
| • 출처정보 : - | • 관리번호 : CTA0000783 |

스파벤타(Spaventa) 씨에게 :

귀하와 다른 평화봉사단 자원봉사자(Peace Corps Volunteers)들이 대통령의 이번 한국

방문에 관해 대통령에게 보낸 아주 사려깊은 편지를 잘 받았으며 대통령을 대신해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하는 귀하의 의사에 대해 대통령께서는 감사히 여기고 계시며 대통령께서 시간이 있었다면 분명 그럴 기회를 가지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의 짧은 한국 방문 기간 그의 시간을 필요로 하는 공식적인 요청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면담을 주선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귀하와 귀하의 동료들에게 대통령의 인사를 전하며,

Sincerely,
워렌 S. 루스탄드
대통령 약속 담당 보좌관

루이스 스파벤타(Louis Spaventa) 귀하

서강 대학교

IPO Box 1142

Seoul, Korea

cc: 한국 관련 파일을 위해 윌리엄 헨켈에게 전달

■ [렛슨 대위의 초대에 대한 건]

- | | |
|---|--|
| • 형태 : 편지 | • 일자 : 1974.11.2 |
| • 발신 : Warren S. Rustand(대통령 약속 담당 보좌관) | • 수신 : Nicholas P. Retson(주한미군 법무관 대위) |
| • 출처정보 : - | • 관리번호 : CTA0000783 |

렛슨 대위(Captain Retson) 귀하 :

대통령의 이번 한국 방문 기간 그를 저녁 식사에 초대한 귀하와 멀홀랜드 중위(Lieutenant Mulholland)의 친절한 편지에 대통령을 대신해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이번 짧은 한국 방문 기간 대통령께서 귀하의 초대를 받아들이기는 불가능하지만, 그는 귀하의 사려깊음에 감사하고 계십니다.

대통령의 안부를 전하며,

Sincerely,
워렌 S. 루스탄드
대통령 약속 담당 보좌관

니콜라스 P. 렛슨 대위(Captain Nicholas P. Retson)
미 육군 제4사단 미사일 부대 법무관(Judge Advocate General Corp, 4th US Army
Missile Command)
APO San Francisco 96208

cc: 한국 방문과 관련 빌 헨켈에게 전달-FYI

■ [한국의 인권탄압과 대통령의 방한]

- | | |
|-----------------------------------|------------------------|
| • 형태 : 편지 | • 일자 : 1974.11.2 |
| • 발신 : Robert A. Baskerville(변호사) | • 수신 : Jerry Ford(대통령) |
| • 출처정보 : - | • 관리번호 : CTA0000783 |

대통령 각하

저희는 각하께서 이달 말에 한국을 방문하실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분명 각하께서는 이 나라의 상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브리핑을 받으셨겠지요. 하지만 저의 아내와 저는 몇가지 구체적인 상세한 상황들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저의 아내의 가족들에게 있을지도 모르는 보복을 피하고자 이 이야기를 비밀로 간직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저의 처남(brother-in-law)은 고려대학교 학생(몇년 전 저는 평화봉사단 자원봉사자로 이 학교에서 가르쳤었습니다)으로 1973년 4월에 한국 중앙정보부에 잡혀갔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그가 어디에 갇혀있는지, 무슨 혐의로 잡혀갔는지에 대해 전혀 듣지 못했으며 삼개월 동안 면회도 편지연락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저의 처남은 고문을 받았고 중앙정보부에 의해 강제로 자백서에 사인을 해야 했습니다. 그는 지금 불법 음모 혐의로 2년 반의

형을 받고 감옥에 있습니다.

재판에서 저의 처남은 자백을 부인했습니다(그는 용감한 젊은이입니다). 하지만 검사는 그에게 “말이 너무 많다”라면서 중앙정보부에 돌아가서 더 심문을 받고 싶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제가 이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바에 따라 혐의가 정치적 이유에 의해 처음부터 끝까지 꾸며낸, 조작된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의 처남이 1972년에 ‘한국식 민주주의(Koreanized Democracy)’를 선전하는 정부 포스터를 파괴했다는 것이 유일하게 진실된 진술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시비를 가리지 않더라도 아직 어떤 범죄 혐의로 기소되지도 않은 시민들이 한국 정부에 의해 어떤 취급을 받는가는 이를 통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고민,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절실한 고민은, 저희도 이해하고 있는 바지만 각하께서 다른 나라의 법적 시스템에 간섭하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각하께서 어떤 개인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저희 처남에게는, 한국 정부가 저희가 이러한 편지를 보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이 가장 낫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각하께서 상대해야만 하는 한 나라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각하의 이해를 높여드릴 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편지를 각하께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변호사입니다. 저의 아내는 워싱턴 대학 학생입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미국 평화봉사단을 위해 일했으며 거기에서 저희가 만났습니다. 저희는 둘 다 미국 시민으로서 저희가 내는 세금 중의 일부가 자국 국민들을 통제하기 위해 고문과 테러를 자행하는 정권을 지원하는데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에 좌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는 각하의 외교적인 노력을 지지합니다. 저희는 각하의 여행이 즐겁고 성과있는 것이기를 희망합니다. 저희는 한 나라가 다른 한 나라와 상대할 때, 저희와 같은 개인적인 불만은 그에 맞는 시각으로 봐야만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처남의 경우는 불행히도 오늘의 한국의 현실과 따로 떨어져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Yours truly,

로버트 A. 배스커빌(Robert A. Baskerville)

변호사(Attorney at law)

단정 배스커빌(Tahn Chong Baskerville)

804 E. Thomas

Seattle, Wn. 98102

■ 극동지역 순방

- 형태 : 비망록
- 발신 : Ray Zook
- 출처정보 : THE WHITE HOUSE
- 일자 : 1974.11.4
- 수신 : Ron Nessen(대통령 언론 담당 보좌관)
- 관리번호 : CTA0000616

극동지역순방을 위해 우리는 두 대의 707항공기의 일등석에 탈 것입니다. 180개에 달하는 좌석이 주어질 것입니다. 일반 스태프와 각종 스태프들을 위한 30-40개의 좌석을 빼고 나면 기자를 위한 좌석은 140-150개에 달할 것입니다. 명단을 확인해보니 이 정도의 인원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방송국 기자들과 일반 기자들을 나누고 기자들을 기자 전용기(Writers Plane)로 알려진 비행기에 탑승시킬 예정입니다. 모든 일반 신문잡지 기자들에게 각 신문사마다 두 개의 좌석을 배당하고 탑승할 기자를 각 신문사에서 선정토록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역 신문사들에게도 좌석을 골고루 배당할 예정입니다. 이 비행기의 좌석은 거의 프리미엄이므로 이 비행기에는 최소한의 스태프만 허용될 것이며 대부분의 스태프는 "촬영기사용 비행기"에 타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기자전용기에 오를 기자들에게 알리는 스태프 인원입니다.

Hushen

한명의 남성비서

Connie Gerrard

한명의 비서

Ray Zook

등사관을 위한 두 Garage

한 명의 리포터와 한 명의 사본가 두 Alderson

WHCA Shotgun

1 SS

- 1 사진기자
- 1 전용기 보안요원
- 1 세관

이런 준비로 기자와 충분한 스태프에게 필요한 일을 할 최대한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빌 데일리이 촬영기사전용기의 교통국을 대표할 것입니다.

과거 우리는 기자 전용기에 기술 관련 스태프를 배치시켜 네트워크 보호를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변동사항에 불만사항이 많아서 모든 기술관련 인원들은 촬영기사전용기에 오를 것입니다. 이에 이의가 없다면 이번에도 같은 식으로 두 명의 논평가를 제외하고 모든 기술 관련 인원들이 촬영기사전용기에 오를 것입니다. 저는 샌디 소콜로우가 돌아오는 대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의논할 것입니다.

타이프라이터와 등사판을 양쪽 기내에 모두 설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기자 전용기에만 설치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최고 촬영 동력기도 갖출 것입니다.

두 비행기에 기자와 촬영기사들이 이전과는 다른 비행기에 오를 것입니다. 이번에 패념기에 촬영기사들이 오를 것이고 한 시간 일찍 출발합니다.

두 번째 비행기를 선정하는 몇 일 동안 연락 가능합니다.

출발 전 2-3일 동안 앞서 말씀드린 비행기내 스태프에 관한 동의여부를 알려주십시오.

■ [편지 수신 확인]

- | | |
|------------------------------------|---------------------------|
| • 형태 : 편지 | • 일자 : 1974.11.4 |
| • 발신 : Max Friedersdorf(대통령 부 보좌관) | • 수신 : Gilbert Gude(하원의원) |
| • 출처정보 : - | • 관리번호 : CTA0000776 |

구드(Gude) 씨 귀하

저는 대통령에게 이번 달의 한국 방문 계획을 다시 한번 고려해줄 것을 촉구하는 당신의 10월 29일자 서한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가능한 한 빠른 기회에 당신의 서한이 대통령과 그의 대외 정책 자문들의 주의를 환기 시키게 될 것임을 확신하셔도 됩니다. 당신의 제안들이 충분히 재검토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With kind regards,

Sincerely,

맥스 L. 프리더스도르프

대통령 부 보좌관(Deputy Assistant to the President)

길버트 구드(Gilbert Gude) 귀하

미 하원

워싱턴 D.C. 20515

bcc: w/ 이후 처리를 위해 스키크로프트 장군에게 전달됨.

■ [대통령의 방한 기간 중 합기도 특별 공연에 참석 요청 건]

- | | |
|---|--------------------------------------|
| • 형태 : 편지 | • 일자 : 1974.11.4 |
| • 발신 : Warren S. Rustand(대통령 약속 담당 보좌관) | • 수신 : Robert K. Spear(주한미군 안보부대 중위) |
| • 출처정보 : - | • 관리번호 : CTA0000783 |

스피어 중위(Lieutenant Spear) 귀하

이달 대통령의 한국 방문 기간 한국의 전통 방어술인 합기도 특별 공연에 참가해 달라는 대한합기도협회(the Korean Hapki-do Association)의 지한재(Ji Han Jae) 총관장과 국제합기도협회(the International Hapki-do Association)의 로버트 W. 슬래니(Robert W. Slaney) 회장을 대신한 대통령을 초청한 귀하의 10월 15일자 편지를 잘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대통령께서는 너무도 친절하게 그를 초청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에서의 꼭 짜여진 스케줄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 초청을 받아들이실 기회는 없을 것 같지만 그 친절한 초대를 계속 잊지 않고 계실 것입니다. 한편, 대통령께서는 귀하께서 대신 편지를 쓰신 두 분께 그리고 귀하에게 따뜻한 감사 인사를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대통령의 안부를 전하며,
Sincerely,
워렌 S. 루스탄드
대통령 약속 담당 보좌관

로버트 K. 스피어 중위(Lieutenant Robert K. Spear)
307-44-3306
주한미군 안보 부대(USA Security Agency Field Station, Korea)
APO SF 96271

빌 헨켈에게 참고, 전달. F.Y.I (모든 사본 주목)

■ [대통령의 한국정부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 요청]

- 형태 : 편지
- 발신 : 김용태(한국 공화당 원내총무)
- 출처정보 : Yong-Tae Kim
- 일자 : 1974.11.4
- 수신 : Jerry Ford(대통령)
- 관리번호 : CTA0000786

포드 대통령 각하 :

저는 대통령 선거 결과에 너무도 실망해서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해 조금 의심할 정도입니다. 선거 결과는 또한 저 자신에게는 정신수련을 자극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과가 어떤 것이든 그 결정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대통령 선거 과정을 마치 우리 대통령 선거를 지켜보듯이 면밀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저의 기대와 열망이 배반당했을 때 저는 실망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도

확고하게 의지해온 지원(support)이 흔들리게 되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각하께서 저희를 계속해서 지원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저의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혹 미국의 (우리에 대한) 열심에 대한 확실성이 약해지는 것 같아 불안해하는 저희를 위해서 각하의 지원 아래 지금의 방식이 그대로 확고하게 해 달라는 저의 청원을 진지하게 받아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각하가 지지하는 바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때가 오면 각하께서 다시 일어서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용기를 낼 것입니다. 건강과 행복을 빕니다.

Most respectfully yours,

김용태

다수당 원내총무(Majority Leader)

H.E. 제럴드 R. 포드

미국 대통령

백악관

워싱턴 D.C.

U.S.A

■ [일본 및 기타지역 순방 동행 기자명단]

- | | |
|--------------------------|---------------------|
| • 형태 : 비망록(메모) | • 일자 : 1974.11.05 |
| • 발신 : Judy O'Neil(홍보처) | • 수신 : Ed Savage |
| • 출처정보 : THE WHITE HOUSE | • 관리번호 : CTA0000616 |

대통령의 일본 및 기타지역 순방 동행을 원하는 기자들로부터 받은 편지 사본 동봉합니다. 교통국의 레이 주크에게 제록스 사본을 보냈고 보안국에 누가 그 인원을 체크할 것인가도 알렸습니다.

저는 편지에 여권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두 명의 여권번호를 알아볼 예정입니다. 아마도 오늘 오후에 할 것 같습니다.

보안국은 이 인원들 중 문제가 없는지 저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Judy O'Neil
Press Office

■ [대통령의 방한 기간 중 서울 소년의 집 초청에 대한 건]

- 형태 : 편지
- 발신 : Warren S. Rustand(대통령 약속 담당 보좌관)
- 출처정보 : -
- 일자 : 1974.11.5
- 수신 : Schwartz(신부)
- 관리번호 : CTA0000783

슈바르츠 신부님(Father Schwartz) 귀하 :

소년들을 위한 서울 소년의 집(Boystown of Seoul home for boys)의 최근 상황에 관한 귀하의 친절한 편지에 대통령을 대신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대통령의 방한 기간 리본 커팅 행사에 대통령을 초청해주신 데 감사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이 행사에 굉장히 참가하고 싶어하시지만, 그의 짧은 방한 기간 너무나도 공식 일정들이 많아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귀하의 너무도 소중한 일이 항상 잘 되기를 바라는 대통령의 인사를 전하며,

Sincerely,

워렌 S. 루스탄드

대통령 약속 담당 보좌관

알로이시우스 슈바르츠(The Reverend Aloysius Schwartz)

Director, Korean Relief, Inc.

사서함 2152

워싱턴 D.C. 20013

■ [방한 동행에 대한 건]

- 형태 : 편지
- 발신 : Ron Nessen(대통령 언론 담당 보좌관)
- 출처정보 : -
- 일자 : 1974.11.6
- 수신 : Jai S. Kang
- 관리번호 : CTA0000783

강 씨에게 :

귀하의 편지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첫 아이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저는 부인과 새로 태어난 아기와 함께 한국을 방문하고 싶은 귀하의 소망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며 손자를 만나고 싶어하는 귀하의 부모님의 기대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드 대통령과 함께 한국으로 가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라 드릴 말씀이 없어 죄송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아주 소규모의 일행, 긴급하게 필요한 개인, 공식 스태프들만을 동행할 계획이시기 때문에 귀하께서 이 여행에 동행하시는 것을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귀하의 학업이 잘 되시기를 빌며 조만간 귀하의 가족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With best wishes,

Sincerely,

론 네슨

대통령 언론 담당 보좌관

재 S. 강(Jai S. Kang) 귀하

텍사스 A&M 대학 경영학부(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Texas A & M University)

College Station, Texas 77843

■ [대통령의 방한 기간 중 초대에 대한 건]

- | | |
|---|---------------------|
| • 형태 : 편지 | • 일자 : 1974.11.6 |
| • 발신 : Warren S. Rustand(대통령 약속 담당 보좌관) | • 수신 : Merwin |
| • 출처정보 : - | • 관리번호 : CTA0000783 |

메르윈(Merwin) 씨 귀하

대통령의 이번 한국 방문 기간 대통령을 귀하의 집으로 초청하는 귀하의 편지에 대통령을 대신해 감사를 드립니다.

대통령께서 이달 말의 짧은 한국 방문 기간 동안 귀하의 호의를 받아들이기는 불가능할 것 같지만 대통령께서는 귀하의 배려에 감사하고 계십니다.

귀하와 귀하의 모든 가족들에게 대통령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귀하께서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주시는 데 대통령의 감사를 전합니다.

Sincerely,
워렌 S. 루스탄드
대통령 약속 담당 보좌관

데이비드 메르윈 목사(The Reverend David Merwin)
한국 국장(Director, Korea)
극동 사도 선교(Far East Apostolic Mission, Inc.)
Post Office Box 1
대전, 한국 300-00

빌 헨켈 참고 및 전달-F.Y.I

■ 포드 대통령의 일본, 한국, 러시아 순방과 관련한 정보국 활동

• 형태 : 비망록	• 일자 : 1974.11.7
• 발신 : Harry Kendall(IEA 정책담당관)	• 수신 : Edward Savage(백악관 공보담당실)
• 출처정보 : UNITED STATES INFORMATION AGENCY	• 관리번호 : CTA0000616

FYI, 다음의 내용의 정보국산하기관들의 현재 활동내용입니다.

1. IEA ; 정보국의 계획과 활동을 순방 일정과 맞추어 조정함

2. IOP; IOP/G가 다음주에 순방에 관한 정보 가이드를 발행할 예정임. IOP/FW가 영부인의 공보담당관에게 일본언론측의 두 건의 인터뷰 요청을 제출할 예정임 ; 한 건은 푸지 TV(영부인에게서 이번 순방에 오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이 영상인터뷰가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함), 다른 한 건은 슈칸 아시아 신문으로 50만부의 발행 부수를 자랑하는 일본의 유력 주간지임. 일본의 기자들은 워싱턴에 오기 2-3일전 통보하기로 함

3. IOR: 선별적인 외교 정책에 대한 현재 일본 국민들의 태도에 관한 기초 보고서를 대통령 브리핑 자료에 실음. 이 보고서는 10월 중반 정보국에서 행한 조사에 기초한 것임

4. IPS: X파일에 있는 이번 순방에 대한 모든 내용을 보내고 대통령 초청연회의 주요 인사들에 대한 무선 파일을 보낼 것임. 백악관 통신원 알렉산더 설리반이 기자 초청연회에 동행할 예정임. 일본과 서울 양쪽에서 백악관 기자초청연회에 참석할 최종인원리스트를 요구하고 있음. 지역관료들과 기자들의 요구사항을 맞추기 위해서임.

5. IBS: IBS/PF 행크 고쇼가 TDY로서 일본에서 11월 12-23 동안 언론 관련 업무를 도울 것임. 홍콩에 본사를 둔 VOA 아시아 국장인 에드 콘리는 서울에 11월 14-17일 동안 머물고 다시 20-25, 일본에 11월 17-20일 동안 있을 예정임. 목적은 VOA 도쿄 특파원 슐츠의 취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임. 백악관 통신원인 필로미나쥬리가 기자초청 연회에 참석할 예정임. USSR 부의 키릴 알렌이 러시아 언어 방송국을 위해 취재할 것임. 쥬리, 콘리와 슐츠는 24시간 취재를 도쿄에서 할 예정임. 러시아에서 인원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쥬리는 아마도 블라디보스토크 회담을 취재하는 유일한 VOA 대표일 것임

6. IMV: 이번 순방을 기록하면서 미국 외교 정책의 연속성이라는 주제로 10분짜리 필름을 만들 예정임(도쿄에서 방송자료를 입수함, 서울에서 우편으로 부칠 예정임) 순방후에 도 외교정책필름은 포드 대통령 약력 필름과 함께 세계 USIS용도로 쓰일 예정임

7. ICS: 직접 관련된 활동은 하지 않음

8. At Post: USIS 도쿄와 서울에서는 언론담당실을 24시간 운영할 예정임. 이 두 곳에서는 지역 보도 자료를 발행할 예정임. 자세한 보도 관련사항은 PAOs에 의해 만들어 질 것이고 백악관 공보담당실의 에릭 로젠버그도 함께 참여할 것임

■ [대통령의 한국 방문 건]

- 형태 : 편지
- 발신 : William E. Timmons(대통령 보좌관)
- 출처정보 : -
- 일자 : 1974.11.7
- 수신 : Michael J. Harrington(하원의원)
- 관리번호 : CTA0000776

마이크(Mike) 씨에게 :

저는 당신이 대통령의 다가오는 한국 방문에 대해 당신 자신의, 그리고 한 선거구민의 우려를 표명하는 10월 31일자 서한을 잘 받았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최대한 빠른 기회에 당신과 당신의 선거구민의 의견들이 대통령과 그의 대외 정책 자문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게 될 것임을 확신하셔도 됩니다. 저는 당신의 견해가 즉시 재검토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With best regards,
Sincerely,

윌리엄 E. 티몬스(William E. Timmons)
대통령 보좌관(Assistant to the President)

마이클 J. 해링턴(Michael J. Harrington) 귀하
미 하원
워싱턴 D.C. 20515

bcc: W/이후의 조치를 위해 스킴크로프트 장군에게 전달

■ [주한미군 어머니의 편지에 대한 답신]

- 형태 : 편지
- 발신 : Ron Nessen(대통령 언론 담당 보좌관)
- 출처정보 : -
- 일자 : 1974.11.7
- 수신 : J. W. Wagoner
- 관리번호 : CTA0000776

웨거너(Wagoner) 여사에게

10월 21일의 사려깊은 편지와 인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당신께서도 10월 19일에 있었던 포드 대통령과의 식사에 함께 했던 사람들 중의 한 명이었던 것을 알고 기뻐했습니다. 비록 그때 저희가 만나서 당신의 제안에 대해 이야기하지 못했던 것이 아쉽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저는 당신께서 일부러 시간을 내셔서 한국에서 군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당신 아들의 활동에 대해 저에게 편지를 써 알려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의 제안은 아주 훌륭한 것이며 포드 대통령께서 다가오는 극동 방문에서 미군을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하고 계시기에 분명히 실현 가능한 범위의 일입니다.

With best wishes,

Sincerely,

론 네슨(Ron Nessen)

대통령 언론 담당 보좌관(Press Secretary to the President)

J.W. 웨거너 여사(Mrs. J.W. Wagoner)

10118 Whipps Mill Road

Louisville, Kentucky 40223

bcc w/ 이후 가능한 후속 조치를 위해 에릭 로젠버거(Eric Rosenberger)에게 전달

■ [보안 검색]

- | | |
|-------------------------------|---------------------|
| • 형태 : 비망록(메모) | • 일자 : 1974.11.8 |
| • 발신 : Judy O'Neil(백악관 공보담당실) | • 수신 : 통제실 |
| • 출처정보 : THE WHITE HOUSE | • 관리번호 : CTA0000616 |

포드 대통령 순방에 동행할 다음 인원에 대한 보안 검색을 실시해 주십시오.

마크 프랭크랜드

출생일자 : 1934년 4월 19일

출생지 : 영국 런던

여권번호-C496-774(영국)

콜린 스탠리 후스

출생일자 : 1937년 10월 5일

출생지 : 영국 호브

여권번호- EC 371660(캐나다)

패리 크레츠

출생일자 : 1933년 9월 9일

출생지 : 독일 Cologne

여권번호-1703834(미국)

찰스 안드레 하비브

출생일자 : 1949년 6월 14일

출생지 : 스위스 제네바

여권번호-11 GO 710(스위스)

제프맥물런

출생일자 : 1947년 12월 16일

출생지 : 호주 시드니

사회보장번호-081-52-4596

여권번호-H104698(호주)

아무 연락이 없으면 보안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 [동행 요청에 대한 거절 회신]

- 형태 : 편지
- 발신 : Ron Nessen(대통령 언론 담당 보좌관)
- 출처정보 : -
- 일자 : 1974.11.8
- 수신 : Helen D. Giblo
- 관리번호 : CTA0000702

기블로(Giblo) 여사 귀하 :

한국 서울까지의 정부 교통편을 요청하신 귀하의 편지를 잘 받았습니다.

대통령을 지원해주시겠다는 귀하의 제안은 깊이 감사를 드리지만 대통령 방문단으로 함께 여행하는 사람들의 수가 매우 제한되어 있고 대통령의 스태프들과 언론만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귀하의 요청을 들어드릴 수가 없어 죄송합니다.

Sincerely,

론 네슨

대통령 언론 보좌관

헬렌 D. 기블로 여사(Mrs. Helen D. Giblo)

6166 Leesburg Pike, Apt. B-203

Falls Church, Virginia 22044

■ [한국 관련 정보]

- 형태 : 편지
- 발신 : 한조 C. 김
- 출처정보 : -
- 일자 : 1974.11.8
- 수신 : Jerry Ford(대통령)
- 관리번호 : CTA0000733

대통령 각하 :

저는 각하의 한국 방문에 앞서 저의 견해를 표명할 기회를 얻게 되어 너무나도 영광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의 안녕을 위해 귀중한 각하의 시간을 빼앗지 않기 위해 저는 한국에 대한 저의 견해가 묘사되어 있는 기사 하나를 제출합니다.

각하께서 서울을 방문하시는 기간에 박 여사의 무덤에 화환을 놓아주시기를 감히 부탁드립니다.

각하께서 이렇게 삼가조의를 표해주신다면 한국민들과 한국 대통령은 진심으로 감명을 받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각하의 동양 방문이 즐겁고 복되시기를, 그리고 언제나 각하에게 우리의 호의와 기원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Respectfully yours,

한조 C. 김

첨부.

[Today's Family라는 신문에 실린 김한조의 기사가 첨부되어 있음.]

■ [대통령 방문 : 실질적 토론]

- | | |
|----------------|---------------------|
| • 형태 : 전문 | • 일자 : 1974.11.11 |
| • 발신 : 서울 미대사관 | • 수신 : 워싱턴 국무부, 백악관 |
| • 출처정보 : - | • 관리번호 : CTA0000777 |

1. 박 대통령과 포드 대통령의 개인적 만남에서 한국이 제안한 아젠다를 검토한 결과 우리는 다음과 같은 논평과 제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2. 박 대통령의 연설 : 모든 면에서, 박 대통령의 연설의 기본적인 개요를 따라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나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안보 위협에 관해 너무 세부적인 내용을 부연설명하지는 말아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최근의 SCM에서 이 주제가 충분히 다루어졌으며 미국 입장에 대해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추측되기 때문에 이 제안을 대통령 오피스에서 따라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3. 포드 대통령의 연설 :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견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

A. 박 대통령이 제안한 주요 주제들, 특히 국제 개발(international developments)에 관한 강

조는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이 주제에 관한 포드 대통령의 연설은 너무나도 종종 섬나라 식이고 내부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는 한국의 지평(horizons)을 넓히는데 훌륭한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 B. 우리는 현대화 프로그램(the Modernization program)이라든가 PL 480 인도(deliveries)라든가 하는 현재의 미국/한국 양국간 문제에 관해 세부 사항을 논의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안보 불안감을 중화시켜 주면서 우리 자신의 의도를 포괄할 수 있도록 고안된, 양자 관계에 관해 폭넓은 성명을 권고합니다: 우리의 의도 (1) 미국의 조약 책임(treaty commitment)을 지속하고 긴밀한 관계를 계속하는 것. (2) 현재 수준의 주한미군을 본질적으로 유지하는 것과 한국과의 완전한 협의 없이 혹은 한국의 안보 위협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주요 전투 부대(major combat forces)를 철수시키지 않는 것. 그리고 (3) 현대화 프로그램과 PL 480 인도에 관한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것, 하지만 미국 예산 상의 제약, 군사 지원에 있어서 의회의 삭감(cuts)이 현대화 프로그램 인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PL 480 인도에 있어서 곡물 부족의 영향을 현실적으로 유념하면서, 결정이 난다면, 한국 내부 정책들에 관한 미국 내의 비판이 한국과 관련한 의회의 조치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해서 현대화 프로그램에서 보조금 지원(grant aid)에서 신용판매(credit sales)로의 전면적인 전환이 언급될 수도 있습니다.
- C. 포드 대통령의 연설에서 특히 주요 국제 경제 발전에 관해 특히 한국의 경제 건강에 너무나도 중대한 미국 경제의 미래에 관해 다시 한번 확신을 줄 수 있도록, 그리고 다국적 경제 협력에 관해 미국이 중점을 두고 있음을 묘사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춰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현재 한국의 경제적 문제들은 BOP 지원에 대한 폭넓은 보장을 포함해 상호 공감하는 인식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이 고 에너지 비용(high energy costs)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불리한 효과에 대해 오펙(OPEC) 국가들에게 직접적으로 압력을 가하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그 외에 에너지 행위 그룹(energy action group)과 한국과 같은 중간 경제(middle economies) 사이의 일종의 공식적 연계(link)를 제안하는 것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 D. 긴장완화 노력에 관한 브리핑은 박 대통령이 특히 고맙게 여길 것이며 한국 지도층이

이러한 노력들이 한국의 안보를 약화시킬 수도 있다는 잠재적인 의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이는 우리의 이익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박 대통령이 특히 한국의 문제와 남북 화해에 관해 블라디보스톡이나 기타 다른 곳에서 고위급 회담에서 논의하는 계획에 관심을 보일 것이 명백합니다. 그가 그러한 논의를 제안할지도 모릅니다. 이와 같은 고위급 회담에 관해 박 대통령에게 우리 역시 적절한 브리핑을 약속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E. 한국/일본 문제에 관해, 긴밀한 유대관계가 양국 모두에게 상호 중요하다는 것과 필요하다면, 미국이 기꺼이 이런 프로세스를 지원할 마음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일반적인 논평을 제안합니다.

스나이더(Sneider)

BT

■ 대통령의 방문 : 공식 성명서

- | | |
|----------------|---------------------|
| • 형태 : 전문 | • 일자 : 1974.11.11 |
| • 발신 : 서울 미대사관 | • 수신 : 워싱턴 국무부 |
| • 출처정보 : - | • 관리번호 : CTA0000777 |

1. Acting Foramin LHD가 저에게 아래와 같은 11월 11일 초안 성명서를 주었으며 빠른 시일 내에 논평을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성명서에 사용된 표현(전문 술어 등)은 이전의 미국/한국 고위급 성명서를 참조해 작성되었으며 박 대통령의 검토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성명서 초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 17053:

(1) 한국의 경애하는 박정희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의 경애하는 제럴드 R. 포드 대통령이 1974년 11월 22일과 23일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포드 대통령은 11월 22일 국립묘지를 방문했으며 무명 용사들의 무덤과 최근에 돌아

가신 박정희 대통령의 영부인의 묘지를 찾아 화환을 바쳤습니다.

포드 대통령은 11월 22일과 23일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을 만났으며 최근의 국제 상황과 상호 관심사항에 대한 서로의 견해를 주고받았습니다.

두 대통령의 만남은 두 나라 사이의 긴밀한 관계를 반영하는 아주 우호적이고 성의어린 분위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2) 박 대통령과 포드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 사이에 전통적으로 존재하는 강력한 친선과 협력 결속을 재확인했으며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평화가 확실하게 지속되도록 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과 협의를 계속해서 지켜나가기 위한 서로의 결의를 새롭게 했습니다.

(3) 두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평화 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평화에 기여하는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과 한국은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다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4) 박 대통령은 한반도의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으며 포드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두 대통령들은 북한의 군사력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한국의 안보에 계속해서 심각한 위협으로 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으며 한국을 방어하는 군대는 충분한 수준에서 유지되어야 하며 교전의 재발을 억지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계태세를 계속해야 한다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두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역할이 중요하며 한국의 자주 국방 능력을 성취하기 위해 한국의 방위 산업들을 개발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한국 군대의 현대화 프로그램을 조기에 완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합의했습니다.

두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어떠한 무력 공격도 한국과 미국 사이의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것이라는 결의를 재확인했습니다.

(5) 박 대통령과 포드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긴장완화를 위해 취한 일련의 정책 발의안들, 즉 1973년 6월 23일에 나온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대외 정책과 관련한 대동

령 성명, 1974년 1월 18일에 나온 남북 사이의 불가침 합의에 관한 제안, 그리고 1974년 8월 15일 박 대통령이 선언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3대 기본 원칙들과 같은 것들이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평화를 구축할 것이며 따라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과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 확고한 상호 확신을 표명했습니다.

두 대통령은 전세계 모든 나라들에게 한국 정부가 취하고 있는 이러한 건설적인 스텝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두 대통령은 북이 북한 쪽에서 일방적으로 중단해왔던 남북 대화의 조기 재개를 위해 성실하게 나와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 (6) 박 대통령과 포드 대통령은 식량과 석유 등과 같은 세계 자원과 인플레이션과 관련한 문제들을 비롯해 최근 세계 경제 문제에 관해 서로의 견해를 교환했으며 보유한 자원이 부족하고 석유 등과 같은 자원을 소입에 의존해야만 하는 개발도상국기들의 상황은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두 대통령은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특히 서로 의존도가 아주 높은 오늘과 같은 세계에서는 개별 국가들에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주목하였으며 이러한 국가들의 지속적인 경제 발달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같은 개발도상국가들에 대한 원자재 공급이 충분한 수준에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 합의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박 대통령은 세계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그리고 세계 경제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포드 대통령이 들이고 있는 노력과 제기한 발의안들에 깊은 관심과 높은 기대를 보였습니다.

- (7) 박 대통령은 유력한 세계 경제 상황 하에서 한국 경제의 문제점과 현 상황에 대한 개요를 설명했으며 한국 정부의 경제 정책의 목표는 자급자족을 달성하고 모든 한국 국민들의 복지를 개선하는 것임을 재확인했습니다.

포드 대통령은 최근 몇 년간 한국이 수많은 불리한 조건에서도 불구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놀랄만한 발전을 이루어낸 것에 대해 경의를 표명했습니다.

두 대통령은 양국 기업인들의 방문과 교류가 증가되고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표하면서 상호 공통의 이익을 위해 두 나라 사이의 긴밀한 경제 협력을 유지하고 장차 더 긴밀한 협력을 추구하겠다는 결의를 재확인했습니다.

두 나라 사이의 무역량이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에 만족감을 나타내면서, 두 대통령은 두 나라 사이의 무역을 더욱 증가시키는데 놓여 있는 장애물들을 제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에 합의했습니다.

(8) 포드 대통령은 박 대통령과 한국 정부, 그리고 한국 국민들에게, 그리고 포드 대통령과 그의 일행이 한국에 머무는 동안 이들이 보여준 따뜻한 환영과 환대에 깊은 감사를 표명했습니다.

포드 대통령은 박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줄 것을 진심으로 초청했으며 박 대통령은 기쁘게 이 초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상 끝.

3. 대사관의 논평이 이어집니다.

■ 대통령 방문 : 선물

- | | |
|-----------------|---------------------|
| • 형태 : 전문 | • 일자 : 1974.11.11 |
| • 발신 : 서울 미국대사관 | • 수신 : 워싱턴 국무부, 백악관 |
| • 출처정보 : - | • 관리번호 : CTA0000777 |

1. 의전실 지 의장이 저희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통보해왔습니다. 그들이 대통령을 서울까지 수행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은 포드 여사와 대통령의 자제들에게 개인적인 선물을 드리기를 희망한다고 합니다.

2. 따라서 포드 대통령 역시 박 대통령의 자제들에게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박 대통령의 자제들은 딸 박근혜(22살), 딸 박근영(20살), 그리고 아들 박지만(16살)입니다.

스나이더(Sneider)

BT

■ [한국 내 정치범으로 사형 선고받은 8인에 대한 조사관 파견 요청에 대한 답신]

- | | |
|------------------------------------|-----------------------------|
| • 형태 : 편지 | • 일자 : 1974.11.11 |
| • 발신 : Max Friedersdorf(대통령 부 보좌관) | • 수신 : Bella S. Abzug(하원의원) |
| • 출처정보 : 포드기록관 백악관자료 | • 관리번호 : CTA0000709 |

아부주그 여사에게(Dear Mrs. Abzug)

대통령의 한국 방문 기간 대통령께서 이른바 박 정권에 반대하는 음모에 연루되었다고 해서 여덟 명에게 사형 선고가 부과되었다고 하는 보도를 조사하도록 한 명을 파견해 주실 것을 대통령께 요청하는 당신의 11월 6일자 편지를 잘 받아보았으며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귀하의 편지와 동봉하신 자료들을 대통령과 대통령의 대외정책 자문들이 빠른 시간 내에 주목하시도록 확실히 처리하겠습니다.

With kind regard,

Sincerely,

맥스 L. 프리더스도르프(Max L. Friedersdorf)

대통령 부 부좌관(Deputy Assistant to the President)

경애하는 벨라 S. 아부주그(Bella S. Abzug)

미 하원

워싱턴 D.C. 20515

미 의회

하원

워싱턴 D.C. 20515

1974년 11월 6일

제럴드 R. 포드 대통령(Gerald R. Ford)

백악관

워싱턴 D.C.

대통령 각하 :

다가오는 대통령 각하의 한국 방문 기간, 각하께서 방문단 중 몇몇 사람들을 긴급한 상황 조사를 위해 파견해주시기를 제가 삼가 요청을 드려도 될까요?

신뢰할 만한 다양한 많은 종교 그룹들로부터 박 정권에 대항하는 음모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여덟 명의 사람들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미국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람들이 정부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바가 없으며 반면 희생양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들 편에서 이야기해줄 수 있는 단체는 전혀 없으며 사람들도 거의 없습니다.

이들 사건에 대해서는 동봉한 자료에 상세하게 나와있습니다. 이 자료들은 미국연합감리교단 세계선교부(the Board of Global Ministries, the United Methodist Church)를 통해 저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또한 어떻게든 도움을 주겠노라고 하신 에드윈 피셔 주니어(Edwin Fisher, Jr.) 사무총장의 편지 사본을 동봉했습니다.

만약, 조사를 통해 각하께서 이들을 풀어주는 것이 정당하다고 여기신다면, 그리고 각하의 방문 기간 동안 이들이 풀려난다면 이는 정치적 반대자들을 억압하는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예증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Respectfully,

벨라 S. 아부주그(Bella S. Abzug)

미 의원(Member of Congress)

동봉

미국연합감리교단 세계선교부(the Board of Global Ministries, the United Methodist Church)
475 Riverside Drive, New York, N.Y. 10027.

(212)749-0700

전신(cable): missions new york

1974년 10월 16일

경애하는 벨라 S. 아부주그

미 하원

워싱턴 D.C. 20515

아부주그 여사에게 :

동봉한 자료, “그들은 사형선고를 받은 상태이다(They're Under Sentence of Death)”는 한국에 있는 아주 가까운, 신뢰할 만한 친구로부터 온 것입니다. 귀하께서 포드 대통령이 11월에 한국을 방문하시기 전에 대통령께 이를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 사본을 귀하와 공유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이들 중 여덟 명의 사람들은 사형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주 긴급합니다.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던 바에 한해서는 이 자료에 기술되어 있는 사람들은 한국의 박정희 정부에 대해서 아무 잘못도 한 바가 없습니다. 그들은 1974년 사건 당시 정부에 반대하는 어떤 일에도 가담한 바가 없습니다. 그들은 소위 박 정부에 반대한다는 ‘음모’의 희생양이며 ‘잊혀진 사람들(forgotten members)’입니다.

이 자료를 귀하께서 읽어주신다면 그리고 이를 포드 대통령에게 전달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통령의 한국 방문단 중에서 몇몇 사람들이 이 ‘잊혀진 사람들’의 대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동의하신다면, 저희가 이를 주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은 미국이 인권을 억압하는 박 대통령 독재 정권을 지지한다는 한국 내의 판단을 약화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 질문이 있으시거나 좀더 철저히 이를 조사하고자 한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으로 기꺼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Sincerely,

에드윈 O. 피셔, 주니어(Edwin O. Fisher, Jr.)

사무총장(Executive Secretary)

cc: 도널드 레너드(Donald Ranard), 미 국무부 한국 담당관(Korea De나, U.S. State Department)

■ [대통령 방한시 김지하 시인에 대한 사면 제안 건의]

- | | |
|--------------------------|----------------------------------|
| • 형태 : 편지 | • 일자 : 1974.11.11 |
| • 발신 : William S. Reilly | • 수신 : Ron Nessen(대통령 언론 담당 보좌관) |
| • 출처정보 : - | • 관리번호 : CTA0000784 |

네슨 씨 귀하

대통령과 귀하가 한국에 가져가실 수 있는 선물로 김지하 시인의 자유를 고려해 주십시오. 그는 반정부 풍자시 때문에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민감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포드 대통령께서 사면을 제안하신다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Sincerely,
윌리엄 레일리

론 네슨 귀하

■ [대통령의 한국 방문]

- | | |
|----------------------------------|-----------------------------------|
| • 형태 : 비망록 | • 일자 : 1974.11.12 |
| • 발신 : Vernon C. Loen(대통령 부 보좌관) | • 수신 : Brent Scowcroft(백악관 군사보좌관) |
| • 출처정보 : - | • 관리번호 : CTA0000733 |

현재는 메릴랜드 랜햄 부근에 사는 한국 출신의 한조 C. 김 씨가 개인적인 친구인 R-Ohio의 테니슨 기어 의원의 제안으로 우리 사무실로 첨부한 자료를 전달했습니다. 편지는 잘 받았음을 알렸습니다.

대통령께서 박 여사의 무덤에 화환을 놓는 것을 고려해 달라는 그의 제안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대통령의 한국순방 취재를 위한 기자증 발급]

- | | |
|---------------------------------|---------------------|
| • 형태 : 전문 | • 일자 : 1974.11.12 |
| • 발신 : Edward Savage(백악관 공보담당관) | • 수신 : 서울 미대사관 |
| • 출처정보 : - | • 관리번호 : CTA0000616 |

Mr.Yoo

포드 대통령의 대한 민국 순방을 취재할 수 있도록 백악관 출입 기자증을 공보담당실을 대표해서 드리는 바입니다.

백악관 공보담당관 에드워드 세비지

대한민국 대사관
2320 매사추세츠 애비뉴 N.W
워싱턴 D.C 20008

■ [대통령 아시아 순방 동행 요청]

- 형태 : 전문
- 일자 : 1974.11.12
- 발신 : 마코토 카와나고 (산케이 심번), 테추야 오제키(Jiji Press)
- 수신 : Ron Nessen(대통령 언론 담당 보좌관)
- 출처정보 : The Sankei Shimbun
- 관리번호 : CTA0000616

백악관 공보담당관 론 네슨씨께
1974년 11월 12일

워싱턴의 일본 특파원들은 우리 대표들이 포드 대통령 아시아 순방길 동행을 요청합니다. 다음 3명의 대표를 위한 일정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유선부문, 기사 작성 및 방송 부문대표)

마코토 카와나고 (산케이 심번)
테추야 오제키(Jiji Press)
워싱턴 일본특파원장

■ [대통령 한국방문 관련 자료 전달]

- 형태 : 편지
- 일자 : 1974.11.12
- 발신 : Vernon C. Loen(대통령 부 보좌관)
- 수신 : 한조 C. 김
- 출처정보 : -
- 관리번호 : CTA0000733

김 씨에게 :

대통령의 이번 한국 방문과 관련이 있는 자료를 동봉한 귀하의 편지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자료는 이번 대통령의 방문을 준비하는 대통령의 최고위 자문단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한국 출신의 지식인으로서의 귀하의 견해와 제안에 대통령께서 감사히 여기시리라 생각합니다.

With best wishes, I am

Sincerely yours,

버논 C. 로엔(Vernon C. Loen)

대통령 특별 보좌관

한조 C. 김(Hancho C. Kim)

6404 Martin's Lane

Lanham, Maryland 20804

bcc: 테니슨 기어(Tennyson Guyer) 귀하

■ [편지 수신 확인]

- | | |
|------------------------------------|----------------------------------|
| • 형태 : 전문 | • 일자 : 1974.11.15 |
| • 발신 : Max Friedersdorf(대통령 부 보좌관) | • 수신 : JSpark M. Matsunaga(하원의원) |
| • 출처정보 : - | • 관리번호 : CTA0000777 |

1974년 11월 15일

마츠나가(Matsunaga) 씨에게

귀하께서 호놀룰루에 살고 있는 한국계 미국인들이 한국 정부가 최근 억압적인 전술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괴로워하고 있음을 대통령께 알려주신 편지를 잘 받았으며 이에 감사를 드립니다.

대통령께서 일본, 한국, 그리고 USSR로 출발하시기 전에 대통령께서 이를 보시게 될 것을 확신하셔도 좋습니다. 또한 귀하의 의견은 대통령의 대외정책 자문들에게도 전달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With kind regards,

Sincerely,

맥스 L. 프리더스도르프(Max L. Friedersdorf)

대통령 부 보좌관(Deputy Assistant to the President)

스파크 M. 마츠나가(Spark M. Matsunaga) 귀하

미 하원

워싱턴 D.C. 20515

미 의회

미 하원

워싱턴 D.C. 20515

1974년 11월 6일

대통령

백악관

워싱턴 D.C. 20500

대통령 각하 :

저의 선거구에는 많은 한국계 미국인들이 있기 때문에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각하의 이번 한국 방문은 평상시보다 더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미국인들은 한결 같이 한국 정부가 최근 억압적인 전술을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괴로워하고 있으며 어떤 이들은 박 대통령 정부가 취하고 있는 전체주의 코스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합니다.

분명 각하의 자문들도 반정부 시위와 집회에 대해 각하에게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한국 정부 당국의 계속되는 탄압에도 불구하고 바로 오늘도 서울에서는 시위와 집회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정부 형태를 선호하는 한국인들 그리고 하와이에 있는 그들의 미국 친지들은 각하의 방문이 각하께서 방문을 끝마친 이후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따라 두 가지 방향 중 하나의 견해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미국 대통령의 한국 방문 이후)한국 정부가 자국민들을 다루는데 있어 현재의 억압적인 조치들을 계속한다면, 그럴 가능성이 너무도 많은데, 미국 대통령이 박 대통령 정부에 승인 도장을 찍어준 것이라고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결론이 너무나도 불합리하고 부당한 것임에도 말입니다.

반면에, 박 대통령 정부가 각하의 방문 이후 민주주의적인 방향으로 확실하게 전환한다면, 다시 한번 미국 대통령은 이러한 변화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박 대통령과 여러번 만났던 사람으로서, 저는 올해 초 박 대통령의 정부의 출발은 과거 민주주의 원칙들에서 비롯된 급진적인 것이었음을 강조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제 편지 사본을 동봉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한 답장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신 듯 합니다.

Aloha and best wishes,

Sincerely,

스파크 마츠가나

미 의원

대외관계/한국

1974년 7월 29일

항공 우편

경애하는 박정희 대통령

서울, 한국

박 대통령 각하 :

한국민들을 깊이 존경하고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한국계 미국인들이 많이 포함된 선거구의 국회의원으로서, 많이 괴로워하고 있는 한국의 친구로서 저는 이 편지를 씁니다.

현재 미국 전역에서는 한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에 대한 분노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미국 대통령 임기 문제를 비롯해 처리할 최근의 중요한 문제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미 의회 의사당 내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잘못이 있다면 단 하나, 자신의 신념에 대해 용감하게 목소리를 냈을 뿐인, 그렇게 두려운 전체주의적 정권 하에서가 아닌 상황에서이긴 하지만 미국인들에게는 매일 매일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신념을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한국민들에게 군사 재판에서 사형 판결과 장기형 판결이 내려졌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현직 대통령으로서, 각하께서 순전히 정치적인 위반 때문에 수감된 사람들을 풀어주고 사형 선고를 받은 이들의 형을 감면해 주는 집행권자로서의 관용을 행사하시기를 촉구합니다.

전세계는 일반적으로 순교자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을 각하의 정부 하의 몇몇 죄수들에게 부여하는 방향으로 급속하게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김지하, 윤보선, 김대중, 장준하, 다니엘 지 주교 등이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를 위협한 바다에서 끌어내어 다시 한번, ‘조용한 아침의 나라(Land of the Morning Calm)’ 라는 말이 너무나도 당연한 시대를 열어나가십시오.

다른 이유는 다 들췌치고 약 3만5천명의 우리의 아들들이 한국 전쟁에서 목숨을 바쳤다는 사실, 이 나라(미국)가 1945년부터 한국에 거의 110억 달러에 달하는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제공해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 미국인들은 그 외 어떤 다른 방향도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가 아니더라도 모든 미국인들은 한국이 젊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인간이 지금껏 고안해낸 가장 훌륭한 정부 시스템을 갖춘 국가의 이미지로 성장하고 남을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번 각하를 방문할 수 있었던 특혜를 얻었던 사람으로서 그리고 각하의 과거 업적들에 대해 각하와 각하의 정부를 공개적으로 칭송했던 사람으로서, 저는 각하께서 저의 이러한 호소를 마음에 두시기를 기원합니다. 대통령 각하, 이러한 문제에 관한 각하의 결단은 아마도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한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역사에서 각하의 자리를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민들의 친구로서, 저는 각하께서 이 세기의 모든 민주주의 국

가들 중에서 진정으로 위대한 대통령 중의 한 사람으로 박정희라는 이름이 기억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시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Aloha and best wishes.

Sincerely,

스파크 마츠나가

미 의원

■ [대통령 담화에 대한 편지 수신 확인]

- | | |
|------------------------------------|----------------------------------|
| • 형태 : 편지 | • 일자 : 1974.11.15 |
| • 발신 : Max Friedersdorf(대통령 부 보좌관) | • 수신 : Edward J. Derwinski(하원의원) |
| • 출처정보 : - | • 관리번호 : CTA0000777 |

에드에게 :

박 대통령과 (포드) 대통령의 담화와 관련한 귀하의 11월 15일자 편지를 잘 받았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코흐 의원(Congressman Koch)으로부터의 편지는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귀하의 편지와, 그리고 그의 편지가 도착하는 대로 대통령께서 빠른 시일 내에 주목하시게 될 것임을 확신하셔도 좋습니다.

With warm regards,

Sincerely,

맥스 L. 프리더스도르프

대통령 부 보좌관

경애하는 에드워드 J. 더윈스키

미 하원

워싱턴 D.C. 20515

bcc w/이후 처리를 위해 스크로프트 장군에게 전달

■ [방한에 대한 지지]

- 형태 : 편지
- 발신 : Edward J. Derwinski(하원의원)
- 출처정보 : CONGRESS OF UNITED STATES
- 일자 : 1974.11.15
- 수신 : Jerry Ford(대통령)
- 관리번호 : CTA0000777

대통령 각하 :

각하의 한국 방문이 잘못 해석되는 일이 없도록 저는 각하께서 박 대통령과 각하의 협상에 관한 에드 코흐(Ed Koch) 하원의원에게서 받은 서신은 무시하실 것을 제안합니다.

저는 각하의 상식(common sense)과 각하께서 미국과 한국의 긴밀한 관계와 그들과 효과적인 동맹을 지속할 필요성에 대해 잘 아실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각하께서 그러한 조언은 거부하실 것임을 확신합니다.

이 중요한 여행을 잘 하시기를 희망하며.

Sincerely yours,

에드워드 J. 더윈스키, 의원

■ [한국의 억압적 정치 상황에 대한 하원의 군사 지원 예산 삭감 결의]

- 형태 : 편지
- 발신 : 미 의회 하원
- 출처정보 : CONGRESS OF UNITED STATES
- 일자 : 1974.11.15
- 수신 : Jerry Ford(대통령)
- 관리번호 : CTA0000778

대통령 각하:

각하의 이번 한국 방문은 박정희 대통령에게 그가 한국 국민들에게 지운 억압적인 조치들을 끝내지는 못하더라도 감소시키도록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미국이 이 나라에 돈 뿐만 아니라 피를 흘려가며 지원했기 때문에 이 나라에는 특히 미국의 영향력을 행사할 특별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의회는 한국의 억압적인 국내 정책들 때문에 한국에 대한 군사 지원을 삭감하기로 표결했습니다. 각하께서 한국의 억압 상황에 대해 솔직하게 비판하지 않으신다면, 그리고 이를 종결하기 위한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신다면, 각하의 박 대통령과의 만남은 그의 정책을 승인하는 것으로

잘못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각하께서 돌아오실 때 각하께서 이 문제에 관한 각하와 박 대통령과의 대화의 결과로 얻어진 개선 상황에 대해 저희에게 알려주실 수 있다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Sincerely,

하원의원 에드워드 I. 코흐(Edward I. Koch)

하원의원 벨라 S. 아부주그(Bella S. Abzug)

하원의원 아우구스투스 호킨스(Augustus Hawkins)

하원의원 허먼 바딜로(Herman Badillo)

하원의원 로버트 레게트(Robert Leggett)

하원의원 조나단 빙행(Jonathan Bingham)

하원의원 로버트 모로한(Robert Mollohan)

하원의원 에드워드 P. 볼랜드(Edward P. Boland)

하원의원 윌리엄 무어헤드(William Moorhead)

하원의원 조지 브라운(George Brown)

하원의원 돈 리글(Don Riegle)

하원의원 존 버톤(John Burton)

하원의원 패트리샤 슈뢰더(Patricia Schroeder)

하원의원 존 코니어스(John Conyers)

하원의원 모리스 우달(Morris Udall)

하원의원 윌리엄 포드(William Ford)

하원의원 앤드류 영(Andrew Young)

■ [김지하 관련 편지 전달 건]

- | | |
|------------------------------------|----------------------------------|
| • 형태 : 편지 | • 일자 : 1974.11.15 |
| • 발신 : William E. Timmons(대통령 보좌관) | • 수신 : James C. Cleaveland(하원의원) |
| • 출처정보 : - | • 관리번호 : CTA0000784 |

지미(Jimi)에게

귀하의 편지와 대통령께서 종신형을 받은 한국 시인이자 작가 김지하를 위해 한국 정부를 중재해주시기를 바라는 뉴햄프셔, 윌튼(Wilton, New Hampshire)의 프레드릭 L. 데이(Frederic L. Day) 씨에게서 귀하가 받으신 편지 사본을 동봉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는 감사히 귀하와 데이 씨의 편지를 대통령과 그의 대외 정책 자문단에게 전달할 것이며 그들이 이를 참작하리라 확신합니다.

With best wishes,

Sincerely,

윌리엄 E. 티몬스(William E. Timmons)

대통령 보좌관

제임스 C. 클리브랜드(James C. Cleveland) 하원의원
워싱턴 D.C. 20515

bcc w/이후 처리를 위해 스킵크로프트 준장에게 전달

■ 크롤 추기경이 포드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

- 형태 : 비망록
- 일자 : 1974.11.16
- 발신 : George S. Springsteen(국무부 사무총장)
- 수신 : Brent Scowcroft(백악관 군사보좌관)
- 출처정보 : DEPARTMENT OF STATE 7422554
- 관리번호 : CTA0000779

필라델피아의 대주교 크롤 추기경이 11월 4일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에서 추기경은 대통령의 한국 방문이 한국 국내 상황에 미칠지 모르는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한국의 김 추기경의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김 추기경은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성직자입니다. 김 추기경은 미국 가톨릭에서 대통령에게 대통령의 방문이 한국의 인권 침해와 억압을 부추기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견해를 전달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백악관 스테프 중의 한 사람이 서명을 해 주어야 할 답장 초안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조지 S. 스프링스틴(George S. Springsteen)

사무총장

첨부 :

1. 답장 초안
2. 11월 4일의 크롤 추기경의 편지

필라델피아 대주교 교구
222 N. 17th Street
Philadelphia, Pa. 19103

추기경 사무실
1974년 11월 4일

대통령 각하 :

저는 감히 대통령 각하의 한국 방문에 유용하리라고 여겨지는 기밀 정보를 이 편지에 동봉했습니다. 저는 10월 23일자 편지에서 저자와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고결하고 위대한 용기를 가진 사람이며 건전한 판단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는 고위 방문 성직자(a visiting dignitary)로서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지만 어떻게든 인권과 존엄과 자유의 역압이나 침해가 부추겨져서는 안된다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Sincerely yours,
존 크롤 추기경
필라델피아 대주교

대통령
백악관
워싱턴

천주교 서울 대주교
1974년 10월 23일 로마

고귀하신 제임스 로쉬(James Rausch) 님
 사무총장(General Secretary)
 미국 가톨릭 위원회(United States Catholic Conference)
 1312 Massachussetts Avenue
 워싱턴 D.C. U.S.A.

로쉬 주교님께 :

요전날 저는 귀 위원회의 정의평화국(the Justice and Peace Division)의 브라이언 헤히어(Bryan Hehir) 신부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공통의 관심사와 우려사항들에 대해 주교님께서서 우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아쉬워했습니다. 저는 주교님께서서 로마를 그렇게 빨리 떠나시리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기회를 희망해 보아야겠지요. 한편, 헤히어 신부님이 주교님께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나누었던 견해의 요지를 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또한 그의 제안을 받아들여 미국 가톨릭 위원회 사무총장으로 계시는 주교님께 감히 저의 견해와 소망들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는 지금 한국에 있는 모든 주교, 신부 그리고 신자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반영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전 세계가 알고 있다시피, 포드 대통령의 일본 방문, 이어 한국 방문 계획은 현재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 한국에 있는 우리들은 복잡한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대와 불안 사이에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 좀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포드 대통령의 방문으로 우리 정부의 현 정책에 진정한, 긍정적인 전환이, 특히 인간의 기본권과 관련한 전환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의 삶이나 운명을 타율의 판단에 맡기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상황의 역학관계를 보면 어떤 면에서 상황을 좀더 나아지도록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 포드 대통령보다 더 나은 사람은 없습니다.

반면에, 그의 방문이 이를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간에 만약 현 정권을 승인하거나 강화하는 악영향을 미친다면(그리고 이는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게 될 것이 명백합니다) 수많은 뜻있는 선한 한국인들의 마지막 희망은 정말로 산산조각이 나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어느 누구도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냉소와 반미 감정의 쓸쓸한 경향도 그 중 하나일 것입니다. 미국의 대외 정책 추구하고 관련해 워싱턴에서 직접 나오는 최근의 다소 냉담한 성명서의 결과로서는 이러한 부정적인 반응을 막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상상컨대 선한 의도에 대한 신뢰 혹은 '자유 세계(free world)'를 구하는 힘의 궁극적인 상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포드 대통령의 방문은, 매우 짧지만 어떤 식으로든 국내외의 모든 통신 수단이 막혀 버리고 시민 행동의 합법적 통로가 사실상 차단된 한국에 매우 깊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 편지와 같은 편지를 서울에서 부친다면 이는 결코 주교님께 전달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지 주교와 관련된 수많은 격려와 연대 편지들, 전신들은 단 하나도 저희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 주교나 현재 고통을 받고 있는 가톨릭 신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한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외부의 지원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이유입니다.

지금 미국 종교계가 포드 대통령이 극동으로 출발하기 전에 공개적이든 혹은 신중한 방식으로든 주교님께서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는 방법으로 대중들을 비롯해 모든 이들에게 이번 포드 대통령의 방문이 미국의 안보를 위한 군사적 전략에 대한 고려 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우방 국가와 그 국민들이 보다 행복한 환경에서 살도록 도와주고 싶은 더 숭고한, 사심없는 소망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여겨지고 이해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우리의 소망을 포드 대통령에게 전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한국민을 위해 미국 종교계에서 베풀어주시는 모든 행동들, 특히 이 힘든 시기에 보여 주는 행동들에 저희는 모두 진심으로 감사할 것입니다.

With very sincere thanks, with best wishes and prayers, I am

Yours devotedly in Christ,

스티븐 김 추기경(Stephen Cardinal Kim)

서울 대주교

한국 주교 연합회 회장(President, Bishops' Conference of Korea)

■ [한국 방문 환영]

- 형태 : 편지
- 발신 : 김택하(한국 국회 대외관계 위원회 위원)
- 출처정보 : -
- 일자 : 1974.11.16
- 수신 : Jerry Ford(대통령)
- 관리번호 : CTA0000777

대통령 각하, 귀하의 한국 방문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귀하의 한국 방문을 통해 전 한국의 평화가 영구적으로 정착되기를, 더 나아가 이 기회를 통해 아시아의 안보가 확실시되기를 진정으로 희망하며 한국과 미국의 상호 관계가 더욱 긴밀하게 단단하게 결합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각하께서 한국을 방문하는 길에 삼가 행운을 빕니다.

김택하(Taik Har Kim)

한국 국회 대외관계 위원회(Foreign affairs committee) 위원

미 국무부
 워싱턴 D.C. 20520
 공무용으로만 제한
 1974년 11월 16일

■ 일정 : 1974년 11월 18일 월요일

- 형태 : 비망록
- 발신 : 백악관 공보 담당
- 출처정보 : -
- 일자 : 1974.11.18
- 수신 : -
- 관리번호 : CTA0000620

1974년 11월 18일 월요일

- 15:30 (현지시각) AFI가 도쿄국제공항에 도착
 대통령은 수행원장과 주일 미대사의 영접을 받음
 공개 취재
- 15:40 헬기가 도쿄 국제공항에서 Akasaka Palace로 출발

15:50 헬기가 아카사카궁에 도착

1974년 11월 19일 화요일

9:30 아카사카궁에서의 환영 행사

공개 취재

복장은 모닝코트임. 일본관습상 황제가 연설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9:50 자동차행렬이 아카사카궁을 떠나 황궁으로 감

대통령은 천황과 차를 같이 탑. 미국 수행원들은 대통령과 동행할 예정이므로 모닝코트를 입어야 함.

10:00 자동차 행렬이 황궁에 도착

천황과 함께 황궁 내부 접견실로 들어가 천황과 황후와 짧은 만남을 가짐
다른 수행원들은 대기실에서 대기

10:35 자동차 행렬은 황궁에서 아카사카궁으로 출발

10:40 자동차 행렬은 황궁에서 아카사카궁에 도착

11:00 다타카 총리가 아카사카궁에 의례적 행사와 정상회담을 위해 도착

취재단 취재

복장은 비즈니스 정장

13:00 자동차 행렬이 아카사카궁에서 총리 관저로 출발

다나카 총리는 대통령과 동승

13:15 자동차 행렬이 총리관저에 도착

대통령과 총리는 일본 영부인과 인사를 나누고 주빈을 맞기 위한 줄을 선다
취재단 취재

14:45 오찬 마침

자동차 행렬이 총리관저를 떠나 아카사카궁으로 향함

14:55 자동차행렬이 아카사카궁에 도착

15:30 미노베 도쿄 주지사가 아카사카궁에 의례행사를 위해 도착

취재단 취재

15:40 미노베 주지사가 아카사카공을 출발

개인시간

19:25 자동차행렬이 아카사카공을 떠나 연회를 위해 황궁으로 떠남

연회복장은 백색타이

19:30 자동차행렬이 황궁에 도착

대통령은 천황과 황후의 영접을 받음

대통령은 천황과 황후의 안내를 받으며 응접실로 감 주빈들을 통과해 연회장으로 감

만찬이 시작됨 디저트 중에 건배가 있었음

취재단 취재(건배장면만)

22:50 연회가 대통령과 천황이 주빈들과 아페르티프를 마신 후에 끝남

자동차행렬이 황궁을 떠나 아카사카공으로 떠남

23:00 자동차행렬이 아카사카공에 도착

1974년 11월 20일 수요일

10:00 총리가 아카사카공에 정상회담을 위해 도착

취재단 취재

11:30 정상회담 마침

12:30 오찬과 일본기자연합회연설을 황궁호텔에서 함

이 연설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님, 특히 질의응답의 주제에 있어서

14:30 기자연합회연설 마침

15:00 자동차행렬이 국립극장에 도착해서 대통령이 학생들과 전통인형극을 관람(건의 사항)

공개 취재

16:00 국립극장 공연 종료

자동차 행렬이 국립극장에서 오쿠라 호텔로 감

16:10 자동차 행렬이 오쿠라 호텔에 도착

대통령이 장시 대기실에 머무름

양원의장의 접대를 받음

취재단 취재

참가 인원 : 200명

17:00 대통령은 옆방으로 옮겨 다른 비정부기구들의 비공식 리셉션에 참여
취재단 취재

참가 인원 : 500명

17:50 대통령은 자동차에 오름
오쿠라 호텔에서 아카사카궁으로 감

18:00 아카사카궁 도착

개인시간

19:30 대통령이 아카사카궁의 정문으로 나와 천황과 황후를 맞음 미국 호혜 만찬으로
안내하기 위해서이다

복장-비즈니스 정장

취재단 취재(건배 장면만)

21:30 만찬 종료

천황과 황후가 아카사카궁을 출발

1974년 11월 21일 목요일

21:30 아카사카궁 환송의식

복장-비즈니스 정장

21:45 헬기가 아카사카궁을 출발해 도쿄 국제 공항으로 감
정확한 교통수단은 일본정부와 협의 후 결정

22:00 AFI가 도쿄 국제 공항에서 오사카로 감

백악관

일정

일본 교토

1974년 11월 21일 22일

1974년 11월 21일 목요일

- 11:00 대통령 전용기가 오사카 국제 공항에 도착
대통령은 네모코 대사의 영접을 받음
공개취재
- 11:05 헬기가 착륙장으로 떠남
비행시간 20분
- 11:25 헬기가 착륙장 도착
- 11:30 자동차행렬이 미야코 호텔을 떠남
이동시간 5분
- 11:35 자동차행렬이 미야코 호텔 도착
- 11:40 대통령 도착
- 개인 시간 : 2시간
- 13:45 자동차행렬이 미야코 호텔에서 구 황궁으로 감
이동시간 15분
- 14:00 자동차행렬이 구 황궁 도착
대관식실과 정원 산책
공개취재
- 14:30 출발 전 대통령 방명록 작성
- 14:35 자동차행렬이 니조성으로 출발
이동시간 10분
- 14:45 자동차행렬이 니조성에 도착
- 14:50 성, 건물, 정원 관람
- 15:05 정원 다원에서 연주되는 일본전통음악 감상
공개취재
- 15:15 자동차행렬이 긴카쿠지로 출발
이동시간 10분

- 15:25 자동차행렬이 긴카쿠지 도착
최고 성직자의 영접을 받음
긴카쿠지 순례
공개 취재
- 15:45 자동차 행렬이 긴카쿠지를 출발해 미야코 호텔로 감
이동시간 15분
- 16:00 자동차행렬이 미야코 호텔에 도착
개인시간 2시간 45분
- 18:45 자동차행렬이 미야코 호텔을 출발해 추루아레스토랑으로 출발
이동시간 15분
- 19:00 자동차행렬이 미야코 호텔을 출발해 추루아레스토랑에 도착
우치다 대사가 비공식 일본만찬을 염
- 21:10 자동차행렬이 미야코 호텔로 향함
이동시간 15분
- 21:25 자동차행렬이 호텔 도착

1974년 11월 22일 금요일

- 9:20 자동차행렬이 미야코 호텔을 출발해 헬기 발착장으로 감
이동시간 5분
- 9:25 자동차행렬이 미야코 호텔을 출발해 헬기 발착장 도착
- 9:30 헬기가 오사카 국제공항으로 출발
비행시간 20분
- 9:50 헬기가 오사카 국제공항 도착
대통령 전용기 탑승
- 10:00 전용기가 오사카국제공항에서 서울로 출발
비행시간 1시간 30분

소련 촬영규정 (요약)

【허용사항】

● 사진촬영 허용

- 기념탑, 건물, 문화나 의학기관, 교육기관, 극장, 공원(문화나휴식), 거리나 광장, 주택, 경치(그러나 하단의 a,b,c,d,e의 사항들이 없는 경우)

● 명시된 허가가 있을시 사진촬영 허용

- 비군사제품 공장, 집단 농장, 트랙터 수리소, 기차역, 강 항구, 민간공항, 교육기관, 사회기구

※ 단, 외국인출입금지 지역 제외

【금지사항】

● 사진촬영 금지

- a) 국경선 25km이내 (외국인 방문허용지역 제외, 왼쪽의 허용된 사항은 제외)
- b) 군사장비, 군사설비, 군사기관, 연료저장장소
- c) 항구, 대형 수력발전소, 기차역, 터널, 기차 및 고속도로 교량
- d) 기업, 과학연구소, 디자인실, 실험실, 수력발전소, 라디오 방송국, 전화,전신 교환국
- e) 소련영공에서 비행중인 비행기에서, 산업도시의 파노라마 사진이나 스케치

※ 허용사항에 있는 장소를 촬영하더라도 그 곳의 경관이나 관리자에게 먼저 동의를 구할 것

소련인을 스케치나 사진 촬영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동의를 먼저 구할 것

■ [브리핑 아이디어 제출 요구]

- 형태 : 비망록
- 일자 : 1974.11.18
- 발신 : Dick Cheney
- 수신 : Warren S. Rustand(대통령 약속 담당 보좌관)
- 출처정보 : THE WHITE HOUSE
- 관리번호 : CTA0000778

워렌, 이번 주에 저에게 스케줄 제안을 해주어야 하며 대통령과 키신저가 일본에서 돌아와서 내각(the Cabinet), 국가안보위원회, 그리고 의회 지도자모임(the Congressional Leadership)에서 브리핑할 아이디어를 제안해주어야 합니다. 제안 양식에 따라 제출해 주세요. 저는 이미 이들의 귀환에 관해 이를 처리하기 위한 내각 모임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편지 미전달의 건]

- 형태 : 편지
- 일자 : 1974.11.18
- 발신 : Max Friedersdorf(대통령 부 보좌관)
- 수신 : Robert L. Leggett(하원의원)
- 출처정보 : -
- 관리번호 : CTA0000709

레게트(Leggett) 씨에게

귀하와 귀하의 16명의 동료들이 대통령께 한국 국민들에게 가해지는 억압적인 조치들에 관해 박 대통령과 논의할 것을 촉구하면서 보낸 11월 15일자 편지를 잘 받아보았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불행히도 귀하의 편지는 오늘까지는 백악관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편지는 대통령의 대외 정책 자문들과 공유될 것이며 저희는 대통령께서 박 대통령과 논의하시기 전에 귀하의 견해를 대통령께 전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With kind regards,

Sincerely,

맥스 L. 프리더스도르프

대통령 부 보좌관

로버트 L. 레게트(Robert L. Leggett) 귀하
 미 하원
 워싱턴 D.C. 20515

bcc w/이후 처리를 위해 스코크로프트 장군에게 전달

■ [김지하 시인 관련 편지에 대한 회신]

- | | |
|------------------------------------|------------------------------|
| • 형태 : 편지 | • 일자 : 1974.11.20 |
| • 발신 : Max Friedersdorf(대통령 부 보좌관) | • 수신 : Silvio O. Conte(하원의원) |
| • 출처정보 : - | • 관리번호 : CTA0000733 |

실(Sil)에게 :

한국 시인 김지하에 관해 귀하에게 편지를 보낸 윌리엄 깁슨(William Gibson) 씨를 대신
 해 대통령에게 보내주신 귀하의 11월 18일자 편지 감사합니다.

귀하의 편지는 비록 대통령께서 극동으로 출발하신 이후에 도착했지만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대통령께서 한국의 지식인을 위한 귀하의 요청에 주목하시도록 하겠습니다.

With kindest regards,

Sincerely,

맥스 L. 프리더스도르프
 대통령 부보좌관

실비오 O. 콘테(Silvio O. Conte) 하원의원
 워싱턴 D.C. 20515

bcc: w/적절한 처리를 위해 스코크로프트 준장에게 전달

■ [교토에서 서울까지]

- | | |
|------------------|---------------------|
| • 형태 : 비망록 | • 일자 : 1974.11.22 |
| • 발신 : 백악관 공보 담당 | • 수신 : - |
| • 출처정보 : - | • 관리번호 : CTA0000616 |

대통령은 7시 50분에 호텔을 떠났다. 리무진을 타고 헬리콥터 발착장까지 가서 8시에 이륙했다. 신문을 읽으면서 교토 거리를 통과하는 동안 별 사건은 없었다. 거리에 곤봉과 방패를 갖춘 전경이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시민들도 보인다. 공항에는 1000여명의 시민이 종이 국기를 흔들고 있다. 대통령은 작별을 고하기 위해 두 손을 들어 올렸다. 넓게 접은 푸른 스트라이프 양복을 입고 모자나 코트는 입지 않고 “모든 일이 완벽했다”며 일본 관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하면서 전용기에 올랐다.

키신저는 서울비행에서 돌아와서 for the record로 말했다

서울방문의 이득은 몇몇 부정적인 면을 훨씬 넘어선다고 우리는 “판단”한다. 우리는 옳은 일을 했다.

어제의 대사관 사건에 대해서 하비브는 한국 경찰의 행동은 관례에 맞지 않았고 정상적인 외교 관행과도 맞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는 대사관 관저에 들어가는 것이 합법적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키신저는 한국에 국내 정치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영향력 행사에 대해 아주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순방이 안보 목적도 가지고 있었다는 관점에 대해 만일 한반도에 어떤 위기 상황이 온다면 그것은 일본을 비롯한 많은 다른 국가들에게도 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의심할 여지 없이 한국의 국내 정책의 영향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다시 말하면 3만 8천명에 달하는 미군 병력을 감축시킬 예정이 없다는 것이다.

베이징으로 일본시간 월요일 오후 2시에 출발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일요일 오후 7시에 돌아와서 월요일 아침에 회담을 가질 것이다.

다시 한국이다. 박정희 대통령과 논의할 주제이다,

1. 한국 군사 상황
2. 유엔에서의 한국 문제
3. 극동지역의 다른 국가들(중국, 소련)과 한국과의 관계

배경- 미국은 만일 다른 국가들이 남한문제를 다룬다면 북한 문제를 다룰 의향이 있다. 만약 다른 주요 국가들이 돕는다면 진전이 있을 것이다. 남북 통일에 관한 질문은 그들에게 남겨두자.

■ [일본 교토]

- | | |
|------------------|---------------------|
| • 형태 : 비망록 | • 일자 : 1974.11.22 |
| • 발신 : 백악관 공보 담당 | • 수신 : - |
| • 출처정보 : - | • 관리번호 : CTA0000616 |

보도 장비는 금요일 오전 3시에서 4시까지 호텔 로비에서는 허용됩니다.

오전 5시 45분(현지시각)

목요일 오후 3시 45분EST : 여행팀이 프레스센터를 출발해 미야코 호텔로 갈 것이다.
보도팀 버스는 프레스 센터를 출발해 오사카 국제 공항으로 갈 것이다.

오전 7시 45분

오후 5시 45분 : 기자 전용기는 오사카국제 공항을 출발해 한국 김포공항으로 갈 것이다.

오전 7시 50분

오후 5시 50분 : 대통령이 미야코 호텔을 출발해 교토의 전용기 이륙지로 감

이동 시간 : 4분

전용기팀이 뒤따름

오전 8시

오후 6시 : 대통령이 Marine One에 탑승하고 교토 발착장을 출발해 오사카 국제 공항으로 출발한다,

비행 시간 : 26분

전용기팀이 뒤따름

오전 8시

오후 6시 : 기자 전용기가 오사카 공항을 출발해 한국 서울로 간다

오전 8시 30분

오후 6시 30분 : 대통령이 오사카 국제 공항에 도착한다.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한 뒤 한국의 김포국제 공항으로 간다.

오전 9시 15분

오후 7시 15분 : 기자전용기(PAA707)가 김포공항에 도착

오전 9시 30분

오후 7시 30분 : 기자 전용기(TWA707)가 김포공항에 도착

■ [공개 보도 일지]

- | | |
|------------------|---------------------|
| • 형태 : 비망록 | • 일자 : 1974.11.22 |
| • 발신 : 백악관 공보 담당 | • 수신 : - |
| • 출처정보 : - | • 관리번호 : CTA0000814 |

1974년 11월 22일 금요일

한국 서울

#1

오전 10시(현지시각)

목요일 오후 8시 EST : 대통령이 한국 김포국제공항에 도착 박정희 대통령과 인사
HONOR STAND로 감

공개 보도 일지

대통령은 다음 인사들과 인사를 나눔

김동조 외교장관 및 접대 위원

기태운 의전관

리처드 스네이더 한국주재 미 대사

중 관 국회의장

ميم기복 법무장관

김필중 총리

벤자민 티로나 필리핀 대사 및 외교단장

함춘평 미국주재 한국 대사

리처드 스틸웰 장군, 주한 미군 총사령관

오전 10시20분 오후 8시 20분 : 박정희 대통령의 환영인사

오전10시 26분

오후 8시 26분 : 대통령 인사

오전 10시 32분

오후 8시 32분 : 포드 대통령이 손영수 양에게 꽃다발을 받음

오전 10시 34분

오후 8시 34분 : 구자춘 서울 시장에게 서울로 가는 열쇠를 증정 받음

오전 10시 36분

오후 8시 36분 :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대통령은 외교단과 환영인사들을 만나러 감

■ [한국 서울 취재 노트]

- | | |
|------------------|---------------------|
| • 형태 : 비망록 | • 일자 : 1974.11.22 |
| • 발신 : 백악관 공보 담당 | • 수신 : - |
| • 출처정보 : - | • 관리번호 : CTA0000814 |

모든 카메라가 카메라 트럭에 탔다. 기자는 국립묘지를 취재할 제 1팀이 버스에 올랐다. 영부인의 묘소를 취재할 촬영팀은 자동차행렬 가운데 차에 탑승했다. 캠프 캐이시를 취재하기 위한 기자들은 “캠프 캐이시”라고 적힌 버스에 탔다. 프레스 센터로 가기 위한 기자들은 자동차행렬과 프레스센터라고 적힌 버스에 탔다. 프레스 센터에 남은 기자는 2장과 3장의 사건들을 취재하지 못할 것이다.

프레스 센터는 서울의 조선 호텔 그랜드 볼룸에 있다.

오전 10시 45분(현지시각)

목요일 오후 8시 45분 EST :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은 김포 국제 공항을 출발해 자동차 행렬과 함께 조선 호텔로 간다

기자 버스가 뒤따른다.

오전 11시 15분

오후 9시 15분 : 양국 대통령이 조선 호텔에 도착

자동차 행렬이 조선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캠프 케이시”라고 적힌 버스가 캠프 케이시로 곧바로 출발한다

오전 11시 20분

오후 9시 20분 : 취재 제 1팀이 조선폰에서 국립 묘지로 출발함

오전 11시 31분

오후 9시 31분 : 대통령이 조선 호텔을 출발해서 국립묘지로 향함

이동 시간 : 15분

취재 제 2팀이 영부인의 묘소로 향함

오전 11시 35분

오후 9시 35분 : 취재 제 1팀이 국립 묘지에 도착

#2

오전 11시 45분

오후 9시 45분 : 대통령이 김장관의 안내를 받으며 국립묘지에 도착

취재 제 1팀의 취재

취재 제 2팀은 바로 영부인의 묘소로 감

대통령은 다음 인사들의 환영을 받음

국방장관

노재임 군사 참모장

황연중 해군 참모장

주영복 공군 참모장

기태영 의전관

이조호 보좌관장

오전 11시 50분

오후 9시 50분 : 서장관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대통령이 현충탑에 가서 묘소에 화환을
놓음

오전 11시 55분

오후 9시 55분 : 서장관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아치를 통과해 방명록 작성

오전 11시 58분

오후 9시 58분 : 대통령이 현충탑을 출발해 영부인의 묘소로 감
취재 제 1팀은 헬리콥터 4기에 오르고 촬영팀은 3기에 오른다

#2B

정오 12시

오후 10시 : 대통령은 영부인의 묘소에 도착해서 서장관과 미스터 리를 만난다
취재 제2팀 취재

오후 12시 5분

오후 10시 5분 : 대통령은 못 앞에 화환을 놓고 3번 향을 태운다

오후 12시 10분

오후 10시 10분 : 서장관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계단을 내려와 방명록을 작성한다

오후 12시 12분

오후 10시 12분 : 대통령은 영부인 묘소를 출발해 MARINE ONE으로 향한다

오후 12시 14분

오후 10시 14분 : 대통령은 마린 원에 도착한다. 리처드 스틸웰 장군, 주한 미군 총사령관이자 유엔 사령관과 만남

취재 제 2팀이 헬리콥터 3,4기에 탑승함

오후 12시 15분

오후 10시 15분 : 대통령은 마린원에 탑승하고 국립묘지를 출발해 캠프 케이시로 향함

비행시간 : 25분

시차 없음

취재 제 1팀과 2팀은 헬리콥터 3기와 4기를 탑

#3

오후 12시 15분

오후 10시 15분 : 기자버스가 캠프 케이시에 도착함

취재 제 1팀이 필드 매스로 출발함

기자들은 바로 촬영 구역으로 이동

오후 12시 40분

오후 10시 40분 : 대통령이 캠프 케이시에 도착함 제2미국 보병대 사단장인 헨리 에멀슨 장군과 축구게임을 보러 감

공개 취재

헬리콥터 4기가 취재 구역으로 이동

오후 12시 41분

오후 10시 41분 : 대통령은 마린원에서 내리면서 군대 코트를 받음

헬리콥터 제 3기 취재팀 취재

취재 제2팀이 대통령을 따라 축구계임장으로 감

오후 12시 44분

오후 10시 44분 : 대통령이 관중석에 도착하고 사단 내 축구경기 시구를 함

공개취재

취재 제 2팀 취재

오후 12시 50분

오후 10시 50분 : 대통령이 축구경기를 관람함

오후 12시 55분

오후 10시 55분 : 취재팀이 필드 매스 촬영 구역으로 먼저 이동함

위해 제 2팀이 대통령과 남아 있음

오후 12시 55분

오후 10시 55분 : 대통령이 에밀슨 장군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필드 메스로 향함

취재 제 2팀이 뒤따름

오후 1시 4분

오후 11시 4분 : 대통령이 필드 메스에 도착 군대 급식줄을 지나감

공개 취재

취재 제 1팀 취재

오후 1시 15분

오후 11시 15분 : 촬영 제 2팀이 한슨 필드 하우스로 감

촬영팀에게 점심식사 제공

촬영 장비 : 4대의 군대 필드 전화가 프레스 센터와 연결되어 텔렉스에 대사관 직원에 의해 수동중계됨. 복사는 최소한만 허용됨

오후 1시 20분

오후 11시 20분 : 취재팀이 한슨 필드 하우스로 향함

취재 제 1팀이 대통령과 남아 있음

오후 1시 25분

오후 11시 25분 : 대통령이 에멀슨 장군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필드 메스를 출발해 한슨 필드 하우스로 향함

취재 제 1팀이 뒤따름

오후 1시 27분

오후 11시 27분 : 대통령이 한슨 필드하우스에 도착해서 사단내 태권도 챔피언십을 관람함

공개취재

취재 제 2팀 취재

오후 1시 29분

오후 11시 29분 : 에멀슨 장군의 에스코트를 받은 대통령이 외야석으로 가서 입대병들 사이에 앉는다. 기라고 불리는 태권도복을 선물받는다

취재 제 2팀 취재

오후 1시 32분

오후 11시 32분 : 태권도 챔피언십 시작됨

두 번의 승부가 있고 한 번의 승부가 약 4분 가량 소요됨

오후 1시 40분

오후 11시 40분 : 대통령은 영부인을 위한 브로치를 제2보병사단의 입대병에게 선물받는다

오후 1시 42분

오후 11시 42분 : 촬영 제 2팀이 버스에 오른다

오후 1시 43분

오후 11시 43분 : 에멀슨 장군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대통령은 한스 필드하우스를 출발해 마린원으로 간다

촬영 제 1팀 취재

제 1팀이 뒤따른다. 남은 촬영팀이 버스에 오르고 프레스 센터로 향한다

오후 1시 50분

오후 11시 50분 : 대통령은 마린 원에 탑승하고 캠프 케이시로 출발하고 국회의사당으로 향한다.

제 1,2팀 헬리콥터 3,4에 탑승하고 국립묘지에 갔던 같은 방식으로 간다

오후 2시 5분

오전 12시 5분 : 제 1팀이 청와대 발착장에 도착해서 바로 조선히텔로 가는 버스를 탄다

제 1팀의 다음 사람은 청와대에 남는다

연합통신

UPI

네트워크 팀원(3)

뉴스위크 사진팀

오후 2시 10분

오전 12시 10분 : 대통령이 국회의사당 발착장에 도착하고 조신히 호텔로 향함
제 2팀이 뒤따름

프레스 센터는 그랜드 볼룸에 있음

취재 장비-20개의 장거리 전화

7개의 미국 직통 텔렉스

오후 2시 30분

오전 12시 30분 : 대통령이 조선 호텔에 도착함

오후 2시 45분

오전 12시 45분 : 순방팀이 자동차 행렬에 오름

오후 2시 55분

오후 12시 55분 : 대통령이 조선 호텔을 출발함 청와대로 가서 의례적 방문을 하고 일
대일 회담을 가짐

순방팀이 뒤따름

#4

오후 3시

오전 1시 : 대통령이 청와대에 도착함 박정희 대통령과 영애 박근혜양을 만남. 리셉션실
로 가서 방명록을 작성함

제 3팀이 촬영

오후 3시 5분

오전 1시 5분 : 박대통령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대통령은 그랜드 리셉션 홀로 향함

오후 3시 8분

오저 1시 8분 : 선물 교환

제 3팀이 취재함

오후 3시 14분

오저 1시 14분 : 대통령과 박대통령이 대통령 집무실로 향함

제 3팀이 취재

오후 3시 15분

오전 1시 15분 : 순방팀과 제 3팀이 프레스센터로 돌아옴

오후 3시 15분

오전 1시 15분 : 일대일 회담이 시작됨

오후 4시 45분

오전 2시 45분 : 순방팀이 프레스센터를 출발해 청와대로 감

오후 5시 15분

오전 3시 15분 : 일대일 회담 종료

오루 20분

오전 3시 20분 :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조선히텔로 향함

순방팀이 따름

오후 5시 25분

오전 3시 25분 : 대통령이 조신히텔에 도착해 김장관을 만남

오후 6시 반에서 11시까지 돌 하우스에서 만찬이 제공됨

오후 11시에는 한국 정보 서비스에서 주최함

#5

오후 5시 45분

오전 3시 45분 : 제 4팀이 프레스센터를 출발해 의사당으로 감

오후 6시 15분

오전 4시 15분 : 순방팀이 자동차행렬을 뒤따름

오후 6시 25분

오전 4시 25분 : 대통령이 조신히텔을 출발해 리셉션에 참석하기 위해 의사당으로 감
순방팀이 뒤따름

오후 6시 30분

오전 4시 30분 : 대통령이 의사당에 도착해 리셉션 홀로 감
제 4팀 취재

대통령은 다음 인사들과 인사한다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양

기태운

오후 6시 50분

오전 4시 50분 : 제 4팀이 취재 대기구역으로 간다

오후 7시 30분

오전 5시 30분 : 대통령과 박대통령이 연회장으로 향한다.

제 4팀 취재

취재팀이 대기구역으로 돌아온다

오후 7시 30분

오저 5시 30분 : 만찬이 시작된다

오후 8시 45분

오전 6시 45분 : 만찬 종료

오후 8시 45분

오전 6시 45분 : 박 대통령이 환영 인사와 건배를 한다

제 4팀 취재

환영 인사는 프레스 센터로 전해질 것이다.

오후 9시

오전 7시 : 대통령 인사와 건배

제 4팀 취재

오후 9시 15분

오전 7시 15분 : 양국 대통령과 테이블 게스트가 연회장을 떠나 저녁식사 후 대기실로
간다

제 4팀이 리셉션 홀로 향한다

오후 9시 30분

오전 7시 30분 : 양국정상은 리셉션홀에 도착해 전통 예술을 감상한다
제 4팀 취재

오후 10시

오전 8시 :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의사당을 출발해서 조선히텔로
향한다

순방팀과 제 4팀이 뒤따른다

오후 10시 5분

오전 8시 5분 : 대통령이 조선히텔에 도착

순방팀과 취재팀이 프레스센터에 도착함

촬영장비는 오후 10시에서 오후 11시까지만 프레스센터에 허용됨

■ 김포국제공항 도착행사

- | | |
|------------------|---------------------|
| • 형태 : 비망록 | • 일자 : 1974.11.22 |
| • 발신 : 백악관 공보 담당 | • 수신 : - |
| • 출처정보 : - | • 관리번호 : CTA0000620 |

1974년 11월 22일

복장 : 일반복장

- 1) 대통령 전용기가 김포국제공항에 착륙하고 행사장으로 이동
- 2) 접대 위원장이 의전국장관과 스네이더 대사가 비행기에 올라 포드 대통령을 맞음
- 3) 포드 대통령과 국무장관은 앞의 출구로 전용기에서 내림. 나머지 공식수행원들도 같은

출구로 내린다. 비공식 수행원들이 뒤쪽 출구로 내리는 동안 포드 대통령과 박 대통령이 만남

- 4) 램프 끝에서 의전국장은 포드 대통령에게 박 대통령을 소개한다. 양국 정상은 양쪽의 소년들의 인사를 받으며 통과한다. 의전관의 도움을 받으며 박 대통령은 주최자가 늘어선 줄에 있는 고관들에게 포드 대통령을 소개한다.

국회의장

법무 장관과 부인

국무총리와 부인

의전국장의부인

외교단장

주미 한국대사

의전국장의 부인

주한 미국대사 부인

주한미군 총사령관

- 5) 소개가 끝난 뒤 의전국장이 연단에 오름
- 6) 양국정상이 연단에 서자(포드대통령이 박대통령의 오른쪽에 있다), 의장병이 “받들어 충” 경례를 한다. 군악대가 북과 나팔을 연주하고 미국 국가와 한국 애국가를 연주한다. 21번의 예포가 발사된다
- 7) 의장병의 검사차가 연단 앞에 선다. 박 대통령은 포드 대통령을 차로 안내하고 나란히 서서 (포드 대통령이 박 대통령의 왼쪽에 섬), 앞으로 전진한다.
- 8) 군악대가 의장병의 검사가 있는 동안 행진곡을 연주한다. 차가 국기와 군기를 지날 때 양국정상과 의장병 사령관은 경례를 한다.
- 9) 검사차가 연단 앞으로 돌아오면, 양국정상이 차에서 내린다. 의장병 사령관이 포드 대통령에게 경례한다. 포드 대통령은 그와 악수한다. 양국정상이 연단의 원래 자리로 돌아오면, 의장병이 “받들어 충” 경례를 한다.
- 10) 박 대통령은 환영 연설을 한다(영어로 통역됨)

- 11) 포드 대통령은 도착 연설을 한다(한국어로 통역됨)
- 12) 소년, 소녀가 각각 포드 대통령에게 꽃다발을 선사한다. 그리고 서울 시장이 the KEY to the Special City를 선사한다. 그들은 연단에서 함께 내려온다.
- 13) 양국정상은 연단에서 내려와 환영 인사들을 만난다. 의전국장장과 함께 박 대통령이 정부 고관들을 소개한다.
- 14) 연단의 다른 쪽으로 가서 의전국장장은 포드 대통령에게 한국 외교단을 소개한다.
- 15) 소개가 진행되는 동안, 의전국 관료들은 대통령의 수행팀들을 지정된 차로 안내한다.
- 16) 주한 미국인들이 줄지어 있는 곳에 잠시 멈춰 선 후 양국정상은 대통령 리무진에 오른다.
- 17) 자동차행렬이 공항을 떠나 조선 호텔로 향한다.(두개의 한강다리-신촌로터리-서소문길-조선호텔)
- 18) 호텔에 도착해서 박대통령은 포드 대통령과 로비에서 헤어진다. 박 대통령이 호텔 현관까지 포드 대통령을 배웅한다.

ITEM 2

[박정희 대통령과의 의례적 회동, 정상회담]

1974년 11월 22일

일반복장

- 1) 포드 대통령과 접대 위원장과 공식수행팀과 함께 호텔에서 청와대로 향한다
- 2) 청와대에 도착해서 포드 대통령은 현관에서 박 대통령과 만난다. 수석 의전관이 양국정상을 리셉션룸으로 안내하고, 포드 대통령은 방명록을 작성한다.
- 3) 공식수행팀원들은 의전국장의 안내로 그랜드 리셉션 홀로 간다. 각자의 자리에서 양국 정상이 도착하길 기다린다.

- 4) 수석의전관이 양국정상을 그랜드 리셉션 홀로 안내한다.
- 5) 포드 대통령이 의전국장의 안내로 박 대통령의 공식수행팀원을 소개한다.
- 6) 소개가 끝난 후 정상회담에 참여하지 않는 공식수행팀원들은 리셉션홀을 떠나 호텔로 간다. 정상회담에 참여하는 수행팀원은 그대로 남는다.
- 7) 포드 대통령이 박 대통령에게 선물을 전달한다. 박 대통령은 포드 대통령에게 답례로 선물을 전달한다.
- 8) 선물 교환 후 양국 정상은 사진을 찍는다.
- 9) 수석의전관은 양국정상을 정상회담을 위해 대통령 집무실로 안내한다. 정상회담에 참여한 양국 수행팀원들이 뒤따른다.
- 10) 양국정상과 수행팀이 도착하면, 정상회담이 시작된다.
- 11)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 양국정상이 정상회담을 끝마친다.
- 12) 포드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 호텔로 향할 때, 박 대통령이 현관에서 이를 배웅한다.

[미 대통령 환영 리셉션 및 대통령 주최 국가 연회]

1974년 11월 22일

오후 6시부터 리셉션

오후 7시 30분부터 국가 연회

복장 : 검정 타이

국가 연회에 초대받지 않은 게스트-일반복장

- 1) 리셉션에 참석하는 수행팀원들이 호텔에서 의사당으로 오후 5시 50분까지 도착함
- 2) 접대위원회장과 함께 포드 대통령이 호텔에서 의사당으로 출발
- 3) 의사당에 도착, 박 대통령이 포드 대통령을 영접함
- 4) 양국정상이 국기 기수를 지나 의사당으로 들어섬.

- 행렬은 다음의 순서로 이루어짐

왼 쪽

미국 성조기
박 대통령

오른쪽

한국 태극기
포드 대통령

- 5) 양국정상이 홀에 도착하면 포드 대통령이 박 대통령의 왼쪽에 서고, 의전국장이 게스트들을 소개함.
- 6) 시간이 흐른 뒤, 양국정상은 수석 의전관의 안내를 받으며 the Special Room으로 갑
- 7) 국가 연회에 초청 받은 모든 게스트들은 3층의 다이닝룸으로 가서 각자의 자리에 앉는다.
- 8) 양국 정상이 수석의전관의 안내를 받으며 홀로 들어서면, 모두가 기립한다.
- 9) 양국정상이 자리에 앉으면 만찬이 시작된다.
- 10) 디저트가 나오기 전에 박 대통령이 환영연설을 하고 연설의 끝부분에 포드 대통령과 건배를 제안한다.(영어로 통역됨)
게스트들이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잔을 들고 이 때 미국 국가가 연주된다.
- 11) 포드 대통령이 연설이 끝나자 답사를 하고 박 대통령에게 건배를 제안한다. 한국 애국가가 연주된다.
- 12) 연회가 끝난 뒤 양국 정상과 헤드 테이블에 앉은 게스트들은 다이닝 홀에서 스페셜 룸으로 식후 주연을 위해 떠난다. 모두 기립한다.
- 13) 나머지 게스트들은 의사당으로 향한다.
- 14) 식후 주연에 참석한 게스트들은 대통령보다 앞서 스페셜 룸을 떠나 의사당으로 향한다.
- 15) 양국 정상은 스페셜룸을 떠나 의사당으로 향한다.
- 16) 양국정상은 수석의전관의 안내를 받으며 홀에 들어선다. 모두 기립하고 박수로 양국정상을 맞는다.
- 17) 의전국장은 양국정상을 귀빈석에 앉은 후 한국 예술 프로그램이 시작된다.
- 18) 공연이 끝난 후 포드 대통령은 현관에서 박 대통령의 배웅을 받는다.
- 19) 양국정상이 의사당을 출발하자 수행팀원들이 호텔로 출발한다.

ITEM 4

[국립묘지 화환]

1974년 11월 22일

일반복장

- 1) 포드 대통령이 접대 위원장과 공식수행팀원들과 함께 호텔에서 국립묘지로 향한다(호텔-퇴계로-타워 호텔-한남동-한강 제 3교-국립묘지).
- 2) 국립묘지에 도착해서 포드 대통령이 국방장관과 의전국장과 국립묘지 관리원장의 영접을 받는다.
- 3) 포드 대통령과 수행팀이 도표 4의 지정된 위치에 서면, 의장대가 받들어 총을 하고 군악대가 미국과 한국의 국가를 연주한다.
- 4) 국방 장관이 포드 대통령을 무명용사의 묘소로 안내한다. 오른쪽에는 대통령 수행팀이 왼쪽에는 한국 관료들이 선다.
- 5) 묘소에 도착해서 포드 대통령은 화환을 묘지 앞에 놓는다. 공식 수행원들과 한국 관료들은 향로에서 5발 정도 떨어진 곳에서 묵념을 기다린다.
- 6) 화환을 놓은 뒤 포드 대통령은 3번 향을 태운다. 국립묘지 관리원장의 구령에 따라 포드 대통령을 비롯한 모두가 작은 북의 연주와 함께 묵념한다.
- 7) 포드 대통령이 뒤로 돌아 묘지에서 나갈 때 공식수행원과 한국 관료들은 두발 물러서서 대통령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포드 대통령을 뒤따른다.
- 8) 포드 대통령은 방명록을 작성한다. 이때 공식수행원들은 차를 타고 영부인의 묘소로 향한다.
- 9) 포드 대통령은 접대 위원장과 함께 영부인의 묘소로 향한다.

ITEM 5

1974년 11월 22일

일반복장

- 1) 고 육영수 여사의 묘소에 도착해서 포드 대통령은 국방장관과 국립묘지관리원장의 영접을 받는다.
- 2) 국방장관의 안내를 받으며 포드 대통령이 고 육영수 여사의 묘소로 감.
- 3) 묘소에 도착해서 포드 대통령은 꽃바구니를 묘소 앞에 놓고 분향소 앞으로 간다. 공식수행원들이 두 줄로 대통령의 오른쪽에 선다.
- 4) 대통령은 3번 향을 태운다. 그리고 국립묘지 관리원장의 구령에 따라 포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작은 북 연주와 함께 묵념한다.
- 5) 포드 대통령과 수행원들은 계단을 내려와 방명록을 작성한다.
- 6) 포드 대통령과 공식 수행원들은 국립묘지를 떠나 헬리콥터를 타고 방문할 예정인 군 부대로 향한다.

ITEM 6

[박정희 대통령의 고별행사]

1974년 11월 22일

일반복장

- 1) 수행원들은 호텔에서 김포공항으로 감.
- 2) 포드 대통령은 호텔을 떠나 청와대로 접대 위원장과 함께 간다.
- 3) 청와대에 도착해서 포드 대통령은 현관에서 박 대통령의 영접을 받는다.

- 4) 수석의전관은 양국정상을 리셉션룸으로 안내한다. 이 곳에서 고별 인사를 나눈다.
- 5) 고별 의식이 끝난 뒤 양국 정상은 청와대를 떠나 김포 국제 공항으로 헬리콥터나 차를 이용해 이동한다.

ITEM 7

김포국제공항

일반복장

- 1) 공항에 도착해서 양국정상은 국무총리의 영접을 받는다. 의전국장은 양국정상을 연단으로 안내한다.
- 2) 양국정상이 연단에 서면, 의전병이 받들어총 경례를 한다. 군악대가 한국과 미국의 국가를 연주한다. 21발의 동시사격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 3) 의장병의 사열식이 도착 때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4) 양국정상이 연단에서 내려오면, 의장병이 받들어총 경례를 한다.
- 5) 소년소녀가 연단으로 올라와 포드 대통령에게 꽃다발을 선사한다.
- 6) 양국정상은 연단에서 한 계단 내려온다. 포드 대통령은 의전국장과 함께 고별인사를 한국고관들과 외교단들과 나눈다. 박정희 대통령은 수석의전관과 함께 수행원들과 고별인사를 나눈다.
- 7) 박 대통령과 인사를 나눈 공식 수행원들은 곧 비행기에 오른다.
- 8) 고관들과 작별인사를 나눈 뒤 양국 정상은 의전병 사이를 걷는다. 램프에서 양국정상은 인사를 나눈다.
- 9) 의전국장의 안내를 받으며 포드 대통령은 비행기에 오른다.
- 10) 의전국장이 비행기에서 내리자 비행기는 김포국제공항을 떠난다.

백악관

제한 시각자료

일정

대통령 일본, 한국, 소련 순방

1974 11 17-25

1974년 11월 17일 일요일

10:15 헬리콥터가 South Lawn에서 Andrew AFB로 출발
비행시간 15분

10:30 헬기가 Andrew AFB에 도착

10:35 대통령 전용기가 Andrew AFB에서 알래스카의 Elmendorf AFB로 출발
비행시간 7시간 20분
시차 -5시간

12:55 대통령 전용기가 알래스카의 Elmendorf AFB에 도착
대통령은 정부 고관들과 군장교들의 영접을 받음

13:00 자동차행렬이 Hanger#5를 출발

13:05 자동차행렬이 Hanger#5에 도착
대통령이 대기실로 향함

13:10 군악대 연주
“대통령 환영” 의식

13:15 대통령 소개

13:20 소개 마침
대통령은 플랫폼에서 탑승을 위한 자동차행렬로 감

13:35 자동차 행렬이 Hanger#5에서 대통령 전용기로 감

13:40 대통령 전용기가 Elmendorf AFB에서 도쿄 국제 공항으로 출발
비행시간 7시간 20분
시차 -5시간

■ [서울(대통령 전용기-호텔~공항)]

- | | |
|------------------|---------------------|
| • 형태 : 비망록 | • 일자 : 1974.11.23 |
| • 발신 : 백악관 공보 담당 | • 수신 : - |
| • 출처정보 : - | • 관리번호 : CTA0000616 |

11월 23일 서울에서 도쿄 대통령 전용기

키신저 장관이 돌아와서 약 15분간 나는 대화에서 공식적 기록을 위한 발언은 오직 “이번 일본에서의 회담은 제 기대 이상이었습니다”였다.

블라디보스토크 : 정해진 아젠다는 없다. 대통령과 브레즈네프와 키신저는 24시간동안 보통은 3일 정도가 걸릴 회담을 할 것이다. 이 회담은 미-러 관계가 세계 정세에 받는 영향을 주로 다룰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러시아인들은 무역협상이나 유대인 이주와 같은 안건을 들고 나올 것이다. 하지만 미국 정부와 키신저 장관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올지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일반적인 사안에 대한 논의가 끝난 뒤 양국은 구체적인 사항을 들고 나올 것이다. 러시아 측에서 SALT(전략무기제한협상)건을 들고 나온다면 자연스러운 것이다. 물론 브레즈네프는 반대하겠지만, 내일까지 시간을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SALT와 중동 안건은 분명히 거론 될 것이다.

유럽 안보 회의에 관한 주제는 논의될 것이다. 기밀에 가까운 주제이기 때문에 많은 변수가 존재한다. 그래서 유럽안보회의의 행보를 선불리 예측하는 것은 실수일 것이다.

미국 고위 관료들은 심각한 중동위기가 곧 불어닥칠 것이라는 데에 동의하지 않았다. 확실히 현재 중동에는 심각한 위기상황이 없다. 어떤 중동 국가에도 현재의 위기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정적인 실수만 저지르지 않는다면 위기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한 국가가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군사적인 충돌상황까지 몰고 가고 싶어하는 중동국가는 없다.

미국관료들은 10월말에 키신저 장관의 모스크바 방문에서 SALT관련 논의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장관의 러시아 방문 후 계속되는 진전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진전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

포드 대통령과 브레즈네프는 매우 잘 어울렸다고 한다. 포드 대통령은 성실하고 믿을 수 있으며 회담에 준비된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다.

한국 회담과 하비브 브리핑은 더 간단한 회의였다. 구체적으로는 박정희 대통령과 포드 대통령 중 한 대통령이 한 주제를 제시하면 그것이 논의되었다.

서울 호텔에서 공항까지

포드 대통령은 일정에 맞추어 호텔을 떠났다. 로이 스카우트는 대통령이 탄 차가 지나갈 때 굽이진 도로에 서 있었다. 양국 대통령은 큰 방에서 만났다. “여러분의 환대 감사합니다. 오랜 친구를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라고 말했다. 키신저는 유엔의 한국에 관한 논의는 11월 25일에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이 회동은 약 10분간 이루어졌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거리에는 어제와 같은 인파가 있었다. 하지만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다. 어두운 생의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성조기와 태극기를 흔들고 있었다. 한강을 건너기 몇 마일 전에 포드 대통령은 멈추어 서서 약 200명의 미국인들, 대부분 군인 가족들에게 손을 흔들었다. 그들은 무리 지어 서있었고 거리의 왼쪽에서 대통령은 모든 사람들과 악수를 나누었다. 그리고 공항의 환송 행사로 향했다.

■ 1974년 11월 23일 토요일 한국 서울

- | | |
|------------------|---------------------|
| • 형태 : 비망록 | • 일자 : 1974.11.23 |
| • 발신 : 백악관 공보 담당 | • 수신 : - |
| • 출처정보 : - | • 관리번호 : CTA0000814 |

토요일에는 오전 4시 30분에서 5시 30분까지 프레스 센터에 촬영장비가 허용될 예정임
블라디보스토크행 TWA707 기에는 기내용 가방만이 허용됨

오전 7시

오후 5시 : 기자버스가 노선 호텔을 출발해 김포 국제 공항으로 감

오전 7시 55분

오후 5시 55분 : 대통령이 조선 호텔을 출발해 청와대로 향함

이동시간 : 5분

순방팀이 뒤따름

오전 8시

금요일 오후 6시 : 대통령이 청와대에 의례적 방문을 위해 청와대로 감
순방팀 취재

오전 8시

오후 6시 : 기자전용기 (TWA 707)가 김포 국제 공항을 떠나 요코타 일본 공군기지로 향함

오전 8시 15분

오후 6시 15분 : 양국 대통령이 청와대를 출발해 김포국제공항으로 향함
이동시간 : 15분
순방팀이 뒤따름

■ [서울~도쿄]

- | | |
|------------------|---------------------|
| • 형태 : 비망록 | • 일자 : 1974.11.23 |
| • 발신 : 백악관 공보 담당 | • 수신 : - |
| • 출처정보 : - | • 관리번호 : CTA0000616 |

오전 8시 30분

오후 6시 30분 : 양국대통령이 김포국제공항에 도착 정부고관들과 인사하고 의장대를
지켜봄

공개취재

오전 8시 43분

오후 6시 43분 : 대통령은 정부고관들과 외교단들과 박대통령과 작별을 고향

오전 8시 50분

오후 6시 50분 : 대통령은 전용기에 올라 김포 국제 공항을 출발해 일본 도쿄 공항으로 함
비행 시간 : 1시간 40분

오전 9시 20분

오후 7시 30분 : 기자 전용기 (PAA707)가 김포국제 공항을 출발해 일본 도쿄 공항으로 함

오전 9시 40분

오후 7시 40분 : 기자 전용기 (TWA707)가 요코타 공군기지에 도착함

오전 10시

오후8시 : 기자 전용기 (TWA707)가 요코타 공군기지를 출발해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으
로 향함

오전 10시 30분

오후 8시 30분 : 대통령이 도쿄 국제 공항에 도착

오전 11시

금요일 오후 8시 40분 : 기자 전용기(PAA707)가 도쿄 국제 공항에 도착

오전 11시

오후 9시 : 대통령이 도쿄 국제 공항을 출발해 블라디보스토크공항으로 향함

비행시간 : 2시간

시차 : +1시간

오후 1시

오후 10시 : 기자전용기(TWA 707)가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

오후 2시

오후 11시 : 대통령이 보즈두이즈헨카 공항에 도착

■ [대통령의 방한에 대한 환영]

- 형태 : 편지
- 발신 : Elizabeth Brooks
- 출처정보 : -
- 일자 : 1974.11.23
- 수신 : Jerry Ford(대통령)
- 관리번호 : CTA0000779

포드 대통령 각하,

저는 각하께서 한국에 와주셔서 정말 기뻐했습니다. 각하께서 오셔서 차에서 나와 모든 사람들과 악수를 해주셨을 때 너무도 흥분되었습니다. 각하께서 서울에 더 오래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저는 각하께서 사람들 속에 계시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보고 싶어 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저는 각하를 기념해 나온 우표 몇장을 동봉합니다. 각하께서 좋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저는 각하께서 부통령이실 때 편지를 썼었습니다. 이제 각하께서는 대통령이시고 저는 너무도 기쁩니다.

각하께서 행복한 추석과 크리스마스를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Sincerely,
엘리자베스 브룩스

답장 초안

김 의원에게:

대통령께서 귀하가 대통령의 최근 한국 방문과 관련해 지난 11월 27일 보낸 친절한 편지에 답장을 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서울에 계시는 동안 국회 지도자들을 만나서 기뻐하셨으며 귀하의 편지에 나온 의견들을 아주 감사히 여기셨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 방문은 대통령의 아시아 여행의 하이라이트 중의 하나였으며 대통령께서 받으신 너무나도 따뜻한 환영은 한국과 미국의 긴밀한 관계를 인상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였습니다.

Sincerely,
김용태(Kim Yong-tae) 서울, 국회의원 귀하

■ [순방 취재 관련 감사인사]

- | | |
|---------------------------------|-----------------------------------|
| • 형태 : 편지 | • 일자 : 1974.11.27 |
| • 발신 : Edward Savage(백악관 공보담당실) | • 수신 : Thomas Cummings(도쿄주재 미국영사) |
| • 출처정보 : - | • 관리번호 : CTA0000616 |

도쿄주재 미대사관 미국 영사 토마스 커밍스씨께

제시간에 기차에 타서 한밤 중에 교토에 있는 안도한 기자들에게 여권을 나누어주었습니다.

귀하의 귀중한 협조가 없었다면 저는 이 임무를 수행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함께 일해 준 일본인 직원의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만 제게 이름을 알려 주신다면 그분들에게도 감사의 마음 전하겠습니다.

외교부문 공보담당관보 에드워드 세비지

■ [한국 다수당 당수 김용태의 대통령의 방한 환영]

- | | |
|-----------------------|------------------------|
| • 형태 : 편지 | • 일자 : 1974.11.27 |
| • 발신 : 김용태(한국 공화당 당수) | • 수신 : Jerry Ford(대통령) |
| • 출처정보 : - | • 관리번호 : CTA0000779 |

경애하는 포드 대통령 각하 :

저는 이번 기회를 빌어 각하의 한국 방문에 진심어린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각하께서 일본, 한국, 러시아 방문을 성공적으로 마치신 후 무사히 귀국하셨다니 기쁩니다.

저는 각하의 이번 한국 방문이 두 나라 사이의 견고한 친선 관계를 더욱 강고히 하는 의미에서뿐만 아니라 동북 아시아의 평화를 유지한다는 공통의 목표를 확인하는 데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확고하게 믿고 있습니다.

각하의 한국 방문은 아주 짧았지만 저는 각하를 따뜻하게 진심으로 환영하는 마음을 전하고자 길에 나와 환호했던 2백만명 이상의 서울 시민들은 ‘우리의 가장 믿음직한 동맹(our staunchest ally)’인 미국의 지원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박 대통령께서는 항상 각하를 뛰어난 수완을 가진 정치인이라고 칭찬하십니다. 지금까지 그는 8월 15일에 벌어진 영부인의 사망에 슬퍼하고 계셨지만 각하의 사려깊은 위로와 격려에 감사하고 계십니다.

저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제가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각하를 뵈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다시 만났던 것은 저에게 너무나도 기쁜 일이었습니다.

각하의 서울 방문 이후로, 한국의 신문, TV, 라디오는 특히 블라디보스톡 정상회담에서 각하가 이룬 성과에 관해 보도하느라 바쁩니다.

저는 국민 만찬에서 각하께서 가족들과 함께 한국을 다시 방문해서 이 나라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1976년 대통령 선거에서 성공하신 후 그런 기회가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이후에도 항상 성공하시기를 빕니다.

Sincerely yours,

김용태

다수당 리더(Majority Floor leader)

제럴드 R. 포드

미국 대통령

백악관, 워싱턴 D.C. U.S.A.

■ 국가안전보장회의 참모와 한국의 미국 선교사들의 모임

- 형태 : 비망록
- 일자 : 1974.11.29(추정)
- 발신 : Henry A. Kissinger(국무부장관)
- 수신 : Jerry Ford(대통령)
- 출처정보 : THE WHITE HOUSE 5822
- 관리번호 : CTA0000658

국가안전보장회의 staff의 한 member가 우리가 출발한 후에 몇몇의 미국 선교사들을 만났습니다. 그는 그들의 요청에 따라 박정희 대통령의 정책을 반대하는 견해를 들어보기 위해 그들을 만났습니다.

기독교의 다양한 교파들에 속해 있는 그 선교사들은 다음과 같은 원칙적인 점들을 강조하였습니다.

- 한국 국민들은 박정희 정권으로부터 소원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부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국민들은 단지 민주주의적 자유와 같이 정부가 반대하는 것에 호의를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 반대세력은 정부를 전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성격을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다른 대체정권을 제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반대세력의 원칙적인 요구는 유신헌법을 폐기하는 것입니다.(유신헌법은 박정희가 두 번의 집권을 넘어 통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 박정희 대통령은 모든 반대세력이 공산주의자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믿고 있으며 그들에게 그와 같은 딱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 미국은 한국의 사건들에 책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의 4만 명의 국민들을 잃었고 1953년 휴전 이후로 거기에 계속 있어왔기 때문입니다.
- 한국 정부는 당신의 방문과 공동성명에 크게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지만, 다른 한국 국민들은 매우 실망하고 있습니다.
- 박정희 대통령은 현재 미국 대통령의 방문으로 증폭된 반대세력과 더욱 사이가 나빠졌습니다. 이것은 미국에게 직접적인 모욕으로 한국 국민들에게 비쳐질 수 있으니 미국은 큰소리를 내야 합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참모부 직원은 그가 임무를 부여받은 대로 미국 선교사들의 견해를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포드 대통령에게 보내는 신 대주교(Archbishop Sin)의 전신

- | | |
|-----------------------------------|---------------------|
| • 형태 : 전문 | • 일자 : 1974.12 |
| • 발신 : 국무부 | • 수신 : 마닐라 대사관 |
| • 출처정보 : DEPARTMENT OF STATE 0802 | • 관리번호 : CTA0000779 |

1. 백악관은 11월 24일 신 대주교가 포드 대통령에게 보내는 다음과 같은 전신을 받았 습니다. “필리핀 가톨릭 주교 회의(the Catholic Bishops Conference of the Philippines)의 이름으로 저는 각하께서 다니엘 지(Daniel Tji) 주교와 다른 정치적 구류자들에 대해 정의를 확보하는데, 그리고 이들이 풀려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힘을 써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저희는 각하의 한국 방문이 세계의 평화와 단합, 그리고 정의를 실현하는 각하의 임무와 일치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각하의 성공을 기도합니다. 정의의 증인이 되고자 하는 한 사람의 기독교인으로서, 각하께서는 분명 지 주교와 다른 구류자들의 불행한 곤궁에 대해 저희와 이해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세계적인 정치가로서 보기드문 용기를 가진 이 사람과 그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다른 이들을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신의 축복을 빕니다.”

2. 백악관은, 관찮으시다면 귀 대사관에서 전신을 잘 받았음을 구두로 전해주시고 신 대주교에게 그가 표명한 견해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해주시기를 부탁해왔습니다.

3. 귀 대사관에서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에 대해 알려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더 이상 전신을 받았다는 것에 관해 서면으로 알릴 의사가 없습니다.

키신저(Kissinger)

■ [Paul P. Rao에게 안부 인사]

- | | |
|------------------------|-------------------------------|
| • 형태 : 편지 | • 일자 : 1974.12.6 |
| • 발신 : Jerry Ford(대통령) | • 수신 : Paul P. Rao(미국 세관 재판소) |
| • 출처정보 : - | • 관리번호 : CTA0000779 |

폴(Paul)에게

지난 11월 26일 우리의 좋은 친구, 존 루니(John Rooney)의 리셉션에서 당신을 만나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관한 당신의 편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최근 해외 여행에 관한 당신의 후한 논평 덕분에 기뻐했습니다. 긴 여행이었지만 제가 그 여행에서 얻은 성과를 보면 그것은 의미있는 여행 그 이상의 것이었다고 느낍니다.

저의 행복을 빌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베티(Betty)와 저도 행복한 크리스마스시

즌(Happy Holiday Season)을 맞아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며 보답하고자 합니다.

Sincerely,
제리 포드(Jerry Ford)

폴 P. 라오(Paul P. Rao) 귀하
미국 세관 재판소(United States Custom Court)
One Federal Plaza
New York, New York 10007

■ [선물에 대한 감사인사]

- | | |
|---------------------------------|----------------------|
| • 형태 : 편지 | • 일자 : 1974.12.6 |
| • 발신 : Donald Rumsfeld(대통령 보좌관) | • 수신 : 김동조(한국 외무부장관) |
| • 출처정보 : - | • 관리번호 : CTA0000785 |

장관님께

포드 대통령과 함께 한 저의 최근 서울 방문 기간 보내주신 꽃 선물에 감사드립니다.
꽃을 보내주신 친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Warm good wishes.
Sincerely,
도널드 럼스펠드(Donald Rumsfeld)
대통령 보좌관

김동조(Dong-Jo Kim) 귀하
한국 외무부 장관
서울, 한국

■ [김지하 사건과 긴급조치에 관한 미 정부의 입장]

- | | |
|---------------------------------|--------------------------|
| • 형태 : 편지 | • 일자 : 1974.12.6 |
| • 발신 : Carol C. Laise(공보부 서기관보) | • 수신 : William S. Reilly |
| • 출처정보 : - | • 관리번호 : CTA0000784 |

레이리 씨에게 :

저는 한국의 김지하 시인의 수감에 관한 귀하의 편지를 론 네슨(Ron Nessen) 씨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1974년 초, 한국 정부는 정부가 한국의 국가 안보에 불리하다고 간주하는 정치 활동 일부를 금지하는 긴급 조치 세 건을 선포했습니다. 이 조치들은 1972년에 바뀐 헌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했으며 학생들의 정치 활동을 금지했습니다. 이 조치들은 또한 긴급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개인들을 군사재판에서 다루도록 했습니다. 정부 전복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학생 단체를 지원했다거나 가담했다는 경우(이 경우에는 사형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를 비롯해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고 15년 형까지의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들은 한국에 고도로 중앙집중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형태의 정부를 낳은 1972년의 헌법 수정에 의해서 선포될 수 있었습니다.

헌법 수정과 학생들의 정치 활동 지지를 금지하는 가장 심각한 긴급 조치 두 건은 지난 8월에 해제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법령이 효력을 발휘하던 기간 동안, 대략 200명이 재판 받고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사건들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대부분의 형이 감형되었습니다. 사형 선고가 내려졌던 여러 사건들도 그 형이 종신형으로 감형되었으며 어떤 경우에는 형 집행이 정지되기도 했습니다.

김지하는 긴급 조치 하에서 군사 재판 절차를 통해 구속되고 재판을 받은 사람들 중의 한 명입니다. 그는 한국 정부가 주장하기를 정부 전복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하는 학생 조직을 지원했던 것 때문에 긴급 조치 4번 조항을 위반했다고 해서 기소되었습니다. 7월 13일 사형 판결을 받았던 김 씨는 7월 20일 국방부 장관에 의해 종신형으로 감형되었습니다. 그는 대법원이나 군사...(도저히 못 알아보겠음) 재판에 항소를 거부했습니다.

저희는 귀하의 우려를 이해하지만, 한국 정부가 자국 시민들을 다루는 처우에 대응하여 저희 정부가 적절하게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은, 이해할 만한 일이지만, 제한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인권 문제에 관한 우리의 우려와 이에 대한 우리의 정책을 설명하고 있는 미국
무부에서 최근 발표한 특별 보고서 사본을 동봉합니다.

Sincerely,

캐롤 C. 레이즈(Carol C. Laise)

공보부 서기관보(Assistant Secretary for Public Affairs)

■ [편지에 대한 대통령의 감사 인사]

- | | |
|--------------------------------------|-------------------------|
| • 형태 : 편지 | • 일자 : 1974.12.7 |
| • 발신 : Roland L. Elliott(대통령 특별 보좌관) | • 수신 : 김용태(한국 공화당 원내총무) |
| • 출처정보 : - | • 관리번호 : CTA0000786 |

김 씨 귀하 :

포드 대통령께서 귀하의 11월 4일자 편지에 감사 인사를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대통령
께서는 귀하의 친절한 의견과 귀하의 마음을 알리기 위해 시간을 내어주신 것에 감사하고
계십니다.

대통령께서는 우리 두 나라 사이에 존재하는 우정과 한국의 안보를 위한 미국의 헌신은
지속될 것임을 확신하고 계십니다.

대통령의 안부를 전하며,

Sincerely,

롤랜드 L. 엘리엇

통신 담당 보좌관(Director of Correspondence)

김용태 귀하

다수당 원내총무

국회

C.P.O. Box 846

서울, 한국

cc: 캐롤 파라(Carole Farrar)에게 원본 전달

■ [호의에 대한 감사]

- | | |
|------------------------|-------------------------|
| • 형태 : 편지 | • 일자 : 1974.12.10 |
| • 발신 : Jerry Ford(대통령) | • 수신 : Elizabeth Brooks |
| • 출처정보 : - | • 관리번호 : CTA0000779 |

엘리자베스(Elizabeth)에게

귀하의 친절한 편지와 사려깊은 감회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귀하께서 한국에서 저를 너무나도 따뜻하게 맞아주었던 사람들 중의 한 명이었던 사실을 알고 기뻐합니다. 저의 한국 방문은 정말 즐거웠으며 귀하의 지지와 호의에 너무나도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With my very best wishes to you and your family.

Sincerely,

제리 포드

엘리자베스 브룩스(Elizabeth Brooks) 귀하

JUSMAG-K

APO 샌프란시스코 96302

■ [두이(Doi) 양의 동행 취재 무산에 대한 사과]

- | | |
|-------------------------------------|--------------------------------------|
| • 형태 : 편지 | • 일자 : 1974.12.15 |
| • 발신 : Yoichi Hosoya(후지 이브닝 뉴스 편집장) | • 수신 : David H. Kennerty(대통령 개인 사진가) |
| • 출처정보 : The Fuji Evening | • 관리번호 : CTA0000779 |

키널리 씨 귀하

먼저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귀하가 일본에서 머무르고 있을 때 귀하를 만났었던 두이(Doi) 양이 기자로 일하고 있는 후지 이브닝의 뉴스 편집장입니다.

첫째로, 저는 그녀에게 그리고 저희 신문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보도하는데 귀하께서 보여준 친절과 협력에 저희가 아주 감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 저는 귀하께서 대통령께서 콜로라도에서 가족들과 함께 스키 여행을 즐기시는 동안 두이 양이 대통령을 인터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려고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유감스럽게도 이번에 이 기사를 위해 그녀나 다른 기자들을 미국에 보내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을 알려드려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이는 주로 재정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귀하께서 저희의 사과를 받아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두이 양은 더 이상 귀하를 볼 체면조차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귀하에게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귀하께서 그녀가 기대를 어긋나게 한 것에 대해, 다시 말해 이렇게 창피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에 대해 관대하게 이해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귀하와 귀하의 상관, 미국 대통령에게 행운을 빌며,

Truly yours,
요이치 호소야
뉴스 편집장
후지 이브닝

■ [선물과 의전에 대한 감사]

- | | |
|--------------------------|-------------------------|
| • 형태 : 편지 | • 일자 : 1974.12.18 |
| • 발신 : Jerry Ford(대통령) | • 수신 : 조상호(청와대 고위 의전비서) |
| • 출처정보 : THE WHITE HOUSE | • 관리번호 : CTA0000779 |

조 의전비서에게

저의 가족과 저는 귀하가 보내주신 멋진 스키 재킷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그것을 받고 기뻐하며 이것은 언제나 저희에게 귀하의 사려깊은 배려를 생각나게 할 것입니다.

저는 저의 방문 기간 동안 박 대통령과 저를 위해 공식 통역으로서 귀하가 훌륭하게 해주신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너무도 훌륭히 해주셔서) 통역이 쉬운 일처럼 여겨질 정도였습니다.

With warm best wishes.

Sincerely,
제럴드 R. 포드

조상호(Cho Sang Ho) 귀하
고위 의전비서(Senior Protocol Secretary)
청와대
서울

■ [한국 국회의장의 선물에 대한 감사]

- | | |
|--------------------------|---------------------|
| • 형태 : 편지 | • 일자 : 1974.12.18 |
| • 발신 : Jerry Ford(대통령) | • 수신 : 정일권(한국 국회의장) |
| • 출처정보 : THE WHITE HOUSE | • 관리번호 : CTA0000779 |

국회의장(Mr. Speaker) 귀하 :

저는 저의 방문 기간 귀하께서 친절하게도 저에게 선물하신 훌륭한 선물에 감사드립니다. 이들은 한국 장인들의 예술적 재능을 너무도 잘 반영하고 있으며 우리 두 나라 사이에 존재하는 따뜻한 우정을 계속 떠올리게 해줄 것입니다.

With best wishes,
Sincerely,
제럴드 R. 포드

정일권(Chung Il Kwon) 한국 국회의장 귀하

■ [선물에 대한 감사인사]

- | | |
|--------------------------|---------------------|
| • 형태 : 편지 | • 일자 : 1974.12.18 |
| • 발신 : Jerry Ford(대통령) | • 수신 : 박정희(한국 대통령) |
| • 출처정보 : THE WHITE HOUSE | • 관리번호 : CTA0000780 |

대통령 각하 :

저의 가족과 저는 각하께서 너무도 사려깊게 선물해 주신 훌륭한 선물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제가 알기로 각하께서 각하의 책상에 두고 계신 것과 유사한 아름다운 칠기 서류함을 받고 기뻐합니다. 이러한 기념품들은 각하의 우정과 우리 두 정부의 긴밀한 동맹관계를 반영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With warmest personal regards,

Sincerely,

제럴드 R. 포드

친애하는 박정희 대통령

한국, 서울

■ [편지에 대한 답신]

- | | |
|---|---|
| • 형태 : 편지 | • 일자 : 1975.1.3 |
| • 발신 : Warren S. Rustand
(대통령 약속 담당 보좌관) | • 수신 : R. Gordon Hoxie
(대통령학 연구 소장, 중앙 대학교 미국 친우회) |
| • 출처정보 : 포드기록관 백악관자료 | • 관리번호 : CTA0000779 |

혹시(Hoxie) 귀하 :

귀하의 12월 13일자 편지에 대한 답신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스케줄 조정 사무실에 신청이 워낙 많다는 것을 이해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귀하의 저서, <미국 대통령이라는 지위, 사람, 정책, 그리고 직무(The American Presidency The Men, The Policies and The Office)>에 관해, 제가 임의로 귀하의 편지를 대통령 휘하 직원인 편집장(Executive Editor) 폴 데이스(Paul Theis) 씨에게 전달했습니다. 그가 이 책에 대통령께서 서문(forward)을 쓰시는 문제에 관해 귀하에게 직접 답변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1975년 1월 13일에서 2월 12일 사이에 중앙대학교 총장 임철순(Churl Soon Yim) 박사를 만날 수 있는지에 관한 귀하의 문의는 그때 고려해야 할 사항 목록에 추가될

것입니다. 하지만 2월 내내 대통령의 스케줄이 굉장히 빡빡하기 때문에 스케줄 조정이나 추가는 기대하기 어려우리라는 말씀을 드려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 곧 귀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8x10 사이즈 공식 사진을 동봉했습니다. 저는 굳이 파비안 바크라치(Fabian Bachrach)가 찍은 사진일 필요는 없고 다만 사진 한 장을 청구하신 걸로 이해했는데 제가 귀하의 편지를 잘못 이해한 것이 아니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번 귀하의 연락에 감사드리며 조만간 뵙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Sincerely,

워렌 S. 루스탄드(Warren S. Rustand)

대통령 약속 담당 보좌관(Appointments Secretary to the President)

R. 고든 호시 박사(Dr. R. Gordon Hoxie) 귀하

대통령학 연구 소장(President, Center for the Study of the Presidency)

중앙 대학교 미국 친우회(American Friends of Chung-Ang University)

Public Members Association

926 Fifth Avenue

New York, New York, 10021

bcc : 폴 데이스 w/편지에서 이야기된 책의 서문 처리를 위해 전달

빌 니콜슨(Bill Nicholson) w/스케줄 요청의 처리를 위해 전달

■ [두이(Doi) 양의 동행 취재 무산 건에 대한 답신]

- | | |
|--------------------------------------|-------------------------------------|
| • 형태 : 편지 | • 일자 : 1975.1.8 |
| • 발신 : David H. Kennerly(대통령 개인 사진가) | • 수신 : Yoichi Hosoya(후지 이브닝 뉴스 편집장) |
| • 출처정보 : - | • 관리번호 : CTA0000779 |

호소야(Hosoya) 씨 귀하

두이(Doi) 양에 관한 귀하의 친절한 편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녀가 대통령과의 인터뷰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해서 너무 불행해 하시지 않았으면 합니다. 오랫동안 이 일을 해온 저는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던 것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며 두이 양이 그렇게 실망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녀가 도쿄에서 저에 관해 썼던 기사의 번역본을 아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언젠가 귀하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기대합니다.

Very best wishes,

Sincerely,

데이비드 H. 케널리(David H. Kennerly)

대통령 개인 사진가

요이치 호소야(Yoichi Hosoya) 귀하

뉴스 편집장(News Editor)

후지 이브닝(The Fuji Evening)

1-7-2 Otemachi, Chiyoda-ku

Tokyo, Japan

■ [투옥된 두 목사에 대한 탄원에 대한 답신]

- | | |
|--------------------------------------|---------------------------|
| • 형태 : 편지 | • 일자 : 1975.1.17 |
| • 발신 : Roland L. Elliott(대통령 특별 보좌관) | • 수신 : 로저 L 신(통합신학교 교장대리) |
| • 출처정보 : - | • 관리번호 : CTA0000731 |

로저 L 신 귀하,

현재 대한민국에서 투옥되어 있는 두 명의 통합신학교 동문과 관련하여 귀하가 12월 20일 대통령에게 보낸 서신에 제가 답장을 드리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한 귀하의 우려에 공감을 표합니다. 저는 대한민국과 미국 양국 관계를 직접 담당하는 관리에게 이 서신을 전달하였습니다.

국무부가 파악한 정보에 따르면 박형규 목사와 김창국 학장은 한국 정부를 폭력적으로 전복할 기도를 세웠다고 한국 정부가 주장하는 한 학생 단체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긴급조치 4호 위반 혐의로 1974년 7월과 8월에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8월 12일 한국 군사 법정에서 선고를 받았습니다. 박 목사는 15년 구금형, 김 학장은 10년 구금형에 처해졌습니다. 8월 말 긴급조치 1호와 4호가 폐지되기 이전까지 한국에서는 헌법 개정을 촉구하거나 허가되지 않는 학생 정치 활동을 지원 또는 참여하는 일은 법을 위반하는 일이었습니다. 박 목사는 항소를 포기하였습니다. 김 학장은 항소를 제기하여 10월 11일 군사항소법정의 판결에 따라 형량이 10년에서 5년으로 감해졌습니다. 현재 이 건은 한국 대법원에서 최종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통합신학교 동문의 안위와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에 대하여 귀하가 갖고 계신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아시겠지만 한국 시민에 대한 한국 정부의 처우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가 적절하고도 효과적으로 취할 수 있는 행동은 제약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안보 또는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위태롭게 하는 방식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우리의 지지를 축소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정치체제에서 인권이 남한에서보다 더 잘 보장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동시에 본 행정부가 인권에 대해서 갖고 있는 관심을 대한민국 정부가 알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더욱 자세하게 설명하는 국무부의 특별 보고서를 참조하시라고 첨부합니다.

대통령의 안부 인사를 전하며,

연락국장 롤런드 L. 엘리엇(Roland L. Elliott Director of Correspondence)

수신 : Dr. Roger L. Shinn

Acting President

Union Theological Seminary

Broadway at 120th Street
New York, New York 10027

첨부 : 국무부 특별 보고서

■ [투옥된 박형규, 김창국 목사에 대한 탄원]

- | | |
|---------------------------|------------------------|
| • 형태 : 편지 | • 일자 : 1975.1.17 |
| • 발신 : 로저 L 신(통합신학교 교장대리) | • 수신 : Jerry Ford(대통령) |
| • 출처정보 : - | • 관리번호 : CTA0000731 |

대통령 귀하,

저는 저희 통합신학교 동문으로서 최근 대한민국에서 투옥된 사람들에 대한 우려로부터 우리 학교 교수진과의 협의를 거쳐 이렇게 편지를 드립니다. 투옥된 사람은 두 사람으로서 이곳에서 1964년 S.T.M. 학위를 받은 박형규 목사이며 다른 사람은 1955년 같은 학위를 받은 김창국 목사입니다. 김창국 목사는 연세대학교 신학대학 학장으로 있습니다. 최근 이들이 감옥에서 석방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저는 갖고 있지 않지만, 이들의 투옥과 연관된 협박의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의 모두는 두 가지 이유에서 이 두 사람의 투옥에 책임을 느낍니다. 첫째, 이들은 우리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러한 목회 활동을 함으로서 투옥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적인 가르침이 사람들을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미국의 시민으로서 우리 정부가 한국 정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의 도움이 없다면 한국 정부는 존속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두 사람이 동문이기 때문에 또는 기독교이기 때문에 관심을 두는 것이라면 이는 우리의 신앙과 가르침에 반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곳에서든 민중에 대한 억압과 처벌을 반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학생들에 대한 특별한 책임 또한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육 활동으로 말미암아 졸업생들이 투옥되게 된다면, 우리는 이러한 불의를 바로잡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는 구체적인 이유입니다. 동시에 우리 졸업생의 운명은 훨씬 더 큰 이야기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대통령께서 잘 아시다시피 1973년 해외원조법의 32절은 “의회의 견해로 볼 때 대통령은 자국 시민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억류하거나 투옥하는 외국의 정부에 경제적 또는 군사적 지원을 금지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1974년 1월 8일과 4월 3일, 박 대통령은 긴급조치를 발동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소개, 제안 또는 호소할 수 없다.” 이 조치를 위반하는 사람은 최고 15년까지 구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학생 집회나 시위는 투옥 또는 사형과 같은 처벌 조항으로 특별히 금지되었습니다.

8월 1일 한국 3천4백만 개신교도의 3분의 2를 대표하는 한국교회협의회는 긴급조치의 철회를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8월 12일 위에서 언급한 두 사람의 동문 목사를 포함하는 몇 차례의 투옥사태가 이어졌습니다. 천주교도와 개신교도들은 그 날 항의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러한 사태에 영향을 미칠 힘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박 대통령은 - 아마 임시적이겠지만 - 긴급조치 중에서 가장 잔혹한 조치를 중단했습니다. 의회와 미국인들의 현저한 우려 그리고 최근 한국 방문에서 대통령께서 표시한 우려가 일정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징표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의적인 투옥이 가능한 체제의 지속과 함께 억압과 협박의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중하게 촉구하건대 인간의 존엄성과 개인의 자유 그리고 세계 속에서의 미국의 이미지를 위하여, 우리가 이북 세력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는 취지로서 한때 생각했던 인권이라는 가치의 일부를 대한민국이 준수하도록 대통령께서 미국의 영향력을 대한민국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유를 애호하는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잔인한 독재 정부의 동맹으로 간주하는 것은 한국에서 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공동체에서 개인적으로도 알게된 두 사람의 통합신 학교 졸업생의 고난 때문에 나서게 된 저로서는 이 서신에서 두 사람 문제에만 국한하는 바입니다. 미국에게는 우리 자신의 독립선언문과 헌법이 선포하는 자유의 이름으로 행동할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교장 대리 로저 L. 신

■ [김 추기경과 크롤 추기경의 편지에 대한 답신]

- | | |
|--------------------------------------|--------------------------------------|
| • 형태 : 편지 | • 일자 : 1975.1.20 |
| • 발신 : Roland L. Elliott(대통령 특별 보좌관) | • 수신 : John Cardinal Krol(필라델피아 대주교) |
| • 출처정보 : - | • 관리번호 : CTA0000709 |

크롤 추기경(Cardinal Krol) 귀하

저는 대통령의 한국 방문에 관한 김 추기경의 편지를 동봉한 귀하의 11월 4일자 편지에 관해 답변을 하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늦게 답장을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대통령께서는 귀하께서 말씀하신 우려점들에 대해 아주 잘 알고 계시며 김 추기경의 편지를 대통령께 전해준 점에 대해 귀하께 감사하고 계십니다. 물론 대통령의 방문은 한국의 국내 상황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제2차 대전 이래로 지속되어온, 그리고 동북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대통령께서 필수적이라고 여기고 계신 미국-한국 동맹 관계를 재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한 우리의 정책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한국의 인권상황에 관한 국무부의 최근 특별 보고서를 동봉했습니다.

다시 한번, 귀하의 편지에 감사를 드립니다.

대통령의 개인적인 안부를 전하며,

Sincerely,

롤랜드 L. 엘리엇트(Roland L. Elliott)
통신국장(Director of Correspondence)

존 크롤 추기경(John Cardinal Krol) 전하
 필라델피아 대주교
 222 North 17th Street
 Philadelphia, Pennsylvania 19103

한국의 인권 상황에 관한 특별 보고서를 동봉함.

특별 보고서

한국의 인권 상황

No. 5

한국의 인권 문제는 현재 미 의회, 국무부, 그리고 대중적인 우려 사항이다. 현재 한국 헌법에는 국제인권선언(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에 나오는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개념들이 대부분 언급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 헌법은 인권의 존재와 중요성에 대해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을 개정하면서 한국 정부는 이전까지는 존중되었던 몇몇 기본적인 권리들을 삭제해버렸으며 헌법 53조(article 53)는 대통령에게 국가 안보나 공공 안전(public safety)이 위협받을 때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불가피한 긴급조치(necessary emergency measures)'를 발동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에는 개인의 권리 행사 중단이 포함될 수도 있다. 1월에 한국 정부는 인권을 침해하는 세 가지 긴급 조치들을 선포했다. 대략 200여 명의 사람들이 이 조치 하에서 재판에 회부되어 있으며 이중 두 개의 조치는 8월 23일 해제되었다.

우리의 한반도에 대한 정책은 오랫동안 긴장을 완화시키고 전쟁 행위가 다시 벌어지는 것을 피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한국이라는 국가는 동북 아시아의 안정과 안보를 확보하려는 우리의 노력에서 주요한 요소이다. 명백하게, 우리는 한국의 인권 정책에 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는 문제는 인간의 자유를 유지하기 위한 최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스텝이다.

외국 지원 법안(the Foreign Aid bill)과 관련한 한국의 인권 문제 청문회가 국제 기구와 운동에 관한 미 하원 대외관계 소위원회와 아시아, 태평양 문제에 관한 대외관계 소위원회에 의해 1974년 7월 30일 열렸다.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문제 차관보 대리(Acting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아서 W. 험멜 주니어(Arthur W. Hummel, Jr.)는 소위원회에 나와 증언하면서 미국의 지원이 한국 정부에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억압적인 조치들'에 대한 정치적 지원 뿐만 아니라 물질적 지원까지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과 같은 소위원회의 질문들에 답변했다.

다음은 험멜의 증언과 미 하원 대외관계 위원회 위원장 토마스 E. 모간(Thomas E. Morgan) 하원의원에게 국무부 부장관(Deputy Secretary) 로버트 S. 잉거솔(Robert S. Ingersoll)이 6월 27일과 7월 28일에 보낸 편지의 내용들이다 :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 :

저는 오늘 한국의 인권 상황에 관한 귀 위원회의 청문회와 관련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어서 기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상황을 검토해보기에 앞서 저는 미국의 인권 분야 정책에 관해 보다 포괄적인 맥락을 간단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대통령께서 아나폴리스(Annapolis)에서 지난 6월 5일 연설에서 이야기하셨듯이, 우리의 대외 정책은 우리 자신의 이상과 목적을 반영해야 하며 인간의 자유가 억압되는 것을 묵인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국제 포럼(international forums)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정부와 우리 정부의 비공식적인 교류를 통해서도 인간의 근본 원칙들을 지속적으로 굳건하게 지지하고 있으며 이것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웅변적인 공식 연설 수백번보다도 외교적인 방법을 통하는 것이 더 많은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식 연설들이 종종 효용이 있다는 사실을 참작하고 말입니다.

장관님도 우리가 인권을 지지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말씀해 왔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와 관련해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입니다. 국무장관으로 취임한 바로 직후인 지난 10월, 키신저 장관은 테리스 컨퍼런스(Terris Conference)에서 파셈(the Pacem)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그는 우리가 진정한 도덕적 딜레마와 중대한 정책 결정들에 직면해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대외 정책에서 서로 맞서는 요소들에 관해 설명하셨습니다. 그는 우리가 안정에 대한 강박관념이라든가 지나치게 실

용주의적인 정책이라든가 혹은 지나치게 융통성없는 도덕적인 정책이라든가 하는 극단을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인간의 근본 원칙들을 촉구해 나갈 것과 우리가 과거에도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정의와 자유를 촉진시키기 위해 우리의 영향력을 행사해야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는 핵 시대(the nuclear age)에 우리는 전쟁과 평화의 문제는 또한 인간의 생명에 관한 문제이며 평화의 달성은 심오한 도덕적 문제라는 것을 인식해야만 한다는 말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 한국 문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한국의 인권 상황에 관한 논의는 우선 역사적인 시각을 고려해야만 합니다. 20세기 초 한국은 민중이라는 표현과 규정이 없는 유교 군주제였습니다. 이어서 한국은 35년 동안 일본 관료제에 의해 통치되는 식민지였습니다. 그렇기에 한국은 대의 정치 제도를 발전시킬 기회가 없었습니다. 해방 이후의 기간은 대부분 강력한 권위주의 정부가 들어섰던 것으로 특징지어집니다. 그러나 한국민들은 그들의 정치에 진심으로 참여하고 싶은 분명한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망은 1960년에 가장 극적으로 드러났으며 이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크고 작은 정치 문제에 임하는 강도는 자신들의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데 참여하고자 하는 그들의 갈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국가에 충성스러운 야당(loyal opposition)의 전통의 부재는 정부와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 모두의 견해에 영향을 미칩니다. 협력과 절충보다 강압과 흡수(co-option)가 한국의 정책을 특징지어왔습니다.

북한의 적대행위

이러한 배경에서는, 제도적인 인권 보호의 발전은 어쨌든 어려울 것입니다. 불행한 지정학적 이유들 때문에, 한반도에서는 그것이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지난 4반세기 동안 한국의 발전은 매번 한국에서의 민주주의의 성장을 거의 어떤 대가를 치루더라도 방해하고자 하는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이 명백한 북한 정권의 적대행위에 직면해왔습니다. 이러한 위협의 징후는 밀물처럼 물러왔다가 썰물처럼 밀려가기도 하고 그 본질이 오랜 시간에 걸쳐 변하기도 했지만 그 명령은 변하지 않고 남아있습니다. 한국인들은 때때로 북에 의한 침략적인 군사 행동들이 실질적인 위협이 되곤 했다고 느끼고 있으며 우리도 이에 동의함

니다. 우리는 여전히 엄혹하고 강경한 북한의 정권이 어떤 수단을 써서든 전 한반도의 통제권을 얻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한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쓰라린 전쟁의 기억은 여전히 한국에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과거로부터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국가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개인의 자유를 어느 정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어 왔습니다. 오늘날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그 대가가 얼마 만큼이 되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국민들과 공명하는 정부를 바라는 한국인들의 열망을 공유하고 있지만, 그 결정은 오직 한국 국민들만이 내릴 수 있는 결정입니다.

제가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어떤 형태로든 인권의 박탈을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이러한 권리들을 전통적으로 보장해주는 제도-독립적인 사법부, 언론, 대의제 국회와 같은 제도들이 근대 한국에서 상대적으로 빈약했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귀 위원회의 공동 서한에서 제기된 구체적인 우려사항들에 대해 언급하기에 앞서 의심의 여지가 없는 한국의 발전 양상 하나를 간단하게 논하고 싶습니다. 즉 저는 한국의 경제 발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한국의 경제 성장은 거의 기적적이었으며 전반적인 생활수준을 극적으로 높여 주었습니다. 20년 전에 끔찍하게 파괴되었던 나라가 지금은 자급자족의 단계에 거의 도달해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현재의 정부가 칭찬을 받을 만합니다.

인권

이제 귀 위원회의 보다 구체적인 우려사항들, 최근에 한국에서 벌어진 사건들에 관해 이야기하자면, 저는 당시 미 하원 대외관계 위원회 차관보였던 잉거솔이 제출한 관찰 보고서 일부를 간략하게 재검토해보려 합니다. 법률적인 면에서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 논평하면서, 잉거솔은 현재 한국의 헌법은 국제인권선언에 나오는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에 대한 개념들을 대부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헌법은 인권의 존재와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헌법이 수정되면서 이전까지 존중되어 왔던 근본적인 권리들 일부, 예를 들어 인신보호 영장 청구권(the right of habeas corpus)과 같은 권리들이 삭제되었습니다. 게다가 53조(article 53)는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이 위협을 받을 때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필요한 긴급 조치들’을 선포할 수 있는 권리를 대통령에게 부여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에는 개인의 권리 행사 중단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전의 헌법은 무력 적대행위가 벌어지는 상황이나 국회를 소집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가 안보에 필요할 때만 대통령에게 포고령을 내려 통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었습니다.

모든 실질적인 권력을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집중시키고 인권 보호를 명백하게 제한시키는 개정 헌법은 1972년 국민투표에 의해 승인되었습니다.

올해 초 긴급 조치들이 선포되었습니다. 위반자들은 정규 재판이 아니라 특별 군사재판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1월 8일 선포된 대통령령 긴급조치 1호는 현재 헌법의 수정을 촉구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이 조치 하에서 36명이 최대 15년의 강제 노동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4월 3일 선포된 긴급조치 4호는 더욱 포괄적입니다. 이 조치는 전국민주청년학생연합(the National Federation of Democratic Youth and Students)이라는 구체적인 한 조직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한국 정부는 이 조직이 북한과 연관된 공산주의자들의 조직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들은 폭력적인 수단으로 정부 전복을 꾀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에 의해 악용될 수 있으며 어쩌면 군사적인 행동을 초래할 지도 모르는 시위의 만연을 막아야 할 필요성을 들어 이러한 조치를 정당화해왔습니다. 이 조직과 왕래를 했거나 지원 혹은 격려했거나 혹은 이들의 활동을 보도했던 사람들 역시 이 조치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조치는 또한 집회를 비롯해 정부 승인을 받지 못한 학생 활동들에 대한 처벌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 하에서 55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9명은 현재 사형 판결을 받은 상태이고 19명은 종신형, 그리고 그 나머지는 15년에서 20년 형을 받았습니다. 긴급 조치들의 용어가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데다 군사 재판의 비밀주의 때문에 이 그룹의 피고인들 중 어떤 이들이 ‘정치적’ 범죄 때문에 기소되었는지 누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기소되었는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정부는 이 조치가 선포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1024명이 조사를 위해 구류되었으며 253명이 군사법정 검사에게 회부되었으며 우리가 알기로는 750명이 풀려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 정부와 섹션 32(Section 32)의 적용 가능성 여부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한 이래로 개념 정의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가 명백하게 나타났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우리는 정치적 신념이나 행위 때문에 구류되거나 기소된 사람들을 가리켜 ‘정치범 (political prisoners)’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한국 정부는 최근 재판에 회부된 혐의자들이나 피고인들은 정치적 신념 때문에 기소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특집 법률들을 명백하게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관리들은 공산주의자들과 공모한 사람들은 폭력에 의한 정부 전복을 주창하고 있으며 따라서 폭력을 사용하거나 주창하는 사람들은 이 (정치범이라는) 정의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이 정의 개념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공평하게 이야기해서, 저는 법과 집행이 무단 구금이 벌어지지 않도록 충분히 수호되고 있거나 공정한 공개 재판을 보장해주고 있는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종교적인 신념이나 민족적 출신 때문에 기소된 사람들의 사례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최근 역사를 보면, 간첩 혐의로 유죄 선고가 된 사람들만이 처형되었으며 지난 1월까지 우리가 여기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정치적’ 범죄로 기소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고문이 어느 정도까지 사용되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저는 귀 위원회가 다른 출처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내용 외에 덧붙일 수 있을 만한 믿을 만한 세부적인 것들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 정부는 고문은 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한국의 취조 기관들에 주어져 있는 자유재량권과 만연된 분위기가 용의자들과 증인들에 대한 가혹행위의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최근 재판들과 관련해서, 우리 대사관은 대다수 피고인들이 엄청난 심리적 압박은 물론이고 고문까지 당해왔다고 주장하는 단체들과 개인들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상황에 대한 보도가 미국 언론에까지 보도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바로 얼마 전 우리의 질의에 대해 이 문제에 관한 언론 보도의 정확성을 부정했습니다. 공개 재판 절차와 자유로운 언론 보도가 이러한 혐의들을 풀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죄수들을 독방에 가두거나 공식 기소 없이 가두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받은 보고에 따르면, 조사를 위해 구금된 용의자들과 증인들은 모두 그 기간 동안 외부와의 통신이 부정된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한국 정부는 한국 법에 따르면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최근의 군사 재판의 경우에는 기소를 하는데 있어서나 피고를 재판에 회부하는 데 있어서 지체되는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정당한 절차가 지켜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논하기가 어렵습니다. 최근

의 재판들은 군사 재판들로 비공개로 진행되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의 출처는 대부분 아주 확실한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그들 역시 이 문제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고문이나 기타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부적절한 방법을 사용한다거나 증거에 관한 기본적인 법률 규정의 결여, 피고인이 변호인과 충분히 접촉할 수 없다는 것, 피고인들이 전화를 하거나 증인들과 대질심문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점, 정부가 진행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든가 하는 문제들에 관련해 의문점을 제기하는 보고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또한 노조의 자유, 학문의 자유에 대한 제한 등에 대해서도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한국의 노조 운동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노조를 결성하거나 단체 협상에 임하는 노조의 권리는 헌법과 노동조합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파업권은 분규의 내용과 상관없이 일체 금지되어 있습니다. 대략 4백만 명의 육체노동자와 사무직 노동자 중 약 62만 명이 국제자유노조연맹(the International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ICFTU)에 가입되어 있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the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의 17개 가맹 연맹 내에 조직화 되어 있습니다.

1974년 상반기 노조 가입률은 10퍼센트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현시기 노조는 정치적 세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보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정부 조치에 저항하는 입장은 취하지 않았을 것이며 긴급 조치가 휩쓰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그렇게 할 만한 힘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긴급조치 3호가 노동자들의 고난을 인지하고 일부 불만족 요인들을 제거하려는 시도에서 나왔다고 이야기되기도 합니다. 아마도 값싸고 잘 훈련된 숙련 노동자는 이 나라의 주요 수출 자원이기 때문에 정부는 노동자들과 노조에 대해서 강력한 통제를 유지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 성장에서 노동자들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주의는 인권에 대한 문제 만큼 한국에서 두드러진 불화, 분쟁의 영역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학문의 자유에 관한 문제는 오랫동안 한국에서 분쟁의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이는 대부분 북한의 위협에 대한 정부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벌어져으며 이에 정부는 가르치는 과정들, 사용되는 교과서들, 그리고 출판되는 연구 보고서들을 철저히 감시해왔습니다. 정부는 학문의 자유를 법에 의해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긴급조치 1호와 4호, 그리고 그 실행 법령들은 캠퍼스 내에서 헌법 개정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논의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캠퍼스 내에서 상당한 정부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보

그를 종종 듣고 있으며 이 정보를 제공한 이들은 이것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학생들과 교수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들이 그들의 학문적 견해 때문에 기소된 것이 아니라 불법적인 반국가 행위들, 특히 폭력적인 수단으로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공산주의자들의 음모에 가담했기 때문에 기소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슈에 관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기소된 사람들 중에 존경받는 교수들과 학자들, 그리고 한국의 전 대통령도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하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치 프로세스의 자유, 특히 선거의 자유에 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러한 용어들은 상대적인 가치들을 다루기 때문에 정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국은 대의 정치 제도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서구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재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저의 논평을 자제하고 싶습니다. 가장 최근의 총선,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는 헌법 개정에 이어 그 직후인 1972년 말에 치러졌습니다. 단독으로 출마한 대통령은 대중 선거에 의해 선출된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해 간접 선거로 선출되었습니다. 국회의원의 2/3는 두 주요 정당의 후보자들 중에서 국민에 의해 직접 선거로 선출되었으며 1/3은 정부를 대표하는 후보자들 중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해 선출되었습니다. 정당의 조직과 활동 권리는 헌법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휩쓰는 긴급조치의 규정들은 긴급조치가 시행되는 동안 공개적이고 의미있는 정치 토론의 가능성을 급격하게 제한해왔습니다.

군사 지원

귀 위원회와 다른 위원회들은 한국에 대한 군사 지원과 한국의 민주주의 제도와 인권의 개선 사이의 관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왔습니다. 군사 지원 제공이 대의 정치 제도의 발전을 담보해 주지는 못하겠지만, 이것은 한국에 안보 방어막을 제공해왔으며 그 뒤에서 생존 가능한 경제, 사회, 정치 제도들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분명, 한국의 정치 제도는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자기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또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은, 한국인들에게는 민주주의적 원칙에 대한 진정한 헌신, 그리고 이러한 열망을 실현하려는 의지가 있어왔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기본적인 자유가 명백하게 부재한 북한

의 공격적인 사회의 특성을 우리 역시 알고 있기 때문에 안보 방어막이 없다면 분명 이는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히 존중하는 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가능성을 분명 끝장내고 말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억압 상황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를 평가할 때, 우리의 지원은 종종 한국 정부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활용해야만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여겨집니다. 이것은 우리의 지원의 목적을 잘못 이해한 데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원조는 특정 정부나 지도자에 대한 지지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제도를 발전시켜서 자유를 가능한 한 최대한 누릴 수 있고 자급자족할 수 있으며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결점이 무엇이든간에 한국은 현재 생존 가능한 국가이며 미국에 대한 보조금 의존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국제 기구들의 존경받는 회원이며 이러한 국제 기구들에서 한국은 세계 문제의 해결에 한국의 에너지와 재능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독립적이고 자급자족적인 나라로서의 한국의 존재는 동북 아시아의 안정과 안보를 담보하려는 우리의 노력에서 주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이해관계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키신저 장관이 지난주, 7월 24일 미 상원 위원회에 나와 증언할 때 명확하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한국의 인권 정책을 승인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러한 방어막은 지속적으로 강화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우리에게 한반도의 전쟁 방지는 인간의 자유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기 위한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스텝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채널들, 서울과 워싱턴의 공식적,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 한국 관리들이 미국이 세계인권선언 하에서의 우리의 의무에 비추어, 그리고 또한 우리의 역사와 유산에 따라서 인권의 박탈을 얼마나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인식하도록 해왔습니다. 우리는 이 정부 내에서, 언론에서, 우리의 제도와 기관들에서 미국의 입장이 변화할 때마다 정기적으로 이를 한국 정부에 전달해왔습니다. 우리는 인권이 계속해서 유린된다면 미 의회가 지금껏 지원을 제공해왔던 우리의 지원 프로그램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한국에 분명하게 밝혀왔습니다. 우리는 인권 유린에 대해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보고받고 파악하고 있고자 노력해왔으며 한국의 국내 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항의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최근 한국이 한 미국인 언론인

에게 비자 발급을 거부했던 사건의 경우, 우리는 이러한 조치는 보도의 자유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항의했습니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취하고 있는 한국 내의 결정들에 관여하지 않아왔으며 이를 정당화하고자 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 여러분은 한국의 인권 문제에 대한 우리의 정책이 이루어지는 총체적인 맥락에 대해 간단한 개요를 듣고자 하실 것입니다. 저는 위원장님이 최근 의회 기록(the Congressional Record) 1974년 7월 17일, H6688-89에 전체 위원회 앞에서 잉거솔이 대외 원조 법안에 관해 증언했던 6월 13일자 증언과 그가 1973년 대외 지원 조치(the Foreign Assistance Act)의 정치범들에 관한 섹션 32에 관련해 모간 박사에게 보냈던 편지에 덧붙이는 글을 쓰셨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규정과 관련해 집행 단위(the Executive Branch)에서 취하고 있는 다양한 스텝에 관한 이전의 정보를 업데이트한 두 번째 서한이 모간 박사에게 발송되었습니다.

동아시아에서 우리의 원조를 받는 모든 국가들은(저는 이는 전세계 다른 지역에서도 모두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이미 섹션 32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에 반영되어 있는 의회의 의견에 대해 공식적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항상은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호스트 정부(host government)에서는 이를 통보해 준데 대해 감사를 표했으며 어떤 경우에는 추가 정보를 요구했습니다. 몇몇 정부에서는 섹션 32가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전에 이를 법제화할 때 의회 논쟁에서도 언급되었던 어려움인, '정치범'이라는 용어를 정의내리기가 어렵다는 것이 언급되었습니다.

잉거솔이 모간 박사에게 보낸 편지에서 지적했듯이 우리 정부와 원조 기구(State and Aid)는 현재 현장에서의 반응들을 평가하고 있으며 어떤 조치를 더 취하는 것이 적절할 지를 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의회에 우리의 조사결과를 보고할 것입니다.

■ [선물에 대한 감사인사]

- | | |
|------------------------|---------------------|
| • 형태 : 편지 | • 일자 : 1975.1.27 |
| • 발신 : Jerry Ford(대통령) | • 수신 : 최송옥 |
| • 출처정보 : - | • 관리번호 : CTA0000709 |

송 여사에게 :

제 부인과 저는 귀하께서 사위 론 네슨(Ron Nessen)을 통해 저희에게 전해주신 멋진 선물에 감사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귀하와 귀하의 친구 김임식 여사(Kim Im Sik)는 너무나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해 주셨으며 귀하의 사려깊음 덕분에 저의 한국 방문은 더욱 즐거운 것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With warmest regards,

Sincerely,

제리 포드

최송옥(Choi Song Ok) 여사

29-210

부산 신동서구 동대 3가

국무부 행랑을 통해 급송

1974년 12월 12일

최성옥 여사의 선물에 관한 정보

(코니 게라드(Connie Gerrard)와의 전화 통화에 따라)

송 여사는 론 네슨의 장모입니다. 그녀는 한국 시민이며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미국을 자주 방문하며 앞으로 두 달 이내에 이곳에 올 것 같지만 말입니다.) 그녀는 이 선물을 P(대통령?)의 호텔로 가져왔으며 거기에서 이를 네슨 씨에게 주었습니다.

동시에 그녀는 또한 실크 세 점을 선물했습니다. 한 점은 그녀의 딸에게 주는 것이고 하나는 포드 여사에게 주는 것이며 세 번째 실크 한 점은 포드 여사에게 보내는 김임식 여사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코니 게라드는 우리가 네슨 여사에게 전화를 걸어 혼동을 피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특히 네슨 여사에게 보내는 실크 한 점에 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메리 루 실스(Mary Lou Shiels)는 실크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 [한국 및 일본 순방시의 노고에 감사]

- 형태 : 편지
- 발신 : Henry A. Kissinger(국무부장관)
- 출처정보 : THE WHITE HOUSE
- 일자 : 1975.2.9
- 수신 : John A. Forebe, Jr.(국가안보위원회)
- 관리번호 : CTA0000780

잭(Jack)에게 :

저는 대통령의 최근 일본과 한국 방문에 힘을 쏟아주신 것에 대해 귀하에게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문제에 관한 귀하의 분석들과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 지에 관한 귀하의 조언들은 대통령께서 방문을 준비하실 때, 그리고 방문 기간 동안에 아주 유용했습니다.

훌륭한 일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Warm regards,

헨리 A. 키신저(Henry A. Kissinger)

존 A. 프리베 주니어(John A. Forebe, Jr.) 귀하
국가안보위원회
워싱턴 D.C. 20506

■ [세계 여행 연구 결과 보고서에 대한 감사]

- 형태 : 편지
- 발신 : Jerry Ford(대통령)
- 출처정보 : 포드기록관 백악관자료
- 일자 : 1975.2.21
- 수신 : Franklin B. Lincoln, Jr.
- 관리번호 : CTA0000780

프랭크에게 :

귀하의 최근 세계 여행 연구 결과 보고서를 저에게 보내주신 편지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한국과 사우디 아라비아의 견해에 관한 귀하의 평가를 얻게 되어서 기운이 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동의 평화를 가져오는데 있어서의 저의 절대적인 관심을 파이잘 국왕(King Faisal)에게 확인해 준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제가 귀하께서

확인해 주신 바 대로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편지에 감사를 드립니다. 중동 국가들의 상황에 대한 귀하의 지각력 있는 분석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Warmest personal regards

Sincerely,

[서명이 잘 보이지는 않지만 포드 대통령 서명인 듯]

프랭클린 B. 링컨 주니어(Franklin B. Lincoln, Jr.) 귀하

Mudge Rose Guthrie & Alexander

20 Broad Street

New York, New York 10005

■ [한국의 정치 상황]

- | | |
|------------------------------|------------------------|
| • 형태 : 편지 | • 일자 : 1975.3.13 |
| • 발신 : Ockenga(고든-콘웰 신학교 학장) | • 수신 : Jerry Ford(대통령) |
| • 출처정보 : - | • 관리번호 : CTA0000725 |

포드 대통령 각하 :

저는 고든-콘웰 신학교 학장입니다. 학장으로서 제가 부수적으로 하고 있는 일들 중의 하나는 외국을 방문해 강연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 3월 8일, 토요일, 저는 2주간의 한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와 이 나라가 자유 세계에서 가지는 중요성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특히 주한미군 철수와 우리의 군사 지원 종결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시기에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편지를 씁니다.

저의 이 소견은 장기 선교사와 종교 지도자들, 미군 군사 장교들, 한국 총리를 비롯한 한국 정부의 정치 지도자들, 대학교 총장들을 비롯한 교육계 인사들과의 만남을 통해 얻은 것입니다. 저의 소견은 또 1953년에 한국을 방문했던 일에 비추어서 얻어진 것입니다.

당시 그 나라는 전쟁으로 황폐화되어 있었고 수백만의 피난민들이 궁핍으로 고통을 겪고 있었으며 자유는 제한되어 있었고 경제와 기업은 담보 상태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경제적으로 그때와는 현저하게 다르게 제가 접촉했던 모든 사람들이 만장일치로 한국이 상당한 번영을 누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1953년의 상황을 연상시키는 극단적인 빈민가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영역에서 경제는 상승곡선에 놓여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나눈 모든 이들이 이것이 전실한 박정희 정권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은 강력합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에 침투하려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한의 남한에 대한 대규모 군사적 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은 38선에 미국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의 철학, 전략, 목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다만 우리가 한국에 대한 지원을 철회하거나 줄이지 않기를 희망할 뿐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일본, 필리핀, 대만, 싱가포르에 재난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교육적으로, 반정부 학생운동이 존재합니다. 박 정권 하에 몇몇 성직자들과 200여 명의 학생들, 교수들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머무는 동안 이들 중 거의 대부분이 풀려났습니다. 그렇지만 사면을 받거나 대학이나 이전의 지위에 복귀하지는 못했습니다.

박 정권의 억압을 비난하는 비판 여론이 아주 분분합니다. 언론, 라디오, 학생 집회 등의 반정부 운동에 대한 이러한 억압은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국에서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한국에서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맞닥뜨리고 있는 끊임없는 공산주의 위협을 겪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계속 던졌습니다. ‘박 정권과 같은 정부에 대한 대안은 무엇일까’ 그 대답은 예외 없이 군부 독재정치이거나 혹은 정치적 혼란을 거쳐 공산주의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정부의 억압은 이해되어야만 합니다.

종교적으로, 전국에 종교의 자유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때때로 정부 대표가 예배에 참가해 관찰하기도 하지만 예배를 방해하는 일은 없습니다. 게다가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구속 학생들을 위한 집회나 시위가 열릴 때면 시위나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경이 바로 곁에 있어줍니다. 정부 소식통이 제게 전해준 바에 의하면 한국에는 약 500명의 선교사가 있는데 이들 중 20명 가량은 정부와 사회 개혁에 대한 태도가 미심쩍다고 합니다.

저는 한국인들이 국가를 위해 부지런하게 일하고 자유를 위해 기꺼이 희생할 수 있으며, 강력한 정치 리더십을 지닌 영웅적인 민족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한국의 자유를 위한 미국의 헌신이 약화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대통령의 한국 방문은 정말 높이 평가되고 있으며 당신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아주 긍정적인 환경을 남겨 주었습니다.

Faithfully yours,
해롤드 J. 오켄자
학장

■ [한국의 외무장관과 함(Hahm) 주미 대사의 초대]

- 형태 : 편지
- 일자 : 1975.3.20
- 발신 : Gail
- 수신 : Hardtman(워싱턴 백악관)
- 출처정보 : THE WHITE HOUSE 1722
- 관리번호 : CTA0000696

하드만 귀하께

한국의 외무장관이자 전임 대사인 김동조(Kim Dong-Jo)와 함(Hahm) 주미 대사는 3월 27일 오찬에 당신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시간과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483-7383 x21 켈리(Kelly)양.

게일(Gail)

■ [한국 내 정치 탄압과 미국의 원조]

- | | |
|--|------------------------|
| • 형태 : 편지 | • 일자 : 1975.3.20 |
| • 발신 : Edward I. Koch(하원의원) | • 수신 : Jerry Ford(대통령) |
| • 출처정보 :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 • 관리번호 : CTA0000775 |

대통령 각하 :

오늘자 뉴욕타임스에는 3월 19일 한국 국회가 한국인들이 국내 정치 탄압에 대해 외국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현행 형사법 개정안을 승인했다는 보도가 실렸습니다. 타임스에 따르면, “이 조치는 야당 정치인들이 외국 저널리스트들이나 외국 간행물을 위해 일하는 남한 취재기자들이 올리는 특전(dispatch)에 내보내는 비평들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기사는 또한 “저명한 저항 시인 김지하가 오늘 검찰에 출두했으며 남한의 악독한 반공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 유죄가 선고되면 7년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주 한국 중앙정보부에 의해 다시 연행된 김씨는 분명하게 서울 신문에 감옥에서의 생활에 대해 묘사했습니다. 김씨에 따르면 “정부는 불법적인(outlawed) 인민혁명당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람들에게 거짓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을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 각하, 제가 편지를 쓰는 이유는 미국이 회계연도 1975년에 1억 4500만 달러의 군사 지원을 하는 식으로 현재 한국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가 우리 개념대로 운영되는 국가들만 지지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 중의 한 명은 아닙니다. 더욱이 민주주의라고 간주될 수 있는 국가는 전세계에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우리가 세계의 양심을 분개하게 만들만큼 억압적인 행위에 가담하고 있는 국가들에 재정 지원을 해서는 안된다고 진심으로 믿고 있습니다. 대통령 각하, 이런 점에서 과연 우리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체주의 정부와 대한민국의 전체주의 정부를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구별할 수 없다면, 우리가 왜 한국을 지원해야 합니까?

제 판단으로는, 한국의 행위들은 탄압이라고 간주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바로 너그러운 사람인 당신에게 저처럼 두려움에 움찔할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정

권에 계속해서 자금을 대는 것에 반대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당신의 생각을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Sincerely,
에드워드 I. 코흐

■ [한국의 정치상황에 대한 편지 답신 건]

- | | |
|----------------------------------|-----------------------------|
| • 형태 : 편지 | • 일자 : 1975.3.25 |
| • 발신 : Vernon C. Loen(대통령 부 보좌관) | • 수신 : Edward I. Koch(하원의원) |
| • 출처정보 : - | • 관리번호 : CTA0000775 |

코흐 씨에게 :

한국의 저항 운동 탄압 보고에 대해 대통령께서 의견을 말해주실 것과 미국이 이 정부를 계속해서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당신의 3월 20일자 편지를 잘 받았음을 알려드리며 감사합니다.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대통령께서 당신의 편지를 보시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대통령의 대외정책 자문들과도 공유될 것입니다.

With kind regards,

Sincerely,
버논 C. 로엔

대통령 부 보좌관(Deputy Assistant to the President)

수신 : 에드워드 I. 코흐 귀하

미 하원

워싱턴 D.C. 20515

bcc: w/직접 회신을 위해 스코크로프트 장군의 조치가 있을 것임.

■ 한국의 최근 상황에 관한 고든-콘웰 신학교 학장에게 답신을 보내는 일에 대하여

- 형태 : 비망록
- 일자 : 1975.3.29
- 발신 : Jeanne W. Davis(국무부 서기관)
- 수신 : Roland L. Elliott(대통령 특별 보좌관)
- 출처정보 : NATIONAL SECURITY COUNCIL 1666
- 관리번호 : CTA0000775

고든-콘웰 신학교 학장 해롤드 J. 오켄가 박사는 미국의 대한민국, 박정희 정권 정책에 대한 자신의 지지를 표명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다.

당신이 오켄가 박사에게 보낼 답신 초안과 그 뒤를 이을 서신(the incoming correspondence)을 함께 동봉한다.

오켄가 박사(Dr. Ockenga)에게 :

대통령께서 한국의 현재 정치 상황에 관한 당신의 의견을 담은 3월 13일자 편지에 답장을 보낼 것을 저에게 요청하셨습니다.

미국의 대 한국 정책을 지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appreciate라는 표현이 we are grateful for로 바뀌었음). 대통령께서는 이 나라의 안보에 대한 우리나라의 약속을 확고하게 지지하기로 결심하셨으며 한 국가로서의 한국의 생존가능성을 높여줄 군사적, 경제적 지원 프로그램을 계속해 나가실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한국의 안보는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새로운 침략 위협이 있더라도 한국을 지원할 것이라는 우리의 결심은 25년 전 우리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갔을 때만큼 확고합니다.

당신의 견해에 대한 대통령의 감사와 인사를 전하며,(추가된 내용)

롤랜드 L. 엘리엇(Roland L. Elliott)

■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한 답신]

- | | |
|--------------------------------------|------------------------------|
| • 형태 : 편지 | • 일자 : 1975.4.2 |
| • 발신 : Roland L. Elliott(대통령 특별 보좌관) | • 수신 : Ockenga(고든-콘웰 신학교 학장) |
| • 출처정보 : - | • 관리번호 : CTA0000725 |

오켄가 박사(Dr. Ockenga)에게 :

대통령께서 한국의 현재 정치 상황에 관한 당신의 의견을 담은 3월 13일자 편지에 답장을 보낼 것을 저에게 요청하셨습니다.

미국의 대 한국 정책을 지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이 나라의 안보에 대한 우리나라의 약속을 확고하게 지지하기로 결심하셨으며 한 국가로서의 한국의 생존가능성을 높여 줄 군사적, 경제적 지원 프로그램을 계속해 나가실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한국의 안보는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새로운 침략 위협이 있더라도 한국을 지원할 것이라는 우리의 결심은 25년 전 우리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갔을 때만큼 확고합니다.

당신의 견해에 대한 대통령의 감사와 인사를 전하며,

롤랜드 L. 엘리오프(Roland L. Elliott)

Director of Correspondence

수신 : 해롤드 J. 오켄가 박사(Dr. Harold J. Ockenga)

고든-콘웰 신학교(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학장

사우스 해밀턴, 매사추세츠 01982

■ [한국의 억압적인 정치 상황]

- 형태 : 편지
- 발신 : Edward I. Koch(하원의원)
- 출처정보 :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 일자 : 1975.4.10
- 수신 : Jerry Ford(대통령)
- 관리번호 : CTA0000775

대통령 각하 :

저는 지난 3월 20일 한국의 억압 상황에 관해 당신에게 편지를 썼으며 당일 뉴욕타임스 기사를 동봉했습니다. 저는 오늘 그 나라에서 억압이 계속되고 있는 점에 관해 편지를 쓰고 있으며 오늘자 뉴욕타임스에 나온 새로운 기사를 동봉합니다.

저는 우리가 한국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계속해서 일정 정도의 책임이 있는 이 심각한 문제에 관해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Sincerely,
에드워드 I. 코흐

동봉(enclosure)

■ [한국의 정치상황에 대한 편지 답신 건]

- 형태 : 편지
- 발신 : Vernon C. Loen(대통령 부 보좌관)
- 출처정보 : -
- 일자 : 1975.4.15
- 수신 : Edward I. Koch(하원의원)
- 관리번호 : CTA0000775

코흐 씨에게 :

한국의 국내 상황에 관한 당신의 지난 3월 20일의 서한을 보충해 당신이 대통령에게 보낸 4월 10일의 서한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대통령께 당신의 편지에 관해 주의를 환기시켜드리겠습니다.

With kind regards,

Sincerely,
 버논 C. 로엔
 대통령 부 보좌관
 (Deputy Assistant to the President)

수신 : 에드워드 I. 코흐 귀하
 미 하원
 워싱턴 D.C. 20515

bcc: w/ 스킨크로프트 장군의 적절한 조치가 뒤따를 것임. 코흐 씨의 3월 20일자 편지는 3월 25일에 잘 받았음을 알려주었으며 직접 회신을 위해 당신의 사무실로 회부되었음을 유념하십시오.

■ 남한 국회의장과 취임전 주태국 미대사의 부통령 방문 예정의 건

- 형태 : 비망록
- 일자 : 1975.4.30
- 발신 : W. R. Smyser(국가안보위원회 아시아 담당)
- 수신 : Brent Scowcroft(백악관 군사보좌관)
- 출처정보 : NATIONAL SECURITY COUNCIL 2716/2717
- 관리번호 : CTA0000725

표 A와 B는 부통령께서 다음 주에 남한 국회의장 정일권씨를 그리고 5월 11일 이전에 주태국 대사로 임명되어 취임을 기다리고 있는 찰스 S. 화이트하우스씨를 영접하실 것을 제안하는 일정표입니다. 제 생각에 부통령과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인도지나 사태 이후 태국과 남한이 바라는 유익한 보장을 확인시키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표 C는 린스펠드의 주보좌관 체이니씨가 대통령께서 정 의장의 예방 요청을 받아들여 달라는 윌리엄 티몬스씨의 요청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 물어온 바, 이에 대한 부통령의 답변 초안입니다. 이 답변 초안은 대통령의 다음주 일정에 빈틈이 없어 예방이 불가능할 것이며 정 의장이 행정부의 다른 고위직을 만날 기회를 가질 것이라는 점을 부통령께서 체이니씨에게 전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남한 국회의장과 관련된 [부통령 일정 제안 - 표 A]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임명 대사 화이트하우스와 관련된 [부통령 일정 제안 - 표 B]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체이니씨에 보내는 메모 초안 - 표 C]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의 미군 배치와 구조

- | | |
|--------------------------|---------------------|
| • 형태 : 비망록 | • 일자 : 1975.5(추정) |
| • 발신 : 워싱턴 백악관 | • 수신 : 국방부 장관 |
| • 출처정보 : THE WHITE HOUSE | • 관리번호 : CTA0000744 |

대통령께서는 제1군단을 1976년에 없애고 현재 비무장지대(DMZ)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보병 중대를 가까운 시일에 이전시켜야 한다는 국방부의 권고를 검토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인도차이나의 최근 사건들이 이 시기에 제안된 두 가지 조치들 중 어느 것도 착수하라고 권고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통령께서는 우리가 그와 같은 조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데 한국을 지금 참여시켜서는 안된다고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인도차이나의 전개에 대한 북한의 의도가 명확해질 때까지는 한국에서의 미군 구조나 배치에 어떠한 변화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대통령의 승인은 북한의 의도가 분명하다고 귀하께서 생각하실 때 요구되어야 하며, 그에 앞서 한국과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비망록에서 설명되고 있는 원칙들에 유일한 예외는 1975년 3월 23일 제가 승인한 유엔군 사령부의 임무 변화입니다.

헨리 키신저(Henry A. Kissinger)

함께 받는 이 : 국무부 부장관, 합참본부 의장

■ [근거 자료]

- | | |
|------------------------------------|-------------------------------|
| • 형태 : 전문 | • 일자 : 1975.5.1 |
| • 발신 : W. R. Smyser(국가안보회의 아시아담당) | • 수신 : Bud McFarlane(백악관 보좌관) |
| • 출처정보 : NATIONAL SECURITY COUNCIL | • 관리번호 : CTA0000744 |

버드(Bud)씨께

비망록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문단에서 대략 설명한 이유들 때문에 저는 우리가 이것에 대해 무언가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우리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어떤 유용한 수단을 가지고 있는지 여전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만일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지 못한다면 몇 달 후에 이 문제가 다른 곳에서도 계속 제기될지도 모릅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입장을 가지려면 우리가 지목할 수 있고 기관들이 행동을 취해야만 하는 것의 근거를 가진 신뢰할만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할지 모릅니다.

W. R. 스마이저(Smyser)

■ 남한 국회의장 정일권의 예방

- | | |
|--------------------------|---------------------|
| • 형태 : 문서 | • 일자 : 1975.5.5 |
| • 발신 : Kissinger(국무부장관) | • 수신 : - |
| • 출처정보 : THE WHITE HOUSE | • 관리번호 : CTA0000725 |

- 회동 : 남한 국회의장 정일권의 예방
- 날짜 : 1975년 5월 5-8일 중 임의 일시
- 목적 : 인도지나 사태 이후 미국의 대한 안보 공약의 확실성을 한국에 보장함
- 형식 : - 국회의사당 부통령 의전실
- 20분
- 연설자료 : 대화 요지가 준비될 예정
- 언론보도 : 예방은 사전에 공지될 것임
사진 보도 추천
- 참모 : 키신저 장관

추천인 : 키신저 장관

반대인 : 무

이전회동여부 : 우리가 아는 한 정 의장을 이전에 만난 바 없음

배경 : 한국 대사관에서 정 의장의 대통령, 부통령, 키신저 장관 만남을 요청하였다. 한국 정부를 대표하여 정 의장은 인도지나 사태 이후에도 미국이 한국에 대한 안보 공약을 유보하지 말 것을 요청할 것이다. 대통령은 다음 주 일정이 꼭 찬 관계로 아마도 정 의장을 만나지 못할 것이다. 키신저는 정의장을 만날 뜻을 밝혔다. 또 정 의장은 앨버트 하원의장과 다른 의회 지도자들을 만나고 싶다고 요청하였다.

타이베이에서 남한 국무총리를 만나는 자리에서 부통령은 한국에 대한 우리의 안보의지를 재차 다짐하였다. 키신저 국무장관은 4월 19일 TV 기자회견에서 같은 내용을 재차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안보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유익할 것이다. 박 정부는 현재 강력한 우려를 갖고 있는데, 이는 특히 북한이 인도지나 사태를 이용하여 남한에 대한 미국 안보 의지의 확실성을 시험할 수도 있는 불확실성 때문이다.

정일권 국회의장은 한국의 지도적인 정치인의 한 사람이다. 그는 1964년부터 1970년까지 국무총리를, 1961년부터 1963년까지 주미대사를, 한국전쟁 당시 육군참모총장을 역임하였다. 그는 독자적인 정치적 열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간혹 박정희 후계자로서의 가능성이 거론되기는 하지만 박정희가 그를 정치적 경쟁자로 여기지는 않는다.

■ 남한 국회의장 정씨의 대통령 방문 제안의 건

- 형태 : 비망록
- 발신 : Brent Scowcroft(백악관 군사보좌관)
- 출처정보 : THE WHITE HOUSE 2717
- 일자 : 1975.5.5
- 수신 : Dick Cheney
- 관리번호 : CTA0000725

당신은 대통령이 5월 5-7일 사이에 남한 국회의장의 예방을 받도록 제안한 윌리엄 티몬스씨의 요청에 어떻게 답할 것인지 저의 자문을 구한 바 있습니다.

티몬스씨에 회신할 필요를 느끼실 경우 저는 대통령의 다음주 일정에 빈틈이 없다는 점을 그에게 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정 중에는 호주 수상, 뉴질랜드 수상 그리고 싱가포르 수상의 워싱턴 방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 의장이 행정부의 다른 고위직을 만날 기회를 가질 것으로 우리가 예상한다는 말을 덧붙이는 것도 좋겠습니다.

■ 한국 국회의장 정일권과의 회동

- | | |
|--------------------------|---------------------|
| • 형태 : 문서 | • 일자 : 1975.5.7 |
| • 발신 : Kissinger(국무부장관) | • 수신 : 백악관 |
| • 출처정보 : THE WHITE HOUSE | • 관리번호 : CTA0000725 |

I. 목적

인도지나 사태 이후 우리의 안보 공약의 견고함을 한국에 재확인시키기 위함.

II. 배경, 참여자, 언론 준비

- A. 배경 : 정일권 국회의장이 6명의 국회의원 대표단을 이끌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의지를 최우선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워싱턴을 방문할 예정이다. 워싱턴에서 그는 키신저 장관, 앨버트 하원의장, 휴 스콧 상원의원, 존 스파크맨 상원의원을 만날 예정이다. 워싱턴 방문이후 그는 프랑스, 독일, 일본을 방문할 것이다.

인도지나의 함락은 한국에 심각한 여파를 가져왔다. 그 이전에 이미 작년을 전후해서 한국은 우리의 안보 의지의 확실성을 우려해 왔다. 한국은 같은 시기 북한 김일성 주석의 1961년 이후 첫 북경 방문이 남쪽에 대한 새로운 압박을 위한 공조일 수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에 인도지나 사태의 여파를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북경

은 김일성에게 남한에 대한 어떤 군사적 행동에도 반대하는 경고를 했을 것이지만, 동시에 남측에 대한 북한의 외교 공세를 지원하는 새로운 조치, 아마 연례 유엔 총회에서 한반도 문제를 논의할 때의 지원을 약속했을 수 있다.

인도지나 사태 이후 우리는 우리의 강력한 안보 의지를 서울에 수 차례 재확인해 주었다. 대통령은 State-of-the-World 연설에서 이러한 의지를 구체적으로 확약하였다. 그 후 당신은 최근 타이베이에서 김종필 국무총리를 만났을 때 대통령의 확약을 반복해서 전달하였다. 나 역시 지난 주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의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였고 잭슨 상원의원도 미국은 필요한 경우 미군의 개입을 포함하는 그러한 의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라고 지난주에 공개석상에서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정일권은 박정희 대통령의 엄격한 국내 통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어할 것이다. 이 문제는 의회의 민주당 진보파(liberals)와 미국 교회 그룹이 제기하는 비판의 표적이다. 이러한 비판은 미 행정부가 한국에 대한 안보 지원을 높은 수준 (1975 회계년도의 경우 1억4천5천만 달러)으로 유지하려는 노력을 까다롭게 만들었다.

정일권 국회의장은 한국의 지도적인 정치인의 한 사람이다. 그는 1964년부터 1970년까지 국무총리를, 1961년부터 1963년까지 주미대사를, 한국전쟁 당시 육군참모총장을 역임하였다. 그는 독자적인 정치적 열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간혹 박정희 후계자로서의 가능성이 거론되기는 하지만 박정희가 그를 정치적 경쟁자로 여기지는 않는다.

- B. 회동 참가자 : 정 국회의장, 정은갑 (Chong Un-ka) 국회의원, 장경선 국회의원, 함평춘 (Hahm Pyong-choon) 주미 한국대사. 미국측: 존 하우이 대위
(통역은 불필요하다. 정일권은 훌륭한 영어를 구사한다.)
- C. 언론 관계 : 방문은 주기적으로 공지될 것이며 회동 내용은 회동 후에 언론에 브리핑될 것이다. 언론의 사진 촬영이 예정되어 있다.

III. 대화 핵심

1. 나는 인도지나 사태로 인해 미국의 다른 동맹국에 대한 의지가 약화되지 않았듯이 대한민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조약 준수 의지 역시 조금도 약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당신에게 보장한다. 포드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재차 단언하였으며 나를 포함한 다른 인사들도 대통령의 메시지를 반복해 전달하였다. 지난 주말 잭슨 상원의원 또한 미국이 대한민국에 대한 약속을 준수해야 한다고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

2. 현 행정부는 외교 정책 노선의 어떠한 기초도 변화시킬 계획을 하고 있지 않다. 인도지나에서의 좌절로부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우리의 접근 방법을 재평가할 필요가 제기될 수 있으나 미국 외교정책의 기본 방향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3. 아시아와 태평양에서 미국은 핵심적인 안정화세력의 역할을 계속할 의지를 갖고 있다. 우리는 이 지역에 군사력을 계속 주둔시킬 것이며 이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에 충분하도록 군사적 경제적 지원의 수준을 높일 것이다.

4. 미국은 대한민국에 배치한 군사력에 변동을 가져올 어떤 계획도 갖고 있지 않다. 우리는 미군 배치상의 변화가 북한으로 하여금 오판하게 할 위험성에 대해서 예민하게 인지하고 있다.

5. 미국은 귀 정부가 군 현대화계획을 완료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가장 신속하게 지원한다는 약속을 지킬 것이다.

6. (정일권 국회의장이 박정희 정부의 국내 정치 통제 문제를 제기할 경우) 이 문제에 대한 현 정부의 입장은 잘 알려져 있으며 귀 정부에 수 차례에 걸쳐서 전달된 바 있다. 나는 여기서 이 문제를 더 깊이 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REWRITE 3026 (재작성 문서 3026)

5/6/74

.... (포드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재차 단언하였으며 나를 포함한 다른 인사들도 대통령의 메시지를 반복해 전달하였다.

2. 내 생각에 미국 외교정책의 기본 방향은 견고하며 변화 없이 유지될 것이라는 점을 당신에게 보장한다.

3. 아시아와 태평양에서 미국은 핵심적인 안정화세력의 역할을 계속할 의지를 갖고 있다. 우리는 이 지역에 군사력을 계속 주둔시킬 것이며 이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에 충분하도록 군사적 경제적 지원의 수준을 높일 것이다.

4. 미국은 대한민국에 배치한 군사력에 변동은 가져올 어떤 계획도 갖고 있지 않다. 우리는 미군 배치상의 변화가 북한으로 하여금 오판하게 할 위험성에 대해서 예민하게 인지하고 있다.

5. 미국은 귀 정부가 군 현대화계획을 완료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가장 신속하게 지원한다는 약속을 지킬 것이다.

6. (정일권 국회의장이 박정희 정부의 국내 정치 통제 문제를 제기할 경우) 이 문제에 대한 현 정부의 입장은 잘 알려져 있으며 귀 정부에 수차례에 걸쳐서 전달된 바 있다. 나는 여기서 이 문제를 더 깊이 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무부

Washington, D. C. 20520

비망록 발신 : 부통령

제목 : 한국 국회의장 정일권의 방문

I. 목적

정일권 국회의장이 6명의 국회의원 대표단을 이끌고 워싱턴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 방문은 한국 측에서 국가안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시기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정일권 방문의 일차 목적은 의회 지도자들을 만나 우리가 한국에 대한 안보 공약을 준수할 것이라는 미국의 다짐을 받는 것이다. 부통령 방문과 아울러 그는 키신저 장관, 앨비트 하원의장, H 스콧 상원의원, 스파크맨 상원의원을 만날 예정이다. 워싱턴 방문이후 그는 프랑스, 독일, 일본을 공식 방문할 것이다. 그의 워싱턴 방문은 우리가 한국과의 안보관계를 얼마나 중시하는지 강조할 수 있는 기회이다.

정일권과 부통령의 회동은 예방의 성격을 띠는 것이지만 부통령께서는 이 회동의 목적을 한국에 대한 우리의 지속적인 의무를 고위급에서 다짐하는 자리로 두었으면 한다.

II. 배경

최근 아시아에서의 사태는 한국 정부 지도자들에게 특히 강한 충격을 가져왔다. 캄보디아와 베트남에서의 공산주의자들의 승리로 인해 서울은 북한이 한국에 대해 군사행동을 취할지 모른다는 우려를 가지게 되었다. 사석과 공식에서 한국 지도자들이 미국의 방위 공약을 의문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다. 북한 김일성 주석이 4월 18-26일간 갑자기 북경을 방문한 일은 한국정부의 우려를 심화시켰다. 이 방문에 대한 우리의 해석은 북한이 남한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고 유엔과 다른 곳에서 우리 군의 한국 주둔을 공격하는 외교적 행동을 취하는데 김일성이 중국의 지지를 받아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중화인민공화국이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를 두둔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우리는 우리의 방위 공약에 대한 한국의 불신에 대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대통령은 4

월 10일 의회 연설에서 한국과 우리의 안보 관계를 “근본적인 중요성을 가지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지난 4월 16일 부통령께서 타이베이에서 김종필 국무총리를 만나는 자리에서 표시한 (안보) 보장에 그가 긍정적으로 반응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에 덧붙여 우리는 한국에게 우리의 지속적인 지지를 다짐하는 추가 행동을 취하는 것을 현재 고려하고 있다.

우리는 정일권이 의회 지도자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한국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를 촉구 하고 박정희 대통령의 억압적인 국내 정책의 이유를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통령께서도 아시다시피 박 대통령은 최근에 다시 국내 비판세력을 탄압했다. 4월초에 있었던 대구 모 학생 시위의 여파로 현재 육군 병력이 서울의 한 주요 대학을 점령하고 있으며 다른 대학들도 폐쇄되었다. 여기에 덧붙여 8명의 정치범이 처형되었고 저명한 종교지도자 여러 명이 체포되었다. 4월 30일 미국 선교사 한 사람이 추방되었다. 그 이전과 이번의 이러한 억압 조치들은 한국에 대한 미국 사회와 의회의 태도에 해로운 영향을 미쳐왔다. 이러한 행위가 계속되면 한국에서의 우리 계획에 대한 대중적 지지가 감소될 것이다.

III. 대화 핵심

- 비극적인 인도지나 사태로 인해 우리의 우방과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약속 이행이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다.

- 포드 대통령은 4월 10일 연설에서 대한민국과 우리의 안보 관계는 미국에 근본적인 중요성을 지닌 것으로 지적했다.

- 우리는 한국에서 한미 상호간의 안보 목표를 달성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 (다음 사안이 제기될 경우) 우리는 한국에서의 우리 계획에 대한 지지를 훼손하게 될 한국의 국내 사태에 대하여 의회 내에서 우려가 증대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 남한 국회의장 정일권과의 회동

- | | |
|--------------------------|---------------------|
| • 형태 : 비망록 | • 일자 : 1975.5.8 |
| • 발신 : Kissinger(국무부장관) | • 수신 : - |
| • 출처정보 : THE WHITE HOUSE | • 관리번호 : CTA0000725 |

I. 목적

인도지나 사태 이후 우리의 안보 공약의 견고함을 한국에 재확인시키기 위함.

II. 배경, 참여자, 언론 준비

A. 배경 : 정일권 국회의장이 6명의 국회의원 대표단을 이끌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의지를 최우선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워싱턴을 방문할 예정이다. 워싱턴에서 그는 키신저 장관, 앨버트 하원의장, 휴 스콧 상원의원, 존 스파크맨 상원의원을 만날 예정이다. 워싱턴 방문이후 그는 프랑스, 독일, 일본을 방문할 것이다.

인도지나의 함락은 한국에 심각한 여파를 가져왔다. 그 이전에 이미 작년을 전후해서 한국은 우리의 안보 의지의 확실성을 우려해 왔다. 한국은 같은 시기 북한 김일성 주석의 1961년 이후 첫 북경 방문이 남쪽에 대한 새로운 압박을 위한 공조가 아닌가 우려하기 때문에 인도지나 사태의 여파를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인도지나 사태 이후 우리는 우리의 강력한 안보 의지를 서울에 수 차례 재확인해 주었다. 대통령은 State-of-the-World 연설에서 이러한 의지를 구체적으로 확약하였다.

정일권 국회의장은 한국의 지도적인 정치인의 한 사람이다. 그는 1964년부터 1970년까지 국무총리를, 1961년부터 1963년까지 주미대사를, 한국전쟁 당시 육군참모총장을 역임하였다. 그는 독자적인 정치적 열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간혹 박정희 후계자로서의 가능성이 거론되기는 하지만 박정희가 그를 정치적 경쟁자로 여기지는 않는다.

B. 회동 참가자 : 정 국회의장, 함평춘 (Hahm Pyong-choon) 주미 한국대사.

미국측 : 스코우크로프트 장군.

(통역은 불필요하다. 정일권은 훌륭한 영어를 구사한다.)

C. 언론 관계 : 방문은 주기적으로 공지될 것이며 회동 내용은 회동 후에 언론에 브리핑될 것이다. 언론의 사진 촬영이 예정되어 있다.

III. 대화 요점

1. 나는 인도지나 사태로 인해 미국의 다른 동맹국에 대한 의지가 약화되지 않았듯이 대한민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조약 준수 의지 역시 조금도 약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당신에게 보장한다. 나는 대한민국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공식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재확인하였으며 나를 포함한 다른 인사들도 대통령의 메시지를 반복해 전달하였다.

2. 현 행정부는 외교 정책 노선의 어떠한 기초도 변화시킬 계획을 하고 있지 않다. 인도지나에서의 좌절로부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우리의 접근 방법을 재평가할 필요가 제기될 수 있으나 미국 외교정책의 기본 방향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3. 아시아와 태평양에서 미국은 핵심적인 안정화세력의 역할을 계속할 의지를 갖고 있다. 우리는 이 지역에 군사력을 계속 주둔시킬 것이며 이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에 충분하도록 군사적 경제적 지원의 수준을 높일 것이다.

4. 미국은 대한민국에 배치한 군사력에 변동은 가져올 어떤 계획도 갖고 있지 않다. 우리는 미군 배치상의 변화가 북한으로 하여금 오판하게 할 위험성에 대해서 예민하게 인지하고 있다.

5. 미국은 귀 정부가 군 현대화계획을 완료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가장 신속하게 지원한다는 약속을 지킬 것이다.

■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한 정부의 대응 촉구]

- | | |
|--|------------------------|
| • 형태 : 편지 | • 일자 : 1975.5.12 |
| • 발신 : Edward I. Koch(하원의원) | • 수신 : Jerry Ford(대통령) |
| • 출처정보 :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 • 관리번호 : CTA0000775 |

대통령 각하 :

3월 20일, 그리고 4월 10일에 저는 한국의 억압 조치들과 관련해 당신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저는 당신의 보좌관 중의 한 명인 버논 C. 로엔(Vernon C. Loen)으로부터 이 편지들을 잘 받았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잠정적인 답변일 뿐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동남아시아에서의 군사적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미국 국민들이 궁극적으로 미국이 부패한 억압적인 정권을 지지하는데 돈과 생명을 들이는 것은 잘못이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초점이 한국으로 옮겨갈 것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더욱이 그래야만 할 것입니다. 한국에서 우리가 억압적인 정권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개념으로의 민주주의적인 정부만을 지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의 한 명은 아닙니다.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럴만한 자격이 없으며 우리는 안보를 고려해야만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도 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정권이 한국의 정권처럼 억압적일 때는 우리는 이러한 억압을 끝내기 위해 필요한 외교적 조치를 취하거나 현재 이를 지원하고 있는 우리의 돈과 군대의 흐름을 종결시켜야만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관해 당신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영예를 얻기를 희망합니다.

All the best,
Sincerely,
에드워드 I. 코흐

■ 한국 정부에 관한 정책 진술을 얻고자 하는 코흐 의원의 관심사

- 형태 : 비망록
- 발신 : Vernon C. Loen(대통령 부 보좌관)
- 출처정보 : THE WHITE HOUSE
- 일자 : 1975.5.13
- 수신 : Brent Scowcroft(백악관 군사보좌관)
- 관리번호 : CTA0000775

자체해석(self-explanatory)을 첨부합니다. 제가 잠정적으로 편지를 잘 받았음을 의원에 게 알렸으며 당신이 직접 회신할 수 있도록 의원이 회부한 두 건의 편지를 당신의 사무실로 발송했습니다.

저는 이 세 번째 서한을 받았음을 아직 그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NSC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해 지침을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구속되어 재판을 앞둔 한국인에 대한 우려]

- 형태 : 전문
- 발신 : 김지하와 그의 친구들을 위한 국제구출위원회
- 출처정보 : WHD 027
- 일자 : 1975.5.13
- 수신 : 대통령
- 관리번호 : CTA0000727

제럴드 포드 미 대통령 각하

김지하 남한 가톨릭 시인 종신형에 대한 가석방이 있는 지 1개월이 안된 3월 13일 재 구속 마침표 새 재판 5월 19일로 예정 마침표 김은 공산주의 동조자로 기소됨 마침표 우리는 그의

COL 13 19

LGA GERALD PAGE 2/50

자백이 고문으로 얻어진 것으로 생각한다 마침표 우리는 그의 목숨이 매우 위태롭다고 생각하며 박 대통령이 사형선고와 즉각 처형을 지시할 가능성이 높다 마침표 김은 박 대통령의 억압적인 정권에 대하여 용감하게 맞선 것으로 한국인들에게 사랑 받는다 마침표

우리는 대통령이 김의 보호를 위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던 그것은

LGA6 GERALD PAGE 3/45

남한의 내정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나라에서의 진실한 인권운동을 지원하는 것이 된다고 생각한다 마침표 전신 주소 (김지하와 그의 친구들을 위한 국제구출위원회) JAPAXVIET TOKYO FOR INTERNATIONAL RESCUE COMMITTEE FOR KIM CHI-HA AND HIS FRIENDS로 회신해 주십시오.

■ [액자사진 선물에 대한 감사인사]

- | | |
|------------------------|-------------------------------------|
| • 형태 : 편지 | • 일자 : 1975.5.14 |
| • 발신 : Jerry Ford(대통령) | • 수신 : Seiki Watanbe(전 일본 언론 클럽 회장) |
| • 출처정보 : - | • 관리번호 : CTA0000780 |

와타나베 씨에게 :

지난 가을 방문 기간에 일본 전국 언론 클럽(the Japan National Press Club)에서 연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특별한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시 찍은 두 장의 칼라 사진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 귀하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액자에 담긴 이 사진들은 귀하의 회원들이 저에게 보여주었던 따뜻하고 상냥한 환영의 영구적인 기념품이 될 것입니다.

With appreciation and best wishes.

Sincerely,

제리 R. 포드

세이키 와타나베(Seiki Watanbe) 귀하

전 일본 언론 클럽 회장(President, Japan National Press Club)

Imperial Hotel, Chiyodo-ku

Tokyo 100, Japan

■ [한국전쟁 25주년을 맞은 남한 국회의원 6인의 예방]

- | | |
|---------------------------------|------------------------|
| • 형태 : 편지 | • 일자 : 1975.6.5 |
| • 발신 : John Murphy(하원의원) | • 수신 : Jerry Ford(대통령) |
| • 출처정보 : Washington, D.C. 20515 | • 관리번호 : CTA0000729 |

대통령 귀하 :

1975년은 아직 종결되지 않는 한국전쟁 발발 2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반도 분쟁 기념일을 즈음한 올해 첫 행사는 6명의 한국 국회의원의 미국 방문입니다. 이들은 6월 12일부터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의회 초청인사로서 방미하게 됩니다. 이 방문에 관해서는 첨부 자료 “동료 여러분”이라는 제목의 편지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한국과 우리의 관계는 민감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이 점을 직접 한국을 방문함으로써 그리고 미국이 동맹국에 대한 조약 의무를 준수할 것이라고 강조한 최근 여러 기회를 통해 강조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첨부한 일정을 보시고 이번 방문 인사들과 행사에 어떤 방식으로라도 참가하시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런지 문의 드립니다. 대통령께서 만나시면 한국의 의원들에게는 매우 영광일 것입니다. 또 그러한 만남은 미국은 미국이 맺은 조약과 도덕적 의무에 계속 충실할 것이라는 결의와 관심을 대통령께서 강조하는데 매우 유용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 관심을 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부를 전하며,
존 M. 머피 의원

동봉

■ [한반도 상황에 관해 포드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 | | |
|----------------------|-----------------------------------|
| • 형태 : 편지 | • 일자 : 1975.6.12 |
| • 발신 : 한국 기독교 목회자 일동 | • 수신 : Nelson A. Rockefeller(부통령) |
| • 출처정보 : - | • 관리번호 : CTA0000727 |

넬슨 A. 록펠러 부통령 귀하

첨부한 편지는 한반도 상황과 관련하여 우리가 포드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자세히 읽은 후 한국의 명예 실추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명예 실추와 관련된 이 사안에 최선의 영향력을 발휘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안부를 전하며,

The Korean Christian Ministers

한국 기독교 목회자 일동

다음 페이지에 서명지 동봉

■ [한국 국회의원들과의 회담 일정]

- | | |
|--------------------------|---|
| • 형태 : 비망록 | • 일자 : 1975.6.17 |
| • 발신 : Bob Wolthuis | • 수신 : Jeanne W. Davis(국무부 서기관),
Warren Rustand(워싱턴 백악관) |
| • 출처정보 : THE WHITE HOUSE | • 관리번호 : CTA0000729 |

일정 제안

날짜 : 1975년 6월 13일

수신 : 맥스 프리더스도르프(Max Fridersdorf)

발신 : 밥 월투이스(Bob Wolthuis)

경유 : 워렌 러스탠드(Warren Rustand)

회담 : 미국의 다양한 도시와 시설물을 방문하고 있는 6명의 한국 국회의원들과의 회담

날짜 : 1975년 6월 25일

목적 : 존 머피(John Murphy) 하원의원은 대통령께서 한국 의회의 대표로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6명의 한국 국회의원들과 만나줄 것을 권하셨습니다.

형식 : 대통령 집무실(Oval Office)에서 20분간

참석자 : 대통령, 존 머피 의원, 스코우크로프트(Scowcroft) 장군, 맥스 프리더스도르프(Max Friedersdorf), 레스 잔카(Les Janka), 버논 로엔(Vernon Loen), 밥 윌투스(Bob Wolthuis)

연설 내용 : 간단한 인사말과 미국과 한국간의 긴밀한 유대에 관한 말

언론 범위 : 언론에 발표-백악관 사진촬영사

권고 : 맥스 프리더스도르프(Max Friedersdorf)

배경 :

1. 6명의 한국 국회의원들은 폭넓게 교차하고 있는 정치적 당파와 당들을 대표합니다. 그들은 방문 기간동안 미국의 의회 지도자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현재 미국 의회에 54명의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이 있는데, 상원에 10명 있고 하원에 44명이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또한 이 의원들도 방문할 것입니다.

2. 한국에 대한 대통령의 강한 지지 표명의 관점에서 법무부는 그 날짜에 대통령이 이 사람들과 만날 것을 권고하였으며 국가안전보장회의도 찬성하였습니다.

■ 승인된 대통령 활동

- | | |
|---|---|
| • 형태 : 비망록 | • 일자 : 1975.6.19 |
| • 발신 : Warren S. Rustand
(대통령 약속 담당 보좌관) | • 수신 : Jeanne W. Davis(국무부 서기관),
Warren Rustand(워싱턴 백악관) |
| • 출처정보 : THE WHITE HOUSE | • 관리번호 : CTA0000729 |

아래의 사항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시고 넬 야츠(Nell Yates)여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맞은 브리핑 보고서를 바로 전달 오후 4시까지 데이비드 홉스(David Hoopes) 박사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만남 : 미국의 여러 시들과 시설물을 방문하고 있는 6명의 한국 국회의원들의 예방. 존 머피(John Murphy) 하원의원과 한국전쟁 참전용사 출신인 54명의 상·하원 의원들

날짜 : 1975년 6월 25일 수요일

시간 : 오후 12시30분

소요시간 : 10분

장소 : 로즈 가든/ (우천시) 대통령자문위원회실

보도 범위 : Press Photo session

목적 : 존 머피 하원의원은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요청하였음

함께 받는 이 : 하트만(Hartmann), 마쉬(Marsh), 체니(Cheney), 코너(Connor), 홉스(Hoopes), 존스(Jones), 네슨(Nessen), 오도넬(O'Donnell), 야츠(Yates).

■ [아시아와 한국에서 공산주의의 위협]

- | | |
|--------------------|------------------------|
| • 형태 : 편지 | • 일자 : 1975.6.20 |
| • 발신 : 한국 개신교 목사일동 | • 수신 : Jerry Ford(대통령) |
| • 출처정보 : - | • 관리번호 : CTA0000727 |

포드 대통령귀하 :

아래 서명한 우리들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 개신교 목회자들로서, 최근 대한민국과 관련되어 수차례 발표된 귀하의 외교 정책 성명과 특히 최근 버지니아에서 그리고 TV 기자회견에서 발표하신 경고 발언을 통하여 미국이 모든 동맹국들과의 조약에 그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확고한 입장을 밝히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싶습니다.

귀하도 알고 계시겠지만 가장 최근 한국 상황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다면, 정치 여론은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있으며 아래 서명한 우리들도 마찬가지이기는 합니다만, 최근 있었던 김일성의 중공 방문 이후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갑자기 반정부 정치투쟁에서 국가 생존에 대한 공공연한 위협에 대한 첨예한 우려로 이동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재 우

리들은 하나님과 미국의 도움으로 현 박정희 정권이 어떻게든 북한에 대항하여 군사력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최근 귀하와 솔레진저, 키신저, 록펠러 그리고 다른 분들이 발표한 성명에서 언급된 바대로 미국의 대아시아 전략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 불행한 요소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데 이는 캄보디아와 베트남의 패망 이후 미국이 밝히는 구두 약속이 아시아에서 특히 아시아의 으스대는 공산주의자들 사이에서 그 신뢰도를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오만에 따른 침략의 가능성을 억제시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가시적인 군사력 증강 이외에는 없습니다. 반면 한국 전쟁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대규모의 미군 병력이 이러한 군사력 증강에 포함될 수 없기 때문에 군사력을 과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월등한 무기를 보유하고 비축하는 것 이외에는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을 진정한 의미로 지브롤터처럼 개조하여 공산주의자들의 어떠한 공격도 막아낼 수 있는 무적의 보루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하는 의회에서 아무런 반대에 직면하지 않고 또 미 국방예산에 아무런 무리한 부담을 주지 않고도 이러한 전략적 책략을 성사시킬 수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암울하고 불길한 상황이 무서운 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이 때 우리는 미 의회가 귀하의 지혜와 진지함에 힘을 입어 이렇게 필수적이며 시기적절한 전략을 아시아에서 속히 추진할 것을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이러한 전략은 단지 한국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서 실추된 미국의 위신을 복구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귀하의 신속한 결정으로 위의 결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열망하면서

한국 개신교 목사일동 [두 페이지의 서명동봉]

■ 한국과 필리핀의 인권 상황

- | | |
|---|---------------------|
| • 형태 : 비망록 | • 일자 : 1975.6.24 |
| • 발신 : Philip C. Habib(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국무차관보) | • 수신 : 미 하원 소위원회 |
| • 출처정보 : - | • 관리번호 : CTA0000775 |

필립 C. 하비브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의 미 하원 국제관계 위원회 산하 국제기구 소위원회에서의 진술

1975. 6. 24.

위원장님, 그리고 고명하신 위원회 위원님들 :

한국과 필리핀의 인권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성장(development)과 관련해 미국의 대 한국, 대 필리핀 정책에 대해 증언하기 위해 이 소위원회에 나오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1974년 6월 30일 아서 허멜(Arthur Hummel) 당시 서기관보 대리(Acting Assistant Secretary)가 여러분 앞에서 했던 진술에서 그는 당시 한국의 상황에 대해 정확하고 솔직한 개요 설명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인권 문제에 관한 우리의 전반적인 정책에 대해 명확한 진술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미 기록으로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 다시 이야기함으로써 이 위원회의 시간을 빼앗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약간의 머리말은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정부는 인권 문제에 대해 진심으로 그리고 아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려에는 인권과 인권에 대한 존중은 그들 자신의 권리에서도 타당한 대외 정책 목표들이라는 점을 깨달았다는 점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전통들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우리의 정책들을 공식화하는 데 있어서 인권 문제가 제기되어야만 한다는 의회의 명확한 의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외정책의 운영에서도 인권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국민들 혹은 다른 이들에게 다른 정부들이 저지르는 억압적인 조치들

을 묵과하지도 지원하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우리의 기본 정책들은 정치적 경제적 성장이 안보와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는 분위기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국제적인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유엔의 틀 안에서 우리는 종교적 불관용, 인종적 차별 그리고 다른 인권 침해 행위들의 근절과 같은 문제들에 착수하는 것을 지원하는데 앞장서왔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 더 넓은 국제적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 계속해서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인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미국 단체들과 함께 미 국무부의 모든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계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정책들에 심각한 의견 차이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조차 우리는 이러한 대화를 계속해왔으며 계속할 계획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시다시피 인권에 관한 우리의 관심이 점점 더 명확해질수록 우리는 이러한 관심을 대외 정책 프로세스의 한 부분으로 제도화해왔습니다. 우리는 제임스 윌슨(James Wilson) 씨를 차관보 사무실(the office of the Deputy Secretary)의 인도주의적 문제(Humanitarian Affairs) 코디네이터로 임명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각 지역 사무국에 인권 관리를 지명했으며 인권 문제 담당 법률 자문 서기관(Assistant Legal Advisor)을 임명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실제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들에 있어서는 우리는 다른 정부들에 인권 문제에 관한 우리의 견해를 차분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 의회에서 서뿐만 아니라 명백하게 우리 미국인들 사이에서도 강력하게 제기된 인권문제에 관한 견해들을 분명하게 이해하도록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필리핀에서도 이 두 가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위원장님, 동시에 우리는 우리가 서로 다른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는 주권 국가들을 상대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국내 변화의 과정을 결정할 수도 없으며 내부의 긴장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 개별 국가들에 대한 우리의 정책들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이해관계, 목표들 그리고 관계가 혼합되어 있는 상태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권을 경시하면 다른 중요한 목표들을 달성하는 데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장기적인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는 내부의 대중적 지지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6월 18일에 일본 사회의 한 연설에서 국무부 장

관이 이야기했듯이 “...대중의 의사와 사회 정의가 결국 체제 전복과 외부의 위협에 저항하는데 필수적인 토대라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서론에 이어 이제 저는 필리핀으로 이야기를 돌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위원장님께서 지난 6월 10일 국무부에 보낸 편지에서 필리핀의 인권에 관해 제기했던 문제들에 대해 귀하의 위원회에 개별적으로 좀더 상세한 답변들을 제출하려 하는 중입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보는 필리핀의 인권 상황에 대해 논평하고 필리핀에 대한 우리의 군사적 지원과 관련한 근본적 이유를 설명하는데 잠시 시간을 할애하고 싶습니다.

국무부는 필리핀의 계엄령이 미치는 영향 중에 일정 정도의 민주주의적 프로세스와 인권의 중단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위원회 앞에서의 진술에서 무투크(Mutuc) 대사가 지적했던 것처럼 계엄령이 처음 내려진 이래로 광범위한 구속이 이루어졌으며 이들 중 대부분이 재판도 없이 2년 이상 구금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언론의 자유도 박탈당했으며 계엄령 하에서는 집회의 자유도 민주주의적 프로세스의 전 범위가 완전히 규제되어 왔습니다. 국민투표가 여러번 실시되었지만 계엄령 상태에서 치러졌습니다.

수감자에 대한 고문이나 가혹행위 문제에 관해서도,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고발을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감자들에 대한 가혹행위나 고문이 미 공화당(the GOP)의 정책이나 일반 상황이라는 증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일부 학대 행위들이 특히 더 외진 지역들에서 벌어져왔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으며 이러한 일을 저지른 사람들을 처벌하고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더 잘 규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필리핀 정부가 국제법학자위원회(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대표단을 받아들이고 이들의 조사에 모든 면에서 모든 협력을 제공할 것임에 합의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영역에서 개선을 촉구하겠다는 의사를 필리핀 정부가 언명한 점에 대해 지지하며 일부 영역들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목적(ends)이 인권의 박탈을 정당화하거나 이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점을 이야기하는데 있어서 저는 필리핀이 미국과 오랜 관계를 맺어왔다는 사실을 언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식민지로서, 그리고는 필리핀 연방(the Philippine Commonwealth)으로서, 그리고 1946년부터는 긴밀하고 중요한 동맹국으로서.

1972년 9월 계엄령이 도입되기 전까지 필리핀에서 실시되었던 민주주의적 형태의 정부는 우리 자신의 정부 형태를 본뜬 것이었으며 물론 우리는 이러한 정부 형태가 지속되는 것을 더 원합니다. 그러나 필리핀과 필리핀의 정부 형태의 미래는 우리가 아니라 필리핀 국민들이 결정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의 문제에 관해서도 우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우리의 우려를 표현할 수 있을 뿐이며 전체적으로 무엇이 국가에 좋은 것인지에 대해 자유로운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귀착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정부가 깨닫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미국은 계엄령이 고려되고 있다는 소문들이 미리 있기는 했었지만 1972년 9월 계엄령이 실제로 선포된 것에 대해 미리 인지하고 있지도 못했고 예측하지도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 증인들이 지적했던 바와 같이 계엄령이 선포되었던 당시 대다수 필리핀 국민들은 계엄령을 수용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실제로 계엄령의 일부 측면들은 분명하게 환영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법과 질서, 정부 행정 측면에서의 두드러진 개선 등) 1972년 9월 계엄령이 설립된 이래로 우리는 계엄령의 선포나 지속에 대해 비난이나 지지 어느 쪽의 논평도 하지 않으면서 필리핀 정부와 우호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해왔습니다.

안보 문제에서 필리핀은 전통적으로 동아시아에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약 동맹국 중의 하나였습니다. 양국의 방어 책임과 상호 안보 이해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합의들 속에 공식적으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필리핀에 군사기지를 가지고 있으며 (필리핀 미군 기지의) 존재는 필리핀의 방위를 위해서도 그리고 더 포괄적인 미국의 안보 이해관계를 위해서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필리핀 군대가 잘 준비되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오랫동안 여겨왔으며 1946년 이래로 우리가 군사 지원을 시행해 왔던 것도 이러한 목표를 위해서였습니다.

1940년대 후반 이래로 미국은 필리핀 군대에 다양한 군사장비들을 제공해왔습니다. 적어도 이러한 지원의 목적 중의 하나는 필리핀 육군이 내부 안보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돕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군사 지원은 필리핀과 우리의 안보 관계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확립된 요소입니다. 이는 무슬림과 공산주의자들의 반란보다 훨씬 앞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의 군사 장비들이 필리핀 북부와 중부에서 공산주의 게릴라들에 의해 제기되는 좀더 소규모의 위협들 뿐만 아니라 필리핀 남부에서 무슬림들의 폭동에 맞

서는데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군대가 무슬림 지역들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장비들이 제공되는 면에 관해서 우리의 지원 프로그램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의 폭동 행위들을 진압하는 필리핀 정부의 노력에는 관여하지 않고 떨어져 있다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며 실제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미국의 소규모 군사 자문단(military advisory group)은 어떤 종류의 전투 작전에도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JUSMAG 필리핀은 전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군사 지원 역할만을 맡고 있습니다. 미 육군 인사들은 전부 마닐라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국방부, 필리핀 3군 총사령부(the Armed Forces of the Philippines General Headquarters) 혹은 군무 사령부(Service headquarters) 차원 이하에서 이뤄지는 일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자문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문 노력은 필리핀 군대의 작전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군수품 조달, 배분, 이용, 유지 등과 같은 역할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한국 문제로 넘어가면, 인권 문제가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지난해 청문회 이래로 인권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국내 사건들이 더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정치범들, 적절한 프로세스 절차들, 기타 다른 문제들과 관련해 여러분들이 제기한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부가 진술을 준비했습니다.

지난해의 청문회 이래로 원래의 긴급 조치 네 가지가 해제되었습니다. 이러한 긴급 조치 하에서 총 203명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그 후에 저명한 시인 김지하 씨는 그때 이래로 또다른 혐의로 구속되었지만 35명을 제외한 전원이 풀려났습니다. 게다가 형 집행이 정지되지 않은 35명 중 인민혁명당 멤버로 알려진 8명은 대법원이 그들의 원래의 선고를 확정할 이후인 4월 9일 처형되었습니다. 5월 13일 새로운 긴급 조치 9번이 박 대통령에 의해 제정되었으며 계속해서 시행중입니다. 이 조치의 규정들은 그 조항들이 광범위하며 헌법 개정 주장을 비롯해 정치적 표현을 상당히 억제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들은 더 나아가 학생들 차원에서의 정치 활동들을 금지하고 있으며 언론이 특정한 주요 국내 정치 이슈들을 보도하는 것을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조치는 기존의 조치들과는 달리 군사법정이 아니라 민간 법정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기는 하지만 최소 1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 국내외에 있는 외국인들에게 정부나 헌법에 대해 비판하는 한국인들은 누구든지 올 3월에 통과된 중상모략 금지(anti-slander) 법에 걸릴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위협을 빌어 가장 최근의 이 긴급 조치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포스트 베트남 상황에서 북한의 위협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DMZ의 땅굴과 같은 북한의 활동들은 한국에 현저한 영향을 미쳐 왔습니다. 한국 정부는 국회 내에서의 활동들 자체는 이 긴급 조치에서 제외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긴급 조치가 정치적인 자유를 억제하고 있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한국이 여전히 북한보다 더 자유롭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최근의 긴급 조치에 대한 초기의 반응은 잠재위였습니다. 정치적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과 같은 정부의 비판에 의해 인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반대세력은 포스트 베트남 상황 하에서 국가 외부의 안보 위협에 국가적인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일부 인식하고 있었기에 국회에서 계속해서 정부 정당들과 협력해왔습니다.

한국 상황을 묘사하는데 있어서 저는 미국 정부(USG)는 한국 정부의 내부 조치들에 관여하지도 관계하지도 않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저의 의견은 (상황을) 기술하는 것일뿐 한국 정부의 국내 정책들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민혁명당의 멤버로 알려져 있는 8명을 처형한 건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 조치에 대한 유감을 공개적으로 표명했습니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이러한 조치들이 미국 내에 어떤 여론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고 있음을 계속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다소 제한적인 영향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한국 정부는 한국의 국내 정책들은 내부의 문제로 다른 정부들과 협의할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한국 정부가 생긴 지 27년 이상 한국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긴밀한 유대는 인권을 존중하는 틀 안에서 기능하는 대외 기관들의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는 또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 유지에 직접적이고 사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호방위조약(Mutual Defense Treaty)의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의 군대 주둔과 군사 지원은 한반도의 군사적 균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것은 한국과 한국민들의 이해관계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이해관계입니다. 우리의 안보 관계는 너무나도 명백하게 동북 아시아의 평화와 안보에 중대하게 이바지하고 있으며 일본을 비롯한 우리의 동맹국들도 이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저는 한국 정부에 대해 어떤 비판이 있든지간에 박 대통령의 국내 반대세력

들과 비판자들도 미국과의 안보 관계는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음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한국 내에 우리 군대의 존재와 프로그램들은 특히 지금과 같은 포스트 베트남 시기에 비판과 논쟁의 초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시다시피 한국 정부의 정치적 반대세력들은 우리의 안보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견에 합류해왔으며 우리의 안보 참여가 지속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침략에 저항하려는 한국민들의 결단이나 이 문제와 관련한 한국의 내부 단결을 잘못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한국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 자신의 정부에 대한 그들의 견해가 무엇이든지간에 그들의 군사 안보와 보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자 관계의 지속은 이러한 목표에 필수적입니다.

결론적으로, 위원장님, 저는 우리가 인권 문제를 바라보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으며 우리는 이 문제에 관한 의회의 분명한 관심을 인식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내부의 억압적인 조치들에 우리 자신이 관여하지도 않으며 정당화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인권의 보호와 보전에 대한 우리의, 그리고 미국민들의 관심을 분명하게 계속 유지해나갈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한국과 전체 지역과 미국의 이해관계에 복무하는 우리의 안보 정책들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한반도의 평화 보전은 한국의 정치 발달과 인권 행사에 불가결한 필수조건으로 남아있습니다.

저는 한 국가에서 우리의 이해관계와 목표들 사이의 균형을 종종 깨뜨려야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에 여러분들이 동의하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인 동아시아에는 현재 안보와 인도차이나 비극 직후의 시기에 미국 정책의 미래의 방향에 대해서 매우 명백하고 정확한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이 지역, 특히 한국에는 외부의 위협을 마주하고 있는 국가의 안보, 전쟁과 평화의 문제는 가장 중요한 일이며 그 균형을 심각하게 잡아야 한다는 광범위한 대중적 인지가 있습니다.

■ 한국의 국내 상황에 관한 정책 진술을 받고자 하는 코흐(Koch) 의원의 관심에 대해

- 형태 : 비망록
- 발신 : W. R. Smyser(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 출처정보 : NATIONAL SECURITY COUNCIL 1892
- 일자 : 1975.7.1
- 수신 : Brent Scowcroft(백악관 군사보좌관)
- 관리번호 : CTA0000775

에드워드 I. 코흐 의원은 지난 몇 개월 동안 대통령에게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 논평 해줄 것을 요구하는 편지를 세 번 보냈습니다. Tab A에 필립 C. 하비브(Philip C. Habib) 국무부 차관보가 미 하원 대외관계위원회 국제기구에 관한 소위원회(the subcommittee o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f the House International Relations Committee)에서 지난 6월 24일 했던 진술 복사본을 전달하는 답신 초안을 첨부합니다.

제안 :

로엔 씨에게 답신 초안을 전달하는 Tab I의 비망록에 당신이 서명하십시오.

동의 :

레스 얀카(Les Janka)

■ 원용석 한국유신학회 회장이 부통령에게 보낸 편지의 건

- | | |
|---------------------------------------|---------------------|
| • 형태 : 비망록 | • 일자 : 1975.7.8 |
| • 발신 : Jeanne W. Davis(국무부 서기관) | • 수신 : Jon Howe |
| • 출처정보 : OFFICE OF THE VICE PRESIDENT | • 관리번호 : CTA0000727 |

첨부한 한국유신학회 회장 원용석이 부통령에게 보낸 편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북한 공산주의자들을 상대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미국이 중화민국에 대해 확고한 지지를 계속 제공할 것을 기대한다는 내용이다. 민족 단결을 위한 강연회에서 한국유신학회 회원 466 명이 채택한 결의문을 첨부한다.

국가안보회의에서 부통령 사무실에 권고사항과 답신 초안을 보낼 것을 요청한다.

■ [한국 정부의 국내 정책에 대한 에드워드 의원의 의견에 대한 답변]

- | | |
|-------------------------------------|-----------------------------|
| • 형태 : 편지 | • 일자 : 1975.7.10 |
| • 발신 : Max L. Friedersdorf(대통령 보좌관) | • 수신 : Edward I. Koch(하원의원) |
| • 출처정보 : - | • 관리번호 : CTA0000775 |

에드 씨에게 :

한국 정부의 국내 정책과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과 관련한 당신의 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당신이 제기한 문제들은 Executive Branch의 관련 책임 관리들이 아주 진지하게 생각해 왔었던 문제들입니다. 필립 C. 하비브(Philip C. Habib) 차관보가 지난 6월 24일 미 하원 대외관계위원회 국제기구에 관한 소위원회(the subcommittee o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f the House International Relations Committee) 앞에서 했던 성명 내용을 동봉합니다. 당시 소위원회에서는 한국의 인권에 관한 미국 정책 관련 청문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우리가 동남아시아에서의 경험을 반복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했던 당신의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키신저 장관은 이러한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지난 6월 19일 CBS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국내 상황에 대해 몇가지 논쟁들이 있다. 그리고 미국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로의 자유로운 발전을 지지한다. 하지만 한국에는 분명 저항 의지가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베트남의 경우처럼 인위적으로 창조되어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지적하면서 이 두 상황의 중대한 차이를 묘사했습니다.

이 극히 중요한 문제에 관한 당신의 견해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당신의 견해를 제공해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Sincerely,

맥스 L. 프리더스도르프(Max L. Friedersdorf)

대통령 보좌관(Assistant to the President)

경애하는 에드워드 I. 코흐(The Honorable Edward I. Koch)

미 하원

워싱턴 D.C. 20515

■ [대통령 방한에 대한 감사 인사]

- 형태 : 편지
- 발신 : 한국 통신부 장관
- 출처정보 : MINISTRY OF COMMUNICATIONS
- 일자 : 1975.7.21
- 수신 : Jerry Ford(대통령)
- 관리번호 : CTA0000727

대통령 귀하,

작년 11월에 귀하가 대한민국을 국민으로 방문할 당시 본 공보부가 제공한 업무에 대하여 귀하가 감사의 표시로서 감사장을 보내주신 것을 큰 영광이자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 각하, 한국 국민 모두는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 민족과 함께 세계의 위대한 지도자이자 민주주의와 자유의 수호자로서 당신이 보여준 지혜와 용기에 커다란 존경심을 표하는 바입니다. 당신의 품위 있는 한국 방문은 과거 25년 동안 혈연으로 다져진 양국 국민간의 항구적인 우애를 전 세계에 분명하게 과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깊은 것이었습니다.

비록 인도차이나에서의 비극적 사태의 결과로 한반도에서 북한의 도발에 따라 긴장이 높아지고 있으나 귀하가 강력한 안보 의지를 반복해서 다짐함으로써 북한이 우리의 공동 결의와 힘에 대하여 오판하거나 새로운 전쟁을 획책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아직도 남침하기 위하여 비무장지대에 땅굴을 뚫고 있으며 계속해서 무장 대원을 우리나라에 보내 전복활동과 간첩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또한 미군 장교들이 북한 공산주의자 깡패들에 의해서 잔혹하게 얻어맞아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판문점에서의 용납할 수 없는 사건에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 [대통령의 한국 방문에 대한 감사]

- 형태 : 편지
- 발신 : 강기춘(6.25 참전 전우회 회원 겸 대한민국 국회의원)
- 출처정보 : -
- 일자 : 1975.7.31
- 수신 : Jerry Ford(대통령)
- 관리번호 : CTA0000729

포드 대통령 각하 ;

저희 한국 국민과 한국에 대한 귀하의 따뜻한 배려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정중하게 표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귀하의 집무실을 방문하여 귀하와 귀하의 참모들과 대화를 나누며 귀하의 고귀한 지혜를 들을 수 있었던 점을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한국 지원을 강력하게 보장 해주신 것은 저희의 용기를 무한히 북돋아 주신 것이며 이에 따라 저희는 세계 평화를 위하여 우리나라를 지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결의를 다시 갖게 되었습니다.

세계 최전방에서 진행되는 공산주의와의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저희는 모든 방면에서의 귀하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우리나라에 대한 귀하의 굳건한 원조와 지도를 호소하는 바입니다.

귀하가 저희에게 선물로 주신 벡타이핀과 백악관에서 찍은 사진은 오랫동안 소중하게 간직될 것입니다.

귀하의 가정에서의 행복과 세계 평화에 큰 성공이 있으시기를 기원하면서,
깊은 존경심을 표하며,

강기춘

6.25 참전 전우회 회원 겸 대한민국 국회의원

Member of Veterans of Korean War

Member of National Assembly

Republic of Korea

■ [대통령과 리관유 수상과의 만남 비망록]

- | | |
|--------------------------|---------------------|
| • 형태 : 비망록(대화록) | • 일자 : 1975.8.5 |
| • 발신 : - | • 수신 : - |
| • 출처정보 : THE WHITE HOUSE | • 관리번호 : CTA0000647 |

참석 : 제럴드 R. 포드 미대통령
리관유 싱가포르수상
헨리 키신저 미국무부장관 겸 대통령 국가안보 보좌관
브렌트 스키크로프트 대통령 국가안보 보좌관보

일시 : 1975년 5월 8일, 12시-1시
장소 : 대통령 집무실

대통령 : 어려운 시기에 하버드대학을 다녔는가?

리 : 그렇다, 67, 68년도이다.

대통령 : 학업에 고생은 없었는지?

리 : 보통 미국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최악의 고생을 시키지는 않았다.
모이니헌(Moynihan)이 저녁에 초대를 하였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대통령 : 우리는 그를 유엔에 파견하려고 한다.

(기자회견 끝남)

리 : 그렇다, 임명 소식을 읽었다.

나는 당신이 TV기자 회견 하는 것을 보았다. 매우 강력한 생각들이었다. 원고도 없이, 차분하고. 마치 새터데이리뷰(Saturday Review)지에서 지적한 것처럼.

키신저 : 그는 당신에 대해 많이 알아보고 왔다. 그냥 준비 없이 온 것이 아니다.

대통령 : 나는 당신이 아시아에 대해 박식하고 방금 영연방회의에 참석하고 오는 길이라고 알고 있다.

리 : 당신이 나에 대해서 요란한 평가를 들었음이 분명하다.

키신저 : 당신은 중국격언으로 그 사람들을 당황케 했지 않은가.

리 : 중국 4천년의 역사는 풍부한 보고와 같아서 필요한 것을 언제든지 꺼낼 수가 있다.

(키신저 장관은 중국인들이 Tangtze(?)와 만리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말함)

리 : 중국 속담에 나라가 혼란에 빠졌을 때는 커다란 문제가 작은 문제가 되고 작은 문제가 큰 문제가 되기도 한다고 한다. 우리는 비중에 따라 일을 처리해야 한다.

대통령 : 나는 현 상황과 할 일에 대해서 당신의 꾸밈없는 견해를 듣고 싶다. 마음 편하게 솔직히 말해 달라.

리 : 내가 즉각적으로 느낀 것은 상황이 붕괴되는 그 속도가 놀라웠고 또 경계심을 자아낸다는 것이었다. 언론에서 슐레진저에게 계획된 질문을 던지면, 그 후 이 사안이 태국에 전달되는 것에서도 현재 상황의 민감성이 드러난다. 그러면 태국 언론은 미국이 도덕성이 없다고 온통 폭로한다. 언론은 지금 축제분위기이다. 우리는 스스로를 자제해야 한다. 지금 태국은 아직 선거 운동에 돌입하지 않는 상태다 - 그들은 지금 흥분이 되어서 무슨 말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느끼고 있다. 나는 양당 연립정부가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인도네시아인들은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수하르토는 논쟁을 통해서 캄보디아를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와 제3세계를 비난하고 있다. 그것은 좋다. 마르코스도 언론보도에 따라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당신이 상황을 다시 판단하듯이 그도 상황을 다시 판단하고 있다.

키신저 : 당신은 1973년 캄보디아에서의 폭격중단으로 그가 방문을 취소했다고 생각하는가?

리 : 의심의 여지없이 그렇다.

키신저 : 만약 우리가 폭격할 권리를 계속 행사하고 또 워터게이트 사건도 없었다면 우리가 북부 베트남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었겠는가?

리 : 물론 그렇다. 그러나 그렇게 말해서 좋은 게 무엇이 있는가?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는 그런 불가피성은 없다. 만약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재건사업에 초점이 맞춰졌을 것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그 말을 내가 했다면, 언론에서는 단지 내가 경직되었다고 말할 것이

다. 나는 티우에게 일대일로 대체하는 것으로는 성공할 수 없고 자립적으로 성장하는 사회를 건설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키신저 : 베트남 사회가 스스로 생존할 수 있겠는가?

리 : 만약 티우가 문제를 하나씩 쏘아 맞히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경쟁적인 경제를 추구했다면 성공했을 것이다. 결판을 내는 방식이 아니라.

키신저 : 만약 우리가 일대일 대응방식으로 지원했다면 그가 살아남았겠는가?

리 : 그렇다. 폭격 위협도 존재했다. 그러나 그는 1977년에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것이다. 우리는 이 일에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하노이는 현재를 운명의 순간으로 보고 있을 것이다. 그들은 캄보디아와 라오스와의 관계를 주종 관계로 설정하기를 바라면서 태국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라오스는 수바나(Souvanna)왕자 체제를 유지할 것이다. 나는 캄보디아를 걱정하고 있다. 그곳 상황은 마치 바르샤바의 봉기 때 같다.

키신저 : 남베트남에서도 결국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겠는가?

리 : 분명 그럴 것이다. 굶하지 않는 자들은 파멸을 당한다. 그들은 꼭두각시 정부를 세울 것이다. 현재 윌틀램(Whitlam)이 원조를 보내고 간디는 축하전문을 쓰고 있다. 중국에 동상이몽이라는 속담이 있다. 둘 중 하나는 반드시 틀린 것이다.

대통령 :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실질적으로 우리는 필요한 것이면 무엇이든 하려고 한다.

리 : 솔직히 말하겠다. 나는 어제 여러 명의 의원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에 대한 현실적인 논의 틀이 되지 못할 것이다. 나는 동남아시아, 일본...을 견고하게 하는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키신저 : 일본에도 역시 문제가 있다.

리 : 맞다. 내가 듣기로는 일본도 그렇다.

대통령 : 미 의회로부터 들은 것인가?

리 : 대부분 하원으로부터이다. 강력한, 고위직 의원들로부터이다. 상원의원들로부터는 그다지 많지 않다.

대통령 : 하나의 변화이다.

리 : 어쩌면 내가 맨스필드(Mansfield)를 안 만났기 때문일 수도 있다. 나는 당신의

정책과 계획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조사하였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뒤집을 수 있는 의회의 존재를 염두에 둘 때 더 이상 커다란 정책을 잃지 않는 것이 최대의 성과다. 그냥 의회를 진정시켜라. 태국이 당장 위험한 상황은 아니다. 라오스는 이미 글렀다. 캄보디아는 중국과 하노이 사이에서 갈등을 하고 있다. 시아누크가 캄보디아를 자기편으로 만들지 않았다면 크메르루지는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키신저 : 우리는 그 얘기를 그에게 2년동안 했다.

리 : 그렇다. 그는 프놈펜으로 가거나 최소한 파리에 머물렀어야 했다.

대통령 : 우리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가?

리 : 아니다. 중국은 하노이가 지역을 통제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대통령 : 소련은 어떤가?

리 : 그들은 하노이를 지원할 것이다. 이것은 아시아판 유고슬라비아이다. 거꾸로 된 알바니아다. 소련은 자주적인 지향을 가진 티토주의자들을 밀고 있다.

키신저 : 그리고 오만하다는 점. 그들의 편집증은 대단하다.

리 : 잘 무장된 백만 명의 군대의 행진이 있고 나서 더욱 그렇다. 우리는 태국을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

키신저 : 우리가 철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는가? 서둘러야 하는 것 아닌가?

리 : (삭제)

...나는 쿠크리트(Khukrit)에게 현재 미국에는 대통령을 저지할 수 있는 의회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의회가 구성될 것이고, 그러면 후회와 자책이 시작될 것이다. 나는 “침착함을 잃지 말라. 당신이 학생들에게 할 말은 해야 하지만 1976년 11월까지 결정을 내리지 말고 기다려라. 만약 맥거번(McGovern)이 되면 미국을 쫓아내라. 그렇지만 나는 그런 일이 발생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이를 목욕통에 담은 채 내던지지 말라”고 말했다. 참모총장은 정반대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그는 Utapao를 열기를 바라지만 너무 단순하다. 그는 자신이 Utapao를 유지하면 반란과 관련하여 더 많은 원조를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키신저 : 군대가 정권을 장악하지 않겠는가?

리 : 왕이 그것을 원하고 사람들이 배가 부른 다음에야 그럴 것이다.

차트차이(Chatchai)는 타놈(Thanom) 정부의 부총리로 재직한 경험이 있다. 그는 공약이기 때문에 미국을 철수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한번 미국이 나가면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영국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했다. 나는 결정을 계속 유보시켰다. 그런 어리석은 선제공격적인 선언은 문제다. 윌틀램(Whitlam)은 그런 경향이 있다 - 당장은 그럴 듯해 보이겠지만.

현재로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나는 별로 낙관적이지 않은 견해를 갖고 있다. 상대방이 상당한 심리적 우위를 점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미국 원조의 확실성이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었던 것도 좋지 않다. 태국은 미국의 도움으로 3년에서 5년 정도는 싸우겠지만 프놈펜과 사이공이 못쓰는 기계가 된 과정을 거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들은 중국과 타협을 할 것이다. 나는 차트차이(Chatchai)와 외무부의 중견 관리들과 얘기를 나누었다. 나는 우리 대사를 통하여 그들의 생각을 아주 잘 보고 받고 있다.

키신저 : 당신은 중국이 하노이를 고립시키기 위하여 태국과 손을 잡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리 : 아니다. 왜냐면 그렇게 하면 미국의 음모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그런 시도를 유보시키고 상황에 개입하면서 원조를 제공하라. 그들이 반정부 세력 문제는 개혁에 의해서만 해결할 수 있을 뿐, 그런 방식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말할 때까지 원조를 하라. 현 정부는 존속될 수 없으며, 군부에 동조하는 정부로 대체될 것이다. 군 제3인자가 현재 차기 지도자로 꼽히고 있다.

내가 만약 태국이 행복하고 평화로운 곳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건 정직한 게 못된다. 태국에서 중간층의 생각은 - 그들은 캄보디아와 베트남을 겪었다. 그들은 [인도지나] 동북지역에서 그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노력할 것이나 만약 못하게 되면 중국과 타협할 것이다. 중국은 그들의 보험사이다. 북베트남군과 중국군은 남하하지는 않을 것이다 - 그들이 무기와 팜플렛을 보내서 정부 전복을 조장하는 것이다.

키신저 : 인도네시아는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가?

리 : 석유가 있으므로 그렇다. 그곳은 외부로부터의 위협은 없다.

키신저 : 그들도 보험 정책을 찾아 나설 것인가?

리 : 그럴 필요가 없다. 수하르토는 외부에서 전복시킬 수 없다. 당신은 수하르토와 협력할 수 있지만 어리석은 정책을 밀지 말라. 거대한 군사기계를 만드는 데 지원하지 말라. 그렇게 되면 내부로부터 수하르토가 전복될 수 있다. 국민들이 반감을 갖게 될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군사 강국이 되고 싶어 한다. 그렇게 될 수는 없지만 안정적인 군사력은 될 수 있다.

키신저 : 말레이시아는 버틸 수 있는가?

리 : 인도네시아가 “너희는 도움을 필요로 한다. 우리가 가겠다”라고 말하고 말레이시아가 여기에 넘어가지 않는 한 그렇다.

키신저 : 대통령, 2년전에 리관유 수상은 나에게 워터게이트가 지속되면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얘기해준 바 있다.

리 : 그렇다. 그 일은 일어났고, 지금 나는 할 일을 하고 있다. 나는 화도 났고 실망도 하였지만 우리는 현재 우리가 있는 곳에서부터 계속 나아가야 한다. 동남아시아의 경제가 계속 돌아가기만 하면 잃어버린 것은 아니다. 보호무역주의는 이곳에 있고, 고립주의는 해외로 가고 있다.

키신저 : 말레이시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말씀하는 것인가?

리 : 어떤 효과적인 대책이 있기 전까지 말레이시아는 좀더 불안정해 질 것이다. 라자크(Razak)가 하비브(Habib)에 제안을 한 바 있다. 우리는 당신이 베트남에서 얻었던 교훈과 마찬가지로 합동 대게릴라전 훈련을 갖고자 한다. 그러나 그는 혼자 할 수 없고 오직 나와 함께 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영국이 말레이시아에서 했던 방식으로 할 수는 없다. 나는 암을 도려내야 한다.

키신저 : 한국에 대해서는?

리 : 그들은 미국이 폭격을 할 것 같으면 동요하지 않을 것이다. 상원에서는 이 점을 알고 있다 : 상원은 일본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을 잃는 것으로 일본을 위협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백악관보다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 미 의회는 공공연한 공격이 발생하면 미국은 대응할 것이라고 밝혀야 한다.

키신저 : 중국은 어떻게 움직일 거라고 보는가?

리 : 대결상황을 이용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할 것이다. 의회, 중동지역, 사이 프러스.

키신저 : 어떻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인가?

리 : 많지 않다. 그들은 대만을 잃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들은 결국 대만을 소유하게 될 것임을 알고 있다. 태국이 감수해야 하는 것 중의 하나가 대만으로부터 중국정부로 관계를 바꾸어야 하는 것이다.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미국 의회는 일자리를 수출하는 걸 꺼려하는 경향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으려면 우리에게는 일자리가 필요하다. 우리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 단순노동으로부터 보다 어려운 숙련노동 쪽으로. 미국이 이 변화과정을 막으면 원조를 통해 보완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해를 끼치게 될 것이다. 동남아시아로부터의 수입을 줄이지 말라. 만약 당신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에서 공장을 닫기 시작하면 커다란 피해를 입히게 될 것이다.

대통령 : 수상, 와 준 것에 감사한다.

■ [유엔 회원 자격]

- | | |
|--|------------------------|
| • 형태 : 편지 | • 일자 : 1975.9.3 |
| • 발신 : United Church Board for World(통일교회 세계선교회) | • 수신 : Albert C. Pryor |
| • 출처정보 : - | • 관리번호 : CTA0000702 |

앨버트 C. 프라이어 (Albert C. Pryor) 박사 귀하,
대통령의 요청으로 나는 귀하와 엘노라 B 윌코트 (Elnora B. Wolcott) 회장 그리고 데이비드 M 스토크 (David M. Stowe) 부회장이 공동으로 포드 대통령 앞으로 보낸 1975년 8월 11일자 편지에 대해 답신을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는 귀 단체가 오랫동안 유엔에 대하여 기여해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특정 국가가 유엔 가입으로부터 배제되어서는 안 되며 회원국이 유엔과 그 산하 전문기구에 참여하는 것이 유보되어서는 안 된다는 귀하의 의견에 동의를 표합니다.

8월 11일에 우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반대표를 던진 것은 당일의 성명과 그 이전 1975년 8월 6일 성명을 통해 모니헌(Moynihan) 대사가 밝혔던 이유 때문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우리가 모든 다른 대안을 강구하고 그 결과에 대해 심사숙고한 이후에 우리에게 불가피하다고 판단된 이유에 근거하여 선택된 것입니다. 그 두 성명문을 동봉하오니 참조하시 바랍니다.

우리는 귀하가 밝힌 유엔 회원자격이 보편적으로 적용될 필요성에 동의합니다. 우리는 남베트남과 북베트남 양국의 동시가입과 그리고 남한과 북한 양국의 동시가입에 찬성표를 던지려고 준비했고 또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부 회원국 가입 신청의 건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제로 상정되는 것조차 거부되고 어떤 국가를 회원국으로 받아들일지 심의 하지도 못하게 하는 일이 발생하여, 우리는 반민주적인 정권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정 사항으로 상정되는 것을 허용할 수 없었습니다.

통일교회 세계선교회 (United Church Board for World Ministers)

■ 포드 대통령에게 보낸 축전에 대한 답장

- | | |
|-----------------------------------|---------------------|
| • 형태 : 전문 | • 일자 : 1975.9.14 |
| • 발신 : 워싱턴 백악관 | • 수신 : 주한 미대사관 |
| • 출처정보 : DEPARTMENT OF STATE 3014 | • 관리번호 : CTA0000709 |

1. 포드 대통령이 보내는 아래의 메시지를 박정희 대통령에게 전달하기 바람.

“친애하는 박정희 대통령. 나의 미합중국 대통령 취임에 대해 당신이 보내준 진심 어린 축하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류의 진실되고 지속적인 평화를 위한 우리의 공통된 목표를 위해 미국 정부는 모든 자원을 동원할 겁니다. 당신은 이를 확신해도 좋습니다. 제럴드 R. 포드”

■ [김지하 사건 개입 요청에 대한 회신]

- | | |
|------------|--------------------------------------|
| • 형태 : 편지 | • 일자 : 1975.9.18 |
| • 발신 : 백악관 | • 수신 : Bill Henerson(코워드 컴퍼니 선임 편집장) |
| • 출처정보 : - | • 관리번호 : CTA0000772 |

헤너슨 씨 귀하 :

포드 대통령께서 저에게 김지하 시인을 위해 한국 정부에 잘 말해 달라고 촉구하신 귀하의 전신에 답변을 보내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저희는 귀하의 우려를 이해하며 귀하의 생각을 저희에게 전해주시는 점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현재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한국의 반공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서울의 민간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기소된 범죄 중에는 구체적으로 그가 지난 3월에 썼던 글, 정부에서 불법 조직, 인혁당(People's Revolutionary Party, PRP) 소속이라고 주장해온 일단의 죄수들이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한 글과 지난해의 PRP 재판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월의 첫 번째 공판에서 김 씨는 재판장 역시 1974년 여덟명의 PRP 죄수들에게 사형을 선고했던 결정에 관여했었다고 주장하면서 법정 구성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한 김 씨의 항소는 두 재판의 성격이 다르다는 근거로 7월 25일 한국 대법원에서 각하되었습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오늘까지 재판 재개 날짜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김 씨가 이른바 맑스주의자였다고 고백한 증거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일본에서 발표된 장황한 부인서에서 이 자료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전에도, 김 씨는 1974년 중반에 당시에는 효력을 발휘했던 긴급 조치 하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는 한국 정부가 혁명을 모의했다고 주장했던 학생 그룹을 지원했기 때문에 긴급 조치 4번을 위반했다고 해서 기소되었습니다. 1974년 7월, 김 씨는 사형 판결을 받았으며 이후에 이는 종신형으로 감형되었습니다. 그는 항소를 거부했습니다. 김 씨는 1974년 긴급 조치 하에서 형 선고를 받았다가 올해 2월 16일과 17일 한국 정부에 의해 석방된 148명의 죄수들 가운데 한 명입니다. 김 씨가 받았던 종신형 형 집행은 그때 대통령 명령에 의해 정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석방된 지 한달도 채 지나지 않아, 김 씨는 현재 그가 재판을 받고 있는 그 혐의에 의해 다시 구속되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자국 국민들에 대한 처우에 대해 미 국무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은 제한되어 있지만, 한국 관리들이 인권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견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희는 또한 그들에게 그들의 국내 조치들이 한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여론과 의회의 견해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을 계속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Sincerely,

존 E. 라인하르트(John E. Reinhardt)

공보부 서기관보(Assistant Secretary for Public Affairs)

■ [김지하 시인의 심리에 대한 개입 요청]

- | | |
|--------------------------------------|------------------------|
| • 형태 : 편지 | • 일자 : 1975.9.18 |
| • 발신 : Bill Henerson(코워드 컴퍼니 선임 편집장) | • 수신 : Jerry Ford(대통령) |
| • 출처정보 : - | • 관리번호 : CTA0000772 |

포드 대통령 각하.

한국의 언론의 자유와 작가 김지하의 생명을 위해 현재 심리 중인 작가 김지하를 위해 즉시 외교적인 개입을 해주실 것을 진심으로 요청합니다.

빌 헤너슨, 코워드 MCCANN 컴퍼니 선임 편집장

■ 대통령에 대한 축하 메시지 : 한국

- | | |
|--------------------------------------|-----------------------------------|
| • 형태 : 비망록 | • 일자 : 1975.9.20 |
| • 발신 : 워싱턴 백악관 | • 수신 : Brent Scowcroft(백악관 군사보좌관) |
| • 출처정보 : DEPARTMENT OF STATE 7418204 | • 관리번호 : CTA0000709 |

한국 대통령과 총리, 국회의장의 축하 메시지에 대한 대통령의 답례가 그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첨부된 세명의 국회의원과 상공회의소 의장에게서 온 축전에 대해서는 답장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권고는 미스터 프뢰베(Mr. Froebe)와 상의한 것입니다.

국무부 사무총장(Executive Secretary) 조지 S. 스프링스틴(George S. Springsteen)

첨부 :

1. 국회의원 김명회(Kim Myong Whai)로부터 온 축전
2. 국회의원 김영태로부터 온 축전
3. 국회의원 김택하(Kim Taek Har)로부터 온 축전
4. 대한상공회의소 김성곤 의장으로부터 온 축전

■ 대통령과 키신저 장관과의 대화

- | | |
|-----------------|-------------------------------|
| • 형태 : 비망록(대화록) | • 일자 : 1975.10.16 09:33~10:44 |
| • 발신 : - | • 수신 : - |
| • 출처정보 : - | • 관리번호 : CTA0000652 |

대화록

참석 : 제럴드 포드 대통령
헨리 키신저 미 국방부 장관
대통령 국가안보 보좌관보 브렌트 스코크로프트 중장

일시 : 1975년 10월 16일 목요일
오전 9시 33분 - 10시 44분

장소 :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

대통령 : 나는 슬레진저와 대화할 때 헨리를 동석시킬 생각이었다.

키신저 : 난 브렌트와 그 문제에 관해 얘기할 기회가 없었다.

대통령 : 그는 회동을 요청했으나 우리가 그가 원하는 주제들을 다루었는지는 모르겠다.

우리는 인사문제부터 얘기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엘스워쓰(Ellsworth)를 잃게 될 것 같다. 나는 그에게 몇 가지 새 자리를 제안했지만 그는 지금 있는 곳에서 승진하기를 원했다. 나는 국방부에 부장관을 2명 둘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차관급 자리에 관해서 물었다. 나는 자료를 보내라고 말했다.

키신저: 나는 이에 대한 별 문제를 느끼지 않지만 국방부는 대외 정책에서 손을 떼야 한다.

대통령 : 그리고 나서 나는 유니프레드 죠슈아 박사가 쓴 데탕트에 관한 글, 그 기밀 분석 보고서에서 데탕트를 비판한 것을 두고 그를 나무랐다. 나는 그 글이 비전문적이어서 실려서는 안되는 글이라고 말했다. 그는 동의했다. 그 다음에 나는 그가 의회에서 국방 예산과 관련해 맡은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계통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으나 나는 그 일이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 다음 브렌트가 들어왔기에 내가 그에게 말하고자 하는 예산 삭감 문제를 같이 논의했다. 그 다음 브렌트는 그가 돌아갔으며 그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말했다.

스코크로프트 : [나와 슬레진저와의 대화를 설명하였다]

키신저 : 매일 무언가 일이 일어난다. 오늘은 레스 겔브(Les Gelb) 건이다. 블라디보스톡 건은 정말로 성공적이었다. 그들이 나를 노리고 있으나 대통령도 곧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대통령 : 맞다.

키신저 : 우리가 블라디보스톡에 있을 당시 그들은 우리에게 백파이어[장거리초음속폭격기] 문제를 거론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미사일에 관해서는 크루즈 미사일이 아니라 단지 단거리공격미사일(SARM) 건만 지켜달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였다: [블라디보스톡과의 통신 내용은 첨부자료 A 참조]. 슬레진저는 레이진 일파를 동원하여 대통령 처지를 어렵게 하고 있으나 대통령이 우경화하면 진보주의자(liberals)들은 이것이 데탕트에 대한 사보타지라고 하며 선거에서 대통령을 꺾을 것이다.

대통령 : 우리 쪽에서 전략무기제한협정(SALT)과 관련 새로운 입장을 준비하는 것이 있는가?

키신저 : 소련 측이 우리에게 응답할 때까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통령 : 헤이그는 크루즈 미사일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키신저 : 그는 크루즈 미사일에 그렇게 매료되어 있지 않다. 그는 슐레진저의 목표가 유럽에서 전술 핵무기를 모두 제거하는 데 있다고 본다. 전략무기제한협정 문제를 제외하고 슐레진저는 매우 진보적 입장이다.

만약 우리가 크루즈 미사일 문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지 않으면 민주당에서는 트럭이 통과할 만큼 [안보상의] 격차가 생겼다고 주장하면서 대통령을 죽이려 할 것이다.

캐나다에서 그는 우리의 방위 능력이 소련에 뒤졌다고 말했다. 의회 위원회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외국인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는 또 북부 노르웨이가 공격 받을 경우 크루즈 미사일을 사용해서 반격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런 말은 우리가 공격에 대응할 때 나토의 전체 군사력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위험하다.

만약 대통령이 전략무기제한협정에서 그의 입장을 지지하여 아무런 합의를 얻지 못한다면 민주당은 크게 기뻐할 것이다.

대통령 : 나는 전략무기제한협정이 합의에 이르기를 원한다. 나는 짐(Jim)과 한 얘기를 생각해보고 다음 주에 그와 얘기하도록 하겠다.

키신저 : 우리가 국방부로부터 원하고 있는 것은 단지 대통령의 입장에 지지를 하라는 것뿐이라는 것을 대통령이 그에게 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얼마 전 이 취지로 대화 요지를 작성해 제출하였으나 대통령이 이를 꼭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 : 그것을 보여 달라. 나는 좀 더 일반적인 내용으로 그와 얘기를 하고 싶다.

키신저 : 헤이그는 그(슐레진저)가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슐레진저가 사임을 하게 될 것인지 아닌지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대통령 : 대화 요지를 달라.

키신저 : 중국 방문과 관련해서 선발 요원들이 짠 일정은 당신을 녹초로 만들 것이다. 일본을 경유할 때 그들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것이다.

대통령 : 공군 기지에서도?

키신저 : 거기에서 치외법권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선발대와 국무부가 짠 상이한 일정

에 관한 논의. 일요일 오전 9시 앵커리지; 월요일 오후 3시 북경 도착
그들은 대통령 귀국길 일정을 8일로 잡았다. 대통령은 이를 5일로 단축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전에 출발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대통령 : 우리가 하와이에서 하고 싶은 것은 에리조나 묘지에 현화하는 것뿐이다.

키신저 : 일본인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다. 확인해 보겠다.

대통령 : 나는 토요일 아침에 떠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키신저 : 사다트에 관한 것인데, 내가 알기로 그들은 대통령이 잭슨빌에 들려서 일요일 까지 돌아오는 것으로 바란다.

대통령 :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키신저 : 그렇다. 애스큐(Askew)가 초청하는 저녁행사는 어떠한가?

대통령 : 좋은 사람이다.

키신저 : 경제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대통령 지지자들은 대통령이 정치자금 모금행사장에서 출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해하지 못하겠다.

대통령 : 동감한다. 나는 애틀란타 주에서 시작하겠다.

키신저 : 터키에 새로운 문제가 생겼다. 에세빗(Ecevit)은 사이프러스(Cyprus) 문제에 관해 드미렐(Demirel)을 지지하는 것이 바보가 되지 않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군 기지 문제에 이들이 반대하고 있다. 나는 헤이그가 산카(Sancar)에게 전화하도록 브렌트에게 요청하였다. 20일 터키 국가안보회의가 개최된다. 드미렐은 빈틈없는 사람이다.

우리는 카시토(Caxito)에서 루안다(Luanda)로 가는 길에 앙골라에서는 분명한 승리를 거두었다.

유엔에서 북한은 계속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그들과 언젠가 만나 남한 측이 동석하면 대화를 가질 것이라고 말해주고 이러한 전망에 관해 유엔에서 논의할 때 그들의 태도를 살피고 싶다.

대통령 : 당신이 파이크(Pike)에 대한 소환장 문제를 놓고 말한 것이 좋은 효과를 낳았다고 생각한다.

키신저 : 유엔긴급군(UNEF)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집트는 유엔긴급군 문제가 이집트

의 영토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에 관하여 유엔에서 제기할 수 없다고 말한다. 소련이 개입하지 않는다면 이는 별 문제 아니다.

대통령 : 아랍권의 개입은 어떻게 정당화시킬 수 있는가?

키신저 : 레바논은 이를 요구 할 것이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의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스라엘 측에 먼저 행동을 개시하지 말라고 했다. 대응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 : 그들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키신저 : 그들은 남부 레바논에서 게릴라 기지를 소탕하고 그후에 아마 거기에 머물 것이다.

대통령 : 아이젠하워가 1958년에 했던 것을 우리가 1975년에 할 수 있는가?

키신저 : 결코 못한다. 정치적 상황이 다르고 당시에는 터키와 월러스(Wheelus)가 있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할 수 있겠지만 사다트일지라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대통령 : 그럼 우리는 어떤 누구의 개입도 막아내야 한다.

키신저 : 맞다. 레바논은 현재 조용하지만 폭발할 수 있다.

■ 김지하 시인의 재판과 반공법 위반 혐의

- | | |
|------------------------------|-------------------------------------|
| • 형태 : 편지 | • 일자 : 1975.10.24 |
| • 발신 : 백악관 | • 수신 : William Arrowsmith(보스턴 대학교수) |
| • 출처정보 : DEPARTMENT OF STATE | • 관리번호 : CTA0000772 |

에로우스미스 교수 귀하 :

포드 대통령께서 한국 시인 김지하의 수감에 대한 귀하의 우려를 표명한 귀하의 편지에 감사 인사를 전하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김 씨는 현재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한국의 반공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서울의 민간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기소된 범죄 중에는 구체적으로 그가 지난 3월에 썼던 글, 정부에서 불법 조직, 인혁당(People's Revolutionary Party, PRP) 소속이라고 주장해온 일단의 죄수들이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한 글과 지난해의 PRP 재판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월의 첫 번째 공판에서 김 씨는 재판장 역시 1974년 여덟명의 PRP 죄수들에게 사형을 선고했던 결정에 관여했었다고 주장하면서 법정 구성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한 김 씨의 항소는 두 재판의 성격이 다르다는 근거로 7월 25일 한국 대법원에서 각하되었습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오늘까지 재판 재개 날짜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김 씨가 이른바 맑스주의자였다고 고백한 증거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일본에서 발표된 장황한 부인서에서 이 자료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전에도, 김 씨는 1974년 중반에 당시에는 효력을 발휘했던 긴급 조치 하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는 한국 정부가 혁명을 모의했다고 주장했던 학생 그룹을 지원했기 때문에 긴급 조치 4번을 위반했다고 해서 기소되었습니다. 1974년 7월, 김 씨는 사형 판결을 받았으며 이후에 이는 종신형으로 감형되었습니다. 그는 항소를 거부했습니다. 김 씨는 1974년 긴급 조치 하에서 형 선고를 받았다가 올해 2월 16일과 17일 한국 정부에 의해 석방된 148명의 죄수들 가운데 한 명입니다. 김 씨가 받았던 종신형 형 집행은 그때 대통령 명령에 의해 정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석방된 지 한달도 채 지나지 않아, 김 씨는 현재 그가 재판을 받고 있는 그 혐의에 의해 다시 구속되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자국민들에 대한 처우에 대해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제한되어 있음을 귀하께서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국의 김 씨 사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상당한 관심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우리의 우려를 한국 정부에 계속해서 지적할 것입니다.

대통령의 인사를 전하며,

Sincerely,

존(John) E. 라인하트(Reinhardt)

공보담당 보좌관보

■ 브리핑 서류들의 전달

- 형태 : 비망록
- 발신 : George S. Springsteen(국무부 사무총장)
- 출처정보 : DEPARTMENT OF STATE 5595
- 일자 : 1975.11.15
- 수신 : Brent Scowcroft(백악관 군사보좌관)
- 관리번호 : CTA0000777

이번 방문을 위해 준비한 브리핑 책자에 포함될 대통령의 한국 방문에 관한 공동 성명서 초안 사본 8장을 전달합니다.

조지 S. 스프링스틴(George S. Springsteen)

사무총장(executive secretary)

첨부 : 앞에서 언급한 대로.

미 국무부

브리핑 자료(briefing paper)

공동 성명 초안(draft joint communique)

(참고: 11월 11일자의 초안 성명에서 내용이 수정됨)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의 제럴드 R. 포드 대통령이 최근의 국제 상황에 대한 서로의 견해를 주고받고 두 나라의 상호 공통의 이해관계와 관심사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974년 11월 22일과 23일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방문 기간 동안 포드 대통령과 박 대통령은 두 번의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회담에는 국무총리 김종필, 미 국무부 장관 헨리 키신저, 한국 외무부장관 김동조(Kim Dong Jo), 주한 미 대사 리처드 L. 스나이더(Richard L. Sneider), 주미 대사 함평춘과 그 외 양국 정부의 고위 관리들이 배석했습니다. 포드 대통령은 또한 주한미군을 방문했습니다.

포드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 영부인의 묘지를 찾아 영부인의 비극적인 불의의 사망에 대해 깊은 개인적인 애도를 표했습니다.

포드 대통령과 박 대통령은 최근 몇 년 간 아시아의 정세에서 상당한 정치적 경제적 변화에 대해 주목했으며 이 지역의 평화에 대한 전망이 전체적으로 개선되었다는 점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 지역의 동맹국들이 점점 더 강력해지고 부흥하고 있으며 각 나라들의 안보 뿐만 아니라 지역 안보에도 점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포드 대통령은 태평양의 강국(Pacific Power)으로서 미국은 아시아와 태평양에 시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보증하기 위해 계속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러한 목표를 향

한 미국의 정책에 공감하며 전면적인 지원을 할 것임을 표명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한국과 북한의 대화 전개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는 북한 당국이 의미 있는 응답을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화를 진전시키기 위해 한국이 기울인 노력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였습니다. 박 대통령은 한국은 대화를 계속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있음을 표명했습니다. 포드 대통령은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려는 한국의 건설적인 정책안들을 칭찬하였으며 장래에 이러한 논의들이 건설적으로 전개되기를 바라는 희망을 나타냈습니다.

두 대통령은 한국 군대와 주한미군이 침략을 억제하기 위해 고도의 힘과 준비성을 유지해야만 한다는 점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포드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 사이의 1954년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에 대한 무력 공격을 격퇴하기 위해 미국이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포드 대통령은 박 대통령에게 미국은 현재 주한미군의 상당한 감축은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확실하게 말하였습니다.

박 대통령과 포드 대통령은 한국 군대의 현대화 프로그램의 진전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그들은 이 프로그램이 한반도의 평화와 한국의 안보를 위해 중요하다는 점에 합의했습니다. 포드 대통령은 한국이 점점 더 많은 방위 부담을 질 수 있으며 기꺼이 그러할 것이라는 점과 한국의 방위 산업의 성공적인 발전에 대해 주목하였습니다. 두 대통령은 양국 정부가 현대화 프로그램의 이행과 양국의 상호 안보와 관련되는 기타 다른 문제들에 관해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협의할 것임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두 대통령은 최근 국제연합 총회의 한국 문제 고려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그들은 미국과 다른 24개 회원 국가들이 제출한 결의안 초안에 대해 국제연합 총회가 우호적인 조치를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두 대통령은 모두 총회가 지난 21년간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준 안보 협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참작해 한국 문제에 접근해 줄 것에 대한 희망을 표명했습니다.

포드 대통령은 충분한 천연 자원의 부족과 이 지역의 지속적인 긴장상황 등을 포함해 상당한 방해요인들에 맞서 한국이 성취해낸 지속적이고 빠른 경제 성장에 대해 경의를 표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경제적, 과학적, 문화적 영역에서의 한국의 성장에서 미국의 공로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국가 발전과 경제적 성취에서 과학과 테크놀로지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두 대통령은 최근의 국제 경제 발전이 한국의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 진단했습니다. 그들은 미국과 다른 나라들의 지속적인 민간 투자가 바람직하다는 점에 의견을 함께 했습니다. 양국 대통령은 양국 모두에게 이득이 되어온 양국간의 실질적 무역 관계의 지속적인 성장에 대해 상호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많은 나라들에서 우선적으로 원자재와 식량 가격의 인상 때문에 무역 적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생산국과 소비국 모두에게 공평한 조건에서 모든 나라들의 생산품에 자유롭고 공평한 접근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국제적인 노력이 집중되어야만 한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하는 점입니다.

두 대통령은 두 나라 사이의 전통적인 친선과 협력 관계를 재확인했습니다. 그들은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특징짓는 안보 문제라든가 기타 다른 고려 사항들에 대해 긴밀한 협력과 상시적 협의를 지속할 것에 합의했습니다.

포드 대통령의 방문단과 미국 국민들을 대표해 그의 방문 기간 그에게 베풀어준 수많은 호의와 따뜻한 환대에 대해 박 대통령과 한국의 모든 국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미 국무부

1974년 11월

백악관

워싱턴

전화 제안

수신 : 팀 오닐(Tip O'Neill) 의원

(전화번호: 보스턴 자택-617-876-7677

케이프(Cape) 자택-617-432-5409

지구 사무소-617-223-2784 혹은 617-223-2500)

날짜 : 극동 방문 출발 이전

제안자 : 맥스 프리티스도르프와 워렌 러스탄드(Warren Rustand)

목적 : 오닐 의원이 함께 하고 있는 여덟명의 의원들의 편지에 대한 응답

배경 : 첨부된 편지는 대통령의 한국 방문이 박 대통령이 과도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것을 승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위험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대통령이 한국의 인권 상황에 관한 미국의 우려를 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그에게 정부 관리들만이 아니라 다른 한국인들을 만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전화 통화 논지 :

1. 팁, 저는 이번 주 초 귀하의 편지를 받아서 검토해보았으며 NSC에 귀하의 우려사항을 전달했습니다.
2. 저는 전세계적으로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귀하의 견해와 함께 합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의 저의 활동은 이를 반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제가 한국에 머무는 동안, 저는 정부 만찬 전에 시청에서의 리셉션에 참가하게 될 것입니다. 이 리셉션에는 정부 관리들 뿐만이 아니라 광범위한 범위의 다양한 한국 국민들이 참가하게 될 것입니다.
4. 저는 귀하께서 이 편지를 작성하실 때 함께 한 다른 의원 동지들에게 저의 감사 인사뿐만 아니라 저의 의도에 대해서도 전해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어서 돌아와서 함께 국내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1974년 11월 14일

■ [김지하 시인의 재판과 인권에 대한 우려]

- | | |
|------------|-----------------------------|
| • 형태 : 편지 | • 일자 : 1975.11.17 |
| • 발신 : 백악관 | • 수신 : Ivar Ivask(오클라호마 대학) |
| • 출처정보 : - | • 관리번호 : CTA0000772 |

이바스크(Ivask) 귀하

대통령께서 한국 시인 김지하의 사정에 관한 귀하의 10월 15일자 편지에 답장을 하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김 씨의 세계적인 명성 덕분에 그의 문제에는 상당한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김 씨

는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한국의 반공법과 이전의 긴급 조치들로 인해 여러번 고초를 겪어 왔습니다. 지난해 7월, 그는 사형 판결을 받았으며 이후 한국 정부는 이를 종신형으로 감형했습니다. 정부는 종신형을 집행정지했다가 다시 집행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 씨가 별도의 혐의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인권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한국에 표명해왔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는 김지하 사건과 같은 구체적인 사건들에 대해 미국 내의 우려를 강조해왔습니다. 한국 정부의 자국민들에 대한 처우에 대해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제한되어 있음을 귀하께서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국의 김 씨 사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상당한 관심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우리의 우려를 한국 정부에 계속해서 지적할 것입니다.

편지에 감사드립니다.

대통령의 인사를 전하며,

Sincerely,

롤랜드 L. 엘리엇

통신 담당 보좌관(Director of Correspondence)

이바르 이바스크(Ivar Ivask) 귀하
 오클라호마 대학 해외서적 담당 45-2호
 웨스트브룩 401번가, 노르만, 오클라호마

■ 1977년 한국 안보 원조

- | | |
|--------------------------|-----------------------------------|
| • 형태 : 비망록 | • 일자 : 1976.1.6 |
| • 발신 : James E. Connor | • 수신 : Brent Scowcroft(백악관 군사보좌관) |
| • 출처정보 : THE WHITE HOUSE | • 관리번호 : CTA0000664 |

대통령은 위의 주제에 대한 귀하의 최근 메모를 검토하시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승인하셨습니다.

“대외군사판매(FMS) 원조를 1억5천만 달러에서 2억7천5백만 달러로 올리고 대외군사원

조계획(MAP)을 4천7백3십만 달러에서 8백3십만 달러로 낮추는 것으로 1977년 한국 안보 원조에 대한 프로그램 수준을 수정"

다음과 같이 교체된 추천사항은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수준을 1억5천만 달러의 대외군사판매(FMS)와 4천7백3십만 달러의 대외군사원 조계획(MAP)에서 변동없이 그대로 둬”

“대외군사판매(FMS) 수준을 1억5천만 달러에서 2억3천5백만 달러로 올리고 반면에 대외군사원조계획(MAP)은 4천7백3십만 달러에서 8백3십만 달러로 줄인다는 관리예산국(OMB)의 추천을 승인”

적절한 조치와 함께 속행하여 주십시오.

함께 받는 이 : 딕 체니(Dick Cheney), 짐 린(Jim Lynn)

■ 1977년 한국 안보 원조

- | | |
|-----------------------------------|------------------------|
| • 형태 : 비망록 | • 일자 : 1976.1.6 |
| • 발신 : Brent Scowcroft(백악관 군사보좌관) | • 수신 : Jerry Ford(대통령) |
| • 출처정보 : THE WHITE HOUSE | • 관리번호 : CTA0000664 |

예산관리국(OMB)은 당신의 결정을 받기 위해 1977년 한국 대외군사원조계획(MAP)과 대외군사판매(FMS)를 재고해달라는 국무부의 요청을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기관들은 한국에 대한 77년도의 1억5천만 달러의 대외군사판매와 4천7백3십만 달러의 대외군사원조계획 수준에 동의하였습니다. 국무부의 요청은 표B에 있습니다. 예산관리국의 메모는 표A에 있습니다.

국무부는 지금 한국의 외환 지위가 약하며 대외군사판매 프로그램을 통해 실질적인 신용 보증 원조가 없이는 계획된 한국군 개선의 다음 단계를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오직 미국의 병참 지원만으로 1980년에는 단독으로 북한의 공격을 다룰 수 있기 위하여 빠른 장비 구입을 요구하며 새로운 빠른 병력 개선 계획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한국인들이 이러한 병력 개선 목표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대외군사판매 신용대부의 증액의 대가로 대외군사원조계획의 보조금 프로그램의 실질적

인 종료를 수용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무부는 1977년 한국 대외군사판매 수준을 1억5천만 달러에서 2억7천5백만 달러로 올리고 대외군사원조계획의 수준은 4천7백만3천 달러에서 8백3십만 달러로 줄여야 하며 후자의 총액은 오직 공급 운영과 유엔 경비만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군 현대화 계획을 실행하기 위하여 자기 자원과 상업차용으로 추가 3억 달러를 지출할 계획입니다.)

대외군사원조계획에서 대외군사판매로 한국 원조를 바꾸려는 요구에 대해 유관 기관들 사이에 일반적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대외군사원조계획 프로그램은 평이 좋지 않으며 1977년에 특히 의회가 인권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한국과 같은 나라들에 대해서 더 많이 삭감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대외군사판매 신용대부 보증으로 전체 수준의 10%만이 예산 지출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보조금에서 신용대부 원조로의 전환은 사실상 1977년의 예산 지출을 실질적으로 줄일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에게 필요한 것을 충족할 수 있는 기금을 제공하고 대외군사원조 계획의 종료의 영향을 상계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대외군사판매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합의도 없습니다. 국무부는 2억7천5백만 달러를 추천했지만, 한국인들이 우리에게 말한 것은 3억 달러가 약간 안되는 액수입니다. 예산관리국은 2억3천5백만 달러 수준이 한국의 필요에 충분할 것이며 우리가 한국군 개선 계획을 전적으로 승인한다는 인상을 주지는 못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두 기관 모두 8백3십만 달러의 대외군사원조계획의 공급 운영 프로그램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무부의 추천에 동의합니다. 한국의 대외군사원조계획 프로그램을 끝내고 대외군사판매로 대체한다는 우리의 관점은 매우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정에 대해 동의할 함에 있어 한국인들은 그들의 안보 필요에 대한 우리의 관심에 민감할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의 조치를 그들의 국가 안보의 지출에 있어 예산 지출을 절약하려는 시도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대외군사판매 접근에 있어 그들의 신뢰를 흔들어 놓을 수 있으며 한국의 사기에 심각한 반향을 일으킬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는 새로운 한국군 현대화 계획에 우리 자신을 묶으려 하지 않지만, 그 목표는 우리 자신의 국가 목적에 부합합니다. 저는 국무부의 추천에 대한 승인이 한국인들을 만족시킬 것이며 우리에게 1977년 한국을 위해 원래 계획되었던 것에서 예산 지출의 실질적인 감축이라는 보너스를 줄 것이라고 생

각합니다.

만일 각하께서 국무부의 선택을 택하지 않는다면, 저는 현재 수준의 1억5천만 달러의 대외군사판매와 4천7백만3천 달러의 대외군사원조계획이 2억3천5백만 달러의 대외군사판매와 8백3십만 달러의 대외군사원조계획이라는 예산관리국의 선택보다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권고〉

대외군사판매(FMS)를 1억5천만 달러에서 2억7천5백만 달러로 올리고 대외군사원조계획(MAP)을 4천7백3십만 달러에서 8백3십만 달러로 낮추도록 1977년 한국 안보 원조에 관한 프로그램을 수정해주시시오.

승인 _____ 불승인 _____

대신 귀하는 한국의 수준을 1억5천만 달러의 대외군사판매와 4천7백3십만 달러의 대외군사원조계획에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두기를 원합니다.

승인 _____ 불승인 _____

대신 귀하는 대외군사판매 수준을 1억5천만 달러에서 2억3천5백만 달러로 올리는 반면에 군사원조계획은 4천7백3십만 달러에서 8백3십만 달러로 감축시키지는 예산관리국(OMB)의 추천을 승인하기 원합니다.

승인 _____ 불승인 _____

■ 수정된 안보 원조 추천사항

- | | |
|---|---------------------|
| • 형태 : 비망록 | • 일자 : 1976.1.6 |
| • 발신 : James T. Lynn | • 수신 : 대통령 |
| • 출처정보 :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 • 관리번호 : CTA0000664 |

안보 원조에 대한 결정각서(decision memorandum)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국무부는 한국과 관련한 추천을 변경하였습니다. 국무부는 이제 1976년 말에 군사원조 보조금(이전에 주문되었던 대외군사원조계획 품목을 전달하는데 필요한 기금을 제외하고)을 종료하고 실

질적으로 더 높은 대외군사판매 신용대부 보증으로 대체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대외군사원조계획의 보조금 종료는 귀하의 전체 안보 원조 프로그램에 대한 의회의 수용을 도울 것이며 거의 2천6백만 달러로 요구받은 예산을 줄여 줄 것입니다.

예산관리국은 대외군사원조계획의 보조금에서 대외군사판매 신용대부로의 대체를 지지하지만 이는 더 많은 총 프로그램(실제로 1975년 수준의 100%와 보류중인 1976년 요구의 40%)이 아직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 한국군 개선 계획(FIP)에 대한 미국의 승인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한국군 개선 계획에 대한 미국의 승인과 앞으로 5년동안 대외군사판매의 신용대부 보증으로 연간 3억 달러의 수준에서 재정적 지원을 해 줄 것을 최근 요청했습니다.

(단위 : 백만달러)

	1975	1976	1977		
	현재	예산	대통령 결정	국무부 주장	OMB 대안
MAP 보조금	81.2	74.0	47.3	8.3	8.3
FMS 신용대부	59.0	126.0	150.0	275.0	235.0
합계	140.2	200.0	197.3	283.3	243.3

국무부는 5개년 한국군 현대화 계획에서 우리의 목적을 완성하고 한국에서 미국의 추가 안보 목적을 추구하는데 실질적인 대외군사판매 신용대부를 제공하려면 2억7천5백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이러한 요구가 다년간의 의무나 한국군 개선 계획(FIP)에 대한 미국의 승인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의회와 한국 정부에 알릴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한국 정부의 요청보다 아래인 2천5백만 달러와 대외군사원조계획과 대외군사판매의 1976년 총액을 넘는 8천3백만 달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포기가 믿을 만한 것인가입니다. 예산관리국은 한국인들의 요청을 너무 빨리 승인하는 것으로 비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대략 1976년 국무부의 증액의 절반 정도이며 한국인들이 제안한 3억 달러보다 아래인 총 2억4천3백만 달러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일 한국군 개선 계획이 우리의 지원을 보증한다고 향후 분석이 지적하면 추가 지원이 성사될 것이라고 한국인들에게 확인시킬 수 있습니다.

결정

국무부의 요청(2억7천5백만 달러의 대외군사판매와 8백만 달러의 대외군사원조계획)
(국가안보회의 추천)을 승인해 주십시오.

예산관리국의 대안(2억3천5백만 달러의 대외군사판매와 8백만 달러의 대외군사원조계획)
을 승인해 주십시오.

처음 결정사항을 재확인해 주십시오.

첨부물

■ [인도주의 활동에 대한 치하]

- | | |
|------------|--|
| • 형태 : 편지 | • 일자 : 1976.1.13 |
| • 발신 : 백악관 | • 수신 : DeMarco(Chairman and Chief Executive Officer) |
| • 출처정보 : - | • 관리번호 : CTA0000731 |

데마르코 박사 귀하

American Kor-Asian (미국 한국-아시아계) 재단의 인도주의활동과 성과에 대하여 드와
이트 D. 아이젠하워 대통령 재직 시절부터 역대 대통령의 치하가 계속 내려졌으며, 나 역시
여기에 지지를 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당신이 20년 넘게 한국에 체류하고 도움을 준 덕분에 전통적으로 자주적이며 자부심을
갖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참혹한 전쟁으로부터의 사회적 정치적 격변을 딛고 일어서고 나
아가 보건과 교육, 농업과 지역사회 개발상으로 주목할 만한 진보를 이룩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민간 현장 활동을 필요로 하는 다른 아시아인들을 돕기 위해서 당신의 풍부한
경험과 검증된 전문성을 더 널리 전파하고자 하는 당신의 계획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미국인들이 국제적인 진보와 친선에 기여해온 당신의 존경스러운 활동을 계속 지지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 [한국 신민주당 부대표 성고씨의 면담 요청]

- | | |
|----------------------------------|------------------------|
| • 형태 : 편지 | • 일자 : 1976.1.19 |
| • 발신 : George E. Danielson(하원의원) | • 수신 : Jerry Ford(대통령) |
| • 출처정보 : GEORGE E. DANIELSON | • 관리번호 : CTA0000731 |

대통령 귀하 :

한국 국회의원이자 신민주당 부대표인 (존경하는) 고성씨가 1976년 1월 21일 이후 적절한 시기에 대통령을 방문하고자 저에게 면담 주선을 요청하였습니다.

고 의원의 보좌관에 의하면 대통령이 의원으로 계시던 1970, 1971, 1972년도에 워싱턴에서 그리고 부통령으로 한국을 방문했던 1973년도 등 여러 기회에 대통령과 만났다고 했습니다.

또 고씨가 대통령과 면담하고자 하는 이유가 대통령에게 그의 존경심을 표하고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안보 공약과 관련된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라고 통지 받았습니다.

고씨는 1976년 1월 21일 워싱턴에 도착할 예정이며 여기에 1주일에서 열흘까지 머무를 예정입니다. 고씨의 요청을 대통령께서 고려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조지 E. 대니얼슨 의원 (George E. Danielson Member of Congress)

■ [한국 국내정책 및 군사원조에 대한 답신]

- | | |
|--|-------------------------------|
| • 형태 : 편지 | • 일자 : 1976.4.6 |
| • 발신 : Charles leppert, Jr. (대통령 보좌관보) | • 수신 : Donald M. Fraser(하원의장) |
| • 출처정보 : - | • 관리번호 : CTA0000731 |

도널드 프레이저 의원 귀하,

하원의원 상원의원 120명이 서명하고 대한민국의 국내정책과 한국정부에 대한 미국의 군사원조에 미치는 영향에 우려를 표시한 4월 2일자 편지를 잘 받았다는 점을 대통령을

대신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서신이 가장 빠른 시기에 대통령과 해당 참모에게 제출될 것임을 확인해 드리는 바입니다.

대통령 보좌관보 찰스 레퍼트 2세(Charles leppert, Jr. Deputy Assistant to the President)

■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

- 형태 : 편지
- 발신 : Donald M. Fraser(하원의장)
- 출처정보 :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 일자 : 1976.4.6
- 수신 : Jerry Ford(대통령)
- 관리번호 : CTA0000731

대통령 귀하 :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가 그 나라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하여 개혁을 촉구하는 한국인들을 계속해서 탄압하고 있다는 증거에 접하여 깊은 우려를 갖게 되었습니다. 종교계 학계 정치권 지도자들이 서명하고 교회 예식 중에 발표한 선언이 있는 후 이들 중 여러 사람이 정부 전복 기도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한국이 오랫동안 겪어온 민주주의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치적 반대파에 대한 박 대통령의 정책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기준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한미관계에서 대한민국을 지지하는 미국의 역할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서 미국의 군사적 지원은 원래 대한민국 정부가 민주주의에 대한 믿을 만한 의지를 보인다는 전제하에 연장된 것입니다. 25년 이상이 지난 현재 그러한 의지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군사력은 국민에 대한 정부의 통제와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많은 미국인과 한국인들은 우리 정부로부터 반대의사의 표시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의 군사지원이 장기적의 역압을 용인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지원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유권자들에게 한국에 대한 군사지원의 정당성을 설명하기

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한에서의 억압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 문제가 대통령이 관심을 둘 가치가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며 이 문제를 처리하는데 적절한 방식으로 대통령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 서북도 방위에 관한 한국의 “전방 방위”(Forward Defense) 전략과 평가 그리고 선택에 대한 브리핑 요청

- | | |
|--|--|
| • 형태 : 비망록 | • 일자 : 1976.4.13 |
| • 발신 : William G. Hyland
(국가안보 담당 대통령 부보좌관) | • 수신 : Staser Holcomb
(국방장관 군사보좌관 미국 해군 소장) |
| • 출처정보 : THE WHITE HOUSE | • 관리번호 : CTA0000688 |

국가안보 담당 대통령 보좌관은 국방부가 제안한 한국의 “전방 방위” 전략에 대한 구두 브리핑을 저에게 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브리핑은 관련 군사 개념들과 이 계획의 지원가능성을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덧붙여, 국방부는 북한의 공격에 서북도의 취약성과 미군의 개입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국가안보회의(NSC)에 제출할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브리핑은 5월 7일 이전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서북도에 관한 보고서는 5월 14일까지 국가안보회의에 도착해야 합니다.

국가안보 담당 대통령 부보좌관 윌리엄 하이랜드(William G. Hyland)

■ [한국의 억압적인 정치 상황에 대한 대응 필요]

- | | |
|-------------------------------|------------------------|
| • 형태 : 편지 | • 일자 : 1976.4.14 |
| • 발신 : Strom Thurmond(상원의원) | • 수신 : Jerry Ford(대통령) |
| • 출처정보 : UNITED STATES SENATE | • 관리번호 : CTA0000775 |

대통령 각하 :

한국에서 주장되고 있는 국내 정치적 문제들과 억압적인 정책들 때문에 한국에 대한 우

리의 군사 지원을 정당화하는 것이 점점 더 난처해지고 있다는 의사를 대통령 각하에게 표명한 서한에 미 의회 멤버 119명이 서명을 했다는 것을 알고 (저는) 불안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국에서 박 대통령이 정치적 저항세력들에 억압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분명 묵과하고 있지는 않는 반면에, 우리의 상호방위조약(Mutual Defense Treaty) 책임과 우리 군대의 존재가 박 대통령과 그의 국내 비판세력들 간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우리 동료들에게 충분히 명확하게 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의회의 더 많은 멤버들이 각하에게 보내는 그러한 편지에 서명을 할수록 북한 공산주의 정권이 박 정권을 전복시키려는 내부의 분투에 더욱 이바지하려고 심각하게 자극하려 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이른바 억압의 문제들을 우리의 군사 지원 철회에 연관시키는 것은 반체제 정치 투쟁을 더욱 증가시키고 고무함으로써 북한의 이익에 복무하는 일입니다.

각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제가 동남아시아 지역을 방문한 이래로 동남아시아에서의 비극적인 사건들과 더 최근 세계 다른 지역에서의 공산주의의 승리들은 상원 군복무 및 무장 소위원회(the Senate Committee on Armed Services)에 제출했던 저의 보고서를 확증해주었습니다. 우리는 동남 아시아와 동북 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점점 더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고했던 바처럼, 많은 지도자들이 (미국 영향력 감퇴) 다음의 공백이 공산주의자들의 정치적 군사적 요소들로 재빨리 채워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는 대만에 심각한 정치적 영향을 미치면서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에서 비극적이게도 현실로 벌어지고 있으며 우리의 안보 이해관계에 불리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채널과 외교 채널에서 이른바 억압적인 조치들에 대한 우리 정부의 불만을 강력하게 그리고 명백하게 표명하고자 하는 각하의 노력은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는 한국에서의 최근 불행한 정치적 구속 사건들에 대해 우리 동료들이 표명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져서는 안됩니다. 저의 동료들에게서 각하가 받으신 서한을 고려해볼 때, 각하는 아마도 저의 반응을 듣고자 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저의 동료들과 유권자들 대다수는 각하의 입장을 지지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with kindest regards and best wishes,

Respectfully,
스트롬 씨몬드

■ 써몬드 의원에 대한 답신

- 형태 : 비망록
- 발신 : Jeanne W. Davis(국무부 서기관)
- 출처정보 : NATIONAL SECURITY COUNCIL
- 일자 : 1976.4.23
- 수신 : Max L. Friedersdorf(대통령 보좌관)
- 관리번호 : CTA0000775

스트롬 써몬드 상원의원이 4월 14일(Tab B) 한국의 인권 문제에 관련한 대통령의 정책을 지지한다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당신의 서명이 담긴 답신 초안을 동봉합니다.(Tab A)

1976. 4. 17

상원의원님 :

귀하께서 4월 14일에 한국의 국내 정책이 미국의 한국 정부에 대한 군사 지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 의회에서 최근 회자되었던 서한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보내주신 편지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체하지 않고 귀하의 편지에 대해 대통령의 관심을 촉구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귀하의 의견을 얻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With kindest regards,

Sincerely,

윌리엄 T. 켄달(William T. Kendall)

대통령 부보좌관(Deputy Assistant to the President)

스트롬 써몬드 귀하

미 상원

워싱턴 D. C. 20510

bcc:w/inc.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길 바라며 스코크로프트 장군(General Scowcroft)에게 (미 상하원의 120명의 이름이 담긴 4월 12일의 편지는 적절한 조치를 위해 귀하에게 이전에 회부되었습니다.)

■ [한국의 인권상황과 안보상의 중요성]

- | | |
|-------------------------------------|---------------------------|
| • 형태 : 편지 | • 일자 : 1976.4.23 |
| • 발신 : Max L. Friedersdorf(대통령 보좌관) | • 수신 : Paul Findley(하원의원) |
| • 출처정보 : - | • 관리번호 : CTA0000731 |

폴 귀하 :

대통령의 요청으로 나는, 미국이 한국정부가 국내 비판자들에게 가하는 억압적인 행동을 비난해야 한다고 촉구한 당신의 3월 23일자 편지에 추가적으로 답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태에 대하여 그리고 그러한 사태가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양국간의 소중한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귀하와 같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구속 사태에 대한 우리의 비판적인 반응이 뚜렷이 공론화되었다는 점과 추가로 우리 반응이 서울의 한국 정부의 고위직에 전달되었고 또 워싱턴의 한국 관리들에게도 거론되었다는 점을 당신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한국 정부가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불행히도 한국정부가 정치적 의사표시에 가하던 전반적인 제약을 완화하려고 하거나 삼일절 선언과 관련된 김대중씨와 다른 구금자들의 재판을 중단하고 다른 조치를 취하려는 조짐은 전혀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한국에 대한 우리의 지속적인 안보적 관심이 차지하는 비중을 잘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의 대한 정책은 한반도에서 평화와 동북아지역에서의 안보를 유지하는데 계속 초점을 둘 것입니다. 한국에서 우리가 주둔하는 것과 우리가 추진하는 계획들은 한반도와 일본을 포함한 지역 전체적으로 안보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시키고 지속적인 평화 체제를 모색하는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한국의 인권 상황은 우리의 정책을 고려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안부를 전하며

Max L. Friedersdorf

✉ to the President

■ [한국의 인권상황 및 안보적 이해]

- | | |
|---------------------------------------|-------------------------------|
| • 형태 : 편지 | • 일자 : 1976.4.27 |
| • 발신 : Charles leppert, Jr.(대통령 보좌관보) | • 수신 : Donald M. Fraser(하원의장) |
| • 출처정보 : - | • 관리번호 : CTA0000731 |

도널드 M 프레이저 귀하,

대통령을 대신해서 저는, 4월 2일자 120명의 하원의원 상원하원이 서명하고 한국의 국내 상황에 우려를 표시한 편지에 추가 답신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통령은 당신이 그 나라의 인권 문제에 대한 생각을 대통령께 말씀해 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인권 사안에 대한 우려가 우리가 외교정책을 고려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저는 보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 기준을 침해하는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으며 또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 행정부는 정부의 공식 성명에 담기는 일반적인 원칙으로서 또 한국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안으로서 이러한 입장을 분명히 해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행정부의 대표들은 최근 대한민국 정부의 행동과 관련해서 우려를 표명해 왔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우리는 한국 정부에게 그들의 행동이 미국과 다른 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신중하게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노력을 공개적으로 또 사적인 노력을 통해서 지속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미국이 계속 한국에서 중요한 안보적 이해를 갖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한

반도와 그 지역 전체에서의 평화와 안보를 보존하는데 우리의 대한 정책과 계획은 핵심 요소로 작용해 왔으며 일본을 포함하여 그 지역의 우리 동맹국들도 그렇게 인식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동맹국들은 또한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보다 지속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려는 우리의 외교적 노력을 지지합니다.

그 연속선상에서 우리는, 한국 정부와 한국내 비판세력들 사이에서 한미 안보관계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대한민국 국민들이 국가의 독립성을 유지하려는 커다란 공통의 열망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열망을 지지해왔고 또 그래야 합니다.

본 행정부는 계속해서 한국에서의 인권 준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할 것이며 또 이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우려를 한국 정부에게 분명히 알릴 것임을 다짐해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권을 준수하고 보장해야 하는 우리의 기본적인 목표와 한반도에서의 안보 상황에 대한 구체적이고 기본적인 우려, 양자 사이에 균형을 취하고자 하는 맥락 속에서 지금까지의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안부를 전하며,
대통령 보좌관보 찰스 레파트 2세

■ [한국의 인권 문제에 대한 답신]

- | | |
|-------------------------------------|-----------------------------|
| • 형태 : 편지 | • 일자 : 1976.4.28 |
| • 발신 : Max L. Friedersdorf(대통령 보좌관) | • 수신 : Strom Thurmond(상원의원) |
| • 출처정보 : - | • 관리번호 : CTA0000775 |

스트롬 씨(Strom)에게 :

대통령께서 저에게 한국의 인권 문제에 관한 귀하의 견해를 담은 4월 14자 편지에 감사 인사를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귀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 행정부는 인권 문제에 굉장히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공식(public) 채널과 외교 채널에서 모두 이러한 입장을 명확히 해왔습니다. 한국의 경우, 우리는 한국 국내의 조치들이 미국과 기타 다른 나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한국 정부에 지속적으로 강조해왔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한반도에 강력한 안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러한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는 한국과 우리의 안보 관계는 한국 정부와 그 국내 비판 세력들 간의 문제는 아닙니다.

대통령께서는 한반도의 안보 상황에 관한 귀하의 우려에 물론 공감하고 계십니다. 그는 저에게 이 행정부에서는 한국의 인권 관행과 관련한 정부와 미국민의 우려를 분명하게 하는 동시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지속적으로 전념할 것임을 귀하에게 보증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Sincerely,

맥스 L. 프리더스도르프(Max L. Friedersdorf)
대통령 보좌관(Assistant to the President)

■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

- | | |
|-------------------------------------|-------------------------------|
| • 형태 : 편지 | • 일자 : 1976.4. |
| • 발신 : Max L. Friedersdorf(대통령 보좌관) | • 수신 : Donald M. Fraser(하원의장) |
| • 출처정보 : - | • 관리번호 : CTA0000731 |

도널드 프레이저 의원 귀하,

대통령께서는 4월 2일자 120명의 하원의원 상원하원이 서명하고 한국의 국내상황에 우려를 표시한 편지에 제가 대신 추가 답신을 드리도록 지시하셨습니다. 대통령은 당신이 그 나라의 인권 문제에 대한 생각을 대통령께 말씀해 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로 - 삭제표시) 인권 사안에 대한 우려가 우리가 외교정책을 고려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저는 보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 기준을 침해하는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으며 또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 행정부는 정부의 공식 성명에 담기는 일반적인 원칙으로서 또 한국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안으로서 이러한 입장을 분명히 해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행정부의 대표들은 최근 대한민국 정부의 행동과 관련해서 우려를 표명해 왔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우리는 한국 정부에게 그들의 행동이 미국과 다른 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신중하게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노력을 공개적으로 또 사적인 노력을 통해서 지속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미국이 계속 한국에서 중요한 안보적 이해를 갖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한반도와 그 지역 전체에서의 평화와 안보를 보존하는데 우리의 대한 정책과 계획은 핵심 요소로 작용해 왔으며 일본을 포함하여 그 지역의 우리 동맹국들도 그렇게 인식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동맹국들은 또한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보다 지속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려는 우리의 외교적 노력을 지지합니다.

그 연속선상에서 우리는, 한국 정부와 한국 내 비판세력들 사이에서 한미 안보관계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대한민국 국민들이 국가의 독립성을 유지하려는 커다란 공통의 열망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열망을 지지해왔고 또 그래야 합니다.

본 행정부는 계속해서 한국에서의 인권 준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할 것이며 또 이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우려를 한국 정부에게 분명히 알릴 것임을 다짐해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권을 준수하고 보장해야 하는 우리의 기본적인 목표와 한반도에서의 안보 상황에 대한 구체적이고 기본적인 우려, 양자 사이에 균형을 취하고자 하는 맥락 속에서 지금까지의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 [모건 위원장에게 보내는 대통령의 편지와 사본]

- | | |
|-------------------------------------|-------------------------|
| • 형태 : 비망록 | • 일자 : 1976.5.19 |
| • 발신 : Max L. Friedersdorf(대통령 보좌관) | • 수신 : 파일 담당(the files) |
| • 출처정보 : 포드기록관 백악관자료 | • 관리번호 : CTA0000775 |

모간 위원장에게 보내는 대통령의 편지- 제록스로 복사한 사본들이 다음과 같은 사람들에게도 전달되었음.

M.C. 엘포드 체더베르그(Elford Cederberg)

MC 조지 매혼(George Mahon)

M.C. 클레멘트 자브로키(Clement Zablocki)

MC. 에드워드 더윈스키(Edward Derwinski)

M.C. 윌리엄 브룸필드(William Broomfield)

M.C. 오토 패스맨(Otto Passman)

제거(Stripping)

참고로 원본은 맥스 프리더스도르프의 사무실에서 전달되었습니다. 사본들 역시 전달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원본 파일은 국가안보위원회(National Security Council)로 돌려보냈습니다...이것은 중앙 파일 보관소(Central Files records) 용입니다.

■ 한국 PL-480 상한선에 관해 모간 위원장에게 보낼 서한

- | | |
|-----------------------------------|------------------------|
| • 형태 : 비망록 | • 일자 : 1976.5.19 |
| • 발신 : Brent Scowcroft(백악관 군사보좌관) | • 수신 : Jerry Ford(대통령) |
| • 출처정보 : THE WHITE HOUSE 2920 | • 관리번호 : CTA0000775 |

우리는 대통령께서 서명만 하시면 되도록 Tab A에 모간 위원장에게 보낼 서한을 준비했습니다. 이 서한은 FY 76과 FY 77을 위해 한국에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하는데 상한선을 부과하는 프레이저(Fraser) 수정안에 대한 당신의 반대 의견을 강력하게 표명하고 있으며 당신이 요구하는 (예산) 수준에 대한 전면 승인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OMB(Ogilvie), 맥스 프리더스도르프, 그리고 잭 마쉬(Jack Marsh)가 의견의 일치를 봤습니다. 하트만(Hartmann) 씨 사무실의 더그 스미스(Doug Smith)가 이 서한의 원문을 승인했습니다.

제안

Tab A의 모건 위원장에게 보내는 서한에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스크로프트 장군이 오늘 오후 1시 30분까지 미 의회에 도착해야 했기 때문에 레스 얀카(Les Janka)가 스크로프트 장군에게 손수 건네주었습니다.

로라(Laura)가 서한 복사본들이 매혼(Mahon) 의원, 체더베르그(Cederberg) 의원, 패스맨(Passman) 의원, 브룸필드(Broomfield) 의원, 그리고 더윈스키(Derwinski) 의원에게도 보내진 것을 확인할 것입니다.

■ 한국에 대한 지원예산 증액 요청

- | | |
|--------------------------|--|
| • 형태 : 편지 | • 일자 : 1976.5.19 |
| • 발신 : 워싱턴 백악관 | • 수신 : Thomas E. Morgan(하원 국제관계 위원회 위원장) |
| • 출처정보 : THE WHITE HOUSE | • 관리번호 : CTA0000731 |

토마스 E 모건 위원장 귀하

저는 대한민국에 대한 안보 지원과 PL-480조를 제약하는 하원 결의안 13680호 413절에 대한 강력한 반대의 뜻을 표하기 위해 이 서신을 쓰는 것입니다.

이 규정은 PL-480조, 제목 1 한국에 대한 지원 규모에 1975년 7월 1일부터 1977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동안 1억7천5백만 달러의 상한선을 두는 것이 됩니다. 이러한 제한이 의회에서 받아들여지면 1977년 회계연도의 PL-480조 제목 1 한국에 대한 지원 규모를 72% 즉 1억4백만 달러를 삭감하는 것이 됩니다. 비록 한국이 곡물 생산에서 상당한 수준의 자급자족을 이룩했지만 1976년 기준으로 아직도 6억5천만 달러 어치 2천6백만 톤의 곡물을 수입해야 합니다. 미국의 식량 지원 삭감은 한국의 경제성장 잠재력, 그리고 한국의 군사적 자력화 노력에 필요한 금융 능력에도 심각한 제약을 가져올 것입니다.

한국은 1975년의 경우 총 8억8천만 달러 어치의 농산물을 미국에서 수입하는 미국의 주요 농산물시장입니다. 구입 품목에는 쌀과 아메리카밀, 면화와 옥수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PL-480조의 큰 폭 삭감은 또한 안정된 곡물시장에 의존하는 미국 농민들에게도 손해를 입힐 것입니다.

413절은 또 본 행정부가 회계연도 76-77 기간에 요청한 4억8천6백8십만 달러의 한국 안보 지원 예산에서 40%, 즉 2억 달러를 삭감하게 됩니다. 우리는 1976 회계연도 이후에 한국에 대한 물질적 무상원조를 종료하고 그 이후 국방 차관으로 전환하는 기본구상을 안보 지원 요청서에 세심하게 담았습니다. 413절의 예산지원 수준은 이러한 계획에 심각한 차질을 가져오며 1977 회계연도에 완료하려고 하는 대한민국 근대화를 위한 한미 공동계획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F-5E와 F-4E 전투기 및 하푼 미사일을 포함하는 주요 무기도입 계획 역시 심각한 장애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장비는 대한민국이 북한과 군사적 균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것들입니다. 413절은 결과적으로 한국 정부가 가까운 장래에 군사적 자력화를 이룩하는 것을 지원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의 불안정을 가져올 것입니다.

동북아시아에서 평화가 유지되는 것은 미국에게는 커다란 국익 사항입니다. 한반도에서 군사적 균형을 유지하고 남한의 자력화를 이룩하는 것은 이러한 정책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저는 하원에서 하원결의안 13680호 413절을 부결시키고 제가 요청한 예산 규모로 대한 지원을 승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제럴드 R 포드 (서명)

■ [Section 413 of H.R. 13680에 대한 반대 표명]

- | | |
|--------------------------|--|
| • 형태 : 편지 | • 일자 : 1976.5.19 |
| • 발신 : Jerry Ford(대통령) | • 수신 : Thomas E. Morgan(하원 국제관계 위원회 위원장) |
| • 출처정보 : THE WHITE HOUSE | • 관리번호 : CTA0000775 |

모건 위원장님(Chairman Morgan) :

저는 한국에 대한 PL-480과 안보 지원을 제한하는 Section 413 of H.R. 13680에 대한 저의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 이 편지를 씁니다.

이 규정은 1975년 7월 1일에서 1977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한국 지원(Assistance to Korea)’ 타이틀 I, PL-480에 1억7천5백만 달러의 상한을 지우게 될 것입니다. 의회가

이를 수용한다면, 이 제한은 타이틀 I 지원(Title I Assistance) FY 1977 PL-480을 72퍼센트 혹은 1억4백만 달러만큼 삭감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식량용 곡물 자급자족을 달성하는데 엄청난 진전을 이뤘음에도, 여전히 1976년에 약 6억5천만 달러 상당의 약 260만 미터톤의 곡물을 수입해야만 합니다. 미국 식량 지원의 삭감은 한국의 경제적 성장 잠재력과 또한 자국의 군사 자급자족 노력에 자금을 조달하는 한국의 능력을 심각하게 제한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1975년에 총 8억8천만 달러 어치를 구입한, 미국 농업 생산의 메이저 시장입니다. 여기에는 쌀, 상당량의 미국산 밀, 면화, 옥수수 구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PL-480의 과감한 삭감은 또한 안정적인 시장에 농작물을 의존하고 있는 미국 농부들을 곤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413 섹션 또한 행정부가 한국에 대한 안보 지원을 위해 FY 76-77로 요구한 4억8천6백8십만 달러에서 2억 달러 혹은 40%를 삭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FY 76 이후에 한국에 대한 물질적 지원 보조금을 종결시키고 장래에 방위 보장 차관(defense-guaranteed loan)을 대치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기 위해 우리의 안보 지원 수요를 신중하게 계획했습니다. 섹션 413의 자금 공급 수준은 이러한 프로그램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하고 있으며 한국을 위한 한미 합동 근대화 프로그램의 FY 77의 완성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입니다. F-5E와 F-4E 전투기와 크루즈 미사일(harpoon missiles)의 입수를 비롯해 메이저 조달 프로그램들 역시 심각한 지장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장비는 한국이 북과 군사적 균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입니다. 결과적으로 섹션 413은 한국 정부가 장래 군사 자급자족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우리의 노력을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불안정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은 동북 아시아의 평화 보존에 강력한 국가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균형 유지와 한국의 자금 자족 달성은 이러한 정책에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저는 하원이 H.R. 13680의 섹션 413을 철회시킬 것과 제가 요청한 예산 수준에서 한국에 대한 지원을 승인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Sincerely,

제럴드 R. 포드(Gerald R. Ford)

■ [한국에 대한 지속적인 군사적 경제적 지원]

- 형태 : 편지
- 발신 : Jerry Ford(대통령)
- 출처정보 : -
- 일자 : 1976.6.4
- 수신 : Edward J. Derwinski(하원의원)
- 관리번호 : CTA0000731

에드(Ed)에게 ;

저는 당신이 한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경제적 지원 제한에 반대해서 지난 수요일 하원에서 일으켰던 아주 효과적인 그리고 궁극적으로 성공적이었던 캠페인에 대해 나의 진심어린 감사와 축하를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당신의 노력이 없었더라면, 외국 원조 법안에서 이 못 마땅한 규정을 삭제하는데 필요한 표가 마련되지 않았을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너무나도 설득력 있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국에 대한 우리의 지원 프로그램을 그렇게 과감하게 삭감하는 것은 장기적인 동맹국과의 우리의 관계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할 것이며 전략적으로 중요한 한반도에 새롭게 불안정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군 현대화 계획의 진척과 필요한 미국 농산물을 수입하는 이 나라의 능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려는 의도적인 목표에서도 역효과를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미국이 입법부의 명령을 통해 외국의 국내 정치를 변화시킬 수는 없다는 것을 가슴 아프게 깨닫고 있습니다.

저는 저에게 그리고 미국 국민들에게 너무나도 중대한 이 문제에 관한 당신의 정력적인 지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Sincerely,

제리 포드(Jerry Ford)

■ [서북도에 대한 북한의 공격에 긴급대책계획]

- 형태 : 전문
- 발신 : Bud McFarlane(백악관 보좌관)
- 출처정보 : THE WHITE HOUSE 2280
- 일자 : 1976.6.14
- 수신 : Clint Granger, Tom Barnes
- 관리번호 : CTA0000690

빌(Bill)은 첨부한 문서를 검토하고 난 후 서북도에 대한 북한의 공격에 긴급대책계획을 세워야한 한다는 절박한 필요성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귀하의 접근에 당혹스러워 하고 있으며 워싱턴특별대책반이 왜 그러한 일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대신 그것은 국무부와 국방부, CIA, NSC로 구성되고 국무부가 의장직을 맡는 Ad Hoc group에 의해 수행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한 개의 tasking 메모는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귀하는 그와 같은 메모를 오늘 그가 서명할 수 있도록 그에게 되돌려 줄 수 있습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방부 차관보

I-21862/76에 대한 회답

국가안보회의 Staff Secretary 비망록

주제 : 한국의 서북도의 방위에 대한 평가와 선택에 관한 요청

귀하의 1976년 4월 20일자 요청에 따라, 북한의 공격에 서북도의 취약성에 대한 평가와 그 방어를 위한 선택을 첨부물로 동봉하여 보내드립니다.

W. J. Crowe, Jr.

미해군 소장,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국장

■ [판문점 사건 대응책]

- | | |
|--|---------------------------------------|
| • 형태 : 전문 | • 일자 : 1976.8.18 |
| • 발신 : William G. Hyland
(국가안보 담당 대통령 부보좌관) | • 수신 : Brent Scowcroft
(백악관 군사보좌관) |
| • 출처정보 : EXCLUSIVELY EYES ONLY | • 관리번호 : CTA0000770 |

오늘 오후 의장을 맡고 있는 HAK과 함께 워싱턴특별대책반(WSAG)을 45분 동안 열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나 내일 할 수 있는 쇼핑 리스트를 첨부합니다. 특별반의 일반적인 견해는 첫 번째, 한국 군대에 경계태세를 내리고, 두 번째, 사고의 지역으로 되

돌아가서 그 망할놈의 나무를 베어버린 후, 세 번째, 오늘밤 F-4기들을 이동시켜, 네 번째, 내일 몇대의 F-111기와 항모기동대를 이동시킬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귀하께서 추측하신 대로 실제 군사적 행동에 대해 매우 망설이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워싱턴특별대책반은 우리가 어떤 응징 조치를 취할지를 모색하기 위해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소집될 것입니다. 브라운(Brown)을 대신해 앉아있는 홀로웨이(Holloway)는 선박들과 초계정 등의 나포를 제기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비무장지대(DMZ)의 동쪽 끝지역에서 매우 제한적인 공습을 개시하는 견해를 HAK에게 말씀드렸는데, 그곳은 예측불가능한 곳이며 우리가 다룰 수 없는 것을 반드시 폭발시킬 필요도 없는 곳입니다. 그는 이 아이디어를 어느 정도 고려하는 듯 보였습니다.

(삭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군의 경계태세와 F-4기의 이동이 오늘 저녁 공개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귀하께 보내드릴 몇 가지 중요한 보도 지침을 가능한 한 빨리 내올 것입니다.

행동지침 :

1. 오늘밤 데프콘3(DEFCON3)을 한국의 군대에 내린다.
2. 오늘밤 F-4 편대를 일본에서 한국으로 이동시킨다.
3. F-111기들의 이동을 대기시킨다.
4. 항모기동대(미드웨이 MIDWAY)의 이동을 대기시킨다.(장소에 대한 논의는 없다-일본 해?)
5. 한국에서의 B-52의 폭격 개시를 위한 준비를 시킨다.(72시간?)
6. 오늘밤 보도 지침을 준비한다. 핵심어는 “계획된 살인의 속성상 특별한 예방 조치들이 착수중에 있음”
7. 전쟁포로 통고에 대한 질문을 검토한다.
8. 초기 협의 : 일본, 한국
9. 군사정전위원회(MAC)에서 작성된 미국 성명서를 수정한다(이미 완료되었나?) (국어를 사용한다.)
11. 김일성에게 보내는 스틸웰의 편지를 미결로 둔다.

내일 아침 워싱턴특별대책반에

1. 한국에 어떤 추가 배치가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
2. 어떤 군사적 조치(응징의)들이 취해질 것인가?
3. 어떤 추가적인 외교적 조치들-미국, 러시아, 중국 등-이 취해질 수 있거나 취해져야 하는가?
4. 의회의 협의기구를 다룰 계획.
5. 내일 저녁(우리의 시간으로)에 공동경비구역(JSA)의 나무를 자르는 시나리오에 대해 스틸웰에게 문의할 것

■ [대통령의 조문에 대한 국방부의 초안]

- | | |
|---------------------|-------------------------------|
| • 형태 : 전문 | • 일자 : 1976.8.18 |
| • 발신 : John Matheny | • 수신 : Bud McFarlane(백악관 보좌관) |
| • 출처정보 : - | • 관리번호 : CTA0000770 |

대통령의 조문에 대한 국방부의 초안을 첨부합니다. 육군 부관참모와 협의한 후 국방부가 비슷한 내용의 조문을 생존자들에게 보내도록 즉, 배우자들과 부모들에게 각각 다른 내용의 편지를 보내되 각각의 배우자들과 각각의 부모들 끼리에는 비슷한 내용의 편지를 보내도록 권고한다고 엘머 브룩스(Elmer Brooks)는 조언하였습니다. 사실, 그 조문들은 동일한 가족 내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 - 그래서 저는 부모에게 보내는 조문의 재작성된 초안을 넣었습니다.

■ [국무부, 국방부 등에서 사용될 언론 지침서를 송부함]

- | | |
|--|---------------------------------------|
| • 형태 : 전문 | • 일자 : 1976.8.18 |
| • 발신 : William G. Hyland
(국가안보 담당 대통령 부보좌관) | • 수신 : Brent Scowcroft
(백악관 군사보좌관) |
| • 출처정보 : - | • 관리번호 : CTA0000770 |

혹시 오늘 저녁에 요구가 있을지 몰라 국무부, 국방부 등에서 사용될 언론 지침서를 송부합니다.

언론 지침서(질문이 제기될 시에만 사용)

질문 : 공동경비구역에서 북한의 공격에 대응하여 우리는 어떠한 군사적 행동을 취할 예정입니까?

답변 : 우리는 한국에 있는 병력에 경계태세를 높일 것에 대한 예방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높아진 경계태세는 공동경비구역에서 발생한 공격이 정당한 이유가 없고 미리 계획되었으며 그 결과 두 명의 미국 장교의 살해와 미군과 한국군의 부상을 초래했다는 관점에서 취해졌습니다.

질문 : 앞으로 한국에 있는 군대에 어떤 변화가 있게 됩니까? 다른 어떤 조치들이 취해졌거나 아니면 계획되고 있습니까?

답변 : 우리는 취해질 수 있는 어떤 다른 조치들에 대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 [조선에서 살해된 장교들의 가장 가까운 친척들에게 보내는 편지 초안]

- 형태 : 편지
- 발신 : Staser Holcomb (국방장관 군사보좌관 미국 해군 소장)
- 출처정보 :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 일자 : 1976.8.18
- 수신 : 대통령 안보담당 보좌관
- 관리번호 : CTA0000770

1976년 8월 18일 조선의 비무장지대(DMZ)에서 살해된 미국 육군 장교들의 가장 가까운 친척들에게 보내는 편지 초안을 첨부합니다.

1976년 8월 18일 17시30분 현재, 두 명의 장교의 부모들과 보니파스(Bonifas) 대위의 아내는 개인적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레트(Barett) 중위의 아내는 연락이 닿지 않아 아직 통보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바레트 중위의 가족들에게 보내는 백악관의 편지를 그 배우자가 육군으로부터 공식적인 편지를 받기 전까지 보류하기를 권고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진행되는 대로 가능한 한 조속히 전화로 귀하께 알려드릴 것입니다.

M. Staser Holcomb
미국 해군 소장, 군사보좌관

친애하는 바레트(Barett) 여사께

저는 귀하의 남편인 한국에서 복무중인 미국 육군 중위 마크 바레트(Mark T. Barett)의 사망을 알려드리게 되어 매우 슬프습니다. 이번 귀하의 사별에 대해 어떤 애도의 말도 적절치 않습니다. 저는 귀하의 남편이 사망 당시 지휘자의 지위에서 나라를 위해 적극적으로 복무하고 있었음을 귀하가 자랑스러워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는 전세계를 대표하는 우리나라의 자유 수호를 위해 직접 공헌하였습니다.

이번의 슬픔에 삼가 조의를 표하는데 있어 포드 여사도 저와 함께 하였습니다.

진심어린 마음으로,

제럴드 R. 포드

친애하는 바레트 여사께

저는 귀하의 아들인 미국 육군 중위 마크 바레트의 사망을 알려드리게 되어 매우 슬프습니다.

저는 이번 사별에 있어 어떤 말로도 위로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는 나라를 위해 귀하의 아들이 복무하였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는 우리나라가 전세계에 지원하고 있는 자유를 수호하는데 직접 공헌하였습니다.

이번의 슬픔에 삼가 조의를 표하는데 있어 포드 여사가 저와 함께 하였습니다.

진심어린 마음으로,

제럴드 R. 포드

■ 남한에 전폭기 대대 추가 배치 문제

- | | |
|---------------------------------|-------------------------|
| • 형태 : 비망록 | • 일자 : 1976.8.19 |
| • 발신 : Philip W. Buchen(대통령 자문) | • 수신 : Edward Schumults |
| • 출처정보 : THE WHITE HOUSE | • 관리번호 : CTA0000795 |

첨부 문서는 위 주제에 대한 대략적인 메모 초안이며, 매우 적은 수의 조종사로 구성된 전폭기 대대를 추가적으로 한국에 배치하는 것이 War Powers Resolution 4(a)절에 저촉되

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나는 이 메모가 시작 부분에서 사실의 해석을 더 정교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자리를 비운 동안 이 메모를 완성하는 일이 당신에게 요구될 수도 있다.

첨부자료.

비망록

최근 남한에서의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일반적인 군사적 “경계”의 일환으로 38대의 미 전폭기와 통상적인 지원 인력이 보통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72대의 전폭기와 지원 인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남한 영토 내로 이동하였다. 이 메모는 그러한 행위 자체로부터 WPR ()에서 요구하는 협의 또는 보고의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의 문제를 다룬다. (각주*)

협의

WPR 3절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다.

* * *

“3절. 대통령은 교전 또는 분명한 상황적 징후에서 긴급한 교전 상황의 발생이 예상되는 상황에 미합중국 군대를 투입하기 전에 모든 가능한 절차를 통해 의회와 협의해야 하며, 그러한 투입 이후에 미합중국 군대가 적대행위에 참여하지 않게 되거나 그러한 상황으로부터 이탈할 때까지 의회와 정기적으로 협의해야 한다.” (emphasis supplied)

* * *

(각주*) WPR의 어떤 규정이나 이에 따른 지금까지의 어떤 입법 과정에서도 여기서 지적하는 군사력의 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으로 행정부의 권한을 제약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 않다. WPR 2(c)절을 보면 “교전”을 수반하는 상황 또는 “분명한 상황적 징후에서 긴급한 교전 상황의 발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행정부의 행동은 (1) 전쟁 선포, (2) 법에서 구체적으로 규

정된 권한 또는 (3) 미국에 대한 공격으로 발생한 국가 위기 상황에 의거하도록 헌법을 해석하고 있다. 분명 이는 여기서 논의하는 상황의 성격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규정은 하원 의안(H.J. 결의안 542호)에서 파생된 것이다. 이 입법안에 첨부된 하원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 * *

“전투가 실제 발생한 상황과 더불어, ‘교전상황’은 발포 행위가 없더라도 무장 충돌의 위험이 분명하고 현재적인 경우의 대결 상태를 아울러 포괄한다. ‘긴급한 교전상황’은 그러한 대립 상태의 가능성이 분명하거나 실제 무장 충돌 상태가 존재하는 상황을 지칭한다.” (외교위원회 보고서 93-287호 6쪽, 1973년 6월 15일.)

* * *

현재 분위기에서 남한에 공군력을 이동하는 것은 WPR의 입법 과정상에서 제기된 유형의 “분명하고 현재적인 위험”이나 실제 무장 충돌의 “분명한 가능성”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대통령이 이 사안에 대하여 의회와 협의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보고

WPR은 또한 동 결의안 4(a)절의 규정 내에서 군사행동의 현황에 관하여 대통령이 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 보고 의무는 미국 군대가 다음 상황에 투입되는 시점으로부터 발생한다.

- (1) 교전상황 또는 분명한 상황적 징후에서 긴급한 교전상황이 예상되는 상황으로의 투입,
- (2) 오직 군사력의 공급, 대체, 보수 또는 훈련에만 관련된 군사력 배치 경우를 제외한, 전투 장비를 갖춘 군사력의 외국 영토, 영공, 또는 수역으로의 투입, 또는
- (3) 외국에 이미 주둔하고 있으면서 전투 장비를 갖춘 미합중국 군대의 규모에 상당한 규모를 증가시키는 투입.

4(a)절 (1)항은 여기서 논의되는 종류의 상황을 설명하지 않는다. (2)항은 최초의 군대 배치만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기 때문에 관련이 되지 않는다 (하원 보고서 7쪽 참조). (주*) 그러나 4(a)절의 입법 역사를 보면 (3)항은 효력은 남한에 보충적인 공군력을 이동할 경우에 발생할 수도 있다.

4(a)절은 하원 의안 (H.J. 결의안 542)에서 파생된 것이다. 4(a)절 (3)항을 논의하면서 하원 보고서는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

“(3) 대통령이 ‘외국에 이미 주둔하고 있으면서 전투 장비를 갖춘 미합중국 군대의 규모에 상당한 규모를 증가시킬’ 때 보고의 의무가 발생한다. ‘상당한’이라는 말은 유동적인 기준을 지칭하는 것이지만, 증가 수치에 대한 상식적 수준의 공통된 이해에 도달하는 것은 가능하다. 대사관에 배치된 해병의 수 (5-10명 선으로 생각한다면)를 100% 늘리는 수준의 조치로부터 보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 현재 상황에서 유럽에 1천명의 추가 병력을 보내는 것은 이미 주둔하고 있는 총 30만명의 미국 군대의 규모를 크게 확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 4천명 선에서 쿠바 관타나모만(Guantanamo Bay)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 1천명의 병력을 증파하는 것은 25%의 증가로서 상당한 규모가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케네디 대통령이 1962년 베트남의 미군 자문관을 700명에서 1만6천명으로 늘렸을 때 그랬던 것처럼 의회에 보고할 의무가 발생할 것이다.” 하원 보고서 93-287호, 7쪽)

(3)항에 대한 상하원의 논의에서 우리는 군사력의 “상당한” 증가의 성격에 대한 더 이상의 지침을 찾을 수 없다.

주* “...(1)항은 무장 충돌이 실제로 진행 중인 지역에 미국 군대를 투입하는 것에 적용되지만, (2)항은 실제 전투행위는 없지만 비록 낮은 수준이지만 교전행위에 관여할 위험도가 존재하는 상황으로 군대를 최초로 투입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mphasis supplied)

제안

법적인 관점에서 이번 사안에 대하여 의회와 “협약”할 의무가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협상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그 어떤 경우라도 이러한 상황에서 협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공군력 증가에 대한 공식 또는 비공식 보고에 대해 있을지 모르는 선정적인 반응을 진정시키는 방법이 될 것이다 - 즉 “교전 또는 분명한 상황적 징후에서 긴급한 교전 상황의 발생이 예상되는 상황에...” 군대의 증파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협약”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강조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원의장에 공식적으로 보고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상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시 보고(pro tem) 필요성이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관건은 남한에서 우리 군대의 “상당한” 증가가 발생했는지 여부가 된다. 다음 두 가지 사항을 사안의 처리 원칙으로 삼을 수 있다. 첫째, 기준이 되는 상당한 수준 여부는 장비나 화력이 아니라 오직 병력 규모로 규정되어야 한다. 둘째로 상당한 수준 여부를 판단하는데 상대적 제약과 절대적 제약 모두 제거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으로부터 우리는 수 천명 규모의 군사력에 수 백명의 병력을 증파하는 것은 상당한 규모의 증파가 아니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삭제 내용: 그러나 (결의안에 따른 의무에서가 아니라)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의 일환으로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보고”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이번 상황에서는 결의안의 일반 정신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보다 분별 있으며 또 일관성이 있는 행동일 것이다.)

■ [스틸웰 계획에 대한 권고사항]

- | | |
|--|-----------------------------------|
| • 형태 : 전문 | • 일자 : 1976.8.19 |
| • 발신 : William G. Hyland
(국가안보 담당 대통령 부보좌관) | • 수신 : Brent Scowcroft(백악관 군사보좌관) |
| • 출처정보 : - | • 관리번호 : CTA0000771 |

1. 저는 빌 클레멘츠(Bill Clements)와 홀러웨이(Holloway) 장군과의 상당히 긴 대화를 방금 끝냈습니다. 필 하비브(Phil Habib)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었지만, 그가 그의 견해를 주장했다는 것을 키신저 장관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귀하께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는 우리가 전쟁으로 확대될 수도 있는 일련의 위험한 사고들을 일으키지 않도록 세심한 신경을 써왔습니다.) 제가 보기에 다음 세 가지 문제들에 대해 내일 동부서머타임으로 9시 정각이 되기 전에 우리는 상당히 분명한 지침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1) B-52의 비행 연습의 시작 (2) 나무 절단 대작전 (3) 나무 작전과 연계되거나 혹은 뒤따를 추가적 군사적 행동.

2. B-52기들에 있어서 우리가 그 나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상관없이 우리는 B-52기의 비행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에 동의하고 있다고 믿으며 필요한 리드 타임(lead time)이 B-52기들을 상공의 목표물 지역 위에 있게 하도록 실행 메시지가 오늘 저녁에 나갈 것입니다. 동일한 시간에, 즉 내일 EDT(동부서머타임) 18시 정각에 스틸웰은 그의 나무 작전을 착수할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우리가 다른 말을 듣지 않는 한 이것은 실행될 것입니다.

3. 그 나무의 제거와 관련하여 워싱턴에서 강한 견해 차이들이 있습니다. 합참은 스틸웰 장군의 계획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홀러웨이와 상의한 후에 야전 사령관에 대한 충성심이 떨어졌고 이를 전에 우리가 운전하여 빠져 나온 지역에서 우리는 강한 남자다운 모습을 보여줘야만 한다는 인식하에 그들이 그것을 지지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장관님들은 심각한 위험과 사상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빌 클레멘츠는 스틸웰의 계획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것이 인민군들에게 공격의 효과적인 미끼를 주어 대규모 전투를 낳게 할 것이며 따라서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그 나무를 제거해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헬리콥터로 들어가 네이팜탄(napalm)이 든 가방을 떨어뜨린 후 지켜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포격을 보여 그 나무를 불태워버리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세 번째 대안은 그 나무를 무시하는 척하다가 우리가 선택한 내일의 어느 시간에 보복으로 그것을 취급하여 야포 발사로 북한 병영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대안은 클레멘츠와 장관님들이 만장일치로 반대한 것으로 우리가 그 나무를 베고 있는 같은 시간에 하비브가 야포 공격을 지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것은 노출된 지역에 있는 나무 절단사들에게

총격을 가할 큰 위협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대안은 스틸웰의 나무 절단 계획을 따르는 것으로 만일 그것이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철수시키고 야포로 북한 병영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4. 특히, 만일 미국군 라이플총 1중대와 한국군 1대대의 이동 등을 포함한 그의 전체 계획이 제 위치에 있고 EDT(동부서머타임) 18시 정각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있다면, 분명히 스틸웰 장군은 어떤 방법이 결정되든간에 준비할 실질적인 리드 타임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5. 상당한 고민 끝에 저의 권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스틸웰의 계획을 진행할 것 (b) 만일 스틸웰이 비우호적인 사격을 받는다면 즉시 철수하여 일단 그의 병사들을 안전하게 한 후 북한 병영에 야포 공격을 개시하고 그리고 나서 북한군으로부터 받을 불가피한 대응 야포 공격에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스틸웰에게 지시할 것. 만일 이 시나리오가 진행된다면, 귀하와 대통령, 그리고 헨리(Henry)는 잠시 멈춰 미군의 이동을 매우 신중하게 고려할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저는 북한군이 유혈 싸움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저의 생각으로는 아마도 총격 싸움없이 스틸웰이 나무를 베고 가도록 놔둘 것이라는 확신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6. 요약하면, 우리는 스틸웰의 계획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중지할 것인지를, 혹은 다른 대안이 있는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7. 만일 귀하가 대응 야포 공격보다는 오히려 그 나무 작전을 우회하는 쪽으로 결정한다면, 우리는 한국인들에게 가서 우리의 계획을 설명하고 스틸웰이 야포 사정거리 내에 있는 병사들에게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도록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의 시간으로 내일 아침에 결정이 내려진 후에 그가 이것을 매우 쉽게 수행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8. 어쩌면 귀하는 이것의 일부 다른 변동사항들이나 더 나은 시나리오를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이것은 저의 옛날 고향집에서 TV 프로그램들을 열심히 보며 여러 등장인물들을 가지고 하루 종일 싸운 후의 상황처럼 보입니다.

9. 귀하가 마음에 두어야 하는 실제 도움이 될만한 두 가지의 추가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만일 나무 절단팀이 도착하여 그 지역을 많은 수의 북한군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스틸웰은 돌격하여 싸움을 시작할지 아니면 잠시후 철수할지에 대해 매우 분명한 지시를 필요로 할 것입니다. 이것은 내일 약 18시 또는 귀하와 대통령,

또는 키신저와 같은 핵심 인물들이 실제로 즉시 응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 무렵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만일 나무를 베는 동안에 역전되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실제 총격 싸움이 진행된다면, 그것 또한 EDT(동부서머타임)로 18시30분경에 일어날지 모르며, 우리가 즉각적인 대응을 할지에 대한 분명하고 신속한 몇가지 지침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점에서 우리의 유일한 대안은 돌아오지 않는 다리와 북한 병영 지역에서 계속해서 총격을 가하는 것입니다.

10.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자면, 수많은 행동들이 동시에 일어날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십시오. F-111기들이 우리 시간으로 약 4시 정각에 제 위치에 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 임무부대 77.4는 우리 시간으로 내일 약 19시 정각에 진행에 들어갈 것이며 B-52의 비행 연습이 그 사이에 일어날 것입니다.

11. 마지막으로 첨부하는 것은 전쟁권한법(War Powers Act)의 통보에 관한 것입니다. 만일 제가 관료들 알고 있다면, 그들은 통보를 과감히 하고 대통령께서 대 캔사스 주에 있으면서 얼마간 그것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결정할 것입니다. 하지만 법은 우리에게 48시간만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귀하가 베일(Vail)에 도착한 후에야 아마도 그것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귀하는 매파 의원들이 그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미국의 무장력을 증강”하기 위해 18대의 F-4기와 20대의 F-111기의 추가를 아마도 결정할 것이라고 대통령께 조언하기를 원할지도 모릅니다.

12. 귀하가 내일 아침이나 오늘밤 늦게 소식을 듣고자 한다면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13. 따뜻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 [북한에 대한 유엔 차원의 제재 모색]

- | | |
|-------------------------------|----------------------------|
| • 형태 : 전문 | • 일자 : 1976.8.19 오전 10시30분 |
| • 발신 : G. V. Montgomery(하원의원) | • 수신 : Jerry Ford(대통령) |
| • 출처정보 : - | • 관리번호 : CTA0000704 |

대통령, 백악관

정당한 이유 없이 미국 병사에 가한 잔인한 공격에 대해 유엔에서 북한에 가할 가능한

가장 강력한 비난과 제재를 모색하도록 당신이 스크랜톤(Scranton) 대사에게 지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원의원 G. V. 몽고메리(Montgomery), 미시시피 3선거구

■ 제안된 보도 지침 초안

- | | |
|--|--|
| • 형태 : 문서 | • 일자 : 1976.8.20 |
| • 발신 : William Gleysteen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보좌관보) | • 수신 : Bill Hyland
(국가안보 담당 대통령 부보좌관) |
| • 출처정보 : - | • 관리번호 : CTA0000769 |

8월 20일 한국시간으로 약 오전 7시에 유엔군 사령부의 작업 부대는 8월 18일에 북한군이 이전의 작업 부대가 베지 못하게 했던 나무를 잘랐다.

두 명의 미국 장교의 잔인한 살해와 관련이 있는 북한의 행동은 중립적인 공동경비구역 안에서 군사행동을 취하는 것은 중대한 유엔군 사령부의 권리 침해이었다. 그것은 공동경비구역 안에 있는 유엔군 사령부 부대의 향후 안전을 위협하는 시도이었다.

이미 지적된 바와 같이, 이 나무는 DMZ의 공동경비구역에 있는 유엔군 사령부의 경비 초소의 시야를 막고 있었다. 이 방해물의 제거는 이 초소에 배치되어 있는 경비대의 안전에 필수 불가결한 것이었으며, 따라서 정전협정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유엔군 사령부의 능력에 필요한 하나의 조치였다.

■ [미국 병사 습격에 관한 전문 수신 통지]

- | | |
|--------------------------------------|---------------------|
| • 형태 : 전문 | • 일자 : 1976.8.20 |
| • 발신 : Charles Leppert Jr.(대통령 부보좌관) | • 수신 : Sonny |
| • 출처정보 : - | • 관리번호 : CTA0000704 |

친애하는 소니(Sonny)씨께

이것은 한국에서의 미국 병사 습격에 관해 대통령께 보낸 당신의 8월 16(?)일 전문을

수령했음을 통지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권고서는 대통령의 대응을 위해 즉시 제출되었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진심어린 마음으로,
대통령 부보좌관 찰스 랩퍼트(Charles Leppert)

■ 한국

- | | |
|------------------------------------|---------------------|
| • 형태 : 비망록 | • 일자 : 1976.8.23 |
| • 발신 : Max Friedersdorf(대통령 부 보좌관) | • 수신 : Jack Marsh |
| • 출처정보 : THE WHITE HOUSE | • 관리번호 : CTA0000698 |

벤 길먼(Ben Gilman) 대표는 대통령께서 한국에서 살해된 두 명의 미국인들의 미망인들에게 전화를 하고 내일 8월 24일 화요일에 웨스트포인트(West Point)에 있을 장례식에 대표를 한명 보내도록 요청하였습니다.

희생자 중 한 명인 아서 조이지 보니파스(Arthur George Bonifas) 소령은 길먼의 구역에 사는 거주자였습니다.

길먼은 주말에 미망인을 방문하였고 그녀는 대통령으로부터 들은 요구사항을 표시했습니다.

장례식은 웨스트포인트에 있는 홀리 트리니티 채플(Holy Trinity Chapel)에서 8월 24일 정오에 거행됩니다.

보니파스 여사의 전화번호는 AC914/564-0603입니다. (마샤 맥가이어 보니파스 Marcia McGaire Bonifas)

함께 받는 이 : 브렌트 스코우크로프트

■ [대통령과 스크랜튼 대사와의 대화]

- | | |
|--------------------------|-------------------------------|
| • 형태 : 비망록(대화록) | • 일자 : 1976.8.30 오후 12시35분~1시 |
| • 발신 : - | • 수신 : - |
| • 출처정보 : THE WHITE HOUSE | • 관리번호 : CTA0000656 |

대화록

참석 : 제럴드 R. 포드 대통령

 암 윌리엄 W. 스크랜톤 유엔 주재대표

 브렌트 스코크로프트 대통령 국가안보 보좌관보

일시 : 1976년 8월 30일, 오후 12시 35분~1시

장소 : 대통령 집무실

스크랜톤 : 나는 남부아프리카의 상황에 대한 키신저의 설명이 정확하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생각보다 상황이 더 빨리 전개될 것이다. 그리고 더 악화될 수 있다.

대통령 : 나는 그 문제와 한국에 대한 나의 입장이 분명히 전달되었으면 한다.

스크랜톤 : 헨리는 훌륭한 일을 많이 했지만 내가 알기로 그가 추진한 아프리카 정책보다 더 빼어난 것은 없었다. 그는 정말 대단하다.

Politics

당내 온건파의 문제는 이들에게 무언가 할 일을 줌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펜실베이니아. 문제가 좀 있다. 하나는 슈바이커(Schweicker) 문제인데 그는 이것이 자기 잘못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는 야심에 찬 인물이며 딘(Dean)이나 나 등의 사람들에게 억한 감정을 갖고 있다. 그는 자기 문제를, 즉 그 문제가 자기 문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그가 우리와 다시 협력하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 또 우리는 딘이 우리와 함께 하도록 해야 한다.

UN

나는 우리의 다자간 외교활동이 매우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고 확신한다. 앞으로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제3세계가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나의 작업이 독무대가 아닌 팀 작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나의 결심이다. 나는 이러한 팀을 잘 유지해서 이번 회기에 활동을 벌여야 한다. 만약 당신이 이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헨리 키신저나 브렌트가 동의하지 않

는다면- 나에게 알려달라.

대통령 : 동의를 포함

스크랜튼 : 4가지 주제가 제기되었거나 제기될 것이다: 잠비아 문제가 이미 제기되었다. 베트남의 유엔 가입 문제; 앙골라의 유엔 가입 문제; 나미비아 - 이 사안들은 헨리가 잘 처리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사안들을 놓고 제3세계 전체와 맞설 수는 없다.

나미비아 건은 잘 진행되고 있다; 베트남 건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도 괜찮지만 나는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다. 헨리는 앙골라 건에 기권표를 던지고 싶어 하는데 비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쪽으로 생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는 쿠바에 관해서는 정말로 좋은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다. 조지도 좋은 정보가 없는데 대통령은 가능한 최선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나는 이 사안에 대통령이 기권할 것을 촉구한다.

대통령 : 나는 우리의 선택이 헨리가 추진하는 일에 결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그런 방향으로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기권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국내 상황으로 볼 때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나는 헨리와 당신 그리고 브렌트의 뜻을 따를 것이다.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

스크랜튼 : 또 한 가지는 유엔에서의 대통령 연설 건이다. 나는 현재 이 구상에 반대한다. 어떤 중요한 계기가 주어지면 생각을 바꿀 수 있지만 현재로는 좋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대통령 : 당신과 헨리가 그 점에서 생각이 같다. 열개의 스트라이크를 잡는 것이 아니라면 나 역시 그 구상이 내키지 않는다. 현재로는 그럴 가능성이 안 보인다.

스크랜튼 : 우리는 현재 자문위원회 안에서 불리한 상황이다. 크롤은 할 수 없다 (바티칸 대문이다); 애덤스는 판사이고 또 정부 부처간 갈등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

■ [선거운동 지지에 대한 감사]

- 형태 : 편지
- 발신 : Jerry Ford(대통령)
- 출처정보 : -
- 일자 : 1976.9.9
- 수신 : Bubba(공화당 집행위원)
- 관리번호 : CTA0000704

친애하는 뉘바(Bubba)씨께

당신의 사려깊은 서신에 감사드립니다. 저 역시 캔사스를 방문하게 되어 즐거웠으며 당신과 팻시(Patsy)를 곧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고대하는 바입니다.

지난 2년간에 대한 우리의 성적은 긍정적인 것이었으며, 저는 그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번영과 평화, 대중의 신뢰가 꾸준히 증진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은 굳건하고 안전하며 완전한 경제 회복과 모든 시민들의 더 나은 삶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도전은 이러한 성취의 성적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저는 이번 선거운동에 대한 당신의 지지와 도움의 약속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도움으로 저는 11월 선거에 승리하여 집권을 계속 이어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마치며, 당신이 잭슨 카운티 공화당 집행위원회의 위원들의 결의를 얻기 위해 저 대신 감사의 말을 전하고 애쓰신 모든 일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진심어린 마음으로,
제리 포드(Jerry Ford)

■ [앨범 선물에 대한 감사]

- 형태 : 편지
- 발신 : Jerry Ford(대통령)
- 출처정보 : THE WHITE HOUSE
- 일자 : 1976.9.10
- 수신 : Mitsunori Ueki(일본 수상)
- 관리번호 : CTA0000781

장관님께 :

1974년 아카사카 궁전에서 제가 심었던 더그우드 나무의 사진을 포함한 멋진 앨범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일본 방문의 기념품을 받게 되어서 정말 기쁘며 귀하의 사려깊은

선물은 특히 그것이 대표하고 있는 호의와 함께 귀중하게 간직될 것입니다.

깊은 감사와 인사를 담아.

Sincerely,

제럴드 R. 포드

■ 몽고메리 하원의원으로부터 온 한국에 관한 전문에 대한 회신

- | | |
|--|---------------------------------------|
| • 형태 : 비망록 | • 일자 : 1976.9.22 |
| • 발신 : William Gleysteen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보좌관보) | • 수신 : Brent Scowcroft
(백악관 군사보좌관) |
| • 출처정보 : NATIONAL SECURITY COUNCIL 4746 | • 관리번호 : CTA0000704 |

몽고메리 하원의원은 8월 18일 사고에 대하여 북한에 대해 유엔에 탄핵을 요구할 것을 권고하는 전문을 대통령에게 보내왔습니다.(표B)

첨부한 표A에 우리가 취한 조치를 의원에게 보고한다는 프리더스도르프(Friedersdorf)씨의 서명을 요망합니다. 편지에는 평양에 대한 유엔의 비난을 얻어내기 위한 충분한 표를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는 내용이 씌어져 있습니다. 편지는 우리의 대응의 효과를 강조하며 마치고 있습니다.

권고 : 맥스 프리더스도르프씨께서 표I의 비망록에 서명하여 주십시오.

■ 몽고메리 의원으로부터 온 한국에 관한 전문에 대한 회신

- | | |
|-----------------------------------|------------------------------------|
| • 형태 : 비망록 | • 일자 : 1976.9.27 |
| • 발신 : Brent Scowcroft(백악관 군사보좌관) | • 수신 : Max Friedersdorf(대통령 부 보좌관) |
| • 출처정보 : THE WHITE HOUSE 4746 | • 관리번호 : CTA0000704 |

하원의원 몽고메리는 판문점에서의 미국 병사에 대한 북한의 공격에 대해 유엔에 탄핵을 요구할 것을 촉구하는 전문을 대통령께 보내왔습니다.(표 B)

첨부한 표A에 당신의 서명을 요망합니다.

■ [북한에 대한 유엔 차원의 제재 모색]

- 형태 : 편지
- 발신 : Max Friedersdorf(대통령 부 보좌관)
- 출처정보 : THE WHITE HOUSE
- 일자 : 1976.9.27
- 수신 : Sonny
- 관리번호 : CTA0000704

친애하는 소니(Sonny)씨께

대통령께서는 저에게 판문점에서 일어난 두 명의 미국 장교의 잔인한 살해에 대해 유엔이 북한을 비난하고 제재를 가하도록 미국이 요구할 것을 촉구하는 당신의 전문에 대해 답장하도록 부탁하셨습니다. 편지에 나타난 당신의 소감에 대해 우리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만, 우리는 잠시 유엔의 개입에 관하여 우리의 이해관계에 있는 모든 일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유엔군사령부(UNC)는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철저히 보고 해오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차례로 유엔 회원국들에게 회람되고 있습니다. 덧붙여, 우리의 유엔 사절단과 세계 도처의 대사들은 북한의 도발적이고 잔인한 행동에 대해 계속해서 다른 나라들에 알리고 있습니다.

비록 8월 19일의 사고에 대한 대응이 북한에게는 냉혹한 것이었지만, 유엔 총회에서 평양의 유죄를 얻어내기 위한 충분한 표를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맞게 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 미국이 취한 대응은 한국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우리의 참여가 계속 될 것이라는 우리의 결의를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상응하는 억제력을 행사했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몇 가지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은 8월 18일 사고에 대해 전례에 없는 유감 표명을 하였고 평양은 판문점에서 비교적 누그러진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엔에서 북한의 행동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한 가지 흥미로운 징후는 북한의 발기로 한국에 대한 적대적인 결의가 최근 유엔 총회의 심의에서 철회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정보가 당신에게 유용한 것이기를 희망합니다. 만일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하여 당신에게 추후 도움을 될 수 있다면,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어린 마음으로,

존경하는 G. V. 몽고메리
워싱턴 D.C. 20515, 하원

■ 한국

- | | |
|------------|------------------------|
| • 형태 : 비망록 | • 일자 : 1976.9.28 |
| • 발신 : - | • 수신 : Jerry Ford(대통령) |
| • 출처정보 : - | • 관리번호 : CTA0000701 |

6월 버닝트리[Burning Tree, 캘리포니아]에서 가진 대화와 관련하여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내는 대통령의 구두 메시지가 전달되었다. (첨부자료 참조)

대통령은 나에게 강화외교훈장 메달을 수여하였다.

샌프란시스코에서의 토론 중에 한국 안건이 제기될 경우 나는 아래의 요점을 제안한다:

- a. 북한의 노골적인 적대행위와 공격적인 경향을 감안할 때 한국에서 미국을 철수시키는 것은 매우 시기부적절한 것이다.
- b. 일본 국회의원 중 200여명이 한국에서의 자유가 일본의 이익에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 c. 박정희 정권에 의한 자유의 억압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최근의 비판은 과장되고 일면적인 것이다. 정부는 서울에서 단지 35마일 떨어져 있는 적대적이며 공세적인 적을 돕고 고무시키는 이러한 비판을 억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의 비판적 의견과 한국을 방문한 미국 교수들의 비판적 의견이 지금까지 신문 1면에 보도되었다. 북한에는 외신 기자가 들어갈 수 없다.
- d. 남한은 매우 빠르게 극동아시아에서 미국식 자본주의의 모범이 되고 있다. 서유럽과

미국의 불경기 동안에도 남한 경제는 연간 경제성장률 10-12%를 보이며 발전하였다. 그동안 북한 사회주의 경제는 참혹하게 실패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6월 일본과 서유럽 기업들이 연장해준 상업차관 상환과 관련하여 약 2억 달러의 채무를 불이행하였다.

- e. 세계 제2차 대전 기간동안 우리의 자유가 위협받았을 때 미국 정부가 15만 명의 일본계 미국인을 그들의 가정으로부터 수용소로 강제 이주시켰다는 사실 (이는 연방대법원에서 합법적인 것으로 판정되었다)을 감안하면 우리는 [한국의 인권문제에 대하여] 지나치게 비판적일 수 없다.

■ [빌링스씨의 편지에 대한 회신]

- 형태 : 편지
- 발신 : Roland L. Elliott(대통령 특별 보좌관)
- 출처정보 : -
- 일자 : 1976.10.4
- 수신 : Peggy Billings
- 관리번호 : CTA0000774

친애하는 빌링스(Billings)씨께

포드 대통령 각하께서는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한국의 종교계, 정계 그리고 학계의 18명의 저명인사들에 대한 8월 28일(?) 유죄판결과 판문점에서 일어난 북한인들에 의한 두 명의 미국 장교의 비극적인 살해에 관한 당신의 편지에 답장을 보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북한인의 이 잔인한 행동에 대해 미국 정부가 취한 대응은 단호하고 신속한 것이었으며, 한국의 불안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우리의 헌신을 계속 고수하고 그곳에서 복무하고 있는 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해결 방안을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북한인들이 우리가 정전 협정에 부여하는 중요성과 협정의 조항을 이행한 우리 군인들의 생명이 갖는 가치에 대해서 깨닫도록 확실히 하였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세계 주요 강대국들을 연루시킬 수 있는 갈등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제력을 취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급하게 행동을 취했다면 사실 미국이 전쟁을 시작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북한인들의 계략에 빠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이 유리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믿습니다.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은 8월 18일 사고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였으며 북한 당국은 판문점에서 누그러진 태도를 보였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판문점에서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새로운 안전협정을 협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유엔에 이 사고의 자세한 내용을 철저히 보고하였습니다.

최근의 재판 결정과 관련하여, 우리는 한국의 제반 인권 문제뿐 아니라 이 사건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였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내린 이러한 조치에 미국이 관련이 없기도 하고 혹은 있기도 한 많은 사건들에 분명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군사적 지원은 한 개인이나 집단을 지지하기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정부가 자위(自衛)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공되는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불안정한 군사적 균형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8월 18일의 사고가 보여준 것과 같은 긴장들이 여전히 존재할 것입니다. 우리의 군사 주둔과 군사적 지원은 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선 필수적입니다. 또한 저는 그들의 정부가 갖고 있는 내부 정책들에 대한 그들의 비판들이 무엇이든간에 박정희 대통령의 국내 비판가들도 현재의 한국과 미국간의 안보관계의 지속에 대해 지지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진심어린 마음으로,
롤랜드 엘리오프(Roland L. Elliott)
Director of Correspondence

페기 빌링스(Peggy Billings)

[North American Coalition for Human Rights in Korea]

뉴욕주 뉴욕시 리버사이드 드라이브 475번지

(475 Riverside Drive, New York, New York 10027)

■ 국가안전보장회의(1976.12)

- | | |
|--------------------------|---------------------|
| • 형태 : 회의록 | • 일자 : 1976.12.2 |
| • 발신 : 키신저(미 국무부장관) | • 수신 : - |
| • 출처정보 : THE WHITE HOUSE | • 관리번호 : CTA0000804 |

1. 목적

당신과 키신저 장관으로 하여금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구성원들과 군비통제군축국(ACDA, Arms Control and Disarmament Agency) 책임자인 아이클 박사(Ikle)에게 당신의 최근 여행에 관해 설명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

2. 배경, 참석자와 언론 관계

A. 배경 : 당신이 일본과 한국 그리고 소련의 지도자들과 만나 논의한 내용을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구성원들과 아이클 박사가 청취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 될 겁니다. 브레즈네프 서기장과 맺은 전략 무기 제한 협정에 관련한 내용은 특히 그렇습니다. 키신저 장관은 또한 베이징 방문에 관해 설명할 것입니다.

B. 참석자들 :

키신저 국무장관
 솔레진저 국방장관
 콜비(Colby) 중앙정보부 국장
 합동참모회의 의장, 브라운 장군
 군비통제군축국 국장 아이클 박사
 잉거솔(Ingersoll) 국무부 부장관
 클레멘트 국방부 부장관
 대통령 안보보좌관 럽스펠드
 스코크로프트 장군

C. 언론관계 : 모임이 열린 사실은 공개되지만 주제는 공개되지 않을 것이다.

3. 발제(Talking Points)

종합(General)

- 나는 나의 이번 여행이 모든 측면에서 중대한 성공을 거뒀다고 생각한다. 나는 모든 기관들이 언론이나 의회 등을 상대할 때 이 점을 고려하길 바란다.
- 우리는 모두 들떠 있다.

일본

- 과거 일본과의 관계에서 발생했던 모든 이견은 제거되었다.
- 다나카에게 일어난 일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천황과의 만남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이다. 일본에서는 형식과 내용이 분리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번 방문은 우리의 관계가 과거의 장애를 극복하고 완전히 새롭고 견고한 바탕위에 자리 잡았음을 보여 준다.
- 우리가 일본에서 거둔 성공은, 엄밀하게 정의하기는 쉽지 않지만, 아주 실질적인 것이다.
- 안보의 핵심적인 영역에 있어서 일본은 우리에게 안보는 보다 넓은 견지에서 조망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단순히 군사적인 차원이 아니라 에너지와 식량 등의 보다 넓은 차원에서 안보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 에너지 문제에 있어서 일본은 중동 지역의 석유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면에서

다소 취약하다. 더욱이 그들은 우리가 우리의 제안을 실천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전에는 우리의 제안에 착수하길 꺼리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제약 때문에 일본은 우리의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줬다. 그들은 우리의 제안을 통해서 국제적인 에너지 문제에 대처하고 경제 강국으로서의 지위에 상응하는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나는 일본인들에게 베트남에 대한 지원을 증대시킬 것을 제안했고 그들은 그 문제를 검토하기로 동의했다.
- 그들은 분명 우리에게 의존하고 있다. 우리는 그들에게 중요하고 안정적인 식량(특히 콩)과 농축우라늄의 공급원이다.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할 것이다.
- 또 하나 분명히 할 점은 그들이 우리가 일관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점을 확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

- 내가 한국을 방문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만약 내가 한국을 방문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한국을 지원하고 지역의 안정을 지키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을 북한이 과소평가했을지도 모른다.
- 한국의 경제성장은 경이로운 것이다. 서울은 현대적인 미국의 도시처럼 보인다. 고층 빌딩과 자동차들이 넘치고 경제는 분명 번성하고 있다. 나에 대한 환영은 대단했다. 공항에서 호텔까지 2백만명 정도의 사람들이 줄을 서서 나를 환영했다.
- 나는 주한미군에게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들은 사기가 높고 훈련도 잘돼 있었다. 나는 또한 내가 그들을 방문함으로써 미국이 그들을 잊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웠다

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 박정희 대통령은 자신이 북한의 침략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위협받고 있다고 믿고 있었고 최근 발견된 땅굴을 그 증거로 보여줬다. 그는 우리가 줄 수 있는 모든 군사원조를 기대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미군의 주둔을 핵심적인 것으로 여기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더욱 그렇다. 그는 우리가 남한군의 현대화계획을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완수할 것을 바라고 있다. 나는 남한군의 현대화 계획에 대한 우리의 지원을 다시 한번 확인해줬다.
- 나는 박정희 대통령에게 우리가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며 의회의 제한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군사적 경제적 원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나는 또한 데탕트 시기에도 우리의 대한반도 공약을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정부와의 협의 없이 한국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블라디보스톡 정상회담

- 브레즈네프 서기장과의 정상회담은 국제환경에 중요한 변화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 블라디보스톡에서의 우리의 노력이 성공적이었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를 검토해보고 행정부가 전략무기 제한협상(SALT)에 관해 만장일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부가 이 문제에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 물론 다소 부정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우리가 이를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점을 미국인들에게 이해시키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군비경쟁에 제동을 걸었고 이로써 안정적인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미래의 군비통제협상을 촉진시킬 것입니다.

- 나는 우선 전략무기 감축협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블라디보스톡에서 브레즈네프와 나눴던 다른 내용들에 관해 설명하려 합니다. 그런 다음 협상의 세부내용과 배경은 헨리가 설명할 겁니다. 브레즈네프의 방문으로 협정이 확고하게 될 경우 앞으로 6개월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도 헨리가 설명할 겁니다.
- 협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쪽은 각각 2400기의 탄두 미사일을 보유할 수 있으며 다핵탄두 미사일 1320기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2400기 안에는 모든 전략적 탄두 발사체가 포함됩니다. ICBM(대륙간 탄도 미사일), SLBM(위성발사 미사일), 폭격기 등등. 여기에는 또한 미래에 개발될 수 있는 탄두발사체도 포함됩니다. 육지에서 이동이 가능한 대륙간 탄도탄이나 비행기로 투하가 가능한 대륙간 탄도 미사일 등등. 이런 견지에서 나는 사정 거리가 600킬로미터 이상인 공중발사 유도탄을 2400기까지 보유할 수 있다는데 동의했습니다.
- SALT 외에 중동과 사이프러스, 유럽안보회의, 그리고 무역법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 사이프러스와 중동의 상황에 관해서 인식의 새로운 장을 열진 못했지만 그 회담을 통해 나는 소련을 포함한 모든 당사자들이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하고 한계를 인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었습니다.
- 유럽안보회의에 관해 소련은 정상회의 수준으로 높일 것을 갈망했습니다. 이에 대해 나는 주요한 이슈들이 소련과 유럽 국가들의 결의를 요구하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우리가 협상과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과정이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우리는 정상회의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나는 또한 우리가 동맹국들에게 압력을 넣을 수는 없지만 회담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그럴 경우 1975년 봄으로 예정된 회의는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겁니다.

- 무역과 관련해서 소련은 우리가 최혜국 대우를 해주지 않는 것과 이민과 무역의 연계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표현했습니다. 나는 무역법과 관련해 의회와 함께 추진했던 조치들을 재검토했습니다.
- 이제 헨리가 최근의 협상 과정을 설명하고 블라디보스톡 협정이 갖는 의미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줄 겁니다.

*회의의 끝무렵에

- 헨리, 설명 고맙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받아온 비판에 관한 당신의 지적은 특히 좋은 지적입니다.
- 행정부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이번 협정을 열성적으로 지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야 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가서 이번 협정을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브리핑 시점을 국가안전보장회의와 조정해서 우리가 같은 날 한꺼번에 같은 일을 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헨리가 준비를 하고 있죠?
- 우리는 협정에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길 원합니다. 협정은 커다란 성취입니다. 비평가들이 지적하는 핵심적인 요점들, 즉 상한선이 너무 높아서 실질적인 감축이 이뤄지지 않았다, 다핵탄두의 상한선이 너무 높다, 폭탄 용량에 대한 제한이 없다, 협상이 성급하게 이뤄졌다는 점은 논리적인 방법으로 설득할 수 있을 겁니다.
- 나는 의회 지도부에게 이번 협정이 군사력의 수준에 상한을 설정하고 전략 군비 경쟁에 추가적인 안정성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점을 얘기했습니다.
- 협정은 균형을 확립할 것이며 이는 추가적인 감축을 쉽게 만들 것입니다.

- 다핵탄두미사일의 상한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이번 협상을 통해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1년 이상 보다 엄격한 제한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소련은 이에 호응하지 않았습니다.
- 이번 협정은 소련의 다핵탄두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우리의 대응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우리는 폭탄용량을 소련의 수준으로 증가시키고 육상이나 공중에서 이동 가능한 대륙간탄도탄을 배치할 수 있으며 전력의 일부를 바다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도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 우리는 이번 협정이 추가적인 협상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우리는 ‘전진기지체계(FBS, Foward Based System)’와 제 3국에 배치된 전력 같은 민감한 쟁점을 해결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엄격하게 상호주의적인 기초 위에서 미국과 소련의 전력에 초점을 맞춰 대화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이는 미래에 추가적인 군비통제를 더욱 쉽게 달성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우리가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무제한적인 군비경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감소시켰습니다. 만약 이런 두려움을 통제하지 않는다면 미소간의 관계는 완전한 파국으로 치달을 겁니다.

■ [새로운 메모 요청]

- | | |
|-------------------------------|---|
| • 형태 : 전문 | • 일자 : 1976.12.13 |
| • 발신 : Bud McFarlane(백악관 보좌관) | • 수신 : Bill Gleysteen(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보좌관보) |
| • 출처정보 : THE WHITE HOUSE | • 관리번호 : CTA0000737 |

빌 글레이스틴(Bill Gleysteen)

장군께서는 첨부한 문서와 귀하의 편지를 검토하시고 승인된 삭감을 진행시키는 것에 대한 찬반양론을 보여주는 대통령께 드릴 새 메모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는 그것을 내일까지 받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버드(Bud)

■ 한반도

- | | |
|-----------------|---------------------|
| • 형태 : 문서(공보자료) | • 일자 : 1976(추정) |
| • 발신 : - | • 수신 : - |
| • 출처정보 : Korea | • 관리번호 : CTA0000800 |

한반도(Korea)

- 한국은 아시아에서 분쟁이 촉발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지역이다.
- 북한은 우리가 최근 위기에서 보았듯이 중무장된(500,000), 위험하고 공격적인 나라이다.
- 그러므로 미국은 미국의 의무를 견고히 지켜야 하며 이에 대하여 의구심의 여지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
- 아시아에서의 새로운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것은 유일한 방법이다. 8월에 우리가 강력한 입장을 보임으로서 이를 증명한 바 있다.
- 우리 병력(42,000)은 이 정책의 성공에 핵심적이다.
-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하자는 카터와 민주당의 제안은 공격을 부추겨 신뢰의 위기를 가져오기 때문에 위험하다.
- 우리는 1950년의 반복을 원하지 않는다.
- 우리는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회의를 새롭게 제안한 바 있다. 이는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방법이다. 일방적인 철수는 없다.

대한민국

- 우리는 한국의 인권상황에 관하여 우리가 박 대통령과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린 바 있다.

- 우리는 한국이 북한, 소련, 중국 등 적대적 강국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한국은 전복의 가능성과 휴전선 일대에 50만 명의 적군을 동시에 대면하고 있다.
- 우리는 한국 정부가 우리의 기준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력을 철수하거나 군사 원조를 중단하거나 협박할 수는 없다.
- 적대적 세력으로 장악된 한국은 일본의 심장을 겨누는 비수와 같다. 우리가 한국에서의 우리 공약을 지키지 못할 경우 아시아인들은 우리의 신뢰도에 대한 믿음을 상실할 것이다.
- 카터의 철군 공약은 한반도의 안정과 아시아 전체의 안보를 해칠 것이다.

■ [주한 미군 공수군단장에 대한 격려]

- 형태 : 편지
- 일자 : 1977.1.3
- 발신 : Jerry Ford(대통령)
- 수신 : Henry E. Emerson(미 육군 중장 XVIII 공수군단)
- 출처정보 : -
- 관리번호 : CTA0000781

행크(Hank) 씨에게 :

귀하의 친절하고 귀한 편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몇 개월, 몇 년간의 힘들었던 일과 황급한 상황들이 거의 잊혀진 지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저는 우리 동료 미국인들이 저와 저의 전 가족들에게 보여주었던 격려와 호의를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대한 국민들을 위해 복무하는 것은 대단한 영광이었으며 저는 이 엄청난 혜택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의 제2 보병사단(the Second Infantry Division)과 함께 한 저의 유익하고 즐거웠던 방문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리고 저는 귀하께서 XVIII 공수군단(Airborne Corps)의 사령관으로서 얼마나 전문적으로 훌륭히 역할을 다하고 계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귀하에게 축복을!

제 부인과 저는 귀하의 우정과 기도에 마음으로부터 우리난 감사를 드리며 따뜻한 새해 인사를 보냅니다.

Sincerely,
제럴드 R. 포드

제 5 부

1970년대 한미관계(하)

연방준비제도이사회 파일
(Federal Reserve System)



■ [저명인사 강연 특별 연설 요청]

- 형태 : 편지
- 발신 : 루이스 임(중앙대학교 총장)
- 출처정보 : CHUNGANG UNIVERSITY
- 일자 : 1970.1.21
- 수신 : Arthur F. Burns(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
- 관리번호 : CTA0000609

번스 박사 귀하

저는 믿을 만한 소식통으로부터 귀하께서 조만간 일본 오사카의 엑스포 70(Expo 70)에 참가하실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중앙대학교를 대신해, 저는 이 기회에 귀하를 저희 캠퍼스에 초청해 저희 학교 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의 교원들과 학생들, 그리고 관심있는 일반 대중과 전문가들을 위한 루이스 아카데미 저명인사 강연회(the Louise Academy Distinguished Lecture Series)에서 특별 연설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귀하께서 수락해 주신다면, 저희는 1만5천석 규모의 저희 대극장에서 특별 강연을 하신 후 귀하께 저희 재단(Board of Trustees)에서 수여하는 명예 학위를 받으실 것을 추천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귀하의 답을 들을 수 있으면 진심으로 영광이겠습니다.

귀하의 건강, 행복, 전 인류를 위한 성취를 기원하며 깊은 존경을 담아.

Sincerely yours,

루이스 임

총장

■ [중앙대학교 소개]

- 형태 : 전문
- 발신 : 루이스 임(중앙대학교 총장)
- 출처정보 : -
- 일자 : 1970.2.10
- 수신 : -
- 관리번호 : CTA0000609

1. 중앙대학교는 비종파적이며 남녀공학인 한국의 일류 사립대학들 중의 하나입니다.

- a. 중앙대학교는 사우던 캘리포니아 대학(the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에서 학사, 석사 학위를 따고 미국에서 돌아온 임 여사에 의해 1933년에 세워졌습니다.
- b. 이 대학은 1936-37년 애니 메르너 페이퍼 재단(the Annie Merner Pfeiffer foundation)의 보조금 30만 달러로 시작하였습니다.
- c. 1967년쯤 되자 재학생이 약 6500명이었습니다. 5개 단과대학이 있습니다. 인문대학(liberal Arts & Sciences), 법정대학(Law & Political Science), 경상대학(Economics & Commerce), 약학대학(Pharmacy) 그리고 대학원입니다.
- d. 이 대학은 미국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요청했으며 학생들의 학업과 연구를 고무하기 위해 수많은 미국 지도자들을 초청해왔습니다. 최근의 활동 중에는 대학총장연합(Federation of University Presidents)의 설립이 있었습니다. 일련의 국제회의와 관련해서 많은 미국 대학 총장들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근에 <뉴욕타임스>의 슌츠버거(Sulzberger)가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 e. 미국의 지원은 다음 조직에 의해 조직됩니다.

중앙대학교 미국 친우회(American Friends of Chung-ang University)

R. 고든 흑시 박사

17 East 80th Street

New York, New York. 10021

전화: 212-249-1200

- 2. 루이스 임 여사는 매우 활동적인 조직가이며 지도자입니다.

- a. 그녀는 현재 72살입니다.
- b. 그녀가 히로시마 여성신학대학(Hiroshima Christian Womens College)을 졸업했던 1925년, 그녀의 지도교수 중 한 사람이 그녀가 미국에 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 c. 그녀는 일찍부터 리승만 박사를 따랐으며 1948년 리 박사가 첫 정부를 세웠을 때 그녀는 첫 번째 여성 장관(상공부, Commerce)이 되었습니다.
- d. 그녀는 때때로 여러 지위를 맡았지만 대학을 설립하는데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3. 학기는 3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그리고 9월 10일부터 2월 28일까지입니다.
여름방학은 7월 20일부터 9월 10일까지, 그리고 겨울방학은 12월 24일부터 1월 30일까지입니다.

■ [한국 방문 일정 변경]

- 형태 : 전문
- 일자 : 1970.2.20
- 발신 : Arthur F. Burns(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
- 수신 : 루이스 임(중앙대학교 총장)
- 출처정보 : -
- 관리번호 : CTA0000609

임(Yim) 여사 귀하

저는 오랫동안 귀하의 나라를 방문하고 싶어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일로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제 스케줄을 검토해본 바로는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여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귀하의 나라를 방문하게 된다면 진심으로 기쁠 것이며 귀하의 대학에서 학위를 받을 수 있다면 정말로 영광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기간에 방문해도 좋을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간이 괜찮으시다면, 곧 정확한 날짜를 약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With very best wishes, I am,
Sincerely yours,
아서 F. 번스(Arthur F. Burns)

■ [일정 통보 요청]

- 형태 : 전문
- 일자 : 1970.2.27
- 발신 : 김동조(한국 외무장관)
- 수신 : Arthur F. Burns(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
- 출처정보 : -
- 관리번호 : CTA0000609

번스 박사님께

중앙대학교 임 총장과 나눈 귀하의 편지 사본과 함께 저에게 보내주신 2월 20일자 편지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귀하께서 임 박사의 한국 방문 초청을 받아들이시고 중앙대학교에서 명예 학위를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한국은 가을이 특히 아름답습니다. 귀하께서도 분명히 좋아하실 겁니다.

귀하의 일정이 잡히는 대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한국을 방문할 계획으로 귀하와 같이 방문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직접 귀하에게 저희 나라 안내를 해드릴 수 있다면 정말 영광이고 기쁠 일 것입니다.

귀하와 사모님께 인사를 드리며,

Sincerely yours,
김동조

■ [방문계획 변경]

- | | |
|---------------------------------------|---------------------|
| • 형태 : 전문 | • 일자 : 1970.3.3 |
| • 발신 : Arthur F. Burns(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 | • 수신 : 김동조(한국 외무장관) |
| • 출처정보 : - | • 관리번호 : CTA0000609 |

대사님께

제가 방금 중앙대학교 총장 임 박사에게 보낸 편지 사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 방문 계획을 변경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대사님께서 보내주신 편지에 감사드리며 대사님의 한국 방문이 저와 동행할 저의 부인과 저의 한국 방문 기간과 일치한다면 진심으로 기쁠 것입니다. 저의 일정에 대해 반드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사님과 사모님께 저의 아내의 인사를 전합니다.

Sincerely yours,
아서 F. 번스

■ [방문 일정 변경]

- | | |
|---------------------------------------|------------------------|
| • 형태 : 전문 | • 일자 : 1970.3.4 |
| • 발신 : Arthur F. Burns(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 | • 수신 : 루이스 임(중앙대학교 총장) |
| • 출처정보 : - | • 관리번호 : CTA0000609 |

임 여사 귀하

문제가 하나 발생해서 9월 말에서 10월 초, 제가 귀하의 아름다운 나라를 방문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기간에 이곳에 머물러야만 할 것 같습니다.

제 스케줄을 다시 검토해본 결과 6월 25일에서 7월 30일 사이에 방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일정이 귀하의 스케줄에 맞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괜찮으시다면, 귀하께서 가장 편하신 날짜가 언제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오.

갑자기 계획을 변경하게 되어서 유감입니다. 귀하에게 너무 많은 폐를 끼치지 않았기를 바랄 뿐입니다.

With every good wish, I am,

Sincerely yours,

아서 F. 번스

■ [중앙대학교는 아서 번스에게 명예학위를 수여할 예정]

- | | |
|------------------------------|---------------------------------------|
| • 형태 : 편지 | • 일자 : 1970.3.7 |
| • 발신 : 루이스 임(중앙대학교 총장) | • 수신 : Arthur F. Burns(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 |
| • 출처정보 : CHUNGANG UNIVERSITY | • 관리번호 : CTA0000609 |

번스 박사 귀하

지난 2월 20일의 편지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저희의 청을 수락하여 주시고 9월 말이나 10월 초에 방문을 하실 수 있다니 감격스럽습니다.

저희는 귀하의 위업에 어울리도록 가장 중요한 시기에 귀하의 학위 수여식을 하고자 합니다. 이런 생각을 염두에 두고 저희는 1970년 10월 12일 월요일에 저희 대학의 52주년 행사 하이라이트로 귀하에게 학위 수여식을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저명 인사를 모시고 창립 기념 연설을 청하는 것이 저희 대학의 전통입니다. 미국 경제 정책이나 기타 귀하께서 마음에 드시는 주제로 최소 30분에서 최대 60분 정도 길이의 메인 연설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만약 10월 12일이 귀하의 일정에 맞지 않는다면, 귀하께서 편하신 날짜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저희 공식 자료를 위해 필요한 귀하의 약력 사본과 3x4 인치 사이즈의 사진 네 장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With highest esteem and warm regards.

Sincerely,

루이스 임 총장

■ [방문 일정]

- | | |
|------------------------------|---------------------------------------|
| • 형태 : 편지 | • 일자 : 1970.3.12 |
| • 발신 : 루이스 임(중앙대학교 총장) | • 수신 : Arthur F. Burns(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 |
| • 출처정보 : CHUNGANG UNIVERSITY | • 관리번호 : CTA0000609 |

번스 박사 귀하

지난 3월 4일의 편지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처음 잡았던 계획보다 훨씬 빨리 저희를 방문하실 수 있다니 감격스럽습니다.

귀하께서 괜찮으시다면, 다음과 같이 스케줄을 잡았으면 합니다. 1970년 6월 26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저희 대학 강당에서 학위 수여식을 한 다음 저희 대학 회의장에서 리셉션과 오찬을 했으면 합니다. 귀하를 위한 리셉션은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한국관(Korea House)에서 열게 될 것입니다. 1970년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에는 저희 집에서 귀하에게 저녁식사 대접을 하고 싶습니다.

지난번 편지에서 제안했던 것처럼, 귀하께서 수상 소감 대신 미국 경제정책에 관해서나 아니면 기타 귀하께서 마음에 드시는 관련 주제에 관해서 특별 연설을 준비해 주실 수 있다면 영광이겠습니다.

한국에 계시는 동안 귀하께서 박정희 대통령, 정일권 국무총리, 김학열 국무부총리 겸 경제수석(Deputy Prime Minister and Economic Planning Board Minister) 그리고 그 외 저희 나라의 정부와 재계 지도자들을 만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귀하께서 한국에 일주일 정도 머무실 수 있다면 지방의 주요 산업 지역들을 방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답장을 받을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With highest esteem and warm regards.

Sincerely,

루이스 임 총장

■ [한국 여행]

- 형태 : 전문
- 발신 : Arthur F. Burns(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
- 출처정보 : -
- 일자 : 1970.4.1
- 수신 : 김동조(주미 한국 대사)
- 관리번호 : CTA0000609

대사님 귀하

저의 동료, 리드 J. 어빙(Reed J. Irvine)이 귀하에게 저의 이번 한국 여행에 관해 말씀드렸다고 하던데요. 저는 현재의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임 총장과 제가 나누는 편지 사본을 동봉합니다.

제가 한국을 방문할 때 귀하께서 한국에 계실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출발하기 전에 다시 연락하겠습니다.

With kind regard,

Sincerely yours,

아서 F. 번스

■ [한국 방문 일정]

- 형태 : 전문
- 발신 : Arthur F. Burns(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
- 출처정보 : -
- 일자 : 1970.4.2
- 수신 : 서진수(한국은행 총재)
- 관리번호 : CTA0000609

서진수(Jin Soo Suh)

한국은행 총재(Governor, Bank of Korea)

귀하의 전문에 감사드립니다. 한국에 머무는 동안 귀하의 은행에 공식 방문 계획을 짜보겠습니다. 미국 대사관에서 저의 스케줄을 잡고 있습니다. 미국 대사관 측과 적절한 시간을 잡아보세요.

Cordially

■ [일정 조정에 감사]

- | | |
|---------------------------------------|------------------------|
| • 형태 : 편지 | • 일자 : 1970.4.2 |
| • 발신 : Arthur F. Burns(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 | • 수신 : 루이스 임(중앙대학교 총장) |
| • 출처정보 : - | • 관리번호 : CTA0000609 |

일정을 다시 조정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3월 12일자 편지에 나와 있는 일정 제안은 좋습니다. 6월 25일에 서울에 도착해서 6월 30일 오후에 떠날 계획입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프로그램들에 감명을 받았으며 기쁜 마음으로 참가하겠습니다.

박 대통령과 다른 관리들을 만날 수 있다면 영광이겠습니다. 귀하의 편지에 언급되어 있는 오찬, 리셉션, 저녁만찬 외에 다른 약속 스케줄을 잡아달라고 포터 대사(Ambassador Porter)에게 부탁할 것입니다. 저희 이사회의 리드 J. 어빙 씨와 저의 아내가 동행할 것입니다.

Best regards
아서 F. 번스

■ [방문 시 구체 일정]

- | | |
|------------------------------|---------------------------------------|
| • 형태 : 편지 | • 일자 : 1970.4.7 |
| • 발신 : 루이스 임(중앙대학교 총장) | • 수신 : Arthur F. Burns(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 |
| • 출처정보 : CHUNGANG UNIVERSITY | • 관리번호 : CTA0000609 |

번스 박사 귀하

귀하의 4월 3일 전신을 통해 귀하께서 6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국을 방문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귀하께서 전신에서 제안하신 것처럼, 저희는 중앙대학교 교정에서 다음과 같은 일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1970년 6월 25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8시

뉴조신포털에서 중앙대학교 총장 루이스 임 박사가 귀하를 위해 마련한 리셉션

1970년 6월 26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중앙대학교 대극장에서 경제학 명예 박사 학위 수여식

수상 소감을 대신해 번스 박사가 원하는 주제에 관한 번스 박사의 특강

(미국의 경제 정책이나 기타 관련 주제들)

오후 12시 30분

중앙대학교 컨퍼런스 룸에서 뷔페식 오찬

오후 7시

루이스 임 박사가 귀하를 위해 자신의 공관에서 마련한 저녁 만찬

관심있는 사람들, 단체, 연구소들에 적절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귀하의 특강 주제를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정식 수속을 위해 필요한 귀하의 최근 사진 세 장과 약력 사본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도착 비행기 스케줄을 알려주십시오. 저희가 공항으로 마중 나가겠습니다.

With warm regards,

Sincerely yours,

루이스 임 총장

■ [초청에 감사]

- | | |
|---------------------------------------|------------------------|
| • 형태 : 편지 | • 일자 : 1970.4.21 |
| • 발신 : Arthur F. Burns(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 | • 수신 : 루이스 임(중앙대학교 총장) |
| • 출처정보 : - | • 관리번호 : CTA0000609 |

임 박사 귀하

4월 7일의 귀하의 편지에 감사드립니다. 6월 26일 금요일로 예정되어 있는 일정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저는 6월 25일 오후 6시 35분에 서울에 도착할 예정입니다.(KAL 702편을 이용) 따라서 그날 저녁에는 어떤 공식 일정도 잡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6월 26일 금요일에 귀하가 예정해놓으신 일정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다른 추가적인 문제들로 귀하를 귀찮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귀하의 초청에 감사드립니다. 저의 아내와 저는 6월에 귀하를 만날 일을 굉장히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Sincerely yours,
아서 F. 번스

■ [한국은행 방문 요청]

- | | |
|---------------------|---------------------------------------|
| • 형태 : 전문 | • 일자 : 1970.4(추정) |
| • 발신 : 서진수(한국은행 총재) | • 수신 : Arthur F. Burns(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 |
| • 출처정보 : - | • 관리번호 : CTA0000609 |

저희 한국은행에서는 귀하의 이번 6월 25일에서 6월 30일까지의 한국 방문 소식을 듣고 기뻐합니다. 귀하를 저의 공식 손님으로 모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Cordially
서진수
한국은행 총재

■ [리셉션 취소 및 일정 조정]

- | | |
|------------------------------|---------------------------------------|
| • 형태 : 편지 | • 일자 : 1970.5.7 |
| • 발신 : 루이스 임(중앙대학교 총장) | • 수신 : Arthur F. Burns(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 |
| • 출처정보 : CHUNGANG UNIVERSITY | • 관리번호 : CTA0000609 |

번스 박사 귀하

4월 21일의 귀하의 친절한 편지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6월 25일 오후 다소 늦게 도착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했던 리셉션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귀하께서 괜찮으시다면, 이 리셉션을 조신히틀 블룸에서 6월 27일 오후 5시부터 6시 30분까지로 연기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정부와 미국 대사관의 협조를 얻어 귀하와 귀하의 사모님, 어빙 씨를 위한 임시 스케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초안이 완성되는 대로 귀하에게 보내겠습니다. 검토하시고 변경할 것이나 추가할 것을 처리하십시오.

저희가 관심있는 청중들과 언론에 배포할 자료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6월 26일 학위 수여식 다음에 귀하가 하시게 될 강연 내용 사본을 받을 수 있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와 귀하의 사모님, 어빙 씨를 위한 숙소는 서울 시내에 위치해 있어 편리한 조신히텔에 예약했습니다.

미리 언론에 배포할 수 있도록 귀하의 사진을 저희에게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귀하를 공항에서 환영할 날을 기다리며,

sincerely yours,

루이스 임

총장

■ [사진 포장]

- | | |
|------------------------|------------------------|
| • 형태 : 편지 | • 일자 : 1970.5.19 |
| • 발신 : Arthur F. Burns | • 수신 : 루이스 임(중앙대학교 총장) |
| • 출처정보 : - | • 관리번호 : CTA0000609 |

임 박사 귀하

귀하의 요청에 따라 사진을 따로 포장해 보냈습니다.

귀하께서 리셉션 시간을 변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새롭게 제안하신 시간은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하지만 대사관 측에서 저를 위해 준비한 스케줄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귀하께서 대사관을 도와 저의 일정을 마련하고 계시다니 기쁩니다. 조만간 임시 일정을 받아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배포용으로 저의 연설 사본을 보내드릴 계획입니다. 특강 제목은 “자유주의와 독재주의

간의 경제 경쟁(the Economic Contest Between Freedom and Authoritarianism)”입니다.

With best regards, I remain,

Sincerely yours,

아서 F. 번스

■ 한국의 최근 경제발전

- | | |
|------------------------|---------------------|
| • 형태 : 편지 | • 일자 : 1970.6.19 |
| • 발신 : Arthur F. Burns | • 수신 : 김성환(한국은행 총재) |
| • 출처정보 : - | • 관리번호 : CTA0000609 |

최근 한국 경제는 고도의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1969년에 실질 GNP는 1966년에서 1968년까지 매년 평균 12퍼센트 증가했던 것에 비해 15퍼센트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빠른 경제성장률은 부분적으로 자본 형성의 가속(an acceleration in capital formation)에 기인합니다. 1969년 GNP 대비 고정자본 투자는 32퍼센트였습니다. 1968년에는 29퍼센트, 1967년에는 23퍼센트였습니다. 1968~69년 사이의 이러한 자본 형성의 상당량은 해외 차용을 통해 조달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 간 가장 역동적인 분야는 제조업 분야였습니다. 연간 산업 생산량이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생산의 상당 부분이 해외 시장으로 나갔으며 1960년대 연간 수출 증가율은 40퍼센트였습니다. 1960년대 중반 이래로, 이러한 수출 증가가 한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에 주요한 기여를 해왔습니다. 반면에, 농업 생산은 다소 들쭉날쭉해왔습니다. 1967년과 1968년 가뭄으로 인해 농업 생산량은 퇴보했었지만 1969년에는 전체 농업 생산량이 15퍼센트 증가했습니다.

최근 몇 년 간 고신용(a high rate of credit)과 통화 팽창이 있어왔으며 그 결과 중의 하나로 다소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었습니다. 1969년 민간 분야에 대한 은행 신용 미결제 수준(the outstanding level of bank credits to the private sector)은 그 전해보다 65퍼센트 더 높았습니다. 올해 3월에는 일년 전 수준보다 미결제 신용(outstanding credits)이

52퍼센트까지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신용 팽창(credit expansion)의 상당부분이 1969년 중앙 은행 신용(central bank credit)의 35퍼센트 팽창에 의해 촉진되었습니다. 한해 단위로 집행되는 중앙 정부 예산은 한국 통화 팽창에서 특별히 중요한 요소는 아니었습니다. 정부 분야에 대한 미결제 신용량은 현재 상대적으로 적으며 1965년 이래로 점차적으로 감소해왔습니다.

최근 몇 년 간, 통화 팽창이 가속화되어 왔습니다. 1968년 통화비축량(the stock of money)은 25퍼센트 증가했지만 1969년에는 45퍼센트 증가했습니다. 올해 3월, 통화비축량은 일년 전 수준보다 50퍼센트까지 높아졌습니다. 1969년의 통화 팽창을 낳은 주요 요소들은 은행 시스템에 의한 외화 순매(the net purchases of foreign exchange)와 민간 분야에 대한 은행 신용 팽창이었습니다.

한국의 물가는 통화비축량 증가율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비율로 인상되었습니다. 연간 평균 소비자 가격 지표(the average annual index of consumer prices)는 1968년에 12퍼센트, 1969년에 10퍼센트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올 4월, 소비자 물가는 한해 전 수준보다 13퍼센트까지 높아졌습니다. 도매 가격(wholesale prices)은 1968년에 8퍼센트, 1969년에는 7퍼센트 인상되었지만 올 4월에는 한 해 전 수준보다 10퍼센트까지 높아졌습니다. 1969년 제조업 분야 노동자들의 평균 한달 임금은 한 해 전 수준보다 23퍼센트까지 인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실물 지표(real terms)에서 임금 인상률은 13퍼센트였습니다. 실업율은 꾸준히 감소해서 1963년 8.1퍼센트에서 1969년에는 4.8퍼센트로 떨어졌습니다.

국내 자본 형성의 가속에 기여한 주요 요인들 중의 하나는 한국의 금리 정책이었습니다. 정기에금 이자율(the interest rates on time deposits)은 1965년 9월부터 상당히 인상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년 정기에금 이자율은 한 해에 15퍼센트에서 26.4퍼센트로 인상되었습니다. (동시에 대출 금리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예금 금리에 있어서의 이러한 극적인 변화의 결과로 정기 예금과 정기 적금이 1965년 9월의 280억 원에서 1970년 3월 470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1968년에는 정기 예금 및 적금이 98퍼센트 늘어났으며 1969년에는 75퍼센트 늘어났습니다. 같은 기간, 1965년 9월에 전체 통화비축량의 반 정도였던 정기 예금 및 적금은 1970년 봄에는 통화비축량의 두배가 되었습니다.

인플레이션률이 감소하면서, 금융 당국들은 1968년에서 1969년에 예금에 지불되는 이자율을 약간 낮췄습니다. 현재 1년 정기 예금의 이자율은 22.8퍼센트입니다. 중앙 은행 할인율 역시 1969년 6월과 1970년 4월 사이에 28퍼센트에서 24퍼센트로 두 단계 낮아졌습니다.

한국은 고도 수출 성장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 간 무역 적자가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외환 보유고(international reserves)는 민간 자본의 대규모 유입과 순수 민간 자본과 공적 자본의 양도(net private and public transfers) 덕분에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1968년에 수출은 45퍼센트 증가해 4억8천6백만 달러 수준이 되었고 1969년에는 35퍼센트 더 증가해 6억5천8백만 달러가 되었습니다. 1968년에는 수입 역시 45퍼센트 증가해 13억2천2백만 달러가 되었고 1969년에는 25퍼센트 더 증가해 16억5천6백만 달러 수준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무역 적자는 1967년 5억7천4백만 달러에서 1969년에는 거의 10억 달러까지 악화되었습니다. 상당한 자본 순 수입(net import of capital)(1969년 5억6천3백만 달러), 서비스 순 수익(net earnings from services)(1억9천8백만 달러) 그리고 양도 순 수익(net receipts from transfers)(1969년에 2억4천4백만 달러) 덕분에 1969년 한국의 총 국제수지(balance of payments)는 1억4천3백만 달러의 흑자를 보았습니다.(1967년과 1968년에도 흑자가 기록되었습니다.) 1967년 말부터 1969년 말까지 공식 총 외환보유고는 3억5천7백만 달러에서 5억5천4백만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최근 몇 년 간 해외 차용의 상당한 증가로 현재 한국의 해외 채무 관계 이행 능력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IMF와의 1970년 3월 긴급 비상 합의(stand-by arrangement)를 통해 기업 신용에 있어서 만기일을 최대 10년까지로 하는 제한을 두었습니다.

한국 당국은 수출을 수입보다 빠르게 확대함으로써 미래에 무역 활동을 개선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 그들은 수출에서는 40퍼센트의 확대를, 그리고 수입에서는 10퍼센트의 확대만을 이루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러한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최근 몇 년간의 국내 인플레이션을 때문에 원의 평가절하에도 불구하고 원화 대비 외화 환율이 점점 더 과대평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1965년 초부터 1968년 7월까지 내내 달러당 274원 정도로 안정되어 있었던 원은 외화 시장에서 점차적으로 평가절하되었고 1970년 4월에는 환율이 달러당 308원이었습니다. 이것은 11퍼센트의 가치하락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도매물가는 1965년 3월과 1970년 3월 사이에 47퍼센트 인상되었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을 간략하게 검토해보면, 한국이 여러 가지 중대한 문제점들에 처해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에는 민간 신용 확대(private credit expansion)에 대한 더욱 강력한 규제, 외화 시장에서 원화의 과대평가를 근절시키기 위한 여러 조치들 그리고 외국 채권자들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한 해외 차관의 효율적인 이용 등이 포함됩니다. 한국이 고속 경제 성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한다면, 이 세 영역 모두에서 시기적절한 조치들이 중요합니다.

작성자 : 로버트 F. 에머리(Robert F. Emery)

국제금융부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부서(Asia, Africa & Latin America Section, Division of International Finance)

1970년 6월 19일

주제 : 한국에 대한 기본적 자료

<대한민국>

1. 기본 자료

- 인구 : 3천5십만. 인구성장율 2.3%.
서울 : 450만(북-천3백만)
- 노동인구 : 농업, 임업, 어업 인구가 50%를 약간 넘고 서비스 업계에 15%, 상업에

11%, 제조업에 15%. 실업율은 약 5.1%. 심각한 불완전고용 상태-노동인구의 80% 이상이 자영업이거나 가내노동자들이다.

- 군대 : 세계에서 15번째로 큰 군대. 60만 명의 군인.
- 교육 : 전통적으로 교육을 강력하게 강조해옴. 6학년까지 의무교육. 초등학교나 중등학교 인구 24.1%. 고등학교 이상 교육기관에 56%.
- 식자층 : 6살 이상 인구의 거의 90%.
- 승인 : 평양 정권을 승인한 나라는 34개국인데 반해 한국은 80개국이 승인함.

2. 경제 지표

- GNP : 1968년 실질 성장 13.3%. 1969년 15% 예상. 이것이 달성된다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 (북-1965-67년, 4% 정도로 추정, 하지만 신뢰할 만한 정보나 통계치가 없음)
- 농업 및 어업 : 농업 및 어업이 GNP의 대략 29% 기여. 쌀은 가장 중요한 작물이지만, 정부는 다작화를 장려. 제3차 5개년 경제계획(1971-1975)은 농업 분야 성장에 초점을 둘 것임. 한국은 1970년대에 식량 작물 생산에서 자급자족 달성을 희망함. 대부분의 어업은 근해 어업임. 북태평양에서 심해 어업을 하기도 하고 남태평양에서 참치 잡이를 하기도 함.
- 쌀 생산 : 증가 추세. 1969년 추정 수확량은 410만 톤. 한국인들은 생산량이 더 높은 종자개량을 연구 중.
- 곡물 조달 : 1968년에 쌀 24만6800 톤, 1969년에 76만 톤. 2년 연속 가뭄으로 인한 결과. 1970년에 곡물 비축용으로 쌀 조달을 고려 중. 1969년에 PL 480 밀 대략 65만 톤을 받음.
- 공업 : 공업 분야가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음. 1968년 GNP에 25% 기여.
- 제조업 : 1968년에 28.5% 성장. 1969년 성장률은 이보다는 낮기는 하지만 여전히 왕성함. 주요 생산품: 섬유, 비료, 유리, 합판, 의약품, 자동차 타이어 그리고 자동차 조립-일본 도요타와 포드 코르티나(Ford Cortina).
- 광업 : 제한된 천연자원. 석탄, 텅스텐, 철이 가장 중요. 석탄을 제외하고는 생산량은 수출 필요량에 주로 의존.

- 석유 : 육지 쪽 석유 매장량은 알려져 있지 않음. 최근 근해 지역 조사에 의하면 황해에서는 가망성이 있음. 칼텍스(Cal Tex), 걸프(Gulf), 셸(Shell, Dutch)사와 근해 석유 탐사 합의에 서명함. 두 개의 석유 정제소가 가동 중. 세 번째 정제소가 생길 가능성도 있음. 현재의 총 정제 역량은 115,000 bbls/da.
- 외국 투자 : 1962년 이래로 민간 해외 투자가 가속화되었음. 미국의 민간 투자는 현재 6천56만 달러. 기타 3천만 달러. 1968년에 시작된 일본 민간 투자는 급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IBRD는 투자 분위기가 유망하기는 하지만 불안하다고 기술함.

무역

매년 수출과 수입이 40% 이상 증가. 일본은 한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 그 다음이 미국.

- 미국과의 무역 : 미국에 대한 수출 증가 추세(1968년에 2억3천5백만 달러),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감소(1968년 4억5천2백만 달러). 미국은 상업적 수입 시장의 약 21%를 차지. 한국은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큰 미국의 시장.
- 무역 수지 : 심각한 무역 적자. 1968년에 14억 달러. 한국 정부는 수입 속도를 늦추려고 함. 하지만 1969년 여전히 갭이 클 것임.
- 주요 수출품 : 합판, 섬유, 생사, 가발.
- 주요 수입품 : 밀, 면화, 철강.
- 외화 보유고 : 지난 몇 년 간 극적으로 증가. 현재 약 5억 달러.

3. 경제 문제들

- 채무 부담 : 1970년대 초반에 만기일이 다가오는 단기, 중기 채무들 상환 능력 압박이 있을 것임. 한국 정부는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IMF와 협력 하에 개선 조치를 취하고 있음.
- 인플레이션 : 인플레이션 압박이 증가. 최근 한국 정부는 디플레이션 조치를 발표. 엄격하게 실행된다면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임. 환율 상승 허용.
- 미국의 수입 규제 : 미국의 수입 규제로 수출 확대 속도가 늦어짐. 1968년 한국의 미국 수출품의 2/3는 섬유였음. 한국은 또한 다른 민감한 품목들, 전자 부품, 신발 등의 미국 수출에서도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베트남에서의 수익 감소 : 베트남의 경제성장 둔화는 베트남으로부터의 외자 수익의 감소를 의미하게 될 것임. (1968년 1억6천9백만 달러)
- 미군 소비 삭감 : 한국에서의 미군 지출의 감소가 한국의 외자 수익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1968년 약 1억5천만 달러)
- 도시, 시골 소득 격차 : 성장과 발전의 혜택이 대부분 도시 인구에게 돌아감. 농부들의 몫도 개선되었지만 도시-시골 격차는 더 커지고 있음. 정부 계획은 시골 지역 개발에 집중되어 있으며 산업을 지방으로 분산시킬 계획.
- 면직물 쌍무협정(Cotton Textile Bilateral) : 일본과 홍콩과 비교하면 할당량이 매우 적음. 합성섬유까지 포괄하는 새로운 합의가 부담을 더하게 될 것임.

4. 외부 원조(External Aid)

- 경제 원조 : 1946-1968년 총 경제 원조는 46억 달러였음. 이 중 43억 달러가 보조금이었고 3억7천6백20만 달러가 차관이었음. 그 기간 동안 AID는 보조금으로 25억 달러를, 그리고 차관으로 2억9천5백만 달러를 제공하였음. 나머지 원조는 P.L. 480 프로그램 형태로 9억1천6백10만 달러였고 기타 다른 경제 프로그램에 의한 것임. AID 보조금 원조는 FY 1970 이후에, 그리고 성장 차관(development loans)은 바로 그 직후에 끝날 예정임. 기술 지원 프로그램과 P.L. 480은 몇 년 간 더 지속될 것임.
- 일본 자산 청산(정상화) : 10년 간 10억 달러의 보조금, 차관, 상업 신용대부(commercial credits) 프로그램. 일본은 포항 제철소에 자금을 지원할 것임.
- 세계은행 그룹(IBRD, IDA, IFC) : 교통수단, 고속도로, 관개, 직업 교육, 펄프 산업과 실크 산업에 총 1억1천3백만 달러 상당의 차관 7건.
- 미국 Ex-Im 은행 : 한국에 최근 공개적으로 나온 액수는 총 1억6백만 달러. 차관, 수출업자 신용대부(exporter credits), 담보(guarantee). 원자력 발전소를 비롯해 주로 전력 분야에 초점을 둠. 또한 위성 기지(satellite station), 섬유 공장, 디젤 기관차, 항공기. 은행 측에서는 당분간 한국에 현재 수준 이상을 초과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음.
- 아시아개발은행 : 서울-인천 간 고속도로(680만 달러)와 냉장 보관 회사(cold storage company, 7백만 달러)에 차관.

- 제3국 지원 : 유럽 국가들 -주로 독일, 이탈리아, 미국, 프랑스- 이 정부 차관(독일), 정부 보증 상업 차관들 제공. (IBRD 회장 직속)한국 자문 그룹(Consultative Group for Korea)이 한국 투자 기회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통합시키려고 노력함.

출처 :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문제국(Bureau of East Asian & Pacific Affairs)

1969년 12월 8일

주제 : 한국의 주요 정치인 분석

박정희 대통령

박 대통령은 1961년 군사쿠데타를 통해 권좌에 오른 이후로 한국인들의 정력적이고 성공적인 지도자였다. 자신의 나라를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데 헌신적인 그는 또한 한국의 복지를 위한 그의 기여가 한국 역사상 그 누구에게도 비할 수 없을 정도라는 것을 예리하게 자각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독재적인 방식에 의해서라기보다 서로 다른 개인과 파벌들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기술을 통해 정치적 안정을 유지해왔다.

국제 관계에 있어서,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들과의 타협과 화해에 대해 자국민들과 똑같이 불안과 위기를 느끼고 있는 것 같다. 경제 분야에서, 그는 미국의 조언을 상당히 따라왔으며 이데올로기와 무관하게 경제 성장을 가장 잘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지는 프로그램들을 선호해왔다.

현재 51살인 대통령은 가난한 시골 가정 출신이다. 그는 자마(Zama)의 일본 군사학교(Japanese Military Academy)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처음에는 일본에서 장교로 복무했고 나중에는 한국 육군에서 장교로 복무했다. 그가 주도했던 1961년 쿠데타 당시, 그는 국군 육군 제2사단의 부사령관(Deputy Commander of the Second ROK Army)이었다. 그는 대통령직을 위해 1963년 군대에서 제대했으며 1967년에 51%의 득표율로 재선되었다. 그는 영어를 하지 못한다.

정일권 국무총리

정일권은 지적이고, 품위있으며 정력적인 전 장성 출신으로 능력있는 행정가일 뿐만 아니라 기민하고 조심성 있는 정치인이다. 그는 뷔앙스와 암시에 민감하다. 함께 있으면 유쾌한 사람으로 그는 훌륭한 주최자이며 파티와 포커를 즐긴다.

정 씨는 박 대통령이 물러나게 되면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지목되어 왔다. 하지만 개인적인 정치적 배경이 약하고 북에서 태어났다는 사실 때문에 핸디캡이 있다. 박 대통령은 최근 학생 시위 등과 같은 수많은 중요한 문제들을 처리할 때 그에게 의존하는 듯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박 대통령과 특별히 친한 사이는 아니다. 그는 정치적 생존 본능이 뛰어나다.

베트남 문제에 있어서 강경파인 정 씨는 그 자신을 아시아 정치군사적 문제에 관해 한국에서 가장 능력있는 분석가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며 아마도 그것이 맞을 것이다. 그는 한국에서 그러한 문제들에 주로 관심을 기울여왔으며 모든 국토 방위 활동들에서 최고 조정자로서 효과적으로 역할을 해왔다.

현재 51살인 정 씨는 일본 제국 사관학교(the Imperial Japanese Military Academy)와 일본 군관학교(the Japanese Command and General Staff College)를 졸업했다. 그는 1945년까지 일본 육군에서 대위로 복무했다. 1951년에 한국 육군이 창설되었을 때 이곳에 들어간 그는 한국의 첫 번째 삼성 장군이 되었다. 한국 전쟁 시기 그는 육군 참모총장으로 매튜 리지웨이(Matthew Ridgeway) 장군과 긴밀하게 일했다. 1956-57년 합창의장을 지낸 그는 터키 대사로 가면서 제대했다. 그때 이후로 그는 프랑스 대사로, 그리고 미국 대사로 두 번 복무했다. 그는 미국에 우호적이다.

정 씨는 일본어와 중국어를 유창하게 하며 영어도 상당히 잘한다.

김학열(Kim Hak-yul) 국무부총리 겸 경제수석

(Deputy Prime Minister and Minister of the Board of Economic Planning)

김학열 국무부총리 겸 경제수석은 관료 제도를 통해, 그리고 주로 자기 자신의 힘만으로 지금의 고위직에 올랐다. 그의 이전의 지위인 대통령 경제 문제 고위 서기관(the

Senior Presidential Secretary for Economic Affairs)으로 일할 때 그는 경제 문제에 관해서 박 대통령의 눈과 귀였으며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전 부총리가 한국의 제철소 자금 조달 문제를 다루는 방식을 효과적으로 비판할 수 있었다. 김 씨가 DPM 일을 맡은 이유는 아마도 대통령이 생각하기에 그가 제철소 문제에 있어 제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며 이 과제를 그는 성공적으로 해결해 왔다.

김 씨는 훌륭한 경제학자로 한국인들 사이에서 평이 좋다. 그는 설득력 있고, 명확하며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으로 경제 각료들 사이에서 지도자가 되려는 확고한 결심을 가지고 있다.

김 씨는 서울에서 AID 관리들과 종종 접촉하고 있으며 그들의 조언을 원하는 것 같다. 그는 사람들에게 솔직하고 어떤 매력을 풍기지만 잡담에는 거의 관심이 없는 철두철미하게 사업적인 인물이다. 그의 영어는 유창하지는 않지만 충분하다.

남덕우 재무부장관

남덕우는 1969년 10월에 재무부장관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박 대통령이 연속 세 번째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하기 위한 성공적인 캠페인 이후의 내각 부분 개편에서 임명되었다. 남 씨는 그 전에 서강대학교 경제학 교수였다. 그가 정부 장관직을 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그는 재무부에 강력한 학술적 배경과 뛰어난 경제적 능력을 가져왔다.

남 씨는 민주공화당(the Democratic Republican Party) 내의 다양한 파벌과 그룹 중 어느 것보다 눈에 띄는 관계는 없다. 그는 일반적으로 대통령의 개인적 선택으로 재무부를 맡게 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정치적 기반이 없는 새 재무부장관으로서, 남 씨는 그의 권한과 영향력의 범위를 설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남 씨는 상냥한 사람이다. 그는 아주 지적이며 전문적인 문제들에 대해 항상 솔직하게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의 금융관은 전체적으로 서울의 미국 관리들의 견해와 일치한다. 그는 전체적으로 더 강력한 통화 규제를 선호하며 한국의 환율에 관해 좀더 현실적인 정책을 따르게 될 것이다. 그는 원화 환율이 더높게 설정되어야만 한다고 박 대통령에

계 조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남 씨는 전 부총리 장기용(Chang Ki-Yong, 1964-1967)의 ‘과열된 경제 정책(overheated economic policies)’에 대해 처음으로 경고한 사람 중의 하나이다.

남 씨는 1924년 10월 10일 경기도 광주에서 태어났다. 그는 1950년 서울의 국민대학에서 정치학 학사 학위를 받았다. 그리고 나서 그는 1952년부터 1954년까지 한국은행에서 일했다. 그는 1956년에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다음해 미국 연구 전문가 장학금(US Research Specialist Grant)으로 오클라호마 주립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서울로 돌아왔고 1961년에 과세 시스템 검토 위원회(the Taxation System Review Board) 위원으로 임명받았다. 1962년에 그는 서울 대학교 법대와 연세대학교 강사가 되었다. 2년 뒤, 그는 서강대학교 상경대학장(chairman of the Commerce and Economics Department)으로 임명되었다. 1966년 그는 국가안보위원회 산하 국가 동원 시스템 연구 위원회(the National Mobilizations Systems Research Committee) 위원으로 임명되었다. 1967-68학년도 그는 스탠포드 대학에서 수리경제를 공부했다. 그는 1967년에 한국 정부의 경제과학심의위원회(Economic and Scientific Council) 위원으로 임명되었다.

남 씨는 1954-64년 사이 <경제학사>, <가격론> <통화량 결정요인과 금융정책> 등 적어도 세 권의 저서를 썼다. 마지막에 열거된 저서는 the US Operations Mission의 연구 보조금으로 쓰여졌다.

남 씨는 결혼해서 두 아이를 가지고 있다. 그는 영어를 잘 이해한다. 그의 아내는 제한된 영어만을 구사한다.

■ [번스 박사가 김성환 한국은행장을 방문함]

- | | |
|-----------------|---------------------|
| • 형태 : 비망록(대화록) | • 일자 : 1970.6.27 |
| • 발신 : - | • 수신 : - |
| • 출처정보 : - | • 관리번호 : CTA0000612 |

대화록

장소 : 번스 박사가 김성환 한국은행장을 방문함

참석자 : 배 씨, 어빙 씨, 토마스 올스테드(Thomas Olmsted), 칼 밀러(Carl Miller)

번스 박사가 인플레이션 통제가 되고 있는지 질문했다.

김 총재는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인플레이션은 전세계적인 문제다. 한국은 심각한 인플레이션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점차 잡히기 시작하고 있다. 번스 박사의 미국에 대한 전망은 어떤가.

번스 박사는 그리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실업율이 증가하겠지만 생산량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가을에 증가하기 시작할 것이다.

김 총재는 미국의 통화 정책 조치에 대해 관심을 나타냈다.

번스 박사는 이사회가 6월 23일 고액 CD 이자율 상한선을 없애는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이제 대규모 은행들은 필요에 따라 어떤 이자율이든 지불할 수 있게 됐다. 이 조치는 은행들이 시장으로 진출해 자금을 확보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행해졌다. 이것이 인기가 떨어진 상업어음을 만회해 줄 것이다.

김 총재는 Q 규제(Regulation Q)가 폐지되었는지 물었다.

번스 박사는 폐지되지는 않았지만 그 범위가 많이 제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것은 단기 정기예금에서는 유지될 것이다.

그는 고려 중인 또다른 정책 변화는 할인율 기제의 운영(the working of the discount rate mechanism)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아마도 이것을 변화시킬 것이다. 또한 대통령은 최근 금융 구조에 관한 위원회를 지명했다. 그는 이 위원회가 주택건설과 같은 다양한 영역들에서 통화 정책이 미치는 불규칙한 영향들을 연구하게 되기를 희망한다. 또다른 문제는 중앙 은행 권력을 상업 은행들에만 제한한 것이다. 우리는 다른 금융 기관에까지 이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그는 Q 규제를 바꿈으로써 미 연방준비제도가 상업어음 시장의 규모를 축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이것은 규제되고 있지 않다. 그는 상업은행들을 통해 자금을 흘러 보내기를 원한다.

번스 박사는 한국은행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물었다.

김 총재는 9명으로 구성된 금융 이사회(Monetary Board)가 있어 한달에 두 번 정기적으로 만난다고 이야기했다. 금융 이사회는 한달에 두 번 특별 회의를 갖는다. 재무부장관은 이 금융 이사회에 멤버이지만 잘 참석하지 않는다. 그는 차관(리재설)을 보낸다. 김 총재는 자신이 이사회 회의를 주재한다고 말했다.

번스 박사는 주로 어떤 금융 정책을 사용하는지 물었다.

김 총재는 다양한 기제를 시도한다고 말했다. 그들은 1965년에 중요한 이자율 개혁을 단행했다. 여전히 자금 수요가 초과 상태이다. 그들은 통화 공급에 상한선을 설정하기는 했지만 규제하기가 어렵다. 그들은 또한 지불준비금(reserve requirements)과 통화안정증권(the stabilization bonds)을 사용한다. 은행들은 이 통화안정증권을 사야만 한다. 외자유입이 미치는 영향이 큰 문제이다.

번스 박사는 변동환율에 대해 질문했다. 언제부터 변동환율제를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김 총재는 원칙적으로는 변동환율제가 실행되지만 물가가 상승하는 반면 환율은 고정된 채였다고 말했다. 외자의 유입이 많다.

번스 박사는 현재 원화가 평가절상되어 있지 않은지 물었다.

김 총재는 갑자기 환율을 변동시키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들은 물가 인상과 환율이 균형을 이뤄 상승하기를 원한다.

어빙 씨는 원가 상승과 환율의 상대적인 안정성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질문했다.

김 총재는 그들은 다양한 수출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변동환율제를 선호한다. 그들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고정환율제를 유지할 수가 없다. 그들은 빠른 성장을 원하고 인플레이션은 불가피하다.

번스 박사는 한국의 인플레이션율이 다른 나라들보다 높아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김 총재는 꼭 그럴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번스 박사는 인플레이션율이 빠르게 높아지지 않는다면, (외국 통화와의) 등가(parity)가 고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움스테드 씨는 한국은 9퍼센트의 인플레이션율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재는 번스 박사의 강연에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자유시장 제도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개발도상국가에서 이것을 피할 수 있을까?

번스 박사는 전매 요소들(monopoly factors)이 있는 소규모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개입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 총재는 한국의 최우선적 과제는 안정성 있는 성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번스 박사에게 정책 제안이 있는지 물었다.

번스 박사는 어떤 확실한 제안을 할 만큼 잘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한다면, 성장률도 나빠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경험에 의하면 인플레이션은 비능률성을 비롯한 여러 문제들을 유발한다.

번스 박사는 김 총재에게 재무부장관의 연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김 총재는 남 박사가 논리적이고 사리분별력이 뛰어나다고 말했다. 그는 그의 의견에 동의한다.

● 역자 소개 ●

정 일 준

약력 : 서울대학교 문학박사,
하버드대학교 예칭연구소 방문연구원,
워싱턴대학교 방문교수 겸 강사,
아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사회학과 교수

논문 : 「한국 사회과학 패러다임의 미국화」,
「미국의 냉전문화정치와 한국인 친구만들기:
1950, 60년대 미공보원의 조직과 활동을 중심으로」 등

해외수집기록물 번역집 II

1970년대 한미관계(하)

발간총괄	설 문 원(기록정보서비스부장)
편집 및 교정	김 창 수 (기록편찬문화과장) 이 진 영 (편찬·콘텐츠팀장) 위 영 (학예연구사) 정 수 진 (기록연구사) 변 석 영 (행정주사) 박 유 진 (행정주사보)
발행처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기록편찬문화과
발행일	2008년 12월
연락처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2동 504호 TEL : 042) 481-6398 FAX : 042) 481-6371 홈페이지 : www.archives.go.kr
인 쇄	청맥기획 042) 487-2589

※ 이 책자의 저작권은 국가기록원에 있으며, 사전 허락없이 무단으로
복제·배포할 수 없습니다. <비매품>

